

2019 그리스도인의 영화이야기

기독교복음사역원

메시지사역장 손 영

2019 그리스도인의 영화이야기

1. "언니" No Mercy
2. "말모이" MAL·MO·E: The Secret Mission
3. "극한직업" Extreme Job
4. "사바하" Svaha: The Sixth Finger
5. "뺑반" Hit-and-Run Squad
6. "증인" Innocent Witness
7. "드래곤 길들이기3" How to Train Your Dragon: The Hidden World
8. "자전차왕 엄복동" Race to Freedom: Um Bok Dong
9. "항거: 유관순이야기" A Resistance
10. "캡틴마블" Captain Marvel
11. "기묘한 가족" THE ODD FAMILY : ZOMBIE ON SALE
12. "돈" Money
13. "어스" Us
14. "우상" 偶像, Idol
15. "어벤져스: 엔드게임" Avengers: Endgame
16. "악질경찰" Jo Pil-ho: the dawning rage
17. "생일" Birthday
18. "미성년" Another Child
19. "이스케이프 룸" The Escape Room
20. "악인전" The Gangster, The Cop, The Devil
21. "걸캅스" Miss & Mrs. Cops
22. "기생충" PARASITE
23. "사자" The Divine Fury
24. "알라딘" Aladdin 2019
25. "나랏말싸미" The King's Letters 2019
26. "엑시트" EXIT
27. "마담 싸이코" Greta, 2018
28. "비스트" THE BEAST
29. "진범" The Culprit
30. "봉오동전투" 戰鬪, The Battle: Roar to Victory
31. "라이온킹" The Lion King, 2019
32. "김복동" My Name Is KIM Bok-Dong 2019
33. "광대들: 풍문조작단" Jesters: The Game Changers 2019
34. "레드슈즈" Red Shoes 2019
35. "변신" 變身, Metamorphosis, 2019

36. "암전"Warning: Do Not Play
37. "타짜:원 아이드 잭"Tazza: One Eyed Jack, 2019
38. "나쁜녀석들:더 무비"THE BAD GUYS: REIGN OF CHAOS
39. "커런트 워"The Current War, 2017
40. "신의 한 수:귀수편"The Divine Move 2: The Wrathful
41. "퍼펙트맨"Man of Men, 2018
42.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Terminator: Dark Fate, 2019
43. "블랙머니"BLACK MONEY, 2019
44. "겨울왕국2"Frozen 2, 2019
45. "엔젤 해즈 폴른"Angel Has Fallen, 2019
46. "시동"START-UP 2019
47. "백두산"ASHFALL, 2019
48. "천문:하늘에 묻는다"Forbidden Dream

1. "언니" No Mercy

한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9.01.01

감독,각색:임경택, 제작:필름에이픽처스

주연:이시영,박세완,이준혁,최진호, 관객:198,229명(2019.01.20.)

자동차로 카센터에 도착한 "박인애"(이시영역)가 차에서 내려 오장석을 해머로 내리쳐 버린다. 며칠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박인애가 집주소를 찾아 동생 "박은혜"(박세완역)를 만난다. 집에서 함께 짜장면을 먹은 후 박인애는 은혜에게 머리핀을 선물하고 은혜는 머리핀을 꽂으며 좋아한다. 인애가 주말에 엄마아빠를 만나러 가자고 하자 은혜가 학교가는 것이 싫어서 내일 바로 가자고 말한다. 철없는 은혜를 위해 인애는 늘 근심이다. 다음날 은혜가 학교에 간후 인애는 은혜의 편지와 선물을 바라본다. 은혜는 인애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 옷과 구두를 선물로 남겨 두었다.

학교길 은혜가 교실을 나가려 하자 "문혜미"(문수빈역)가 막아서며 은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친구들은 노래방에서 술을 곁들여 마시며 은혜를 감금하듯 하고 있다. 은혜가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지만 은혜의 옷을 벗긴채 동영상을 찍는다. 문혜미와 친구들은 은혜의 동영상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 즉, 성매매에 나선 은혜가 모텔에서 룸 호수를 알려주면 남자들이 급습하여 때리고 돈을 빼앗는 것이다. 그날밤 은혜가 모텔방 화장실에서 문자를 보내던 중 "하상만"(이형철역)이 문을 두드리자 겁에 질린 은혜가 도망을 치다가 하상만에게 붙잡힌다.

은혜의 귀가가 늦어지고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자 인애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학교를 찾아간다. 은혜의 자리는 비어 있다. 이때 "김소영"(김예진역)이 친구와 마주치며 화장실에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인애는 교무실에서 담임을 만나지만 담임선생은 별일 아닌 듯 무관심하다. 은혜의 친구 중 하나가 동영상 메시지를 받고 교무실을 나오는 인애를 찾아 동영상을 보여 주는데 친구들이 은혜의 옷을 벗기는 동영상이었다.

수업이 끝난후 문혜미와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나오려 할 때 인애가 화장실 입구를 차단하며 은혜의 행방을 묻는다. 인애를 쉽게 본 "지우"(주인서역)가 비웃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인애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로 제압해 버린다. 인애는 혜미와 함께 작업을 하는 남자들을 찾는다. 인애가 이들을 제압하며 은혜의 행방을 되묻고 남자는 해피캐시 명함을 건넨다. 상황은 반전이다. 전날밤 남자들은 모텔 403호에서 은혜가 보낸 문자를 받고 기습한다. 그러나 하상만이 칼을 자신의 다리에 찌르며 반대로 협박하고 은혜를 데리고 가려면 천만원을 가져올 것을 말한다.

해피캐시의 명함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인애는 경찰에 전화해 실종신고를 한다. 경찰은 절차상의 이유로 경찰서로 와서 서류작성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한편, 하상만은 “정사장”(김원해역)을 찾아 은혜의 안부를 묻는다. 정사장은 하상만에게 천오백만원을 건네며 미성년자 여부를 물어본다. 하상만은 정사장의 테이블에서 권총을 발견하고 5백만원에 총을 산다. 안마방 “여종업원”(윤송아역)이 은혜에게 식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은혜는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을 한다. 여종업원이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때리자 머리에서 인애가 사준 머리핀이 떨어진다.

인애가 해피캐시 사무실을 찾자 “직원”(안세하역)이 문을 열다가 되닫으려 하고 인애가 하상만이냐고 묻는다. 직원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잠시후 직원이 인애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인애가 전기충격기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나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안마방에서는 여직원이 은혜를 교육하지만 은혜가 반항하며 뒤쫓아온 정사장까지 물어 뜯어 버린다. 화가 난 정사장은 하상만에게 전화하며 환불할테니 데리고 가라고 고함을 지른다.

인애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해피캐시 직원이 알려준 자동차 번호를 확인한다. 다음날 아침 인애가 하상만의 자동차를 추적하고 있다. 정사장은 하상만에게 환불 요청을 하고 하상만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가겠다고 말한다. 인애는 하상만에게 전화를 해서 은혜학생의 위치를 물어보고 차를 들이 받아 버린다. 교통사고인줄 착각한 하상만이 뒷목을 잡으며 차에게 내리자 인애가 하상만에게 다가가 전기충격기로 기절시켜 버린다. 인애가 하상만을 포박한 후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을 말한다. 하상만이 방향을 돌리며 공사현장으로 돌진하지만 인애가 다시 하상만을 제압하여 버린다. 인애가 안마방으로 전화해 정사장과 통화하고 하상만의 이름이 거론되자 안마방으로 향한다. 안마방 여직원의 머리핀을 이용해 순간 제압하고 남자직원은 전기충격기로 기절시켜 버리며 사장 사무실로 바로 진입한다. 그러나 정사장이 돈을 이미 지불한 것이라고 거절하고 인애는 납치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공방이 시작된다. 인애가 정사장을 누르자 정사장이 여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고 여직원은 그 동안의 이야기를 전한다.

은혜는 “한정우”(이준혁역)를 보며 자기 집에 가는 것이냐고 묻지만 한정우는 먼곳으로 간다며 휴게소에 주차한다. 은혜가 잠자는 것처럼 하자 한정우가 휴게소로 가고 은혜가 이 틈을 노리고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타 도망하려 하지만 한정우가 다시 버스를 막고 은혜를 데리고 가버린다. 한정우는 아파트 신축부지에 있는 “박영춘”(최진호역)에게 은혜를 데리고 간다. 정신을 회복한 하상만이 동생의 여부를 알았으니 인애에게 풀어 달라고 말한다. 하상만이 은혜가 먼저 패거리들과 사기를 친 것이라고 강변하며 몸부림 치고 인애가 후진하여 자동차 뒷문이 열리면서 하상만이

차에서 떨어진다. 인애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떠나 버린다.

한정우는 은혜에게 숨어서 살지 왜 전화를 한 것이냐고 묻는다. 하루전 한정우는 박영춘과 술을 마시고 있다. 은혜는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한다. 인애는 행운수퍼를 찾아가 전화온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수퍼주인 부부가 은혜로 인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퍼주인 남자가 은혜의 몸을 더듬은 것이다. 인애가 수퍼주인의 손을 꺾으며 은혜의 행방을 묻는다. 수퍼주인은 단지 돈을 갈취하려는 줄 알고 사진관에 전화했다고 말한다. 며칠전, 사진관 주인은 수퍼주인의 말을 듣고 은혜의 증명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며 몸을 더듬는다. 그후 카센터 주인이 나타나고 카센터 주인도 차 안에서 은혜에게 돈을 주고 몸을 만진다.

인애가 사진관을 찾자 은혜의 증명사진이 걸려 있다. 인애의 말에 발뺌을 하는 사진관 주인에게 일격을 가하자 사진관 주인은 카센터 오장석사장의 이름을 건넨다. 인애가 카센타에 도착해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는 오장석에게 다가가 팔을 때리고 밟아 버린다. 오장석은 시의원을 따라 다니는 부하를 말하고 인애는 과거 박영춘이 동생에게 한 짓을 생각하며 카센터에서 출발한다.

하루전, 은혜가 전화를 걸자 안마방 직원이 전화를 빼앗고 돈을 내고 찾아가라고 말한다. 전화를 받은 수퍼주인이 사진관에게, 사진관이 카센타에게, 카센타가 박영춘에게 각각 전화하며 위치 추적이 된 것이다. 오래전, 박영춘이 차에서 은혜의 속옷을 발견하고 카센타 사장이 한 짓을 알게 된다. 박영춘은 은혜를 차에 태우고 또 나쁜 짓이 일어났다. 그 때 인애가 은혜에게 물어 보았을 때 은혜는 울기만 했고 박영춘의 차에서 은혜를 구출해 데리고 나왔다. 인애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정우에게 전화를 한다. 인애는 박영춘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정우는 은혜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인애는 동생을 찾으러 갈때까지 데리고 있으라고 말한다. 인애는 권총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박영춘이 방안에 들어가 쉬고 있을 때 총을 겨누고 경호원들이 들어 닥치자 인애가 경호원을 공격하고 자동차로 박영춘을 추격한다. 인애가 다시 박영춘의 차를 들이 받고 인애가 총을 쏘지만 박영춘이 다시 도주한다. 박영춘이 한정우에게 전화를 하여 애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한정우는 인애에게 전화해 자신감이 있느냐고 되묻는다. 한정우의 이중성을 눈치 챈 박영춘이 다른 부하에게 전화를 해 일을 부탁한다. 한정우는 은혜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하고 인애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차가 인애의 차를 들이 받아 버린다. 인애는 총을 쏘면서 저항을 계속한다.

박영춘은 한정우가 인애에게 밀고한 것을 알고 죽인다. 박영춘이 공사장에 부하들을 집결시키고 인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인애가 자동차로 직원들을 향해 돌진하며 총을 쏜다. 그러자 박영춘이 사무실로 들어가 버린다. 인애가 박영춘의 부

하들과 결전하다가 쓰러진다. 박영춘이 인애에게 은혜가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인애는 마지막 반격을 가하며 부하들을 모두 제압한다. 인애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박영춘이 뒤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공격을 하지만 인애가 기습을 피해 박영춘을 맹 공격한다. 인애는 지난날 이곳을 떠날때를 기억한다. 은혜는 인애에게 소풍을 가는 것이냐고 묻는다. 인애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한다. 인애는 울면서 은혜가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인애는 동생을 안고 울면서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안전한 집으로 함께 돌아간다.

영화는 끝이 났다. 무슨 영화일까? 그냥 액션일까? 동생을 지키기 위한 언니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을까? 왕따를 당하고 이 시대에 가장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주먹으로 시원하게 날리고 싶었던 것일까? 언니는 형님 다움으로 다가와 모든 사람들을 혼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언니"라는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거리에서 불의를 보았을 때 누군가 나타나 정의롭게 처단할 하나님의 현신을 기대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은혜라는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며 가해자들의 악함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 악함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 고통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여전히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나쁜일은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로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자비일 것이다.

2. "말모이" MAL·MO·E: The Secret Mission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01.09

감독,각본:엄유나, 제작:더램프

주연:유해진,윤계상, 관객:2,855,372명(2019.02.14.)

1.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사건

1929년 10월,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였다. 발기인 108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일본제국주의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일제는 이들의 강제해산을 위해 함흥학생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함흥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박영옥"이 기차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다가 우리나라 국기라고 은밀하게 속삭이던 중 일본경찰에게 발각되었다. 이들을 강제연행한 일본경찰이 취조하던중 조선어학회 "큰사전"(말모이) 편찬을 맡고 있던 "정태진"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해 9월5일, 정태진이 검거된 후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10월1일, "이중화, 장지영, 최현배, 이극로, 한징, 이윤재, 이희승, 정인승, 김윤경, 권승욱, 이석린" 등 11명이 검거되어 함경남도 흥원으로 압송되었다. 그후 1943년 4월1일까지 33명이 검거되어 극심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사건을 취조한 흥원경찰서는 33명 모두를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로 기소하였다. 이들 가운데 16명은 기소, 12명은 기소유예, 기소자는 예심에 회부된 후 나머지 5명은 석방되었다.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이윤재가 1943년 12월8일 사망하고, 1944년 2월22일 한징이 옥중 사망하였다. 장지영, 정열모는 공소 소멸로 석방되었고, 12명은 공판에 넘겨졌다. 1945년 1월16일, 함흥지방법원은 이극로에게 징역 6년, 최현배에게 징역 4년, 이희승에게 징역 2년6개월, 정인승, 정태진에게 징역2년, 김법린, 이중화, 이우식, 김양수, 김도연, 이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형이 내려졌고, 장현식은 무죄 석방되었다. 1945년 8.15해방을 계기로 모두 석방되었고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강제 해산된 후 해방후에 재조직하여 1949년 9월, 한글학회로 개명하였다.

2. 영화 "말모이"

1933년, 북만주, 우리말사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주시경 선생이 사망한 후 한글사전 만들기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다. "김두봉"(유재명역)은 갑자기 조선을 떠나는 과정에서 주시경 선생의 사전 원고를 다 챙겨오지 못했다. 김두봉은 조선어학회 대표인 "류정환"(윤계상역)에게 가져온 원고를 전달한다. 김두봉은 일본이 모든 학교에서 조선어와 말을 쓰지 못하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을 전한다. 류정환은 반드시

말모이를 완성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일본군을 피해 도망을 한다.

1941년, 경성 조선극장, "김판수"(유해진역)가 조선극장 입구에서 표를 받는다. 김판수는 "장춘삼"(이성욱역)이 극장안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눈감아 주고, "박봉두"(조현철역)는 극장앞 대로에서 영화간판을 매고 홍보를 한다. 그때, "기도부장"(이호철역)이 손님 지갑을 소매치기하는 장춘삼을 끌고 밖으로 나온다. "이부장"(이서환역)이 경찰서로 넘길 것을 명령하고 김판수도 동의하며 재촉할 때 장춘삼이 김판수를 보며 "형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한다. 장춘삼이 이들의 대화중 도망치고 이부장은 김판수를 해고해 버린다.

경성제일중학교 담임선생님이 월사금을 못낸 학생들을 체벌하고 있다. 엉덩이를 맞고 있던 학생이 고통을 이기지 못한채 조선어를 쓰자 경악한 선생은 더 심하게 때린다. 김판수가 귀가길에 우체부가 집으로 찾아와 "김덕진"(조현도역)의 집이 맞는지 묻고 김판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편지를 받는다. 글을 읽지 못하는 김판수가 우체부에게 글을 읽어 달라고 하자 우체부는 경성제일중학교에서 월사금이 미납되어 제적과 차압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한다. 일본경찰 "우에다"(허성태역)는 이광수, 윤치호의 수양동호회를 추적하고 해산했다는 보고를 받고 우에다는 조선의 정신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황해도 해주, 류정환 대표는 해주야학회 말모이 동지들을 만나 황해도 사투리 원고를 받는다. 김판수는 아들의 월사금 마련을 위해 장춘삼과 함께 소매치기 대상을 찾고 있다. 때마침 역에서 나오는 류정환을 발견하고 목표로 삼는다. 경성역 외곽에서 호떡을 먹던 박봉두가 김판수의 신호를 보고 류정환을 안으며 쓰러지고 이에 놀란 류정환이 가방을 놓고 박봉두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이 김판수가 가방을 훔쳐 달아나 버린다. 잠시후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된 류정환이 가방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김판수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지만 김판수가 도망길에 장춘삼과 가방을 바꿔치기 하고 류정환이 김판수를 잡지만 가방안에는 배개밖에 없다. 류정환이 훔쳐간 가방을 내 놓으라고 다툼이 발생하지만 경찰이 나타나는 바람에 둘다 도망을 친다.

김판수가 집에 들어와 장춘삼에게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류정환이 김판수가 흘린 월사금 고지서를 보고 집을 찾아 온다. 김판수가 가방은 장춘삼이 훔친것이라며 20~30원을 달라고 한다. 그 때 귀가하던 김덕진이 아버지가 사고친 것인지 물어보고 류정환은 아무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집을 나선다.

우에다는 모임에서 경성제일중학교 "류완택"(송영창역)의 아들이 창씨개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 다음날 조선어학회 문당책방으로 출근한 류정환 대표는 황해도 사투리 원고를 보며 후원도 없고 시집판매도 안되고 심부름직원도 한 명 구해야 함

을 토로한다. 한글잡지 기자 "박훈"(김태훈역)이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류정환 대표는 가방을 훔친 자가 감옥에 자주 간 김판수라고 전한다. 조선어학회 어른인 "조갑윤"(김홍파역)이 김판수의 이름을 듣고 류정환 대표에게 물은 뒤 김판수를 찾는다. 조선어학회 사무실에서 류정환 대표는 "임동익"(우현역) 작가에게 뜻풀이가 밀렸다면 공청회전까지 마무리할 것을 종용한다. 김판수가 책방을 찾아와 영감을 찾는다. 문당책방 주인이며 조선어학회 회원인 "구자영"(김선영역)이 김판수를 막아서고, 그때 김판수가 찾던 영감인 조갑윤이 나타나 김판수를 데리고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데려간다. 조갑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 김판수를 심부름꾼으로 채용할 것을 말하고 류정환 대표는 소매치기꾼이라면서 거부한다. 그러나 조갑윤은 아들의 월사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 일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판수는 다른 사람들과 친근감을 드러내고 류정환은 김판수를 거절하지만 결국 채용을 한다.

임동익은 김판수에게 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조갑윤은 구자영의 남편도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김판수는 서대문형무소는 사람을 심하게 다룬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감옥이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중인 "민우철"(민진웅역)의 표정이 굳어진다. 직원들은 조선어학회에서 듣고 말하는 모든 내용이 기밀이라고 이야기 한다.

구자영은 김판수에게 후려치다와 휘갈기다의 뜻을 물어보고 김판수가 행동으로 보여주며 설명을 한다. 류정환 대표는 구자영의 이야기를 듣고 김판수를 신뢰하지 않는 듯 비웃는다. 류정환 대표가 사전편찬까지 단어 뜻 풀이, 사투리작성, 표준어 재정 공청회 교정, 사전인쇄 순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하는 동안 김판수가 망치질을 하며 방해하고 있다. 참을성이 부족한 류정환 대표가 단어장을 김판수에게 주며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라고 말한다. 회의가 끝난후 나오던 회원들이 김판수가 그린 그림을 보며 좋아하자 류정환 대표가 단어장에 낙서를 했다고 꾸중을 하며 단어장 정리를 검사한 후 가나다도 모르냐며 다시 꾸중을 한다. 류정환 대표는 조갑윤에게 조선어학회 직원이 한글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자 조갑윤은 글은 가르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한다. 류정환 대표는 김판수에게 결근, 지각, 태만, 소매치기, 욕설, 일본어 절대 금지와 함께 한달 후 한글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한다. 구자영이 김판수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김판수는 류정환 대표가 원래 성격이 강하냐고 묻고 구자영은 그렇지 않은데 감옥에 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심란하여 민감해졌다고 말한다. 김판수가 한글공부를 하고 있을 때 류정환 대표가 책방에서 술냄새를 맡으며 김판수에게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이냐고 다그친다.

제주도 "교사"(이정은역)가 책방으로 류정환 대표를 찾아오고 김판수는 5시가 되어 퇴근을 하여 장춘삼과 박봉두를 만나 술을 마신다. 장춘삼은 인력거 시험에 합격하

고 김판수는 문당책방에서 심부름꾼으로 취업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저녁시간 우에다가 문당책방을 찾아와 류정환의 행방을 묻고 구자영은 모른다는 말을 남긴다. 우에다는 류정환에게 내일까지 찾아오라는 말을 구자영에게 전달하고 돌아간다. 숨어서 엿듣고 있던 류정환 대표가 구자영에게 괜찮은지 물어본다.

다음날 김판수는 늦잠을 자고 딸 "순희"(박예나역)를 데리고 출근이 늦었다. 류정환 대표가 김판수를 보며 잔소리를 하자 김판수는 다른 직원들도 늦는데 자신에게만 꾸중한다고 투덜거린다. 류정환 대표는 딸까지 데리고 출근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꾸중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순희에게 말을 걸며 귀여워 한다. 김판수는 대표에게 가서 호떡 사주세요?하라고 시키고 직원들까지 가세한다. 구자영은 김판수에게 지하실로 짐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고 김판수는 여기에 이런 곳이 있는지 물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묻는다. 구자영은 조선총독부에서 류대표를 찾아왔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을 모두 옮기는 것이라고 하고, 말과 글은 민족의 정신을 담은 그릇인데 이것은 모두 우리말이라고 전한다. 서양사람들은 나의 나라와 나의 가족을 말하고 조선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우리가족이라고 말한다. 짐 정리를 끝낸 김판수는 류정환이 순희에게 호떡을 사주며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바라본다. 류정환 대표가 순희에게 호떡이 왜 호떡인지 물어보자 김판수가 호떡이 뜨거워서 호~하고 불면서 먹어서 호떡이라고 한다. 류정환 대표는 순희에게 호떡의 호가 오랑캐 호라서 청나라 사람들이 만든 떡이기 때문에 호떡이라고 한다고 말한다.

류정환 대표가 밖에 세워진 차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 류정환은 경성제일중학교 류완택 이사장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류정환은 아버지로부터 조선어사전을 만든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꾸중을 듣는다. 이사장은 류정환에게 우에다가 창씨개명을 하라고 준 신청서를 내밀며 재촉하고 류정환은 이런 일로 다시 부르지 말라고 소리치며 나가 버린다.

김판수는 덕진과 순희를 데리고 안경점을 찾는다. 덕진은 돈도 없는데 괜찮다고 말하고 김판수는 안경점 "사장"(윤경호역)으로부터 안경을 사고 덕진에게도 월사금을 준다. 한글잡지 기자 박훈은 친일문인들을 비판하며 임동익에게 분노를 표시하고 충격을 받은 임동익은 퇴근을 서두른다. 술에 취한 임동익이 술을 마신후 똥지계를 들고 문인집회장소인 조선극장을 찾아가 오물을 투척한다. 기도부장이 임동익을 밖으로 끌어내 폭력을 휘두르자 인쇄소로 향하던 김판수가 이것을 보고 차에서 뛰어 내려 기도부장에게 달려 든다.

류정환 대표는 조갑윤에게 김판수가 인쇄소에 가지않고 돈을 갖고 튀었다고 말한다. 김판수가 임동익을 부축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고 사무실 서랍을 뒤진다. 때마침 류정환 대표가 들어와 김판수에게 왜 회비에 손을 대었냐고 무작정 다그친다. 김판

수는 다친 사람이 안보이느냐고 되묻고 류정환 대표도 어디서 싸움하고 여기서 그러냐고 그러는 동안 김판수가 류정환 대표의 얼굴을 가격한다. 김판수는 오늘 인쇄소에 못가게 된 사정이 있다면서 돈봉투를 류대표에게 던지고 나가버린다. 다음날 아침 임동익은 자신의 문제로 김판수가 누명을 썼다고 말하며 김판수를 데려오겠다고 말하지만 조갑윤은 김판수가 자존심이 강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박봉두가 김판수를 찾아와 어제 극장에서 있었던 일로 기도부장이 해고되었다고 김판수에게 다시 극장으로 오라고 하고, 류정환 대표도 김판수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류정환 대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잡지책 한권을 내민다. 김판수는 류정환 대표에게 화를 표시하지만 속마음은 환희에 차 있다. 류정환 대표는 뒷마루에 앉아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크다고 말한다. 류대표는 자신의 아버지 류완택이 어느 순간 변절하여 친일이 되었고 자신은 유학을 갔다가 경성으로 돌아왔는데 경성역에서 순희또래 아이들이 조선말을 전혀 모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사람 귀한줄 몰랐으면서 김판수에게 용서를 구한다.

밤 늦은 시간 비가와서 조선어학회 직원들이 비에 젖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갑윤이 지붕수리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망치소리가 들린다. 놀란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지붕을 쳐다 보는데 김판수가 자신이 없으면 어학회가 안돌아간다고 웃으며 지붕수리를 하고 있다.

류정환 대표가 한글시험을 치겠다고 말한 날, 김판수는 시험을 치르고 한 개의 문제를 맞춘다. 김판수는 거리 간판과 매뉴판의 글을 보며 기뻐한다. 김판수는 책방에서 운수좋은 날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류대표는 김판수와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박훈기자는 신의주 사투리 조사로 배재중학교 조선어 강사를 찾지만 생각해 보겠다는 거절을 듣는다. 류정환 대표가 사투리 수집만 4~5년 걸릴거라고 말하자, 김판수가 교도소에서 같이 보냈던 전국의 형제들이라면서 조선어학회 직원들에게 소개한다. 앞에서 글판을 들어보여 주며 각 지방사람들의 사투리를 단어장에 하나씩 옮겨 적는다.

민우철이 조선총독부로부터 폐간명령서를 받는다. 류정환대표는 표준어 공청회를 안타까워 하고 김판수는 공청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류대표는 사투리 수집이 끝나야 공청회가 가능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어떤말을 표준어로 사용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우철의 퇴근길, 집안에 우에다가 책상에 앉아 있다. 우에다는 서대문형무소에 투옥중인 아내의 편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았는지 물어보며 조선극장에서 똥물을 뿌린 사람을 묻는다. 한편, 김판수의 집에서 김판수가 순희에게 동요를 불러준다. 아들 덕진은 순희앞에서는 조선말을 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학교에 입학하면 일본어를 써야 하는데 조선말을 쓰면 선생님에게 많이 맞는다고

말한다.

다음날, 류정환 대표와 김판수가 조선극장앞을 지나다가 간판을 보며 광고를 해야 겠다면서 말모이 광고를 내자고 말한다. 직원들은 광고를 내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류대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며 잡지 광고를 한다. 잡지를 많이 발간한 류대표의 사무실에 편지가 많이 올거라고 기대했지만 민우철의 아내 "김인옥"(김서윤역)의 편지 한통이 날아온다. 류대표는 김판수와 장춘삼과 박봉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구자영은 민우철은 아내의 편지를 받고 퇴근을 했다. 경찰이 오자 박훈이 지하실을 감추고 잡지 준비 작업을 연출한다. 우에다가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찾아와 한글원고의 위치를 캐묻는다. 조갑윤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하자 조갑윤은 우리말로 된 책 한권도 못내느냐고 반문한다. 우에다는 책상을 밀어버리고 지하실을 뜯어내 원고를 모두 압수해 가버린다. 소식을 들은 류대표와 김판수가 소식을 듣고 달려 오지만 구자영, 임동익, 박훈이 눈물을 흘리며 망연자실해 있다. 류대표는 아버지를 찾아가 조선생을 구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류정환은 자신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곧 조선의 독립이 될 줄 알았지만 30년이 되도록 독립이 되지 못했다고 좌절한다. 경성제일중학교에서 류완택 이사장은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조선어학회의 지하실에서 김판수가 가구를 정리하고 박훈은 우에다가 이미 알고 왔다면 김판수의 패거리들을 의심한다. 박훈은 류완택이 류정환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 3만원의 국방헌금을 납부했다고 말한다. 민우철이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아내를 만나려 하지만 이미 죽은 후였다. 사망사실을 총독부에서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 김판수가 호떡을 사서 귀가하자 덕진이 조선어학회에 나가는 것이 들키면 자신은 군에 징집되고 순희는 고아가 될 것이라고 무서워 한다. 김판수와 직원들이 조갑윤 선생의 석방이야기를 듣고 찾았지만 너무 심한 고문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민우철은 우에다가 찾아 와서 사전만 찾아가고 인옥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말했다고 울면서 고백을 한다. 조갑윤 선생은 류대표를 잘 도와 우리말 사전이 완성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아내"(예수정역)의 손을 잡은 후 숨을 거둔다. 조갑윤선생의 부인은 원고가 한 부 더 있다고 말하며 류대표를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동안 조갑윤 선생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일이 끝나고 귀가하면 집에서 새벽까지 내용을 정리하여 온 것이었다.

류대표는 조선어학회 직원들에게 사전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박훈은 지하실에 있는 것만 16만단어인데 언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류대표는 원고가 한 부 더 있다고 말하며 사투리부터 정리하자고 다독거린다. 박훈은 일본의 감시가 훨씬더 심할 것이라고 말하며 임동익과 함께 조갑윤 선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못하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간다. 그때 책방의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류대표

와 김판수를 데리고 경성역 창고단지로 향한다. 총독부에서 조선어학회로 오는 편지를 관할하고 있어서 100통은 총독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곳에 보관중이라고 하였다. 류대표는 우체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만 김판수는 마음이 편치 않고 이를 눈치 챈 류대표가 경성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징병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김판수에게 그만 두어도 된다고 말한다. 김판수는 못내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조선 극장에서 다시 일을 한다. 류대표도 국민총련연맹에 가입하여 사전작업을 준비한다.

김판수는 극장입구에서 표를 받으면서 이부장에게 극장이름을 대동아극장으로 바꾼 이유를 묻는다. 경성제일중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영화관을 찾는다. 박봉두는 덕진에게 호떡을 건네고 담임선생이 가네야마를 부른다. 박봉두는 김판수에게 극장에 사장은 없고, 이부장은 지방출장이 많아서 사실상 극장의 대장은 형이라고 말한다. 박봉두가 노래를 부르자 일본인이 시끄럽다고 말하고 김판수가 대들 듯 더 크게 노래를 부르자 일본인이 김판수의 머리를 때린다. 그때 김판수는 “후려치다, 휘 갈기다”는 이런 것이라면서 일본을 사정없이 때린다. 김판수가 귀가했을 때 덕진이 학교에서 창씨개명을 하라고 해서 자신이 알아서 지었다고 말한다. 김판수가 덕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고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의 어른 이름이 덕진이어서 지었다고 말한다. 덕진은 순희의 이름이 아버지가 교도소에 갔을 때 엄마가 순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라고 말한다.

류정환대표는 체신국 창고에서 편지 한자루를 꺼내어 읽으면서 공청회를 화동교당으로 집회 신청을 한다. 김판수가 조선어학회로 달려와 문을 두드린다. 김판수가 류정환 대표를 보며 다시 같이 하자고 말하고 류대표는 지각이라면서 눈시울을 붉힌다. 김판수 패거리의 도움으로 체신국 편지를 모두 옮긴다. 우에다는 부하들에게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잡초처럼 자라 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에다는 류대표의 집회 신고를 허가하고 감시명령을 내린다. 공청회가 개최되는 화동교당에 전국에서 온 조선어 강사들이 모이지만 류대표는 일본을 찬양하고 끝을 낸다. 우에다는 무엇인가 의심쩍어 하면서 예의 주시한다. 장춘삼이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극장표를 나누어 주며 극장으로 모일 것을 말한다. 김판수는 극장앞에서 표를 받으며 영화가 끝난 후 남아 있을 것을 알려준다. 영화가 끝난 후 화동교당은 속임수였다고 말한다. 류대표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이라고 다짐을 선언한다. 단어를 설명하고 어떤 것을 표준어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 류대표가 엉덩이와 궁둥이가 서로 다른 부위라는 것을 설명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자 김판수가 나서서 몸으로 설명을 하며 해결해 간다.

우에다의 부하는 조선어 교사들이 공청회 이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우에다는 류정환을 찾으라고 지시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다. 우에다는 경성제일중학교를 찾아가 가네야마(덕진)를 데려 오라고 시킨다. 덕진은 아버지가 조선어

학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다. 덕진이 이사장의 아들이 시킨 것이라고 답하고 우에다는 류완택의 다리를 쓰며 위협한다. 덕진에게도 총을 겨누자 덕진은 모든 사람들이 동양극장에 있다고 고발해 버린다. 경찰이 극장으로 향하는 사이 덕진은 대동아극장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만나 순희가 아프다면서 집으로 가자고 재촉한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김판수가 되 묻자 일본경찰이 학교를 찾아왔다고 전한다. 김판수는 극장으로 들어가 경찰들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출입문을 막고 조선어학회 직원들은 원고를 챙긴다. 경찰이 극장문을 부수고 공청회 참석자들을 모두 연행한다. 우에다가 류대표를 찾고 추적하는 경찰이 쏜 총에 류대표가 맞는다. 류대표는 부산 동래여중 선생님을 찾아가면 인쇄할 것이라면서 가방을 건넨다. 류대표는 김판수를 위해 달려나가 유인을 한다. 김판수는 경성역에서 부산행 열차표를 끊고 주위를 살피다가 일본인과 충돌하여 가방을 떨어뜨린다. 김판수의 옷에 묻은 혈흔을 발견한 일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 김판수는 경찰을 피해 체신국 창고에 가방을 숨긴뒤 도주하다가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진다. 한편 류정환 대표도 다른 가방을 들고 도주하다가 우에다에게 체포되고 가방을 빼앗은 우에다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배개가 들어 있다. 류대표는 그 배개가 아니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느스레를 떠난다.

1945년 8월15일, 독립이 되면서 류대표가 감옥에서 석방된다. 류대표는 조선어학회 직원들을 다시 만나 김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아이들은 떠나고 원고는 사라졌다는 소식이 있을 후 김판수 패거리의 장춘삼과 박봉두가 류대표를 찾아와 원고를 체신부 창고에서 가방을 찾았다고 전한다. 1947년, 류대표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중학생이 된 순희가 류대표를 보고 달려와 포옹을 한다. 김덕진과 순희는 류대표가 건넨 보자기를 열어본다. 우리말 큰사전이었다. 표지 안쪽에 김판수의 이름이 있고 그 사이에 편지가 있다. 류대표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고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말모이"는 국어사전의 이름이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자기 나라말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이야기는 식민지 시대의 과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남다른 마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라없는 세월이 천년이상 지속되었고 늘 강대국의 노예나 포로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는 흔들림없이 이어져 왔다. 누군가 한사람의 생명을 건 신념은 그와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큰 힘이 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동역자들과 후손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영화 말모이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 같을 때 그것은 언젠가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신앙은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말모이를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힘을 발견한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더욱 빛나는 신앙의 지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확장하는 출발점이다.

3. “극한직업”Extreme Job

한국영화, 장르:코미디, 개봉:2019.01.23

감독:이병헌, 제작:어바웃필름,영화사해그림,CJ엔터테인먼트

주연:류승룡,이하늬,진선규,이동휘,공명, 관객:14,536,377명(2019.02.17.)

최선을 다하면 다 할수록 성과가 없는 만년아웃반장 “고반장”(류승룡역), 불의만 보면 참을성이 부족한 선빵녀 “장형사”(이하늬역), 잠복근무를 통하여 천재요리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섭렵한 “마형사”(진선규역), 밤낮없이 고군분투 잠복에 능한 “영호”(이동희역), 실전경험이 전혀없는 오직 의욕충만의 막내 형사 “재훈”(공명역) 등 해체위기의 마약반 5인방이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위장창업한 “마약치킨”집이 소문난 맛집으로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말도 안되는 해피 바이러스 “극한직업”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고반장이 팀원과 함께 범죄조직 중간판매책 “환동”(이중욱역) 검거 작전을 하고 있다. 경찰이 옥상에서 하강하여 창문밖에서 진입을 못한채 매달려 있다. 도박중이던 환동이 경찰을 눈치채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를 하고 장형사와 영호와 재훈이 추격한다. 오토바이로 추적하던 마형사가 환동을 넘어뜨리지만 수갑이 없자 환동이 전기충격기로 마형사를 제압하고 도주하던 중 스쿨버스와 충돌하고 교차로에서 1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다. “경찰서장”(김의성역)은 고반장과 팀원을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한다. 환동은 14주진단, 자동차 16대 파손의 손실에 소득이 없다고 말한다. 강력반 “최반장”(송영규역)은 2개월의 잠복근무로 범인을 체포해 진급을 하고 고반장팀은 왕따부서로 낙인 찍힌다. 장형사는 마형사가 마형사가 수사비갖고 잠수타는 바람에 수사가 부진하였다고 말하면서 마형사의 목살을 잡고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재훈에게 주머니를 뒤져라고 말한다. 재훈은 마형사의 포켓에서 카지노 칩을 발견한다. 마형사는 잠복근무중에 잠깐 한 것 뿐이라고 변명하고 고반장이 마형사를 때리려 하자 팀원들이 고반장을 뜯어 말린다.

강력팀 최반장이 과장으로 승격되면서 서장실에서 나온다. 공조가 뒤틀린 고반장이 최과장에게 따지자 저녁 회식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 조직깡패 “이무배”(신하균역)가 출소하여 구역정리 및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시작했는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반장 팀은 최반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잠복근무를 시작한다.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잠복중인 마형사가 3층“아줌마”(신신애역)의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신분확인까지 하게 된다. 이후 맞은 편 형제호프 치킨집에서 한주간 잠복근무하던 중 치킨집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훈이 인수를 제안한다. 이무배 감시가 용이하고 배달주문시 더욱더 감시가 용이하다고 판단한 재훈의 결혼자금으로 치킨집 인수를 타진한다. 고반장의 귀가길 “아내”(김지

영역)가 최반장의 진급을 꺼내며 짜증을 내고 있는데 “딸”이 귀가하면서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다음날, 고반장이 서장을 찾아가 지원금을 부탁하는데 서장은 오히려 팀 해체를 주장한다. 치킨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 할 때 재훈이 앞서며 인수를 주장하고 영호가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며 장형사와 마형사는 부부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 가게 인수 이야기 도중 고반장이 나타나 퇴직금 받은 돈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이무배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수사본부를 세우려 하는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 주문을 하려한다. 고반장 팀은 할 수 없이 치킨을 판매하는 어이없는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다. 고반장은 도청장치에 특별한 것이 없는지 물어본다. 이무배의 부하들이 TV채널로 싸운다. 조직이 두패로 나뉜 상황에서 “홍상필”(양현민역)이 나타나 상황을 정리한다. 홍상필이 부하들에게 치킨을 시킨다. 3층 아줌마가 치킨을 주문하자 고반장이 닭이 없다고 말한다. 고반장은 이무배의 부하들이 다시오겠다는 말에 생닭을 사가지고 온다. 고반장은 마형사가 닭의 본고장인 수원사람이라고 하자 마형사는 치킨이 아니라 갈비라고 말한다. 고반장은 각자의 방식으로 치킨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마형사가 치킨 주방을 맡는다. 튀김치킨 한번 해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님은 양념치킨을 주문한다. 마형사는 수원왕갈비양념밖에 알지 못하는데 억지로 하나 만들어 본다. 맛은 최고였고 손님과 형사들도 대만족한다.

이른바 수원왕갈비통닭은 순식간에 맛집으로 소문이 나버려 수사는 뒷전, 장사에 여념이 없다. 귀가한 고반장이 아내에게 구찌 종이 가방을 건넨다. 아내가 구찌가방을 보고 놀란다. 방송국 “허PD”(김강현역)가 맛집소개 방송을 하려하지만 고반장은 거절한다. 마형사는 부모님이 갈비집 30년해도 TV에 못나갔다고 넋두리를 한다. 치킨집에 단체주문 전화가 오고 주문을 접수한다. 영호가 이무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고반장에게 무전을 치지만 단체손님 주문으로 무전을 못본다. 영호가 이무배를 뒤쫓아 가지만 놓치고 만다. 영호가 치킨집으로 돌아오자 고반장이 주문으로 바쁘는데 어디서 오냐고 다그치고 영호는 이무배를 추적하면서 무전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서 놓쳤다고 화를 낸다. 장형사는 테이블청소로 바쁘고 재훈은 양파까는 일로 바쁘고 범인을 잡기 위한 일인지 돈벌려고 하는 일인지 다들 목소리를 낸다.

이무배는 “정실장”(허준석역)을 만나 일의 진척을 묻는다. 정실장은 중간책이 잡혀 “테드창”(오정세역)이 염려된다고 말한다. 홍상필이 칼을 꺼내 정실장을 위협하고 이무배는 칼을 빼앗아 “선희”(장진희역)에게 칼을 주며 홍상필의 다리를 잘라라고 말한다. 겁에 질린 정실장이 중간상을 제외하고 직거래를 요구한다. 고반장은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치킨 가격을 3만6천으로 인상한다. 그러나 왕갈비통닭이 황제치킨, 럭셔리치킨으로 알려지면서 일본관광객까지 몰려온

다. 마형사는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개업닭을 돌려 약먹이고 잠들게 하자고 제안한다. 때마침 서장의 호출이 오고 고반장팀 전체가 서장실로 불러간다. 서장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생닭 50마리는 무엇이냐고 묻고 고반장은 잘못 들어간 영수증이라고 말한다. 서장은 조직개편에서 수사반 해체를 말한다. 그때 고반장의 폰으로 이무배의 2층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모두 치킨집으로 돌아가고 고반장은 도청기 설치, 전원차단을 하고 마형사는 치킨을 튀긴다. 그때 허PD가 수원왕갈비통닭집을 배경으로 촬영을 한다. 고반장은 주문을 받고 이무배의 사무실로 올라 가지만 이들이 모두 이사를 간 후다. 치킨집으로 돌아와 재훈은 서장과 이무배가 한 팀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 고반장은 쯤파티를 이유로 모르고 약을 탄 맥주를 마신다. 약에 취한 고반장은 취중에 맛집사장이 되어 돈맛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허PD는 수원왕갈비 통닭의 실체를 밝히는 방송을 한다. 다른집 치킨을 받아 박스를 바꾸는 모습이 찍혀 있다. 방송후 고반장은 정직처분을 받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최반장을 비웃는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한 것을 모르는 아내가 형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장사를 하자고 말한다. 다음날, 치킨집에 간 고반장은 그곳에서 팀원들을 만난다. TV로 수원왕갈비통닭의 실체방송을 보던 이무배가 홍상필에게 어디서 본집같다고 하자 맛집으로 소문나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후 망한집이라고 말한다. 정실장은 저 통닭집을 역으로 이용하자고 말한다. 다음날, "정대표"(정실장)가 치킨집을 방문해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말하며 돈가방을 보여준다. 고반장은 초등학교생 시절의 딸의 꿈이 용의자라고 말하며 장형사에게 사직서를 건넨다. 장형사는 고반장이 자리를 잡을때까지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영호는 흥신소친구에게 정대표를 알아보고 흥신소 친구는 정대표는 사회적 기업으로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고반장은 가게 간판을 새롭게 바꾸고 재개업을 한다.

홍상필은 이무배에게 이제 테드 창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무배는 먼저 찾아가려고 선희와 함께 출발한다. 선희가 남자들을 제거하고 이무배가 선희를 따라 가게로 들어간다. 이무배는 "창식"(오정세역)에게 사업계획서를 주면서 동업을 제안한다. 이무배는 중국에서 물건 가져오면 테드창이 모두 팔 것이라고 말한다.

손님들이 수원왕갈비통닭 분점을 찾는다. 손님이 치킨이 늦다고 말하자 점심시간이라면서 되려 화를 낸다. 또 다른 분점에서는 손님을 아예 받지 않는다. SNS에 불만이 오르자 고반장이 정대표를 찾고 정대표는 미안하다는 말로 덮으려 한다. 고반장은 팀원들에게 분점 조사를 지시하고 재훈은 치킨 배달을 한번에 20마리 배달하는 장면과 먹지않고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다. 고반장은 마형사에게 지방분점도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고반장의 아내는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본다. 고반장과 영호는 치킨주문자들을 살펴본다. 배달루트는 일정하게 동일하고 한 손님은 치킨배달이 오자 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자 배달부는 치킨을 빼앗아 돌아가

버린다. 마형사는 지방분점에서 직원들이 마작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탐문을 계속한다. 마형사는 직원들과 함께 마작을 하면서 테드 창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마형사가 직원들의 대화중 중국어로 대답하고 직원들과 한판승을 벌이다 쓰러진다. 이무배가 마형사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수원왕갈비통닭 본점 직원들이 경찰인 것을 알게 된다. 이무배는 창식에게 누명을 씌우고 중국으로 떠나려 하고 홍상필은 일처리를 영망으로 한다고 정실장을 때린다.

고반장과 형사들은 통닭집 본점으로 돌아오고 기다리던 재훈이 약봉지의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취해 쓰러진다. 고반장은 분점들이 약 운반창이라고 확신하고 먼저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대표를 잡기 위해 사무실을 급습하지만 아무도 없다. 그때 홍상필이 영상통화를 통해 마형사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장형사는 커플 위치추적 앱으로 마형사가 있는 곳을 추적한다. 홍상필은 중국으로 떠나기전 엄마집을 찾는다. 홍상필이 도착하자 최과장과 형사들이 잠복중에 잡으로 한다. 그러나 홍상필의 부하들에 의해 저격 당하고 도주중이던 홍상필은 스쿨버스와 충돌하면서 전복되어 버린다. 마형사를 구하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에 장형사는 서두르고 영호는 마형사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러자 장형사는 마형사가 죽을까 걱정이 아니라 마형사가 누구를 죽일까 걱정이라고 말한다. 때마침 마형사는 포박되어 있던 손을 풀고 자신을 죽이려 하던 이무배의 부하들을 일거에 제압한다. 마형사는 유도국가대표선수 특채로 경찰이 된 것이라고 말한다. 정실장이 자신도 풀어 달라고 하자 마형사는 적의 적이면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서 기절시킨다. 마형사는 현장에서 이동하던 트럭 뒷면에 올라타 이무배가 있는 곳으로 간다. 평택항에 도착한 마형사는 이무배 패거리와 테드창이 만나는 접선장면을 보고 장형사에게 "ㅇㅁㅂ"이라고 문자를 보낸다. 장형사는 문자해석을 못한 채 이모부? 이명박?이라고 하며 어리둥절해 한다. 이무배는 테드 창에게 물건을 주고 돈을 달라고 말한다. 테드창은 물건을 확인하고 있다. 그때 마형사가 112신고전화를 하려다 핸드폰에서 싸이렌 앱을 실행한다. 싸이렌 소리에 놀란 테드 창이 놀라고 이무배는 구급차 싸이렌이라고 하면서 별일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마형사가 다시 경찰 싸이렌 앱을 누른다. 이무배와 테드 창이 서로를 믿지 못한채 싸움을 시작하고 이무배가 총으로 테드 창의 다리를 쏜다.

그때 수원왕갈비통닭 승합차가 평택항에 도착하고 고반장과 팀원들이 내린다. 고반장은 이무배와 테드창의 사진을 찍어 최반장에게 발송한다. 최반장은 홍상필을 취조하던중 고반장의 사진을 받고 지원요청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다. 이무배는 5명 밖에 오지 않은 고반장 팀을 우습게 보고 공격을 지시한다. 마형사는 한놈만 맹공격한다. 최반장과 함께 지원을 가던 형사가 고반장 팀만으로 가능하겠는지 의문을 갖고 묻는다. 최반장은 고반장팀의 화려한 이력을 소개한다. 마형사는 유도국가대표 출신, 영호는 UDT출신, 장형사는 무에타이 동양챔피언출신, 재훈은 야구부특훈출신,

고반장은 좀비설이 있다 지금까지 20회나 칼을 맞고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한다. 형사들이 부하들을 제압하는 순간 이무배는 선희와 함께 배로 도주를 시작한다. 고반장이 이무배를 추적하자 이무배가 총을 쏘고 선희가 남아서 고반장과 혈투를 한다. 뒤쫓던 재훈은 선희에게 물건을 던져 쓰러뜨린다. 이무배가 재훈을 향하여 총을 쏘는데 고반장이 대신 맞으면서 넘어진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선희는 고반장을 공격하는데 마형사가 여자라고 안봐준다고 하면서 공격한다. 이무배는 총을 쏘면서 배로 다시 도망한다. 장형사는 마형사를 공격한 선희를 때린다. 배를 타고 도망하던 이무배는 고반장을 발견하고 배를 멈춘다. 고반장은 경찰이 아니라 닭집 주인으로 왔다고 말한다. 소상공인은 목숨을 걸고 장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무배를 공격하며 서로 싸운다. 고반장은 좀비처럼 일어나 이무배의 다리를 물어 버린다. 현장에 도착한 최반장은 모두 제압된 것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른다. 고반장은 구급차에 실려가고 재훈은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형사와 장형사는 커플업을 깔았다고 키스를 한다. 영호는 옆에 있는 경찰에게 총을 달라고 하면서 두사람을 쏘아 버리고 싶다고 구역질을 한다. 사건이 끝나고 고반장과 최반장식구들이 회식을 한다. 고반장팀원 전원이 특별승진하고 서장은 자신이 팀을 구성했다면서 자랑스러워 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낮에는 치킨장사, 밤에는 잠복근무로 우리나라 경찰은 극한직업이 분명하다. 이 영화는 경쟁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를 호가하며 천만명을 여유롭게 돌파했다. 영화다운 컨셉이 많지만 웃을 일이 없는 암울한 시대, 영화가 2019년의 한국인을 웃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화가 정부와 정치인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영화 극한직업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무슨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려는 헌신자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끝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쉬울 뿐이다. 쉬운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4. "사바하" Svaha: The Sixth Finger

한국영화, 장르:미스터리,스릴러, 개봉:2019.02.20

감독:장재현, 제작:외유내강

주연:이정재,박정민,이재인,유지태, 관객:2,026,205명(2019.03.02.)

"사바하"(娑婆訶)란 "원만한 성취로 진언의 끝에 붙여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천수경에 등장하는 불교용어"다. 사바하에는 영화를 주도하는 다섯명의 그림자가 등장한다. 신흥종교를 추적하며 돈벌이를 하는 괴짜 목사 "박웅재목사"(이정재역),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슴농장의 "교주"(유지태역)와 교주의 아바타, 사슴농장의 4대 악귀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정나한"(박정민역), 사슴농장의 실체에 다가가는 은밀한 정보를 열어가는 "해안스님"(진선규역), 사건발생 16년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의 출생자와 쌍둥이 동생 "이금화"(이재인역). 이렇게 다섯명의 캐릭터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듯 하다가 오차로 교차지점에서 만난다.

1999년, 강원도 영월에서 금화와 함께 베일에 가려진 "쌍둥이"(이재인역)가 탄생한다. 금화보다 10분일찍 태어난 검은 털복숭이 언니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죽은 것은 어머니와 자살한 아버지였다. 그 후 금화는 "할아버지"(문창길역)와 사이비기독교를 신봉하는 "할머니"(이주실역)와 살고 있다. 마을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제천무당"(김금순역)이 굿판을 벌이며 안간힘을 쓰지만 마지막 한 마리의 소까지 죽어 버린다.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을 가리키는 지점이 있었는데 금화의 집이다. "장석"(박지환역)이 제천무당에게 저 집에 새로 이사온 후로 부터 소들이 죽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제천무당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자 금화는 문을 잠그고 모든 문을 봉쇄해 버린다. 금화 가족은 이렇게 매번 이사를 반복하고 있다. 무당은 언덕위에 불이켜진 집을 바라보고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의문의 창고앞에 다가 섰을 때 뱀이 나와 무당의 발을 물어 버린다.

박목사는 총신대에서 사이비종교 강연을 하고 극동종교문제연구소의 후원을 요청한다. 박목사의 사무실앞에는 아가페수녀회에서 집회를 하고 사무실 직원 "심권사"(황정민역)는 칼럼과 기사가 밀렸다고 독촉을 하지만 박목사는 사슴동산에 관한 사진을 보며 강원도 태백으로 향한다. 태백 사슴동산에는 신도들이 모여 있고 박목사가 은밀히 파견한 "고요셉전도사"(이다윗역)가 설교를 듣고 있다. 사슴동산은 불교 밀교의 한 파로 금품수수를 하지 않고 구제를 하는데 특이점은 부처가 아니라 장군을 섬긴다는 것이다. 한편 굴다리 터널 자동차 사고현장에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곳에 시체가 발견된다. 현장에 도착한 "황반장"(정진영역)은 어리둥절해 한다.

박목사는 "원장스님"(이상우역)과 "총무승"(차순배역)과 해안스님을 만나 자신이 찾

은 사슴농장에 관하여 신흥종교단체라고 전하지만 관심을 끌지 못한다. 해안스님은 종교의 기본이 무엇인지 묻고 박목사는 교주, 신도, 경전이라고 말한다. 해안스님은 박목사에게 경전이 무엇인지 알아 보라고 귀뜸한다. 한편 정나한은 굴다리터널에서 발견된 사체사건을 듣고 있다. 레미콘 차량운전자 "김철진"(지승현역)도 뉴스를 들으며 근심에 쌓여 있다. 정나한은 김철진의 집을 찾고 김철진에게 이제 곧 세상에서 찾을 것이니 죽으라고 말한다. 사체 부검의(배해선역)는 황반장에게 사체에서 팔과 부적이 나왔다고 말하며 예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한다. 사슴동산 신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고요셉 전도사는 박목사에게 설교내용을 전화통화로 전송하고 있다. 신도들은 사슴동산 경전이 4권만 존재한다는 말을 한다. 고요셉이 몰래 사무실에서 경전을 찾고 있을 때 황반장 일행이 사슴동산을 찾아와 김철진을 찾는다. 김철진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경찰이 자리를 떠나고 박목사는 수첩에 김철진이라는 이름을 적는다.

금강대학교 해안스님과 박목사가 만나 사슴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해안스님은 지도에서 제천, 단양, 태백, 정선에 각각 사슴동산이 있는데 그들이 모시는 것은 장군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지왕이라고 말한다. 사천지왕은 부처를 지키는 4명의 수호신으로 본래 인도의 악귀인데 부처를 만나 악귀를 잡는 신이 되었고, 태백은 동쪽 지국천왕, 정선은 북쪽, 제천은 서쪽, 단양은 남쪽을 말한다고 전한다. 박목사와 고요셉전도사가 사슴동산 맞은 편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도들이 떠난후 건물내부의 방에서 김철진의 방을 찾는다. 한편 김철진이 죽은 소녀를 보고 겁에 질려 있다. 김철진이 귀가할 즈음 집앞에서 정나한을 발견한다. 김철진의 집에는 경찰들이 잠복해 있고 김철진은 세상을 위해 악과 싸우고 먼저 간다는 전화를 어머니에게 전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으로 자살을 해 버린다.

박목사는 경찰이며 친누나인 "박은혜"(김향나역)으로부터 김철진의 자료를 받는다. 김철진은 유년시절 양주 청소년교도소 출신이었다. 정나한은 태백 사슴동산의 신도로부터 이금화의 학적부를 받는다. 정나한은 이금화의 주소를 찾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금화를 정나한이 바라본다. 금화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것의 밥을 챙겨주러 창고앞에 다가가다. 한편, 박목사와 해안스님은 태백 사슴농장에서 가져온 경전을 읽으며 김풍사라는 이름을 발견한다. 구글에 검색한 결과 김풍사는 동방교 교주 김제석이었다. 김풍사에 대하여 잘 아는 총무스님을 만나자 김제석은 1940년에 신이 된 사람으로 1985년 동방교를 해체하고 잠적했다고 말한다. 김제석은 1899년 생으로 강원도 영월이 고향이었다. 김제석의 자료를 보던 중 그가 청소년교도소 후원자라는 기사를 보고 박목사는 "교도소장"(김홍파역)에게 후원물품전달을 매개로 접근한다. 교도소장은 30년전, 김제석이 4명의 소년범을 후원하고 그들을 양아들로 삼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각각 "김철진, 채태근, 전상범, 정나한"이다. 이들 가운데 사천왕 그림에 두광이 그려진 김철진, 채태근, 전상범은 사망하고 제천 광목천왕 정

나한은 아직 생존해 있다. 정나한이 금화를 죽이기 위해 집을 찾았으나 창고안에 있던 그것이 하늘위 새떼를 조종하고 창문을 깨뜨려 버린다. 놀란 정나한이 밖으로 나와 창고 인근으로 가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환급히 빠져 나간다. 박목사는 박은혜를 통하여 전상범이 영월 마리아 산모원에 불을 지르고, 채태근은 캐나다에 이민까지 가버린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알아낸다.

귀가한 정나한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 녹야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다. 미행을 한 박목사가 몰래 들어가 본다. 김풍사의 "제자"(유지태역)와 "명희"(문숙역)가 밖으로 나와 광목 정나한을 맞는다. 제자가 "김제석"(정동환역)이 식물 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 방으로 정나한을 안내한다. 제자는 김제석이 정나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박목사는 정나한의 차안에서 이금화의 학적부를 발견하고 녹야원 측사안에서 코끼리를 발견한다. 제자가 박목사를 발견하고 출입금지구역이라고 말하며 밖으로 내 보낸다. 잠시후 정나한이 녹야원을 떠나고 박목사가 뒤따르자 정나한이 자동차 급브레이크를 밟아 후진한뒤 박목사의 차를 받아 버린다. 자신의 차에서 가져간 이금화의 학적부를 되찾으며 차량 속도를 낸다.

박목사와 주요섭이 자동차로 이동한다. 주요섭은 사슴동산 경전에서 등불과 뱀이 많이 등장한다고 전한다. 주요섭은 뱀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라고 말한다. 박목사는 해안스님에게 전화해서 불교에서 악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고 해안승은 불교에서 악한 존재는 없는데 곧 성탄절에 티벳대승 "네충텐파"(타나카 민역)이 방한해서 법회를 개최한다고 전한다. 박목사는 풍사 김제석이 1985년 동방교를 해체한 뒤 네충텐파를 만난후 경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네충텐파 집회가 끝난후 해안승이 네충텐파를 서울로 안내하려 할 때 차안에 박목사가 함께 탑승한다. 박목사는 김제석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말한다. 네충텐파는 1985년 김제석을 처음 만났는데 그는 미륵이고 선으로 악을 지키는 화신이 되어 살아 있다고 말한다. 박목사는 김제석이 1899년생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하자 네충텐파는 김제석이 인간의 삶을 극복하고 불사신이 되었다고 말한다. 네충텐파는 뱀은 김제석의 천적이라고 말한다. 네충텐파는 사바세계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김제석을 만났을 때 100년 후 그가 태어난 곳에서 그를 죽일 천적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정나한은 이금화를 납치하여 암매장하려는 시도를 한다.

박목사가 죽은 아이들이 모두1999년 영월태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황반장은 박목사의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실종된 아동 전단지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자 모두 1999년생이다. 중3학년이 38명, 중2가 87명, 중1은 79명으로 모두 1999년 영월태생자들이다. 주요섭은 경전에 기록된 비밀의 10자리 숫자는 모두 주민등록번호로 연도의 99와 여자를 의미하는 2를 제외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금화가 정나한에게 창고안의 쌍둥이까지 죽여 달라고 말하자 정나한이 금화의 집 창고문을 부

수고 들어간다. 정나한이 들어서자 그것이 뱀을 조종하면서 부처의 손짓을 한다. 오래동안 기다렸다면 자장가를 부르는데 정나한이 눈물을 흘리며 원하는 것을 물어본다. 박목사가 철길 건너편에서 정나한의 차를 발견하고 길을 막으며 김제석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금화를 어떻게 한 것인지 물어본다. 정나한은 박목사를 두고 녹야원으로 급히 이동한다. 김제석의 제자가 축사에서 코끼리를 보고 있다. 정나한이 김제석이 누운 방에서 이금화의 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다. 아비라 부르는 자가 뱀이라고 죽이라 했다고 말한다. 정나한이 김제석의 손가락이 6개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순간 제자가 들어온다. 정나한은 제자에게 쌍둥이 이야기를 하며 그녀가 김제석의 손에 표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제석의 손가락은 다섯 개다. 제자가 정나한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고 창고로 데려 간다. 인도에서는 왕에게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말하면서 코끼리의 눈을 보라고 한다. 코끼리의 눈이 무시워 보이면 약해진 것이라고 말하며 총으로 쏘아 죽인다. 배송비만 9천만원이 들었다고 말하며 정나한을 총으로 쏘아 버린다. 때마침 박목사가 녹야원 침실로 들어와 김제석을 발견하는 순간 제자가 김제석에게 나타나 인사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버린다. 제자는 명희에게 찾던 것을 찾았다고 하면서 떠난다. 풍사 김제석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제자가 바로 김제석인 것이다. 박목사는 축사에서 쓰러진 정나한을 데리고 나오고 주요셉이 차를 몰아 김제석을 추적한다. 훈련으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김풍사 멈칫하는 순간 박목사가 차를 받고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말한다. 잠간사이 김풍사는 자동차 안에서 냄새를 맡고 뒷좌석에는 총상을 입은 정나한이 타고 있다. 정나한이 모두를 왜 속인 것이냐고 묻고 녹야원에 누운 식물인간은 누구인지 묻는다. 김풍사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자라고 말한다. 김풍사는 스스로 등불이고 시간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나한이 뒷좌석에서 김풍사의 목을 조르고 운전하던 김풍사의 차량이 전복되지만 김풍사는 상처 하나없이 자동차 문을 열고 걸어 나온다. 정나한이 김풍사의 발목을 붙들고 김풍사가 걸어 차며 걸어가는데 정나한이 쌍둥이 언니에게 받은 라이터로 불을 당긴다. 자동차 기름이 김풍사의 옷자락으로 향하고 김풍사는 화염에 휩싸이며 죽음을 맞이 한다. 김풍사가 죽자 쌍둥이 언니도 죽음을 맞이하고 금화가 창고에 갔을 때 김풍사도 언니도 둘다 손가락이 여섯 개다. 뒤늦게 황반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정나한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춤다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불교도 기독교도 어떤 종교도 아닌 영화다. 그저 미스터리한 괴물영화다. 종교문제연구소 목사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목사라기 보다는 무엇인가 타협점을 찾아 생계유지를 하는 50% 아웃사이더다. 그것의 실체도 불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이 영화를 잊어야 한다. 불교도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할 때이다. 이것이 사바하를 이기는 길이다.

5. “뺑반”Hit-and-Run Squad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9.01.30

감독:한준희, 제작:쇼박스,호두엔유엔터테인먼트

주연:공효진,류준열,조정석, 관객:1,826,273명(2019.03.02.)

경찰청 조사 2017년 뺑소니 사고는 7,880건에 사망자 150명, 부상자 11,429명이다. 영화 뺑반은 뺑소니 사건만을 담당하는 경찰 내 특수조직 뺑소니 전담반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뺑반에는 7명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만삭의 뺑반리더 “우선영”(전혜진역)계장, 뺑반의 조력자인 검사 “기태호”(손석구역), 매뉴얼보다 본능으로 잡는 뺑반 에이스 “서민재”(류준열역), 뺑반으로 좌천된 엘리트 경찰 “은시연”(공효진역), 광역수사대 소속 내사과 과장 “윤지현”(염정아역),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레커차 기사 “한동수”(김기범역), 한국 최초F1 레이서 출신 스피드광 사업가 “정재철”(조정석역)이 펼치는 레이스 파노라마는 액션 그 자체이다.

정재철이 서킷에서 포물러를 운전하고 박유철 경찰청장이 JC모터스 정재철 사장으로 부터 돈가방을 받는 장면이 컨셉카 블랙박스에 녹화중이다. 경찰 내사과는 정재철이 경찰청장의 스폰스 냄새를 맡고 내사중이다. 최경준이 심문중 주스를 달라고 하고 열받은 경찰이 컵을 던져 버리자 최경준이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자해를 해 버린다. 경찰의 강압수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검경합동수사에 한발빠는 검찰이다. 은시연 팀장은 기태호와 함께 상황을 확인한다. 은팀장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켜지만 검찰직원이 사건관련 자료를 압수하려 한다. 은시연이 최경준은 무사하다고 하며 정재철에게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은팀장은 사무실을 나오며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버린다.

차장은 경찰청장 조사를 위해 특수본부까지 설치했는데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윤지현 내사과장의 머리를 때린다. 은팀장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때마침 경찰청장이 들어와 내사과 전원을 보직해제한다. 은팀장과 윤과장의 미팅장소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하고 경찰청 기획과의 소행이라고 판단한다. 은팀장은 다른 증거를 찾으려 하고 윤과장은 정재철의 컨셉카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팀장은 서부경찰서 교통계 뺑반으로 발령을 받는다. 뺑반장 우선영 계장이 은시연에게 전입신고는 생략하고 영수증에 풀을 붙이라고 하다가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민재와 함께 은시연을 따라 가라고 말한다. 현장에 도착한 은시연이 진동하는 냄새를 맡자 서민재는 기름과 피가 뒤섞인 냄새라고 말한다. 서민재는 보험사 사고 조사반 직원(이성욱역)과 레커차 기사(한동수역)와 구급대원 “여정”(박예영)과 인사를 나눈다. 은시연은 사고현장 주변CC-TV 확인 요청을 한다. 택시가 졸음운전 했을거라고 추측한다. 서민재는 수산트럭이 최초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 이라고 말한다.

은시연은 매뉴얼없이 감으로 수사를 하는가 묻고 서민재는 CC-TV가 고장나 확인이 어렵고 사고상황을 설명하면서 99% 확신한다. 상황실에서 수산트럭의 도주경로를 확인하고 순찰차로 출동한다. 수산트럭의 앞뒤에 붙어 차를 강제로 세우려 하자 운전자가 도주를 한다. 경찰들은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운전자를 체포한다. 체포 과정에서 은시연은 서민재의 팔에서 문신을 발견한다. 뺨반으로 귀소한 은시연과 서민재가 우선영 계장과 함께 라면을 먹는다. 우선영 계장은 첫날부터 신고식한다면서 일일 진행비 2만원을 건넨다. 우선영 계장이 서민재에게 청라사거리 사고를 묻고 서민재는 JC모터스앞에서 일어난 뺨소니 사건을 이야기 한다. 최초신고자는 연락두절, 현장보존은 훼손되어 사라진 증거로 미궁에 빠진 것이다. JC모터스에 은시연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서민재는 컨셉카의 소행같다고 말한다.

은시연이 기태호 검사와 함께 JC모터스 행사장으로 이동한다. 기태호 검사는 정재철 사장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검찰출석을 미루고 있다. 행사장으로 향하던 정재철이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는 자동차를 보며 옆에 세운다. 정재철이 창문을 열고 엄마 차인지 물어보자 상대 운전자가 불쾌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친다. 정재철은 골프채를 들고 차에서 내려 자신의 자동차 앞유리를 부숴버린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골프채를 주면서 엄마차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보라고 말한다. 행사장에 도착한 정재철은 비서에게 차를 폐차 시켜 버려라고 말한다. 은시연은 정재철이 오자 기태호 검사에게 도청기를 건넨다. 정재철이 기태호 검사에게 인사를 하고 기태호 검사는 은시연을 동문이라고 소개한 뒤 몰래 정재철의 주머니에 도청기를 넣는다. 은시연과 기태호 검사는 화장실로 이동해 정재철의 대화를 엿듣는다. 정재철이 룸으로 들어가면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룸에 있던 사람들이 정재철이 늦었다고 짜증을 낸다. 한사람이 정재철을 키워 주었다고 생색을 내자 정재철이 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넘어 뜨린다. 정재철은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말하며 비서가 들고온 차용증과 합의서를 내민다. 정재철이 남자에게 헬멧을 쓰게 하고 드릴로 위협한다. 이태리에서 불법 레이싱 게임을 하였다는 정재철은 합의서와 차용증을 보며 돈을 갚으라고 욕박지른다. 정재철은 주머니에서 도청장치를 꺼낸뒤 잘 들리냐고 되묻는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두사람을 데리고 정재철에게 데려간다. 정재철은 도청장치를 기태호 검사의 샴페인 잔에 넣어 버린다. 은시연이 그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제 됐는가 하고 묻자 정재철이 은시연의 뺨을 때리려고 한다. 때마침 서민재가 행사장에 나타나 사고조사를 위해 정재철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정재철은 행사를 이유로 간단하게 물어보라고 한다. 서민재는 3개월 전 JC모터스 앞에서 일어난 뺨소니 사건을 이야기 한다. 신고자가 보험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았으니 무엇인가 숨기는게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정재철은 근거를 물어보면서 트랙 앞에서 발생한 사고라 유감이라고 말한다. 서민재는 트랙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자 정재철이 당황한다. 서민재가 명함을 주면서 돌아간다. 은시연은 정재철이 마시던 샴페인 잔을 가방에 넣고 행사장을 나온

다. 은시연은 서민재를 차에 탑승시킨 후 혼자다니는 이유를 묻고 서민재는 습관이 라고 말한다. 은시연은 이번 건은 큰 건이라고 말하고 서민재는 사이즈가 있는지 물어본다. 서민재는 행사장 주변 컨셉카의 사진을 찍어 보내고 확인을 요청한다. 서민재는 사진을 전문가에 보내 확인중이라고 말한다. 서민재 아버지(이성민역)의 카센터에 도착한 은시연과 서민재는 현장에서 발견된 전조등 조각이 사진의 차량과 동일하다는 말을 듣는다.

서민재의 집에 은시연을 비롯하여 보험사직원, 구급대 여정, 레커차 기사 한동수와 우선영 계장까지 사랑방처럼 모여 앉아 있다. 저녁을 먹은 후 은시연과 여정이 앉아 서민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여정은 서민재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서민재가 고교시절 폭조를 했고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경찰이 아저씨였고 그후 서민재를 입양했다고 한다. 은시연이 서민재에게 과거 때문에 진급도 않되는데 경찰을 왜 하는지 물어본다. 서민재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정재철은 교회에서 경찰청장을 만나 은시연이 왜 자기 주변에 나타나냐고 화를 낸다. 경찰청장은 정재철을 때리면서 블랙박스를 남겨둔 것에 짜증을 내고 정재철은 블랙박스는 보험이라고 말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서로 돌아가 부하들에게 내사과 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말한다. 은시연과 서민재와 우선영 계장은 공항으로 간다. 서민재는 최경준 이사가 보험금 이체를 한다고 말한다. 서민재가 공항에서 최경준 이사를 체포하고 청라사거리 뺑소니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최경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을 뺀다. 서민재가 최경준에게 교도소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냐고 묻고 교도소에서는 밤만 되면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어서 아우성이라고 겁을 준다. 최경준 이사가 사고 당일을 떠올리면서 이야기 하고 은시연은 진술내용을 녹음한다. 오래전 경찰청장이 트랙으로 찾아온다. 경찰청장은 정재철이 돈이 필요하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오는 것이다. 최경준은 정재철이 동물적인 사람이라서 그 날도 정재철에게 레이서처럼 운전하면 안된다고 말렸지만 정재철이 화를 내면서 도로를 질주하다가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충돌하고 승용차가 전복되어 버린 것이다.

은시연은 윤지현에게 진술내용을 들려주고 윤지현은 정재철에게 돈 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 블랙박스부터 찾아야 했다. 윤지현은 기태호 검사를 불러 상황을 알려주고 레이서 장소로 간다. 기태호 검사는 내사팀에서 준비한 차에 감탄한다. 은시연은 레이서후에 달리고 헬멧은 절대로 벗지 말라고 한다. 뺑반에서 최경준이 들려준 레이서가 열리는 지역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정재철을 잡기위한 준비를 한다. 우선영 계장이 은시연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고 진행을 서두른다. 서민재의 아버지는 집에서 식사준비를 하고 있다. 한동수가 와서 엠블런스가 고장났다고 말하고 서민재 아버지는 엔진문제라고 하며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말한다. 우선영 계장이 경찰서장이 사건을 본청으로 넘겼다고 복귀명령을 내린다. 반발한 서민재가

혼자서 터널 입구를 지키고 있다. 터널로 오던 "가르마"(이학주역)는 자신이 바쁘다고 지나가려 하고 서민재와 몸싸움을 하던중 서민재를 기절시키고 레이스 장소로 간다. 정재철이 레이스 장소로 버스터를 타고 도착한다. 은시연이 버스터 도착을 알린다. 정재철과 기태호 검사가 레이스를 시작하고 은시연은 버스터가 지켜 보는 곳에서 주변을 살핀다. 잠시후 서민재가 정신을 회복하고 택시를 타고 레이스장소로 간다. 정재철과 레이스 도중 기태호 검사의 차량이 전복된다. 정재철의 경호원들이 사고차량으로 이동하고 상황을 지켜 보던 은시연이 버스터의 창문을 깨고 정재철의 지문으로 시동을 건 후 달린다. 정재철은 레이스 차량 운전자가 기태호 검사라는 사실을 알고 은시연의 행방을 묻는다. 정재철은 경호원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은시연이 버스터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쫓아 간다. 은시연이 버스터를 운전중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을 보고한다. 그때 내사과 차량에 가르마와 경찰이 도착해 내사과 전원을 조직규범 위반으로 체포를 명한다. 서민재가 택시 운행중 버스터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방향을 돌린다.

정재철이 은시연이 타고 간 버스터를 뒤쫓아 가던 중에 구급차와 충돌하게 된다. 정재철은 구급차가 전복되면서 길을 막는 바람에 화를 내며 구급차를 들이받는다. 은시연은 구급차로 달려가고 서민재 아버지는 여정부터 구출하라고 말한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서민재는 구급차내에 남아 있던 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가지만 구급차에 화재가 나서 폭발한다.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서민재는 정재철을 바라본다. 정재철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도착해 정재철을 도피시키려 하고 서민재가 경호원들을 공격하면서 정재철을 막아서자 가르마가 서민재를 막으면서 공격하고 수갑을 채워 버린다. 서민재는 손가락을 꺾어 수갑을 빼내고 가르마를 넘어 뜨린다. 정재철이 출발하라고 명령하고 서민재는 달려오는 자동차로 돌진해 차를 세운다. 서민재가 정재철을 차에서 끌어 내리고 죽이려 하자 은시연이 나타나 서민재에게 죽이면 안된다고 말한다.

서형사가 소년원에 있는 "김민재"(류준열역)를 찾는다. 서형사는 김민재의 진술서에 기록한 주범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교통사고후 119에 신고하고 차에서 자신을 왜 구출했는지 묻는다. 서형사는 사고로 다리를 다친 상태다. 그 때 민재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은시연과 윤지현에게 보고 안 한 작전을 인정하는지 물어본다. 위원들은 두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증언하라고 말하고 심의대상자인 박유철 총감이 출석한다. 박유철 총감이 블랙박스에 자신이 찍혔다는 사실을 말한다. 은시연은 우선영 계장을 찾는다. 우선영 계장은 그 때 출동했으면 도로에서 출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민재는 정직이 되고 정재철은 증거 불충분으로 약식기소되어 석방되었음을 알린다. 기태호 검사가 정재철이 병원진료로 모래 미국으로 출국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한다. 기태호 검사는 윤지현 과장이 폐기한 내사과 하드디스크를 준다. 윤지현 과장이 정재철을 찾아가 뇌

물 리스트를 언제 줄것이냐고 묻고 정재철은 자신이 입원을 하면 리스트를 넘기겠다고 말한다. 윤지현 과장은 긴급후 내사과 팀원들과 모임을 한다. 은시연은 기태호 검사가 넘겨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확인한다. 윤지현 과장은 뺑소니 신고 접수 후 6분만에 오인신고로 뒤바뀌었다고 말한다. 은시연은 윤지현 과장에게 일이 남아서 못간다고 전하고 자기에게 보여준 영상은 정재철이 나온 장면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한다. 윤지현 과장은 뇌물리스트를 받기 위해 정재철과 협상한 것이라고 말한다. 윤지현은 지금부터 너를 잡겠다고 대응한다.

은시연은 서민재의 집을 찾는다. 인천서구 관내지도에서 민재가 기록한 피해차량의 예상동선을 파악한다. 은시연 저수지를 찾아가 바퀴자국을 보면서 정재철이 차를 저수지로 밀어 넣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은시연이 함께 정재철을 잡자고 말하자 서민재는 혼자서 하겠다고 말한다. 서민재는 은시연이 뺑반에 오면서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하고 은시연도 알고 있다고 답한다. 서민재는 자신이 주범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운다. 은시연은 베테랑 형사출신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알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다시 함께 정재철을 잡자고 말한다. 그날밤 카센타에서 정재철이 서민재를 기다리고 있다. 정재철이 F1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서민재는 정비가 잘 된 도로에서 뛰어난 기계로 기록을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민재는 영장을 갖고 갈테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정재철은 다음에 만나면 서민재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재철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기태호 검사를 보며 웃는다. 차장으로 긴급한 윤지현 차장이 내사팀의 무전을 들고 정재철의 지시대로 한다.

기태호 검사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정재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은시연과 서민재는 JC모터스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차가 오자 충돌한다. 정재철이 문을 열고 도주하고 서민재가 추적한다. 윤지현 차장은 타고 있던 경찰에게 총을 겨누고 수갑을 채운다. 정재철이 버스터를 타고 도주하고 서민재는 은시연을 태우고 정재철을 추적한다. 윤지현 차장이 내사과 팀원들에게 무전을 하지만 응답이 없고 인천으로 간다. 정재철은 추격을 피하면서 주위의 차들을 들이 받는다. 서민재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를 멈춘다. 우선영 계장이 은시연에게 전화를 해 스피커 폰으로 바꾸라고 하며 상황실에서 기동폭풍 상황발생이라며 관내 순찰차를 집결시킨다. 우선영 계장은 레커차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한동수 아내가 무전을 잡고 레커차 기사들을 모은다. 경찰서장이 본청에서 온 윤지현차장과 함께 상황실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우선영 계장이 문을 잠궈 버린다. 윤지현 차장이 저격수를 태우고 헬기를 띄운다. 한편 정재철은 막힌 길을 돌아 서인천 외곽도로로 진입하고 서민재는 정재철의 뒤를 추적한다. 터널 밖에서는 은시연이 정재철의 차량에 총을 쏘며 위협을 가한다.

민재가 정재철의 버스터 뒤를 받자 자동차가 회전을 하고 F1트랙 안쪽으로 추락한

다. 은시연은 순찰차로 F1트랙으로 가자고 말하고 경찰서장은 무전으로 서민재와 은시연을 긴급체포하라고 지시한다. 윤지현 차장은 헬기의 저격수에 긴급상황을 알리고 저격을 명한다. 서민재와 정재철은 서로 격투를 벌인다. 정재철이 증거를 찾았는지 물어 보고 서민재는 곧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기태호 검사의 전화가 오고 우리가 당했다는 비보를 전한다. 최경준이 뺑소니로 자수를 한 것이다. 기태호 검사가 저수지에서 차량을 올려내기 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정재철은 김민재라면 오히려 쉬웠을 것이라면서 돌아간다. 윤지현 차장이 저격수에게 발포를 명하고 저격수가 서민재에게 발포하자 은시연이 몸을 날려 대신 총에 맞는다. 서민재가 은시연의 총을 들고 정재철을 뒤쫓고 정재철에게 총을 겨눈다. 총상을 입은 은시연이 뒤 따라와 죽이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 순간 정재철이 주위의 흥기로 서민재를 찌른다. 서민재는 정재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뺑소니와 경찰관 살해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한다. 저수지에서 자동차가 발견되고 정재철은 유죄가 된다. 은시연이 서민재를 찾는다. 서민재는 농촌에서 경운기가 뺑소니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간다. 은시연은 진급대상자를 좌천시킨 것에 답답한 마음이다. 은시연은 자신이 맡은 사건이 경찰청장이 뺑소니를 당해서 현재 수사상태라고 하며 서민재와 함께라면 좋겠다고 말한다. 서민재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고 물으면서 영화는 끝난다.

뺑소니에도 갑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 한사람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찰과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 상층부까지 동원되는 현실에 답답함이 있다. 영화 뺑소니는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했는 지 알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반성에 대한 정직함을 배울 때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어떤 실수는 치명적인 상해가 되기도 한다. 그런 순간에도 진실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죄값을 받는 것이 오히려 삶이 편하다. 결국 드러나고 죄질만 커질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배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며 죄 값을 응당히 지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의 실천은 용기에서 나온다. 이것이 뺑소니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념이다.

6. “증인”Innocent Witness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02.13

감독:이한, 각본:문지원, 제작:무비락,도서관옆스튜디오

주연:정우성,김향기, 관객:2,457,238명(2019.03.10.)

“양순호”(정우성역)변호사는 아버지 “양길재”(박근형역)와 통화하며 가사 도우미를 쓰자고 말하고 아버지는 싫다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만나고 나온다. 학교 수업시간 선생님이 “임지우”(김향기역)에게 시를 낭독하라고 말하고 임지우는 시를 암송한다. 양변호사가 퇴근하여 아버지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46년동안 여자 한번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한다. TV를 함께 보다가 C&A생리대 소송건을 보고 아버지가 피해자측 변호사인 “김수인”(송윤아역)이 이혼했는지 물어본다. 아이만 없다면 이혼녀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양변호사는 수인이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

임지우가 집에서 테블릿 영상을 보는데 잠깐 멈춘다. 순간 앞집에서 유리창문이 깨지고 지우가 당황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지우의 엄마 “현정”(장영남역)이 달려와 지우를 안으며 진정을 시킨다. 경찰이 출동하고 거리는 소란스럽다. 양변호사의 로펌 출근길, “정연”(이채은역)이 책상청소를 하는데 양변호사가 자기 책상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말한다. 정연이 양변호사에게 C&A생리대 모의법정이 한시간 당겨졌다고 말하며 양변호사의 민변시절 활약상을 이야기한다. C&A 모의법정이 열리고 “이병우”(정원중역)대표가 C&A회사 대표 “윤재”(이준혁역)에게 법정에서 바로 앉으라고 요구한다. 이병우는 피해자측 대표가 민변출신이라고 말하며 대책을 물어본다. 양변호사가 회사대표가 먼저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이병우가 맞짱구를 친다. 이병우가 양변호사를 사무실로 불러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제안하며 국선무료 변호를 추천한다. 이병우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자폐아 고등학생 임지우다. 이병우는 노인문제와 자폐가 언론의 관심사건이라고 말하며 양변호사에게 새 옷과 자동차 키를 준다. 다음날 양변호사는 구치소에서 피고인 “오미란”(염혜란역)을 만난다. 양변호사는 오미란에게 도와 줄테니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한다. 오미란은 김은택은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신 분이러면서 아니라고 말한다. 김은택이 사망하던 날, 오미란은 한밤중에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김은택의 자살시도를 발견한다. 오미란이 다급히 비닐을 찢으려 하지만 못했다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김은택이 자살을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오미란은 2년전 김은택의 아내가 죽은후부터 뒤따르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답한다. 오미란은 양변호사에게 수임료는 주지 못해도 돼지 두루치기는 만들어주겠다고 말한다. 로펌으로 돌아온 양변호사가 임지우의 진술영상을 확인하던 중 정연이 영상을 보며 누가 이 아이의 말을 믿을까 의

구심을 던진다.

양변호사는 김은택이 살던 동네를 찾는다. "부동산중개업자"(이서환역)는 오미란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증언을 하겠다고 전한다. 양변호사는 김은택의 집을 찾아 사진을 정리하던 "김만호"(김종수역)를 만난다. 김만호는 회계법인대표다. 김만호는 오미란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 양변호사는 임지우의 집을 찾는다. 지우 엄마 현정은 검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진술했다고 만남을 거부한다. 양변호사가 임지우의 진술 영상을 의사에게 보여준다. 의사는 임지우는 일반 자폐아와 달리 지능이 높고 논리적이라고 말하며 전문가와 부모가 동행하여 안정적인 진술을 받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정에 세운다면 지우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김수인 변호사의 집을 찾는다. 김수인의 딸 "경희"(이레역)는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든다. 경희는 양변호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양변호사는 경희에게 성격은 엄마를 닮지 말라고 말한다. 저녁식사후 김수인은 양변호사에게 왜 결혼을 안하는지 물어 본다. 양변호사는 아버지의 지병과 빛이 많아서 포기했다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김수인에게 C&A생리대 소송이 오래 걸릴거 같다고 피해자의 보상금에 맞추는게 낫을 거라고 말하자 김수인은 장사꾼이라면서 돌아가 버린다. 귀가한 양변호사는 자폐자료를 검색한다. 아버지가 봉투 3개를 내밀며 여자를 만나 보라고 하고 양변호사는 아버지의 보증으로 결혼은 포기했다고 말한다. 다음날 양변호사는 구치소를 찾아 오미란을 만나 임지우의 증언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거짓말테스트를 물어보고 오미란은 거짓말테스트를 받겠다고 말하지만 양변호사는 검찰에서 거짓말테스트를 요청하면 거절하라고 말한다.

공판준비기일, "이희중"(이규형역) 검사는 임지우의 진술영상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양변호사는 임지우의 핵심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하고 판사는 임지우의 증인출석을 요구한다. 법정을 나오면서 양변호사는 이희중 검사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검사는 소송중인 변호사와 악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검사는 자폐인은 각자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며 법정에 나오기 싫은 사람과 소통하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양변호사는 임지우의 학교를 찾는다. 친구 "최신혜"(김승윤역)와 귀가하는 임지우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한다. 임지우는 알파고시대에 변호사는 없어질 직업이라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임지우와 함께 다니는 최신혜가 착하다고 말하고 최신혜는 착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양변호사는 임지우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임지우는 양변호사의 넥타이의 물방울이 267개라고 말하며 대화는 거절한다. 지우가 개짖는 소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1심1차공판, 양변호사는 김은택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병력이 사건과 관계된다고 말하고 이 검사는 증거불충분하다면서 제외를 요구한다. 판사는 사건정황에 유효한

증거라면서 증거로 채택할 것을 말한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타살을 가정하는 질문을 하자 변호사가 반론을 제기한다. 판사가 증인에게 답변을 요청하자 연구원이 봉지를 찢으려는 흔적이 없었다고 증언한다. 양변호사는 국과수 연구원 논문을 제시하면서 80대 노인에게 괴력이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국과수 연구원은 그렇다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미국에서 비닐키트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고 김은택이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사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1차 공판은 종결된다.

양변호사는 임지우를 만나러 학교를 찾는다. 양변호사는 퍼즐을 보여주며 임지우를 위해 가져 온 것이라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순자퍼즐과 논리퍼즐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임지우에게 네 개의 벽면의 창문이 모두 남향으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임지우는 다시 개짚는 소리에 놀라 예민하게 반응한다. 양변호사는 임지우와 함께 라면을 먹는다. 임지우는 라면을 먹으면서 파란색 젤리를 먹는다. 임지우가 변호사에게는 노란색 젤리를 준다. 양변호사가 임지우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이검사가 지우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양변호사는 이검사가 지우와 특별한 인사로 교감한다. 자폐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말하며 돌아가는 이검사를 보며 양변호사는 임지우와의 인사법을 연습한다.

양변호사는 C&A대표가 생리대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을 알게 된다. 양변호사는 김수인을 찾아가 로펌변호사가 15명이니 이제 실리를 챙기라지만 김수인은 로펌이 플러스 양변까지 16명이라고 답한다. 양변호사는 전화를 받고 로펌대표, C&A대표, 로펌변호사들이 야구 내기하는 경기장으로 간다. 양변호사는 이들과 같이 술을 마신다. 로펌대표가 위스키에도 레벨이있다고 말하고 이병우 대표는 김만호의 회계법인에서 고문 변호사 추천을 받아 양변호사를 추천한다. 양변호사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파트너 변호사가 될 거라고 말하며 돈도 벌고 부채도 빨리 갚을 것 같다고 말한다. 양변호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임지우가 전화를 하여 논리퍼즐의 답이 북극이냐고 묻는다. 양변호사가 맞다고 하자 바로 끊어 버린다. 양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다른 문제를 내면 임지우가 답하는 질문과 대답이 즐겁게 반복된다. 양변호사가 임지우에게 퍼즐문제를 내고 매일 오후 5시에 답을 맞추기로 약속한다. 양변호사가 임지우 하교시간에 맞추어 함께 걷는데 개가 짚는다. 임지우는 고막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하고 양변호사는 개를 만지며 반가워서 그런거라고 설명을 한다.

양변호사는 김만호 회계법인의 고문변호사 계약서에 서명한다. 양변호사는 임지우의 하교시간에 보이지 않자 학교로 간다. 최신혜가 친구인 임지우에게 벌레를 넣은 음료수를 강제로 마시게 한다. 양변호사는 최신혜에게 화를 내고 임지우는 엄마의 말이라면서 최신혜를 따라 가려한다. 임지우가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으로 옮겨진다. 병원에서 정신을 회복한 임지우는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양변호사는 학교에

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연락을 받고 임지우 엄마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하고 양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지만 지우에게는 신혜밖에 친구가 없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양 변호사가 모자를 집으로 태워 주고 지우엄마가 지우와 대화를 나눠 볼 것을 부탁한다. 양 변호사는 지우방에서 지우의 꿈을 물어보고 지우는 사람들을 도와 주고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변호사가 꿈이라고 말한다. 양 변호사는 대화를 녹음하면서 그 날 있었던 일을 물어 보지만 임지우는 아무 말이 없다. 지우 엄마가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임지우는 벽에 걸린 표정사진을 보며 사람 마음이 참 어렵다고 말한다. 신혜는 늘 웃지만 자기를 이용하고, 엄마는 늘 화가 나 있지만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임지우가 양 변호사를 보며 자기를 이용할 것인가 하고 묻는다.

1심2차공판, 임지우가 법정으로 들어간다. 이검사는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경쓰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임지우는 시계초침소리가 싫다고 말하고 판사에 의해 시계 밧데리를 제거한다. 검사는 사건당일에 대해 질문한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본 것을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임지우는 오미란이 할아버지 얼굴을 잡고 공격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검사는 임지우가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묻고 임지우는 할아버지가 넘어졌을 때 아줌마가 웃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병우 변호사가 질문을 한다. 이병우는 임지우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해라는 책을 읽어 보라고 말하며 책 내용을 근거로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양 변호사는 자폐는 정신병으로 공격인지 막으려는 행동인지 알수 없다고 말한다. 2심재판을 마친후 2주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말한다. 양 변호사는 넥타이에 있는 물방울이 267개가 맞다고 말한다. 임지우는 변호사에게 퍼즐 정답을 말하며 자신이 정신병자인지 질문한다. 양 변호사는 매우 당황하며 아니라고 답한다. 양 변호사가 임지우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 가지만 지우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정신병자라고 말한 것이 잘한 것이냐고 물으며 돌아 가라고 말한다.

1심선고기일, 판사는 증인의 정신적 상태로 불인정하며 오미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 변호사는 오미란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오미란과 김만호가 미소를 짓는다. 법원을 나서며 양 변호사가 오미란에게 검찰에서 항소했다고 말한다. 오미란은 아들을 만나러 가고 양 변호사는 아들 이야기에 조사를 시작한다. 양 변호사는 병원에서 김은택이 정기적으로 병원 기부를 하였고, 자신이 죽으면 전재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말을 듣는다. 병원 의사는 유언장을 공증하기 전에 김은택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양 변호사는 김만호가 회계법인 사정이 어렵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임지우가 하교길에 최신혜가 우산을 씌워 주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때 오미란이 나타나 임지우에게 어른들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다. 양 변호사는 김수인에게 술 한잔 할 것을 말하지만 김수인은 서로 길길이 다르니 앞으로 보지 말 것

을 잘라 말한다. 양변호사가 지우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우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에서 오미란이 학교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양변호사가 이검사에게 전화를 하고 검사가 다시 임지우의 엄마를 설득해 증인을 한번 더 부탁한다. 임지우가 엄마에게 증인으로 나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한다. 이검사는 양변호사를 찾아가 위에서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했다고 말하자 양변호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다.

2심재판일, 임지우와 지우 엄마가 법원에 도착한다. 증인 심문이 시작되고 이병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해를 근거로 증인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양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을 한다. 손수건을 내밀며 물방울이 몇 개인지 물어본다. 임지우는 196개라고 말하고 양변호사는 임지우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인지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하며 판사에게 임지우가 안정을 할 수 있도록 5시까지 시간을 달라고 말한다.

오후 5시, 속개된 법정에서 양변호사는 법정경위에게 소속과 계급을 속삭이듯이 임지우에게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임지우가 정확하게 들은 것을 말하자 양변호사는 임지우 증인의 청력이 양호하다고 확인해 준다. 양변호사는 사건 당일 임지우가 들었던 말이 모두 몇자인지 물어보고 임지우는 108글자라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속기사에게 108글자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임지우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라고 말한다. 임지우는 오미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한다. 양변호사는 임지우 증인이 들은 것을 마치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이병우 변호사는 양변호사가 변호인 의무위반을 하였다면서 재판 중지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오히려 이병우를 추방하고 양변호사에게 계속하라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고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고 말한다. 임지우 증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 다시 출석했는데 우리가 증인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라고 말한다. 양변호사는 오미란에게 자백을 하면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누가 시킨 것인지 물어본다. 오미란은 김만호를 바라보고 이희중 검사는 김만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임지우의 생일날, 양변호사가 초대를 받는다. 양변호사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떤지 물어본다. 임지우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이 좋다고 말하고 양변호사는 당분간은 바빠 전화를 못한다면서 퍼즐책과 선물을 주고 돌아간다. 임지우가 5시에 양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임지우는 양변호사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안아주고 집으로 돌아간다. 양변호사는 김수인의 집앞 전등을 갈아 끼워 넣는다. 양변호사는 변호사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래도 수인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고백한다. 임지우는 양변호사가 준 생일 선물 포장지를 뜯고 파란색 젤 리가 가득한 선물에 기뻐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사건과 관련한 법정이야기 이지만 잔잔한 감동의 드라마로 다가온다. 자폐증에 걸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자폐증에 걸린 아이가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일까? 오히려 건강한 아이가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잘못을 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변호인 의무위반을 하면서 까지 양변호사 지키고 싶었던 것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임지우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까? 알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사실 진실은 늘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다. 때로는 사실이라는 것도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볼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7. “드래곤 길들이기3”How to Train Your Dragon: The Hidden World

미국영화, 장르:애니메이션, 개봉:2019.01.30

감독:딘 데블로이스(Dean DeBlois), 제작:유니버설픽처스

주연:제이바루첵(히컵역, Jay Baruchel), 이메리카페레라(아스트리드역, America Ferrera), 케이트블린쳇(발카역, Cate Blanchett), 키트해링턴(에렛역, Kit Harington), 크레이그퍼거슨(고버역, Craig Ferguson), 머레이아브라함(그림멜역, F. Murray Abraham)

관객:1,504,000명(2019.03.10.)

버크(Be가)섬은 가상의 섬이다. 척박한 북쪽 땅 2주일을 가면 동사할 가능성이 높은 버크에는 9개월간 눈이오고 나머지 3개월도 우박이 내린다. 버크는 북극권 가운데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극한의 땅에서 반팔과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딸꼭질, 생선다리 와 같이 아무렇게나 짓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미지의 땅이다.

1. 드래곤 길들이기1(개봉:2010.05.20. 관객:257만명)

7세대를 이어 드래곤과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바이킹의 섬 버크, 키가 작고 야원 소년 “히컵”은 족장 “스토이크”의 독자이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단아다. 히컵은 드래곤을 잡아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골몰하고 있다. 어느날 밤 드래곤들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히컵은 자신이 만든 대공포로 미지의 드래곤 “나이트 퓨리”를 추락시킨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아버지조차 꾸중을 할 뿐이다. 다음날 히컵은 나이트 퓨리의 추락지점을 찾아 밧줄에 뒤엉킨 나이트 퓨리를 발견하고 죽이려 하다가 밧줄을 끊어 살려 준다. 나이트 퓨리도 히컵에게 달려 들었지만 그냥 사라져 버린다.

히컵은 동료 아이들과 함께 드래곤과 싸우는 훈련을 받지만 흥미를 잃고 나이트 퓨리를 찾는다. 그는 호숫가에서 한쪽 꼬리날개를 잃어버린 나이트 퓨리를 발견한다. 히컵은 훈련이 끝나는 시간 매일마다 나이트 퓨리를 찾아가 먹이를 주고 “투스리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준다. 히컵은 투스리스를 위해 새로운 꼬리날개를 만들어 준 다음 함께 하늘을 날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히컵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종의 드래곤을 길들이며 훈련생 가운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최우수 훈련생으로 공인받는다. 문제는 최우수 훈련생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드래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히컵에게 1등을 빼앗긴 “아스트리드”가 히컵을 미행하다가 투스리스를 발견하고 마을로 달려가는데 히컵이 아스트리드를 납치해 투스리스를 함께타며 드래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기 시작한다. 버크로 돌아가는 길, 투스리스는 방향을 돌려 수많은 드래곤들이 있는 곳을 향한다. 드래곤들은 양과 물고기

를 "레드데스"에게 상납하며 생활하고 있다. 드래곤들은 용암속의 동굴에서 용암속으로 먹이를 떨어뜨리는데 그곳에는 폭력적인 레드 데스가 살고 있다. 수많은 드래곤들이 레드 데스에게 종속당하며 상납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히컵이 드래곤을 죽여야 하는 마지막 시험일, 히컵은 무기를 버리고 드래곤을 길들인다. 그러나 흥분한 족장이 드래곤을 자극하고 드래곤은 히컵을 공격한다. 때마침 투슬리스가 나타났지만 마을사람들에게 포획당한다. 족장은 히컵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투슬리스를 태우고 레드데스의 은신처를 찾는다. 절망한 히컵이 아스트리드의 위로를 듣고 훈련장에 있던 드래곤을 모두 탈출시켜 레드데스의 은신처로 향한다. 앞서 도착한 사람들은 레드 데스의 힘에 밀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위험에 직면해 있다. 뒤에 도착한 훈련생들이 레드 데스를 협공하고 히컵은 투슬리스를 구명하려다 물에 빠지지만 "스토이크"가 히컵과 투슬리스를 구조한다. 족장은 지금까지의 일을 사과하고 히컵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히컵과 투슬리스는 레드 데스를 구름위로 유인하여 추락시킨 다음 폭사시켜 버린다. 악몽속에 종속되었던 드래곤들이 모두 자유를 얻고 버크에서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간다.

2. 드래곤 길들이기2(개봉:2014.07.23. 관객:2,999,906명)

히컵이 버크섬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 때, 드래곤과 맞섰던 사람들은 드래곤 레이싱을 즐길 정도로 신나는 일상을 누린다. 드래곤 전용호텔과 무제한 뷔페와 드래곤 샤워시설과 최첨단 소방시설까지 완벽하다. 버크 마을의 드래곤 레이싱은 공개 경쟁이다. 히컵이 없는 자리 아스트리드가 13점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 히컵은 투슬리스와 함께 바다를 비행중이다. 히컵은 투슬리스 혼자 비행하는 훈련을 생각하며 새로운 땅을 발견한다. 아스트리드가 히컵을 찾아 레이싱 우승소식을 전한다. 히컵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크의 미래라고 족장의 후계자가 되라고 해서 고민이라고 말한다. 히컵은 통치자는 자유로운 비행을 원하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히컵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고 어머니는 본 적도 없다면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고 말한다. 아스트리드는 답은 멀리 있지 않고 네 자신안에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보라고 말한다. 멀리 바이킹이 그물을 쓰고 있다. "에렛"은 나이트 퓨리를 보고 멸종된 줄 알았다고 말하며 전쟁을 예고한다. 히컵이 드래곤 라이더가 또 있는지 물어보고 에렛은 그 라이더가 "드라고 블러드비스트"에게 바쳐야 할 드래곤 할당량이 있다고 말한다. 에렛은 드라고 블러드비스트에게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상처를 보여준다. 히컵은 드래곤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에렛은 최고의 드래곤 사냥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히컵이 그물을 끊고 스톰플라이를 구출하여 아스트리드와 함께 귀가길에 오른다. 히컵은 아버지에게 새롭게 발견한 땅에 대하여 말하고 아버지는 족장의 임무와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사물함을 만드는 것이 우

선이라고 말한다. 히컵은 드래곤 사냥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히컵은 그들이 드래곤 군대를 소집하고 배후는 드라고 블러드비스트라고 말한다. 스토이크가 드라고 블러드비스트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스토이크는 모든 드래곤을 울타리안에 넣고 태풍 방풍창도 닫으라고 명령한다. 스토이크 허락없이 드래곤과 바이킹도 출입을 금한다고 명령한다. 드라고는 미치광이에 무자비한 자라고 경고한다. 히컵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고 스토이크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에렛이 배를 타고 드래곤 사냥을 나가자 히컵과 아스트리드가 날아온다. 에렛이 그물을 발사해 히컵을 잡는다. 히컵이 몬스터스 나이트메어의 침과 히디어스 지플백의 가스를 반납하며 대화를 시도하려는 순간 에렛의 부하가 히컵의 무기를 잘못 사용해 폭발해 버린다. 에렛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바다에 던지자 스톱플라이가 다시 물어오기를 반복한다. 히컵은 에렛의 생각을 바꾸고 드라고와 대화로 풀겠다고 다짐한다. 다른 드래곤 라이더가 나타나 히컵을 데리고 가는데 스노트의 드래곤이다. 스토이크와 고버도 히컵을 구하려고 도착한다. 스토이크와 고버가 에렛을 넘어뜨리고 히컵에게 돌아갈 것을 말하지만 히컵은 전쟁을 막겠다고 한다. 스토이크는 드라고와 만났던 예전일을 말한다. 몸은 흉터투성이에 드래곤 가죽 망토를 한 드라고 블러드비스트가 자신만이 드래곤을 지배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섬기고 복종할 것을 명한다. 그후 지붕에서 불덩이가 쏟아져 전부 불태워 버리고 스토이크는 그때 겨우 도망했다고 전한다. 히컵은 예외도 있다고 말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다. 히컵이 공중에서 다른 드래곤이 나타나 투슬리스를 바다에 빠뜨리고 히컵을 데리고 날아간다. 투슬리스가 드래곤 라이더를 경계하고 히컵의 턱에 있는 상처를 본 발카가 엄마라고 말한다. 한편, 스토이크는 엄마를 닮은 고집불통 히컵을 찾으러 다닌다. 스토이크는 포기를 모르는 히컵이 먼저 드라고를 만날까 걱정한다. 엄마를 만난 히컵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본다. 그곳에는 수많은 드래곤이 있다. 발카는 20년동안 드래곤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구출하고 있었다. 엄마는 이곳에 있는 드래곤을 보며 "스내플랭"은 드라고의 뒷에 발을 잃었고 "레인커터"는 날개가 찢겨 나가고 "호블그런트"는 눈을 잃었다고 전한다. 발카는 투슬리스의 꼬리를 보며 드라고가 그런 것인지 묻는다. 히컵은 자신이 투슬리스를 떨어뜨렸고 투슬리스가 반대로 자신을 구해주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전한다. 발카는 스토이크가 드래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히컵은 지금은 드래곤과 친구가 되었다고 말한다. 엄마가 버크섬에 살 때에는 인간이 살려면 드래곤을 죽여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드래곤이 집에 침입하였을 때 요람속에 있는 히컵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평화롭게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때 오해가 있어서 발카는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엄마 발카는 "비윌더비스트"의 집에서 최강의 드래곤 알파를 소개한다. 알파는 드래곤의 제왕이다. 아스트리드가 히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러프넛은 에렛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말한다. 아스트리드는 에렛의 배에서 드라고의 아지트로 안내하라고 말한다. 바다 한 가운데서 알파가 물고기를 잡아 하늘로 품어

대니 다른 드래곤들이 생선을 받아 먹는다. 엄마 발카와 히컵이 드래곤으로 행복을 누리는 시간, 엄마는 20년간 배운 것을 히컵에게 가르쳐 주려한다. 투슬리스의 등을 만지자 등에서 숨어있던 돌기들이 튀어 오른다. 이제는 가파른 비행도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엄마는 모든 드래곤에게 있는 비밀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알려 주려 한다. 히컵이 엄마에게 함께 드라고를 찾자고 말하지만 엄마는 드라고는 대화불능이라면서 보금자리로 돌아가자고 요구한다.

아스트리드와 친구들이 드라고의 영토에 도착한다. 때마침 숨어있던 드라고의 부하들이 드래곤을 향해 마취침을 쏘고 드래곤들이 쓰러지며 아스트리드와 친구들이 드라고의 부하들에게 잡힌다. 드라고가 바다속의 거대한 거품을 보고 있다. 부하들이 에렛과 바이킹을 끌고 간다. 드라고가 발악하는 드래곤을 밟으며 자신의 손에 있다고 말한다. 에렛이 드래곤 라이더도 함께 잡아 왔다고 말하자 드라고가 에렛의 목을 잡으며 얼마나 많은지 묻는다. 아스트리드는 우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히컵이 추적중이라고 말하자 에렛이 히컵은 어린애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스토이크의 아들 히컵은 버크왕국의 후계자이고 최고의 드래곤 마스터라고 말하자 드라고가 모든 드래곤은 자신만이 최고라면서 역정을 낸다. 드라고는 알파를 죽이고 버크를 박살내겠다고 말하며 에렛을 죽이라고 하자 스톱플라이가 에렛을 보호한다. 히컵은 투슬리스에게 드라고가 침략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먼저 찾으러 가자고 한다. 스토이크가 아내 발카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스토이크가 발카는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한다.

드라고가 함대를 이끌고 총진군한다. 에렛과 바이킹을 바다에 빠뜨리려 하고 에렛이 드라고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드래곤을 구한 뒤 스톱플라이가 잡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스토이크와 발카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다. 히컵이 드래곤을 이곳으로 옮기면 드라고가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토이크는 히컵이 말을 듣지 않고 이곳으로 오게 되어 다시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드래곤들이 하늘로 날아간다. 밖으로 나와보니 드라고의 함대가 섬에 도착해 공격을 가한다. 스토이크와 발카가 전쟁을 준비한다. 드라고는 산을 공격해 알파를 밖으로 이끌어 내라고 말한다. 드라고의 부하들이 덫을 놓고 드래곤을 잡는다. 드래곤 라이더들이 공격하고 잡히려던 드래곤을 구출한다. 히컵과 스토이크와 고버가 나타나 공격을 한다. 드라고는 알파를 보면서 전투를 하고 히컵은 투슬리스에게 공격을 지시한다. 발카는 드라고의 그물을 맞고 추락한다. 드라고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른 알파 드래곤을 불러 온다. 발카가 이에 맞서 드라고를 공격하지만 드라고가 발카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 그때 스토이크가 드라고를 공격하면서 발카를 구한다. 드라고가 데리고 온 알파가 싸움에서 이기면서 드래곤들이 새로운 알파에게 복종한다. 드라고는 드래곤에게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발카는 공격을 피해 도주하다 추락하는 것을 스토이크가 몸을 날려 발카를 구한다. 히컵이 드라고에게

중지하라고 말하며 지상으로 내려간다. 드라고는 히컵을 보며 비웃는다. 히컵이 드래곤은 정이 많고 신비로운 생명체로 사람과 친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드라고는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사람을 찢기도 한다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공포를 되뇌인다. 드라고는 어릴 때 마을이 불타고 부모가 죽는 것을 지켜 보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직 드래곤의 공포를 억압하고 지배하여 인간을 해방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히컵이 드래곤 군대를 만드는 이유를 묻고 드라고는 드래곤정복을 위해 드래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히컵이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지만 드라고는 자신이 보여주겠다면서 알파 드래곤을 조종한다. 스토이크가 히컵이 드라고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히컵에게 달려간다. 드라고는 알파에게 지팡이로 투슬리스를 가르키며 조종하라고 시키고 투슬리스는 고통속에서 알파 드래곤의 조종을 받는다. 드라고가 투슬리스를 조종해 히컵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히컵은 투슬리스에게 정신차리라고 말하지만 투슬리스가 히컵에게 불을 품어댄다. 그 때 스토이크가 달려와 히컵을 밀어내고 자신이 대신 투슬리스의 공격을 받는다. 드라고가 이것을 웃으며 바라본다. 발카와 히컵이 스토이크를 일으키려 하지만 이미 죽은 후다. 알파가 투슬리스의 조종을 중단하자 원래대로 돌아온다. 투슬리스가 족장의 손에 불을 문지르자 히컵은 투슬리스를 밀쳐 버린다. 발카가 투슬리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드라고의 알파가 드래곤들을 조종하며 모든 드래곤을 끌고 간다. 라이더의 드래곤들도 마찬가지로. 드라고는 함대를 집결시키고 버크 공격을 지시한다. 고버는 스토이크를 태운 배를 바다에 띄우고 바이킹의 장례식을 거행한다. 발카는 히컵이 연약해서 잘 자랄지 의문이었지만 스토이크는 언제나 강하게 자랄 히컵을 믿었다고 말한다. 발카는 스토이크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히컵은 족장의 심장과 드래곤의 영혼이 있다고 말한다. 히컵은 두려웠지만 발카는 용기를 주면서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히컵은 투슬리스를 되찾고 드라고를 파괴하겠다고 말한다. 드라고가 버크 마을에 도착하고 알파의 조종을 받아 드래곤들이 날아가 버린다. 드라고가 버크섬 사람들에게 족장은 죽었고 이제는 드라고 밖에 없다고 말한다. 히컵이 섬에 도착하고 공격받은 섬을 발견한다. 히컵은 투슬리스를 조종하지 못하게 알파를 공격하라고 말한다. 섬사람들은 히컵이 돌아 온 것을 보며 환호한다. 친구들이 알파를 공격하고 히컵은 투슬리스 앞으로 날아간다. 히컵이 투슬리스에게 다가가 아버지를 해칠 드래곤이 아니라고 하면서 넌 나의 최고의 친구라고 말한다. 투슬리스가 정신을 회복하고 히컵을 알아본다. 드라고가 투슬리스를 공격하고 투슬리스는 드라고의 지팡이를 잡으며 떨어뜨린다. 히컵은 떨어지는 투슬리스의 등에 올라타 알파와 드라고를 분리하기 위해 깃발을 찢어 투슬리스의 눈을 가린다. 드라고는 알파에게 투슬리스를 조종하라고 하지만 히컵은 투슬리스에게 알파를 향해 돌진하라고 주문한다. 투슬리스가 알파 위를 날아가면서 히컵이 지플백의 가스를 뿌리고 불을 당긴다. 순간 폭발이 발생하면서 드라고는 땅으로 떨어진다. 히컵이 땅에 내려와 드라고를 막아선다. 뒤에 있던 알파가 얼음을 품으면서 히컵과 투슬리스가 얼음속에 갇히지만 투

슬리스의 등이 푸른 빛을 내면서 얼음을 깨뜨리고 탈출한다. 투슬리스가 알파에게 공격하고 알파에게 조종받던 드래곤들이 모두 투슬리스쪽으로 날아온다. 투슬리스와 드래곤들이 알파를 향해 불을 품고 알파가 얼음을 품으려 할 때 투슬리스가 공격해 알파의 뿔을 깨뜨려 버린다. 알파와 드라고는 버크섬을 도망치고 모든 드래곤들은 땅으로 내려와 투슬리스에게 머리를 숙인다. 에렛이 히컵의 드래곤 길들이기에 감동한다. 발카는 아버지도 히컵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면서 기뻐한다. 마을의 원로가 히컵의 이마에 족장 표시를 한다. 고버가 족장이 돌아왔다고 함성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한다. 히컵은 마을이 파괴되었지만 여기가 우리의 집이라고 말한다.

3. 드래곤 길들이기3(개봉:2019.01.30.)

히컵은 투슬리스와 함께 드래곤을 구출하기 위해 드래곤 헌터의 배에 침투한다. 드래곤 헌터가 불을 이용해 공격하지만 히컵은 드래곤의 비늘로 만든 갑옷으로 불을 막고 불길속에서 걸어 나온다. 피시레그스와 아스트리드가 도착하여 잡혀있는 드래곤을 구출하고 이것을 엄마 발카가 지켜보고 있다. 모두 구출한 것으로 믿었지만 투명하게 변한 라이트 퓨어리 한 마리가 배에 남아 있었다. 오늘 훈련에 대한 피드백을 하며 훈련을 더 잘할 것을 다짐한다. 고버는 고블러 드래곤을 보면서 불길한 징조를 느낀다. 고버는 버크섬에 드래곤의 숫자가 너무 많아 드래곤 헌터들도 늘어난다고 말한다. 고버는 족장이 평안해야 부족이 평안하다고 아스트리드와 통합할 것을 말한다. 에렛은 히컵에게 헌터섬에 배가 두 척이 더 있다고 말하고 고버는 언젠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멜이 드래곤을 타고 헌터섬에 도착한다. 그리멜은 장군에게 드라고가 드래곤 라이더에게 대패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드래곤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드래곤을 잡아 모으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멜은 이무 버크섬에 모두 모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장군이 버크섬에는 나이트퓨어리가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다고 안심시킨다.

히컵은 어릴 때 아버지 스토이크가 한 말을 상기한다. 스토이크는 족장은 버크섬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스토이크는 해가 떨어지는 땅에 드래곤의 땅이 있고 거대한 폭포가 있는 "히든 월드"가 있다고 말한다. 히컵은 히든 월드를 찾으면 드래곤 헌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슬리스는 히컵에게 장난을 친다. 아스트리드가 스톱플라이를 타고 날아와 이제 드래곤을 데리고 오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히컵은 세상 끝에 선원들이 말한 폭포가 있고 그곳에 드래곤이 사는 비밀의 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스트리드는 선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잘라 말한다. 히컵은 아스트리드에게 결혼하자고 말하고 투슬리스가 어떤 소리를 듣고

숲속으로 간다. 투슬리스가 숲에서 백색의 "라이트 퓨어리"를 발견하고 서로 관심을 가진다. 히컵과 아스트리드도 따라가지만 라이트 퓨어리가 불을 뿜고 나무위로 올라가 버린다. 섬으로 돌아온 히컵은 나이트퓨리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스트리드는 투슬리스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 투슬리스 때문에 히컵이 숲에 다시 가려 하자 터프넛이 함께 따라간다. 터프넛은 히컵에게 사나이답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히컵은 숲에서 뒗을 발견하고 섬으로 돌아와 조심할 것을 말한다. 히컵이 가져온 침을 본 에렛이 자신이 아는 사람의 물건이라고 말한다. 에렛은 그리멜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며 드래곤 조종자로 다시 올 것이라고 전한다. 히컵이 방에서 지도책을 꺼내 살펴보는데 방구석에서 그리멜이 투슬리스를 향해 침을 쏜다. 히컵이 그리멜에게 화를 내자 그리멜이 히컵의 아버지 스토이크가 최고의 헌터였는데 어느날 변했다고 말한다. 그리멜은 나이트 퓨어리 킬러로서 모두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 남아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투슬리스를 쏘았는데 없고 피시레그스가 일어나 쓰러지고 아스트리드, 스노드, 고버, 발카가 그리멜을 에워싼다. 그리멜이 휘파람으로 드래곤을 조종하여 공격하고 드래곤이 마을을 공격하자 집이 녹고 불이나 아수라장이 된다.

히컵은 피시레그스에게 그리멜이 조종하는 드래곤을 물어본다. 에렛이 그리멜은 포악하고 집요하니 조심하라고 말한다. 히컵은 버크섬이 많이 노출되었으니 새로운 섬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스트리드는 히든월드가 있다고 말한다. 히컵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그곳이 버크섬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터프넛이 동의한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족장을 따른다.

드래곤 헌터가 버크섬에 상륙하고 아무도 없자 그리멜에게 묻는다. 히컵이 선두에서 날아가고 투슬리스는 라이트 퓨어리가 날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는데 라이트 퓨어리가 히컵을 잡고 던져 버린후 사라져 버린다. 투슬리스가 히컵을 잡고 돌아온다. 그리멜은 나이트 퓨어리가 추운 곳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북쪽은 아니라고 표시하고 동쪽과 남쪽도 아니라고 표시한다. 그리멜은 서쪽을 가리킨다. 히컵은 중간에 있는 섬을 발견하고 쉬었다 가기로 결정한다. 사람들이 집을 만들 준비를 하자 히컵은 이 섬이 아니라 더 가야 한다고 말하고 며칠만 더 있다가 간다고 말한다. 발카는 미행이 있는지 돌아보러 간다. 히컵은 아스트리드에게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물어보고 아스트리드는 옳은 결정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밤이 되고 모두 잠든사이 투슬리스가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난다. 투슬리스가 라이트 퓨어를 발견하고 따라간다. 언덕위에서 지켜보던 히컵이 투슬리스에게 날개짓을 하라고 말한다. 투슬리스가 날개짓을 하자 라이트 퓨어가 투슬리스를 밀치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가린다. 투슬리스가 나무위로 올라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사이 라이트 퓨어가 히컵을 발견하고 날아가 버린다. 다음날 히컵은 투슬리스의 새로운 꼬리 날개를 만든다. 투슬리스가 새 꼬리날개를 달고 날아 오른다. 히컵이 라이트 퓨어를 찾으려

고 말하고 투슬리스가 망설이다가 하늘을 날아 간다. 발카가 드래곤 헌터의 배를 발견한다. 그리멜의 드래곤이 발카를 발견하고 공격한다. 발카가 클라우드점퍼와 함께 돌아간다. 투슬리스는 라이트 퓨어리를 찾아 다니는데 라이트 퓨어리가 투슬리스에게 다가온다. 서로가 친밀하게 함께 날아 오른다.

새로운 버크섬에 바이킹들이 축제를 한다. 고버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한다. 히컵은 투슬리스가 염려된다. 고버가 늘어난 고블러 드래곤을 보면서 묻지만 히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섬으로 돌아온 발카가 히컵에게 드래곤 헌터 이야기를 한다. 발카는 그리멜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한다. 히컵이 그리멜을 납치하여 드래곤 헌터들과 분리하자고 말하고 터프넛이 동의한다. 히컵과 바이킹들이 드래곤을 타고 그리멜이 있는 곳으로 침투한다. 히컵이 그리멜의 방으로 가는데 그리멜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멜은 그물을 작동해 안으로 들어온 바이킹을 모두 가두어 버린다. 그리멜은 어릴 때 어린 나이트 퓨어리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드래곤을 키우지 않는다고 전한다. 히컵이 그리멜의 드래곤을 가리키자 그리멜은 독에 취해 다른 드래곤을 죽이는 킬러 드래곤이라고 말한다. 그리멜의 명령을 받은 킬러 드래곤은 액체를 뿜으며 바이킹을 공격하고 바이킹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친다. 발카가 지팡이로 클라우드 점프를 부르고 바이킹들이 빠져 나가 드래곤을 타고 섬으로 귀환한다. 러프넛은 드래곤을 타지 못했다. 히컵이 투슬리스와 함께 가서 러프넛을 구해 오겠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투슬리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발카는 아스트리드에게 히컵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아스트리드가 히컵과 함께 러프넛을 찾아 오기 위해 드래곤에 올라 탄다. 러프넛이 그리멜을 귀찮게 하며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멜이 귀찮아 러프넛을 풀어주고 러프넛이 날아가자 그리멜이 웃으며 바라본다. 아스트리드는 스톰플라이가 무엇을 쫓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바다 가운데서 폭포를 발견한다. 스톰플라이는 폭포 가운데로 내려가 동굴속으로 날아간다. 뒤쫓던 히컵은 히든 월드가 진짜 존재한다면 감탄한다. 히컵과 아스트리드가 투슬리스와 라이트 퓨어리를 발견하고 지켜본다. 투슬리스가 드래곤 무리가운데 소리를 지르자 다른 드래곤들이 머리를 숙이며 복종한다. 아스트리드는 투슬리스를 보며 진짜 왕이라고 말한다. 그때 뒤에서 드래곤이 히컵과 아스트리드를 위협하고 아래로 떨어지려 하자 투슬리스가 두사람을 향해 날아오면서 드래곤의 공격을 막고 히컵과 아스트리드를 잡아 올려 히든월드를 빠져 나온다.

히컵은 어릴때를 생각한다. 아버지 스톰플라이가 벽난로 앞에서 울고 있다. 히컵이 아버지에게 새엄마가 오는지 물어보고 스톰플라이는 자신에게는 발카뿐이라고 말하며 제일 소중한 선물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섬에 도착한 히컵이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며 투슬리스에게 히든월드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투슬리스는 라이트 퓨어리에게로 돌아간다. 러프넛이 드래곤을 타고 섬으로 귀환한다. 러프넛이 미행을 당한 것이다. 숨어있던 그리멜이 라이트 퓨어리와 투슬리스에게 마취침을 쏘아 잡아가 버린

다. 마을의 드래곤들이 그리멜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 오르자 그리멜이 라이트 퓨어리를 인질로 잡고 유유히 돌아간다. 발카는 히컵이 아스트리드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스트리드가 히컵에게 다가가자 히컵은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말한다. 히컵은 투슬리스가 자신을 도왔고 자신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히컵은 자신이 만든 날개옷을 입고 드래곤 헌터의 배까지 날아간다. 러프넛과 터프넛과 스노트, 피시레그스가 함께 드래곤 헌터의 배에 뛰어 내린다. 그리멜은 라이트 퓨어리를 위협하면서 나머지 드래곤을 우리에게 가둔다. 하늘을 날아 온 히컵이 그리멜을 쳐서 떨어뜨린다. 투슬리스가 다른 드래곤에게 총 공격 신호를 보내고 우리에게 갇힌 드래곤들이 공격하며 빠져 나오고 드래곤 헌터를 공격한다. 그리멜이 활로 공격하자 투슬리스가 불을 뿜어 공격한다. 아스트리드가 지플백 드래곤의 가스를 뿌리고 히컵이 불을 붙여 폭발시켜 버린다. 히컵이 풀려난 스톱플리아를 타고 투슬리스를 풀어 주려 한다. 그리멜은 라이트 퓨어리에게 약을 주사하고 도주한다. 히컵이 투슬리스를 풀어주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리멜이 히컵과 아스트리드를 유인한다. 투슬리스가 그리멜을 추적하자 그리멜의 조종을 받은 드래곤 킬러가 포위를 한다. 투슬리스가 번개를 일으키며 순간이동을 한다. 투슬리스와 히컵이 갑자기 그리멜의 앞에서 나타난다. 히컵은 라이트 퓨어리를 향해 날아간다. 그리멜은 투슬리스에게 마취침을 쏜다. 그리멜이 떨어지며 히컵의 다리를 붙들고 히컵은 라이트 퓨어리의 목을 감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며 투슬리스를 구하라고 한다. 그리멜이 떨어지면서 히컵의 날개옷을 잡아당기고 히컵의 의족까지 붙잡으려 한다. 라이트 퓨어리가 투슬리스를 구한뒤 히컵에게 날아와 붙잡는다. 그리멜이 살려달라고 말하지만 히컵은 의족을 분리시킨다. 지상에 내려온 히컵이 라이트 퓨어리에게 투슬리스와 함께 하라고 말하고 히컵이 투슬리스에게 히든 월드로 떠나라고 말한다. 투슬리스가 히컵을 안아주고 드래곤들과 함께 히든 월드로 날아간다.

버크에 겨울이 왔을 때 히컵과 아스트리드가 결혼식을 올린다. 히컵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는 드래곤이 있었다고 말하고 지금은 빠져차 없다고 말한다. 몇 년후 히컵과 아스트리드는 아들과 딸을 태우고 히든월드로 간다. 투슬리스가 경계하며 다가오다가 히컵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히컵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서워 했지만 투슬리스와 아이들은 평화로운 교감을 한다. 투슬리스는 히컵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 오른다. 투슬리스가 전설을 이야기 한다. 땅이 갈라지고 용암이 분출하는 것은 드래곤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바이킹은 모든 드래곤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날까지 비밀이라고 말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변치 않는 스토크와 발카처럼, 히컵과 아스트리드의 믿음과 사랑이 끝이 없고, 새롭게 만난 투슬리스와 라이트 퓨어리의 사랑도 진심을 담아가는 것을 발견한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히컵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함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다. 드래곤 길들이기는 어린이 영화가 아니라 가족영화다.

많은 것을 배우고 교훈하는 영화에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준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는 거대한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는 히컵과 그 히컵을 지켜주는 아스트리드의 변함없는 헌신과 발카 엄마의 기대함은 존재감만으로도 힘이 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훌륭한 멘토들이 늘 주변에 함께 하도록 자신을 낮추고 내려 놓는 섬김이 필요하다.

8. “자전거왕 엄복동”Race to Freedom:Um Bok Dong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02.27

감독,각본:김유성, 제작: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주연:비,강소라,이범수, 관객:169,377명(2019.03.11.)

1. 엄복동(嚴福童,1892~1951)

엄복동은 1892년 6월20일, 조선 한성부 중구역 오장방에서 출생하였다. 엄복동은 경기도 진위(평택시)의 자전거 가게인 일미상회에서 배달점원으로 일하면서 자전거를 배운다. 그후 엄복동은 1910년, 자전거경기대회와 1913년 4월13일,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자전거 경주대회(용산연병장)와 1918년 장충단공원경기에서 각각 우승하는 등 경기마다 싹쓸이를 하였다. 특히 1918년 경기에서 빨강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여 엄복동의 존재를 전국적으로 알렸고 “떴다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의 자전거...”라는 유행가가 만들어졌다. 이로서 일제시대 조선 민중들의 스타가 된 엄복동은 일본을 이긴 유일한 희망이었다. 1922년, 경성시 민대운동회에서 개최된 조선자전거대회에서 엄복동이 우승하려 하자 일본심판들이 갑자기 해가 저물었다는 엉뚱한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격분한 엄복동이 본부석 우승기를 꺾어 버리고 일본인 관객과 조선인 관객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 경기에서 엄복동 선수와 일본인 2위 선수가 경기장 3바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다. 1923년, 마산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 우승, 1925년, 상주 조선팔도자전거대회 우승, 1928년 6월, 전국운수조합대회와 1932년 4월, 불혹의 나이에 전 조선남여자전거대회 1만미터 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며 모든 경기에서 조선인 엄복동은 20대 일본선수들을 모두 물리쳤다. 그러나 엄복동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도 남아 있다. 1926년과 1950년 3월, 엄복동은 자전거 절도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고 30일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자전거왕이라는 화려한 이력과 달리 엄복동의 말년은 암울했다. 광복후에는 엄복동이 집이 없어서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에서 노숙하였고, 1951년, 엄복동의 나이 60세, 한국전쟁 당시 동두천의 야산에서 폭격을 맞아 세상을 떠났다. 당시 엄복동이 탔던 자전거는 등록문화재 466호로 지정되어 서울 강동구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엄복동에 관한 소재는 1983년, MBC드라마 “엄복동”이후 2019년 영화가 두 번째이다.

2. 영화 “자전거왕 엄복동”

1910년 경성, 경술국치이후 일본은 용산에서 전 조선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자전거대회를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룬다. 경기가 시작되고 조선의 임

왕섭이 일본의 "모리시타"(한성빈역)와 충돌해 넘어지면서 모리시타가 우승을 차지한다. "하세가와"(박근형역)총독은 "고종"(송재호역)황제를 보며 비웃고 고종은 경기장을 나선다. "김형신"(강소리역)이 자전거대회를 보고 집으로 간다. 애국단 독립군들이 토론을 한다. "안도민"(고창석역) 단장이 의병을 일으키고 경성에 집결하여 자전거대회를 없애자고 말하고 "황재호"(이범수역)는 사기가 꺾인 군대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애국단원들이 일미상회를 위해 자전거대회를 나가는 것이라고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

경기도 평택, "엄복동"(정지훈역)이 물통을 지고 시장골목에서 물을 팔고 있다. 물장수 광식이 물통을 자전거에 싣고 이미 다 팔아버린 곳에서 멍하니 바라만 본다. 자전거 "장수"(김일우역)가 자전거 시승자를 찾는다. 길을 가던 엄복동이 시승을 하게 되는데 페달을 밟을 줄만 알고 멈출 줄 몰라 닭장을 들이받고 넘어진다. "엄귀동"(신수항역)은 "아버지"(이경영역)에게 경성대학 법대 합격 통지서를 내민다. 아버지는 귀동에게 등록금을 주면서 술을 마신다. 귀가한 엄복동은 동생을 보며 반가워 한다. 아버지는 복동에게 일을 시키고 귀동에게는 돈봉투를 주머니에 감추라고 말한다. 벼단을 치우던 엄복동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전거 생각을 떠올린다. 마침 귀동이 복동에게로 와서 자전거 이야기를 듣는다. 귀동이 경성에서는 자전거 경기도 하고 복동은 자전거로 물장사도 하고 돈도 벌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날 귀동은 자신의 등록금으로 자전거를 사고 돈벌어서 나중에 갚아 달라고 말한다.

황재호는 "경자"(민효린역)와 함께 시장을 돌며 자전거 선수단 모집광고를 낸다. 엄복동은 물장수 라이벌 광식과 함께 자전거 대결을 펼치며 앞질러 간다. 복동이 구둣가게에서 아버지의 구두를 사고 밖으로 나오는데 가게 앞에 세워 둔 자전거가 사라져 버린다. 밤이 늦도록 자전거를 찾아 보지만 찾지 못한다. 아버지는 엄복동의 자전거 사건을 알고 화를 내며 엄복동을 때린다. 다음날 새벽시간, 엄복동은 아버지의 구두를 놓고 집을 떠난다.

경성, 엄복동은 역전에서 배달원 모집을 보고 "이흥대"(이시언역)에게 자전거 배달원을 요구한다. 이흥대는 엄복동에게 평택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도 평택출신이라면서 보증인을 말한다. 엄복동이 보증이 없자 3원을 받고 일할 주소를 가르쳐 준다.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곳에 일자리는 없다. 귀동이는 짐을 챙기고 만주에 가려한다. 봉선이 말리지만 돈이 필요한 귀동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한편, 엄복동은 일군모집처를 찾지만 자리가 없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전거 경주대회장으로 간다. 자전거경기장에서 애국단 독립군들이 침투하여 총독 암살을 준비한다. 김형신이 총독좌석밑에 폭탄을 설치한 후 나간다. 그때 엄복동이 가방을 두고 가는 김형신의 어깨를 잡고 놀란 김형신이 일본군이 모인 곳에 가방을 던진다. 폭탄이 터지고 일본군이 쓰러진다. 김형신이 엄복동에게 누구인지

묻고 일본군과 맞서지만 애국단 일원이 체포된다. 경기장을 나온 엄복동이 자전거 선수단 모집광고를 보고 선수단을 찾는다. 엄복동이 "경자"(민호린역)를 보며 "아가 씨! 우승하면 진짜 100원을 줍니까?"하고 묻는다.

엄복동이 자전거를 타고 출발선에 서 있다. 옆에있던 김홍대가 옆사람에게 출신지를 묻고 부산이라고 하자 자신도 부산출신이라고 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엄복동이 자신에게 사기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김홍대를 쫓아 페달을 열심히 밟는다. 이들의 훈련과정을 일미상회 사장이 유심히 바라본다. 김홍대와 엄복동이 일미상회의 선수로 채용이 된다. 식사시간에 경자가 복동에게는 많은 음식을 주고 김홍대에게는 남은 조각들을 접시에 담아 준다.

일본경찰 "사카모토"(김희원역)가 자전거경기장 폭탄테러에 체포된 애국단 단원들을 고문한다. 김형신은 일미상회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본다. 김형신은 황재호에게 자전거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돌아간다. 새벽시간 화장실에 갔던 엄복동이 마당에서 김형신과 마주치고 도둑으로 생각한 엄복동이 김형신의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자 남자가 아닌 것을 알고 당황한다. 김형신은 경기장에서 마주친 자라는 것을 알고 급소를 차 버린다.

다음날 일본경찰 사카모토는 애국단 단원이 운영하는 국수집을 찾는다. 국수집 주인이 도주하다 총에 맞아 죽고, 은신처를 급습하지만 아무도 없다. 김형신은 전차에서 애국단 안도민 단장을 만나 사카모토가 추적하고 있다고 전한다. 김형신은 황재호에게 받은 것을 건네고 안도민은 자신이 가진 것을 김형신에게 준다. 김형신이 봉투를 펼쳐 보니 감자가 들어 있다. 엄복동이 일미상회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 황재호가 수녀에게 복동이 재능은 있는데 아직은 미숙하다고 말한다. 그때 길을 가던 일본군이 자전거 선수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막무가내다. 황재호 사장이 인사를 한 후 허가증을 보여주며 허가를 받고 훈련중이라고 하자 일본군이 황재호의 뺨을 때리며 허가증을 구긴다. 그날밤 황재호는 선수단 숙소를 돌아보고 나간다. 이홍대가 엄복동을 깨워 돈을 걸고 내기 경기를 제안한다. 몰래 뒤따른 천병철이 두사람의 경기를 지켜본다. 엄복동이 선수들을 앞질러 내달리다가 황재호 사장이 갑자기 앞을 막자 넘어진다. 비겁한 이홍대는 어디론가 숨어 버린다. 다음날 황재호 사장은 엄복동을 끌어내라고 하고 엄복동은 용서를 빈다. 결국 고장난 자전거로 연습하라고 하지만 엄복동은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경자는 엄복동에게 방아돌리기를 시키는 황재호를 타박하고 황재호는 엄복동의 상체훈련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본경찰은 애국단의 다음 표적을 의논한다. 안도신과 김형신이 경성을 떠난 것 같다고 말한다. 사카모토는 애국단의 목표는 자전거를 만들고 대회를 개최하는 곳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안도민 단장은 김형신에게 일본이 토지조사 명목으로 토지를 강탈하고 있다고 말하며 동양척식주식회사 주변을 살

핀다.

황재호 사장은 자전거 대회에 출전할 일미상회 대표로 천병철과 엄복동을 선발한다. 황재호는 엄복동에게 선수복을 건네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려라고 말한다. 자전거 대회에는 일본선수 6명, 조선인 선수 4명 등 10명이 출전한다. 일본관리가 자전거대회가 폭탄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세가와 총독은 대회를 계속한다. 경기가 시작되고 천병철과 엄복동이 모리시타의 뒤에서 2,3등을 하고 있다. 엄복동이 앞으로 나가려 하자 모리시타가 어깨로 밀며 뒤쳐지게 한다. 한편, 안도민 단장은 김형신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4시에 동양척식회사를 급습하고 4시40분에 경성탈출을 감행한다. 다시 후미에서 엄복동이 한명씩 제치며 앞으로 나간다. 마지막 두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모리시타가 천병철을 밀어 넘어뜨린다. 마지막 한 바퀴, 황재호 사장이 엄복동에게 지금이라고 소리치며 신호를 보낸다. 엄복동은 자전거 안장에서 엉덩이를 올리고 페달을 열심히 밟는다. 엄복동은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모리시타를 제치고 먼저 들어오고 우승을 차지한다. 조선인의 환호가 터져 나오고 고종황제도 미소를 지으며 기뻐한다.

안도민 단장이 시계를 보며 동양척식회사로 이동한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형신이 건물안으로 들어가는데 일본경찰만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 김형신이 사카모토를 향해 총을 쏘며 피한다. 수류탄을 투척하며 겨우 버티는데 안도민 단장이 기관총을 들고 나타나 마구 쏘아댄다. 김형신이 금고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사카모토가 총으로 김형신을 조준한다. 김형신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안도민이 김형신을 구하려 하지만 사카모토가 안도민을 저격하여 위험에 직면한다. 결국 안도민이 시간을 벌기위해 싸우는 동안 김형신이 먼저 동양척식회사를 빠져 나간다.

일미상회에서는 엄복동의 우승잔치가 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조선궁궐 상궁이 고종황제의 상을 들고와 하사를 한다. 사람들이 떠나고 밤하늘을 바라보는 엄복동에게 황재호 사장이 다음 경기가 끝나면 고향에 다녀오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하자 엄복동은 이제 전국민의 희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때 김형신이 총상을 입은채로 일미상회를 찾는다. 황재호와 엄복동이 김형신을 방으로 옮기고 치료를 한다. 다음날 수녀가 황재호를 찾아와 안도창이 죽었다고 전한다. 이흥대가 사라방에 있는 여자가 독립군 같다고 큰소리를 친다. 천병철이 우리는 총을 들지는 못했지만 자전거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전거 대회가 다시 열리고 엄복동이 모리시타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다.

만주 철도공사장에서 엄귀동이 일하면서 신문을 통해 형 엄복동의 우승소식을 접한다. 한편 경성 일미상회 골방에서 김형신은 악몽을 꾸다. 김형신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엄복동의 자전거 노래를 듣고 밖으로 나간다. 엄복동은 김형신의 방을

바라본다. 김형신이 엄복동과 함께 길을 걷는다. 김형신은 황재호 아저씨가 자전거로 일본을 이긴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이겨달라고 부탁한다. 하세가와 총독과 관리들이 체스게임을 하다가 원산공업소 조선인들이 엄복동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한다. 하세가와가 "미키"(손지안역)에게 "카츠라"(정석원역)는 아직인가 하고 묻는다. 만주 철도공장에서 일본군이 근로자를 상대로 자전거 경기를 한다. 우승자는 귀가다. 귀동도 손을 들고 경주가 시작된다. 카츠라가 총을 들고 나와 꼴등을 쏘아 죽인다. 꼴등은 죽는 원칙이라고 말하자 모두 미친 듯이 달린다. 귀동이 친구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일본군은 아무런 이유없이 죽여 버린다.

김형신이 황재호에게 편지를 남긴채 동양척식회사로 간다. 황재호와 엄복동이 김형신을 찾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간다. 김형신은 동양척식회사 앞에서 "최재필"(이원종역)을 기다리다가 추적한다. 최재필이 서커스장으로 도주하자 김형신이 뒤따라가 최재필을 죽이고 밖으로 나온다. 일본경찰이 입구에서 김형신을 발견하고 총을쏘아 부상을 입는다. 때마침 엄복동이 나타나 김형신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내 달린다. 막다른 골목길에 사카모토가 엄복동의 자전거를 기다린다.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순간 사카모토가 쏜 총에 김형신이 맞고 쓰러진다. 엄복동도 고문장으로 끌려가고 수모를 당한다. 사카모토는 하세가와 총독에게 애국단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보고한다. 일본관료가 엄복동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미키가 우리 일본이 조선인들 보는 앞에서 엄복동을 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카모토는 자전거 대회는 이제 끝나라고 말하면서 고문을 계속한다.

미키가 카츠라는 한번도 우승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엄복동을 이길 자는 오직 카츠라라고 말한다. 엄복동과 카츠라의 특별경주가 펼쳐진다. 봉선은 신문 호위를 보고 아버지에게 큰 오빠인거 같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딸과 함께 경성으로 향한다. 대회당일 황재호는 숨겨둔 총을 꺼낸다. 엄복동은 대기실에서 다친 다리를 붓대로 묶는다. 엄복동이 경기장으로 나오자 조선인들의 폭발적인 환호소리가 들린다. 경성에 도착한 카츠라는 자신의 자전거를 들고 경기장에 나타난다. 경기후 카츠라는 남은 바퀴가 20바퀴가 되자 속도를 높인다. 엄복동도 카츠라의 뒤를 쫓는다. 황재호 사장은 사카모토를 주시한다. 카츠라는 자신의 앞에 있는 선수들을 밀어버리고 앞으로 달려 나간다. 천병철은 모리시티와 함께 넘어진다. 카츠라가 앞으로 나가려는 엄복동을 밀어버린다. 엄복동의 다리에서는 피가 나고 타이어의 바람까지 빠져 나간다. 엄복동은 김형신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조선인들이 엄복동을 환호하며 함께 달리는 듯 하다.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카츠라가 다시 엄복동을 밀어 버리고 엄복동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다. 엄복동은 총독앞으로 가서 자전거를 던진다. 일본군이 총을 겨누고 조선인들은 엄복동을 지키기 위해 경기장으로 내려간다. 사카모토가 관객석에서 엄복동을 조준하자 황재호가

사카모토를 총으로 쏜다. 아버지와 엄봉선이 오빠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자 조선인들이 용기를 내면서 애국가를 부른다. 격분한 일본군이 총을 쏘고 엄복동앞에 있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진다.

영화는 끝이 났다. 2천만 조선인의 희망이 된 이름 엄복동, 달리는 손기정 선수와 함께 엄복동은 조선인의 자존심을 지킨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다. 자신이 가진 작은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 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아무리 하찮은 일같이 보여도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국민생활로 알려진 자전거 한 대가 100년 전에는 조선인을 하나로 만드는 도구가 되었고 엄복동이 그 일을 해내었다. 그리스도인이 전해주는 작은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잠깐이라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유익이라 할 것이다.

9. "항거:유관순이야기" A Resistance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02.27

감독,각본:조민호, 제작:디씨지플러스,조르바필름

주연:고아성,김새벽,김예은,정하담,류경수, 관객:1,068,341명(2019.03.12.)

1. 유관순(嚴福童,1902년12월16일~1920년9월28일)

1902년 12월16일, 유관순은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3남2녀가운데 둘째딸로 출생하였다. 할아버지 "유윤기"(柳潤基)로부터 기독교 가정인 유관순은 3대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아버지 "유중권"(柳重權)은 사회개혁과 부녀자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흥호학교"(興湖學校)에 참여하였다. 유관순은 경성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등 근대화의 길을 향하고 있었다. 경성과 충남 공주간 교통로가 활발한 목천군은 선교사들이 복음전파에 많은 정성을 쏟은 곳이다. 1901년, 지령리에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1907년 8월, 국채보상운동에 교회가 동참하자 11월, 일본군이 교회를 불태워 버렸다. 1908년, 유관순의 친척인 "유빈기"가 "케이블"(E.M.Cable, 奇怡富)선교사의 후원으로 "조인원"과 함께 "지령리교회"를 재건축하였고 유관순도 유아기에 이 교회를 출석하였다. 1916년, 지령리 교회를 순회하던 "샤프"(Alice Hammond Sharp, 史愛理施)선교사에 의해 유관순은 교비유학생으로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한다. 1918년 3월18일,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4월1일,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한 유관순은 "이문회"(以文會)에 가입하여 매일 오후3시, 조국독립을 위한 기도회와 시국토론회에 참여하였다.

1919년 1월22일, 고종이 서거하자 학생들은 스스로 상복을 입고 휴교하였으며 2월 28일, 전교생이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1일, 이화학당 학생인 신태실과 노예달은 파고다공원에서 삼일운동에 참여하고, 유관순은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 등 "5인결사대"를 조직하여 대한문에서 망곡(望哭)한후 남대문으로 향하는 시위대에 참여하였다. 3월5일, 학생연합시위대가 거리에 나서자 학교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가하여 신태실, 유점선, 노예달이 검거되고 김복순 선생은 투옥되었으며, 유관순도 체포되었지만 곧 바로 석방되었다. 3월10일, 전국적으로 강제 휴교령이 반포되었다. 3월13일,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마을 어른들에게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독립선언서를 보여주며 병천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한다. 4월1일, 조인원, 유중권, 유중무 등 수천명이 참여한 병천시장의 이른바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유관순의 부모와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유관순은 현장에서 주동자로 체포되어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공주영명학교 만세운동의 주동자인 친오빠 유우석도 함께 수감되었다. 5월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6월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는다. 일본제국의 재판권 자체를 부인하였던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1920년 3월1일, 오후2시 “삼일운동1주년 기념 옥중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3천명의 수감자들이 외친 만세소리가 감옥밖으로 퍼져 나갔고, 이 일로 형무소 주위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전차통행이 마비되고 경찰 기마대가 긴급 출동하는 등 일본경찰을 충격에 빠뜨렸다. 1920년 4월28일, 영친왕의 결혼기념특사령으로 유관순의 형기가 1년6개월로 단축되었으나 오랜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28일, 오전8시20분 18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이화학당이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일제는 거부하였다. 이에 학교장 “윌터”(Miss Jeanette Walter)가 미국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공포하겠다고 말하자 은밀하게 장례를 한다는 조건으로 시신을 인계하였다. 1920년 10월12일, 유관순의 시신이 이화학당으로 돌아왔으며, 10월14일,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치했다. 그후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기지로 개발하면서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하였으나 실전되었고 현재는 충남 천안시 매봉산에 초혼묘가 봉안되어 있다. 1947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고, 1951년, 순국의열사 심사위원회에서 “순국의열사”로 선정되었으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2019년, 삼일운동100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추서하였다.

2. 영화 “항거:유관순이야기”

기독교 가정인 유관순의 고향집에서 기독교인 다운 식사가 시작된다. 기도중에 밥한숟갈을 먼저 입에 넣는 아이와 벌레가 무서워 하는 오빠 대신 벌레를 잡는 유관순의 가정은 평화롭기만 하다. 어느날 일본 경찰이 유관순의 집에 순찰을 하고 아버지 “유중권”(최무성역)과 오빠 “유우석”(심태영역)이 맞서는 사이에 유관순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들고 뒷담을 넘어 도망간다. 유관순은 4월1일, 병천의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다. 현장을 급습한 일본경찰차량에 태극기를 달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 틈을 노리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 그렇게 유관순은 그 자리에서 부모를 모두 잃어 버린다.

1919년, 일본경찰이 서대문형무소로 여자죄수를 이송해 온다. 여옥사 “간수”(이수연역)가 죄수를 인계받아 남자 간수와 함께 여죄수를 기록 한다. 수인번호 371번,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부은 여죄수의 이름은 “유관순”(고아성역)이다. 여옥사 8번방에 수감된 유관순은 25명의 죄수들이 옆으로 누울 자리 조차 없이 비좁은 방을 보며 매우 놀란다. 어릴때부터 보고 자랐던 “만석 어머니”(김남진역)도 옥방에 갇혀 있었다. 만석 어머니가 유관순을 보며 독립만세운동으로 아들이 죽었다면서 되려 유관순을 원망한다. 이때, 기생출신 “김향화”(김새벽역)가 독립만세운동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유관순을 변호하고 나선다. 소란이 끝난 후 누워 있던 사람들이

약속하듯이 모두가 함께 걷기 시작한다. 누군가 아리랑을 부르고 모두가 힘을 모아 아리랑이 감옥 밖으로 퍼져 나간다. 놀란 여옥사 간수가 조용히 하라고 경고음을 보낸 후에야 8번방 감옥은 다시 조용해 진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개구리 같다고 유관순이 말한다. 다같이 노래(개굴개굴,만세만세) 하다가도 누군가(사람,일본경찰) 오면 (개굴개굴,만세)를 멈춘다는 말이다.

조선인 간수 "니시다"(류경수역), 한국명 "정춘영"에게 "형무소장"(이영석역)이 일본어로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 개구리 주동자를 찾아내라고 명령한다. 이에 곧바로 "이옥이"(정하담역)가 걸려들자 유관순과 다른 언니들이 모두 나서서 니시다를 당황하게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의 일대일 면담에서 방에 있던 임산부 수감자들에게 감옥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특혜를 미끼로 유관순을 고발하게 한다. 손목으로 허공에 유관순을 매달아 놓은 간수들은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겨 여자로서의 모멸감과 함께 추악한 수치심을 주는 고문을 한다. 또한 세워 놓은 관속에 유관순을 가두어 놓고 일주일을 지내도록 한다. 일주일이 지난후 관을 열어주며 걸어 가라고 하지만 걸을 수조차 없는 유관순은 산송장처럼 쓰러져 버린다.

유관순은 부모님 기일과 삼일만세운동 1주년에 옥중 만세운동을 계획한다. 유관순은 모범수들만 하는 빨래일을 한다. 양젓물을 만져야 해서 손은 엉망이고 밥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다. 감옥에서 날짜를 알지 못해 니시다에게 날짜를 알려 달라고 말한다. 유관순이 무엇인가 계획을 갖고 있는 듯 하자 8번방 언니들이 일단은 감옥에서 나간 다음 하자고 설득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 보다 무엇을 하는 것이 낫다고 신념을 밝힌다. 스스로에게 애절한 사연이 있어서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다. 무슨 애국애족과 같은 신념이 투철해서 만세를 부른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유관순은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싶은 보통의 국민일 뿐이다. 결국, 1주년이 되는 날, 유관순은 빨래 노역장에서 힘겨워 쓰러지는 척 하여 방으로 돌아 온 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8번방에 있던 사람들과 다른 방 수감자들도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우레같은 소리에 놀란 형무소 밖의 사람들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기적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간수들이 순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니시다가 사건 당일 유관순이 노역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동자로 지목되어 고문을 받는다. 유관순이 고문을 받는 동안 특별사면으로 8번방 사람들이 모두 석방되지만 유관순은 예외다. 손톱을 뜯어내고 배를 발로 차 방광과 자궁을 파열 시키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후 석방된 오빠와 김향화가 면회를 왔지만 유관순은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영친왕의 결혼으로 특별사

면 기회를 얻어 형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았지만 유관순은 “나는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으니 너희가 마음대로 정한 형량이 반으로 줄어들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유관순은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동료 노역자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요?”라고 묻는다. 유관순은 말한다. “그럼, 누가 합니까?”

영화는 끝이 났다. 아무도 일어나 극장을 나갈수 없게 되었다. 석별의 정 노래가 이토록 가슴 아프게 절절히 다가 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순국 열사들의 사진이 한 컷씩 올라 가는데, 일본의 야만적 행위앞에선 증인들이 한명씩 죽어가는데 일본은 아직도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유관순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며 독립선열답게 살았다. 유관순을 죽일수는 있었지만 굴복시킬 수 없는 그녀의 신념은 결국 살아서 승리한 것이다. 유관순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한다. 잘못된 역사, 잘못된 친일의 청산, 왜곡된 역사의 굴절을 바로 잡는 일, “그럼, 누가 합니까?”

10. “캡틴마블”Captain Marvel

미국영화, 장르:액션,모험,SF, 개봉:2019.03.06

감독:애너보든(Anna Boden),라이언플렉(Ryan Fleck)

제작:마블스튜디오

주연:브리라슨(Brie Larson,캐럴댄버스,비어스,캡틴마블역),사무엘L잭슨(Samuel L. Jackson,닉퓨리역),벤멘델슨(Ben Mendelsohn,탈로스역),주드로(Jude Law,윤로그역)

관객:3,471,217명(2019.03.13.)

크리문명의 수도 할라, “비어스”(브리라슨역,캡틴마블)가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폭발하는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깨어난 비어스는 스타포스 사령관 “윤로그”(주드로역)에게 악몽이야기를 한다. 비어스는 윤로그에게 무술게임을 하려 하고 윤로그는 비어스에게 지난 일을 잊어라고 한다. 비어스가 포톤 블래스트를 사용하려고 하자 윤로그가 분노를 삭이라고 한다. 포톤 블래스트를 사용할 경우 “슈프림 인텔리전스”(아네트베닝역)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인내하지 못한 비어스가 결국 포톤 블래스트를 사용한다. 비어스는 크리의 AI리더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만난다. 슈프림 인텔리전스는 무의식속에 두려움이 있고 동족인 크리족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엔 회수하겠다고 말한다. 비어스는 스타포스팀에 합류한다. 사령관은 토르파에 있는 스파이 솔라를 구출하라고 말하며 스크렐의 탈로스장군이 솔라를 죽이려 한다고 한다.

토르파, 크리의 변방에 있는 행성, 스타포스팀이 토르파 행성에 도착한다. 수중침투로 올라가 윤로그는 비어스에게 솔라의 신호를 찾아라고 말한다. “미네르바”(젼마찬역)는 토르파 행성의 원주민을 발견하고 사령관에게 보고 하지만 통신장애로 예러가 된다. 비어스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팀원에게 통로가 하나뿐이라 기습위험이 있으니 통신이 두절되면 헬리온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지시한다. 미네르바는 원주민의 움직임을 감시중이다. 원주민들이 스타포스팀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다. 미네르바가 사격자세를 취할 때 “캡틴 아틀라스”(안젤리스페레스소토역)가 총구를 내린다. 순간 진짜 아틀라스를 발견하고 사격한다. 총을 맞고 쓰러진 원주민이 스크렐로 변한다. 크리 전사들이 변장한 스크렐을 공격한다. 비어스는 솔라의 신호를 따라 코드를 확인 후 만난다. 윤로그는 비어스에게 스크렐의 기습이라고 알려주는데 비어스가 스크렐의 공격으로 쓰러진다. 사령관은 팀원들에게 즉시 헬리온 복귀를 지시한다. 스크렐은 비어스를 기절 시킨후 비어스의 기억을 확인한다. 비어스의 기억속에 캐럴 댄버스가 공군기지에서 마리아 램보우와 전투기에 탑승한다. 캐럴 댄버스가 카트를 운전하고 오빠를 따라간다. 마리아 램보우가 구스는 댄버스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탈로스는 비어스의 기억속에서 웬디 로슨 박사를 발견하고 리플레이를 지시한다. 로슨 박사를 추적하면서 목적지 확인을 요구한다. 비어스가 깨

어나 자신이 잡혀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비어스는 포톤 블래스트에 포박되어 있는 사슬을 끊어 버린다. 비어스가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탈로스는 비어스의 기억속에 있는 로슨 박사와 광속엔진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비어스는 아는게 없다고 말한다.

비어스는 스크럴을 공격하여 제거하고 포톤 블래스트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손은 빠져나왔는데 우주선 선체에 구멍이 나 스크럴은 우주로 날아간다. 비어스는 스크럴 우주선에 있는 탈출용 포트를 발견하고 탑승한다. 탈로스가 비어스를 발견하고 총을 쏘려 하자 비어스가 탈로스를 공격하고 포트를 출발한다. 포트가 지구 대기권 진입시 파괴되어 비어스는 지상으로 추락한다.

1995년, C-53지구, 비어스가 비디오 가게 지붕으로 떨어진다. 비어스가 사령관을 호출하지만 응답이 없자 경비에게 다가가 이곳이 C-53이 맞는지 확인한다. 스크럴도 지구에 떨어지고 해변가 사람들로 변신한다. 비어스는 공중전화에 장비를 설치하고 윤로그에게 전화를 한다. 비어스는 C-53행성에 있는데 탈로스가 코드를 알고 있고 로슨 박사를 찾는다고 말한다. 윤로그는 점프 포인트로 가려면 22시간 소요되니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통화가 끊긴다. 비디오 가게에서 비어스와 만난 경비원이 신고를 하여 쉴드요원이 출동한다. "필 콜슨"(클락그레그역)이 현장을 확인하고 나오며 경비원에게 비어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 "닉 퓨리"(사무엘L.잭슨)가 비어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변환자가 아닌지 모른다면 체포 지시를 내린다. 비어스가 변장한 스크럴을 발견하고 포톤 블래스트를 쏜다. 비어스가 스크럴이 도주하는 방향으로 추적하고 닉 퓨리는 그녀의 손에 무기가 있는지 물어 본다. 스크럴이 전철에 올라타 할머니로 변장한다. 닉퓨리는 전철에 매달린 비어스를 발견하고 지원 요청을 한다. 비어스가 전철 안으로 들어가 스크럴을 찾다가 정류장에서 마주친 노인 스크럴을 발견하고 공격한다. 사람들이 모르고 노인을 공격하려는 비어스의 팔을 잡는다. 스크럴은 비어스를 피해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변장하고 전철 지붕위로 올라간다. 비어스가 스크럴이 떨어뜨린 것을 줍는다. 비어스가 전철지붕 위 스크럴을 추적한다. 전철이 역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전철에서 내리는데 스크럴은 보이지 않는다. 닉 퓨리가 필 콜슨과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던 중 필 콜슨이 비디오 가게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무전을 보낸다. 닉퓨리는 콜슨으로 변장한 스크럴을 공격한다. 비어스는 스크럴이 흘리고 간 기억 데이터를 확인한다. "판초스바1946"이 나온다. 웹서핑 카페 밖에서 지도를 보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카페로 들어가자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린다. 쉴드로 돌아온 퓨리는 스크럴에 대해 조사를 한다. 퓨리가 부검실을 나가자 상관은 죽은 스크럴에 대해 기도를 하고 접근금지를 지시한다.

판초스바에 도착한 비어스는 기억의 퍼즐을 맞추려 한다. 비어스가 판초스바 벽면에 붙어 있는 사진을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묻는데 닉 퓨리가 나타나면서 폐가수스

가 기밀이라고 말한다. 닉 퓨리는 외계인의 부검까지 했다면서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한다. 닉 퓨리가 스크럴 이야기를 한다. 비어스는 스크럴이 숙주의 최근 기억만 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어스가 닉 퓨리가 스크럴이 아닌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 비어스는 포톤 블래스트를 쏘면서 스크럴은 이것을 못한다고 말한다. 비어스가 닉 퓨리에게 페가수스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 닉 퓨리는 스크럴이 웬디 로슨 박사에게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비어스는 광속엔진을 노린다고 말한다. 닉 퓨리가 탈주병은 한 눈에 알아 본다고 말한다.

나사 페가수스 프로젝트, 닉 퓨리와 비어스는 페가수스가 있는 곳으로 간다. 닉 퓨리가 쉴드의 니콜라스 조셉 퓨리 요원 이라고 신원 확인을 하자 비어스가 퓨리에게 이름이 세 개나 된다면 각각 어디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본다. 퓨리는 모두 퓨리라고 부른다고 답한다. 보안요원이 무슨일로 왔는지 물어본다. 퓨리는 쉴드 요원이라고 말하며 비어스가 로슨박사에 대해 묻는다. 보안요원이 따라 오라고 하는데 퓨리가 우리를 가둔 것 같다고 말한다. 퓨리가 자신의 신분증에 남아 있는 보안요원의 지문으로 문을 개방한다. 기록실로 이동하던 중 고양이 구스가 비어스에게 다가오고 퓨리가 고양이를 쓰다듬는다. 비어스가 포톤 블래스트로 기록실 문의 잠금장치를 녹여 버린다. 비어스와 퓨리가 기록실에서 로슨 박사 자료를 찾아 읽어 본다. 고양이 구스가 따라와 바라본다. 광속엔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로슨 박사는 조종사와 함께 추락후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서류철에는 광속엔진 설계도와 문서, 사진들이 있다. 추락사고는 1989년 발생하였고 생존 조종사는 "마리아 램보"(라샤나 린치역)라고 되어 있다. 퓨리는 로슨 박사가 기록한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한 종이 서류를 보여 준다. 비어스는 그것이 크리어라고 말한다. 로슨 박사가 크리어족이었던 것이다. 비어스는 웬디 로슨 박사와 램보의 사진속에 전투기에 탑승한 자신을 발견한다. 비어스가 윤로그 사령관과 통화를 한다. 사령관이 웬디 로슨 박사는 마벨이라는 이름의 비밀요원이었고 C-53에서 사고사 했다고 전한다. 사령관은 전쟁의 승리로 인도할 실험중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어스는 인텔리전스가 사진속의 로슨 박사라고 말한다. 사령관은 지금 접속포인트로 이동중이라면서 도착후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다. 퓨리가 상관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입구에서 만나자 상관은 퓨리를 니콜라스라고 부른다. 퓨리가 바하마작전으로 하자고 말한다. 퓨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을 누르면서 자신은 아래층에서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먼저 내린다. 퓨리에게 신분이 노출된 탈로스는 퓨리를 공격한다. 기록실로 돌아온 비어스가 포톤 블래스트로 제압하고 기록실을 나온다. 계단을 이동중인 비어스와 퓨리가 콜슨 요원과 마주 치지만 콜슨은 두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곳에는 아무도 없다고 거짓 보고한다. 비어스는 퓨리의 양방향 교신기를 빼앗는다. 지하 활주로 은둔해 있던 비어스와 퓨리가 퀘젯을 탑승하고 페가수스를 탈출하는데 고양이 구스도 함께 승차했다. 비어스가 퓨리에게 자신은 기억을 잃었고 할라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사령관은 로난과 통신을 한다. 로난이 모든 스크럴이 적이라고

말하고 자신도 지구로 가겠다고 말하고 통화가 끝난다.

마리아 램보의 집, 비어스와 퓨리가 마리아 램보의 집을 찾는다. 마리아의 딸 모니카는 캐럴 댈버스가 살아 있을거라고 믿었다면서 껴 안는다. 비어스가 마리아 램보와 모니카에게 자신은 캐럴이 아니고 변신을 한 녹색외계인 이야기를 한다. 두사람의 의심하자 비어스가 손으로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 마리아 램보는 기억에 대하여 다시 묻고 비어스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마리아 램보가 사고 당일 이야기를 하면서 로슨 박사가 누구를 구해야 한다면서 힘들어 하였다고 말한다. 마리아는 사고로 절친을 잃었지만 비밀이라고 했는데 6년후 비어스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 모니카는 캐럴 댈버스와 찍었던 사진을 보여준다. 비어스는 기억 인식표를 바라본다. 마리아 램보는 사고후 인식표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비어스와 퓨리가 스크럴일것이라고 경계하고 탈로스가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대화를 제안한다. 페가수스의 블랙박스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며 로슨 박사가 가려고 했던 좌표 해독만 부탁한다. 구스가 다가오자 탈로스가 플러큰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탈로스가 가져온 CD를 읽는다. 캐럴 댈버스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웬디 로슨 박사가 자신의 실험실로 간다고 말한다. 비행기 이륙직전 다른 비행기가 공격을 한다. 캐럴이 방향을 돌려 추격한다. 그러나 비행기 날개를 맞고 추락하는데 캐럴 댈버스는 비상착륙을 한다. 로슨 박사가 녹색피를 흘리고 있다. 로슨 박사가 자신은 마벨이라고 말하며 할라행성 출신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전쟁을 하며 살았다고 캐럴 댈버스에게 좌표를 기억하라고 말한다. 로슨 박사가 광속엔진을 파괴하려는 순간 윤로그가 박사를 쏜다. 윤로그는 캐럴 댈버스에게 에너지 코어가 어디있는지 물어보고 캐럴이 광속엔진을 총으로 쏜다. 엔진이 폭발하고 캐럴 댈버스는 광속엔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쓰러진다. 메네르바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죽이려 하자 사령관이 에너지 코어의 에너지를 흡수한 이유로 데려 간다. 사령관은 바닥에 떨어진 인식표 반쪽 "버스"(Vers)를 발견하고 이름을 비어스라고 부른다.

탈로스는 그녀가 잘못된 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르파에서 난민으로 지내던 스크럴 동족을 도왔다고 말한다. 그녀가 만든 광속우주선으로 크리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쟁을 종식하려 했다고 말한다. 탈로스는 좌표해독을 요구하며 단지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블랙박스를 본 비어스, 즉 "캐럴 댈버스"(브리라슨역)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마리아는 캐럴이 블랙박스에 나온 여자가 맞다고 확인한다. 캐럴은 강한 사람이고 손에서 불을 쏘기 전부터 절친이라고 말한다. 탈로스는 캐럴 댈버스가 마벨의 에너지 코어와 일치하는 유일한 단서라면서 마벨의 실험실 좌표를 알려 달라고 말한다. 탈로스의 부하는 밖에 있는 퀸젯을 고치면 실험실에 갈수 있다고 말한다. 캐럴 댈버스는 퀸젯의 부조종사로 마리아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다. 캐럴 댈버스는 더 이상 크리족의 슈트 착용을 거부한다.

모니카에게 슈트의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모니카는 슈트의 디자인을 교체한다. 윤로그 사령관이 지구에 도착하고 비어스와 만난다. 비어스가 코드를 말하자 코드 인증을 불신한다. 부상당한 비어스를 할라행성에서 누구의 피를 수혈한 것인지 묻는다. 비어스가 대답을 못하자 사령관이 총을 쏜다. 스크럴이 비어스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이다. 사령관은 로난에게 C-53행성에 스크럴이 참투했다고 말한다. 탈로스는 퓨리가 고양이 구스를 조심하라고 말한다. 퓨리는 탈로스에게 누구로도 변할수 있는지 물어본다. 탈로스는 직접 보면 변할 수 있다고 답한다. 퀸젯이 좌표에 도착한다. 캐럴 댄버스가 차폐막을 제거하자 우주선이 나타난다.

마벨의 실험실, 구스는 코어로 간다. 캐럴 댄버스는 코어를 잡으며 이것이 태서렉트라고 말한다. 테이블위의 찻잔이 따뜻하다는 것을 감지한 탈로스가 고향을 치자 숨어 있던 스크럴이 모습을 드러낸다. 캐럴 댄버스가 탈로스가 태서렉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알게 된다. 우주선에 있던 스크럴은 마벨이 경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캐럴 댄버스는 정말 몰랐다고 말하고 탈로스는 자신의 가족을 찾아 주어서 고맙다고 말한다. 마침 스타포스 사령관이 크리족 전사들과 함께 통제실로 들어오는데 캐럴이 자신을 속였다면서 사령관을 공격하려 한다. 사령관이 슈프림 인텔리전스는 가져갈 수 있다면서 캐럴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크리전사들은 퓨리, 마리아, 구스를 검사하고 플러큰은 위험하다고 입을 막는다. 사령관은 캐럴 댄버스를 AI슈프림 인텔리전스와 연결한다. 캐럴이 슈프림 인텔리전스에게 스크럴은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공격한다. 슈프림 인텔리전스가 캐럴은 힘을 통제할 줄 모르고 크리족이 없으면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한다. 캐럴이 일어나 슈프림 인텔리전스에게 대항한다. 슈프림 인텔리전스가 할라에서 비어스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캐럴은 자신은 비어스가 아니라 캐럴 댄버스라고 말하며 묶인 손과 장치를 제거한다. 캐럴의 몸에서 빛을 발사하며 크리 전사들을 쓰러 뜨린다. 캐럴 댄버스는 퓨리와 마리아를 구출하고 태서렉트를 꺼내 가져가라고 말하자 구스가 태서렉트를 삼킨다. 캐럴은 모두 퀸젯에 태워 지구로 가라고 말한다. 캐럴은 빈가방을 들고 통제실에서 크리전사들을 기다리고 크리전사들은 태서렉트를 탈취하기 위해 캐럴을 공격한다. 캐럴이 크리전사들과 싸우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동안 퀸젯에 올라 탄다. 사령관이 미네르바에게 추적하라고 명령한다. 사령관은 캐럴의 가방이 빈가방이라는 것을 알고 퀸젯을 추적하려 하자 캐럴이 막아선다. 우주로 떨어진 캐럴이 사령관의 우주선을 공격하다가 떨어지지만 정신을 집중하고 힘을 일으킨다. 마리아는 퀸젯을 조종하며 추적하는 미네르바의 우주선을 격추시킨다. 사령관의 우주선도 퀸젯을 공격한다. 그때 캐럴이 하늘을 날아 사령관의 우주선을 추락시킨다. 추락한 사령관은 하늘을 본다. C-53 지구에 도착한 로난의 전함이 지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캐럴 댄버스가 미사일을 붙잡아 멈추고 우주로 날려 버린다. 로난이 지구에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놀란다. 로난이 캐럴 댄버스를 보며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캐럴이 로난의

전함을 폭파시키고 빛으로 위협한다. 로난은 부하들에게 돌아갈 것을 지시한다. 사령관이 총을 넣으며 캐럴의 힘으로 자신을 이기면 인정하겠다고 말한다. 캐럴은 포톤 블래스트를 쓰고 증명할 것이 없다고 한다. 캐럴은 사령관을 우주선에 태운뒤 자신이 찾아 가겠다고 말하며 우주선을 날려 보낸다.

퓨리가 구스가 귀엽다고 얼굴에 대는데 구스가 퓨리의 왼쪽 눈에 상처를 준다. 퓨리는 마리아에게 실드에 오라고 한다. 탈로스는 퓨리의 상관을 포박하고 변신을 했다고 말한다. 모니카는 스크럴이 여기 있기를 원하지만 마리아가 위험하다고 말한다. 캐럴이 마벨의 우주선으로 새 집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캐럴 태서렉트는 지구에 숨겨 둘 것을 말한다. 퓨리는 마벨보다 마블이 발음하기 좋다고 말한다. 캐럴은 자신이 퓨리의 양방향 교신기를 수리했다고 말하고 우주밖에서도 교신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캐럴은 급할때만 사용할 것을 말한다. 캐럴은 모니카가 돌려준 자켓을 입고 마벨의 우주선을 타고 간다. 퓨리가 일하는 사무실에 콜슨이 온다. 콜슨은 퓨리가 태서렉트를 지키려다 눈을 다친 것인지 물어본다. 퓨리는 아무말 하지 않는다. 퓨리가 우주 반대편은 여자방위군이 지킨다고 말한다. 퓨리는 캐럴의 사진을 보고 프로젝트 명칭을 어벤져스로 교체한다.

영화 캡틴 마블은 199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는 전 세계 극장가를 집중시키며 모든 시간대를 장악한다. 2000년대 초기 같았으면 1천만명은 거뜰히 넘었을 영화다. 재미있게 보고 팝콘을 즐기면 되는 SF영화 캡틴 마블에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의 그림자에게 가려진 내용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퓨리도 이름이 여러개고, 캡틴 마블도 비어스와 캐럴 댄버스 등 이름이 여러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은 진실에 가려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보며 투명한 영혼을 생각한다.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되는 것은 너무 늦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 하나님과 쌍방향 교신하며 통신 두절이 되지 않게 날마다 애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11. “기묘한 가족”THE ODD FAMILY : ZOMBIE ON SALE

한국영화, 장르:코미디, 개봉:2019.02.13
감독:이민재, 제작:씨네주오스카10스튜디오
주연:정재영,김남길,엄지원,이수경,정가람,박인환,
관객:262,995명(2019.03.14.)

휴먼인 바이오에서 당뇨치료제의 부작용이 나타나 무연고 사람들에게 불법 임상실험을 한 뉴스가 나온다. 흐린날, 휴먼인 바이오의 사유지에서 “쫂비”(정가람역)가 나온다. 비오는 날 밤, 길을 가던 자동차가 누군가 도로에 깔아 놓은 철침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다. 어느새 나타난 “준걸”(정재영역)이 렉카를 타고와 큰일 날 위험이 있었다면서 정비소로 이동한다. 다음날, 준걸은 사고차량을 고치는데 140만원을 청구한다. 그때 “해걸”(이수경역)이 키우던 토끼가 죽었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온다. 겁에 질린 운전자가 140을 주고 도주하듯 가버린다. “남주”(엄지원역)가 돈을 금고에 넣고 준걸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길을 가던 쫂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 들었지만 그냥 피하고 아이들은 거지라고 놀린다. 쫂비는 마을입구에서 사냥개에 쫓겨 달아난다. 마을회관에서 “만덕”(박인환역)은 노인들과 고스톱을 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노인”(김기천역)이 가발을 쓰고 나와 새신랑 흥내를 한다. 만덕이 화투장을 빼돌리다 들키자 개가 소란스럽다면서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 안에서 쫂비를 발견하고 변태인줄 알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쫂비가 만덕에게 달려가 머리를 물어 버리고 도망한다. 해걸이 죽은 토끼를 산에 묻고 내려오는데 마을회관에서 도망하던 쫂비가 해걸을 보고 달려든다. 해걸이 쫂비의 급소를 발로 가격하고 바라 본다. 그때 큰 개가 달려오자 해걸과 쫂비가 함께 도망을 한다. “민걸”(김남길역)이 귀가길에 해걸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뒤따라 오는 쫂비를 보고 함께 도망한다. 해걸이 도망가다 넘어지자 갑자기 나타난 준걸이 렉카차로 쫂비를 들이 받는다. 발로 날아간 쫂비가 다시 일어나는데 개가 짖으며 달려오자 도망을 간다. 집으로 돌아온 민걸이 형에게 지퍼 라이터를 선물한다. 준걸이 사고당한 사람이 뒷목을 붙잡고 나타날까 걱정하자 민걸은 변태가 해걸을 덮치려 했으니 정방당위라고 위로한다. 남주가 무슨일인지 궁금해 한다. 순간 싸이렌 소리에 놀란 준걸이 밖으로 나오는데 아버지 만덕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귀가한다. 구급대원은 만덕이 개에게 물렸다고 말하는데 만덕은 개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낸다. 그날 밤에도 쫂비는 마을에서 쫓는 개를 피해 도망하기가 바쁘다. 만덕은 카라벤으로 들어가 하와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온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서 선풍기를 켜다. 민걸은 해고통지가 문자로 온 것을 보고 누워 버린다. 해걸은 정비소 옆 폐차안에서 엄마 사진을 본다. 그때 소리를 듣고 창고로 간다. 뒤에 온 아버지가 불을 켜다. 쫂비가 토끼우리에서 양배추를 먹고 있다. 만덕은 쫂비를

보고 삼으로 때린다. 해걸은 오빠와 언니에게 큰일 났다고 말하고 창고로 달려온 준걸이 쯡비를 낚아서 차 버린다. 쯡비가 벽으로 밀리다가 다시 가족들을 향해 달려 온다. 민걸과 준걸과 해걸이 낮에 본 그 놈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도 자신의 머리를 물었던 그 놈이라고 말한다. 민걸이 쯡비의 행동을 보며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 준다. 만덕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남주가 프라이팬으로 만덕을 기절시키고 카라밴에 가둔다. 민걸이 마을 PC방에서 밤새도록 쯡비정보를 알아본다. 다음날 아침, 남주가 산사람은 살자고 아침준비를 한다. 해걸이 쯡비에 물리면 바로 죽는다면서 아빠를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말한다. 민걸은 자신이 조사한 것을 가족들에게 설명한다. 쯡비에 물리면 잠복기에 체온상승과 경련을 일으키며 죽는다고 말한다. 민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데 영혼이 없고 물어 뜯는다고 말한다. 순간 카라밴에서 일어난 만덕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 민걸은 쯡비를 죽여야 한다면서 아버지를 의심한다. 만덕이 집으로 들어오자 준걸이는 아버지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남주는 프라이팬을 들고 방어준비를 한다. 아버지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보고 민걸이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다.

해걸은 창고에 가서 기둥에 묶어둔 쯡비에게 간다. 쯡비가 양배추를 보자 해걸이 주며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만 대답이 없다. 해걸이 "쯡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얄전히 있으라고 말한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만덕이 건강을 자신하며 기뻐한다. 남주와 해걸이 쯡비가 양배추 먹는 것을 본다. 남주는 해걸에게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펜치를 집어들어 이게 다같이 사는 길이라고 말한다. 쯡비는 신음을 한다. 만덕은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에게 운동하라고 말한다. 마을 노인은 의아해 하고 만덕은 집으로 돌아와 쯡비 때문에 복이 왔다면서 기뻐한다. 민걸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쯡비 바이러스가 뇌로 퍼진다고 생각하고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가발노인"(김기천역)이 첫날밤을 보내야 한다고 알려 달라고 말하자 만덕이 거절한다. 마을 노인들이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에게 돈봉투를 들고 찾아 온다. 만덕이 노인을 데리고 창고로 가는데 쯡비가 사라졌다. 민걸은 쯡비를 렉카차에 태우고 통화하며 이동한다. "최순경"(오의식역)이 과속단속을 하며 렉카를 세운다. "박순경"(전배수역)이 민걸을 보며 돌려 보낸다. 순간 공구함에서 소리를 듣고 경찰이 공구함을 열어본다. 경찰이 민걸을 체포하고 경찰서로 데려 온다. "오소장"(신정근역)은 사람을 때리고 이까지 뺏았다고 민걸을 감금한다. 민걸은 쯡비라고 말하고 오소장은 민걸에게 달려든다. 만덕이 경찰서로 데려와 쯡비를 막내 아들이라고 속인다. 해걸이 쯡비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최순경이 쯡비의 지문을 찍는다. 집으로 돌아온 만덕이 하와이 꿈을 꾸다. 민걸이 아버지가 하와이 가면 쯡비를 자신이 데려 간다고 말한다. 해걸은 쯡비가 양배추를 먹지 못하고 입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쯡비의 입을 보니 이가 없다. 해걸이 창고 밖으로 나와 누가 쯡비의 이를 뺏았냐고 화를 낸다. 민걸이 쯡비를 데려가려 한다. 만덕이 달팽이 노인의 틀니를 생각하고 기뻐한다. 창고 밖에서 만덕이 노인들에게 팔을 집어 넣으라고 하고 가발노인이 고통스러워 한다. 놀란

노인들이 돌아갔다가 되돌아와 한명씩 팔을 넣는다. 남주는 노인들에게 받은 돈을 금고에 넣고 만덕은 그것을 지켜본다.

다음날 아침, 쯡비에게 물린 노인들이 몸이 건강해졌다고 기뻐한다. 남주는 만덕이 금고의 돈을 모두 가지고 갔다며 소리를 지른다. 민걸은 쯡비를 데리고 집을 나간다. 그때 남주가 자동차 앞을 막으며 박씨 남자들을 호적에서 지우겠다면서 민걸을 따라가며 때린다. 마을 노인들이 자신들이 겪은 일을 자식들에게 말한다. 자식들은 연장을 들고 주유소로 향한다. 해걸은 쯡비를 데리고 양배추밭으로 간다. 쯡비는 양배추를 보고 먹기 시작한다. 해걸이 쯡비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 보라고 말하고 양배추를 들고 도망한다. 쯡비가 해걸을 따라가며 해걸을 덮친다. 쓰러진 쯡비가 해걸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놀란 준걸이 쯡비를 발로 차며 해걸을 보호하려 한다. 해걸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오빠에게 말한다. 민걸과 남주가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며 건물안으로 도망한다. 몰려온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며 자신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민걸이 창문을 열고 줄을 서라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쯡비에게 팔을 내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풍산 주유소를 찾는다. 남주는 돈을 받고 금고에 넣는다.

준걸은 아버지가 쓰던 카라밴을 창고안에 넣고 쯡비의 주거지로 사용한다. 해걸은 쯡비의 사진을 찍고 민걸은 쯡비의 새로운 틀니를 준다. 해걸은 쯡비를 미용실에 데려가 화장을 하고 옷과 칼라렌즈를 사주고 중국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 가족들은 풍산 주유소에 새로운 주유기를 설치하고 개업한다. 가족들이 모여 삼겹살을 먹는다. 민걸은 쯡비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고 남주는 가족같이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준걸은 처음부터 가족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준걸은 쯡비에게 술을 주며 오늘부터 형이라고 불러라고 한다. 남주는 아직 아이라고 말하고 해걸은 쯡비에게 양배추 쌈을 싸서 준다. 민걸은 해걸의 얼굴이 빨갛다면서 놀린다. 민걸은 밖에서 쯡비를 넘기기 위해 통화중이다. 해걸이 엿듣고 쯡비를 바라본다. 최순경은 쯡비의 사진을 보며 조사를 하고 지문조회가 안된다면서 의구심을 가지는데 박순경은 별일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 최순경이 모니터를 감시한다.

가발 노인의 결혼식, 준걸은 결혼식장을 찾아가 풍산 주유소 재오픈 전단지를 돌린다. 쯡비에게 물린 노인들이 더워서 에어컨앞에 몰려 있다. 해걸은 쯡비와 함께 산속으로 들어간다. 해걸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태어나며 엄마가 죽게 된 사연에 눈물을 흘린다. 쯡비는 해걸의 어깨에 있는 낙엽을 입으로 붙여 떨어 뜨린다. 민걸은 카라밴에서 쯡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해걸은 쯡비에게 아무소리 내지 말고 이상한 행동도 하지 말며 자신을 따라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쯡비는 그 자리에서 해걸을 바라본다. 민걸이 쯡비를 찾아 마을을 뒤지다가 산속에 있는 쯡비를 발견한다. 집으로 돌아온 해걸이 쯡비 사진을 보며 좋은 사람 만

나라고 말한다. 한편, 민걸은 쯩비를 데리고 터미널에서 서울행 표를 구입하고 음료수를 사러 잠시 비운다. 슈퍼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데 주인이 이상하다. 결혼식장 하객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파출소에는 터미널에서 싸움이 있다는 전화가 오고 전화벨이 불통이다. 민걸은 터미널에서 쯩비로 변한 사람을 발견하고 도망한다. 결혼식장과 마을에서 쯩비가 사람들을 공격하며 전쟁터가 된다. 집에 있던 해걸이 쯩비로 변한 "춘삼"(구본웅역)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데 쯩비가 해걸의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준걸은 아무것도 모른체 춘삼이 술에 취한줄 알고 한잔 더 하자고 말한다. 해걸이 이상하다고 준걸을 말린다. 춘삼이 달려오자 남주가 물건으로 얼굴을 가격한다. 최순경이 폭행 및 살인미수로 체포한다고 손을 들으라고 말하고 준걸과 남주는 무슨 소리냐고 말하는데 최순경이 춘삼을 보호하려다 되려 물린다. 준걸과 남주와 해걸은 마을 사람들을 발견하고 주유소 사무실로 대피한다. 남주는 입구를 막고 창문을 닫는다. 이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려 버린다. 해걸은 민걸이 적어 놓은 쯩비 가이드북을 보고 보호장비를 만들어 보호한다.

터미널 버스밑에 숨어 있던 민걸은 쯩비가 나타났다고 112에 신고하지만 경찰은 장난전화라면서 끊어 버린다. 순간 민걸의 스마트폰에 벨이 울리자 쯩비들이 쫓아 온다. 민걸은 스마트폰을 던지고 터미널을 나와 남의 자동차를 타고 풍산주유소로 간다. 주유소에는 쯩비들이 돌아다니고 최순경까지 피를 흘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아직 TV에는 쯩비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준걸은 모든 것이 쯩비때문이라고 말하고 해걸은 우리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한다. 소리에 반응한 쯩비를 발견하고 준걸은 창문으로 도망하라고 말한다. 남주가 금고를 챙겨 돌아오는데 쯩비가 남주의 옷을 잡으며 달려 들자 금고로 막아선다. 창문으로 나온 남주와 준걸과 해걸은 창고 지붕위에서 환풍기를 타고 내려 간다. 그때 민걸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풍산주유소로 달려온다. 민걸은 쯩비 반대쪽에 자동차를 멈추고 쯩비를 향해 불꽃을 날린다. 불꽃이 자동차 안에 있는 폭죽에 붙자 자동차를 탈출한다. 쯩비들이 화약 불꽃을 보고 다가가는데 불이 꺼져 버린다. 그러나 트럭 짐칸에 있던 폭죽에 불꽃이 붙으면서 터지기 시작한다. 마을에 있던 쯩비들이 불꽃을 향하여 달려오고 쯩비도 쯩비들과 함께 주유소로 온다. 해걸이 쯩비 가이드북을 보여 준다. 그때 남주의 양수가 터졌다. 당황한 준걸이 민걸에게 부탁하고 민걸이 후각에 예민한 쯩비를 생각하며 쯩비의 옷을 건넨다. 준걸과 민걸이 쯩비의 옷을 두르고 함께 창고 밖으로 나간다. 쯩비 최순경이 주유소 옥상에 건다가 전선에 발이 걸린다. 렉카차까지 이동하지만 열쇠가 없다. 준걸이 열쇠를 찾다가 불과 싸이렌을 켜면서 쯩비들이 자동차로 몰려 든다. 해걸이 예초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서 휘두르다 넘어진다. 그때 쯩비가 나타나 쯩비를 막고 해걸을 보호한다.

주유소 옥상에서 최순경 쯩비가 전선을 건드려 노래와 조명이 켜진다. 쯩비들이 노래와 조명쪽으로 달려가고 해걸은 쯩비를 데리고 창고로 피한다. 준걸과 민걸이

음악소리에 몸을 흔드는 좀비를 보며 당황해 한다. 준걸은 상의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헬멧을 쓰고 입구를 향하여 조용히 걸어간다.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서 노래와 조명이 꺼진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준걸이 유리조각을 밟는다. 그 소리에 좀비가 준걸에게 달려 들다가 대박이 태어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한다. 준걸이 좀비를 뚫고 2층으로 올라가 열쇠를 찾는다. 좀비가 카라밴 창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해걸이 막는다. 해걸이 쯡비에게 뒤에 있으라 하고 말한 뒤 좀비를 향해 예초기를 휘두른다. 준걸은 2층 창문을 열고 민걸을 부르며 열쇠를 던진다. 준걸로 부터 열쇠를 받은 민걸은 자동차 시동을 걸고 카라밴을 움직인다. 남주는 해걸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말하고 해걸이 쯡비에게 타라고 말하는데 쯡비가 해걸을 차에 태우고 쯡비에게 소리를 외친다. 민걸이 전진후진을 반복하다가 주유기가 부서지고 기름이 튀어 오른다. 쯡비들이 솟아 오르는 기름 주위로 모여들고 쯡비에게 쫓기던 준걸이 구사일생으로 조수석에 올라탄다. 랙카차가 출발하고 카라밴이 달려 나간다. 해걸은 남아 있던 쯡비를 바라보며 운다. 쯡비들이 자동차를 따라 나온다. 쯡비는 해걸의 이름을 떠올리며 말을 한다. 자동차를 따라가던 쯡비들이 쯡비를 덮쳐 쓰러뜨린다. 쯡비가 주머니에서 지퍼 라이트를 꺼내 불을 당겨 기름을 향해 던진다. 주유소는 폭발하고 카라밴에서 폭발하는 주유소를 바라본다. 아침이 되고 민걸은 운전을 하고 있고 준걸은 잠을 자고 있다. 라디오에서 전국에서 발생한 폭동의 원인이 휴먼인 바이오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일어난 준걸이 좀비로 변하여 돌아본다. 민걸이 놀라면서 자동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다. 그때 감사터널에서 소리가 들려 온다. 만덕이 캐리어를 끌고 터널 밖으로 나온다. 만덕은 준걸을 보고 왜 그런지 묻고 해걸은 아빠가 제일 처음 물린 거 같다고 뒤로 물러난다. 라디오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쯡비에게 물리거나 감염된 후 회복된 사례가 있으면 질병본부로 오라는 방송을 한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한다. 민걸은 아버지에게 괜찮은지 묻고 모두 기뻐한다. 준걸은 쯡비 백신 완전 무료 간판을 달고 이동한다. 민걸은 차에서 내려 줄을 소라고 말하고 쯡비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쯡비가 카라밴 밖으로 나오면서 줄을 서라고 한다. 만덕은 쯡비의 팔을 보면서 토할 것 같다고 말한다. 만덕이 소주 한모금 마시고 쯡비의 팔을 물자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해걸과 쯡비가 쯡비들의 줄을 세우고 만덕이 치료를 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정말 기묘한 가족이다. 한국판 좀비 영화가 시골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고는 치료방법은 진짜 코메디다. 웃음을 잃어버린 땅에서 크게 한번 웃어보자고 만든 영화인 듯 하다. 가족의 힘은 언제나 놀랍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 모두가 교회속에서 하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도와 주고 힘을 주고 때로는 생명까지 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12. "돈"Money

한국영화, 장르:범죄, 개봉:2019.03.20

감독:이민재, 제작:사나이픽처스,영화사월광

주연:류준열,유지태,조우진,

관객:425,026명(2019.03.21.)

숫자 1에 0이 열 개가 붙으면 10,000,000,000(백억)이다. 여의도에는 하루 평균 7조 원이 거래되고 주식 브로커들의 기본급은 3백이지만 성과급은 정해진 것이 없다. "조일현"(류준열역)은 전대출신 동명증권 신입사원이다. "변차장"(정만식역)은 코스피 종목을 모두 암기하였던 지원자인지 물어 보고 조일현이 맞다고 답한다. 주식브로커는 9시 개장, 고객주문전화로 매매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다. 펀드매니저는 갑, 주식브로커는 을이다. 조일현은 술자리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녹음기를 구매한다. "전우성"(김재영역)은 고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조일현과 입사 동기다. 전우성의 아버지는 기업가, 조일현의 아버지는 복분자 농장주다. 전우성이 아버지 회사직원 선물로 복분자 200박스를 주문한다. 조일현은 전우성에게 불법정보 주식거래가 걸리면 감옥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말이 되어 조일현은 시골집을 찾아 농사를 돕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에 종양이 확인되어 수술비로 걱정이다. 조일현이 출근하고 변차장이 음식점 목록을 알려준다. 처음으로 주식거래 전화를 받은 조일현이 매도 매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아 듣지 못한다. 조일현은 매수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지만 고객이 매도를 주문했다고 짜증을 낸다. "김부장"(김종수역)이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4~5천만원의 성과급을 제시하며 조일현에게는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조일현이 입사 10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이 없다. "유민준"(김민재역)은 조일현이 회식장에서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고급안마 서비스로 데려간다. 유민준은 현재의 수수료에서 천배를 받게 해 주겠다고 "쁘띠꼬" 이야기를 한다. 극소수정보를 알고 있는 "번호표"라는 사람은 외국계 브로커, 금감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유민준도 "박창구"(진선규역) 부장의 소개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배당금 8억을 받았다고 말한다. 유민준의 소개로 조일현은 신화적인 작전설계자 "번호표"(유지태역)를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린다. 카페종업원이 전화를 하고 조일현은 건물 옥상으로 간다. 번호표와 조일현이 만난다. 번호표가 다음달 선물옵션 만기일 전화를 받고 지시대로 하면 수익금 50억에 수수료 5억이라고 말한다.

주식시장 개장직전 조일현이 준비중에 있다. 도봉수가 조일현에게 스프레드 주문이 1만3천개가 한번에 나오는데 8천개를 잡으라고 말한다. 한영증권의 주식 1만3천개가 쏟아지고 조일현은 백개씩 매수주문을 시작한다. "본부장"(손종학역)이 고객주문

확인을 하는데 도봉수가 맞다고 말하고 끊는다. 조일현은 거래수수료 랭킹1위가 된다. 조일현이 번호표를 만난다. 카페전화 413번을 누르면 그와 연결된다. 번호표는 바하마 계좌의 수표를 건네고 조일현이 귀가하여 6억7천만원을 확인하고 그 돈으로 집을 구매한다. 조일현은 레스토랑에서 "여친"(임세미역)을 만난다. 학교선생인 여친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번것에 대하여 걱정이 앞선다. 조일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한지철"(조우진역)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한다. 놀란 조일현이 카페로 달려가 번호표에게 전화를 하고 극장에서 만난다. 조일현은 한지철이 대리인과 아파트계약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번호표에게 말하자 번호표는 금융감독원의 사냥개라고 말한다. 번호표는 다른 브로커를 찾겠다고 말하며 일어나고 겁에 질린 조일현은 다시 거래를 하고 싶다면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을 한다.

다음달, 조일현은 북해도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 백종필과 마주친 조일현이 번호표로부터 프로그램 매매를 요구한다. 동명증권 객장으로 돌아온 조일현은 "박시은"(원진아역)대리로 부터 프로그램 매매를 배운다. 조일현은 박시은에게 관심을 보이고 박시은 대리는 폰 번호를 준다. 번호표가 프로그램 매매에서 3분의 1로 나눈 금액을 5명이 하는데 유민준 과장도 한다고 말하며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거래금액은 7천억, 수익금 180억, 수수료 12억이다. 주식장이 종료되고 조일현은 전우성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간다. 조일현의 귀가길, 한지철이 아파트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다. 한지철이 번호표에 대해 알고 온 것이라고 말한다. 순간 한지철의 딸로부터 전화가 온다. 조일현은 보안요원을 부르고 한지철에게 영장을 보여 달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이면 감독만 하라고 말한다. 한지철은 봉투를 건네며 선물이라고 말한다. 봉투안에는 조일현이 식당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다.

공원에서 조일현과 번호표가 앉아 있는데 인근에서 놀던 아이가 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번호표가 웃으며 다가가 폰을 떨어뜨리고 밟은 후 돈을 주며 아이를 보낸다. 번호표가 사냥개는 초조한 사냥감을 무는 것이라고 조일현에게 의연하게 행동하라고 말한후 휴가가서 입금 확인하고 쉴 것을 제안한다. 조일현이 바하마계좌에서 141만달러를 확인한다. 해변 바에서 맨체스터와 토트넘 경기에 내기를 하는데 조일현은 토트넘에 건다. 옆에 있던 "로이 리"(다니엘 헤니역)가 한국인인지 묻는다. 로이 리가 여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도망자 아니면 여행자라고 말한다. 토트넘이 4대1로 승리한다. 로이 리와 명함을 주고 받으며 뉴욕에 오면 연락하라고 말한다. 조일현의 휴가기간 금감원은 조사를 시작한다. 유민준과장의 부인이 남편과 펀드매니저의 관계를 알고 화를 내자 유민준 과장은 여의도에서 짐을 싣는다.

유민준 과장의 업무는 조일현이 대신 맡는다. 박시은 대리인과 펀드매니저들과의 관계가 드러나지만 박시은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사를 다닌다. 조일현은 여친과 헤어지고 박시은과 가까운 관계로 발전한다. 동명증권 시스템이 자동주문으로 전환되

고 조일현은 수수료 랭킹 1위를 차지한다. BK투자 백종필이 조일현에게 전화로 한지철을 아는지 문자 전화를 끊어 버린다. 다음날 아침, 변차장은 백종필이 자살한 기사를 보여준다. 경찰이 마지막 통화를 한 조일현을 찾아와 백종필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북해도 식당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었다. 조일현이 주차장에서 한지철을 만난다. 한지철은 자신과 만나기로 약속한 백종필이 10억 현금을 들고 왜 죽었을까 의문을 던진다. 조일현은 자신과 프로그램을 거래했던 박창구 부장을 떠올린다. 한지철이 박창구 부장을 만나 변호표에 대해 물어보고 박창구는 유민준을 만난다.

전우성이 금감원선배와 식사를 한다. 선배가 한지철은 증권가 미친개로 한영증권 부도와 동명증권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다. 박창구 부장과 유민준이 한지철을 만난다. 유민준은 자신이 조일현에게 변호표를 소개한 것이라고 말한다. 조일현은 박창구 부장 사무실을 찾는데 만나지 못하고 나오는 길에 박창구의 투신 장면을 목격한다. 조일현은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전우성은 조일현에게 술한잔 할 것을 제안한다. 조일현은 박창구의 죽음으로 충격에 잠겨 있다. 변호표는 쿼트로 조일현에게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서류로 보낸다. 전우성이 길을 걷는 조일현을 뒤쫓아 한지철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때 박시은의 전화가 걸려오고 전우성은 박시은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조일현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변호표를 만난다. 이번에는 공매도다. 없어 질 회사를 상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사채업자가 연결되어 위험도와 수익이 함께 높다고 말한다. 조일현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하는지 물어보고 변호표는 재미있는 일이라서 할 뿐이라고 답한다. 목표 금액 2백억, 수익은 50억이다. 한지철이 박시은의 헬스클럽을 찾아 아버지가 딸 명의로 거액대출이 있는데 딸이 구속되면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지 물어본다. 주식시장 개장후 조일현은 변호표의 말대로 시그널테크 주식을 매수하고 박시은 대리는 이 상황을 한지철에게 알린다. 변호표는 유민준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소식을 접한다. 전우성은 금감원 선배에게 동명증권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물어본다. 전우성이 조일현에게 말하는 순간 박시은 대리가 막아서고 모른 체 하라고 한다. 변호표는 조일현에게 시그널테크 주식 700만개를 매수하라고 말한다. 전우성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조일현을 부른다. 박시은 대리는 조일현의 PC에서 거래계좌정보를 복사한다. 본부장은 전우성에게 걱정말고 실적에 신경쓰라고 말한다. 유민준이 운전중에 자신의 차를 막아선 사람의 발신번호 제한전화를 받는다. 변호표가 옆차선에 서 있다. 유민준이 변호표를 따라 가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조일현은 주식시장 마감직전에 700만주를 매입하고 200억을 달성한다. 브로커의 전화가 걸려 온다. 변호표가 수수료 30%를 가져간다고 자신과 둘이서 나누어 갖자고 말한다. 조일현은 브로커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에 화를 내며 나간다. 조일현이 금감원 직원을 피해 도망하는데 오토바이가 조일현과 부딪친다. 오토바이가 다시 조일현을 덮치려 하는데 다른 차와 충돌해 넘어진다. 조일현에게 변호표가 전화를 하여 유민준이 입원해 있는 여의도병원 708호실로 오라고 말한다. 변호표는 시그널테크

공매도 작전은 한지철의 함정이라고 조일현에게 대처를 잘 한 것이라고 말한다. 번호표는 변수를 이기는 것 또한 변수라고 말한다. 번호표는 부실기업 몇 개를 정리할 계획을 갖고 코스피 종목 번호를 알려주는데 그 가운데 우성무역이 있다. 조일현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는다. 어머니가 재활용그릇을 계속 쓰는 것을 보며 화를 낸다.

다음날, 한지철이 동명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박시은 대리를 체포한다. 한지철은 검찰 합동수사본부 소속으로 박시은이 준 계좌정보USB를 조일현에게도 동행을 요구한다. 조일현은 전우성 부친 부고를 받고 생각한다. 한지철은 조일현에게 번호표를 넘기면 무죄로 하겠다고 딜을 한다. 조일현이 조사실에서 나와 전우성의 장례식을 찾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차안에서 바라보다가 되돌아 간다. 조일현은 번호표를 찾아가 한지철로부터 딜을 받았다고 말하고 번호표는 녹음이라도 할 것인지 묻는다. 번호표가 조일현의 옷을 수영장에 빠뜨린 후 다시 입으라고 말한다. 번호표는 이번 건은 300억이라고 말하면서 성공한 후 외국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조일현이 보성증권 전우성을 찾는다. 조일현이 전우성에게 내일 개장하면 우성무역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일현은 우성무역을 모두 사겠다면서 절대로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다음날 증권시장 개장 후 한지철이 금감원 선배에게 전화해 절대로 콜하지 말라고 하지만 선배는 동명증권에 콜을 한다. 감사실에서 금감원 콜이 왔다면서 찾아온다. 전우성은 이 일을 하려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로이 리를 소개한다. 주식시장이 끝난 후 우성무역은 외국계 투자자로 인해 기사회생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번호표는 300억 손실에 화를 내며 나간다. 한지철이 사무실을 찾지만 번호표는 없다. 조일현은 한지철에게 변수로 인하여 번호표가 연락을 못 했다고 말한다.

조일현과 번호표가 지하철에서 만난다. 조일현은 번호표에게 300억 손실로 미안하다고 말한다. 감사팀이 찾아오고 대주주가 주식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번호표가 조일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자 조일현은 백종필, 박창구, 유민준과 같이 자신도 죽일 것인지 묻는다. 번호표는 조일현의 옷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하고 실망이라고 말한다. 한지철이 번호표를 체포하려고 나간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번호표가 승강장 출입문앞에서 기다린다. 그때 조일현이 가방속 돈다발을 던지고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순간 조일현을 감시하던 자가 조일현을 칼로 찌르자 그의 손을 붙든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직원이 범인을 체포한다. 번호표가 지하철에 승차하려 할 때 한지철이 그를 체포한다. 번호표는 조일현에게 손수건을 건네면서 다시 만나자고 말한다. 조일현은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로 향한다. 한지철이 조일현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조일현은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고인이 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조일현은 승강장 의지밑에 열쇠가 있다고 알려주며 그동안 번호표와 통화했던 내용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빼고 모두 모아둔 것이라고 말한다. 조

일현은 번호표에게 그동안 모아 둔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지 물어 봐 달라고 말한다. 조일현은 숫자뒤에 0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단지 부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영화는 끝이났다. 돈이 최고 인 세상에서 돈이 갖는 매력적인 유혹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해서는 서민의 삶에서 탈출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돈이 권력이고 명예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문제다. 시대는 끝없이 물질만능으로 흐르지만 그 혜택은 불과 극 소수에게만 돌아간다. 그래서 소수 특권층이 유지되고 서민들은 그들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물질로 삶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물질로 사는 순간부터 물질로부터 그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신앙을 세워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13. “어스”Us

미국영화, 장르:공포,스릴러 개봉:2019.03.27

감독:조던 필(Jordan Peele),

제작:유니버설픽처스

주연:루피타 뇽(Lupita Nyong'o,레드역),윈스턴 듀크(Winston Duke,아브라함역),엘리자베스 모스(Elisabeth Moss,달리아역), 팀 헤이덱커(Tim Heidecker,텍스역), 야히아 압둘 마틴2세(Yahya Abdul-Mateen II,웨이랜드역),애나 디옴(Anna Diop,어사역)

관객:1,133,918명(2019.04.04.)

미국대륙 지하에 수천 마일의 지하터널이 존재하는데 지하철, 폐광 갱도와 목적불명의 장소들이 있다. 1986년, 소녀 “애들레이드 윌슨”(에디,레드,메디슨커리역)이 TV를 보고 있는데 기아퇴치 기금마련운동이 나온다. 1200만개의 눈과 1억9200만개의 이빨이 다이아몬드브릿지에서 쌍둥이빌딩까지 인간띠를 이루고 있다. 1986년 산타크루즈, “러셀 토마스”(야히아 압둘마틴2세역)와 “레인 토마스”(애나 디옴역)가 딸 에디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러셀이 두더지게임을 하는 동안 에디는 해변을 향해 걸어간다. 그때 해변가에 한 남자가 예레미야11장11절이 적힌 종이를 갖고 있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바닷가를 바라보던 중 번개가 치면서 “영혼의 여행, 당신을 찾으세요”라는 건물안으로 들어간다. 에디가 미로를 향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고 거울이 있는 방에 갇힌다. 에디는 겁에 질린 마음을 진정하고 휘파람을 불며 길을 찾는다. 다른 곳에서 휘파람소리가 들리고 에디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간다. 에디가 다른 소녀와 충돌하며 돌아보는데 비명을 지른다. 어떤 시설에는 수많은 토끼가 사육장에 1마리씩 갇혀 있다.

“게이브 윌슨”(윈스턴 듀크역)과 “애들레이드 윌슨”(루피타 뇽역)은 “조라”(샤히디 라이트 조셉역), “제이슨”(에반 알렉스역)과 함께 휴가지인 별장에 도착한다. 함께 식사를 하던중 게이브가 해변에 가자고 말하지만 에디는 불안한 표정이다. 러셀과 레인은 어린 딸 애들레이드(에디)가 15분간 길을 잃은 후 외상후 장애를 갖게 되었음을 염려하고 있다.

게이브가 에디에게 산타크루즈해변에 갈 것을 말하지만 에디는 가기 싫다고 말한다. 게이브가 별장 인근 해변은 해안일 뿐이라고 설득한 후에 에디가 해변으로 간다. 에디가 아이들 방을 둘러 보다 제이슨이 앓보이자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본다. 제이슨이 화장실안에 숨어 있다가 조라를 놀라게 하고 장난감 방에 다시 숨는다. 조라는 동생이 숨어 있는 방을 닫는다. 방에 갇힌 제이슨이 엄마를 부르고 에디가 와서 문을 열어준다. 호숫가에서 경적소리가 들린다. 에디는 아이들과 함께 선착장

으로 간다. 게이브가 보트 운전을 하며 즐거워 한다. 윌슨 가족은 자동차로 산타 크루즈 해변으로 이동한다. 조라는 정부가 사람들 조종하려고 물에 약을 탄다고 말한다. 산타 크루즈에 도착한 에디가 어린시절을 기억한다.

해변가에 경찰과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있다. 구급대원이 노인을 차에 태우고 있고 에디가 아이들이 무서워 할까 현장을 급히 나간다. 윌슨 가족이 해변에서 타일러 가족과 만난다. 에디는 어릴 때 길을 잃었던 곳을 바라본다. "조시 타일러"(팀 헤이덱커역)와 "키티 타일러"(엘리자베스 모스역)는 윌슨 가족을 환영한다. "베카 타일러"(칼리 쉘든역)와 "린지 타일러"(노엘 쉘든역)가 해변에서 놀이를 하고 제이슨이 옆에서 모래터널을 만든다. 조라는 한켠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 제이슨이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고 홀로 간다. 제이슨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바다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남자를 보는데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에디는 제이슨이 보이지 않자 당황하지만 금방 찾는다.

윌슨 가족이 별장으로 귀가한다. 에디는 아이들에게 잠을 자라고 말한다. 레드 는 제이슨이 납치된 것이라 염려 했었다. 에디와 대화하던 제이슨이 11시11분이라고 말한다. 시계를 보던 에디가 제이슨이 그린 그림을 본다. 그림에는 해변에 서 있는 남자가 그려져 있고 에디가 묻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게이브는 에디에게 바다 낚시를 가자고 말하지만 에디는 게이브에게 먹구름이 머리위에 있는 듯 하다고 말하며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에디는 1986년,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한다. 에디는 길을 잃었고 그곳에서 나와 똑같은 소녀 "레드"를 만났다고 말한다. 그때 당황한 에디는 온신을 다하여 달려 갔지만 언제나 레드에게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에디는 여기에서 우연이 아닌 필연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게이브는 에디가 오래동안 비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정전이 되고 게이브는 조시가 비상발전기를 구입한 이유를 이해한다. 조라가 어떤 가족이 집앞에 있다고 말하고 게이브가 창밖을 확인하고 내려 가는데 에디가 911에 전화해 출동을 요청한다. 게이브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대답이 없다. 게이브가 경찰에 연락하는데 도착하는데 14분이나 걸린다고 말한다. 게이브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 사유지에서 나가라고 위협한다. 레드가 사인을 보낸다. "플루토"(에반 알렉스역)와 "움브라에"(샤히디 라이트 조셈역)가 흩어지고 "아브라함"(윈스턴 듀크역)이 정문쪽으로 걸어 온다. 두려운 게이브가 집안으로 들어가 문단속을 한다. 아브라함이 휘파람을 불며 숨겨진 비상열쇠를 찾아 문을 연다. 게이브가 아브라함에게 야구 방망이를 빼앗겨 공격 받은 후 쓰러진다. 움브라에와 플루토는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도망하는 에디와 아이들을 잡는다.

플루토가 불을 켜고 벽난로에 불을 붙인다. 어두운 방이 밝아지자 윌슨 가족은 자신들과 똑 같이 생긴 또다른 가족들과 마주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 레드는 오래전

한 소녀의 그림자를 이야기 한다. 레드 는 지하에서 토끼를 먹으며 살았는데 에디가 게이브와 결혼할 즈음에 레드 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에디가 장녀 조라를 낳을 때 레드 또한 괴물을 출산하였다. 레드 가 수갑을 꺼내어 손을 테이블에 묶어 놓을 것을 명령한다. 에디가 손을 묶으며 아이들은 놓아 달라고 부탁한다. 아브라함은 게이브를 집 밖으로 끌고 간다.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자 레드 는 조라에게 빨리 달리라고 말한다. 에디도 조라에게 어서 나갈 것을 종용하고 움브라에가 이것을 바라본다. 아브라함은 게이브를 선착장으로 데려가고 가위를 꺼내든다. 플루토가 제이슨에게 손을 내밀고 에디가 안심시키며 마술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플루토가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알게된 제이슨이 가면을 착용했다가 머리로 들어 올리는 시늉을 하자 플루토가 얼굴의 복면을 올리는데 화상 흉터가 끔찍하다.

거리를 내 달리던 조라가 갑자기 나타난 움브라에를 보고 놀란다. 조라가 자동차에 몸을 숨길 때 움브라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자동차위로 올라간다. 그때 자동차 주인이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자 움브라에는 자동차 주인을 가위로 찢어 버린다. 겁에 질린 조라가 다시 집으로 달려 간다. 정신을 회복한 게이브는 보트위에 있다. 모터가 멈춘 후 아브라함을 공격해 바다에 빠뜨리지만 모터가 갑자기 재작동하면서 게이브도 물에 빠진다. 아브라함은 보트가 움직이면서 함께 끌려간다.

에디는 레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제이슨이 놀이방을 나오면서 문을 닫아 버리자 플루토가 고함을 친다. 플루토의 비명을 들은 레드가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에디가 벽난로 옆 작대기를 잡고 테이블을 부순다. 한편, 보트가 회전하면서 다시 게이브로 향한다. 보트가 멈추고 게이브가 위로 올라가는데 뒤쪽에서 아브라함이 게이브를 공격하고 가위로 찢으려 한다. 순간 모터가 다시 움직이면서 아브라함은 죽는다. 숨어있던 제이슨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다. 에디는 집으로 달려오던 조라와 만난다. 그때 선착장에서 경적소리가 나고 에디와 아이들이 움브라에의 추격을 따돌리고 보트를 타고 도망한다.

타일러의 집에서 키티는 남편 조시에게 밖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한다. 조시가 거실에서 밖을 보며 OJ심슨이 나타났다고 장난을 한다. 베카와 린지가 방에서 나오고 조시는 내일 아침 10시에 출발한다고 말한다. 순간 "텍스"(팀 헤이덱커역)와 "달리아"(엘리자베스 모스역)가 들어와 두사람을 찢르고 "아이오"(칼리 웰튼역)와 "닉스"(노엘 웰튼역)가 나타나 쌍둥이를 죽여 버린다.

월슨 가족이 타일러의 집에 도착한다. 에디가 문을 두드릴 때 텍스가 나온다. 에디가 붉은 색 옷을 보고 쇠창으로 공격한다. 그때 달리아와 아이오와 닉스가 에디를 집안으로 끌고 가 버린다. 텍스가 게이브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다리 부상을 입은 게이브가 아이들에게 도망하라고 말하고 선착장으로 간다. 다시 타일러의 집

으로 돌아온 조라와 제이슨이 골프채와 장식용 돌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숨어 있던 쌍둥이가 공격하고 조라가 이들을 제거한 후 엄마가 감금된 방으로 간다. 한편 선착장 타일러의 보트에 있던 게이브는 텍스를 발견하고 조명탄으로 공격한다. 달리아는 에디를 공격하다가 멈춘 후 자신의 얼굴을 그어 버린다. 달리아가 선착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창가에서 고함을 친다. 조라가 달리아를 골프채로 공격하는데 달리아가 돌아서며 막아선다. 달리아가 조라를 누르며 죽이려 할 때 제이슨이 돌로 달리아의 머리를 공격한다.

그들을 모두 제거한 윌슨가족이 911에 전화를 하지만 불통이다. 윌슨 가족이 TV를 켜자 빨간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띠를 연결한다. 에디는 멕시코로 가야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게이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에디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에디가 자동차 키를 찾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이오가 공격한다. 격투 끝에 에디가 가위로 아이오를 죽인다. 조라가 운전하는데 움브라에가 나타나 길을 막는다. 조라가 가속페달을 밟아 움브라에를 향하는데 자동차위로 뛰어 올라 가위로 공격을 시도한다. 조라가 급가속을 한 후 급정거하여 움브라에를 공중으로 날려 버린다. 결국 움브라에도 목숨을 잃는다. 다음날 아침 산타크루즈 해변에 도착한 에디 가족은 빨간옷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발견한다. 윌슨 가족이 자신의 자동차에 불이 타고 있는 상황을 보는데 플루토가 서 있다. 에디가 플루토를 바라본다. 제이슨은 함정이라고 말한다. 제이슨이 팔을 벌리며 뒤쪽으로 걸어 갈 때 플루토도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레드가 제이슨을 데리고 도망한다. 제이슨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에디가 제이슨을 찾아 헤맨다. 멀린의 숲으로 달려간 에디는 붉은 옷을 입은 인간띠를 발견한다. 멀린의 숲 건물안 지하로 들어간 에디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복도에서 토끼들이 뛰어 다니는 것을 발견한다. 게이브와 조라가 구급차를 발견하고 치료를 한다. 한편 에디는 레드를 찾는다. 레드는 에디에게 태양을 보면서 사는데 어떤 것인지 묻는다. 레드는 지상의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인간복제를 하였고 복제된 인간이 이곳 지하에 버려져 있다고 말한다. 레드는 그날 밤 신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레드는 모든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레드는 에디를 공격하면서 상처를 준다. 에디가 쇠창으로 레드를 공격한다. 에디가 침대방으로 들어가고 숨어 있던 레드가 에디를 공격하지만 에디가 쇠창으로 레드를 죽인다. 에디가 캐비닛안에 있던 제이슨을 데리고 나와 가족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떠난다.

러셀과 레인이 딸 애들레이드가 15분동안 길을 잃었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걱정이 앞선다. 어린 에디와 레드가 만난 후 레드는 에디를 기절시키고 지하시설로 끌고 간다. 레드는 에디를 침대에 묶고 옷을 바꿔 입은 후 지상으로 올라왔다. 러셀

과 레인을 만난 레드는 뒷좌석에서 미소를 짓는다. 운전을 하던 에디는 어릴 때 기억을 회상한다. 제이슨은 엄마를 바라보며 가면을 쓴다.

영화는 끝이 났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 세상을 뒤엎고 있다. 겿아웃 이후 어스는 충격속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스스로를 주목하라고 집중시킨 영화 어스는 우리 자신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일면을 이야기 하고 싶었을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더 놀란다. 그리스도인은 영화 어스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는 나와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듯 하지는 않았을까? 빨간 망토를 쓴 또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주저없는 회개가 우선이 아닐까 싶다.

14. "우상"偶像, Idol

한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9.03.20
감독,각본:이수진, 제작:(주)리공동체영화사
주연:한석규,설경구,천우희,
관객:183,308명(2019.04.16.)

도의원 "구명회"(한석규역)는 원전문제로 일본건축조사를 마치고 귀국한다. 공항입구에서 구명회를 기다리던 "최의원"(김명곤역)이 도의원 지지도가 도지사보다 높은데 도지사출마 베틱용인지 묻는다. 구명회는 아내인 "미정"(강말금역)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지만 불통이다. 집에 도착한 구명회의 차고에서 아내가 불을 끄라고 고함을 지른다. 구명회가 자동차옆에 쓰러진 남자를 보고 놀라고 아내는 어제 아들 "요한"(조병규역)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한다. 구명회가 남자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찾는다. 구명회가 요한에게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묻는다. 요한은 해안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한다. 구명회는 아들에게 음주와 목격자를 묻고 시간이 지날수록 형량만 늘어 난다고 걱정하며 경찰서에 가서 그대로 진술하라고 말한다. 지금 자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숨기면 평생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요한은 아빠차니깐 아빠가 들어가라고 짜증이다. 구명회가 차고에서 자동차를 확인하고 막힌 하수구의 물을 빼낸다.

다음날, "유중식"(설경구역)이 "김형사"(현봉식역)의 연락을 받고 영안실로 간다. 유중식은 누나인 "동숙"(서주희역)에게 부남의 얼굴을 확인했는지 묻고 동숙은 무서워서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김형사는 지문조회로 신원확인을 마쳤다면서 확인을 부탁한다. 유중식은 발을 보고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김형사는 익사자 말고 뺑소니를 보여 달라고 말한다. 유중식이 시신을 확인하고 오염한다. 언론에서 경남도의원 구명회의 아들이 뺑소니운전으로 자수보도를 한다. 기자들이 구명회에게 도지사출마 포기를 질문하고 비서는 유중식에 대해 서울에서 철물점을 하는 전과자라고 조사내용을 보고한다. 유중식이 요한과 구명회에게 사고 당시 분명히 같이 있었을 "련화"(천우희역)를 보았는지 물어본다. 요한의 웃음에 분노한 유중식이 요한을 때리고 경찰은 요한을 구치소로 송치해 간다. 귀가한 구명회가 집의 CC-TV를 돌아본다. 미정이 요한을 내리고 트렁크에 있는 남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데 구명회는 미정이 전화한 시간과 핸드폰에 걸려온 시간을 확인한다. 그러던 중 유중식의 아들이 그 시간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김변호사를 만나고 귀가한 미정이 불구속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구명회는 련화의 행방을 묻고 목격자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밝혀 질 것이라고 말한다. 미정은 왜 남자를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인지 묻는다. 미정은 뺑소니 자수가 남편의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는지 묻는다.

유중식은 아들과 련화가 함께 있었던 곳을 찾는다. 김형사는 혼인빙자로 결혼식만 올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다. 유중식은 마사 지샐을 찾아 "여사장"(김희정역)에게 련화의 행방을 묻는다. 여사장은 데려간지 3~4 개월이나 되었다고 답한다. "황변호사"(유승목역)는 구명회에게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알린다. 구명회는 아들의 음주내용이 빠졌는지 체크하고 순리대로 가자고 말한다. 김비서는 실종된 여자가 사고후 도망한 것 같다고 말하고 구명회는 지시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화를 낸다. 유중식은 아들을 보며 련화를 찾겠다고 약속한다. 김형사는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다. 김형사는 보행로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닌 지역으로 피해자 과실도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제안한다. 구명회는 도의회 원전대책위를 자진사퇴하고 련화를 찾기위해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한다. "김용구"(김중만역)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요청하고 김비서는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구명회에게 알린다. 목격자 "노인"(민경진역)이 사고지역이 기운이 좋지 않아 마을사람들도 그곳을 피한다고 경찰에 진술한다. 노인은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뛰어내려 달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말한다. 김형사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마지막 목격지로 인천으로 떠난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형사는 출입국사무소에 알아 보라고 하고 유중식은 김형사에게 부검을 요청한다.

구명회가 목격자 노인을 만난다. 구명회는 자동차 칼라를 묻고 노인은 검정색이라고 답한다. 목격자 노인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도망하는 것은 보았다고 말한다. 구명회가 부모님댁으로 간다. 부친 휴대폰으로 심부름센터에 전화하여 련화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은 인터넷쇼핑 기록을 요청한다. 구명회는 당분간 부친 휴대폰을 사용한다. 구명회는 "어머니"(김성녀역)에게 천만원을 찾아 문자로 받은 주소지에 갖다주라고 말한 뒤 재판이 끝나면 집 명의를 어머니쪽으로 하겠다고 전한다. 유중식은 련화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돌아와 아들과의 추억에 잠긴다. 구명회는 사무실앞 유중식의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는다. 유중식은 "부남"(이우현역)이 사고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는 부검사진을 보여준다. 구명회의 어머니는 자신이 죽어서 부남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구명회 어머니는 목적이 돈인 것 같다고 말하고 동숙은 보험금을 받아 돈은 많다고 응한다. 유중식은 며느리실종을 계속 의심한다. 유중식은 련화가 임신을 했다고 말하고 동숙은 부남의 애가 맞는지 되묻는다. 유중식은 돈을 노리고 부남을 해칠까 보험을 모두 해지했다고 말하고 동숙은 보험금때문이 아니라고 련화의 친언니에게 전화할 것을 말한다. 동숙이 련화가 한국을 때 언니와 함께 왔음을 알려준다. 미정은 동숙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구명회는 안방컴퓨터에서 폴더를 복사하고 결혼사진을 찍는다.

유중식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황변호사가 5년구형 나왔는데 항소를 묻고 구의

원이 합의할 것을 제안한 것인지도 묻는다. 유중식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중식은 통화기록을 확인하여 련화언니에게 전화를 한다. 황변호사가 전화를 받고 최련화를 아는지 물어보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 버린다. 황변호사가 유중식에게 태백양계장을 알려 준다. 구명회는 교회에서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온 문자를 확인한다. 최의원이 구명회옆에 앉아 사람이 죽고도 지지율이 상승한 사람이 출마 포기하는 것은 않된다고 도지사 출마를 종용한다. 최의원은 구명회에게 무엇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기운내라고 말한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련화가 부산에 있다는 문자를 구명회에게 보낸다. 유중식은 태백양계장을 찾는다. 유중식이 "이수련"(김재화역)을 만나 련화시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하얼빈에서 같이 왔는지 물어본다. 수련은 연변에서 왔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다고 알려준다. 수련은 련화가 자신이 먼저 결혼하는 것에 분노하여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렸다면서 찾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중식이 심부름센터의 김용구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는데 최련화를 찾으려면 2천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한다.

구명회는 련화가 있는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때 련화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간다. 련화가 술을 마신후 걷는다. 구명회가 성경책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고 택시에 다시 오른다. 유중식은 휴게텔을 찾아 련화를 찾는다. 직원이 련화사진을 보고 속이 않좋아 퇴근했다고 말한다. 구명회는 련화를 포박하고 휴대폰을 하수구에 버린다. 련화는 대부업 김씨, 안마방 브로커 최씨인지 물어 본후 자신은 잡고만 있었고 수련이 죽었다고 말한다. 구명회는 말없이 련화의 발에 주사를 놓는다. 련화는 부남을 아침까지 찾았지만 무서웠다고 말하며 살려 달라고 말한다. 순간 구명회의 차 뒤로 다른 자동차가 들어온다. 구명회가 밖으로 나와 자동차에 타지만 김용구가 자동차로 돌아와 구명회의 차를 막아선다. 김용구가 구명회의 차에 올라타 구명회에게 담배를 건네며 돈도 뺏도 있는 사람이 왜 이런일을 할까 하고 물으며 련화를 어떻게 찾았는지 물어본다. 그 사이가 련화가 건물밖으로 도망을 한다. 김용구가 구명회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트렁크에서 공구를 꺼내려 하자 차로 들이 받아 버린다. 련화를 찾던 유중식이 경찰을 공격하는 련화를 발견한다. 귀가한 구명회가 자동차를 세차하며 타이어를 점검한다. 유중식은 련화의 입원병실을 찾는다. 련화는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물어보자 유중식이 2천만원을 주고 산 사진을 보여준다. 련화는 아침이 될 때까지 부남을 못찾았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유중식은 부남이 수로에서 발견되어 못찾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련화는 도랑부터 바다까지 모두 찾았는데 없었다고 말하고 추방을 걱정한다.

황변호사가 사건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본다. 10월6일 사고 블랙박스에 8일에 보였던 다리가 7일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황변호사는 살인이라고 확신하고 김형사는 그동안 왜 못본건지 의아해 한다. 황변호사는 수색영장을 받아 수색을 요청한

다. 김형사는 차에서 혈흔발견이 없었고 집은 공사중이라고 말한다. 유중식과 황변호사는 요한을 찾는다. 유중식은 목격자 련화를 찾았고 부남을 차에 싣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블랙박스에 사고당일 부남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부남을 데려가 죽인 후 다시 데려 놓은 것이라고 추정한다. 유중식은 그때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중식은 누가 그랬는지 묻고 요한은 아버지를 불러 달라고 말한다. 유중식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련화를 끌고 간것에 항의한다. 담당자는 최련화 앞으로 고소사건이 두 개나 있다고 말한다. 유중식이 자신이 련화를 찾기위해 고소한 것이라고 말한다. 련화는 구치소에 가지 않으면 2주내에 강제 출국당한다고 말하며 한국에 오기 위해 살인을 했다고 고백한다. 황변호사는 요한이 자살시도를 했다고 말한것에 가시가 있다고 말한다. 황변호사는 사고차량을 바꿔치기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사고당일 요한이 탄 차량이 그랜저로 되어 있지만 BMW는 자수전에 폐차를 했다고 말한다. 황변호사는 폐차업자들이 차를 빼돌려서 파키스탄으로 수출했으니 직접 가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중식은 련화를 사기로 고소했던 사람의 주소를 묻고 경목 왜관에 살고 있는 오석희를 알려 준다. 황변호사는 증거 은닉과 위조로 재수사 신청을 요구한다. 구명회는 아들의 병실을 지키고 있다. 구명회가 아들이 위독한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아들 모습이 김용구로 변모하는 악몽을 꾀다. 아내 미정이 구명회에게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고 말한다.

유중식은 왜관의 오석희집을 찾는다. 주민들이 오씨가 능력이 있어서 어린 여자와 결혼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탁소 사장은 혼인신고를 안해 주어서 도망한 것이라고 말한다. 세탁소 사장이 오씨 사진을 보여주고, 유중식은 오씨의 행방을 묻는다. 주민은 오씨가 술을 마신후 절벽에서 뛰어 내렸다고 말하는데 세탁소 사장이 죽을 사람이 임플란트를 할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 유중식이 여자가 도망하는 것 같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상기한다. 수련의 말까지 기억하며 휴대폰을 사진을 가린다. 유중식이 왜관역에서 수련에게 전화를 하는데 근처에서 벨소리가 들린다. 같은 시간 태백양계장에서 수련과 남편은 이미 죽어 있다. 유중식이 구명회를 만나서 합의를 요구한다. 유중식은 며느리가 추방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황변호사는 밖에서 앓된다고 소리를 지른다. 구명회는 조건을 내건다. 황변호사는 련화를 찾아 추방을 막고 있다고 말하고 련화는 나가면 2천만원을 받아 준다고 말한다. 결국 유중식은 부남의 장례식을 마친다. 구명회는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유중식을 소개한다. 유중식은 단상으로 나와 연설문을 안가져 왔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자위를 가르쳤던 이야기를 한다. 유중식이 구명회의 진심을 지지한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황변호사는 밖으로 나가 버린다.

련화가 외국인보호소를 나와 병원진료를 받는다. 의사가 산모의 영양상태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중식이 출산때까지 병원에서 지내라고 말한다. 유중식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을것이라고 혼인신고서를 보여주고 련화는 시아버지에게 잘하겠다고 다짐한다. 련화가 유중식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구명회의 가족들을 만난다. 구명회는 유중식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한다. 련화는 구명회의 냄새가 익숙하다고 말하고 구명회는 스킨이라고 말한다. 미정이 아이를 갖고 입덧이 심했던 경험을 말한다. 구명회의 어머니가 련화가 연변 출신인지 묻자 련화는 하얼빈이라고 답한다. 구명회 어머니가 남편의 일로 중국에서 오래동안 살아서 말투를 보면 정확하게 안다고 다시 말한다. 구명회가 유중식과 함께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련화가 구명회 어머니에게 하얼빈 사람은 연변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쳐다 본다. 구명회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옷에 붙은 껌을 떼어 내고 있는데 련화가 통화 하며 나온다. 련화는 사진이 찍혔을 때 예약한 손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달라고 말한다. 련화는 구명회 어머니에게 사는 곳이 어딘지 물어본다. 칼로 난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입으로 난 상처는 치료되지 않는다며 협박을 한다.

유중식이 길거리에서 구명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형사가 유중식을 찾는다. 련화가 예약손님의 전화번호를 조회한다. 휴게텔사장은 전원을 끊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김용구를 지목한다. 마사지샵 사장이 련화에게 손님 마사지를 주문하고 련화는 김용구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는다. 유중식이 수련의 양계장 사건 사진을 확인한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수련의 휴대폰을 들고 갔는데 유중식이 마지막 통화자라고 말한다. 경찰은 왜관역 CC-TV영상을 보여주며 본 적이 없는지 물어본다. 유중식이 이수련을 만나러 갈 때 길에서 보았던 남자를 기억한다. 련화가 마사지룸에서 마사지를 하는데 남자가 련화의 발음이 한국사람 다 되었다고 말한다. 남자는 련화의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사지를 받고 나오던 남자가 차별하냐고 말하는데 직원이 확인하러 갔다가 칼에 맞고 쓰러진다. 유중식이 련화 마사지샵으로 달려온다. 마사지를 받던 중국남자는 죽어 있고 련화는 사라지고 없다. 유중식이 귀가했을 때 련화가 기다리고 있다. 련화는 부남의 이야기를 꺼내며 알고 있으면서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 보지만 유중식은 대답이 없다.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방송이 나오고 구명회가 1위를 한다. 유중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폭탄테러가 발생한다. 구명회가 놀라 TV를 본다. 아내 미정이 구명회에게 전화를 한다. 아내는 련화가 집에 있는데 구명회를 찾는다고 말한다. 련화는 전원 차단기를 내린다. 구명회는 아내 미정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한다. 구명회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물어보고 구명회의 아버지는 도망을 한다. 구명회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 골프채를 든다. 련화가 구명회에게 김용구에게 2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종이라고 말하며 착하게 살아라고 말한다. 구명회가 테이프에 포박된 아내를 바라보며 유중식이 시킨 것인지 묻는다. 구명회는 2천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고 고함치자 련화는 구명회는 1천만원에 그랬다는 말을

한다. 구명회가 련화에게 유중식을 생각해서 자중하라고 말한다. 련화는 자신이 여기 있는 줄 알면서 어머니를 여기로 보낸 이유를 묻는다. 련화가 부인은 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가스밸브를 연다. 그때 구명회가 돈을 주겠다고 말하자 련화는 알고 있었다면서 불을 켜다. 황변호사는 유중식을 찾아와 복수심에 그렇게 했는지 묻는다. 황변호사는 며느리에게 범죄를 사주한 것인지 다시 묻는다. 유중식은 답이 없이 독방에 수감된다. 구명회가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유중식은 병에 걸렸는데 아프지 않아서 몰랐다고 말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영화 우상에서 우상은 누구일까? 명예와 권력의 우상을 쫓는 도지사 후보자 구명회 의원과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우상이 되고 싶었던 인간 구명회가 있다. 그가 그토록 취하고 싶었던 우상의 자리는 결국 성취되었을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같은 우상이 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과 권력과 탐욕과 욕심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 볼 시간이다. 구명회와 같이 너무 늦어 버리지 않도록 그 돌아봄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15. “어벤져스: 엔드게임”Avengers: Endgame

미국영화, 장르:액션,SF, 개봉:2019.04.24

감독:안소니 루소(Anthony Russo), 조 루소(Joe Russo)

제작:마블 스튜디오

주연: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토니스타크,아이언맨역),

크리스 에반스(Chris Evans,스티브로저스,캡틴아메리카역),

크리스 험스워스(Chris Hemsworth,토르역),

마크 러팔로(Mark Ruffalo,브루스 배너,헐크역),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나타샤 로마노프,블랙위도우역),

제레미 레너(Jeremy Renner,클린트 바튼,호크아이역),

폴 러드(Paul Rudd,스캇 랭,엔트맨역),

돈 차들(Don Cheadle,제임스 로즈,워 머신역),

브리라슨(Brie Larson,캐럴 댄버스,캡틴 마블역),

카렌 길런(Karen Gillan,네블라역),

브레들리 쿠퍼(Bradley Cooper,로켓 목소리역),

조슈 브롤린(Josh Brolin,타노스역)

관객:13,014,091명(2019.05.15.)

클린트 바튼의 집에서 클린트 바튼이 가족과 함께 있다. 딸에게 양궁을 가르쳐주는 사이 로라는 핫도그를 준비한다. 클린트 바튼이 사라져 버린 가족을 찾아 비명을 지른다. 우주공간에서 토니 스타크와 네블라가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네블라가 게임에서 이긴다. 토니 스타크가 22일째 우주공간에서 상처를 입었으나 네블라가 치료해 준다. 전투로 인해 고장난 우주선의 연료전지를 임시방편으로 수리한다. 토니는 페퍼에게 안부문자를 보낸다. 우주선 밖에는 캡틴 마블이 토니 스타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어벤져스 본부 건물이 진동을 느낀다. 스티브 로저스, 나타샤 로마노프, 브루스 배너, 제임스 로즈, 페퍼 포츠가 밖으로 나오고 캡틴 마블이 우주선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 스티브 로저스가 토니에게 놈을 막지 못했다고 말하고 토니 스타크는 피터를 잃었다고 말한다. 타노스가 지구에 온지 23일, 인구조사 결과 전 인구의 50%가 사망할것이라고 말한 타노스의 계획이 실행되었다고 말한다. 그후 타노스는 포탈을 개방하고 사라져 버렸다. 토니 스타크는 심우주 스캐너를 가동해 타노스의 위치를 알아 보지만 아직 오리무중이다. 토니 스타크는 지구를 구할 강철 슈트가 필요하다며 어벤져스는 복수전문이라고 흥분하면서 정신을 잃어 버린다. 캡틴 마블은 타노스를 자신이 죽이겠다고 다짐한다. 네블라는 오래전부터 타노스가 자신의 계획을 밝혔고 실행후 정원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브루스가 지구와 동일

한 에너지를 가진 행성이 한 개 있다고 말하고 캡틴 마블이 자신이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한다. 우주에는 많은 행성이 있지만 그곳에는 지구와 같은 히어로가 없다고 말한다. 토르는 캡틴 마블을 신뢰한다.

타노스의 행성, 로켓이 우주선을 수리하고 어벤저스와 함께 타노스의 행성으로 향한다. 캡틴 마블이 정찰을 다녀와 행성에는 아무도 없고 타노스밖에 없다고 말한다. 타노스가 부상을 입은 채로 정원에서 채소와 과일을 가져와 요리를 하고 있다. 그때 마블이 하늘에서 내려와 타노스를 공격한다. 어벤저스는 타노스의 팔을 포박하고 토르는 손가락을 제어 못하도록 스톰브레이커로 타노스의 팔을 절단해 버린다. 토르가 타노스의 건틀렛을 확인하는데 스톰이 보이지 않는다. 토르가 스톰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타노스는 스톰을 파괴하기 위해 스톰을 사용했다고 말하며 그 와중에 자신도 죽을 위기에 있었다고 말한다. 네블라는 타노스를 불신하고 토르는 타노스의 목을 치고 밖으로 나간다.

5년후, 스티브가 치유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용기를 지지한다. 스티브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70년후 냉동상태에서 해제되었다고 말한다. 샌프란시스코 대여창고안에 양자영역 장비가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마우스(쥐)가 돌아 다니며 장비를 작동한다. 장비작동으로 스캇 랭이 양자영역에서 현재로 돌아오고 스캇 랭은 호프를 찾는다. 창고경비가 스캇 랭의 도와달라는 글을 보고 놀란다. 밖으로 나온 스캇 랭이 짐을 챙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지만 아무말도 듣지 못한다. 스캇 랭이 사라진 사람들의 기념공원을 찾아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며 놀란다. 그곳에는 자시의 이름도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스캇 랭을 바라본 딸 캐시가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한다.

어벤저스 본부, 나타샤가 오코예, 로켓, 네블라, 워머신, 캡틴 마블과 원격회의를 하고 있다. 캐럴 댄버스가 지구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행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워머신은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들이 클린트 바튼의 짓이라고 말한다. 나타샤는 클린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나타샤가 스티브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과 가족을 만난후로 달라졌다고 말하며 지금은 노력중이라고 말한다. 그때 스캇 랭이 본부를 찾는다. 스캇 랭은 양자영역은 또 하나의 소유주인데 그곳에 자신이 갇혀 있다고 말한다. 양자영역에서 5시간 동안 시간이 다르게 작동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한다. 혼돈을 조종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시점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스티브는 타임머신을 말하는 것인지 묻는다.

토니 스타크의 집에 스티브, 나타샤, 스캇 랭이 찾아 온다. 토니 스타크가 양자영역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자 스캇 랭이 자신은 돌아왔다고 말한다. 토니 스타크는 그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거듭 말한다. 스캇 랭이

과거로 돌아가 스톤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토니 스타크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스캇 랭은 규칙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고 말하고 토니 스타크는 반대한다. 나타샤가 결정을 재촉하지만 의견일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티브와 나타샤와 스캇 랭이 헐크를 찾아간다. 브루스는 18개월 동안 브루스 배너의 두뇌와 헐크의 힘을 결합하였다고 말한다. 스티브는 시간여행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토니 스타크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선반위 피터와 함께한 사진을 바라본다. 토니 스타크는 거실에서 거실에서 실험을 하며 뫼비우스의 띠 형태로 진행해 볼 것을 말한다. 프라이데이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토니 스타크는 매우 놀란다. 이것을 지켜보던 딸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말한다. 페퍼는 뫼비만드는 책을 보고있고 토니 스타크는 시간여행의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토니 스타크는 모두를 구할수 있다고 말하고 페퍼는 이에 감탄과 공포를 함께 느낀다.

어벤져스 본부에서 스캇 랭은 양자영역으로 갈 준비를 한다. 브루스 배너가 장비를 설정한 후 작동하자 카운트 다운후 스캇 랭이 청소년으로 돌아온다. 다시 장비를 조작한 후에는 노인이 되고 다시하면 아기가 된다. 브루스가 시간여행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토니가 어벤져스 본부에 와 스티브에게 EPR패러독스를 말한다. 토니가 자신에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GPS가 있다고 말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캡틴의 방패를 꺼내 스티브에게 준다.

브루스와 로켓이 뉴 아스가르드에 도착한다. 발키리(테사 톰슨역)가 이곳에 온 이유를 묻는다. 브루스와 로켓이 토르의 집을 찾는다. 토르가 뚱뚱한 뚱배 아저씨 모습으로 나타나 케이블TV 수리를 온 것인지 묻는다. 브루스는 타노스의 잘못을 고칠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토르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 코르크가 브루스에게 타노스는 금지단어라고 말하고 토르가 타노스를 죽였다고 말한다. 브루스는 타노스와 싸울 때 토르가 도와주었다고 상기하며 모두 되살릴 수 있다고 공언한다. 토르가 무관심을 보이면서 맥주를 마시자 로켓이 우주선에도 맥주가 있다고 말하고 토르는 우주선에 어떤 맥주가 있는지 물으며 합류한다.

도쿄에서 야쿠자는 공격을 받고 도주를 한다. 클린트는 야쿠자의 뒤를 추적하고 야쿠자는 그가 하키코를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하키코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묻고 클린트는 지구의 절반이 죽었는데 아직 살아 남았고 이들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공격한다. 하키코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클린트는 제거해 버린다. 나타샤가 클린트의 후면에서 바라보며 이곳에 있으면 앓된다고 말하자 클린트도 나타샤가 이곳에 있으면 앓된다고 서로 말한다. 나타샤가 기회를 찾았다고 말하고 클린트는 자신에게 희망을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타샤가 늦게와서 미안하다고 클린트의 손을 잡는다.

어벤져스 본부에서 브루스가 핼입자를 스캇 랭의 슈트에 넣는다. 스캇 랭은 브루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로즈는 과거로 가서 아기 타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브루스는 과거를 바꾼다고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스캇 랭이 핼입자의 여유가 없다고 불안해 하자 클린트가 자신이 테스트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양자영역으로 향한다. 클린트는 과거 자신의 집에 도착한다. 집앞에 떨어진 야구 글러브를 잡고 집안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는다. 클린트가 딸을 부르며 집안으로 달려가는 순간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현재로 돌아온다. 스캇 랭은 핼입자가 왕복할 수 있는 양밖에 없다고 말하고 회의실에서 스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토르가 에케르에 대해 스톤이 아니라 진흙에 가깝다고 설명을 한다. 토르는 다크 엘프로 인해 바위에 숨겼고 제인이 에테르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한다. 토르는 에케르가 제인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발병하고 고향에서 엄마 프리가를 소개하였다고 말한다. 토르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로켓은 모라그 행성에 오브가 있었다고 말하고, 네볼라는 보르미르에 소울스톤이 있었고 타노스가 언니 가모라를 죽인 것이라고 말한다. 토니가 타임스톤은 뉴욕에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나타샤가 뉴욕이라면 3개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벤져스는 3팀으로 나뉘어 스톤을 찾기로 계획한다. 스티브는 5년전에는 비록 패배했지만 서로 협력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일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브루스가 장비를 설정하고 타임머신위로 올라가 장비를 작동한 후 모두 양자영역으로 들어간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앤트맨, 헐크가 2012년의 뉴욕으로 이동한다. 뉴욕상공에서 치타우리 종족이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4명이 숨어서 어벤져스를 지켜보고 헐크가 타임스톤을 찾으려 움직인다. 캡틴은 주변 정황을 잘 살펴 볼 것을 말한다. 에인션트 원은 생텀 옥상에서 치타우리의 공격을 방어중이다. 헐크가 생텀 옥상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에인션트 원이 돌아갈 것을 말한다. 헐크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직 마법사가 되기전이고 인근의 병원에 있다고 말한다. 헐크가 타임스톤을 가져가려하자 에인션트 원이 헐크의 몸을 치며 몸과 정신을 분리시킨다.

토르와 로켓이 에테르를 가져 가기 위해 2013년의 아스가르드에 도착한다. 로켓이 토르가 제인을 유인하는 동안 스톤을 가져 오겠다고 말하지만 토르는 못한다고 말한다. 제인이 어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간다. 토르는 어머니인 프리가 여왕을 보며 어머니가 오늘 죽었다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한다. 로켓은 토르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며 자신도 모든 가족을 잃었다고 말하며 토르에게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한다. 로켓이 토르에게 할 수있다고 말하지만 토르는 도망쳐 버린다.

나타샤, 클린트, 워머신, 네블라가 2014년의 모라그 행성에 도착한다. 로즈는 나타샤에게 스톤을 가지고 빨리 오라고 말한다. 나타샤와 클린트가 우주선을 타고 보르미르를 향한다. 제임스 로즈는 오브가 퀘이 올때까지 숨어 있자고 말한다. 네블라는 그대 가모라와 자신도 스톤을 노렸다고 묻고 로즈는 네블라에게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본다.

2014년의 타노스 함선, 네블라가 적과 전쟁중일때 가모라(조 셸다나역)가 나타나 네블라를 돕는다. 가모라는 아버지가 함선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하고 네블라는 아버지가 계획을 실행할 스톤을 찾았다고 말하는데 가모라는 모라그 행성의 스톤은 6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가모라와 네블라가 타노스의 함선에 도착하고 타노스는 로난이 스톤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찾아 오라고 말한다. 네블라가 찾으러 가는 순간 뇌의 메모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잠시후 네블라의 기억영상이 나타나는데 로즈와 네블라가 나누는 대화장면이다. 네블라는 미래에서 온 네블라라는 것을 직시하고 함선으로 데려올 것을 지시한다.

아이언맨, 앤트맨은 2012년의 뉴욕 어벤져스 타워에 숨어서 스톤을 가져올 기회를 찾고 있다. 쉴드의 제스퍼 스웰, 브록 럼로우가 로키의 창을 가져가려고 올라와 제스퍼가 로키의 창을 갖고 내려간다. 토니와 앤트맨이 태서렉트를 보관함에 넣는 것을 보고 앤트맨이 자신을 스톤쪽으로 밀어 달라고 말한다. 토니가 앤트맨을 보관함으로 날리고 토니는 캡틴에게 로키의 창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말한다. 캡틴이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올라타자 쉴드요원들은 지휘하러 간건지 묻는다. 캡틴은 총장 지시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하며 로키의 창은 자신이 맡겠다고 말한다. 제스포요원이 총장에게 확인하려 하자 캡틴이 로키의 창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토니가 1층에서 어벤져스를 기다린다. 앤트맨이 토니의 가슴에 위치한 아크 원자로로 들어간다. 어벤져스가 로키를 데리고 나가는데 알렉산더 피어스 쉴드 총장이 막아서며 로키를 달라고 한다. 토니는 앤트맨에게 선을 뽑으라고 말하고 앤트맨이 아크원자로의 선을 뽑자 토니가 통증을 받으며 쓰러진다. 앤트맨이 가방을 밀어주고 토니가 가방을 들고 달려가는데 헐크가 계단문을 뚫고 나오며 토니와 충돌한다. 가방이 떨어지면서 태서렉트가 빠져나와 로키앞에 떨어지고 로키는 태서렉트를 가지고 사라져 버린다. 캡틴 아메리카는 로키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한다. 로키의 창을 갖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미래의 캡틴이 과거의 캡틴과 마주한다. 과거의 캡틴이 로키를 찾았다고 전파한다. 미래의 캡틴은 자신이 로키가 아니라고 말하고 서로 공격하게 된다. 전투중에 미래의 캡틴몸에서 카터의 사진이 담긴 나침반이 떨어지고 과거의 캡틴이 사진을 보며 미래의 캡틴에게 어디서 난 것인지 물어본다. 미래의 캡틴이 버키가 살아있다는 말을 하고 과거의 캡틴이 안심하는 사이 로키의 창으로 기절시킨다.

2012년의 뉴욕 생텀, 헐크는 에인션트 원에게 스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에인션트 원은 스톤이 없으면 시간의 흐름이 깨어진다고 말한다. 헐크는 다시 과거로 갖다 놓으면 없던 일이 된다고 말한다. 에인션트 원이 스톤을 지키는 것이 소서러 슈프림의 임무라고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헐크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에게 스톤을 주었다고 말한다. 에인션트 원이 스트레인지가 가장 탁월한 마법사라고 말하며 타임스톤을 준다. 에인션트 원은 헐크를 세우면서 모든 운명을 건다.

2014년의 타노스 함선에서 타노스는 네블라의 기억패널을 분석한 후 네블라의 기억이 9년후 미래의 기억이라고 말한다. 타노스는 네블라의 기억을 보며 스톤의 위치를 확인한다. 타노스는 2시간 거리에 네블라가 있다면서 미래의 네블라의 기억을 분석한다. 타노스는 모라그 행성으로 향한다.

2013년의 아스가르드에서 프리가 여왕은 토르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숨어서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토르는 어머니에게 미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시간 로켓은 제인 포스터의 방으로 간다. 로켓이 제인 포스터가 걸어 가는 순간 에테르를 뽑고 도주한다. 토르는 어머니에게 시간이 없다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프리가는 말하지 말라고 한다. 로켓이 토르에게 달려와 찾았다고 말하고 토르는 몰니르를 들고 현재로 복귀한다.

2014년의 모라그 행성에 퀘이 도착해 여유를 즐긴다. 로즈와 네블라가 숨어서 퀘이의 행동을 살핀후 네블라가 퀘이를 제거하고 탐색기를 찾아 오브를 찾아간다. 로즈는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네블라는 보호막에 손을 넣어 오브를 꺼낸다. 네블라의 금속 손이 붉게 타들어 가고 로즈는 네블라에게 신호를 맞추고 복귀를 한다. 네블라가 신호를 누르려는 순간 기억패널에 문제를 일으키며 쓰러진다. 타노스는 네블라의 기억을 통해 어벤져스가 자신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꾸려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타노스는 이것이 자신의 미래라고 말하며 네블라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 미래의 네블라는 정신을 회복하고 우주선 포트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무전으로 타노스가 알고 있다고 말한다. 타노스의 함선이 모라그 행성에 도착하고 견인광선으로 네블라의 포트를 당겨 올린다.

2012년의 뉴욕에서 토니와 스캇 랭이 스티브를 기다린다. 스티브가 도착하자 토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말한다. 토니는 스티브에게 테서렉트와 입자를 찾을 방법을 말한다. 스티브는 스캇에게 로키의 창을 주면서 먼저 돌아가라고 말한다. 토니와 스티브는 1970년대로 시간을 맞추고 이동한다. 스캇 랭은 로키의 창을 들고 복귀한다.

1970년 뉴저지 미 육군 캠프, 스티브와 토니가 월드요원이 들어 가는 곳을 주시하

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쉴드 내부로 이동한다. 토니가 감마선 신호를 찾아 이동하고 스티브는 핼입자를 찾아 이동한다. 토니가 지하에 숨겨 놓은 스톤을 찾는다. 하워드 스타크가 토니를 찾아와 졸라 박사를 찾고 하워드는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다. 토니는 MIT에서 온 하워드 포츠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핼박사가 연구실을 나간 후 스티브는 핼입자를 챙긴 후 떠난다. 하워드 스타크는 토니에게 아내가 임신을 해 배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말한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여자가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헌병에 신고를 하고 헌병들은 스티브와 토니를 찾는다. 스티브는 헌병을 피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위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한다. 폐기 카터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게된 스티브는 폐기 카터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그녀를 바라본다. 토니는 하워드에게 아기의 이름을 물어본다. 토니는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말한다. 하워드는 부성애를 느끼면서 반가움을 표시한다. 하워드는 자비스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으며 낮이 익다고 말한다.

2014년의 타노스 함선에서 과거의 네블라는 미래의 네블라를 공격하고 손에 있는 타임머신을 빼앗는다. 미래의 네블라는 타노스가 소울스톤을 갖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말한다. 과거의 네블라는 미래의 네블라로 위장하기 위해 두뇌의 부속품을 제거하고 타노스에게 간다. 과거의 네블라는 타노스에게 핼입자를 주고 그들이 알아 볼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2014년의 보르미르에 나타샤와 클린트가 도착한다. 레드스컬이 나타나 길안내자라고 소개한다. 나타샤와 클린트가 경계하며 스톤을 달라고 말한다. 레드스컬은 찾는 것은 손에 있고 한 사람만 가져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스톤을 가져가려면 영혼을 바쳐야만 한다고 말한다. 클린트는 나타샤에게 모두 거짓일 것이라고 말한다. 나타샤가 타노스는 딸을 버리고 스톤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한다. 클린트는 모든 것을 걸고 스톤을 가져 간다. 클린트는 나타샤를 쓰러 뜨린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나타샤도 클린트를 넘어 뜨리고 자신이 가려 한다. 클린트가 나타샤에게 활을 쏘고 뛰어 내린다. 나타샤는 클린트를 붙잡고 뛰어 내리며 절벽에 클린트를 고정한다. 절벽에 매달린 클린트가 나타샤의 손을 잡고 클린트가 나타샤를 끌어 올리려 하지만 나타샤는 클린트의 손을 놓고 떨어져 간다. 클린트는 나타샤의 죽음에 몹시 슬퍼한다. 얼마후 클린트가 소울스톤을 가진채 물위에 누워 있다.

현재의 어벤져스 본부에 모두가 스톤을 들고 돌아온다. 브루스가 나타샤가 없는 것을 보며 염려하고 토니는 나타샤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어본다. 클린트는 어벤져스가 가족이라고 말한다. 토르가 스톤이 있으니 나타샤를 되살릴수 있다고 말하지만 클린트는 레드스컬이 되돌릴수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한다. 스티브는 나타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한다. 모든 스톤을 토니의 건틀렛에 장착한다. 토르가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브루스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네블라가 어벤저스들이 스톤에 신경을 쓰는 순간 빠져나와 양자터널을 조작한다. 헐크가 건틀렛을 착용하기로 결정하고 토니는 헐크에게 5년전에 사라진 사람들을 데려 올 것을 요청한다. 헐크가 건틀렛을 손에 끼우고 타들어 가는 고통을 감내한다. 과거의 네블라가 2014년의 게이트를 열자 타노스의 함선이 현재로 넘어 온다. 헐크가 손가락을 튕겨 건틀렛을 벗는다. 기지의 문이 열리고 스캇 랭은 나무에 앉은 새들을 본다. 클린트의 휴대폰에 전신호음이 울린다. 클린트가 로라와 기쁨의 통화를 한다. 스캇 랭은 우리가 성공한 것 같이라며 환호한다.

어벤저스 본부에 헐크가 기뻐하는 순간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와 어벤저스 본부를 초토화시킨다. 타노스의 공격에 어벤저스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하로 떨어진다. 헐크가 건물을 피해 나오고 제임스 로즈는 로켓을 구출한다. 클린트가 건물 잔해속에서 건틀렛을 찾아 도망한다. 타노스가 내려와 네블라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스톤을 가져 오라고 명령한다. 타노스의 전함에서 가모라는 미래의 네블라를 보고 있다. 가모라가 미래에 무슨일이 있는지 묻는다. 네블라는 수차례 가모라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자매가 된 것이라고 말한다. 가모라는 네블라의 손을 잡고 타노스를 제압하자고 제안한다. 한편, 토니는 쓰러진 캡틴에게 방패를 찾아 주며 방패를 잃어버리면 압수하겠다고 말한다. 토르는 타노스를 바라보고 함정을 추측한다. 토르는 양손에 스톤브레이크와 몰니르를 들고 종지부를 찍자고 말한다. 타노스는 어벤저스가 실패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 타노스는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타노스는 온 우주를 원자단위로 분해한 후 재창조를 선포한다. 토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가 타노스를 공격한다.

앤트맨이 헐크쪽으로 달려간다. 클린트는 추적하는 존재들을 제거하고 위로 향한다. 클린트가 과거의 네블라가 나타나자 건틀렛을 준다. 건틀렛을 받은 과거의 네블라가 타노스에게 스톤을 찾았다고 말한다. 순간 가모라와 미래의 네블라가 과거의 네블라를 막아선다. 과거의 네블라가 가모라에게 총을 쏘려 하자 미래의 네블라가 과거의 네블라를 향해 총을 쏜다. 토르는 몰니르를 돌려 번개를 모아 아이언맨에게 전달한다. 아이언맨은 에너지를 증폭하여 타노스를 공격한다. 타노스가 아이언맨을 공격한다. 토르가 몰니르를 던지며 공격하고 아이언맨이 맞고 떨어진다.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로 타노스를 공격하지만 타노스의 역공으로 쓰러지고 스톤브레이커마저 빼앗겨 버린다. 몰니르가 캡틴 아메리카의 손으로 날아가고 캡틴 아메리카는 몰니르를 사용하여 타노스를 공격한다. 타노스도 칼을 휘두르며 캡틴의 공격에 반응한다. 타노스의 칼에 캡틴의 방패가 부서져 버리고 캡틴도 쓰러진다. 타노스는 정복전쟁에 개인감정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성을 파괴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다. 타노스는 함선의 군대를 부르고 지구에 내려와 정복을 다진다. 쓰러진 캡틴이 다시 일어나 방패를 조이며 새로운 의지를 높인다. 샘이 캡틴에게 좌측에서

포탈이 개방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게이트웨이를 열자 퀵, 드랙스, 맨티스, 스파이더맨이 지구를 향한다. 게이트웨이가 열리면서 블랙팬서, 버키, 완다, 그루트, 슈리, 와칸다의 전사들이 넘어 온다. 앤트맨은 위력을 확장한뒤 헐크, 로켓, 워머신을 구출한다.

타노스가 어벤져스의 모습에 표정이 바뀐다. 캡틴이 어벤져스에게 신호를 보내고 타노스의 군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페퍼 포츠와 와스프 발키리도 날아와 함께 싸운다. 캡틴은 몰니르를 휘두르며 타노스와 싸우고 토르는 스톰브레이커를 휘두르며 타노스와 충돌한다.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을 만난다. 피터가 먼지가루가 되었다가 되살아나 토니가 없었다고 말한다. 퀵은 가모라를 발견하고 당황하며 다가간다. 퀵은 가모라가 죽은줄 알았다면서 만지려 하는데 가모라가 퀵을 차 버린다. 클린트는 스톰을 찾았는데 어디로 가져가야하는지 물어 본다. 브루스는 본래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클린트는 타임머신이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스캇 랭은 하나 남아 있다고 벤을 찾는다. 앤트맨은 벤의 위치를 확인하고 와스프와 이동한다. 클린트는 벤을 향해 간다.

타노스는 클린트의 스톰을 발견하고 공격한다. 클린트가 넘어지자 블랙팬서가 스톰을 들고 이동한다. 완다는 타노스가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공격한다. 완다는 염력으로 타노스를 공격한다. 타노스는 전함에서 지상을 향해 총공격한다. 스트레인지와 웬은 마법으로 방어막을 치고 어벤져스를 보호한다. 스톰을 들고 이동하던 블랙팬서는 스파이더맨에게 스톰을 넘긴다.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이 끊어진다. 페퍼포츠와 발키리가 스파이더맨을 도와 이동한다. 폭격이 멈추고 전함은 하늘을 향해 공격한다. 우주에서 캡틴 마블이 날아와 타노스의 전함을 폭파시킨다. 캡틴은 캐롤 댄버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스파이더맨은 스톰을 캡틴 마블에게 전해주고 캡틴 마블은 스톰을 가지고 양자터널로 들어가려 한다. 그때 타노스가 칼을 던져 자동차를 파괴하면서 폭발이 발생한다. 폭발로 인하여 캡틴 마블과 스톰이 날아가 버린다. 타노스가 건틀렛을 손에 끼운다. 캡틴 마블이 타노스를 공격하면서 손가락을 꺾어 버린다. 타노스는 건틀렛에서 오브를 분리한 후 캡틴 마블을 공격하고 캡틴 마블을 날려 버린다. 스트레인지는 검지손가락을 토니에게 보여 준다. 아이언맨은 타노스의 손을 잡는다. 타노스는 아이언맨을 뿌리치고 손가락을 튕겨낸다. 타노스의 반응이 없어서 건틀렛의 스톰을 확인하는데 스톰이 모두 없어졌다. 순간 토니가 손을 들어 보이면서 아이언맨이라고 하며 손가락을 튕긴다. 타노스의 부하들이 먼지로 사라지고 타노스 또한 포기한 듯 주저 앉는다. 그리고 타노스도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린다. 피터는 토니가 결국 이루었다고 말한다. 페퍼가 슬퍼하며 토니에게 다가가고 프라이데이는 토니의 생체기능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토니의 아크원자로는 꺼지면서 토니는 결국 죽는다.

클린트가 다시 돌아온 가족을 만난다. 피터는 학교에 서 친구 네드(제이콥 배덜런 역)와 만난다. 토니 스타크의 집에서 자신이 남긴 영상을 본다. 토니 스타크는 3000만큼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벤져스의 멤버들이 토니의 마지막 영상을 보고 있다. 클린트와 완다가 호수가에서 대화를 나눈다. 호건은 모건의 안부를 묻는다. 모건은 치즈버거를 먹고 싶어 한다. 호건은 토니도 치즈버거를 좋아했다고 말한다. 발리키는 토르에게 아스가르드에 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토르는 자신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며 발리키가 좋은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토르는 발리키와 악수를 하고 로켓과 함께 우주선에 오른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우주선에서 퀘은 가모라를 검색한다. 퀘은 자신의 우주선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리더라고 말한다. 호수가에서 브루스는 가져온 시간대로 스톤을 되돌려 놓아야 대체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캡틴은 스톤, 방패, 물니르를 챙겨 양자터널로 떠난다. 브루스가 5초면 된다고 말하는데 캡틴은 돌아오지 않는다. 버키는 스티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샘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아쉬워 한다. 스티브는 방패를 샘에게 준다. 샘은 스티브에게 그녀를 만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지만 스티브는 아무 말이 없다. 스티브와 카터가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평화를 느낀다.

영화는 끝이났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완결판은 아이언맨의 몫이었다.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영화를 보아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기다리게 한 어벤져스는 이제 한동안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어벤져스:엔드게임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은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새로운 발전과 성장은 새로운 과학의 진보로 인한 것일까? 발전과 성장의 뒷면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타노스는 어쩌면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진다. 어떤 방식의 세상이 도래하던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본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증거가 된다.

16. “악질경찰” Jo Pil-ho: the dawning rage

한국영화, 장르:범죄, 개봉:2019.03.20

감독:이정범, 제작:청년필름,다이스필름

주연:이선균(조필호역),전소니(장미나역),박해준(권태주역),

관객:262,235명(2019.05.16.)

2015년 경기도 안산, “한기철”(정가람역)이 은행 현금인출기옆 가게에서 벽을 뚫어 현금을 탈취한다. “조필호”(이선균역)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한기철을 데리고 나온다. 한기철이 절취한 돈은 2800만원이다. 한기철이 숨겼던 돈을 모두 꺼낸다. 조필호는 소금을 뿌리고 한기철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조필호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안 걸린 것이라고 말한다.

“양희숙”(이유영역)의 가게 뒷방, 양희숙은 양평에서 수상스키를 함께 탔던 스테파니라고 말하며 원사장을 찾는 전화를 한다. 조필호가 옆에서 통화를 듣는데 양희숙이 전화를 끊고 이런 짓을 시키지 말라고 짜증을 낸다. 조필호는 동료에게 자신의 돈을 갖고 도망친 놈이라고 추적을 부탁한다. 조필호가 TV를 보고 있다. TV에서 태성그룹의 “정이향”(송영창역) 사장의 비자금 780억에 대해 검찰이 태성그룹을 압수수색 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조필호는 뒷돈을 챙기고 비리에 눈 감으며 범죄를 사주하는 최악의 경찰이다.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경찰이 반대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캐릭터는 우리 모두를 경악케 한다. 조필호는 경찰서 정보과에 체포되어 있는 “악쟁이”(오희준역)를 석방하고 금품을 수수한다. 순간, 내사과 “김민재”(김민재역)가 조필호를 호출한다. 김민재는 인간적으로 해가 지고 어두울 때 해 먹어야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하고 비웃는다. 조필호는 당황한 눈빛으로 말을 돌린다. 김민재는 조필호의 죄를 조사해 청송교도소로 보내겠다고 다짐하며 “깁스”(임철수역)이야기를 한다. 염사장의 리모델링 빌딩을 삼키는 과정에서 뒷배를 봐 주는 경찰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말한다.

조필호가 리모델링 빌딩을 찾는다. 깁스가 부하들과 식사를 하는데 조필호가 식판을 차 버린다. 깁스는 조형사 돈을 받은 것을 후회하는 듯하며 어음을 막으려면 2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필호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깁스는 어음을 못막으면 모든 투자금은 날아간다고 엄포를 놓는다. 조필호는 한기철의 집을 찾는다. 조필호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장미나”(전소니역)가 함께 탄다. 조필호가 장미나에게 아디다스 모텔인지 묻고 장미나는 슬리퍼를 벗어 둔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조필호가 장미나를 뒤따른다. 장미나가 한기철의 집을 찾아 가방을 빼앗고 한기철을 발로 차며 가 버린다. 조필호는 한기철에게 장미나를 묻고 한기철은 장미나는 그런 여자

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한기철의 금고에는 2800만원이 있다. 조필호가 지난번 돈과 함께 5900이라고 생각하며 작업 한번 더 할 것을 제안한다.

경찰서 압수창고에 조필호와 한기철이 들어간다. 한기철이 경찰 압수창고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조필호는 절대 안잡힌다고 안심시킨다. 김스와 부하들이 중계기 선을 절단한다. 김스가 조필호에게, 조필호는 한기철에게 전화를 한다. 한기철이 출입문 보안장치를 제거하고 창고내로 진입한다. 김스가 부하에게 정확하게 초록색선을 절단한 것인지 묻는데 부하가 자신은 색맹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둘다 절단했다고 말한다. 김스의 연락을 받은 조필호가 창고문을 두드리며 창고문을 두드리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창고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한다. 조필호도 폭발 충격으로 기절을 한다.

조필호가 병원에서 정신을 회복하고 "강력팀장"(남문철역)은 조필호로부터 화재를 목격하고 간것이라는 변명을 듣는다. 조필호를 의심하는 강력팀장은 창고안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 뒤 화재시각에 통화목록을 모두 필터링하고 있다고 말한다. 강력팀장이 짜장을 먹으면 입에 짜장이 묻는데 짬뽕이라고 우기면 더 의심받는다. 그냥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강력팀장이 병실을 나가자 자신의 핸드폰을 찾는다. "양희숙"(이유영역)이 팀장도 핸드폰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미리 빼 놓은 핸드폰을 준다. 조필호는 핸드폰 유심을 제거하고 폰을 부숴 버린다. 양희숙이 조필호에게 사람을 살해했는지 묻는다.

화재현장에서 "남성식 검사"(박병은역)가 압수품을 확인중이다. 부하직원이 모두 화재로 타 버려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화재진압 반장도 "권태주"(박해준역)에게 모두 소실되었다고 보고한다. 태성그룹연구소에서 권태주가 직원에게 불에 타버린 핸드폰을 복원하라고 지시한다. 연구원은 2일정도 소요된다고 말하고 권태주는 피노체트 칠레 대통령은 하루에 428명을 죽였다고 말한다.

검시관은 한기철 머리의 상처를 보여 주며 화재전에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조필호가 한기철의 핸드폰을 묻고 검시관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조필호가 한기철의 집 열쇠를 훔쳐 집에서 핸드폰을 찾고 금고를 확인하는데 금고가 모두 비어있다. 경비실 CC-TV에서 장미나가 한기철의 집에 온 것을 확인한다. 사건현장에서 형사는 옆층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말한다. 조필호가 황재만의 유서를 살펴본다. 형사는 창고소유주인 황재만이 자금압박에 시달려 보험금을 타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 정보과 형사가 오토바이 소유주를 찾아 조필호에게 알린다. "진압반장"(송용호역)이 황사장이 죽었다고 말하며 태성그룹이 배후에 있다고 통화를 한다. 진압반장이 나에게 기폭장치와 증거가 있다면서 전화를 끊는다. 권태주가 진압반장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죽여 버린다.

조필호가 치킨집에서 장미나를 찾는다. 가게 주인이 자신을 송지원 "아빠"(임형국역)라고 소개하고 이마에 상처를 보여주며 조필호를 알아 보지만 조필호는 기억을 못한다. 2014년의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조필호는 의경에게 울지 말라고 머리를 때린다. TV에서 세월호 사고 뉴스가 나오고 아나운서가 송지원의 꿈이 경찰이라면서 경찰측에서 유가족을 위한 위로회라고 말한다. 조필호는 송지원의 명찰이 붙은 경찰제복을 서장실로 가져 가고 송지원의 아빠가 경찰제복을 바라본다.

조필호와 양희숙이 여관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 그때 강력팀장이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자마자 팀장이 조필호의 정강이를 차고 아침에 경찰복받은 유가족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빨리 찾으라고 말한다. 경찰이 송지원 아빠를 발견하고 설득을 한다. 조필호가 방에 있던 농약병을 발견하고 더욱더 강하게 설득하고 송지원 아빠는 소화기를 뿌리며 거세게 저항하며 도주하려 한다. 조필호가 송지원 아빠를 넘어뜨리자 유리조각으로 조필호를 공격한다. 이에 조필호가 송지원 아빠를 공격한다.

2015년, 송지원 아빠는 조필호를 집으로 안내했다. 장미나는 송지원의 초등학교 절친으로 할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죽은 후 문제아가 되어 퇴학되었다고 말한다. 송지원 아빠는 장미나가 오토바이를 훔쳐가고 지원의 옷과 신발과 가방을 훔쳐 간 것은 맞지만 심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말한다. 조필호는 장미나가 사고를 쳤다고 말하고 연락처를 묻는데 송지원 아빠는 연락처를 모른다. 송지원 아빠가 치킨세트를 주며 나눠 먹어라고 말한다. 장미나를 찾게되면 지원의 옷은 돌려줄 것을 주문한다.

지하주차장에서 조필호는 약쟁이와 함께 한기철의 핸드폰 비번을 풀고 있다. 조필호는 장미나와 관련된 문자와 폐북과 카톡을 모두 노트북에 옮기라고 말한다. 태성그룹 권태주는 화장실에서 죽은 남자 사진을 "정이향"(송영창역) 사장에게 보여준다. 정이향은 마사지를 받으며 사진을 치우라고 말하며 권태주에게 잘하자고 말한다. 조필호가 송진규의 집 앞에 물을 뿌리고 초인종을 누른다. 현관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조필호가 들어가 송진규를 때리고 장미나의 행방을 묻는다. 한편, 쇼핑몰 화장실에서 경찰이 죽은 진압반장을 확인한다. 검찰직원이 남검사에게 기폭장치까지 사라졌다고 말하고, 증인이 사라져 정이향을 석방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고 말한다. 검찰청에서 정이향이 유유히 걸어 나오고 남검사는 정이향의 일처리가 깔끔하다고 말한다. TV뉴스에서 정이향 태성그룹 사장의 영장을 기각하고 참고인으로 전환한다고 말하며 사라진 비자금 7800억 수사는 미궁속으로 빠졌다고 말한다. 정이향 사장이 회사입구에서 몰려든 기자들을 만난다. 정이향은 대한민국 1위기업이 검찰에 끌려가 치욕을 당했다고 말한다. 매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이향은

한기철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권태주는 영상을 찍은 자는 처리했다고 보고한다. 영상은 송진규와 형사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정이향은 권실장이 혼자 뒤집어 쓰고 감옥갈 것이라고 말한다.

송진규와 조필호와 함께 가는 길, 송진규는 장미나가 "소희"(권한솔역)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필호가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한다. 송진규가 우정이 왔다고 통화를 한 후 6008호에 있다고 말하고 문앞에서 노크를 하는데 반응이 없다. 조필호가 문을 열고 다시 닫으며 송진규에게 우정이 경찰이냐며 송진규의 배를 때린다. 은밀하게 숨어 있던 조필호가 도주하는 장미나와 소희를 잡는다. 조필호는 장미나에게 돈의 행방을 묻고 장미나가 발뺌하자 조필호는 소희를 폭행한다. 조필호가 그 돈은 한기철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라면서 5900만원의 행방을 다시 묻는다. 조필호는 장미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다. 장미나는 집에 숨겨 두었다고 말하며 비리경찰로 신고하겠다고 말한다. 조필호는 한기철이 죽어 버려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조필호의 자동차에서 장미나는 한기철이 어떻게 죽은 것인지 묻는다. 장미나가 한기철이 보낸 동영상의 존재를 말하자 조필호가 막아 선다. 조필호는 가방을 빼앗는다. 맞은 편 차와 충돌할 위기에서 조필호가 장미나를 때리자 장미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소희가 장미나는 간질이 있다고 말하고 조필호는 장미나의 수갑을 풀어준다. 조필호가 방심하는 사이 장미나가 뒷좌석의 전기충격기로 조필호를 공격한다. 조필호가 전기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장미나는 가방의 핸드폰을 챙기려고 가방을 끌어 당기지만 실패한다. 장미나와 소희가 도주하고 깨어난 조필호가 머리의 피를 보고 고통을 지르는데 팀장의 전화가 온다. 장미나와 소희는 도망하다가 차에 부딪혔던 소희가 배가 아파 주저 앉는다. 장미나가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김민재는 조필호에게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다. 조필호는 새벽에 외국인 노동자가 걸어가고 있어서 태워 주었지만 어디서 태워 주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변명한다. 김민재는 조필호가 한기철을 죽인 후 방화한 것이 아닌지 추궁한다. 김민재는 증인으로 김스를 말한다. 조필호는 김스가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부인한다. 순간 남검사가 경찰서를 찾아와 조필호를 만난다. 남검사는 바람이 전혀 없는데 A동에서 난 불이 B동까지 모두 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지 묻는다. 조필호는 유서가 있다고 말한다. 남검사는 조필호에게 창고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화재를 낸 것이 맞는지 묻는다. 남검사는 B동에 태성이 조작한 불법증거 계좌가 40만개, 비자금으로 정리한 증거12박스가 있었다고 말한다. 남검사는 태성그룹 바자금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화재로 타버렸다고 의구심을 드러낸다. 진압반장은 태성하고 짜고 불을 낸 후, 창고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가 한기철이다. 한기철은 창고안의 사람들을 촬영하고 도망하다가 머리를 맞고 죽는다. 남검사는 한기철이 죽기전 동영상을 두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중 한 명이 조필호라고 말한다. 조필호는 자신이 핸드폰을 버린것과 장미나가 동영상이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조필호는 김민재에게 자신이 불을 내지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조필호가 강력계 형사는 생계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창고에 간 것은 맞고 한기철이 창고에 들어 갔는데 창고가 폭발하는 바람에 겁이 나서 핸드폰을 버리고 나온 것이라고 변호한다. 남검사는 신호를 보내고 조사실 카메라를 끄라고 말한다. 팀장은 김민재에게 나가라고 말한다. 남검사는 감찰반이 모은 정보만으로도 조필호는 10년은 감옥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필호는 돈가방에서 장미나 핸드폰을 찾는다. 핸드폰에 비번이 걸려 있자 조필호는 장미나 집으로 이동한다.

송진규의 집에서 권태주는 라면을 먹고 있다. 장미나 핸드폰이 켜진 것을 보고 화장실로 간다. 송진규는 자기는 민증만 빌려주고 핸드폰은 장미나 것이라고 말한다. 권태주는 송진규를 죽인다. 장미나의 집으로 조필호가 찾아 온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깨고 들어 간다. 조필호가 집안을 뒤져 돈가방을 찾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는데 권태주다. 권태주는 장미나의 담임이라고 소개하고 상담약속을 했다고 말한다. 조필호는 장미나의 범위를 확인중이라고 말한다. 권태주가 장미나의 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조필호가 확인을 한다. 권태주가 폰을 달라고 말하고 조필호는 담임을 의심한다. 권태주가 조필호를 넘어뜨리고 핸드폰을 잡는 순간 조필호가 달려 들지만 다시 던져 버린다. 권태주는 장미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조필호는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권태주를 공격한다. 그러나 권태주가 다시 조필호를 제압한후 기절시킨다. 순간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권태주가 뒤로 숨는다. 귀가한 장미나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보고 옆을 돌아 보는데 권태주가 자신을 보고 있다. 권태주는 장미나를 던지며 폭행을 가한다. 권태주가 칼에 조필호의 지문을 찍은 후 장미나를 죽이려 한다. 장미나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권태주는 그것에 불편해 하는데 정신을 차린 조필호가 권태주를 안고 창문밖으로 뛰어 내린다. 권태주가 조필호의 목을 조르고 장미나가 창밖으로 화분을 들고와 권태주의 머리를 가격한다. 조필호와 권태주의 승부는 무승부로 끝나고 주민들이 경찰을 부르는 소리에 권태주가 자리를 떠난다.

장미나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오고 조필호는 차에 타라고 말한 후 수갑을 채운다. 조필호는 장미나에게 누구인지 묻고 장미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장미나는 조필호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말하는데 조필호는 건드리지 말라고 짜증을 낸다. 조필호가 다리밑 은밀한 곳으로 가 장미나에게 나머지 3천만원을 물어보는데 장미나는 다 써버렸다고 말한다. 조필호가 핸드폰을 챙겼는지 물어보고 장미나는 챙겼다고 말하면서 그 남자가 한기철을 죽인 것인지 묻는다. 조필호는 한기철이 보낸 동영상의 폰 비번을 해제하라고 말한다. 조필호가 비번을 풀면 훔쳐 간 돈과 통치겠다고 말한 뒤 장미나의 수갑을 풀어 준다. 장미나와 조필호가 산부인과를 찾는

다. 간호사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장미나가 핸드폰 비번을 해제한다. 조필호는 동영상 확인하고 검사에게 전화하여 동영상을 넘기면 자신의 문제를 덮어 줄것인지 거래를 한다. 남검사는 장미나가 중요한 증인이라면서 도와주는 댓가로 문제해결 동시에 1계급 특진까지 제안한다. 남검사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장미나를 데려 오라고 말한다. 조필호가 간호사에게 수술비를 지불하자 간호사는 장미나와 잠자리를 갖게 해달라고 말하며 수술비 일부를 공제해 준다. 조필호가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며 환자들을 내 보내고 간호사를 때린다.

조필호는 장미나와 소희를 데리고 병원을 나와 양희숙의 가게로 향한다. 조필호는 양희숙에게 갈아 입을 옷을 달라고 말하고 장미나에게 갈아 입어라고 말한다. 조필호는 송지원 아빠가 지원이 옷은 돌려 달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장미나는 지원이가 준 옷이라면서 거부한다. 양희숙이 조필호에게 장미나를 조심하라고 말하며 얼굴에 살려 달라고 써 있다고 말한다. 조필호의 자동차안에서 장미나는 조필호의 머리에 있는 상처를 바라본다. 장미나는 예전에 만난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조필호는 장미나에게 옷은 꼭 돌려 주라고 말한다. 장미나가 오토바이를 훔치는 고교생들에게 고함을 치자 고교생들이 다가오고 조필호가 싸이렌을 울리자 다시 도망을 간다.

조필호는 장미나와 함께 약속장소로 가면서 동영상이 언제 왔는지 말하면 된다고 말한다. 장미나가 지원이 치킨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조필호가 장미나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남검사는 없고 권태주가 기다리고 있다. 권태주의 부하들이 장미나를 잡고 조필호를 공격해 핸드폰을 빼앗는다. 남검사가 나타나 자신은 태성그룹의 장학생이라고 말한다. 남검사가 동영상을 보면서 권태주가 잘 나왔다고 말한다. 권태주가 조필호에게 대포폰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권태주가 조필호의 얼굴을 가격하고 원본 동영상을 확보하려 한다. 권태주가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말하며 팔을 올려 무자비하게 때린다. 조필호가 가르쳐 주지 않자 남검사가 창고화재 사건은 단순사고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조필호에게 고생했다고 말한다. 건물옥상에서 권태주는 장미나에게 동영상 원본이 어디 있는지 추궁한다. 장미나는 끝내 싫다고 말한다. 화가 난 권태주가 장미나의 목을 잡고 건물 밖으로 밀어 버리려 한다. 조필호가 경찰서 캐비닛에 숨겨 두었으니 장미나를 풀어 주라고 말한다. 권태주가 장미나에게 핸드폰 값을 주면서 집에 가라고 말하고 조필호에게는 경찰서에서 동영상을 넘기라고 말한다. 장미나가 일어나 너희들이 어른이냐고 말한다. 장미나는 소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해 달라며 옥상에서 뛰어 내린다. 당황한 조필호가 아래쪽을 보는데 권태주가 조필호도 던지라고 말한다. 조필호가 간신히 철근을 붙잡으며 남검사와 협상하는 내용을 감찰반에서 이미 들었다고 말한다. 자동알람이 울리면서 주변의 집들에서 불이 켜지고 권태주는 조필호를 차에 태우고 끌고 간다.

권태주는 조필호를 태성그룹 정이향에게 데리고 가는데 정이향이 조필호에게 해병대 389기라고 말한다. 조필호가 경례를 하자 정이향이 우리 집안은 4대 병역면제 집안이라고 말한다. 정이향은 법 앞에서 만명만 평등하다고 말한다. 정이향은 조필호에게 골프가방에 들어 있는 7800만원 현금을 보여준다. 조필호의 동영상은 7800억 가치고 그것을 1만명으로 나누면 7800만원이라고 말한다. 정이향이 장미나의 핸드폰을 보고 장미나의 인생은 780원짜리라고 말하며 방을 나간다. 권태주는 장미나 때문에 조필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조필호는 골프가방을 들고 태성그룹을 나와 바닷가로 간다.

집에서 누워있던 조필호가 지원 아빠의 전화를 받는다. 지원 아빠는 지원을 건져올린 민간 잠수사 모흥진이 3000만원을 보냈다고 말하는데 지원 아빠는 자신은 보내지 않았고 장미나가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지원아빠는 얼마전에 장미나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실을 말한다.

2014년, 팀장은 조필호에게 치료받고 오라고 말한다. 장미나는 자신이 지원 아빠가 여기에 있다고 신고한 사실을 말한다. 2015년, 지원 아빠가 지원의 옷을 돌려 받고 눈물을 흘린다. 조필호는 장미나가 차에서 했던 말들을 상기한다. 송지원의 생일 케익에 불을 붙이고 장미나는 지원의 선물을 사왔는데 줄 방법을 고민한다. 장미나가 지원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 그곳에서 애들과 잘 지내라고 말한다. 장미나는 지원이 보고 싶어 지원의 옷과 신발과 가방을 갖고 다녔다고 말한다. 조필호는 장미나의 SNS를 확인한 후 좋아요를 클릭한다.

양희숙이 조필호가 싫어하는 감자탕을 먹는 것에 신기해 한다. 조필호가 양희숙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간다. 태성그룹 장학증서 수여식에 조필호가 등장한다. 검색대에 벨이 울리자 권태주가 별도의 출입구로 올려 보내라고 말한다. 권태주가 폰만 주고 돌아가라고 말한다. 조필호는 비자금 정보가 있으니 정이향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요구한다. 조필호는 그동안 많이 맞아 몸이 अच्छ다고 말하면서 안마의자에 앉는다. 조필호가 화장실로 들어가 김민재에게 호출을 한다. 조필호는 한기철이 죽기 전에 보낸 동영상을 말하고 협상을 위해 태성그룹에 왔다고 말한다. 조필호가 태성그룹 15층에 있다면서 낮으면 돈가지고 필리핀으로 뜰 거라고 말한다. 통화를 끝낸 김민재가 차를 돌리라고 말한다. 조필호는 김스를 뜯고 3D 프린팅된 총을 조립하고 입으로 삼켜 버린 총알을 변기통에서 찾아내 장전한다. 조필호가 준비를 끝내고 화장실을 나가는데 기다리던 권태주가 조필호를 때려 쓰러뜨린다. 화장실 벽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이다. 권태주는 부하들에게 행사장에 사람이 많으니 조필호를 담겼다가 행사 종료후 처리하라고 말한다. 부하들이 조필호를 욕조에 넣고 덮개를 닫는다. 조필호가 재빨리 바닥 배수구 뚜껑을 빼 낸다. 부하들이 자리를 떠자 욕조덮개를 발로 차고 나온다. 조필호는 양말을 벗어 비누를 넣고 무기를 만들고 바디오일

로 온몸에 바른다. 조필호가 권태주를 공격하고 권태주가 반격하는데 몸에 바른 오일 때문에 여의치 않다. 권태주가 비웃으며 조필호를 넘어 뜨리고 팔을 꺾고 조필호는 양복상의에서 총을 꺼내 권태주를 쏘아 버린다.

김민재가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장에서 조필호를 찾는다. 조필호는 연설중인 단상으로 올라가고 학생들이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놀란 정이향이 조필호를 끌어내라고 말하자 경호원이 다가가고 조필호는 경호원을 총으로 쏜다. 김민재가 조필호에게 멈추라고 말하지만 조필호는 단상뒤에 숨은 정이향에게 총을 겨누며 이 세상 어디에도 780원짜리 인생은 없다고 머리에 총을 쏘아 버린다. 순간 김민재도 조필호를 총으로 쏘고 총상을 입은 조필호가 치킨을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면서 쓰러진다. 정이향 피살사건으로 비자금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보안팀 여직원이 정이향 사장의 증거자료 파괴지시를 증언하고 남성식 검사의 관련설도 확인된다. 정이향을 살해한 조필호는 단순한 원한관계로 TV에 보도된다.

양희숙은 소희에게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해 놓았다고 음성메세지를 남긴다. 이송중인 조필호가 창밖을 바라보는데 장미나를 발견하고 잘 지내라고 소리 지른다. 장미나가 조필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영화는 끝이났다. 악질경찰은 흥행하지 못했다. 선한 경찰이었다면 흥행했을까? 조필호 역시 마지막까지 악질이진 못했다. 누구에게나 다하지 못한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가 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인생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꼬일 수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 절망하거나 미움을 갖거나 원망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한 순간이다. 그 한 순간을 참으면 좋은 일이 기다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17. "생일" Birthday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04.03

감독,각본:이종언, 제작:나우필름,영화사레드피터,파인하우스필름,

주연:설경구,전도연,

관객:1,195,716명(2019.05.17.)

"세월호"와 "단원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2014년 4월16일,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는 "비겁함과 거짓"의 대명사이며, 단원고는 "SOS와 무응답"의 대명사입니다.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며 서로 잘못했다고 변명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방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죽고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사건이며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세월호"는 이제 육지를 떠돌며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정일"(설경구역)이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순남"(전도연역)을 부르고 순남은 인터폰을 바라보며 "예술"(김보민역,아역)에게 씯!하는 몸짓을 보낸다. 정일이 여동생 "정숙"(이봉련역)에게 전화를 해 주소를 확인한다. 정일이 정숙의 집을 찾아 조카들에게 게임기 선물을 주고 정숙이 순남에게 전화를 하는데 받지 않는다. 결국 정일은 정숙의 집에서 하루밤을 보낸다. 한편, 순남이 빨래를 하고 다음날 아침 예술이 전기밥솥을 확인하고 엄마를 일으킨다. 정일이 정숙에게 언제 이사를 한 것인지 묻고 정숙은 아파트 담보잡고 대출을 갚기 어려워 이사를 했다고 말한다. 오빠의 변호사 비용으로 모든 것을 날린 것이다.

정일이 정숙과 함께 예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하교를 기다린다. 정숙이 예술에게 안부를 묻고 정일이 다가가지만 예술은 뒷걸음질 친다. 정일은 문방구에서 예술이 원하는 물건을 사준다. 예술이 집에서 도어락 비번을 누른다. 정숙은 오빠집이니까 들어가라고 하지만 정일은 예술에게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한다. 순남이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정일이 밖에서 순남을 바라보며 전화를 하는데 한참이나 받지 않는다. 정일이 잠깐 나오라고 하지만 순남은 거절하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끊어 버린다.

다음날 정일은 예술의 학교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정일이 예술에게 곰인형과 와플을 사준다. 예술이 반만 먹고 반은 오빠를 갖다 주려하자 정일이 와플을 따로 주문하여 포장을 부탁한다. 예술이 아빠와 함께 집으로 간다. 예술이 도어락 비번을 누르자 정일이 안보았다고 말한다. 옆집 아이 "우찬"(탕준상역,아역)이 예술을 부르며

공원으로 놀러 나간다. 정일이 홀로 집안에 들어가서 둘러 보다가 순남과 수호와 예술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 본다. 정일이 수호의 방으로 들어가자 수호의 교복과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 정일은 눈물을 흘리며 나온다. 순남이 마트 교대자가 오자 퇴근을 서두른다. 신호등 앞에서 서명운동하는 것을 보고 노래 볼륨을 높인다. 정일이 고장난 욕실 등을 교체한다. 예술이 현관 등도 고칠 수 있는지 묻는다. 순남이 현관문앞에 서서 정일을 바라본다. 그때 "우찬엄마"(김수진역)가 노크를 하며 반찬을 전해주고 예술이를 데리고 나간다. 순남이 정일에게 혐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건넨다. 정일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밖으로 나간다.

우찬 엄마가 예술에게 감자탕을 먹이며 아저씨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예술이 아빠라고 말하며 외국에서 돈벌고 귀국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찬의 누나"(김형주역)는 예술이 또 온것이나며 짜증을 내고 그냥 나가 버린다. 정일이 예술과 함께 걸으며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데 예술은 다들 아줌마인데 괜찮은지 묻는다. 아파트 입구에서 우찬엄마는 정일을 만나 세월호 유가족을 돕는 "이영준"(박종환역) 대표를 소개한다. 우찬 엄마가 수호의 생일날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도 하고 티타임도 갖는게 어떤지 묻는다. 이영준 대표는 수호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찬 엄마가 작년에는 수호반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는데 수호는 못했다고 말한다. 정일이 수호가 좀 크게 태어나 엄마가 힘들었지만 잘 자랐다고 말한다. 수호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우찬 엄마는 수호가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다고 말하고 이영준 대표는 다음에 수호 사진과 물건들을 빌려 가겠다고 말한다. 예술이 이영준 대표와 우찬 엄마와 함께 방에 들어가 수호의 물건들을 바라 본다.

시화호 환경학교에 예술이 체험을 나왔다. 예술이 장화를 신고도 갯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일이 함께 들어가려 하지만 예술은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 예술이 엄마에게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고 정일과 집으로 향한다. 순남이 박스를 들고 나오다 정일과 예술이 마주친다. 정일이 순남의 박스를 드는데 순남이 화를 내며 정일을 분리수거장으로 데려 간다. 정일이 수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생일축하 해주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하지만 순남은 무조건 싫다고 말한다. 순남이 소파에 누워 수호와 예술이 함께 찍은 동영상을 보며 눈물을 닦는다. 다음날, 순남과 정일이 공원묘지로 향한다. 순남이 자동차에 있는 가족사진을 가방에 넣는다. 정일이 차를 바꾸자고 말하자 순남이 차를 세운뒤 그러면 차를 사줄것이나고 묻는다. 공원묘지에는 다른 유가족들이 있다. 형우 엄마가 수호 엄마를 반갑게 맞이한다. 유가족들은 아이들 사진을 놓고 함께 밥을 먹는다. 순남도 수호사진을 꺼내어 앞에 놓는다. 다들 우울함을 피하기 위해 치맥을 먹는다. 순남은 수호사진을 지갑에 넣고 소풍을 나온 것이나고 짜증을 내고 정일을 남겨 놓은채 가버린다.

정일이 정숙의 집에서 순남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한다. 정숙이 그런일을 겪고도

정상적이면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오빠가 더 이상하다고 말한다. 순남이 예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린다. 순남이 예술에게 옷이 어떤지 묻는데 종이가방에는 아무 것도 없다. 순남은 예술에게 생선을 먹어라고 하는데 예술은 안먹는다. 순남이 오빠도 없는데 반찬투정을 한다고 집밖으로 보낸다. 예술이 집앞에서 울고 있고, 순남은 식탁에 앉아 울고 있다. 순남이 잠이 든 예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현관 센스등이 켜지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듯하지만 아무도 없다.

우찬과 예술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준비한다. 예술이 "성준"(성유빈역)에게 다다음주 주말에 오빠 생일파티를 한다고 말한다. 성준은 수호 오빠의 단짝 친구다. 순남이 김밥을 먹으며 예술에게 전화해 교대근무자가 안와서 늦는다고 말한다. 예술이 아빠에게 계란후라이를 해주려 한다. 정일이 예술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현관 센서등을 수리한다. 예술은 아빠와 함께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전에 것은 수호와 함께 붙인 것이다. 정일은 예술이 잠든 후 수호의 방을 향한다. 수호방에는 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정일은 출입국 기록이 없는 여권과 수호의 메모지를 읽는다. 순남이 들어와 수호방에 있는 정일을 보고 화를 낸다. 정일이 수호의 여권에 도장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자 순남이 자신이 남편에게 가고 싶어도 못가니깐 수호가 함께 간다고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정일은 함께오지 그랬냐고 말한다. 순남은 여기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정일은 순남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순남은 여기에서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정일은 도대체 무슨일을 했는지 묻고 그리고도 아빠인지 묻는다.

다음날, 정일은 호숫가를 걷다가 집에서 양복과 구두를 챙겨 나온다. 성준이 롯데리아로 출근하다가 순남을 보고 피한다. "은빈"(권소현역)이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합격하고 일을 시작한다. 성준은 은빈을 알지만 모른체 한다. 순남은 유가족 모임에서 사진을 받으려 한다. "건재엄마"(김현역)는 몰래 교실을 뺏다고 말한다. "석원엄마"(소희정역)는 다른 아이들은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도 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은 교실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는 보상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한다. 순남은 사진을 챙겨 나간다.

정일이 면접을 보고 있다. 정일은 알루미늄 재생공장 운영책임을 이력으로 말한다. 면접관이 3년간 공백 이유를 묻자 정일이 파업중에 사망 사고가 있었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한다. 정일은 출입국 관리소를 찾아 "직원"(김민재역)에게 여권을 주면서 출입국 도장 하나만 찍어 달라고 애원을 한다. 그러나 직원은 문제가 된다면 끝까지 찍어 주려 하지 않는다. 정일은 자신의 아들 여권인데 종이에 도장하나 찍어 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정일이 순남의 집을 다시 찾는다. 순남이 좋아하는 딸기를 사왔는데 잠깐만 들어가자고 말한다. 순남이 양복을 입은 이유를 물어보고 정일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였다고 말한다. 순남이 수호 신발이 발에 맞는지 묻고 정일은 자신의 구두가 아닌지 되묻는다. 순남은 수호도 280이라고 말한다. 정일은 공항에 다녀 왔다면서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을 꺼낸다. 정일은 식탁에 놓여진 액자를 본다. 순남이 수호반 단체사진이라고 말하자 정일이 사진에서 수호를 찾는다. 수호가 중3부터 키가 컸다고 말하며 수호의 친구인 보연을 말한다. 정일이 순남에게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묻자 순남의 반응이 싸늘하다. 순남은 보상금 때문에 귀국한 것이냐고 화를 내고 정일도 그만하라고 소리지르며 나가 버린다. 정일은 버스정류장에 앉아 구두를 바라보고 성준은 롯데리아에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정일을 바라 본다.

순남은 제사준비를 한다. 학교를 찾은 순남이 교실 책상에 앉아 주위를 둘러 본다. 순남이 집으로 돌아와 우찬 엄마와 이영준 대표에게 수호 생일 안한다면서 화를 낸다. 이영준 대표가 정일이 수호 생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자 순남은 무슨 공공이냐면서 화를 참지 못한다. 우찬 엄마와 이영준 대표가 나가고 순남은 수호의 물건을 챙겨 방으로 옮긴다. 예술이 엄마에게 왜 오빠 생일이 싫은지 물어 보고 순남은 우리끼리 했을때가 좋았다고 말한다. 순남이 거실에 누워서 수리가 된 현관 센서등을 바라본다. 다음날, 순남이 정숙의 집을 찾아 정일의 행방을 물어 본다. 정숙이 밤뉘시를 갔다고 말하자 며칠전에 정일에게 심하게 한 것 같다고 말하고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순남은 제삿날 같이 오라고 말하고 집을 나간다. 정일이 아들 "수호"(최현진역)와 뉘시를 하던 옛날을 회상한다. 정일이 배고프다면서 엄마를 깨우려 한다. 정일과 수호가 텐트로 가서 순남을 간지럽힌다. 정일은 호숫가에 누워 예전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은빈이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다. 성준이 뒤따르며 은빈을 부르며 책을 준다. 매니저형이 낮에도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은빈은 다른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준은 은빈에게 나이가 같으니 말을 놓으라고 한다. 성준은 베트남 여행 가려는 것인지 묻고 은빈은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묻는다. 성준은 수호 때문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비가 많고 덥지만 과일은 맛있다고 말한다. 은빈은 매장 사람들이 나를 아는지 묻고 아는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먼저 가버린다.

순남의 집에서는 제사 준비가 한창이다. 정일이 도착하고 가족들이 제사를 지낸다. "작은 아버지"(정종준역)가 정일에게 완전히 귀국한 것인지 묻고 산업대에 원룸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를 권유한다. 정숙이 서울 대학도 안되는데 지방대학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의문을 품자 작은아버지가 짜증을 낸다. 정숙은 돈이 어디있느냐고 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나라에서 보상금을 많이 준다는데 얼마 받았냐고 정일에게 묻는다. 정일은 보상금은 안받는다면서 그만하라고 말하고 작은 아버지는 빌려준 6천만원을 갚아라고 대응하며 분위기가 싸늘해 진다. 순남이 집을 나와 걸어가고 정

일은 순남을 찾으러 밖으로 나간다. 정숙이 예술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간다.

순남이 지난 날을 회상한다. 집으로 돌아온 순남이 쇼파에 앉아 아파트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수호가 오는 것을 보며 자는 척 한다. 수호가 가방을 놓고 엄마를 놀라게 한다. 수호가 밖에서 불끄는거 다 봤다고 말하고 순남은 수호가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본다. 쇼파에 누워 있던 순남이 현관 센서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수호방으로 들어 간다. 순남이 밤에 아직 춥다면서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한다. 순남이 수호 생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눈물을 흘린다. 순남이 나도 수호 곁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통곡을 한다. 우찬이 공부를 하다가 순남의 울음을 듣는다. 우찬 엄마는 우찬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수진은 순남아줌마의 눈물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하며 나가 버린다. 수진은 저 울음소리 때문에 대학을 두 번이나 낙방했다고 짜증을 낸다. 우찬 아빠가 수진을 고시원에 데려다 준다. 집으로 돌아온 정일이 순남의 울음소리를 듣고 위로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우찬엄마까지 들어와 서랍에 있는 정신과 안정제 약을 가져다 준다.

다음날 아침 정일이 빨래를 한다. 깨어난 순남에게 정일이 아침을 먹어라고 말한다. 순남이 출근준비를 하려하자 정일이 오늘은 아파서 못간다고 전화했다고 말한다. 정일이 순남에게 죽을 차례 주고, 순남은 정일에게 수호생일을 왜 하려는지 물어본다. 정일은 수호에게 해 준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정일은 돈번다고 수호의 초등학교 기억도 별로 없다고 말하며 너무나 미안해 한다. 순남이 정일이 가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신에 혼자 가라고 말하는데 정일이 그날 수호도 올 것이라고 말한다. 수호의 생일날, 정일과 순남이 예술과 함께 수호의 생일 행사장으로 간다. 이영준 대표가 순남의 용기를 격려하고 순남은 벽에 걸린 수호의 사진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수호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을 본다. 순남이 울고 있다. 이영준 대표는 수호친구들이 수호가 생각날 때 적은 글을 하나씩 읽는다.

석원 엄마아빠가 수호의 생일파티에 우유를 올려 놓는다. 석원 엄마는 수호가 착한데 눈치가 없었다고 말한다. 수호만 다녀가면 우유가 다 없어 진다면서 석원이보다 덩치도 크고 밥도 잘먹는다고 말하고 눈치를 줘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제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성준이 수호에게 줄 편지를 써와 낭독을 한다. 편지를 듣던 사람들이 울고 순남도 눈물을 흘린다. 순남은 성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창훈 엄마는 수호가 창훈이와 함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수호는 자기 구명조끼를 다른 친구에게 주고 다시 물속으로 구조하러 들어 갔다고 말한다. 은빈이 울기 시작한다. 은빈은 수호가 자기를 밑에서 구조해 주었다고 말한다. 은빈은 수호도 뒤따라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고 말한다. 이영준 대표는 순남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순남은 그동안 생일을 앓한게 후회된다고 말한다. 순남은 수호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영준 대표는 예술에게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데 고개를 돌린다. 이영준 대표는 수호의 생일 준비를 하면서 시인이 새벽에 생일시를 보내왔다고 말한다. 이영준 대표가 우찬에게 시를 읽어 달라고 말한다. 정일은 수호가 자기를 찾아 왔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이 수호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 호숫가에서 정일이 혼자 낚시를 하면서 수호와 함께 한 시간을 기억한다. 정일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엄마를 잘 지켜라고 수호에게 이야기한다. 예술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를 찾는다. 순남이 아빠가 베란다에 있다고 알려주고 현관문 센서등이 켜지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생일은 세월호 유가족이 겪는 상처를 말하고 있다. 졸업여행을 떠나려던 아이들은 행복한 추억에 빠져 있다. 아무도 절망이 눈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렇게 큰 배를 처음 타보는 아이들에게 세월호도 큰 추억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아이들을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그 시간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반성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오염하는 사람들의 눈물에 함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진실이 가려지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에게도 반성이 필요하고 부끄러움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생일을 하지 못하는 유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진실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18. “미성년”Another Child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04.11

감독,각본:김윤석, 제작:영화사레드피터,

주연:염정아,김소진,김혜준,박세진,김윤석,

관객:291,924명(2019.05.17.)

“미희”(김소진역)의 식당에서 “대원”(김윤석역)이 미희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멀리서 대원의 딸 “주리”(김혜준역)가 지켜보고 있다. 잠시 후 대원이 떠나고 미희와 눈이 마주친 주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다. 미희가 밖으로 나오자 주리가 일어나 가버린다. 미희가 “윤아”(박세진역)에게 아는 사이인지 물어 보다가 주리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발견한다. 윤아가 주리의 폰을 들고 나오는데 주리가 버스를 타고 가버린다. 학교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주리가 “현주”(김혜윤역)에게 학원수학 특강노트를 빌려 달라고 말한다. 현주는 주리에게 누군가 쪽지를 주었다고 말한다. 주리가 욕상으로 올라간다. 주리가 윤아에게 왜 부른 것인지 묻는다. 윤아는 주리에게 비겁한건 아빠와 같다고 말한다. 윤아는 윤아엄마가 아빠와 불륜이 진행중이라고 묻고 지금 배가 불러 온다고 말한다. 놀란 주리가 임신을 묻고 윤아는 변태처럼 훔쳐 보지 말라고 말한다. 주리는 윤아 엄마가 꽃뱀이라고 말하며 아빠가 돈 없으니 엄마에게 말해 단절하라고 말한다. 윤아가 두사람이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윤아가 들고 있는 주리 폰에 전화가 오자 받는다. 윤아는 “주리 엄마”(염정아역)에게 남편이 바람났고 엄마가 임신했다고 말해 버린다. 주리는 핸드폰을 빼앗으며 화를 낸다. 주리는 윤아 엄마가 중지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윤아는 주리 엄마가 모르면 끝이냐고 대응한다. 주리는 윤아 엄마가 불륜이라고 다그치며 갑론을박이 계속된다.

현주가 주리에게 수학특강 노트를 달라고 한다. 주리가 교실에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하자 현주는 다음주가 시험인데 짜증을 내고 주리는 잔소리 스톱을 외친다. 주리는 낙태를 검색하고 거울로 터진 입술을 확인한다. 윤아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불륜남여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운다. 남자가 윤아에게 시비를 하자 윤아가 편의점 CC-TV에 모든 것이 있고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응한다. 남자가 계산을 하고 나간후 윤아가 콘돔을 던지며 서비스라고 한다.

주리가 집에서 아빠의 눈치를 보며 엄마는 어디갔는지 묻는다. 대원이 “영주”(염정아역)가 성당에 갔다고 말하자 주리는 아빠에게 어제 회식을 한 것인지 묻는다. 대원이 자동차 전단지를 보고 있자 주리가 차를 바꿀 것인지 묻는다. 주리는 아빠가 인기가 많은지 물어보고 대원은 인기가 많다고 웃는다. 주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빠 등을 때리며 운동하라고 말한다. 대원이 주리에게 좋아하는 뉴발란스225 신발

을 사주겠다고 말한다. 주리가 그 사이즈는 중학교때 것이라고 말한다. 영주가 들어와 캔맥주를 마신다. 영주는 남편이 혼자 잠을 잔지 2년되었는데 오늘도 혼자 잘건지 묻고 대원은 혼자 자는게 습관되면 편하다고 말하면서 들어가 버린다.

미희가 방에서 운동을 하면서 윤아에게 아직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묻는다. 윤아는 아기를 지우라고 말한다. 미희는 윤아처럼 크면 얹된다고 말한다. 밥통에 밥이 없다. 미희가 음식냄새 때문에 음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윤아가 동네사람들 창피하다고 말하고 미희는 신경 안쓴다고 말한다. 윤아는 아저씨가 이혼을 약속한건지 묻고 미희는 아들이라고 동문서답한다. 윤아가 그 아저씨는 이미 다른 아이의 아빠라고 말한다. 미희가 소리를 지르며 엄마는 19살에 윤아를 낳고 남편 때문에 빚갚느라 내 인생이 없었다고 하소연 한다. 윤아가 엄마 폰으로 아저씨에게 전화를 하는데 받지 않자 문자를 보내고 밖으로 나간다.

다음날 아침, 대원이 "당신이 바람피우는 거 세상이 다 알아"라는 문자를 확인한다. 대원이 거실에서 영주를 바라본다. 주리는 나오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대원은 현관으로 나간다. 대원은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가는데 주리가 함께 가자는 말도 듣지 못한 채 나간다. 주리는 엄마가 알고 있다고 아빠에게 전화를 한다. 영주가 맨발로 나와 주리에게 도시락을 준다. 주리는 학교가는 길에 엄마가 준 주먹밥을 먹는다. 주리가 학교 복도에서 윤아를 만난다. 윤아가 주리를 비웃자 주리가 가방을 던지고 윤아의 머리채를 잡는다. 둘이 몸싸움을 하면서 창문과 출입문을 박살낸다.

대원이 김미희가 보낸 문자를 지우고 있다. 직원은 본사에서 4명이 오는데 지난번 오리집으로 예약할지 묻는데 대원이 그냥 가까운 곳으로 하라고 말한다. 영주는 덕향오리집을 찾는다. 미희는 영주에게 주문을 받고 오리주물럭을 주문한다. 미희가 선불이라고 말하고 계산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다. 영주는 미희가 통화중에 회사라는 말에 주시한다. 영주가 주문만 하고 나간다. 영주가 미희를 보며 이곳에서 3년 장사했는데 세상에 좋은 남자 없다고 말한다. 미희가 차 한잔을 권유하는데 영주가 미희를 밀어 버리는 통에 미희의 다리에 상처가 난다.

주리가 깨어진 폰을 바라보며 윤아 때문에 집이 지옥이라고 말한다. 윤아가 자기에겐 한 대 때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한다. 주리는 졸업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전학이라고 갈 것이냐고 묻고 윤아는 주리 눈에만 안보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김선생"(김희원역)이 들어와 싸운 까닭을 물으며 윤아에게 내일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한다. 김선생은 주리에게 윤아가 돈을 요구했는지 물어보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주리는 자기가 먼저 때린 것이라고 말한다. 윤아가 전화를 받고 다시 주리를 찾아와 주리에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한다. 김선생이 주리에게 가라고 말한다.

병원에서 간호사는 영주에게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말한다. 윤아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병실을 향한다. 영주가 윤아에게 오늘 병실을 지킬 것인지 묻는다. 영주는 왜 둘이 다투는지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주차장으로 돌아와 자동차 시트에 남은 피를 닦는다. 주리와 윤아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보며 주리는 아기를 죽으라고 기도했고, 윤아는 엄마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주리와 윤아가 함께 저녁을 먹는다. 대원이 병원을 찾는다. 주리가 아빠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는데 아빠를 발견하고 다시 부른다. 주리를 보고 놀란 대원이 기둥에 몸을 숨기고 도망한다. 주리와 윤아가 아빠를 뒤쫓지만 사라지고 없다. 윤아는 대원을 계속 추적하고 주리는 엄마에게 아빠가 도망했다고 말한다. 도망가던 대원이 지쳐 주저앉아 윤아를 보고 누군지 묻는다. 주리는 엄마와 귀가하면서 아빠가 도망갔다고 울부짖는다. 대원은 미희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와 살핀 후 잠든 미희를 보고 병실을 나온다. 윤아는 창밖 대원을 보면서 꼴이 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주리의 방으로 엄마가 들어와 미용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원은 영주가 나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쉰다. 병원에서 윤아는 간호사에게 링거를 다 맞았다고 말하는데 간호사가 이모가 결재를 하고 서류와 카드를 두고 갔다고 건네준다. 간호사는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진료비를 먼저 결재했다고 말한다. 윤아는 영주가 낸 병원비를 확인하는데 예금잔액은 모두 부족이다. 윤아는 "박서방"(이희준역)에게 전화를 한다. 다음날 주리가 엄마에게 아빠가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묻고 영주는 식탁에 도시락이 있다고만 말한다.

윤아는 버스를 타고 박서방을 만나러 간다. 박서방은 무슨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윤아는 아빠에게 돈이 없는지 물어본다. 박서방은 돈 없다고 엄마는 오리집이 있다고 말한다. 윤아는 월세도 못내는게 말이 되는지 되묻는다. 윤아는 엄마 사정도 앓 좋은데 다시 직장을 다니라고 말하고 박서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말한다. 박서방은 카드를 만들어라고 말하고 윤아는 아직 17세라 안된다고 말한다. 박서방은 찜질방차를 못하면 택시를 타야한다고 찜질방차를 탄다. 윤아는 아빠에게 자기 이름은 알고 있는지 묻고 박서방은 윤아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문을 닫는다.

주리가 학교에서 윤아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다. 옥상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하는데 회의중이라는 회신만 돌아온다. 대원이 귀가하여 영주의 방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죄를 고하고 회사가 힘들 때 마다 덕향 오리집에 갔다고 고백한다. 그때 집으로 돌아온 영주가 대원을 보며 뭐하는지 묻는다. 대원은 영주가 방에 있는 줄 알고 그랬다고 말한다. 영주는 이 집의 전재산이 그 방에 있어 문단속을 하는것이라고 말한다. 대원은 다시 자백을 고한다. 영주가 대원의 핸드폰 비번이 딸 생일인데 딸의 생일을 누르고 오리집 여자와 통화를 하는게 정상이냐고 묻는다. 대원은 가족여행을

다녀 오자고 말하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고 약속한다. 영주는 아이까지 낳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고 성욕인지 사랑인지 묻는다.

영주는 미희는 사랑인 것 같다고 말하고 대원은 실수라고 말한다. 영주는 대원에게 4명 모두를 기만했다고 말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영주는 집을 내 놓았다고 말하며 금반지, 돌반지, 집문서, 통장을 확인하는데 모든 명의가 권대원으로 되어 있다. 주리는 미희가 입원한 병원을 찾고 윤아는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돈을 받아 영주의 아파트를 찾는다. 윤아는 경비아저씨에게 돈을 대신 전해달라고 말하는데 영주가 다가 온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주리와 미희와의 관계가 궁금한지 이것저것 물어 본다. 미희가 병실에서 나와 주리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고 주리는 미희에게 과자를 건넨다. 영주의 집에서 윤아는 엄마가 주라고 했다고 돈봉투를 건넨다. 영주는 전화로 알려준 것이 윤아인지 묻는다. 윤아는 주리도 이미 알았다고 말한다. 윤아는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주어 고맙다고 말한다. 영주는 윤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말한다. 윤아는 주리 걱정을 하라며 나가고 영주는 그때서야 눈물을 흘린다. 윤아가 되돌아와 영주에게 휴지를 건네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영주는 윤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윤아는 돈이 5만원 모자란다고 말한다. 아르바이트 몇 번 빠져서 돈이 부족해 다음주에 주리에게 주겠다고 말한다.

미희가 병원에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다. 옆에 있던 산모가 영양섭취를 잘 해야 모유를 먹일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 미희가 시비를 걸고 신경질을 낸다. 간호사가 TV를 끄고 모두 병실로 가라고 말한다. 미희는 주리에게 윤아 친구인지 묻고 주리는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 병원으로 돌아온 윤아가 주리를 만난다. 주리는 아빠 잡으려고 왔다고 말한다. 윤아는 엄마에게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출생신고를 한다고 말한다. 미희는 윤아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윤아는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안된다면서 나가 버린다. 주리와 윤아가 인큐베이터속 아기를 보면서 힘내라고 말한다.

대원이 동우펜션을 찾는다. 방파제 "아줌마"(이정은역)가 주차비를 내라고 말하고 대원이 주차비로 1만원을 준다. 주리는 버스정류장에서 윤아에게 학교에 오지 않는 이유를 묻고 윤아는 자퇴할 것이라고 말한다. 윤아는 돈벌어서 아기와 독립할 것이라고 말한다. 윤아는 엄마와 주리 아빠보다 자기가 아기를 지킬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윤아는 알바해서 돈 더 벌 것이라고 말한다. 주리는 학원갈 시간이라면서 윤아에게 중졸이 무슨 애를 키우냐? 틀림없이 후회한다고 충언한다. 주리는 윤아에게 또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한다. 윤아는 주리에게 엄마를 잘 보살펴라고 말하고 주리는 윤아 엄마나 신경쓰라고 말한다.

영주가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한다. 영주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산하게 했다고 고백한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너무나 슬프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주리가 지하철역 입구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눈이 내린다. 주리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 집에가서 엄마와 저녁을 먹겠다고 말한다. 대원이 병원에 전화해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다. 윤아는 아기 출생신고서를 작성한다. 미희는 짐을 정리한다. 대원이 미희에게 전화를 하고 미희가 괜찮다고 말하자 대원이 미안하다고 말한다. 미희는 자기를 사랑하는지 묻는데 대원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자고 말한다. 미희가 집에 데려 달라고 말하는데 대원은 앓된다고 말한다. 실망한 미희는 전화를 끊어 버린다. 대원이 길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 가는데 불량청소년들이 웃으면서 일어나 대원을 무차별적으로 때린다.

주리가 병원을 찾는다. 주리는 아빠와 윤아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 준다. 윤아가 사진을 보며 웃는다. 윤아는 오늘 아기 양말을 신겨 볼 것이라고 말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산모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주리가 아기를 보러 하는데 간호사들이 못들어가게 막는다. 간호사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뇌출혈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주리와 윤아가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입양보낸 것인지 묻는다. 당황한 간호사가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윤아와 주리가 환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윤아와 주리가 조은상조 "아저씨"(정종준역)에게 아기에 대해 묻자 트렁크를 연다. 주리와 윤아는 상조 아저씨 차를 타고 함께 간다. 아기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말한다. 주리가 서류를 확인하는데 김미희의 아기가 있다. 윤아는 멈추라고 고성을 지르며 믿지 못한다. 아저씨는 화장터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주리는 아기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말한다.

미희가 퇴원준비를 한다. 영주가 병원을 찾아와 치료가 남았는데 더 조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희는 영주를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영주는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한다. 영주는 미희에게 죽을 주며 먹어라고 말한다. 미희는 그 사람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가라고 말한다. 영주는 대원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는지 묻는다. 미희는 알았다고 말하고 영주는 어디까지 가려고 한 것인지 되묻는다. 영주는 죽 먹어라고 말하고 미희는 자신에게 죽먹이려고 온 것인지 묻는다. 영주는 환자복 입고 전복죽 먹이고 안되는 이야기도 해야 숨도 쉬고 사람 도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온 것이라고 말한다.

주리는 집에서 아빠 신발을 보고 들어 간다. 대원은 출장 갔다가 다쳤다고 말한다. 주리는 아기가 죽었다면서 주리도 이제 아빠 딸 안한다고 말하고 나가 버린다. 아파트 밖에서 택시가 태안에서 여기까지 48만원의 요금이 나왔다고 말한다. 영주가 달려가는 주리를 부르지만 주리는 어디론가 가버린다. 영주가 아파트 입구에서 대원을 만나 택시비와 병원비를 주었다고 말한다. 영주는 대원을 보며 병원에 가자고 말한다.

윤아는 집안을 뒤져 돈을 찾는다. 화장대에서 산모수첩을 발견하고 나오면서 가게에 있는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는 윤아 아빠가 온 줄 알았다고 말하고 윤아는 엄마에게 아픈 곳이 없는지 물어 본다. 윤아가 엄마도 이제 늙었다고 말하며 엄마를 좋아하도록 해 줄 수 없는지 물어본다. 미희가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학교에서 시험치는 날, 윤아의 교실을 주리가 찾는다. 윤아는 주리를 모른체 한다. 주리는 가방에서 박스를 꺼내 열어 보려고 한다. 윤아는 박스를 닫으며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고 눈물을 흘린다. 주리와 윤아는 상자를 들고 교실을 나온다. 김선생이 시험 안칠 것인지 묻지만 주리는 거짓말이라면서 학교를 떠난다. 주리와 윤아는 화장장을 찾는다. 아저씨는 아기를 찾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주리는 정말 윤이 좋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저씨는 찾지 않는 죽음도 많다고 말한다. 주리와 윤아가 놀이공원으로 간다. 주리는 초등학교때 소풍왔던 곳이라고 말하며 즐겁게 논다. 주리가 은단통을 꺼내 즐거웠는지 묻는다. 윤아가 한줌도 않된다면서 납골동에 돌걸 그랬다고 말한다. 주리가 가방에서 딸기우유와 초코우유를 꺼낸다. 윤아는 딸기우유에, 주리는 초코우유에 가루를 타서 마신다.

영화는 끝이 났다. 미성년이 어른들의 일탈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비밀과 거짓말은 가족의 믿음을 불안케하는 카테고리가 된다. 서로 상극과 같은 친구관계는 불륜이라는 모티브로 더욱더 가까워져 간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십계명은 모든 것을 강한 죄라고 규정한다.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절제함과 배려함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교훈이 될 것이다.

19. "이스케이프 룸" The Escape Room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화, 장르: 액션, 공포, 스릴러, 개봉: 2019.03.14

감독: 애덤 로비텔(Adam Robitel),

제작: 소니픽처스,

주연: 테일러 러셀(Taylor Russell, 조이 데이비스 역),

로건 밀러(Logan Miller, 벤 밀러 역),

제이 엘리스(Jay Ellis, 제이슨 워커 역),

타일러 라빈(Tyler Labine, 마이크 놀란 역),

데보라 앤 윌(Deborah Ann Woll, 아만다 하퍼 역),

닉 도다니(Nik Dodani, 대니 칸 역)

요릭 밴 와게닝겐(Yorick Van Wageningen, 게임 마스터 역)

관객: 563,114명(2019.05.17.)

이스케이프 룸에는 공포를 자극하는 여섯 개의 방이 있다. 오븐 룸, 아이스 룸, 업사이드다운 룸, 포이즌 룸, 일루전 룸, 크러쉬 룸 등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방탈출 게임이 시작된다. 이곳에 조이 데이비스, 벤 밀러, 제이슨 워커, 마이크 놀란, 아만다 하퍼, 대니 칸 등 6명의 참가자들이 초청된다.

크러쉬 룸에서 벤 밀러가 방탈출을 위한 단서를 찾는다. 벤이 단서를 찾아 숫자를 조합하는데 방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다. 3일전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조이 데이비스가 대학강의가 끝나고 교수는 조이의 양자 제노효과에 관한 논문을 이야기 한다. 제이슨 워커는 회사에서 고객과 통화중이다. 벤 밀러는 식료품점에서 근무중이다. 제이슨의 부하직원은 애커맨으로부터 온 박스를 건넨다. 제이슨이 박스안에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퇴근하면서 추수감사절에도 출근하겠다고 말한다. "For always thinking outside the box"(언제나 상자밖에서 생각하기) 조이는 기숙사로 돌아와 악몽을 꾸다 깨어난다. 방을 나가던 친구에게 상자를 건넨다. 조이는 상자속에서 메시지를 읽고 박스를 꺼내 살펴본다. "Open new doors"(새로운 문이 열림) 식료품점에 출근한 벤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와 박스를 발견한다. "A chance to escape"(탈출할수 있는 기회) 추수감사절에 출근한 제이슨도 테이블위의 박스를 본다. 벤이 상자를 열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자 던져 버린다. 조이는 박스를 살피다 한쪽이 열리며 메시지가 나온다. 방을 가장 먼저 탈출하는 사람에게 1만달러의 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벤은 미노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아만다 하퍼도 도착해 경비원에게 이스케이프 룸을 찾는다. 경비원이 아만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표를 붙인다. 게임 참가자의 휴대폰을 회수하고 당신의 서비스에 감사한다는 말을 남기자 이상한 눈빛으

로 경비원을 바라본다.

대니 칸이 아만다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대니가 항상 휴대폰 하나를 숨긴다면서 꺼낸다. 아만다가 3층 대기실로 들어간다. 마이크 놀란, 제이슨 워커, 조이 데이비스가 기다리고 있다. 아만다는 조이가 친숙하게 느껴진다. 벤이 들어와 인사를 한다. 아만다가 테이블 위의 신문을 보고 놀란다. 이곳의 게임은 실제 비디오 게임과 같다고 말하며 대니는 93개의 방탈출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다. 제이슨은 이상한 부자고객이 선물로 준것에 의무로 느껴졌다고 한다. 아만다와 마이크는 1만달러 상금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한다.

오브룸, 대니는 아직 아무도 방을 탈출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게임 규정과 규칙을 묻고 대니는 시간전에 탈출하면 된다고 말하고 탈출에 실패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 놓쳐버린 단서를 말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벤은 게임마스터가 오기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 벤이 문 손잡이가 떨어졌다면 대기실 직원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다. 대니가 이곳이 탈출방인 것 같다고 말한다. 대니는 문 손잡이에서 오븐 다이얼을 발견한다. 콤비네이션 잠금장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위에서 단서를 찾는다. 대니가 퍼즐과 코드처럼 생긴 모든 숫자를 찾으라고 말한다. 조이가 연필에 꽃힌 컵을 들어 보자 비행기 그림과 "We know you have a choice"(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 잡지를 살펴보던 아만다는 모두 우탄 유 박사에게 온 것이라고 말한다. 대니는 사악한 실험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조이는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린다. 마이크는 화씨 451 책에서 드라이버를 찾는다. 조이가 451의 단서로 다이얼을 돌리자 대기실의 천장에서 열선이 작동한다. 조이가 책이 오븐 다이얼의 암호인줄 알았지만 실패하고 꺼지지도 않는다. 아만다가 조이에게 다른 것에는 손대지 말라고 한다. 대니가 게임이 막혔을 때 힌트를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며 대기실 직원이 있는 창문을 두드린다. 안에서는 앉아서 기다리라고 한다. 조이는 조금전과 같은 음식이라고 말한다. 제이슨이 요트가 있는 유리구슬을 발견하고 바라보며 자물쇠가 있다고 말한다. 벤이 소화기로 깨어 버리자면서 소화기를 잡는데 플라스틱이다. 벤이 소화기를 바닥에 던지자 벽면에 있던 열선이 작동한다. 조이는 바닥에 놓여진 소화기에서 안전고리가 열쇠라는 것을 발견한다. 조이가 대기실의 자물쇠를 연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 앉아 있다. 전화벨이 울리고 제이슨이 받는다. 버지니아 미노스에 온 것을 환영하고 세계유수의 탈출방 디자이너라고 소개한다. 게임의 제시된 모든 규칙을 준수하라고 말하는데 제이슨이 녹음된 것이라고 말한다. 제이슨이 전화기를 내려놓자 창문이 닫히면서 사방의 벽면에 열선이 작동하며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아만다가 당황해 비명을 지른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자켓을 벗고 조이는 아만다에게 물을 건넨다. 조이가 벽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한다. "Dr. Wootan yu says please. use the coasters at all times"(닥터 우탄유는 컵 받침을 항상 사용하라) 테이블위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

제이슨은 그림쪽에 출구가 있다고 말한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제이슨이 덕트안으로 들어가 확인을 한 후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만다는 마이크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제이슨은 나사를 풀고 오라고 말한다. 조이가 컵에 물을 담아 스위치에 올려 놓고 컵에 물을 가득 채운후 다시 올리니 작동을 한다. 덕트안으로 들어간 아만다는 이라크 전쟁의 트라우마로 움직이지 못한다. 조이가 아만다에게 심호흡을 시켜 진정시킨다. 오븐룸에 있던 벤과 대니가 물컵에 물을 담아 옮겨 놓는데 정수기의 물통을 다 사용하고도 컵을 채우지 못한다. 잠시후 천정에 있던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내려온다. 벤이 주머니속 플라스틱 술병을 꺼내 컵에 따른다. 다시 문이 열리고 벤과 대니가 덕트를 통해 빠져 나간후 천정에 설치된 장치가 내려오면서 폭발한다.

아이스룸, 아만다는 게임이 아니라 실세상황이라고 말한다. 제이슨은 상금 1만달러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만다가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꺼내 달라고 말한다. 제이슨이 출입문 자물쇠를 살펴 본다. 아만다가 경찰에 전화하겠다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 마이크가 대니에게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묻지만 알지 못한다. 집을 뒤지던 제이슨이 열쇠를 찾아 첫 번째 자물쇠를 여는데는 성공한다. 두 번째 자물쇠는 7자리 글자로 된 자물쇠다. 마이크가 벽에 있는 메시지를 본다. "Youll go down in history"(당신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제이슨이 대통령 이름인 것 같다고 말한다. 메디슨(madison), 존슨(johnson), 잭슨(jackson), 링컨(lincoln)을 순서대로 입력한다. 벤이 벽에 걸린 사슴뿔밑에 있는 D,C,P,V...등 9개의 글자를 발견한다. 벤은 친구들과 운전하다가 사고났을때를 기억한다. 그 때 친구들과 캐롤을 부르고 있었다. 다셔, 댄서, 빅서, 뱅서, 커먼, 큐피드, 도너, 블리젠을 떠올리며 벤이 자물쇠 비번이 루돌프라고 말한다. 자물쇠가 열리고 대니는 이제부터 잘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여섯명이 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가는데 영하의 날씨로 얼음과 눈이 가득 쌓여 있다. 동시에 출입문이 잠기고 만다. 대니는 바닥이 빙상같다고 말하며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모두 진동을 느끼며 놀란다. 대니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대니가 시설에 감탄하며 모니터를 만진다. 순간 환풍구가 열리며 찬공기가 아이스룸으로 들어온다. 6명이 출입구와 단서를 찾고 있다. 제이슨이 출입문을 발견하고 아만다는 물건을 찾는다. 조이가 메시지를 발견한다. "True North is alie"(진정한 북쪽은 거짓말이다) 마이크는 개모형이 향하는 곳에서 낚시대를 발견하고 나무에 올라간다. 벤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제이슨이 문을 발견하고 열쇠를 찾는다. 제이슨이 아만다의 패딩을 보고 어디서 난건지 묻는데 아만다가 6인용 코트 한 개라고 말한다. 그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서로 싸우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아만다가 카메라를 향해 패딩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하고 조이에게 건네고 조이가 먼저 패딩 재킷을 입는다.

벤이 얼음뿔시홀에 발이 빠진다. 사람들이 벤의 소리에 뿔시 구멍으로 모이고 마이크가 나무위의 뿔시대를 들고 온다. 조이는 패딩주머니에서 나침반을 찾고 방향을 따라 이동한다. 조이는 진정한 북쪽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곰 모형에서 자석을 발견한다. 제이슨이 뿔시대의 릴리즈를 푸는데 생각보다 물이 깊다. 제이슨은 매년 겨울을 따뜻한 카우아이에서 보낸다고 말한다. 벤이 담배를 피우자 아만다가 옆에서 피우지 말라고 말한다. 벤이 건물로 가고, 조이가 무언가를 찾았다면서 뿔시줄에 자석을 묶고 물속으로 내린다. 제이슨이 조이에게 패딩을 달라고 하고 마이크는 무엇인가 걸렸다고 뿔시줄을 끌어 올린다. 아만다는 거대한 얼음바위안에 열쇠가 있다고 말한다. 아만다와 대니가 얼음을 깨려 하는데 전혀 요동이 없다. 제이슨이 벤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고 벤이 라이터를 빙판위로 던져 주어 대니가 라이터를 잡고 돌아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 대니가 얼음물속에 가라 앉는다. 아만다가 대니를 구하려 하지만 제이슨이 찾더라도 다시 구멍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대니가 죽음을 맞이한다. 제이슨은 패딩을 아만다에게 주면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마이크가 어떻게 대니가 죽었는지 물으며 벤이 게임 마스터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벤은 식료품점 직원이라며 게임 마스터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제이슨은 누구짓인지 몰라도 지금은 얼음에서 열쇠를 꺼내야 살수 있다고 말한다. 제이슨이 벤의 라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야 한다고 말하고 얼음위에 손을 올리라고 말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온도는 점점 떨어진다. 제이슨은 모든 세부사항을 생각한 사람이라고 과거를 기억한다. 제이슨은 치누와 뒤집여진 보트위에 앉아 있고 친구는 빨간 패딩을 입고 있다. 마이크가 정신을 잃자 아만다와 조이와 벤이 마이크를 깨운다. 제이슨이 얼음에서 열쇠를 꺼내고 출입문쪽으로 걸어간다. 제이슨이 열쇠를 꽂고 돌리자 반대편에서 문이 열린다. 출입문을 찾아 달려 가는데 폭발과 함께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5명은 겨우 다음 방으로 향한다.

상하가 뒤바뀐 업사이드 다운 룸, 잠시후 방 전체가 움직이며 위쪽으로 올라간다. 전화벨이 울리고 소음이 들리고 음악이 흐른다. 출입문에는 손잡이가 없다. 조이가 우탄유 박사의 트로피를 본다. 마이크는 8번당구공이 다이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마이크는 큐락을 확인하기 위해 간다. 그때 음악이 반복하면서 한쪽 바닥이 무너져 내린다. 벤은 마이크를 붙들고 몸을 피한다. 아만다는 상단으로 올라가 금고를 발견하고 4자리 비번을 요구한다. 1234, 1111을 입력하는데 아니다. 조이는 벽면에서 슬라이딩 퍼즐을 보며 조심스럽게 이동한다. 마이크가 조이를 위로 올려주고 조이는 슬라이딩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다. 잠시후 음악이 다시 시작하면서 제이슨이 있는 바닥이 무너져 내린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간다. 조이는 퍼즐을 맞추고 알아냈다고 말한다. 벤은 노랑, 검정, 파랑색이 보인다고 말한다. 아만다는 두 줄과 원이 보인다고 말한다. 제이슨은 모르스 코드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당구

대를 보며 스트라이프 원이라고 말한다. 노랑이 9번, 검정이 8번, 파랑이 10번으로 아만다가 9810을 누르는데 음악이 다시 시작되면서 바닥이 또 하나 떨어져 나간다. 마이크와 벤이 조이쪽으로 향하는데 고정볼트가 풀리며 기울기 시작한다.

제이슨이 3명이 지탱할 수 없다고 마이크에게 옆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조이가 옆으로 이동하는 순간 선반이 기울여 지면서 조이가 바닥으로 떨어져 정신을 잃는다. 조이는 베트남항공 109편이 추락할때를 기억한다. 제이슨이 내려와 조이를 깨운다. 조이가 방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비번도 거꾸로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만다가 0189를 입력하고 8번공을 꺼낸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면서 또 한가닥의 바닥이 무너져 내린다. 아만다가 8번공을 갖고 출입문쪽으로 향하며 당구대의 모서리를 잡고 이동하다가 8번공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아만다가 뛰어 내려 8번공을 줍는다. 아만다는 8번공을 제이슨에게 던지고 전화기를 붙잡는데 아만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화선이 떨어져 죽는다. 제이슨이 8번공을 출입문에 끼우고 문을 열고 나간다. 벤도 조이를 데리고 업사드룸을 무사히 빠져 나간다.

다음 방은 병실로 된 포이즈 룸이다. 제이슨과 조이가 아만다의 희생을 낭비하지 말자고 말한다. 잠시후 방안의 불이 켜지고 자신이 있던 병실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이는 아만다의 파일을 보고 유일한 생존자였음을 확인한다. 조이는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배낭여행을 갔다가 정글 한복판에 추락했다. 제이슨이 뉴스에서 조이를 보았다고 말한다. 제이슨도 대학 룸메이트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보트가 뒤집혀져 조난 당한 사실을 말한다. 추위에 몸이 얼었고 선체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다고 말한다. 두사람 사이에 재킷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이슨은 저체온증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변했고 혼란스러웠으며 다음날 구조대가 자신만 발견했다고 말한다.

벤은 친구중에서 처음으로 차를 구입했고 겨울방학때 운전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웨스트 버지니아 광산에서 일하다 동생 칼을 포함해 11명이 동굴에 묻혔고 구조대가 왔을 때 자신만 구조되었다고 말한다. 제이슨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제이슨은 재킷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벤은 루돌프는 자동차가 추락할 때 들었던 노래라고 말한다. 그들이 우리의 경험에 맞추어 방을 만들었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상자를 전해준 것이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조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한다. 조이는 대니의 파일을 보고 가족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혼자 살아 남았다고 말한다. 조이는 모두가 유일한 생존자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누가 행운아들중에 가장 행운아인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순간, TV에서 우탄 유 박사에게 맞길 용기가 있는가? 한계를 테스트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라고 말한다. 5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조이는 규칙대로 계속 따를 수 없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단

서를 찾자고 말하고 벤은 그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마이크가 손가락 기호가 찍힌 엑스레이 필름을 찾는다. 제이슨이 사진을 보고 주먹 하나, 손가락 한 개, 두 개를 보며 012라고 말한다. 벤은 스펠링이 보인다고 EKG라고 말한다. 벤은 사촌이 듣지 못해 수화를 알고 있다면서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이가 도구를 찾아 카메라를 부순다. 조이가 양자 제노 효과라고 그들이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조이는 게임이 항상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제이슨이 벽면에 설치된 독가스를 발견하고 이곳이 포이즌 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이슨은 3분후에 가스가 분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제이슨이 EKG기계를 찾고 적당한 심박수가 문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이슨은 벤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센서를 작동한다. 벤의 심박수는 90~92가 되면서 실패가 된다. 마이크에게 센서를 붙이는데 심박수가 139, 140이 되면서 실패가 된다. 제이슨이 한계 테스트로 점핑잭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이슨이 마이크의 심박수가 높으니 마이크가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이크가 울면서 하라고 말하고 제이슨이 마이크의 심장에 충격을 가하자 215가 넘어가고 벤이 말리는데도 다시 충격을 가하자 마이크가 죽는다. 제이슨은 자신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한다. 제이슨의 심박수가 50이하로 내려가자 숨겨진 문이 열린다. 제이슨이 먼저 나가고 벤이 나가면서 조이에게 같이 가자고 말한다. 조이는 마지막 카메라를 부수고 쓰러진다. 조이의 눈 앞에 산소호흡기가 있다.

제이슨과 벤이 들어간 방은 일루전 룸이다. 벤은 제이슨이 마이크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이슨은 생존이 선택이라면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제이슨은 바닥에서 해치를 발견해서 벤에게 열어 보라고 한다. 벤과 제이슨이 해치의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연다. 벤이 해치 안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 "Feel free to leave but may we note. it's best to find the antidote"(자유롭게 떠나라 하지만 해독제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 벤과 제이슨이 환각증상을 겪는다. 벤이 거울 아래쪽에서 해독제 1인분을 발견한다. 제이슨과 벤이 해독제를 놓고 경쟁하다가 제이슨이 벽에 머리를 박고 죽는다. 벤이 다리에 해독제를 주사한다.

벤은 해치를 통해 아래쪽 크러쉬 룸에 도착한다. 벤이 방안에서 단서를 찾아 출입문 비번을 풀려고 시도하다 좁혀지는 방안에 튀어 오른 벽난로 안쪽으로 피하여 방을 탈출한다. 조이가 쓰러진 5호실 포이즌 룸에 방독면을 착용한 직원들이 들어온다. 직원이 천장에 걸려 있는 산소마스크를 발견하는 순간, 조이가 재빨리 직원들을 제거하고 권총을 빼앗아 방을 빠져 나간다. 벤이 마지막 방을 탈출하고 게임 마스터가 있는 게임 마스터 룸에 들어왔다. 대형 스크린에는 게임 참가자들의 사진이 있다. 게임 마스터는 제이슨에게 돈을 걸었다. 게임 마스터는 벤이 당첨되었다면서

축하를 한다. 게임 마스터는 퍼즐메이커가 방을 디자인 한다고 말한다. 게임마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고객이며 그들은 더 복잡한 디자인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게임 마스터는 삶과 죽음에 도박하고 그들이 행운과 관련된 것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벤이 운 좋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에게 납치되어 고문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게임마스터가 벤에게 담배를 건네며 벤의 뒤에서 목을 조른다. 벤이 다리에 있던 유리조각을 빼 내어 게임마스터를 찌른다. 포이즌 룸을 탈출한 조이가 게임마스터의 방을 향한다. 시스템이 조이의 생존을 확인하고 생존으로 변경한다. 조이가 게임마스터를 향해 총을 쏜다. 게임마스터가 숨었다가 조이를 공격한다. 조이가 게임마스터의 역공을 맞고 벤이 일어나 게임마스터를 총으로 쏜다. 조이와 벤이 나와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것에 지쳤다고 말한다. 병원에 도착한 벤과 조이가 치료를 받는다.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와 미노스 건물로 가자고 말하는데 현장 대기실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조이가 이곳에 대기실과 거대한 오븐룸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경찰은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경찰은 벤의 몸에서 세가지 불법물질을 발견한다. 조이는 벽에 적혀있는 "No way out"를 보고 우탄 유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게임의 일부였다고 말하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6개월후, 조이와 벤이 카페에서 만난다. 조이는 게임 참가자들과 관련된 뉴스를 보여 준다. 마이크는 유니온역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제이슨 워크는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죽었다. 대니 칸은 미시간 호수에서 익사했고, 아만다 하퍼는 암벽등반을 하다가 추락사 했다. 우리에게 대한 기사도 있을 것이다. 벤은 그냥 덮으려 하고 조이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보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게임을 조작했지만 우리는 게임에서 이겼고 그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노스의 로고는 자동회전하는 에서 계단으로 불가능한 물체라고 말한다. 조이는 맨하탄 비상장 산업용 빌딩이 그곳이라고 말한다. 조이는 벤과 함께 2주후 그곳으로 갈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다.

미노스, 비행기 엔진에 화재가 나 추락한다. 여승무원은 X표시가 된 가방을 찾아 도구를 찾는다. 승무원이 도구를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자 잠금장치가 나타난다. 메시지는 "I fly without wings... I cry without eyes..."(날개도 없이 날고 눈도 없이 운다) 승무원은 구름을 입력하고 조종실의 문을 여는데 비행기가 정면에 보이는 산과 충돌해 폭발한다. 퍼즐 메이커는 조이와 벤의 비행정보를 입수 했다면서 재 게임을 하자고 말하고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이스케이프 룸은 방탈출게임 영화다. 성별, 연령, 출신성분이 다른 6명이 초대되어 시작 버튼도 없이 바로 게임이 시작되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 오븐룸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아이스룸에서 대니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업사이드 다운룸에서 아만다가 죽는다. 포이즌 룸에서 조이가 위험에 직면하고, 마이크가 죽는다. 일루전 룸

에서 제이슨이 해독제가 없어서 죽는다. 생존자는 벤과 조이 뿐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경쟁과 화합하며 생존한다. 그리스도인은 게임방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답일까? 실제로 정답은 없다.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황 어떤 퍼즐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일 것이다.

20. “악인전”The Gangster, The Cop, The Devil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9.05.15

감독,각본:이원태, 제작:비에이엔터테인먼트,

주연:마동석(장동수역),김무열(정태석역),김성규(강경호역),

출연:유승목(안호봉역),최민철(권오성역),김윤성(배순호역),허동원(최문식역),김승현(하무영역),오희준(김동철역),문동혁(오달호역),

관객:1,480,597명(2019.05.19.)

중부권을 장악한 조직의 보스와 강력반 형사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타협점을 찾는 악인전은 서로의 능력을 활용하여 연쇄살인마를 추적한다. 2005년 여름의 어두운 밤, 한적한 도로를 지나는 두 대의 차량, 뒤따라 가던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다가 갑자기 앞 차를 박아 버린다.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목을 잡고 나오며 보험처리를 위해 이곳저곳 사진을 찍는데 가해 차량의 운전사가 내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칼을 꺼내 무자비하게 죽인다. 그후 살인범은 사건 현장을 유유히 빠져 나간다. 다음날 아침, 사건을 접수한 정태석 형사가 현장으로 나가던 중 조직폭력단 장동수가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을 급습한다. 직원들이 장동수에게 긴급 연락하고 장동수는 경찰서 안호봉 팀장에게 전화하여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다. 정태석 형사가 불법 게임장을 나와 현장으로 향하는 시간, 안팀장의 전화가 걸려오고 정태석 형사는 현장으로 가는 중이라며 끊어 버린다. 정태석 형사는 환전소 직원의 오토바이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간다. 감식반 차서진 팀장으로부터 사인을 들은 정태석 형사는 현장을 둘러 본다. 차 뒷편쪽에 접촉 당시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페인트를 보고 의구심을 갖는다.

장동수가 상대조직 보스 허상도(유재명역)와 비즈니스 대화 도중 허상도가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장동수의 부하와 허상도의 부하가 격투를 벌인다. 장동수가 자신의 부하에게는 뺨을 때리고 허상도의 부하에게는 이빨 2개를 힘으로 뽑아 술잔에 담는다. 일사천리로 끝낸 장동수가 허상도에게 다시 처음부터 평화적으로 협상을 해보자고 말한다. 회장님에게 허상도가 행동은 미련해도 머리는 뛰어난 놈이라고 말하며 잘 알아 들었을 것이라고 연락한다. 장동수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혼자 가겠다고 말한다. 장동수가 운전하며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장동수의 차를 들이 받는다. 차에서 내린 장동수가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냥 돌아 가라고 말하는데 범인은 동수를 바로 칼로 찌른다. 순간적으로 칼에 찔린 장동수는 반격을 가하고 격투를 벌인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범인은 자신의 차로 도망간 후 다시 동수를 들이 받고 도주해 버린다. 기습적인 습격을 받은 장동수가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 난다. 장동수의 2인자 권오성(최민철역)은 보스를 공격한 것이 허상도의 짓이라고 단정하

고 허상도의 조직을 공격한다. 그러나 장동수는 칼맛이 다르다면서 허상도 조직은 아니라고 말한다. 장동수는 권오성에게 범인은 칼에 아무런 감정이 없고 우리 쪽 일을 하는 놈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태석 형사가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유사 사건이 2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연쇄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하며 안팀장에게 보고 한다. 그러나 안팀장은 듣는 둥 마는 둥이다. 장동수는 살인범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잡아서 죽이고 싶어 정태석 형사에게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정태석 형사는 장동수의 차에서 페인트 자국을 발견한다. 허상도가 장동수를 찾아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장동수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장동수 조직이 우리 조직을 박살내 버려 몇 개의 사업장을 넘기라고 말한다. 허상도로부터 조롱섞인 비아냥을 들은 장동수는 사람을 불러 인상착의를 말하고 몽타주를 작성한 후 조직원을 풀어 살인범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늦은 밤, 휴게소에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이 아들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자는 이틀동안 한숨도 못잤다고 말하면서 매우 힘들다고 그곳 생일이 무슨 그리 중요하냐고 말한다. 순간 범인이 남자에게 말을 걸면서 난도질하며 죽여 버린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고 말하면서 트럭 운전사를 다시 죽여 버린후 유유히 케익을 먹는다. 그러던 중 트럭안에 누군가 또 한사람이 보이자 그 사람까지 죽여 버린후 흥기를 도로에 던진다.

장동수는 자신이 칼을 맞았다는 소문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 장동수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범인을 꼭 잡으려고 애를 쓴다. 보스의 오른 팔 권오성은 도로에서 살인범의 차와 흥기를 발견하고 장동수는 차와 흥기를 잘 보관하라고 말한다. 범인은 차와 흥기를 대범하게 방치하는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정태석 형사는 장동수를 찾아 딜을 시도한다. 장동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신이 살인범을 잡으면 반드시 난도질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다. 서로 공조를 하되 마지막에 잡는 놈이 범인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한 팀을 이룬다. 정태석 형사가 범인을 잡으면 법대로 하고 장동수가 범인을 잡으면 죽이는 것으로 하는 가운데 장동수는 보험으로 정태석 형사가 자신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녹음한다. 놀란 정태석 형사가 녹음기를 박살내자 장동수는 CC-TV까지 설치한 것을 보여 주며 보험은 보험이라고 말한다. 정태석 형사는 장동수와 손을 잡고 부하형사 2명을 합류하여 원팀을 구성한다. 장동수의 창고에 있는 살인범의 차에서 증거를 수색한다. 서진에게 채취한 증거를 주고 유전자 분석을 맡긴다. 그 결과 그동안 죽은 사람들의 DNA는 나왔지만 범인의 DNA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장동수는 권오성에게 허상도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고 살인범의 칼로 허상도를 처리하고 증거를 현장에 잘 보이도록 전시를 한다.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광역수사대에서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정태석 형사는 이같은 일

을 장동수가 꾸민 일이라고 직감하고 장동수를 찾아가 허상도를 죽였는가 하고 묻자 장동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정태석 형사는 순간, 자신도 이 공조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직감한다. 같은 시간, 범인이 TV를 보면서 살인사건을 본다. 저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면서 허상도의 장례식장을 찾는다. 허상도를 조문하면서 통곡하고 거액의 부의금을 낸다. 장례식장에서 살인범이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허상도의 부하인 최문식(허동원역)을 불러 봉투를 건넨다. 봉투 속에는 "누군가 내 칼로 허상도를 죽였다"고 적혀 있다. 살인범은 이 때 식사를 하고 있는 장동수를 바라보며 최문식에게 허상도를 죽인자를 알려 준다.

창고에서 정태석 형사와 장동수는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동수는 자신이 범인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고 말한다. 차에서 증거를 찾다가 핸들에서 핏자국을 발견한다. 그때 허상도의 부하 최문식과 직원들이 창고를 급습한다. 치열한 격투 끝에 최문식이 사망하자 정태석 형사는 맨붕이 오고 동수는 자신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정태석 형사를 내 보낸다. 장동수는 포크레인으로 최문식을 땅 속 깊이 묻어버린다. 그후 살인범은 살인을 밥먹듯이 계속한다. 안팀장은 정태석 형사에게 납치 사건을 맡으라고 말한다. 정태석 형사는 살인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끝까지 반항하지만 결국 안팀장의 지시에 복종한다. 납치범이 여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가방을 분식점에 그냥 두고 가라고 지시하는데 옥상에서 형사들이 주변을 감시중이다. 형사들이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추적하지만 범인은 유유히 빠져 나가 버린다. 납치범으로부터 수집한 증거 가운데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실종인물로 밝혀 진다. 납치범의 집을 조사하던 중 장동수가 가지고 있는 몽타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장동수는 다른 조직의 사장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사장이 계속해서 허상도 이야기를 하자 장동수가 그의 얼굴을 공격한다. 순간, 정태석 형사로부터 살인범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는다. 정태석 형사가 장동수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살인범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자 장동수는 목소리가 일치하다면서 범인이 맞다고 확신한다. 살인범을 알게 된 장동수와 정태석 형사는 직원들을 풀어 모텔과 PC방과 고시원 등을 수색하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장동수가 정태석 형사에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오는 날, 장동수와 정태석 형사가 우산을 쓴 채, 차를 기다린다. 비를 맞고 가는 여고생을 바라본 장동수가 여고생에게 우산을 건넨다. 정태석 형사가 여고생에게 이 아저씨 깡패라고 하자 여고생이 정태석 형사를 보고 아저씨가 더 깡패 같아요라고 말하며 버스를 탄다. 버스안에는 살인범이 있다. 고기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데 TV에서 여고생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장동수가 준 우산이 증거로 나온다.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밀착 수색을 하여 장동수와 정태석 형사는 살인범의 거처를 알아낸다.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가운데 범인의 차가 나타났지만 눈치를 챈 범인이 도주를 한다. 범인의 차를 추격해 들이 받지만 살인범은 도주를 한다. 장동수

와 정태석 형사와 권오성이 살인범의 주변을 추적하는 가운데 권오성 마저 살인범의 손에 죽는다. 장동수가 핏자국을 따라 노래방으로 들어간다. 노래방에서 룸을 하나씩 뒤지며 찾는 가운데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을 발견한다. 살인범 강경호(김성규역)도 장동수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장동수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인가 의심을 가진 장동수는 문을 부숴버리고 범인을 몽개어 버린다. 장동수가 범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창고로 끌고 간다. 범인은 창고로 끌려 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장동수를 공격하려 하고 장동수도 범인을 죽이려고 칼을 집어 든다. 그 때, 정태석 형사가 창고를 차로 밀며 들어와 장동수를 쓰러뜨린다. 그 틈을 이용해 정태석 형사가 강경호를 진압하고 체포해 구속시킨다. 범인을 체포한 정태석 형사는 장동수의 조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장동수의 조직까지 해산시켜 버린다. 결국 장동수는 도피를 선택한다.

연쇄살인범 강경호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을 역이용하며 정태석 형사를 곤란하게 한다. 강경호는 자신이 사형을 받아도 어차피 죽지 않는다면 계속 분노를 드러낸다. 결국 정태석 형사는 장동수를 찾는다. 장동수에게 허상도를 죽였다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법정 증인을 부탁한다. 장동수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로 자신의 몸을 보여 준다. 강경호는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정태석 형사와 서진과 후배형사들이 각각 승진하고 장동수는 연쇄살인범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처음부터 장동수는 정태석 형사에게 연쇄살인범과 같은 교도소에 가는 조건으로 증인 출석을 허락하였다. 장동수가 밧줄을 들고 어디론가 향한다. 샤워실에서는 강경호가 샤워를 하고 있다. 장동수가 향하는 곳에서 샤워 소리가 들리고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악인전은 경찰과 범죄조직이 손을 잡아 더 큰 범죄자를 처단하는 방식이다. 범죄 액션 오락영화 같은 느낌으로 강철주먹 마동석이 선두에 서 있다. 연쇄살인자의 범행 행각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 중부권 최대조직의 보스 장동수의 독보적인 존재를 과시하기 보다 이번에는 정 반대의 캐릭터 형사와 손을 잡는다. 강력반의 미친개로 알려진 정태석 형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폭형 경찰이다. 연쇄살인범 강경호는 동기나 살인의 패턴이 불분명한 무차별적인 살인마이다. 그가 왜 살인자가 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냥 악인은 악인일 뿐이다라는 설정이다. 그리스도인은 악인전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왜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 아수라, 범죄도시, 악질경찰 등 범죄의 경향과 강도가 점점 일상화한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누르려는 선함이 살아 있다. 그러나 영화는 죄를 누르지 말고 생각대로 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모두 거부해야만 한다. 먼훗날 이러한 일탈들이 일상화 되는 날이 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눈여겨 지켜 볼 영적 시야가 필요하다.

21. “걸캅스”Miss & Mrs. Cops

한국영화, 장르코미디,액션, 개봉:2019.05.09

감독:정다원, 제작:필름 모멘텀,

주연:라미란(박미영역),이성경(조지혜역),

관객:1,227,846명(2019.05.19.)

2002년, 마약사범 강상두(안창완역)가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박미영 형사가 뒤에서 쫓아간다. 강상두는 부하들에게 박미영을 처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강상두의 부하들이 박미영에게 일갈을 당한다. 강상두에게 투항할 것을 요구하는 박미영을 피해 강상두는 도망을 한다. 도주와 추적이 계속되면서 옥상에서 대치하게 된다. 강상두가 칼을 꺼내어 박미영 형사를 위협한다. 박미영도 총을 꺼내 허공에 공포탄을 연달아 쏜다. 박미영 형사가 실린더를 회전하고 강상두에게 5분의 1 확률의 생존게임이라고 말한다. 박미영은 강상두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두 번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공회전이다. 강상두가 겁에 질린채 살려 달라고 애원한다. 박미영은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긴다. 이번에는 큰 총성이 울렸다. 공포탄이다. 공포를 느낀 강상두가 옷에 오줌을 싸고 만다. 박미영 형사는 강상두를 호송차량에 태우기 전에 오줌범벅이 된 바지를 강제로 벗겨 쓰레기 통에 버린다. 멀리서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 고시생인 조지철(윤상현역)이 박미영 형사를 바라보며 흠모의 눈빛을 보낸다. 조지철의 여동생 조지혜(이성경역)는 여자형사를 처음 보듯이 매우 놀란다. 그 후 여자형사기동대가 확대 시행된다는 뉴스가 나온다. 박미영 형사는 마약사범 체포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는다. 표창장 수여식에 나타난 조지철은 박미영 형사에게 나는 검사가 될 사람인데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한다. 박미영 형사는 조지철의 뜬금없는 행동에 난처해 하지만 그와 함께 표창장 수여 기념촬영을 한다.

몇 년이 지난후의 성산경찰서, 박미영 형사는 조지철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출산한다. 그 후 형사직을 그만두고 경찰서 민원봉사실 주무관으로 재직한다. 출근길 박미영 주무관은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조찬웅의 책을 사놓으라고 말한다. 민원봉사실로 가는길에 젊은 주무관 채숙희(이정민역)를 만난다. 채숙희는 박미영에게 다과가 없다면서 잡일을 맡긴다. 고참 박미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억지로 웃으며 알겠다고 말한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미영은 옆 좌석의 양장미(수영역)로부터 정기인사때 주무관 1명이 해고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다. 채숙희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마시지도 하지 않는 커피를 민원실장에게 갖다 바친다고 말한다. 박미영은 그런데 신경쓸 것 없다면서 애써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휴식시간, 박미영 주무관은 민원실장에게 자신의 어머니께서 물려준 금팔지를 뇌물로 준다. 민원실장(염혜란역)은 화를 내면서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을 모르는지 되물으며 은팔지 찰 일 있냐고

짜증을 낸다. 박미영 주무관은 남편은 백수고 어린 아들까지 있어서 형사 그만두고 민원실까지 왔는데 도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 민원실장은 박주무관이 채속희처럼 젊은 것도 아니고 양장미처럼 PC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타박을 멈추지 않는다.

신촌의 중심부 형사가 된 조지혜가 스튜디오스 다리에 잉크를 뿌리는 변태를 체포하기 위해 스튜디오스로 위장해 잠복을 하고 있다. 계획대로 변태가 조지혜에게 접근해 잉크를 뿌리고 도망을 간다. 조지혜가 검정색 옷과 모자를 쓴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하는데 단전을 피우던 형사들이 범인을 놓친다. 조지혜가 화를 내며 분노하던 순간 범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인물이 발견된다. 그가 바로 아들 책을 사기 위해 시내로 나온 조지철이다. 형사들은 범인을 확인하지도 않고 단정을 지어 버린다. 범인이 다시 잉크를 뿌리면 즉시 체포하자고 말하는데 조지철이 박미영과 전화하면서 조지혜가 있는 곳으로 간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조지혜가 사람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지철의 얼굴에 던져 버린다. 조지혜는 강력반 오형사(전석호역)로부터 지난번에는 총을 던지고 이번에는 쓰레기통을 던지고 왜 자꾸 던지는지 꾸중을 듣는다. 광형사가 팀장을 부르는데 팀장은 자고 있다. 막내 형사가 조지혜가 쓰레기통을 던진 사건이 인터넷 영상으로 올라왔다고 말한다. 그때 박미영이 경찰서 강력반에 나타나 남편을 보고 화를 낸다. 오형사는 모든 책임이 조지혜에게 있다고 말한다. 박미영은 오빠를 때리는 여동생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고 형사들은 모두 당황한다. 귀가한 박미영과 조지철과 조지혜 3명이 저녁을 먹고 조찬웅은 경찰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TV 뉴스에서는 20대 여성이 투신 자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박미영과 조지혜는 조지철의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결론된다. 조지철은 눈치없이 있다가 화장실로 가버리는데 조찬웅이 경찰차로 아빠를 체포할까 하고 묻는다.

민원봉사실, 조지혜가 징계를 받고 안내데스크에서 일한다. 조지혜는 민원인에게 통명스럽게 대한다. 박미영은 모범을 주며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민원인이 신고할 것이 있다고 데스크위에 휴대폰을 올려 놓는데 곧 민원실로 따라 들어온 남자들을 보고 놀라 폰을 그대로 둔채 밖으로 뛰어 나간다. 박미영과 조지혜가 폰을 돌려 주기 위해 나가는데 민원인이 도로에 투신하여 달려오는 트럭에 치여 사경을 헤맨다. 박미영과 조지혜가 충격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고 트럭 운전사에게 신고하라고 말한다. 순간 민원인의 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한다. 양장미가 잠금을 해제한다. 메시지의 정체는 민원인의 섹스영상을 좋아요 3만개가 넘으면 7월 20일 비에 공개하겠다는 페이스북 지인의 문자다. 박미영과 조지혜와 양장미, 세사람이 옥상에서 의논중이다. 양장미는 써버 관계자를 찾지 못하면 해결을 못한다고 말하면서 구내식당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20대 여성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조지혜가 피해자를 보기 위해 병원에서 혼수상태인 민원인과 민원

인의 모친을 만난다. 모친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혈액에서 마약과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말한다. 조지혜에게 민원인의 친구가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지난주 홍대 메이즈 클럽에 갔다가 남자 두명에 의해 2층 테이블로 간다. 그곳에서 민원인은 향수를 파는 남자와 놀고 친구는 밑에서 춤추다가 올라가보니 사라졌고 다음날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민원봉사실에서 양장미는 몰카를 올리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한다. 민원실장이 근무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 병원에서 돌아온 조지혜가 사이버수사대를 찾아 서버 위치를 찾아 달라고 말하는데 수사대 경찰(임현성역)은 서버가 너무 많아 찾기 힘들것이라고 말하고, 여청과 형사(김민경역)를 찾지만 부정적인 반응이다. 민원봉사실로 돌아온 조지혜와 양장미와 박미영은 우리가 수사를 하자고 합의한다. 양장미는 민원실 컴퓨터로 교통 감시카메라의 녹화파일을 확인한다. 양장미가 낮에는 불법 주정차 담당이고 밤에는 해커로 활동한다.

양장미가 홍대클럽 앞쪽의 금요일 영상을 확인한다. 서진의 옷차림을 확인하고 서진을 태운 차량번호 56서3040을 확인한다. 박미영이 교통과에 차량번호 조회를 부탁하는데 대포차로 나온다. 세사람의 근무형태를 의심하는 민원실장이 양장미에게 근무태도불량 -3점을 준다. 민원실장이 돌아간 후 조지혜는 강력3팀 막내와 연결해 주겠다고 양장미에게 말한다. 양장미는 차량이 마지막으로 모텔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조지혜가 모텔직원(하정우역)에게 지난주 금요일 CC-TV를 확인하려 하지만 5일 밖에 저장이 안된다. 조지혜가 모텔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가발을 쓴 강상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조지혜가 몰카로 촬영한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말하는데 모텔직원은 요즘은 펜, 단추, 안경 등 몰카가 진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때 강상두가 떨어진 물건을 잡으려다가 카메라, 펜형, 단추형, 안경형 몰카를 떨어 뜨리면서 조지혜와 눈이 마주친다. 강상두가 환급히 도망하고 조지혜가 바로 추적한다. 상황을 지켜 보던 박미영이 근무감점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을 나간다. 강상두가 도로를 건너 도망하고 민원실에서 양장미가 조지혜에게 도주 방향을 알려준다. 강상두가 중학생의 키포드를 타고 도주한다. 조지혜가 강상두를 쫓지만 역부족이다. 순간 박미영이 전동휠을 타고 강상두를 체포한다. 강상두는 박미영을 알아보고 반사적으로 방뇨를 한다. 강상두가 는 몰카를 취미로 한다고 말하며 동영상을 보고 같은 놈들이라고 말한다. 강상두는 여자들의 행동패턴을 보고 신종약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해피별론의 100배로 얼굴에 분사하면 기절하고 30분후면 깨어나지만 온몸에 마비 증세가 있다고 말한다. 박미영이 어디로 가야 확인가능한지 묻고 강상두는 이슬람 사원 뒤쪽에 있다고 말한다. 박미영이 조지혜와 함께 이슬람 사원 뒤쪽 문신샵을 찾는다. 박미영과 조지혜는 타투샵에 들어가 해피포품을 원한다고 하자 타투 외국

인은 그런 거 없다고 말한다. 박미영은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타투를 하겠다고 말한다. 박미영이 매직퍼품을 원한다고 말하자 외국인이 방향제를 공중에 뿌린다. 결국 조지혜의 허리에 FBI문신을 하고 나온다. 박미영은 다른 타투샵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타투샵에서 박미영은 외국인에게 매직퍼품을 가져오라고 하자 잠시후 외국인이 총을 겨누면서 경찰인거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 조지혜가 멀티탭에 콜라를 붓고 전원을 누전시켜 버린다. 정전이 되자 박미영이 외국인을 한명씩 제거하고 외국인의 총을 빼앗아 방아쇠를 당긴다.

박미영과 조지혜가 파출소에서 수갑을 차고 있다. 강력3팀 형사들이 파출소를 찾아 수갑을 풀라고 한다. 조지철도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다. 집으로 가는길에 박미영이 자신은 고교졸업후 레슬리 운동 특기생으로 경찰이 되었다고 말한다. 오형사는 선배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막내형사(조병규역)는 앞으로 어떻게 부르면 되는지 묻는데 박미영은 누나로 불러라고 말한다. 박미영은 남편에게 찬웅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박미영은 양장미에게 전화해 찬웅의 안부를 묻고 양장미는 모니터에서 놈들의 차가 나타났다면 이동한 좌표를 말한다. 자동차를 세우고 박미영과 조지혜가 내린다. 오형사는 3팀실적 올리는 큰 건이라고 외국인 수사해서 공급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조지혜와 박미영이 차에서 내려 흥대 클럽으로 간다. 박미영과 조지혜는 자동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는 말을 듣고 클럽 메이즈를 찾는다. 박미영이 15년만에 몸풀기 한다면 스트레칭을 한다. 조지혜가 클럽안으로 들어가고 박미영이 들어가려 하자 클럽가드가 88년생 위로는 못들어 간다고 막는다. 클럽가드가 테이블 잡으면 콜한다. 샴페인 1병과 보드카 1병에 110만원이라고 한다. 클럽가드는 호돌이 형을 아는지 묻고 클럽가드는 박미영을 아는지 물어본 뒤 길 건너 노래방에 가라고 말한다.

조지혜가 클럽안으로 들어가자 남자가 접근해 2층에서 놀자고 말한다. 조지혜는 수빈이 얘기했던 말을 떠올리며 2층으로 올라간다. 박미영은 푸드트럭에서 케밥을 사 먹는다. 골목에서 풍선을 들고 나오는 고교생들을 보고 풍선을 마셔 본다. 고교생들이 공격하자 박미영이 제압한다. 흥대 클럽에서 용석(강홍석역)은 타투샵 전화를 받는다. 용석은 여자 두명이 타투샵으로 찾아와서 모두 잡아 갔다고 말한다. 조지혜가 남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향한다. 우준(위하준역)이 조지혜에게 술을 준다. 용석은 헬스클럽을 한다고 하면서 술을 준다. 박미영은 조지혜에게 전화를 확인할 때 우준은 허리에 있는 FBI문신과 수갑을 발견하고 향수를 얼굴에 뿌린다. 박미영은 조지혜가 남자들에게 부축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어나는데 헬륨풍선 고교생이 클럽앞 기도(안재홍역)를 데리고 온다. 박미영은 기도들을 제거하고 자동차를 향해 달려간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지켜보던 조지철이 조지혜를 발견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박미영까지 태운 채 자동차를 추적한다.

작업실에서 우준은 깨어난 조지혜를 보고 있다. 용석이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경찰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우준이 신약을 실험하고 여자는 죽이자고 말한다. 용석이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준은 용석의 티투샷이 뚫린 것이라면서 용석을 위협한다. 찬영(김도완역)도 우준의 말에 동의한다. 우준이 내일 영상을 공개하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며 모두 백업을 하라고 말한다. 우준이 시작하려 하자 조지혜가 여자 몰카찍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묻는다. 우준은 재미라고 말하고 조지혜는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본적은 있는지 물어본다. 우준이 약을 흡입한 후 같이 즐기자면서 지혜에게 약을 뿌리려는 순간, 조지철이 동생을 찾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단박에 쓰러지고 박미영이 용석과 찬영을 무너 뜨린다. 박미영이 우준과 격투 끝에 넘어지고 필립은 이곳이 노출되었다고 말하면서 은신처에 불을 지르고 빠져 나간다.

조지철과 조지혜가 박미영을 깨운뒤 박미영이 손에 묶인 줄을 비벼서 끊어라고 말한다. 박미영이 끝날 때 까지 끝난게 아니라면서 건물을 빠져 나간다. 성산경찰서 강력3팀은 외국인들을 조사하고 실적을 올렸다고 좋아한다. 민원봉사실로 출근한 박미영과 조지혜는 책상위의 권고사직서를 본다. 그때 수빈은 지혜에게 전화를 한다. 좋아요가 3만개 넘었고 공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지혜가 강력팀을 찾는다. 광형사는 조지혜에게 복귀명령을 내린다. TV에서 성관계동영상 뉴스가 나오자 조지혜가 TV를 향해 수갑을 던져 버린다. 조지혜 형사는 신종약과 몰카를 사용해 영상공개하고 다시 약을 파는 악질이라고 말한다. 조지혜 형사는 민원실에서 해고된 박미영 주무관만 도와 주었고 다른 경찰들은 전혀 도와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박미영은 경찰이 부끄럽다면서 신분증을 휴지통에 버린다. 흥분한 조지혜 형사가 막내형사의 총을 꺼내 외국인을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한다. 광형사와 오형사가 조지혜 형사를 말리고 옆드려 있던 강력3팀장(성동일역)이 출동준비 하라고 말한다. 그때 강력 3팀장이 민원실장의 전화를 받는다.

경찰서 옥상에서 민원실장은 여자형사기동대 11기 박미영을 부른다. 자신은 여자형사기동대 3기출신으로 8기때는 기동대장을 했고 지금은 민원실장이라고 말한다. 양장미는 카이스트 출신으로 국정원 내근요원이라고 말하며 실장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박미영에게 출동하자고 말한다. 양장미가 몰카동영상 사이트가 폐쇄되었지만 백업하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민원실장은 교통상황실, 민원실에 전화해 범인들이 타고간 아우디 승용차를 추적하여 범인 4명의 위치가 파악되고 3팀으로 나눠 추적한다. 삼성역 도심공항을 향하는 아우디가 공항을 빠져 나가려는 계책이라고 조지혜에게 도심공항으로 가자고 말한다. 형사들은 용석과 찬영을 체포한다. 막내형사는 정우준의 목걸이USB에 백업파일이 있고 1시에 다른 사이트에 영상을 올릴 것이라고 말한다. 양장미가 교통카메라로 실시간 우준의 위치를 알려주고 조지혜가 우준의 차를 들이 받는다. 우준은 도심공항으로 피해 달아난다. 막다른 길에

서 우준이 도심공항으로 들어간다. 박미영은 필립과 격투를 하여 제압하고 필립이 가지고 있는 약을 빼앗아 얼굴에 뿌린다. 우준을 추적하던 조지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우준이 사람들 사이로 빠져 나가는데 박미영이 길을 막는다. 박미영과 우준이 격투를 시작하고 박미영이 공격에 넘어진다. 그때 조지혜가 우준을 공격한다. 박미영도 우준의 얼굴을 공격한다. 우준이 칼을 꺼내 박미영의 다리를 칼로 찌른다. 조지혜가 총을 꺼내 우준을 조준한다. 우준이 박미영을 위협하며 총을 버리라고 말한다. 조지혜가 공포탄을 발사하고 실탄 한발을 남겨둔채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 발사한다고 말한다. 박미영이 쓰라는 신호를 보낸다. 조지혜가 총을 우준을 향해 던지는데 그때 조지철이 박미영을 부르며 달려가 조지혜가 던진 총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다. 지혜가 우준의 손을 발로 공격해 칼을 떨어 뜨린다. 박미영이 순간 우준을 넘기고 기절 시킨다. 박미영이 수갑을 조지혜에게 넘기고 조지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우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조지혜는 USB를 회수하고 박미영을 바라보는데 쓰러진 조지철이 일어난다. TV에서는 몰래 카메라 촬영 일당을 체포하였다는 뉴스가 나온다. 조지혜는 경찰청장의 표창장을 받고 박미영은 명예시민경찰 위촉장을 받으며 영화는 끝난다.

걸캅스는 시누이와 올케 형사가 펼치는 코미디 영화다. 라미란의 연기가 돋보인다. 가볍게 볼 수도 있고 내용면에서 무겁게 볼 수도 있다. 약물과 몰카를 주제로 하는 영화에는 무능력한 경찰 남편이 등장한다. 민원봉사실에 밀려난 박미영과 조지혜의 반전이 영화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자형사들의 용감한 이야기는 사회의 여성경찰에 대한 시각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재미로만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남성 가해자들은 여성을 상대로 약을 강제로 주입하고 성범죄 몰카를 찍는 잔혹한 범죄자다. 피해자인 여성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단죄를 정의한다. 사회가 여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스도인은 남녀평등을 주장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여성은 보호받고 함께 참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불의에 맞서고 정의에 부합하는 참된 말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2. “기생충”PARASITE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05.30
감독,각본:봉준호, 제작:바른손이앤에이,
주연:송강호,이선균,조여정,최우식,박소담,장혜진
관객:10,080,627명(2019.08.27.)
수상:제72회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기택(송강호역)의 장남 기우(최우식역)가 휴대폰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 하는데 வீ 집 공유기 비번을 변경하여 연결이 안된다. 충숙이 기택에게 폰도, 인터넷도 안되는 데 어떻게 살것인지 답답해 한다. 기택이 기우에게 폰을 움직여 보라고 하자 기우가 화장실에서 신호를 잡는다. 남매인 기정(박소담역)도 기우 옆에서 와이파이를 잡고 확인한다. 충숙(장혜진역)이 기우에게 피자시대에서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을 하라고 말한다. 기택의 가족은 피자박스접는 알바를 한다. 기우가 아빠에게 피자박스를 빨리접는 영상을 보여준다. 집앞 골목에서 소독을 하자 기택이 집에도 소독이 필요하다고 창문을 열어 두라고 말한다.

피자시대 사장(이지혜역)이 피자박스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이 많다면서 알바비의 10%를 공제한다. 충숙이 짜증을 내자 기우까지 나서서 화를 낸다. 기우가 피자집 알바 면접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사장은 알바비를 주며 면접은 뒤로 미룬다. 기택의 가족이 알바비로 맥주를 마신다. 충숙이 기택에게 핸드폰부터 개통하라고 말한다. 순간 술취한 행인이 창문이 소변을 보려고 하고 민혁(박서준역)이 나타나 막아선다. 민혁이 민혁 할아버지가 주신 산수경석을 건넨다.

민혁과 기우가 가게에서 맥주를 마신다. 민혁은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하면서 박다혜의 사진을 보여 주고 영어과외를 부탁한다. 민혁은 2년후 다혜가 대학에 들어가면 사귄 마음이 있다고 고백한다. 민혁은 기우가 대학생은 아니지만 수능 4수까지 했으니 잘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우는 해 보겠다고 말한다. 기정이 PC방에서 기정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한다. 기택은 아들의 대학재학증명서를 보며 감탄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보고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기우가 부자촌 박사장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다. 가정부인 문광(이정은역)이 자신을 가정부로 소개하고 남궁현자가 지은 저택이라고 말한다. 문광이 정원에서 잠자고 있는 다혜의 어머니 연교(조여정역)를 깨운다. 기우가 연교에게 재학증명서를 보여주자 연교는 필요없다고 말한다. 연교는 민혁을 좋아했었다면서 기우의 첫수업을 참관하겠다고 말한다. 다혜가 영어문제를 오락가락하며 풀고 있다. 순간 기우가 다혜의 손목을 잡고 실전은 기세라고 말하며 다시 문제를 풀어 보라고 말한다. 수

업이 끝난후 연교가 기우에게 월급을 건넨다. 연교는 기우에게 문광을 소개하고 필요한 것은 문광에게 이야기 하라고 말한다. 인디언 복장을 한 어린 아들 다송이(정현준역) 엄마에게 장난감 활을 쏜다. 다송이는 캅스카우트에서 인디언 덕후가 되었다고 말하자 기우가 캅스카우트의 정신이 인디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연교가 벽에 걸린 침팬지같은 자화상 그림을 다송이 그린 것이라고 말한다. 연교는 다송이의 미술선생이 한달도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한다. 기우가 일리노이 주립미술대를 졸업?한 과 후배이며 사촌?인 제시카(기정,박소담역)를 소개한다. 다음날 기우는 기정과 함께 연교를 만난다. 연교가 케빈(기우)과 제시카(기정)를 만나는 동안 다혜와 다송이 지켜보고 있다.

다혜가 기우에게 다송이가 예술가 코스프레 설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혜는 제시카(기정)가 기우의 여친이냐고 묻고 기우는 아니라고 말한다. 다혜는 케빈(기우)이 제시카(기정)에게 관심있다고 실망하는데 케빈(기우)은 장미를 다혜와 비교하면서 서로 키스를 한다. 제시카(기정)는 부모와 함께하는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교는 문광에게 매실청 음료수를 제시카 방에 가져가서 보라고 말한다. 순간 제시카(기정)와 다송이 나와있고 제시카(기정)는 부모와 상담을 하려 한다. 제시카(기정)가 그림을 보며 다송이 1학년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어 보는데 연교가 놀라며 울고 있다. 제시카(기정)는 다송이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어 보자고 말하며 월화목금 두시간 미술치료를 제안한다. 박사장(이선균역)이 퇴근하고 제시카(기정)를 만난다. 박사장은 윤기사에게 제시카(기정)를 집에 까지 태워 달라고 말한다. 윤기사가 기정의 집까지 바래다 주려고 하지만 기정은 끝내 혜화역에 내려 달라고 말한다. 기정이 무슨 이유인지 윤기사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팬티를 벗어 자동차 시트아래 숨긴다.

기사식당에서 기정은 아빠(기택)에게 벤츠자동차 운전을 해 본 적 있는지 물어보고 기택은 해 봤다고 말한다. 기정이 박사장의 자동차에 작업을 해 두었으니 준비하라고 말한다. 박사장이 퇴근길 조수석 시트밑에서 팬티를 발견하고 윤기사를 해고한다. 수업후 제시카(기정)가 윤기사 해고에 관한 박사장과 연교의 대화를 들은 후 내려온다. 제시카(기정)를 본 연교가 팬티를 바닥으로 밀어 버리고 귀가길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제시카(기정)는 운전기사는 나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며 큰아버지 차를 운전하던 삼촌인 김기사(기택)?를 이야기한다. 제시카(기정)는 큰아버지가 시카고로 이주하면서 삼촌이 지금 쉬고 있다고 말하자 연교는 곧바로 소개를 부탁한다.

기택과 기우가 벤츠자동차 매장에서 자동차의 내외부를 확인한다. 다음날 기택은 박사장의 회사를 찾는다. 회의중인 박사장이 기택을 보며 손짓을 한다. 박사장이 김기사(기택,송강호역)에게 길을 잘 아는지 물어보고 김기사(기택)는 38선 아래 모르

는 길이 없다고 말하며 운전경력 30년을 자랑한다. 김기사(기택)의 코너링에 만족한 박사장이 흐뭇해 한다. 기우와 가족들이 피자시대에서 피자를 먹는다. 다혜는 케빈(기우)에게 복숭아를 먹고 싶지만 문광이 복숭아 알려지가 있어서 금지되어 있다고 말한다. 기정은 동네 슈퍼에서 복숭아 한 개를 가지고 나와 복숭아 털을 모두 깎아 불펜 홀에 넣는다. 다음날 박사장의 집에서 기우가 수업을 끝내고 나오면서 문광의 몸에 복숭아 털을 뽐는다. 문광이 기침을 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다. 문광이 병원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기택은 문광의 셀카를 찍는다.

김기사(기택)가 연교와 함께 마트를 간다. 건강검진 갔다가 우연히 문광을 만났다면 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통화 내용이 활동성 결핵 환자라는 이야기를 한다. 연교가 의심의 눈으로 말하자 기택은 집에서 연습한 검색 내용을 전문가인양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말한다. 한편 박사장의 집에서 다송이 수업중인 제시카(기정)가 도착 3분전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기정이 부엌으로 가 문광의 몸에 복숭아 가루를 뿌리고 간다. 때마침 연교와 김기사(기택)가 귀가하고 문광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고 당황한다. 그때를 틈타 김기사(기택)는 피자 소스를 몰래 찢어 문광이 휴지통에 버린 화장지에 뿌리고 연교에게 피를 토한 듯한 휴지를 보여 준다. 연교는 문광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신하고 문광의 가정부직을 그만두게 한다. 기택의 가정은 통째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박사장 부부를 속이고 가정부를 해고시켜 버린 것이다.

박사장은 퇴근길 김기사(기택)에게 갈비찜 맛집을 물어본다. 박사장은 연교가 자신과 상의없이 갈비찜 잘하는 문광을 그만두게 했다고 짜증을 낸다. 연교는 요리도 못하고 집안 일도 양한다고 투덜거리며 1주일만 지나면 집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김기사(기택)는 더 케어 명함을 주며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하고 박사장 운전기사 직전에 스카웃 제의가 있었다고 말한다. 연교가 집안 일에 힘겨워 하며 더 케어로 전화를 하고 기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연교의 전화를 받고 더 케어라고 속인다. 연교는 필요한 서류를 메모하면서도 전혀 의심이 없다.

며칠후, 기택의 아내 충숙이 박사장의 집 가정부로 취업한다. 박사장의 퇴근 길 김기사(기택)가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 충숙의 히프를 만지며 즐거워 한다. 그러나 다송이는 김기사(기택)와 충숙과 제시카(기정)의 동일한 냄새에 의구심을 갖는다. 기택은 이제 모두 다른 비누를 쓰고 세탁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지하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순간 취객이 벽에 소변을 보려고 하자 기우와 기택이 밖으로 나가 취객에게 물세례를 부어 버린다.

박사장은 다송이의 생일기념으로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난다. 박사장의 가족이 떠난 집은 기택의 집이 되었다. 기우는 정원에서 책을 보고 기정은 TV를 보며 샤워를 즐긴다. 기우가 다혜의 방에서 일기를 읽는다. 기택의 가족이 거실에 앉아 술을 마

신다. 기정은 기우가 읽는 다혜의 일기에 궁금해 한다. 기우는 대학 들어가면 다혜와 정식으로 사귄 것이라고 말하고 기택과 가족들은 다함께 박장대소를 한다. 기우는 결혼할 땐 대역 쓸거라고 말한다. 기택은 연교가 착해서 이 집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 간다고 말한다. 기택은 자신들 때문에 해고된 윤기사 걱정을 하는데 기우는 다른 일을 구했을거라고 말한다. 기우는 기정에게 만약 이 집에서 산다면 어느 방을 쓰고 싶은지 물어본다. 총숙은 박사장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면 바퀴벌레처럼 숨어야 한다고 말한다. 순간 초인종이 울리고 문광이 찾아와 부엌 지하실에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문광이 지하에 내려 간 후 올라오지 않자 총숙이 지하로 내려 간다. 문광이 비밀문을 열기 위해 힘을 다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총숙이 문틈에 놓인 불판을 들어내자 비밀문이 보인다. 문광이 지하실로 달려가 은둔해 있는 남편에게 먹을 것을 준다. 총숙이 내려가 두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 문광은 남궁현자 건축가가 떠나고 박사장이 이사올 때부터 남편은 이곳에 있었다고 말한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 이곳에 숨어 지냈다고 말한다. 문광은 총숙에게 돈을 건네며 1주일에 한번씩만 음식을 주라고 부탁한다. 문광이 집으로 오면서 집앞 CC-TV선을 잘라 자신이 온 줄 모른다고 말한다. 지하실로 뒤따라 온 기택과 가족들이 문광에게 들키는 원원 사고가 발생한다. 문광은 케빈(기우), 제시카(기정), 김기사(기택)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순간 기우가 기택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기택은 아버지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문광은 윤기사 해고부터 수상한 점이 많았다면서 연교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급박한다. 기택이 문광을 말리고 문광 또한 남편이 신선한 공기를 맡아야 한다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문광의 남편은 문광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휴대폰을 보고 기뻐한다. 기택의 가족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고 문광은 승자의 위치에 있다. 문광이 다시 영상을 찍는데 기택이 재빠르게 소파를 몸으로 밀어 버리자 문광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 뜨린다. 기우와 기정이 폰을 빼앗으려 하자 문광이 술병으로 기우와 기정의 머리를 가격한다. 기정이 냉장고에서 복숭아를 가져와 문광의 얼굴에 바른다.

순간 연교의 전화가 걸려 와 총숙에게 짜파구리 요리를 준비해 달라고 말한다. 총숙이 의아해 하자 연교는 캠핑장이 침수되어 다송이를 위로하기 위해 짜파구리를 해 주려 한다고 하면서 8분후 도착이라고 말한다. 총숙은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으로 조리를 시작하고 기택은 문광과 남편을 지하실로 다시 옮긴다. 기정은 거실 청소를 하고 기우는 다혜의 일기장을 방에 갖다 놓는다. 박사장의 가족이 도착하고 총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요리를 계속한다. 지하실에서 문광이 정신을 회복하자 기택이 발로 차 버리고 지하에 은둔한다. 기우는 다혜의 침대맡에 들어가 기정도 거실 테이블 밑에 숨는다. 기택이 문광을 끌어 옮기는데 문광의 남편이 노래를 부르며 전등불을 누른다. 이 노래는 문광 남편이 다송이에게 전하는 모르스 부호라고 말한다.

다송이와 누구도 짜파구리를 먹으려 하지 않아 결국 연교가 먹는다. 연교는 3년전 다송이 생일 밤에 케이크를 먹으려다가 귀신을 보고 경기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연교는 다송이가 경기가 났을 때 15분안에 응급처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기택은 문광의 남편에게 어떻게 지하실에서 살게 되었는지 묻는다. 문광의 남편은 국민연금도 없고 이전 지하가 더 편하다고 말하며 기택에게 여기에서 계속 살게 해 달라고 말한다. 기택이 남자를 포박하고 입을 막은 후 문 손잡이까지 부숴 버린 다음 지하실 문을 꼭 닫는다. 방에서 다혜가 거실로 나가자 침대에서 나와 방을 빠져 나온다. 기택과 기우와 기정이 다시 만나 집을 빠져 나가려는데 다송이 인디언 텐트를 가지고 나타나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 아래에 숨는다. 박사장이 연교에게 거실에서 자자고 말하면서 김기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사장은 김기사의 몸에서 오래된 무말랭이 냄새와 지하철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박사장 가족이 모두 잠든 후 기택과 기우와 기정이 박사장 집을 나와 귀가를 한다. 기정이 아빠에게 지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기택은 묶어 두었다고 말한다. 기정은 향후 계획을 묻는다. 기택이 집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밖에 모른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폭우로 집이 침수되어 버렸다. 기택과 기우와 기정이 우선 필요한 것만 챙겨서 밖으로 나온다.

문광이 정신을 회복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지만 뇌진탕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쓰러진다. 문광의 남편은 머리로 전등 스위치를 누르며 모르스 부호를 보내고 잠을 설치던 다송이 모르스 부호를 인지하고 종이에 받아 적는다. 한편 침수로 인해 이재민들이 체육관에 모여 잠을 잔다. 기우는 기택에게 계획을 묻고 기택은 무계획이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우는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다. 기택이 기우에게 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기우는 돌이 자기에게 붙어 다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다음날 연교는 제시카(기정)에게 일요일 다송이 생일파티가 있다고 연락한다. 연교는 김기사(기택)와 함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인들에게 파티에 오라고 연락한다. 연교가 김기사(기택)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고 창문을 연다.

박사장의 집에서 케빈(기우)은 다혜와 키스를 한다. 케빈(기우)은 정원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멋있다고 말하고 다혜에게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는지 물어보면서 가방에서 돌을 꺼내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박사장은 김기사(기택)와 함께 인디언 복장을 하고 이벤트 내용을 알려준다. 제시카(기정)가 케익을 가져올 때 우리가 공격하고 다송이 제시카(기정)를 구출하는 이미지라고 하면서 이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말한다. 기정은 충숙에게 지하실에 내려가 봤는지 묻고 충숙은 아직 못내려 갔다고 말하자 기정이 자신이 내려가겠다고 말한다. 기정이 지하실로 가려는데 연교가 다가와 제시카(기정)가 미션이 있다고 말한다.

기우가 돌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돌을 떨어 뜨린다. 기우가 천천히 내려 가다가 쓰러진 문광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묻는다. 순간, 문광의 남편이 올라가며 기우의 목에 걸고 당기자 놀란 기우가 공격을 피한 후 뒷층으로 도망한다. 문광의 남편이 재빠르게 뒤따라가 들고 있던 돌로 기우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 뜨린다. 문광의 남자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파티중인 정원으로 간다. 한편, 방에서 기다리던 다혜가 케빈(기우)이 오지 않자 지하실로 내려간다. 제시카(기정)가 케익을 들고 다송의 텐트로 향하는데 문광의 남자가 제시카(기정)쪽으로 가 기정의 가슴을 칼로 찌른다. 다송이 문광의 남자를 보고 두려워 쓰러진다. 파티장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하고 뒤에 숨어있던 박사장과 김기사(기택)가 비명소리에 일어나 바라본다. 김기사(기택)가 기정을 발견하고 지혈을 하고 다혜는 기우를 업고 정원으로 나온다. 박사장은 쓰러진 다송을 안고 김기사(기택)에게 차를 빼라고 말하지만 김기사(기택)는 기정만을 살피고 있다. 박사장이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고 김기사(기택)는 자동차 키를 던져 준다. 순간, 충숙과 문광의 남편이 몸싸움을 하고 열쇠는 정원 바닥에 떨어진다. 문광의 남편이 충숙을 칼로 찌르려 하지만 충숙이 피하면서 꼬치 쇠막대로 찔러 버린다. 지켜보던 박사장이 다시 열쇠를 잡자 기택이 떨어진 칼로 박사장을 찔러 버리고 집을 빠져 나온다.

기우가 뇌수술을 받고 한달 만에 깨어난다. 기우 앞에는 형사와 의사가 서 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기우는 웃고 있다. 사고 당일 기정은 결국 죽는다. 기우와 충숙은 사문서 위조와 주거 침입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 기우는 기정이 죽고 난 후 웃고만 있지만 뉴스를 볼 때는 웃지 않는다. 기자는 IT기업 박사장을 죽인 김기사(기택)가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경찰이 기우와 충숙을 미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기우가 박사장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 보고 있다. 기우가 밤이 늦도록 지켜보고 있는데 계단에 있는 불이 깜빡이며 모르스 부호를 보내고 있다.

기택은 문광의 남편이 은둔하던 지하실에서 건강하게 숨어 있다. 대문을 나서던 기택이 다시 되돌아와 지하실로 숨어 든 것이다. 기택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집이라 매매가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동안은 힘들었다고 말한다. 기택은 시간이 흐른후 문광을 정원 한 쪽의 수목장으로 보냈다고 말한다. 부동산업자가 외국인 가정에 집을 매매했고 입주중인 가정부 때문에 조심조심하며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말한다. 모르스 부호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보낸다고 말한다. 귀가한 기우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큰 돈을 벌어서 그 집을 다시 자기가 사겠다고 말한다. 그때 엄마와 자신은 정원에 있을 것이니 아버지는 지하실에서 나오면 된다고 쓴다. 그날이 올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라면서 기우의 편지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기생충은 가족 전원이 백수인 기택의 가정과 IT기업의 사장 가족들의 평행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코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한국영화 가운데 하나다. 가족 전체가 계획 범죤에 가담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다.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소재이지만 전 세계적 관심속에 황금종려상까지 수상하였다. 관객동원에서도 마찬가지로다.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기택의 가족은 이제 위로 향하는 계단만 있을 뿐이다.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삶의 향기와 흔적은 지상에서 위로만 살았던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은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 우리 사회 소시민들이 이렇게 범죤까지 저지르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욕심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위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돈으로 죄를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모습이 맞지 않을까 싶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반지하의 한켠에도 햇볕이 비추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은 고통이고 힘겨울 수 있다. 그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 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 삶의 고단함 가운데에도 행복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잊어 버렸을 때 모든 것은 절망적이다. 기생충은 어느 곳에나 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 진리는 아니다. 더 큰 배려와 이해심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

23. “사자”The Divine Fury

한국영화, 장르:미스터리,액션,판타지, 개봉:2019.07.31

감독,각본:김주환, 제작:키이스트,

주연:박서준,안성기,우도환

관객:1,609,733명(2019.08.27.)

“용후”(아역,이찬유역)가 계란말이를 만들어 “아빠”(박경사,이승준역)의 출근길 식사를 준비한다. 엄마가 죽은 후 용후에게 아빠가 모든 것이고 부자의 정은 너무나 깊다. 아빠는 용후에게 탕수육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용후와 아빠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있다. 용후가 하나님이 엄마를 왜 살려주지 않았냐고 묻자 아빠는 엄마를 살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용후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고 말한다.

아빠의 출근길, 뒷 모습을 바라보는 용후의 마음이 애잔하다. 박경장이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중 운전자(홍승범역)인 검은 주교가 차 문을 열지 않는다. 박경장이 차 문을 열라고 하자 창문을 내리더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박경장을 매단 채 도주한다. 이 사고로 용후의 아버지 박경장마저 세상을 떠난다. 용후는 “김신부”(심희섭역)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빠 만큼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용후의 하나님은 끝내 아빠를 데려가 버린 것이다. 용후의 꿈에 아빠가 천사처럼 나타나 용후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 버린다. 박경장의 장례식장, 용후는 감정이 격해져 있다. 그때 문상을 온 김신부를 향하여 십자가상을 던져 버린다.

20년후, 격투기 경기장에 17승 무패행진의 “박용후”(박서준역)가 미국출신 슈퍼마린 론화이트를 시작과 동시에 KO로 누른다. 경기직전 용후는 론 화이트의 등에 새겨진 십자가상을 발견하고 그의 귓전에서는 복수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 분노의 눈빛을 가진 용후의 한 방에 론 화이트가 그대로 무너진 것이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든 용후가 아빠의 꿈을 꾸다. 아빠는 아빠의 사진과 십자가가 있는 곳을 향한다. 용후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귀에 복수하자라는 강한 음성이 들려오고 분노한 용후가 십자가를 던지려 하지만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이 솟아 오른다. 용후가 꿈에서 깨어나지만 손바닥에는 알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 한국 도착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지만 효과가 없다. 귀가후 용후가 깊은 잠에서 또다시 악몽을 꾸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용후 위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용후는 무엇인가 고통을 호소하며 괴로워 한다. 용후의 오른손에서 피가 흐르자 검은 그림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용후는 잠에서 깨어난다.

용후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지만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용후의 운전기사 "범수"(김범수역)가 자신의 조카가 15세때 악몽에 시달리던 중 점집에 가서 물어보니 무당이 신병이 왔다고 10일이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10일후 눈이 멀게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그후 신내림을 받았지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앞은 볼 수 없었지만 귀신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날 밤에도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던 용후는 범수의 조카를 찾는다. 유명한 무당이 된 "홍진"(조은형역)은 용후를 바라보며 몸 가운데는 하얀 빛이 있고 주위에는 붉은 점들이 모여 있는데 뒤편에 귀신이 많이 붙어 있다고 말한다. 홍진이 마음을 못되게 굴어 귀신이 붙은 것이라고 하며 며칠전에 들은 목소리는 귀신이 믿게 하려고 흉내 낸 목소리라고 말한다. 용후의 가슴에 비춰진 둥근 것이 무엇인지 홍진이 묻자 용후는 아빠의 반지를 꺼내어 보여 준다. 홍진은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선한 영들이 가득한데 아빠의 반지에 선한 영들이 가득히 있다고 말한다. 홍진이 테이블위에 쌀을 뿌리자 십자가 형상이 나타난다. 십자가형상을 바라본 용후가 순간 테이블을 쳐 버린다. 홍진은 용후집 남쪽 방향에 있는 십자가성당으로 자정시간에 가면 도와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성당을 찾은 용후앞에 나타난 것은 때아닌 까마귀떼들었다. 이유를 알수 없는 까마귀떼가 용후를 자동차안으로 밀어 버린다. 성당안에서 구마사제 "안신부"(안성기역)와 보조사제 "최신부"(최우식역)가 구마의식을 하고 있다. 안신부가 붉게 변한 청년을 구마하며 기도문을 암송한다. 남자가 발악하며 묶여있던 손을 풀고 안신부를 공격한다. 안신부가 목주반지로 남자의 얼굴을 누르자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물러나는 듯 하더니 최신부를 공격한다. 남자가 마귀형상으로 변화하자 겁에 질린 최신부가 성당밖으로 도주하고 용후를 에워싸던 까마귀가 최신부를 향할 때 용후가 성당안으로 환급히 달려 들어온다. 때마침 안신부를 공격하던 남자를 용후가 제압하고 상처가 난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짓이겨 버린다. 정신을 차린 안신부가 얼굴에 성수를 뿌리고 남자를 지배하던 마귀는 도망을 한다. 이렇게 용후와 안신부는 낮선 첫대면을 한다. 용후가 손에 난 상처를 안신부에게 보여 주고, 안신부는 십자가에 못박힌 상처가 가끔 믿음이 강한 신도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카톨릭에서는 성은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용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용후의 귓전에 다시 복수하자 신부를 죽여라는 음성이 들리며 고통스러워 한다. 안신부가 용후에게 기도문을 암송하고 용후는 회복의 기운을 맞이하며 며칠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고통을 호소한다.

안신부는 용후와 함께 용후의 집으로 간다. 용후는 침대머리맡 가족 사진 뒤편에 십자가 목거리를 두고 다시 소리가 들리면 자신을 찾아 오라고 말한다. 안신부를 기다리던 최신부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안신부는 그를 위로하지만 최신부는 구마사제직을 떠난다. 한편,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청한 용후가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액

자 뒷면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기통에 버리려다 다시 주워 안신부에게 돌려 준다. 안신부는 바티칸 성당과 통화를 하며 검은 주교가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부마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지신"(우도환역)이 바빌론 클럽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경호회사 사장 "선호"(박재홍역)와 월 3천만원의 비용을 놓고 흥정을 한다. 지신이 명함에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말하며 동업자인 "대환"(차시원역)형이 도박빚 20억 때문에 경호회사를 넘기고 도주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선호는 대환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지만 대환은 모두가 거짓이라고 결백을 주장한다. 지신은 지하 클럽으로 내려가 죄를 지은 영혼을 바치겠다며 힘을 달라고 뱀에게 기도를 한다. 지신은 선호의 명함을 태우고 재를 뿌린 후 기도를 계속한다. 선호가 대환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죽은 대환이 선호를 향하여 달려온다. 순간 지신이 앞에 놓여 있는 심장을 찌르자 선호가 죽어 버린다. 지신이 영생기원 기도를 하며 심장을 물속으로 던져 버리자 지신의 흰 머리가 검은 색으로 변하면서 젊음을 회복하고 손에 난 상처가 사라져 버린다.

안신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돌려준 날 밤, 용후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앙대교구장의 연락을 받고 안신부는 중앙대교구를 찾는다. 신도중 "수진엄마"(서정연역)가 밤에 너무 소란스러워 딸 "수진"(박지현역)의 방에 갔더니 수진이 천정벽에 붙어 있었다고 말한다. 보조사제를 구하지 못한 안신부가 귀가를 하던 중 집앞에서 용후를 만난다. 용후가 거실 의자에 앉아서 옷을 갈아입는 안신부를 보는데 통증과 상처가 극심할 정도다. 안신부는 교황이 준 선물을 용후에게 건넨다. 용후가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잘 수 있는지 물어 보는데 안신부는 물건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용후는 여전히 신을 믿지 않는다고 답한다. 용후가 어린시절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안신부는 자신에게 구마의식을 가르쳐 준 스승이야기를 한다. 안신부가 스승이 구마의식을 한 후 생명을 잃었을 때 매우 고통스러웠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를 따르는 것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안신부는 말한다. 용후는 스승은 왜 죽게 되었냐고 반문한다. 안신부는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준 것이라고 말한다. 용후는 교황이 준 것이면 비쌀 것이라고 말하고 안신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구해 주어 주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안신부가 수진의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 용후가 안신부를 차에 태우고 간다. 용후가 구마는 본래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 안신부는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어제일을 생각한 용후가 혼자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염려한다. 안신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용후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안신부가 수진의 집 앞에서 용후의 이름을 물으며 기도를 한다. 용후는 안신부가 수

진의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뒤 따른다. 안신부가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앞에는 예수상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겁에 질린 "수진 엄마"(서정연역)가 수진의 방을 안내하지만 들어가지 않는다. 안신부는 용후에게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읽고 이용하려 하니 조심하라고 귀뜸한다. 안신부가 수진의 방문앞에 올리브 나무로 만든 솥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마귀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안신부는 "수진"(박지현역)에게 십자가를 앞세우고 마귀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한다. 수진은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예수상을 부숴 버린 것이라고 말하며 안신부의 손을 잡는다. 안신부가 목주반지를 수진의 이마에 갖지만 반응이 없다. 안신부가 수진의 방에서 나와 교활한 마귀는 성물을 참는 능력이 있다면 몸에 들어가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 들어간다. 용후가 수진을 포박하고 안신부가 수진의 입에 성수를 붓자 수진의 입에서 피를 토한다. 마귀가 모습을 드러내며 안신부의 목을 조른다. 용후가 수진을 밀며 위에서 누르자 수진이 용후를 천정벽으로 끌고 올라가 용후아빠를 죽인 남자에게 자신이 있었다고 비웃는다. 용후가 흥분하여 마귀의 목을 조르자 안신부가 용후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지만 용후는 오히려 안신부를 벽으로 밀쳐 버린다. 등에 벽걸이가 찢린 고통속에서도 안신부는 용후에게 분노를 극복하라고 말하며 안정시킨다. 용후가 수진의 이마에 손을 갖다대자 불이 타오르고 안신부가 수진의 머리에 성수를 뿌린다. 결국 수진의 몸에 있던 마귀가 도망을 한다.

안신부가 수진의 방에 있던 사진들을 보며 악마에게 제사를 지내는 검은 사제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악마에게 바친다고 경고한다. 안신부는 용후가 약한자들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며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는다는 안신부의 말에 용후는 소년시절 김신부를 진심으로 믿었고 아직도 용서가 안된다고 말한다. 수진이 정신을 회복한 후 수진에게 최근에 접근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만 답이 없다. 그때, 지신이 수진이 말을 할 수 없도록 수진의 인형에 주술을 하며 찢러 버린다. 그러자 수진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 한다. 안신부가 반격하며 기도문을 암송하자 지신의 까마귀 반지가 뜨겁게 열이 오르며 지신을 당황케 한다. 지신이 다시 주먹으로 인형을 때리자 수진은 다시 고통에 빠지고 안신부가 기도문으로 공격하자 지신이 갖고 있던 인형이 불타 버린다. 안신부는 수진을 안심시키고 다음에 연락하라고 말한 후 돌아간다.

용후의 집으로 함께 간 안신부는 이제 서로간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중국집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부"(박진주역)가 박용후를 알아 본다. 안신부와 용후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후 식후로 안신부가 맥주를 마신다. 용후가 신부도 술을 마시는지 묻자 신부는 술도 되고 담배도 된다고 말하며 자신은 특별히 와인을 더 좋아 한다고 말한다. 용후가 안신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안신부는 음주를 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술 한병을 더 달라고 한다.

지신은 바빌론 클럽 지하에서 닭을 죽인후 피를 흘려 악마에게 기도를 한다. 경기도 파주 성모보육원에서 아이들이 “호석”(아역,정지훈역)을 지하실로 데려가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다. 그후 어디선가 지신이 호석에게 나타나 호석을 도와 주겠다면서 자신의 주문을 따라서 하라고 말한다. 지신의 주문을 따라 한 호석의 눈동자가 바뀌며 마귀에게 사로 잡힌다. 파주 성모병원에서 안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안신부는 다시 용후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그 시간 게임 브로커 “케빈”(조태관역)과 용후가 만나고 있다. 케빈은 중국에서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용후의 재경기를 설득한다. 케빈은 용후에게 열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커피를 갖다주는 여종업원의 손목에 채워진 십자가 팔찌를 보고 환급히 커피점을 나선다.

파주 성모병원 성모 보육원에서 수녀들이 호석을 에워싸고 기도를 한다. 호석은 수녀들을 조롱하고 있다. 안신부가 성모병원에 도착해 호석의 얼굴에 목주반지를 대며 마귀의 이름을 묻는다. 마귀가 고통속에서 카드마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만 호석에게는 많은 마귀들이 함께 공존해 있다. 잠시 쓰러졌던 호석이 다시 일어나 군대 마귀가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그 사이 용후가 안신부에게 전화를 하고 수녀가 받아 급히 도움을 요청한다. 안신부가 호석에게 목주반지를 긋고 몸에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마귀가 떠나고 안신부는 피를 토하며 위험에 직면한다. 안신부가 “테레사”(김시은역)신부도 위험하니 나가 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테레사는 안신부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안신부는 나는 혼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한다. 테레사 수녀도 안신부와 함께 하겠다고 말한다. 호석의 몸에 다른 마귀가 나타나 주문을 하는 안신부를 공격한다. 테레사 수녀가 십자가를 들고 마귀를 향해 기도를 하지만 마귀가 천정으로 올라가 갑자기 수녀를 공격한다. 때마침 용후가 들어와 십자가 손으로 마귀를 공격하여 성수를 뿌리고 불태워 버린다. 용후가 안신부의 안전을 확인한다. 안신부는 정신을 회복하면서 얼굴이 많이 아프다고 농담아닌 농담을 한다. 용후가 안신부에게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수녀가 호석에게 낯선 사람이 온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호석이 꿈에서 로만칼라가 검은 신부가 찾아 왔었다고 말한다. 원장수녀와 성모 보육원 아이들이 용후에게 달려와 고마움을 표현한다.

귀가길, 용후가 안신부에게 이 전에는 십자가만 보면 화가 났는데 여종업원의 십자가 팔찌를 보았을때는 화가 나지 않고 영감님이 생각났다고 말한다. 안신부는 용후에게 주님이 용후를 믿어서 힘을 준 것 같다고 위로한다. 안신부는 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을 카톨릭에서는 신의 사자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용후는 한번만이라도 아빠를 만나 안아보고 싶다고 마음을 표현한다. 분노한 지신이 보육원 개를 조종하며 악마에게 기도를 한다. 지친 잠에 빠진 호석이 복도로 나오고 보육원 개가 달려 들어 공격을 한다. 지신이 순수한 영혼을 바치겠다고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물속에서 뱀 송곳니가 들어 있는 둥근 물체가 떠오른다. 안신부와 용후가 호석의 사망소식을 듣고 병원 영안실을 찾는다. 안신부가 호석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용후가 자신을 찾아왔던 지신을 발견하고 추적한다. 용후가 떠난후 갑자기 죽은 호석이 살려 달라고 애원한다. 당황한 안신부가 시체보호 지퍼를 내리고 호석을 안아 주는데 뒤에서 지신이 나타나 안신부를 공격한다. 지신을 추적하던 용후가 영안실에서 인기척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간다. 지신은 뱀의 송곳니로 안신부를 위협하며 용후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한다. 지신은 용후에게 기도하라고 시키고 용후는 안신부를 위해 기도문을 말한다. 안신부가 용후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뱀 송곳니에 목을 찌르자 용후가 기도문을 멈추고 안신부에게 달려가는 순간 지신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당황한 용후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묻고 안신부는 최신부를 찾아 데려가 달라고 말한다. 최신부에게로 간 용후는 안신부를 그에게 맡기고 성당으로 달려가 죄없는 사람이 또 죽어 가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분노를 삭이지 못한다.

안신부에게 돌아간 용후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안신부가 용후에게 자신의 목주반지를 건넨다. 용후는 최신부에게 안신부를 부탁한다. 최신부는 교황이 내려준 클레지망을 용후에게 건네며 마귀와 싸울 때 갑옷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귀가한 용후가 안신부의 가방에서 성수를 챙기고 클레지망을 입는다. 용후가 수진을 찾아가 안신부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그 놈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수진은 바빌론 클럽 명함을 건네며 두려움에 떠난다.

한편, 지신은 용후가 자신을 찾아 올 것을 알고 직원들에게 마귀를 덧씌운다. 용후가 바빌론 클럽에 도착한다. 입구부터 기다리던 지신의 부하들이 용후를 공격하지만 용후가 성수를 오른손에 뿌리고 한명씩 제거해 나간다. 지신은 악마에게 기도를 한다. 지신은 뱀 송곳니로 자신의 심장을 찢으라는 명령에 두려움을 드러낸다. 지신은 용후가 너무 빨리 다가오자 지체없이 심장에 뱀 송곳니를 찢어 버린다. 지신이 고통속에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만 새로운 몸으로 솟아 오른다. 지신의 피부는 뱀의 비늘처럼 변하여 그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려 한다. 용후가 지신을 공격하지만 여의치 않고 오히려 용후를 제압하고 악마에게 기도를 계속한다. 정신을 잃어버린 용후가 꿈에서 아버지와 만난다. 용후는 아버지를 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손을 내밀며 언제나 용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용후의 손이 빛을 발한다. 꿈에서 깨어난 용후의 손은 밝은 빛을 발하며 꺼지지 않는다. 용후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신을 향하여 공격을 시도한다. 지신이 용후의 공격에 무너지고 안신부의 목주반지로 일격을 가한다. 용후는 지신의 몸에 박혀 있는 뱀 송곳니를 제거하고 지신은 최후를 맞이한다. 용후가 뱀송곳니를 오른 손으로 불태워 제거해 버린다. 그리고 검은 우물속에서 나타난 손들이 나와 죽은 지신의 시신을 끌고 들어 간다. 용후는 안신부가 염려되어 되돌아 간다. 안신부의 상처는 완

전 회복되어 용후를 기다리고 있다. 안신부는 마치 아버지처럼 용후를 안아 준다. 영화의 엔딩부분, 최신부는 바티칸에서 날라온 편지 한통을 읽는다. 안신부와 용후가 바티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다. 안신부는 최신부가 훌륭한 엑소시스트가 될 것이라고 용기를 준다. 편지속에는 안신부가 보낸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최신부는 사제로 다시 컴백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검은 사제들 이후, 엑소시즘은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물론 영화 사자는 각색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속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 그것은 때로 물질과 부유함과 권력으로 찾아 온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착과 결핍으로 찾아 오기도 한다. 어떤 모양이 되었던 사탄이 주는 영향력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사람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악으로 물들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화 사자속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늘 따라 다니며 빛의 뒤편에 서 있는 어두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결코 지지 말아야 할 우리 자신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단호함과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24. “알라딘”Aladdin2019

미국영화, 장르:모험,가족,판타지,뮤지컬, 개봉:2019.05.23.

감독:가이리치(Guy Ritchie), 제작:월트디즈니,

주연:메나 마수드(Mena Massoud,알라딘역), 윌 스미스(Will Smith,지니역),

나오미 스콧(Naomi Scott,자스민역),

관객:12,520,904명(2019.08.27.기준)

지니가 바다위에서 가족과 여행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큰 배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지니가 우리배는 많은 폭풍과 함께하며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니는 아이들에게 알라딘과 공주, 요술램프 이야기를 들려 준다. 동굴속, 여기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진흙속 보석같은 한사람만이 들어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자파”(마르완 켄자리역)는 한사람을 동굴안으로 들어가게 한후 진흙속 보석같은 자를 찾아라고 하면서 입구를 막아 버린다. 여자들이 알라딘의 아부라는 이름의 원숭이에게 관심을 가진다. 여자들이 알라딘의 물건을 훔치려다 돌아가는데 아부가 되려 여자들의 목걸이를 훔친다. 알라딘은 아부와 함께 훔친 물건을 팔아 대추야자 한 봉지를 받는다. 알라딘이 대추야자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자스민”(나오미스콧역)이 변장을 한 채 마을을 돌아본다. 빵가게 앞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다. 자말이 자스민에게 빵을 훔쳤다고 몰아 붙이고 알라딘은 자말을 말린다. 알라딘이 자스민의 손을 잡고 자스민의 팔찌를 풀어 자말에게 건네준 후 사과를 던져 준다. 자스민이 팔찌없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알라딘이 팔찌를 보여 준다. 자말이 팔찌를 찾았을때는 이미 팔찌는 없고 사과만 들어 있다. 자말과 사람들이 알라딘을 추적하고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원숭이를 따라 가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사라진다. 얼마후 알라딘은 다시 자스민을 만나 함께 도망한다. 건물과 건물을 뛰어 넘어 이리저리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계속한다.

“자파”(마르완켄자리역)가 부하에게 보석을 가져오지 않고 진흙만 가져왔다고 없애라고 말한다. 부하가 본래 진흙속에 보석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는다. 부하가 재상같은 위대한 사람을 도울것이 동굴속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파가 술탄(네이비드네가반역) 다음으로 2인자라고 치켜 세운다. 그러나 지금의 권력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시라파드 감옥에서 5년이나 썩었던 자파는 1인자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분노한 자파가 2인자라는 부하에게 램프가 필요하다면서 우물속으로 밀어 버린다.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알라딘이 밧줄을 당기자 숨겨진 계단이 나타난다. 알라딘의 비밀안식처로 자스민을 환영한다. 자스민과 알라딘이 도

시를 내려다 보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다. 자스민은 자신의 이름이 달리아라고 말한다. 알라딘은 팔찌와 수입실크를 보며 달리아에게 궁에서 나온 것인지 묻는다. 자스민이 알라딘을 대단하게 여기자 알라딘은 아그라바 궁전 풍경이 더 대단하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수년동안 공주를 본 사람이 없다면서 공주에게 자주 나오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알라딘은 아직 자스민이 공주인지 알지 못한다. 자스민은 여왕이 살해된 후 술탄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외출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아그라바 백성들은 여왕을 사랑했다고 말한다. 자스민이 악기를 보고 연주를 하는데 알라딘과 자스민이 엄마가 가르쳐 준 노래라고 말한다. 알라딘의 부모는 어릴 때 다 죽었고 지금은 아부 원숭이와 의지하며 살아 간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늘 미래를 바라 보지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항구로 배가 들어오고 자스민은 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알라딘이 왕자가 공주에게 청혼하려 온 것인지 묻고 자스민은 그래서 공주를 단장해야 한다고 응수한다. 자스민은 알라딘에게 엄마가 물려준 팔찌를 돌려 달라고 말하는데 알라딘에게 팔찌가 없다. 화가난 자스민이 알라딘은 역시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돌아간다.

알라딘은 길에서 위험한 아이들을 구해준다. 말을 타고 가던 병사가 알라딘에게 평생 거지로 살아라면서 길을 비켜라고 말한다. 알라딘은 아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은 도둑이지만 좋은 점도 있다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노래를 부른다. 아부는 알라딘에게 팔찌를 건네주고 알라딘은 아부에게 이걸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꾸중을 한다.

“안데르스”(빌리매그너슨역) 왕자가 아그라바 왕국 “술탄”(네이비드네가반역)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자스민 공주가 드레스를 입고 나온다. 안데르스 왕자가 자스민을 보며 미모를 칭찬한다. 자스민도 왕자의 외모를 칭찬하자 스칸랜드에서는 유명하다고 농담을 한다. 안데르스 왕자가 자스민옆에 있는 호랑이를 보며 줄무늬 고양이라고 오해한다. 스칸랜드에서는 고양이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가가면 기겁을 한다. 자파가 술탄에게 적들이 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안데르스 왕자가 자스민 공주를 우롱했다고 말하며 시라바드가 세를 확장중이라고 말한다. 술탄이 시라바드가 동맹국인데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자파는 옛정으로 왕국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대꾸한다. 술탄이 자파에게 자기의 주제를 알아라고 경고하고 자파는 용서를 빌면서도 지팡이로 술탄에게 시라바드 침공에 관한 최면을 건다. 순간 자스민이 들어오면서 어머니의 나라 시라바드를 왜 침공하려는지 묻고 자파가 자리를 피할 때 술탄은 그런일은 절대 없다고 공헌한다. 그러나 자파는 스칸랜드가 우방이 되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술탄이 안데르스 왕자에게 기회를 주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스민이 빨리 남편을 만나야 한다고 걱정한다. 자스민은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역사에서 여자가 술탄이 된 적은 없다고 말한다. 자스민은 평생 준비를 했다고 말하는데 자

파가 경험은 읽는 것으로 할 수 없고 경험이 없는 행동은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한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폭동이 일어나고 국경을 소홀히 하면 공격당한다고 말하자 술탄이 자파에 동조한다. 자스민이 실망한 눈빛으로 자신의 방으로 가 마음을 달래는데 자파가 공주를 향할 때 호랑이가 자파를 겨냥한다.

알라딘은 아부가 관심을 돌리는 사이 근위병의 눈을 피해 아그라바 궁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지켜보던 자파의 앵무새 이아고가 자파에게로 날아간다. 제국을 꿈꾸는 자파는 램프만 손에 넣으면 왕좌는 자기의 것이라고 욕망을 드러낸다. 그때 앵무새 이아고가 궁에 진흙속에 보석같은 도둑이 들었다고 보고한다. 자파가 알라딘이 근위병의 눈을 피해 옷을 바꿔 입고 궁내를 돌아 다니며 공주의 방으로 가는 것을 지켜 본다.

공주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달리아"(나심페드라드역)가 잘생긴 왕자가 청혼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자스민은 결혼이 싫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달리아는 자스민 공주에게 왜 술탄이 되려는지 묻고 자스민은 어머니가 왕족은 가장 불행한 백성이 행복한 만큼 행복하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고 이야기 한다. 달리아는 여왕이 공주의 안전과 청결을 바랄 것이라고 말하며 목욕물을 받는다. 자스민은 자파의 병사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유없이 이웃나라를 침공해서 싸운다고 말한다. 달리아는 안데르스 왕자가 더 좋은지 아니면 시장에서 만난 남자가 더 좋은 것인지 되묻는다.

공주의 방에 노크 소리가 들리고 알라딘이 들어 온다. 자스민이 깜짝놀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니 팔찌를 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자스민이 철통같은 병사들을 어떻게 따돌렸는지 묻고 알라딘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알라딘이 공주가 없을 때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자고 말하고 자스민은 알라딘이 궁을 자기 집처럼 돌아 다닌다고 말한다. 알라딘이 팔찌를 찾았다고 말하는데 자스민은 찾은 것이 아니라 알라딘이 훔친 것이라고 말한다. 알라딘이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훔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자스민은 원숭이는 알라딘의 소유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 순간 달리아가 공주방으로 들어와 누가 차를 시켰는지 묻는데 자스민이 알라딘의 뒤쪽에서 팔찌를 가르키며 달리아에게 되려 공주라고 말한다. 달리아가 눈치를 채고 호랑이 목욕시킬 시간이라고 나가 버린다. 자스민은 공주가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랑이가 알라딘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는다. 알라딘은 내일 밤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달이 침탑위에 걸리면 분수대 옆 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자스민의 머리핀을 담보로 가져간다. 알라딘이 변장한 옷을 갈아 입고 아부에게 아그라바 궁내를 훔었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그때 "하킴"(너맨아카역)과 병사들이 알라딘을 체포한다. 자파는 알라딘을 데리고 동굴로 가 알라딘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팔찌를 훔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파는 시녀가 여왕의 팔찌를 차고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알라딘은 여왕이 아니라고 하고 자파는 엄마꺼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알라딘에게 자스민이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자파는 자스민 공주가 평민을 만나는 것을 놀이삼아 한다면 알라딘을 갖고 논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 자파는 자신도 한때는 좀도둑이었다고 말하면서 더 크게 생각하면 왕국을 훔치면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설득한다. 자파는 알라딘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무엇을 하면 되는지 흥정을 한다. 자파는 인근 지역에 신비한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램프 하나를 가져다 주면 알라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자스민 공주가 알라딘과의 약속장소에서 알라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 그시간 동굴앞에 도착한 알라딘에게 함께 온 자가파가 동굴안에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램프도 있는데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오직 램프만 가지고 오라고 강조한다. 알라딘이 동굴속으로 들어가는데 저절로 불이 켜진다. 동굴이 여기에 들어 올수 있는자는 겉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진흙속의 보석같은 자라고 말을 한다. 알라딘과 아부는 보석을 바라보며 안으로 들어간다. 아부가 보석을 만지려 하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알라딘이 보석을 만지려 하자 아부는 알라딘의 뺨을 때려 버린다. 알라딘이 동굴 높은 곳에서 램프를 발견하고 걸어 가다가 마법양탄자를 발견하고 악수를 한다. 알라딘은 바위틈에 끼여 있는 양탄자를 빼 내어 준다. 알라딘이 바위를 밟고 올라가는데 보석이 아부 앞으로 떨어지고 알라딘이 램프를 잡는 순간 아부도 보석을 잡는다. 동굴이 금지된 보물을 건드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용암을 흘려 보낸다. 알라딘이 바위를 건너 뛰며 마법양탄자를 타고 입구를 향해 날아가다가 떨어지며 절벽에 겨우 붙어 있다. 이를 본 자파가 램프를 주면 손을 잡아 주겠다고 말하고 알라딘이 램프를 던져 주자 자파는 알라딘을 구하기는커녕 손을 밟아 버린다. 알라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마법양탄자가 다시 알라딘을 구한다. 원숭이 아부가 자파의 손에서 램프를 다시 훔치고 동굴밖으로 피한 자파는 그때서야 램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마법양탄자는 알라딘을 안전한 곳에 내려 놓고 아부가 램프를 알라딘에게 돌려 준다. 알라딘이 동굴을 나가려 하자 동굴은 마지막 남은 작은 구멍마저도 막아 버린다. 알라딘이 마법양탄자에게 나갈 길을 묻는데 램프를 가르키며 이것이 답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알라딘이 램프의 먼지를 닦아내고 문지르자 푸른 연기가 나며 "지니"(월스미스역)가 램프에서 나온다. 지니는 자신을 소환한 주인에게 세가지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말한다. 깜짝 놀란 알라딘이 자신이 지금 정말 파란 연기 거인과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지니는 자신은 거인이 아니라 지니라고 말한다. 지니는 알라딘이 램프를 문질렀는지 묻는다. 지니는 천년동안 램프속에 있었다. 지니는 램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는지 묻는데 알라딘은 아는게 없다. 지니는 요술램프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부르고 싶을땐 램프를 문지르고 소원을 말하라고 말한다. 알라딘이 소원은 왜 세개뿐인지 묻는데 지니는 그것은 모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빼고 다 들어 준다고

말한다. 알라딘이 첫 번째 소원이 동굴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자 밖으로 즉시 나간다. 밖으로 나온 알라딘이 지니와 함께 아그라바로 가면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말하자 지니는 다시 변장을 한다. 지니는 알라딘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말하고 알라딘은 아직 두 개의 소원을 생각하지 못했다. 알라딘은 지니에게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겠냐고 물어보고 지니는 자유의 몸이 되어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면 되잖나라고 반문하는데 지니는 자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램프의 주인이 반드시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말한다. 알라딘이 소원이 모두 세 개이니깐 그 소원을 꼭 들어 주겠다고 말한다. 지니는 동굴밖으로 나오는데 소원 한 개를 사용하였고 이제 두 개 남았다고 확인한다. 알라딘이 소원을 빌려면 램프를 문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묻는다. 지니가 비디오 판독을 하겠다면서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 간다. 지니는 원숭이가 속임수를 써서 된 사정을 알고 아부를 지켜 보겠다고 말한다. 지니는 소원은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알라딘은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며 마지막 소원은 지니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확약한다. 알라딘은 원하는게 한가지 있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공주라고 말한다. 알라딘은 이미 통했고 그녀는 친절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답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자신을 왕자로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지니는 그녀가 이미 알라딘을 좋아하는데 왜 왕자로 변하려는지 묻는다. 알라딘은 왕자만이 그녀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니는 알라딘에게 맞는 흰색옷을 만들어 준다. 지니가 알라딘은 아바브와 왕국의 알리 왕자라고 말한다. 알라딘이 타고 갈 코끼리를 위해 아부를 변신시킨다. 알리 왕자의 수행원을 위해 모래바람을 수행원으로 변신시킨다. 그리고 아그라바 왕국의 도심으로 아바브와 왕국 알리 왕자가 입성하고 사람들이 이 행렬을 바라본다. 알리 왕자와 지니가 성에서 술탄과 첫대면을 한다. 옆에 있던 자파가 아바브와 왕국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말한다. 알리 왕자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어진 나라라고 소개하고 술탄은 세상은 변하고 늘 새로운 도시가 일어선다고 옹호한다. 알라딘은 선물로 향신료, 황금낙타, 스푼, 손가락과 잼을 가져 왔다고 말하는데 지니가 잼 이야기는 그만하고 보석이야기를 하라고 말한다. 알리는 값비싼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자스민과의 시간을 사려고 한다고 말한다. 자스민은 왕자에게 돈으로 자신을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인지 묻는데 처음에는 그렇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스민이 못마땅해 하며 자리를 떠나고 술탄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밤 추수감사연회에 초청을 한다. 밤이되고 지니는 알라딘에게 잘하라고 말한다. 자파가 알리 왕자를 찾아와 알리 왕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한다. 순간 알라딘이 당황했지만 자파는 알리 왕자가 자기처럼 야망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술탄의 재상이라고 소개한다. 자파가 알리 왕자에게 최면을 걸려고 하자 지니가 나타나 알리 왕자를 데리고 간다.

알라딘과 지니가 파티장에서 자스민을 바라본다. 지니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지만 알라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신감을 잃었다. 지니가 달리아가 가는 것을 보고 달리아에게로 가면서 알라딘에게 파티에서 잘해야 망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알라딘이 공주곁으로 가는데 안데르스 왕자가 자스민을 부르며 먼저 다가간다. 이를 본 알라딘이 망설이자 지니가 답답해 하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다. 알라딘의 외모는 왕자로 변신해도 마음은 자신의 몫이라고 말한다. 알라딘이 술탄과 눈이 마주치자 술잔을 들고 인사를 한다. 자스민이 알리 왕자를 보며 저 사람도 자기보다 아버지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달리아가 친구도 멋지고 알리 왕자도 좋은 사람같다고 말한다. 알라딘이 여전히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하자 지니는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렸다면 공주쪽으로 밀어 보낸다. 알리 왕자는 공주에게 잼과 보석이야기에 대해 사과를 한다. 자스민은 왕자에게 같이 춤추자고 제안하고 춤을 춘다. 지니가 손가락으로 알라딘의 몸을 움직이게 하여 혼자서 독주를 하게 한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자스민은 파티장을 나가 버린다. 이를 지켜 보던 자파가 하킴에게 알리 왕자가 수상쩍다면서 감시를 지시한다. 알라딘은 공주가 그냥 가버린 것에 실망한다. 지니는 알라딘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알라딘은 둘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니에게 부탁한다. 지니는 공주의 방을 찾아가 노크를 한다. 달리아는 지니를 보며 궁내 병사들이 48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본다. 지니는 꽃다발을 달리아에게 주며 선물이라고 말한다. 달리아는 공주의 마음을 얻으려면 진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알리 왕자에게 전해 달라고 말한다. 지니는 달리아에게 저녁 공기가 신선한데 산책을 제안하고 지니에게 반한 달리아가 지니를 따라 나선다.

잠시후 공주의 방에 노크 소리가 들리고 알리 왕자가 들어간다. 자스민이 방에 어떻게 들어 왔는지 물어보고 알리 왕자는 마법양탄자를 타고 왔다고 말한다. 자스민은 지도에서 아바브 왕국을 찾을 수 없다고 알려 달라고 말한다. 알리 왕자가 자스민에게 다가가자 호랑이 라자가 움직인다. 자스민이 라자에게 알리 왕자는 다리가 있어야 춤을 추니깐 먹지 말라고 말한다. 알라딘이 지니에게 아바브와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자 지니가 요술로 자스민의 지도에 아바브와를 새겨 넣는다. 알라딘이 자스민의 지도 한켠에서 손가락을 짚으며 나라를 가르키자 자스민이 놀란다. 알리 왕자가 공주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아니라고 말한다. 알리 왕자가 이야기 도중 물건을 떨어뜨려 그것을 주으려 하자 호랑이 라자가 다가와 얼굴을 핥는다. 알리 왕자는 공주에게 책과 지도가 아니라 세상은 직접 보는 것이라고 말하며 공주에게 나가자고 말한다. 자스민 공주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자 알리 왕자가 반드시 문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난간에서 아래로 뛰어 내린다. 매우 놀란 자스민앞에 알리 왕자가 마법양탄자를 타고 위로 올라온다. 알리 왕자는 자신을 믿는지 물으며 자스민의 손을 잡아 이끈다. 알리 왕자는 자스민과 함께 마법양탄자를 타고 하늘로 날

아간다. 두사람은 마을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알리 왕자는 때로 관점을 다르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자스민은 백성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다. 알리 왕자는 백성들에게는 자스민 공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자스민은 알리 왕자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알리 왕자는 자스민 공주의 머리를 쓸어 넘긴다. 자스민이 눈치를 채고 귀여운 원숭이가 아부가 맞는지 확인한다. 자스민은 이름이 몇 개고 알라딘과 알리 왕자는 누구인지 묻는다. 자스민은 그때 도망칠 때 아그라바 시내길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아그라바에 빨리 도착해 직접 경험을 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공주도 처음 만났을 때 변장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닌지 되묻는다. 알라딘은 좀도둑이 어떻게 코끼리와 마법양탄자를 가질 수 있냐고 말한다. 자스민은 왜 알라딘을 못알아 봤는지 묻고 알라딘은 사람들이 왕족의 내면에는 무관심하다고 말한다. 자스민은 알라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두사람은 아름다운 키스를 한다. 두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던 앵무새 이아가가 흥미를 느끼며 돌아간다.

알라딘은 지니에게, 자스민은 달리아에게 서로가 최고였다고 고백한다. 지니가 마법은 겉모습만 만드는 것이고 진짜 모습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한다. 달리아는 왕자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으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묻는다. 알라딘은 공주에게 자신이 진짜 왕자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지니는 결국엔 공주에게 진실을 말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알리 왕자가 아부와 함께 복도를 걷고 있는데 하킴과 병사들이 알라딘을 자파에게로 끌고 간다. 의자에 포박된 알리 왕자가 알라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자 자파가 알라딘이 자신의 보물을 가져 갔다고 하면서 램프의 행방을 묻는다. 재빠르게 빠져 나온 아부가 램프를 가지고 마법양탄자위에 오른다. 자파가 발코니 끝에서 알라딘을 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알리 왕자면 죽을 것이고 살아 있으면 램프의 힘이라고 말하며 자파가 지팡이로 알라딘을 밀어 버린다. 알라딘은 바다속에 빠져 가라 앉는다. 아부가 물속으로 램프를 떨어 뜨리고 알라딘이 램프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정신을 잃지만 지니가 램프에서 나온다. 지니가 알라딘은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을 두 번째 소원으로 빈다는 문서를 만들고 알라딘의 서명을 받은 뒤 알라딘을 방으로 데리고 간다. 램프의 요정은 램프의 주인의 허락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라딘을 구하기 위한 부득불한 조치였다. 알라딘은 지니가 생명을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때, 자파는 술탄에게 알리 왕자가 아그라바를 침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밤 도망했다고 거짓보고를 한다. 기다리던 자스민은 자파에게 직접 들었는지? 알리 왕자가 도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묻는다. 자파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자스민 공주가 자파의 말이 맞다면 도망한 알리 왕자가 이곳에 왜 있는지 묻는다. 알리 왕자는 술탄에게 자파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을

고한다고 말한다. 자스민은 자파가 알리 왕자를 죽이려 했다고 말한다. 술탄이 자파에게 해명을 요구하는데 자파가 지팡이로 최면을 걸어 자신이 원하는대로 술탄이 말하도록 조종한다. 알리 왕자는 자파가 지팡이를 이용해 최면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팡이를 파괴해 버린다. 그러자 술탄이 최면에서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온다. 알리 왕자는 술탄에게 자파가 최면을 걸어 술탄을 조종한 사실을 고하고 왕좌를 노리고 있음을 말해 준다. 술탄은 하킴에게 자파를 지하감옥에 투옥하라고 명령한다. 자파는 하킴에게 권력은 모래알처럼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한다. 하킴은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돌아가는데 자파의 앵무새 이아고가 감옥으로 날아 든다.

술탄은 알리 왕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술탄은 알리 왕자의 명예와 신분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술탄은 왕자중에 가장 진실한 청년이라고 말하며 공주가 괜찮다면 아들처럼 대하고 싶다고 말한다. 방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지니에게 알라딘은 없고 이제 알리 왕자만 남게 되었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지니는 공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채 거짓 인생을 계속 살아 갈 것인지 되묻는다. 알라딘은 자기 같은 사람은 거짓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지니는 거짓으로 많이 얻으면 진짜 알라딘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지니는 만년을 사는 동안 주인을 친구라 부른 것은 너뿐이라면서 지금의 현실을 안타까워 하며 램프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알라딘이 램프를 챙겨 왕궁을 나간다. 숨어서 지켜보던 앵무새 이아고가 램프를 외치면서 날아간다. 알라딘의 앞 길을 자파가 막아서며 램프를 훔쳐 간다. 램프를 훔친 자파가 램프를 문지르자 지니가 나온다. 알라딘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왕자가 아닌 것을 공주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다짐한다. 술탄과 자스민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자파가 술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한다. 술탄이 하킴에게 자파를 잡으라고 명령하자 자파가 램프를 문질러 지니를 불러낸다. 모든 사람 앞에 지니가 나타나자 당황해 한다. 자파가 자신의 첫 번째 소원은 아그라바의 술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지니는 자파를 술탄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때서야 알라딘은 자신의 가방에서 램프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다. 술탄은 하킴에게 자파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지만 하킴은 다시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자파의 지시에 복종한다. 자파는 시라바드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자스민 공주가 전쟁은 않된다고 말하자 자파는 경비병에게 공주를 끌고 가라고 명령한다. 자스민 공주는 무거운 법과 규칙들이 족쇄처럼 움아매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한다. 공주는 하킴을 불러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우며 정의로운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자파는 충성과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자스민 공주는 아그라바 왕국이 자파의 손에 파괴되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볼 것인지 하킴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하킴은 자스민 공주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파를 체포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자파는 램프를 문질러 지니에게 자신을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지니는 그 소원을 들어준다. 알라딘이 궁내에 도착하여 뒤에서 숨어 지켜 본다. 지니는 알라딘에게 하지 말라고 손짓을 한다. 자파는 하킴을 크게 기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필요없어 졌다고 말하면서 지하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알리 왕자가 램프를 다시 잡으려 하자 앵무새 이아고가 소리치고 자파가 즉시 알리 왕자의 동작을 제어하고 이제 알리 왕자가 아니라 알라딘이라고 말한다. 자파는 알라딘이 왕자 행세를 하고 있었고 알리 왕자는 거짓이라고 말한다. 자파는 알라딘을 세상 끝으로 보내 고통스럽게 죽이겠다고 하며 지팡이를 휘두른다. 알라딘은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낯선 땅으로 사라지고 지니는 마법양탄자를 알라딘이 거한 곳으로 보낸다. 자파는 모두 죽여 버릴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장 약한 복수라고 말하며 술탄이 고통받기 위해 자스민 공주와 결혼을 발표한다. 달리아가 앓된다고 말하자 자파는 달리아에게도 고통을 안겨 준다. 자스민 공주는 자파의 원대로 할테니 그만 하라고 소리 지른다.

한편, 알라딘은 아부를 구출한후 도피하려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데 마법양탄자가 나타나 그들을 구한다. 아그라바 왕국에서 약식으로 자파와 자스민 공주의 결혼식이 거행된다. 자파는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서두르고 공주는 자파에게 다가가 환심을 사는 듯 하다가 램프를 가지고 난간에서 뛰어 내린다. 자파가 난간에서 확인하는데 마법양탄자가 나타나 공주를 태우고 하늘로 오른다. 자파는 앵무새 이아고의 몸집을 키워 두사람을 공격한다. 공주가 램프를 놓치자 아부가 뛰어 내려 램프를 찾으러 간다. 아부가 램프를 가지고 앵무새 이아고의 공격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다. 알라딘이 건물위로 뛰어 램프를 건네받고 뛰어 내리는데 이아고가 다시 램프를 낚아채 날아간다. 이 틈에 술탄이 뒤에서 자파를 밀어 버리자 자파가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이아고의 몸집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 아부가 다시 램프를 빼앗아 마법 양탄자에 올라 탄다. 자파가 떨어뜨렸던 지팡이를 다시 잡고 기상을 조종하자 알라딘과 자스민이 타고 가던 마법양탄자가 찢어지면서 궁으로 되돌아와 버린다. 자파는 다시 램프를 찾고 지니를 불러 낸다. 자파는 술탄과 자스민과 달리아를 공중에서 붙들어 놓고 있다. 자파가 램프는 자신의 소유이고 힘도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자파가 찾는 것은 램프안에 없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자파도 자기처럼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자파가 자신은 술탄이고 세계 최고의 마법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라딘이 자파에게 누가 술탄으로 만들어 준것인가? 누가 자파를 마법사로 만들어 준 것인가? 알라딘은 자파보다 힘을 더 가진 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니는 자파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가장 강한 것은 언제나 지니이고 자파는 늘 2인자라고 말한다. 알라딘의 말에 분노한 자파는 마지막 소원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지니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되게 해 달라고 말한다. 지니가 자파의 소원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자파를 가장 힘있는 존재로 만든다. 자파가 사라바드를 멸망시키

겟다고 힘을 모으는데 자파의 팔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 알라딘은 지니에게 경이로운 힘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사는 곳은 정말 램프만하다고 농담을 한다. 지니는 자파를 바라보며 주인없는 지니는 램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램프가 나타나고 자파는 앵무새 이아고와 함께 램프속으로 사라져 간다. 지니는 자파에게 천년동안 신비한 동굴에서 지내다 보면 진정될 것이라면서 램프를 동굴속으로 던져 버린다. 아부가 찢어진 마법양탄자를 들고 지니에게로 간다.

술탄은 알라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알라딘은 오히려 술탄과 공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에게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자스민이 알라딘을 부르고 알라딘은 공주에게 원하는 것을 꼭 찾기 바란다고 말한다. 알라딘은 램프를 들고 돌아 선다. 지니는 아부가 가져온 마법 양탄자를 원래대로 복원한다. 지니가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알라딘의 마지막 소원은 왕자에서 전사 알라딘 왕자로 하자고 말한다. 지니는 아그라바 법률을 보여주며 반드시 왕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법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알라딘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지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지니의 손목에 있던 족쇄가 끊어진다. 인간이 된 지니가 당황해 한다. 지니가 마법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먹히지 않는다. 알라딘은 지니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지니는 함께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달리아에게로 간다. 달리아가 자스민 공주를 바라보자 공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달리아와 지니는 함께 새로운 삶의 여행을 출발한다. 술탄은 자스민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술탄은 그동안 왕비처럼 공주를 잃어 버릴까 두려웠다고 말한다. 술탄은 이제 공주에게서 용기와 힘을 보았다고 말하며 든든해 한다. 술탄은 자스민 공주가 아그라바의 미래이며 술탄이라고 말하면서 반지를 건네준다. 아버지는 술탄은 이제 법을 바꿀수 있고 알라딘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알라딘은 궁을 나와 자스민의 머리핀을 보며 거리를 걷는다. 자스민이 알라딘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자스민이 알라딘에게 키스를 하고 두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알라딘에 관한 영화는 많이 나와 있다. 역시 디즈니의 힘이다. 평범한 사람이며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알라딘이 공주를 사랑한 이야기는 역시 영화답다. 마법양탄자를 타고 아주 작은 램프속에 거인이 산다는것도 흥미롭긴 마찬가지다. 역시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인기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천만명을 넘긴 알라딘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진실"이다. 역시 외모와 재력과 권력과 배경보다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리며 살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앞에서 그 분을 바라보는 진실 만큼은 세상에 버려두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진실의 램프다.

25. “나랏말싸미”The King's Letters 2019

한국영화, 장르:역사, 개봉:2019.07.24.

감독,각색:조철현, 제작:영화사 두둥,

주연:송강호,박해일,전미선,

관객:954,296명(2019.08.27.기준)

가뭄으로 인하여 “세종대왕”(송강호역)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신하가 한문을 기도문으로 낭독하자 세종이 우리말로 낭독하라고 말한다. 잠시후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 들고 흐려지기 시작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세종대왕은 자신이 만든 책을 밖으로 내던진다. “소현왕후”(전미선역,고인)가 어렵게 만든 책을 왜 버리는지 묻자 세종대왕은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백성들이 보지 못한다면 쓰레기라고 분노한다. 세종대왕이 문자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한다. 소현왕후가 지혜로운 신하가 있다고 말하자 세종은 한문으로 지식을 독점하던 신하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사신단이 세종을 알현한다. 일본사신단 “승려”(강수호역)가 조선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배하는 나라로 선대왕이 주기로 약속한 팔만대장경 원판을 달라고 말하는데 세종은 나라의 보물이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그날밤 “세자”(김준한역)는 세종에게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다. 세종은 “수양”(차래형역)과 “안평”(윤정일역)에게 술을 권한다. 다음날 신하들이 팔만대장경을 일본사신단에게 줄 것을 요구하지만 세종은 우리에게는 필요없는 것이라도 왜구에게는 신물과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기도 대사암, 소현왕후가 대사암의 “노승”(오현경역)을 만나 팔만대장경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노승은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설법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 책임자에게 맡겨 보자고 말한다. 해인사에서 “학조”(탕준상역)는 해인사 큰스님의 서신을 “신미”(박해일역) 스님에게 전달한다. 신미 스님이 서신을 읽은 후 한양으로 향한다. 한양 동평관에서 일본사신단 승려들이 선대왕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신미 스님과 학조, “학열”(임성재역)은 일본승려들과 함께 회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신미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관리하는 부처의 제자라고 소개한다. 일본사신단은 팔만대장경을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식솔들까지 죽게 된다고 말하며 간절하게 요청한다. 신미스님은 팔만대장경의 주인이 임금도, 신하도, 중도, 아니고 백성들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허락을 받아오면 주겠다고 말한다.

일본사신은 고려도 16년만에 완성했는데 일본은 그것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말하자 신미스님은 백년이 걸려도 직접 만들어야 불경이라고 말한다. 일본사신단 문제를

해결하고 세종대왕앞에 나선 신미 스님이 절을 하지 않는다. 신미 스님은 나라에서 중을 개취급하니 국법에 따라 개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일본 사신단앞에서 했던 능엄주를 요청하고 학조가 암송을 하자 세종이 글씨로 써달라고 다시 요청을 한다. 학열이 산스크리트어로 글을 쓰자 세종이 소리글자인지 묻는데 묵언수행중인 학열이 답을 하지 않는다. 세종이 신미에게 일본사신단과 산스크리트어로 대화를 한 것인지 묻자 학조는 신미 승은 산스크리트어, 파스파 문자, 티벳어로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신미는 천년전에 만들어진 언어의 원리가 팔만대장경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한다.

세종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중국서적을 다 보았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데 자신을 도와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신미가 자신은 역적의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소현왕후가 자신도 역적의 딸이라고 말한다. 세종의 제안에 신미는 한양 사대문내에 사찰을 건립해 달라고 말한다. 세종이 망설이다가 약속을 하고 대신에 세종은 공자를 내려 놓고 신미는 부처를 내려 놓아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미는 자신은 부처를 타고 임금은 공자를 타고 오라고 되받는다. 경기도 대사암에서 노승은 신미에게 조용하게 처리할 일을 소란스럽게 했다고 어깨를 때린다. 신미가 두 번 맞은 뒤 오늘은 여기까지 맞겠다고 말하고 노승은 자리를 떠난다.

수양과 안평이 글자를 만들기 위해 연구한 책을 신미에게 보여준다. 신미는 소리글자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왜 뜻 글자를 하는지 묻는다. 신미는 산스크리트어는 50개, 파스타문자는 41개, 티벳어는 3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신미는 수양과 안평에게 한지를 주면서 우리말 수집부터 시작하자고 말한다. 안평이 글씨는 학열이 쓰고 글씨로 쓰지 못하는 것은 학조가 암기하기로 위임한다.

세종은 집현전 "정인지"(최덕문역)를 만나면서 집현전도 예전같이 앓다고 말한다. 세종은 집현전에서 책도 만들고 술도 마시곤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정인지는 신미가 일본사신단을 만난 이후로 집현전 학자들이 의심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세종이 야밤에 임금과 독대하면서 겁박하는 것인지 묻고 정인지는 왕도 넘을 수 없는 금도가 있다고 말한다. 세종은 신미에게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문자를 만들자고 말한다. 신미는 왜 문자를 만들려 하는지 묻고 세종은 고려처럼 망하지 않으려고 만든다고 말한다. 문자의 독점을 막고 모든 백성들이 문자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능엄경을 읽고 누가 주인이고 나그네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신미는 백년전에는 왕도 중에게 절을 했는데 지금은 주인도 나그네도 없다고 말한다. 세종은 수양과 안평에게 신미를 스승으로 대하라고 명령한다. 소현왕후는 궁녀들에게 교태전에서 지낼 승려들의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하라고 지시한다. 다음날 궁녀 "이진아"(금새록역)가 학조에게 일찍 일어난 이유를 묻고 학조는 마당을 청소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진아는 교태전에서 입을 옷을 건네는데

승려들이 내관복을 입으려 하지 않자 신미가 옷을 입자고 다독거린다. 신미는 세종에게 산스크리트어, 파스파문자, 티벳어로를 기초로 자모음 39개로 분류했다고 보고한다. 세종이 천문도를 보여주며 수많은 별들도 28개로 압축을 했는데 문자의 수를 더 줄이기를 원한다. 신미가 소리에 글자를 맞추어야지 글자에 소리를 맞추면 사라지는 말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말한다. 세종은 문자를 점과 가로획, 세로획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새 문자는 점과 직선으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신미와 승려와 수양과 안평은 각자의 방법으로 한 붓 그리기, 두 붓 그리기, 세붓 그리기를 하며 직선으로 문자를 만든다.

점심식사 시간, 수양과 안평은 고기반찬을 먹는다. 학조가 늘 똑같은 밥이라고 투정하자 자신들의 고기반찬을 승려의 상앞에 내 놓는다. 신미가 힘든일 하는데 풀만 먹고 살수 있는가 하면서 고기를 먹자 다른 승려들도 같이 먹는다. 조회에 세종이 나오지 않자 대신들이 불평을 하고 세자는 임금이 지병으로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을 한다. 세종은 교태전에서 함께 문자를 연구중이다. 세종은 어금니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 한다. 차를 가져온 이진아에게 어금니에 손가락을 넣고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데 이진아가 임금의 입에 손가락을 넣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세종은 대신 학조의 입에 손가락을 넣고 모양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학조는 소리가 날 때 낮이나 곡괭이처럼 꺾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세종은 낮에 착안하여 기억을 가리킨다. 새벽에 학조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이진아가 학조에게 누룽지를 주면서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다. 세종과 신미는 어금니 소리 기억, 혀소리 니은, 입술소리 미음, 이소리 시웁, 목구멍소리 이영을 만든다. 신미가 이제 시간문제라고 말하는데 세종은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휴식시간 수양과 안평이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들으며 학열은 묵언수행을 중단하고 대군에게 조금전 소리를 다시 연주해 달라고 말한다. 학열은 같은 소리지만 조금씩 다르게 들린다면서 글자에 한 획씩 추가하여 시웁에 지웁, 치웁을 응용한다.

소현왕후는 교태전에 법당을 세우고 기도를 한다. 소현왕후는 신미에게 역적으로 몰려 아버지가 죽은지 30년만에 천도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감격해 한다. 그러나 중전은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다. 세종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자신이 만든것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중전을 만나러 왔다가 대화중인 것을 알고 되돌아 간다. 세종이 목욕을 하는데 소현왕후가 오랜만에 왕의 몸을 씻겨 준다. 소현왕후는 세종이 12세, 자신이 14세때 목욕하는 것을 싫어 했다고 말한다. 세종은 소현왕후에게 같이 들어와서 목욕을 하자고 말한다.

세종이 조회에 참석한다. "고약해"(정해균역)는 임금이 지병으로 조회에 못왔다고 들었는데 혈색이 너무 좋다고 빈정거린다. "최만리"(남문철역)는 도성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 진다고 말한다. 중전의 궁궐에서 염불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다. 최만리가 교태전을 수색하여 사실이라면 중전을 탄핵하겠다고 말하자 세종은 자신을 탄핵하라고 소리친다. “세자”(김준한역)가 신미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 술도 마실수 있는지 물어 본다. 신미는 세자에게 종과 내시가 다른 점은 내시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종은 할 수 있지만 양하는 것이라고 응수한다. 세자는 신미에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신미는 이제 주상이 그만하자 해도 자신이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어의는 세종에게 술을 끊어야 하고 기름을 뺀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며 과도하게 무리하면 왼쪽 눈 마져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소현왕후는 임금이 술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종은 소현왕후에게 신하들의 의심으로 궁에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소현왕후는 궁밖에서 계속할 것을 제안한다. 소현왕후는 신미를 속리산 북천사로 내려 보낸다. 세종은 조회시간에 그동안 교태전에서 문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충청도 초수에 내려가 눈병을 치료하겠다고 말한다. 세종은 소현왕후와 함께 충청도 초수로 내려간다. 어의는 광천수의 기포가 터지면서 망막을 자극하여 치료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북천사에서 모음작업 진행상황을 물어 본다. 신미는 문자가 해결되기 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세종도 끝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초수행궁에 신하들이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의관을 가지고 찾는다. 신하들은 세종대왕이 한자를 버리고 문자를 새로 만들면 명나라가 노여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날밤 세종은 신하들이 가져온 의관을 찢다가 쓰러진다. 어의는 세종대왕이 소갈증 때문에 결석이 생겼다고 말한다.

속리산 북천사에서 학조는 이진아를 생각하면서 땅에 “ㄴ ㄱ ㅅ ㅈ”라고 쓴다. 학열은 보고싶다라고 읽는데 학조는 보기싫다라고 적은 것이라면서 가 버린다. 수양과 안평은 신미에게 왜 점에만 집착하는지 묻는다. 수양과 안평이 산스크리트, 파스파, 티벳어 글자를 접목하자고 말하는데 신미는 그런 문자를 만들 것 같았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 신미가 누워서 천장의 대들보와 서가래를 바라보면서 작대기 하나만 더 굵기로 결정한다. 신미가 북천사를 나와 초수행궁을 찾는다. 신미는 자음, 모음 28자를 만들고 원리를 설명한다. 세종이 첫 번째 점을 빼자고 하자 신미는 근원이 되는 점이라 뺄 수 없다고 말한다. 학조가 황소의 “음메~”하는 소리도 좋고 “옴마니반메훔”의 소리도 좋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세종은 점을 살리자고 말한다. 세종이 청산별곡을 자음과 모음으로 쓴 뒤에 읽어 보는데 읽는 것이 어렵다. 안평이 한자는 한눈에 들어오지만 새 문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신미가 자음과 모음을 함께 적는다. 그러자 한눈에 글자를 알아 볼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2%부족이다. 학조가 첫소리 자음에 이영을 쓴 뒤에 옴마니반메훔을 완성하자 세종은 만족한다. 문자를 완성한 후 학조는 이진아에게 이름을 가르쳐 준다. 이진아는 자신의 이름에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간다고 좋아한다. 세종은 궁으로 돌아가 문자를 실험하기로 한다. 소현왕후는 교태전 궁녀들에게 새 문자를 배우고 익혀

사가에 널리 반포하라고 말한다.

세종은 집현전 정인지를 만나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문자를 유학자들이 받으라고 말한다. 신미는 세종에게 새 문자의 창제원리와 사용법을 책으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세종은 이제 유학자들의 힘을 모을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신미가 이제 와서 세종이 유학자들과 야합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세종은 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야합이라고 볼 것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새 문자의 공을 유학자들에게 돌려야 천년을 가는 문자가 된다고 말한다. 신미는 백성들의 마음에 문자를 심으면 누구도 없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세종은 조선은 태생부터가 공자의 나라라고 말한다. 신미는 부처에게 애걸하고 공자에게 복걸한다면 세종에게 분노한다. 신미는 세종에게 왕노릇이나 바로 하라며 분노를 삭이지 못한다. 세종은 신미에게 물러가라고 말하고 신미는 세종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말하며 떠난다.

경기도 대사암, 신미가 해인사로 가기전 대사암 큰스님과 마지막 대면을 한다. 노승은 신미의 머리를 한 대 때린 후 수염을 깎으라고 말한다. 해인사로 돌아온 신미는 팔만대장경을 관리한다. 소현왕후는 세종에게 이제 와서 신하들 눈치를 왜 보는지 묻는다. 소현왕후는 신미를 다시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데 세종이 망설이자 수양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려 한다. 세종은 세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려 한다. 세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세종은 문자를 만드는 것 보다 지키고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수양대군의 집에 기거하던 소현왕후는 식음을 전폐한다. 수양이 궁으로 돌려 보내려 하자 소현왕후는 궁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소현왕후가 죽고 수양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임금에게 전한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라. 고기를 끊지 말고 먹어라." 세종은 다시 신미를 궁으로 부른다. 세종은 소현왕후가 신미를 부른 것이라고 말한다. 신미는 진짜 대장부는 중전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새 문자의 창제원리와 방법을 책으로 만들자고 말한다. 신미는 세종에게 반포하는 것은 유학자와 하라고 말한다. 세종은 늦었지만 절을 짓고 중전의 천도제를 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신미는 중전이 궁녀들에게 글알 가르친 것을 들었다고 말한다. 신미는 세종에게 반포와 천도제가 끝날 때 까지 살아 있어라고 말을 한다. 신미는 창제원리와 사용법 작성을 완료하고 세종대왕은 새 문자의 이름을 언문이라고 말한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소현왕후를 위해 법당을 짓겠다고 말하자 신하들이 반발한다. 세종이 정인지에게 신미가 쓴 창제원리와 사용법을 건네며 불승의 그림자를 지우고 유학자의 언어로 만들라고 지시한다. 정인지는 새 문자의 언어는 집현전에서 하겠다고 말한다. 세종이 서문은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 말한다. 세종은 서문을 작성한 후 몇글자인지 묻는데 109자라는 말에 한자를 줄여 108자를 완성한다.

유학자들은 소현왕후의 천도제는 반대를 하지만 신미는 소현왕후의 천도제를 시작한다. 천도제에서 학조가 월인천강지곡을 부른다. 대신들이 노래소리를 듣고 임금이 불자가 되었다고 탄식한다. 임금은 불경이 아니라 월인천강지곡이라고 말하는데 신하들은 고려도 이단에 미혹되어 망했다고 말한다. 임금은 부처의 말도 진리라면서 서로 이단이라고 저주하다가 망한 것이라고 말한다. 임금은 공자와 부처가 만났어도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궁궐옆에 절을 짓는다고 이 나라가 망하는지 되묻는다. 신미는 천도제에서 궁녀들과 승려들에게 언문을 조선에 널리 반포하고 꽃을 피우자고 말한다.

집현전 정인지는 임금에게 어명에 따라 훈민정음의 창제원리와 사용법 작성을 완료했다고 보고한다. 세종이 반포하라고 명령하자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다. 세종은 자신은 유학자도, 불자도 아니라 그저 늙고 병들어 가는 임금일 뿐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이 책을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 달라고 신하들에게 말하지만 신하들은 모두 일어나 책을 버려 두고 나간다. 그 가운데 딱 한사람 고약해는 책을 들고 돌아간다. 세종은 대군들과 함께 소현왕후의 천도제에 참석한다. 임금은 훈민정음 창제원리 책을 올리고 절을 한다. 세종은 신미에게 백성들이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책을 만들었지만 정작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고백한다. 세종은 신미에게 해 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신미는 세종이 많은 것을 주었다고 말한다. 훈민정음 서문을 108자로 쓴 것은 백팔번뇌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미가 언문은 주상이 다음 세상에 남기는 팔만대장경이라고 말한다. 신미는 먼 훗날 언문에 성인의 뜻과 생각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하며 세종에게 고개를 숙인다.

영화는 끝이 났다. 1443년, 불굴의 신념 하나로 한글을 창제하였으나 역사에 조차 기록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우국이세 혜각존자"(祐國利世 慧覺尊者), 세종이 유언으로 신미스님에게 남겼다는 이 말은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 지혜를 깨우쳐 반열에 오른 분이라는 법호이다. 무슨 일든지 숨은 일꾼들의 헌신이 있게 마련이다. 때로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의 뒤편길에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는 불교적 색채로 인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지도자의 품격이 어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을 우선하려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적 신념이 있다. 신념보다 강한 기독교세계관을 바로 세우고 복음 진리의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26. "엑시트"EXIT

한국영화, 장르:액션,코미디, 개봉:2019.07.31.

감독,각본:이상근, 제작:(주)외유내강,

주연:조정석,윤아,

관객:8,480,712명(2019.08.27.기준)

"용남"(조정석역)이 동네 놀이터에서 철봉운동을 하고 있다. 동네 할머니들은 용남을 지지해 주고 "지호"(김강훈역)와 친구들이 용남을 동네 바보라고 놀려댄다. 용남이 천재였는데 철봉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모자라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워 한다. 용남이 지호를 보고 부르는데 지호는 모르는 사람인양 자리를 떠난다. 용남이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불합격이 되어 "기백"(김강현역)을 만나 신세를 한탄하며 술을 마신다. "현옥"(고두심역)이 티비를 보며 레시피를 적고 있다. 남편인 "장수"(박인환역)가 드라마를 보려고 채널을 돌리려 하자 현옥이 화를 낸다. 딸 "정현"(김지영역)이 반찬통을 가지고 엄마집을 찾는다. 아이들이 할머니 반찬을 좋아한다면 김치를 찾고 있다. 정현은 용남의 옷장에서 양복상태를 확인하고 머리를 깎으라고 돈을 건네준다. 정현이 엄마 칠순잔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별볼일 없으면 단정한 모습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용남이 만원을 던져 버린다. 정현이 옷장 옆에서 산악용 장비들을 발견하고 심마니 할거냐고 잔소리를 한다. 용남이 누나(정현)를 밖으로 내 보내고 장비를 정리하며 5년전을 기억한다. 5년전, 산악부 동아리에서 기백이 신입생들에게 클라이밍 교육을 하고 있다. 클라이밍을 할 때 루트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기백이 말한다. 용남과 의주가 인공암벽을 오르던 중 용남이 무리하게 점프하다가 떨어지고 의주는 끝까지 올라간다.

다음날 아침, 용남은 잔치에 갈 준비를 서두른다. 엄마 현옥은 용남의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하는데 용남이 자기 머리라고 짜증을 낸다. 아버지 장수가 늦었다면서 두 사람을 재촉한다. 용남이 운전을 하며 가까운 곳 두고 멀리도 간다면서 잔소리를 한다. 누나들이 구름정원에 도착해 부모님을 기다린다. 정현은 친척들에게 용남을 인사시킨다. 용남이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사촌여동생 "용혜"(신세휘역)가 용남 오빠에게 안부를 묻는다. 용남은 숨쉬고 먹고 자고 싸면서 산다고 말한다. "용민"(배유람역)이 육회가 하나도 없다면서 김밥을 엄청 들고 온다. 용남이 뷔페에서 웬 김밥이냐며 놀려댄다. 용민은 김밥중독이라고 응수한다. 용혜는 용남이 걱정되지만 용민은 용남이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한다. 가족들의 기념촬영이 있다. "구진한"(강기영역) 점장이 케익커팅식을 한다. 대기하던 "의주"(윤아역)가 앞으로 나와 촛불에 불을 붙이는데 의주가 용남을 바라보고 가족들도 용남을 돌아본다.

용남과 의주가 비상계단에 서 있다. 의주는 구름정원의 부점장이다. 의주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알고 왔는지 묻고 용남은 평이 좋아서 온 것일뿐 의주가 있는지는 물렸다고 말한다. 의주는 용남에게 집에서 멀지 않는지 묻는데 용남은 네비로 1시간 30분이라 별로 안멀다고 느스레를 떠난다. 의주는 용남이 무슨일을 하는지 묻는다. 용남은 벤처기업 과장이라고 소개한다. 의주는 용남을 4년만에 다시 만났는데 편하게 대해줘 고맙다고 말한다. 4년전, 용남은 의주에게 사랑고백을 했는데 의주는 오빠 동생으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거절한다. 용남은 버스정류장에서 크게 울부짖는다. 의주가 그때 일을 기억하며 오빠가 그때 일로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용남이 태연한 척 벌써 잊은지 오래된 일이라고 말한다. 칠순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노래를 부르며 "첫째사위"(정민성역)가 장모 현옥을 업어준다. 뒤를 이어 용남이 엄마를 업으려는 순간 "셋째사위"(박성일역)가 다시 업어주고 용남은 멧쩍은 듯 박수를 친다.

의주가 잔치분위기를 보고 대기실로 간다. 직원들이 의주에게 언제쯤 끝날지 물어보는데 의주는 기약이 없으니 일찍 퇴근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말한다. 순간 구점장이 와 잔소리를 하고 의주에게 룸 상황을 물어본다. 의주는 한군데는 종료되었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잠시후 정리하겠다고 했고 라일락 룸은 아직 미정이라고 보고한다. 구점장이 부점장과 자신이 뒷정리를 하겠다면서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다. 구점장이 의주에게 갑자기 "자기야"라고 부르며 아침 특에 대한 답을 달라고 조른다. 의주가 자기야라고 부르지 말라면서 짜증을 내는데 알바생들이 온 것을 보고 말을 돌린다. 구점장은 의주에게 사무실에 있을테니 답을 달라고 말한다.

같은 시간, 트럭 한 대가 엔서화학 건물 입구에 도착한다. 남자는 자동차 키를 부수고 방독면을 착용한 후 가스탱크의 밸브를 모두 오픈한다. 남자는 밸브 핸들을 던져 버리고 방독면을 벗는다. 엔서화학 경비가 남자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말하는 순간 탱크안에 있는 가스가 유출되기 시작한다.

용남의 누나들이 노래를 부른다. 현옥은 비닐팩에 남은 음식들을 담고 장수는 가져온 가방에 술을 담고 있다. 용남이 이런 곳에서 그러다 들키면 창피라면서 말리는데 의주가 비닐팩을 가져다 준다. 가스는 점점 주위로 확산되고 사람들이 가스를 신기하게 보며 사진을 찍다가 쓰러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가스를 피해 도망하기 시작하고 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때마침 달리던 자동차가 주유소로 돌진하면서 대폭발이 발생한다. 의주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용남이 실직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용남이 백수라서 산악 동아리 모임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한다. 가스탱크를 싣고 가던 트럭이 달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교차로에서 정지한다. 그때 화재차량이 가스트럭을 향해 돌진하고 함께 충돌하면서 가스통이 하늘정원으로 순식간에 날아간다. 용남은 날아오는 가스통을 발견하고 가족들을 대피시킨다. 의주가 라일락 룸으로 달려와 상황을 점검한 후 비상벨을 울리고 사람들을 대피시

킨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1층으로 내려온다. 용남은 충돌한 자동차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다가 아수라장이 된 거리를 바라본다. 거리에는 가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고통속에 쓰러진다. 의주는 사람들에게 다시 건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용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하늘정원 빌딩으로 올라간다. 용남은 조카 지호를 데리고 가는데 지호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정현 누나가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 빨리 타라고 하는데 용남은 오히려 차에서 내려라고 말한다. 정현이 차에서 내리다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가스에 노출된다. 의주가 지호와 함께 건물안으로 들어간다. 하늘정원으로 올라온 현욱과 장수는 가족들을 한명씩 확인한다. 둘째딸은 언니와 지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주가 지호를 데리고 오고, 용남이 누나를 업고 들어온다. 용남이 테이블위에 누나를 눕힌후 119에 전화를 해 정체모를 가스에 중독되었다고 말한다. 의주가 119에게 라이온빌딩 6층이라고 말한다. 용남은 가족들에게 깨끗한 물로 몸을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의주와 함께 창밖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 용남은 가스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의주에게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용남이 가족들에게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나를 위해 간이 들것을 만들어 옥상으로 옮긴다.

용남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스위험때문에 모두 옥상으로 가야한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하고 모두 옥상으로 달음박질한다. 용민이 옥상에 올라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구점장이 1층 경비실에 키가 있다면서 "용수"(유수빈역)에게 가져오라고 말하지만 가스는 이미 1층을 넘어 위쪽으로 올라 오고 있다. 출입문은 안에서 키로 열거나 밖에서 열어야 열리도록 되어 있다. 용남의 형제들이 하늘정원에서 문을 열수 있는 것을 찾는데 가스테러 뉴스가 티비에 나온다. 방송을 본 구점장이 몰래 이동하여 가지고 있던 방독면을 모두 은닉한다. 아나운서가 신형방독면 착용후 빠른 호흡으로 10분, 느린호흡으로 15분동안 생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의주는 하늘정원 사무실에 있던 방독면 3개를 찾는데 없자 구점장에게 물어 보지만 구점장은 거짓말을 한다. 뉴스에서 신형 바스켓 구조 헬기는 동시에 20명씩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용혜는 그러면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조된다고 걱정을 한다. 용수가 방독면만 있으면 1층에서 키를 가져 올수 있다고 말하자 구점장이 갑자기 숨겨둔 방독면을 찾았다고 말하며 가져 온다. 그러나 용수가 이제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거부해 버린다. 용남은 하늘정원에서 건너편 건물을 바라보며 밖에서는 분명히 문을 열수 있는지 물어본다. 의주는 용남에게 이걸 않된다고 만류하려 한다. 용남이 강화유리창을 향해 감사패를 두 번 던져 유리를 깨뜨린다. 용남은 건너편 건물과 외벽을 둘러 보며 의주에게 로프나 끈을 달라고 말한다. 용민과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용남의 무모함에 반대표를 던지지만 용남은 로프를 몸에 감은 채 건너편 건물로 점프를 감행한다. 용남이 건너편 건물 난간을 겨우 붙들고 매달려 있다. 용남이 건물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간다. 용남은 하늘정원의 구조를 보면서 루트를 정한다.

의주가 사무실에서 분필과 카라비너를 손수건에 싸 용남에게 던진다. 용남은 건너편 건물에서 하늘정원 빌딩으로 다시 이동한다. 용혜와 용민이 화상통화로 용남의 안전을 확인한다. 용남이 루트를 따라 이동하던 중 전등을 떨어뜨린다. 용남은 건물 측면의 사자상을 보고 점프를 하여 사자상의 이를 잡고 힘껏 당기는데 이가 부러져 버린다. 용남은 위험한 상황에서 다시 사력을 다해 옥상으로 올라간다. 용남이 옥상문을 열고 가족들은 모두 옥상으로 올라오고 아버지 장수는 다시는 나서지 말라고 염려한다.

가족들이 헬기소리에 소리를 지르며 구조요청을 한다. 의주가 용혜의 핸드폰 불빛 신호를 보며 SOS신호를 기억한다. 의주는 사람들을 H형태로 서게 한뒤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를 신호에 맞추어 하게 한다. CAB방송국 “보도국장”(배해선역)은 테러현장의 CC-TV를 확보하라고 말한다. SNB방송국에서 테러 용의자와 최초 사건발생 상황을 보도한다. 테러용의자는 응용화학분야의 양모씨라고 보도하며 현재 경찰은 양씨 소유의 가스시설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고 전한다. 양씨는 개인적 원인으로 엔서화학 가스테러를 한 것 같다고 보도한다. 하늘정원 옥상에서 SOS를 보내도 헬기가 오지 않자 용민과 용수가 엠프를 들고 옥상으로 가져와 하늘 방향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의주는 하늘정원 네온사인을 이용하기 위해 사무실로 내려가 SOS신호에 맞추어 전원차단기의 스위치를 작동한다.

구조헬기가 하늘정원 네온을 보고 구조바스켓을 내린다. 가족들이 정현부터 차례로 옮긴뒤 바스켓에 올라탄다. 의주가 옥상으로 올라오자 용남이 의주에게 먼저 타라고 말한다. 구조대원이 중량초과로 케이블이 끊어 질수 있다고 이륙을 서두른다. 용남은 자기 가족 때문에 의주가 헬기에 타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의주는 자신은 부점장이라면서 손님먼저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또 한 대의 헬기가 구조를 위해 다가 오자 의주가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다른 건물 옥상에 더 많은 구조자가 있는 것을 보고 방향을 돌린다. 용남은 높은 건물을 바라보며 앞으로 높은 빌딩에만 지원서를 내겠다고 말하고 의주는 백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는다. 용남이 건물옥상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면서 사무실로 내려가 불꽃과 로프와 비닐과 테이프와 방독면을 챙긴다.

병원으로 이송된 정현이 용남을 찾고 현옥은 용남이 오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가스가 상승하면서 하늘정원 옥상으로 향하고 있다. 용남과 의주는 방독면과 비닐과 고무장갑으로 무장하고 시간을 체크하면서 달려간다. 용남이 시간의 부족을 확인하고 의주와 함께 인근 건물옥상으로 올라간다. 용남은 정화통 교체를 한후 의주에게 기다리라고 한후 뛰어 내려간다. 남겨진 의주는 솟아 오르는 가스를 보며 높은 곳에 올라가 용남을 믿은게 잘못이라면서 욕을 한다. 한편, 용남은 지하철로 내려가 비상용품함에 있는 방독면 정화통을 챙겨 다시 건물 옥상으로 올라온다. 드론형제가 중

내천에서 드론을 사고현장으로 띄운다. 병원에서 뉴스를 보던 아버지 장수가 중내천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지만 거부를 당한다. "둘째 동생"(김종부역)과 "셋째 동생"(김병순역)이 장수를 말리지만 막무가내다. 장수가 셋째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데 셋째가 해병대 정신으로 챙겼다고 말한다. 때마침 해병대원이던 택시기사가 셋째 동생에게 경례를 하며 모두 탑승시키고 이동을 한다.

용남과 의주가 높은 건물을 찾아 올라가는데 옥상문이 잠겨져 있다. 헬스장으로 간 용남이 의주가 옆건물 옥상으로 올라오면 로프를 던져서 건너 가겠다고 말한다. 의주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용남은 정화통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의주가 만약 1층이 잠겨져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건너 가자고 말하고 둘은 같이 움직인다. 용남이 아령에 로프를 묶고 옆 건물로 던진다. 로프를 던진후 의주가 먼저 건너가 로프를 잡고 용남을 기다린다. 순간 1층 고기집의 환풍기를 타고 가스가 빠른 속도로 옥상으로 올라온다. 용남은 의주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헬스장으로 돌아간다. 용남은 무거운 케틀벨을 건너편으로 던진후 방독면을 쓰고 건너편 옥상으로 넘어간다.

티비 아나운서는 가스의 중화제는 물이지만 전지역에 뿌리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한다. 장수와 형제는 중내천에 도착하여 강 건너편을 바라 보다가 드론형제를 발견하고 돈을 주면서 아들의 위치를 부탁한다. 용남과 의주는 다른 더 높은 건물옥상으로 이동한다. 의주는 옥상에 있는 광고판과 마네킹을 이용해 119에 구조전화를 한다. 옆 건물의 학원학생들이 용남과 의주를 향해 구조를 외친다. 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잠겨있다고 말하는데 용남이 학생들에게 건물옆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고 말한다. 이번에도 구조헬기가 용남과 의주를 향했지만 의주는 울면서 옆건물의 학생부터 구조해 달라고 말한다.

인근 주유소가 2차 폭발을 일으키며 가스의 높이가 올라간다. 의주가 멀리 보이는 타워 크레인을 보며 이동을 시도한다. 용남과 의주가 건물 옥상을 자유롭게 뛰어 넘으며 달리는 장면을 드론이 촬영을 하고 이 영상은 장수에 의해 발견된다. 중내천에서 "경찰"(이동휘역)이 드론형제의 영상을 보고 매우 놀란다. "드론형제의 형"(오희준역)이 "CBA보도국장"(배해선역)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알려준다. CBA방송은 익명의 제보라면서 용남과 의주의 대피장면을 실시간 내 보낸다. 병원에서 용남을 기다리던 가족들이 TV에서 용남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유튜버들이 구조방송을 가속화 한다. 그러나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드론은 추락하고 영상이 끊어져 버린다.

용남과 의주가 타워크레인 근처 빌딩 옥상에 도착한다. 용남과 의주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빌딩을 보며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린다. 용남은 누나들이 멀다고 오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가 오자고 했던 것을 후회한다. 용남은 회사에 합격하여 멋지게 나타 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한다. 순간 하늘에서 수대의 드론이 날아와 가스가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도록 저지한다. 용남이 드론을 향해 손짓을 하고 드론이 가까이 오자 로프를 걸어 반대편 건물로 날아간다. 드론이 몇 번의 시도 끝에 공사 중인 건물 관로에 로프를 고정하는데 성공한다. 용남과 의주가 로프를 당겨 확인한다. 용남과 의주가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완등을 외치며 뛰어 내린다. 두사람은 로프를 타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다. 로프가 무게로 인해 빠지려 하자 의주가 가방속에서 절단기를 꺼내 용남에게 잡으라고 말한후 로프를 잘라 버린다. 두사람이 건물을 향해 떨어지는데 로프가 빠져 나간다.

잠시후 구조헬기가 현장을 수색하며 두사람을 찾는다. 헬기 조종사가 구조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순간, 구조대가 왼쪽 타워에서 불빛을 발견하고 위쪽을 확인한다. 용남과 의주가 타워 위를 향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구조 헬기가 두사람을 무사히 구조한다. 현옥은 정현에게 용남이 무사하다고 전한다. 용남과 의주가 안전지역으로 이송되고 지호는 삼촌을 부르며 달려가 안긴다. 용남은 엄마를 꼭 한번 업어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엄마를 업는다. 의주는 경찰에게 휴대폰을 빌린 후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 구점장이 의주를 보며 자기야 하며 달려오자 의주가 구점장을 때리며 하지 말라고 말한후 돌아간다. 용남은 의주에게 카라비너를 돌려주며 잘 썼다고 말한다. 의주는 지금은 더우니깐 나중에 달라고 한다. 용남은 의주의 마음을 눈치채고 카라비너가 무거우니 나중에 돌려 주겠다고 말한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유독가스는 점점 사라져 간다.

영화는 끝이 났다. 북한과도 그렇고, 일본과도 그렇고, 어느것 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는 한국 정치에 신물이 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코믹한 영화에 줄을 서고 있다. 용남과 의주는 보통사람이지만 그들에게겐 쉽게 끊어지지 않는 안전로프가 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국민의 평화와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사고가 터진 후 수습책을 찾는 사람들이 보통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에도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는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꼭 봐야 할 영화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도 좋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지혜로운 해법을 내 놓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다. 용남은 실업자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의주는 이벤트의 부지점장으로서 고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보호한 훌륭한 리더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말로 모든 일을 다하고, 행동에서는 "개독교"라는 지탄을 받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이지 편을 가르는 다툼에 참여할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27. “마담 싸이코”Greta, 2018

미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9.06.26.

감독,각본:닐 조단(Neil Jordan), 제작:로렌스벤더(Lawrence Bender)외

주연:이자벨 위페르(Isabelle Huppert,그레타 히텍역),

클로이 모레츠(Chloe Moretz,프랜시스 맥컬린역)

관객:42,742명(2019.08.07.기준)

“그레타 히텍”이 지하철에서 핸드백을 두고 내린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프랜시스 맥컬린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핸드백을 발견하고 가방속에서 신분증을 확인한다. 가방의 주인은 중년여성 그레타 히텍이다. 프랜시스가 분실물센터에 맡기려 했으나 역무원이 퇴근하고 잠겨져 있다. 프랜시스는 할수 없이 가방을 집으로 가져 간다. 프랜시스가 “에리카 펜”(마이카먼로, Maika Monroe)에게 내일 가방을 맡기겠다고 말하는데 에리카는 맨하탄에서는 폭발물처리반을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에리카가 가방의 내용물을 쏟아 부은뒤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이런 돈은 빨리 써야 한다고 술마시러 가자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돈은 않된다고 말한다. 프랜시스와 에리카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에리카가 프랜시스에게 아빠에게 전화했는지 묻는다. 프랜시스가 통명스럽게 해야 하는 건지 되물자 에리카가 아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울면서 일이 있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와 에리카가 영화를 본 후 귀가를 한다. 프랜시스가 엄마 좀 빌려 달라고 말하고 에리카는 제발 좀 데려 가라고 말한다.

다음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프랜시스는 그레타의 가방을 들고 집을 찾는다. 그레타는 프랜시스에게 가방을 찾았었다고 말하며 고맙다는 인사로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말한다. 그레타는 가방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보스턴 출신으로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레타가 커피를 가져와 준비하는 동안 “쿵쿵” 소리가 들린다. 그레타는 옆집에 리모델링공사로 소란스럽다고 조용히 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프랜시스가 액자를 보며 남편과 딸인지 묻고 그레타는 남편 크리스토프의 젊었을 때 모습과 딸 니콜라라고 말한다. 그레타는 피아노옆에 앉아 남편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다면서 리스트를 연주한다. 그레타는 남편이 먼저 떠난 이야기를 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 프랜시스가 강아지 사진을 보고 강아지를 키우는지 묻고 그레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만 한다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마음이 바뀌면 알려 달라고 그레타의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한다.

귀가한 프랜시스가 에리카와 이야기를 한다. 에리카는 음악을 들으면서 영적 경험을 하니 영혼까지 청결해 졌다면서 다음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데 프랜시스는 NO라고 답한다. 전화벨이 울리고 에리카가 받는데 그레타의 전화다. 그레타가 강아지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토요일 아침 10시에 함께 가자고 말한다. 프랜시스도 OK하는데 에리카가 잘 알지 못하는 노인인 쇼핑을 할 건지 되묻는다. 그레타와 프랜시스가 유기견보호소를 찾는다. 동물보호소 "직원"(제인페리)은 이곳에서 5일동안 보호하다가 찾는 이가 없으면 PTS(안락사)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레타가 PTS순서를 묻자 직원은 강아지 모튼을 가르키며 오늘이 마지막날이라고 설명한다. 그레타는 모튼을 살펴 본 후 모튼을 결정한다. 프랜시스도 그레타와 모튼의 사진을 찍어 주는데 그레타는 휴대폰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물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그레타에게 휴대폰 사진공유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레타가 프랜시스는 엄마와 아주 사이가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프랜시스는 엄마가 작년에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꿈에 남아있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귀가한 그레타가 노트북으로 프랜시스 페이스 북에 올랐던 사진을 확인한다. 그레타는 프랜시스에게 메시지와 함께 모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한다.

그레타는 성당에서 양초에 불을 붙인다. 남편 크리스토프가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오르간을 치기로 했었다고 말한다. 그레타는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거리를 걸으며 딸 니콜라에게 전화를 한다. 그레타는 니콜라가 모차르트 최연소 수상자로서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 있다고 말한다. 그레타는 딸 때문에 줄리어드를 좋아하고 되었고 지금은 파리음악원에 있다고 말한다. 귀가한 그레타가 피아노를 연주한다. 프랜시스는 그레타에게 고독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레타는 프랜시스도 떠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프랜시스는 친구들이 자기보고 너무 붙어 다녀서 풍선껌이라고 놀린다고 말하면서 그레타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에리카가 사이먼 포터를 기억하는지 묻는다. 정신세계가 이상하고 아빠가 뉴욕타임즈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프랜시스는 기억을 못한다. 에리카는 구두를 꺼내 보이며 오늘밤 파티에 같이 가자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그레타와 선약이 있어서 못간다고 말하고 에리카는 친구보다 그 노인여자와 저녁을 먹겠다는 것인지 되묻는다. 프랜시스는 그레타도 이제 친구라고 말한다. 에리카는 프랜시스가 마치 입양이라도 된 것처럼 이상해 진다고 말하지만 프랜시스는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걱정이 심한 에리카가 그레타에게 전화하려 하자 프랜시스가 전화기를 빼앗는다. 에리카는 모르는 여자가 엄마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되묻고 그레타는 엄마가 아니라고 격노한다. 프랜시스는 듣지 않은 걸로 하겠다면서 집을 나간다.

프랜시스는 그레타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한다. 프랜시스는 엄마가 알려준 호박과 바질 요리를 그레타에게 해 주는데 그레타가 맛있어 한다. 프랜시스는 케비넷에서 양초를 찾으려 하는데 안쪽에서 똑같은 여러개의 가방을 발견한다. 가방안에는 신분증과 약이 들어 있고 바깥에는 사만다 베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붙어 있다. 그 가

운데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가방도 있다. 프랜시스도 그레타의 눈치를 보며 가방을 못본척 양초를 찾는다. 그레타는 식사를 하면서 프랜시스 엄마 이야기를 한다. 프랜시스는 생각에 잠겨 있다. 그레타가 맛이 없는지 물어보자 프랜시스는 맛있다고 태도를 바꾼다. 그레타는 친구 에리카에 대해 물어 보는데 프랜시스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레타는 프랜시스가 화가 난 것 같아 보인다면 아픈지 묻는데 프랜시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다면 귀가 하려 한다. 그레타가 음식을 싸 주겠다고 말하지만 프랜시스는 괜찮다고 말한다. 무엇인가 달라 보이는 프랜시스의 행동에 당황한 그레타는 머리를 만지며 아픈곳이 어딘지 묻는다. 프랜시스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져 열리지 않는다. 그레타는 열쇠로 열어야 한다면 그릇에 키가 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열쇠로 문을 열고 환급히 집을 나간다.

귀가한 프랜시스는 에리카에게 그레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프랜시스는 도시 곳곳에 가방을 일부러 버려 두고 돌려 주러 오기를 기다린 것 같다고 말한다. 에리카는 소름끼친다면서 놀란다. 다음날 프랜시스가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며 출근을 하는데 그레타의 전화가 계속 걸려 온다. 프랜시스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레타는 문자메세지로 폭주하고 있다. 겁에 질린 프랜시스가 에리카에게 전화해서 그레타의 문자를 이야기 하자 집에도 80번 넘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뿔아 두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그녀가 그냥 떠나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에리카는 더욱 집착할 것 같다고 말한다. 에리카는 분명 경고했다고 말하고 프랜시스는 후회하면서 이제는 무슨 말이든 에리카의 말을 모두 신뢰하겠다고 말한다. 그때 동료 직원 "헨리"(Jeff Hiller, 제프 힐러)가 어떤 여자가 프랜시스를 찾아 왔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그레타가 찾아 온 것 같다고 에리카에게 말하면서 끊는다. 프랜시스가 그레타에게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는데 헨리가 레스토랑에서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라면서 직접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프랜시스는 그레타에게 여기에 왜 온 것인지 통명스럽게 묻는다. 그레타는 전화연락이 안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 온 것이라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옷장에서 가방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가방을 일부러 뿌려 놓고 뉴욕에서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짜증을 낸다. 그레타가 설명하려 하지만 프랜시스는 끝이라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잘라서 말한다. 그레타는 강아지 모튼을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선다.

그후로도 그레타는 프랜시스에게 전화를 계속하지만 받지 않는다. 그레타는 프랜시스에게 음성을 남긴다. 그레타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그런일이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레타는 니콜라가 떠난 후 고독을 이겨낼 줄 알았는데 고독이 블랙홀처럼 자신을 꿈쩍 못하게 한다면 그레타는 프랜시스와는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레타는 프랜시스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까워 한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프랜시스에게 토요일 6시에 일할 수 있는지 묻는데

프랜시스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프랜시스의 집으로 하얀색 백합이 배달된다. 배달부가 프랜시스 맥컬린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하자 프랜시스는 그레타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려 보내 버린다. 프랜시스가 레스토랑에서 써빙을 하고 있는데 건너편 인도에서 그레타가 프랜시스를 바라보고 있다. 프랜시스가 그레타를 발견하고 순간 와인잔을 땅에 떨어뜨린다. 당황한 프랜시스가 다른 잔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다. 그레타는 요동조차 하지 않고 레스토랑만을 지켜 보고 있다. 프랜시스는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부탁한다. “드로이”(Thaddeus Daniels, 서더스 다니엘스) 경관이 조사를 하지만 드로이는 길 건너 편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하루 종일 자신을 감시하듯 바라보는 그레타로 심신이 지쳐 있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이 더욱 답답할 뿐이다. 결국 드로이 경관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프랜시스에게 서명을 받고 돌아가 버린다.

프랜시스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순간 그레타가 보이지 않는다. CC-TV로도 그레타가 보이지 않자 안심을 한 프랜시스가 지하철에서 승차를 하는데 그레타가 뒤따른다. 프랜시스가 놀라며 바로 내려 버리자 그레타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대화로 풀자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주변을 둘러보며 집에 도착하는데 그레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프랜시스는 매우 놀라며 그레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레타는 단지 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딸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해 너무나 외롭다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사람들 모두가 외로움을 갖고 있지만 그레타처럼 따라 다니면서 급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레타는 모두 친구가 필요하고 프랜시스에게는 에리카가 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에리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레타는 껌을 씹으면서 프랜시스가 껌처럼 붙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 그레타는 프랜시스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소름이 끼친다. 그레타는 대화로 풀어 보려 했는데 프랜시스가 들어주지 않았다면 씹고 있던 껌을 프랜시스 머리에 뱉어 버리고 나간다. 에리카가 프랜시스 머리에 붙어 있는 껌을 하나씩 떼어 낸다. 프랜시스와 에리카가 경찰서를 찾아가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 하지만 “리건”(레이븐 다우다) 경관은 육체적 폭력이 있는지 묻는다. 에리카가 머리에 껌을 던졌다고 말하자 리건 경관은 청원자의 진술서를 법원 행정관에게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심사를 위해 판사에게 전달되고 재판이 시작되는데 맨하탄 법원에 일이 많아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자전거를 타고 동물보호소를 찾는다. 피랜시스는 그레타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다. 직원이 강아지를 데려 오려면 증인 진술과 증거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프랜시스는 자전거를 타고 그레타의 집을 몰래 찾는다. 그레타가 집에서 나와 모튼과 함께 떠난후 프랜시스는 그레타의

집안으로 몰래 들어간다. 프랜시스도 쓰레기 통에서 그레타가 버린 편지를 발견한다. 그레타의 딸은 파리가 아니라 브루클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데 받지 않는다. 프랜시스는 그레타의 딸 니콜라 히덱과 통화를 요청하고 강아지 입양을 도와 주었는데 염려된다고 음성메세지를 남긴다. 프랜시스가 레스토랑을 퇴근하면서 그레타가 없는지 확인을 한다. 집에 도착한 후 집 안으로 들어 가는데 불이 꺼져 있고 조용하다. 프랜시스도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을 한다. 에리카가 프랜시스에게 술집에 있으니 나오라고 전화를 하는데 프랜시스도 오늘은 쉬고 싶다고 문을 닫는다.

프랜시스도 창밖을 보며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때 아빠 "크리스 맥컬린"(Colm Feore, 콜름 포어)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아빠가 안부를 묻고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둘다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때 그레타의 문자가 오고 프랜시스는 다시 전화하겠다고 아빠와의 통화를 끊는다. 그레타가 술집에 있는 에리카의 사진을 보낸 것이다. 프랜시스도 곧바로 에리카에게 전화해 그레타가 지금 술집에서 에리카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말하며 혼자 다니지 말라고 걱정한다. 에리카가 놀라면서 주위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다시 에리카가 문을 나가는 사진을 보내온다. 프랜시스는 문 밖으로 나가는 사진을 다시 보냈다고 말한다. 에리카는 후문으로 나왔고 진정하라고 말한다. 프랜시스도 광고판앞에서 통화하는 사진을 보냈다고 말하고 에리카는 광고판앞에 있는 것은 맞는데 아무도 안보인다고 말한다. 에리카가 지하철역으로 이동할때도 그레타는 계속 따라 가면서 사진을 전송한다. 에리카가 역에서 나와 다시 버스를 타는데 버스까지 따라와서 사진을 찍어 보낸다. 에리카가 버스에서 내려 걷는다. 프랜시스는 택시를 타고 33번가 쿠퍼 하우스로 이동한다. 에리카가 그레타를 발견하고 도로를 건너가려는데 프랜시스도 탄 택시가 정차한다. 프랜시스는 에리카와 함께 돌아가며 그레타가 보낸 사진에 경악한다.

프랜시스는 니콜라 히덱의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만난다. 약속장소에는 "알렉사 해먼드"(Zawe Ashton, 자웨 애쉬튼)가 기다리고 있다. 알렉사는 프랜시스와 인사를 한후 니콜라 히덱은 이미 4년전에 자살해 죽었다고 말한다. 알렉사는 중독자 모임에서 니콜라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카운슬러로서 6년간 함께 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니콜라가 파리에서 공부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하자 니콜라는 프랑스에 간적이 없고 그레타가 프랑스인이라는 허세 때문에 지어낸 것이지만 정작 그녀도 헝가리 태생이라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그레타가 아직도 니콜라가 살아 있듯이 말하고 통화도 하는 척 한다고 말한다. 알렉사는 그레타가 니콜라에게 피멍이 들 정도로 피아노 공부를 시켰으며 무슨 짓을 해도 구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니콜라는 아마 상자속에서 죽어 갔을 것이라면서 처음엔 그냥 이야기로 들었는데 죽기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일하던 중 아빠와 통화를 한다. 아빠는 에리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레타는 불안정하니깐 철저히 차단하라고 말하는데 프랜시스는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고 대꾸한다. 레스토랑 직원 헨리가 프랜시스를 부르고 프랜시스는 저녁 담당이라면서 손님에게 다가 가는데 그레타가 앉아 있다. 프랜시스가 헨리에게 바로 저 여자라고 말하는데 헨리는 예약손님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하는 수 없이 그레타에게 음료수를 들고 가 주문을 받는다. 그레타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프랜시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레타가 프랑스 와인을 주문한다. 프랜시스는 동료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한다. 프랜시스가 그레타에게 와인을 갖다 주는데 그레타가 와인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컵을 던져 버린다. 그레타가 엄마처럼 안아주고 사랑해 줄 누군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잃은 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엄마에 대해서 단정지어 말하지 말라고 대꾸한다. 그레타가 프랜시스 엄마는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죽은 것이라면서 테이블을 밀치고 소리지르며 프랜시스를 뒤따른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그레타를 붙들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그레타를 체포한다. 그러나 다음 날 그레타는 바로 석방되었고 이 사실을 확인한 프랜시스는 분노하며 전화기를 던져 버린다.

프랜시스는 아빠가 데려 가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에리카도 그렇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고 말한다. 에리카는 문제의 본질은 그레타라면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올때면 그레타가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그레타와 함께 갔었던 성당을 찾는다. 프랜시스는 그레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레타는 프랜시스를 잘 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엄마이야기 때문에 화가 났었다고 말하고 내일 잠시 동안 떠나 있겠다고 말한다. 프랜시스는 가장 필요할 때 친구가 되었었고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레타는 누구에게나 친구는 필요하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레타는 모든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고 그 말을 들은 프랜시스는 미소를 짓는다. 그레타가 프랜시스에게 돌아오면 다시 만나 줄 것인지 묻고 프랜시스는 만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한다. 그레타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서 프랜시스를 안아 준다. 집으로 돌아온 그레타가 우유에 약을 타서 개에게 먹이며 마지막인 것 같다고 혼자말을 한다.

프랜시스가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데워 마신다. 프랜시스가 책을 읽다가 화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에리카를 부르며 다가가 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순간, 그레타가 나타나 에리카는 여기에 없다면서 프랜시스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집에 도착한 그레타는 피아노 뒤편의 은밀한 방문을 연다. 프랜시스가 이미 죽은 강아지 모튼을 발견한다. 그레타는 프랜시스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여기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레타가 프랜시스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고 가져 간다. 소파에서 잠들었던 프랜시스가 깨어나

화분을 만지며 전자레인지로 다가 간다. 프랜시스도 커피를 꺼내며 에리카를 부른다. 에리카는 짐을 다 챙겼는지 묻는다. 에리카가 창밖을 보며 아빠가 왔다고 말한다. 에리카는 아빠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하며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한다. 에리카는 프랜시스에게 괜찮은지 묻는데 프랜시스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 에리카가 프랜시스에게 사진도 보내고 전화도 하라고 말하고 프랜시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멈춤이 없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져 가는 느낌을 받는다. 잠시후 프랜시스가 정신을 차리는데 좁은 상자안에 갇혀 있다. 프랜시스가 당황해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레타는 상자문을 열고 여기는 거짓말쟁이의 침대라고 말한다. 그레타가 프랜시스는 짐도 챙기지 않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다. 그레타가 상자 덮개를 덮으려 하자 프랜시스가 닫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레타는 니콜라처럼 나가고 싶으면 나가 보라고 말하면서 문을 잠궈 버린다. 그레타는 밖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다. 프랜시스가 상자에서 나와 보내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프랜시스는 방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옷들을 발견하고 그레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고함을 지른다. 프랜시스의 아버지 크리스(Colm Feore, 콜름 포어)는 프랜시스의 유년기 사진을 보며 딸에게 전화를 한다. 프랜시스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를 남긴다. 그레타는 프랜시스의 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고 크리스와 에리카에게 문자를 보낸다. 크리스에게는 프랜시스가 친구와 여행중이라고 보내고, 에리카는 프랜시스가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낸다. 아무것도 모르는 크리스는 딸에게 문자 잘 받았다는 음성메시지를 남긴다. 아빠는 도시로 돌아간다면서 프랜시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남긴다. 에리카가 크리스의 전화를 받는다. 크리스는 에리카에게 크리스와 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묻는다. 에리카는 프랜시스가 아빠와 여행중이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한다. 순간 크리스와 에리카는 프랜시스에게 무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직감한다.

그레타는 프랜시스에게 모두가 실수는 한다면 울지 말고, 이제 레슨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프랜시스는 조용히 그레타를 따라 가고 그레타는 프랜시스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 프랜시스의 아빠, 크리스는 브라이언 코디를 찾는다. "브라이언 코디"(스티븐 레아)가 히텍은 간호사였고 마취제 오남용으로 벨류병원에서 해임되었고 범죄기록은 없다고 말한다. 브라이언은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여자가 맞는지 물어 보지만 크리스가 알 리가 없다. 브라이언은 그녀가 헝가리에서 돌아 온 후 주소가 없다고 말한다. 크리스는 돈은 달라는대로 줄테니 이 여자를 찾아 달라고 말한다. 브라이언 코디는 1일 추가 250불의 비용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레타는 우유에 약을 타서 프랜시스에게 마시라고 하고 프랜시스는 우유를 받아 마신다. 그레타는 프랜시스가 잠들자 자장가를 불러 준다. 그레타는 프랜시스에게 요리와 불어를 가르친다. 프랜시스는 그레타가 느슨해 질 때 탈출구를 찾으려고 열쇠를 찾지만 소득이 없다. 프랜시스가 다시 지하로 내려가 탈출구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되려 사만다를 발견하고 질겁을 한다. 순간 그레타는 마취제로 프랜시스를 다시 기절 시킨다. 그레타는 잘린 손가락에 진통제를 주사하고 장갑을 착용한다. 프랜시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욕조안에 묶여 있다. 프랜시스는 그레타에게 그녀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하지만 그레타는 하늘로 갔고 너만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레타는 프랜시스를 침대에 묶은 뒤 더 잘 지낼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브라이언 코디가 그레타의 집을 찾는다. 브라이언이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프랜시스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움직이려 하지만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고 손과 발도 묶여 있어서 대응이 불가능하다. 브라이언이 불편함으로 집안을 살핀후 계단을 올라간다. 그때 그레타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레타 히덱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브라이언은 그레타에게 가족의 친구인데 아무도 소식을 몰라서 찾고 있다면서 프랜시스 맥컬린을 아는지 묻는다. 그레타도 알고 있는데 한동안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레타는 브라이언을 집으로 초대한다. 그레타는 프랜시스가 아빠와 휴가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레타는 한동안 잘 지냈는데 폭행으로 떠났다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두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몸을 움직여 쿵쿵 소리를 낸다. 그레타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음악소리를 높인다. 그레타는 프랜시스가 애완견 모튼을 골라 주었다고 말하면서 먹이를 주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다. 그레타가 모튼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2층으로 올라간다. 프랜시스가 계속 몸을 움직이자 피아노위의 메트로놈이 움직인다. 브라이언이 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움직여 문을 발견한다. 순간 그레타가 나타나 브라이언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고 브라이언이 어지러워 하며 넘어진다. 그레타는 프랜시스가 낮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면서 20초만 참고 있으라고 말한다. 브라이언이 프랜시스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총을 꺼내 그레타를 향하여 총을 쏘지만 그레타는 총을 추는 여유를 부리며 몸을 피한다. 브라이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총을 빼앗아 죽여 버린다. 그레타는 집을 말끔히 청소하고 구멍난 흔적까지 제거한다. 그레타는 녹색 가죽가방을 보며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가방이 발견되면 다시 친구도 같이 데려 온다고 말하며 그동안 친구와 좋았고 그렇게 끝이 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레타가 지하철에서 주위 사람들을 보며 가방을 두고 내린다. 잠시후 한 여자가 가방을 들고 그레타의 집을 찾는다. 그레타는 가방을 가져온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 그레타가 케익을 가지러 간 사이에 커피에 약을 탄다. 그레타가 여자의 억양이 다른 것 같다고 말하자 여자는 텍사스 출신이라고 말한다. 대화를 듣던 프랜시스가 다시 몸을 움직인다. 그러자 다시 메트로놈이 움직인다. 그레타는 프랜시스를 만날 때와 똑같이 옆집에서 리모델링 공사중이라고 말하면서 메트로놈을 고정한다. 그레타가 질문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타울을 가지러 간다. 그레타가 비틀거리며 걸다가 기분이 이상하다면서 소파에 쓰러진다. 여자는 아마 약을 먹어서 그런거라면서 가발을 벗는다. 에리카는 그 가방을 찾으려고 지하철을

다 찾았다고 말한다. 에리카는 쓰러진 그레타의 커피에 약을 넣었고 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에리카는 친구가 필요하다면서 프랜시스를 찾는다. 프랜시스가 몸을 움직이자 메트로놈이 다시 움직인다. 에리카는 피아노 뒤편에서 숨겨진 방을 찾고 문을 연다. 에리카는 침대에 묶여 있는 프랜시스를 발견하고 줄을 푼다. 그때 갑자기 음악소리가 들리자 프랜시스는 그레타가 에리카 마저 해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에리카가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 보는데 아무도 없고 레코드 소리만 들린다. 에리카가 레코드를 끄는 순간 숨어 있던 그레타가 프랜시스의 얼굴을 잡고 너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쓰러진다. 에리카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자 프랜시스가 더 좋은 생각이 났다고 말한다. 에리카와 프랜시스가 그레타를 상자속에 넣고 잠궈 버린다. 에리카가 경찰을 부르려 하자 프랜시스가 경찰에게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묻는다. 에리카는 사이코패스 정신병자가 오래된 상자안에서 자고 있다고 말하겠다고 한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이곳에 얼마동안 있었는지 묻고 에리카는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며 에리카와 일어나는데 정신을 차린 그레타가 상자에서 나가려고 밀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 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미끼로 악한 집착을 느끼는 사람의 말로는 참으로 경악할 뿐이다. 영화의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시키는 마력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집착하는 그레타의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레타라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언제나 똑같은 가방을 만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8. "비스트" THE BEAST

한국영화, 장르:범죄,스릴러, 개봉:2019.06.26.

감독,각본:이정호, 제작:스튜디오앤뉴

주연:이성민,유재명,전혜진,최다니엘,

관객:202,007명(2019.08.07.기준)

어둠밤 복면을 한 "정한수"(이성민역)와 "양종찬"(최다니엘역)이 그레이색 봉고를 타고 이동중이다. 정한수는 "김남철"(장준녕역)의 지갑에서 현금을 확인한다. 정한수는 5개월 급여를 갖고 다닌다면서 현금을 챙긴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에 놀란 두사람이 차에서 내려 쓰러진 고라니를 확인한다. 갯벌에 도착한 양종찬이 구덩이를 파는 동안 정한수는 김남철에게 오마담의 사진을 보여주며 때린다. 정한수는 김남철에게 다시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경고한다.

TV에서 17세 여고생 유미진의 실종사건을 보도한다. 여고생 실종사건 담당인 "한민태"(유재명역)가 창밖을 주시한다. 정한수는 "오마담"(김호정역)의 술집을 찾아 두 번 다시 그놈 볼일 없을 것이라면서 위자료를 건넨다. 오마담은 이제 사용가치가 없는지 물어보고 정한수는 몸조리나 잘하라고 말한다. 양종찬이 오마담 얼굴에 상처는 있지만 미인이라면서 꽃을 건넨다. 양종찬은 정보원 오마담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말라고 말한다. 정한수는 배고프다면서 밥먹으러 가자고 말한다. 정한수와 양종찬이 갯벌 사건현장을 찾는다. 한민태는 새벽에 낚시꾼이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신고를 했다면서 커피 한잔하고 돌아 가자고 말한다. 정한수는 성과장이 인천으로 온다는 보고를 받고 2팀의 "여미영"(이상희역)은 검은 비닐봉지를 목격한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수색중인 경찰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한민태가 유미진의 사진과 대조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연"(안시하역)은 주사 자국은 있지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양종찬은 아이들 짓이라고 말하지만 여미영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한다. 정연은 누구나 마음속에 들짐승 한 마리가 사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지가 문제라고 말하고 한민태는 초기 실종수사때 특정용의자는 없었다고 말한다. 부검을 마친후 정연이 정한수에게 이혼서류를 우편발송하겠다고 말하고 정한수는 이미 따로 사는데 서류정리까지 꼭해야 하는지 되묻고, 정연은 그렇게 해야 연이 끊어 진다고 말한다.

경찰서에서 "성과장"(김병춘역)이 주변 CC-TV와 블랙박스는 없었는지 묻는다. 한민태가 외곽지역에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성과장은 정한수에게 의견을 묻고 정한수는 무엇인가 느낌이 안좋고 범인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성과장이 연쇄살인 사건이면 광수대로 넘겨야 하니 확실하지 않으면 조심하자고 말한다. 성과장은 상부에서 사건을 조속히 종결짓기를 원한다면 1팀과 2팀이 공조수사 하라고 말하

는데 한민태가 2팀 사건이라고 항의한다. 성과장이 실종 17일 동안 2팀이 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공조하라고 지시한다. 성과장이 정팀장을 사무실로 불러 김남철이 출소했는데 어디서 맞은 후 응급실로 실려 왔다면서 사고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성과장은 자신이 경찰서장으로 지목되었고 정한수가 과장으로 유력하니 범인을 꼭 잡으라고 말한다. 감사과 "경찰"(정찬우역)이 한민태를 만나 검경이 이번 사건 사이즈가 커서 정팀장에게 밀거라고 귀뜸한다. 정팀장이 범인을 잡으면 특진으로 과장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정팀장이 과장되면 경찰서장과 무슨 짓을 해도 손놓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팀장이 이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부탁한다.

정한수와 양종찬은 "유미진"(안시연역)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 성당을 찾는다. 양종찬은 2팀의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유미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며 목격자는 담당 신부라고 말한다. 양종찬은 수녀와 대화를 나누고 정한수는 성당안에서 십자가를 바라 보는데 순간 "채필교"(이현균역) 부제가 들어 온다. 부제가 정한수를 발견하고 방으로 도망가 짐을 챙기면서 유미진의 사진을 삼키려 한다. 정한수가 재빠르게 채필교를 덮치면서 사진을 빼앗는다. 한민태가 1팀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보고를 받고 취조실로 향한다. 한민태는 부제를 보며 아연실색하며 용의자가 맞는지 의아해 한다. 형사는 전과기록은 없지만 수사기록은 남아 있다고 보고하는데 의대 재학 중 여학생을 성폭행하여 자퇴하고 그 후 신학대에 입학했다고 말한다. 성과장은 한팀장에게 초기 수사때 놓친 이유를 묻는다. 한팀장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한다. 형사들이 부제의 방에서 발견된 유미진의 팬티를 가져오고 한팀장은 이것이 살인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정한수는 채필교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취조를 한다. 양종찬이 채필교에게 유미진에 대해 질문하며 교복때문이었는지 묻는다. 채필교는 미진이 자신을 좋아한 것이라면서 그날도 거절했는데 화를 내면서 나가 버렸고 걱정이 되어 뒤따라 갔을 뿐이라고 말한다. 정한수는 채필교에게 성폭행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었는지 묻는다. 채필교는 진실로 사랑했었고 그 친구도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죄값 치르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 신학대 입학했다고 말한다. 정한수는 채필교가 성폭행한 여대생은 자살했고 엄마는 고통속에서 죽었으며 아빠는 간암 말기인데 회개하고 죄값 치렀다는게 말이 되는지 묻는다. 정한수는 미진의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알고 있는지 돌아 보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라고 다그친다. 채필교는 울면서 자신이 미진을 죽였다고 말한다. 한팀장은 채필교의 감정이 격앙된 것일 뿐 미진을 죽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정팀장은 형사들에게 성당을 수색하라고 말한다.

정한수와 양종찬은 정연의 생일을 축하하며 술을 마신다. 한팀장은 사무실에 남아 채필교의 자퇴지원서를 확인하고 취조실의 채필교를 찾는다. 미진아빠는 경찰서에서 채필교가 석방되는 것을 보고 드라이버를 찾아 채필교를 찌른다. 때마침 정한수가 채필교를 석방했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서로 들어가고 경찰은 현장에서 미진 아빠를

체포한다. 정한수 팀장이 한민태 팀장에게 고함치며 달려 든다. 주변 형사들이 정팀장을 말리고 한팀장은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형사는 채필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미진 아빠도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양종찬은 2팀 형사들에게 영장이 왜 기각된 것인지 묻고 2팀 형사들은 양종찬이 말끝마다 욕을 한다고 아수라장이 된다. 여미영이 미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것과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여미영은 그 팬티는 미진이가 채필교에게 택배로 보낸 것이라면서 영수증을 보여 준다. 한민태는 채필교가 미진을 부담스러워 했고 다툼 후 걱정이 되어 뒤쫓아 갔지만 만나지 못했는데 그때 두사람이 탄 그레이색 봉고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채필교는 성폭행 때문에 의대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피를 무서워 해서 자퇴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민태가 정팀장에게 잡고 싶은 놈을 잡지 말고 범인을 잡으라고 말한다.

“춘배”(전혜진역)는 출소 1주일을 앞두고 귀휴를 나가는데 교도소앞에 자동차가 대기중이다. 춘배는 자신이 알아 보라고 한 것을 알아 보았는지 묻고 그 놈 때문에 3년을 감옥에서 썩었다고 말한다. 남자는 춘배가 가장 먼저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한수와 한민태가 사격장에서 훈련도중 한민태가 정한수에게 공조수사를 잘 하자고 말한다. 때마침 정한수에게 춘배의 전화가 걸려 온다. 춘배는 정한수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10시에 만나자고 말한다. 한민태는 정한수에게 범인을 잡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고 정한수도 같은 대답을 하며 자신이 잡겠다고 말한다. 한민태가 범인 잡으면 누가 특진이라고 시켜 주는지 묻고 정한수는 말없이 사격장을 나선다.

정한수가 약속장소에 도착해 춘배의 차를 발견한다. 춘배는 3년만이라면서 차에 타라고 말하며 이동한다. 춘배는 정한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신입이 들어왔는데 뉴스에 나오는 여자아이를 보았다고 말한다. 그때 자동차가 들어오고 춘배는 차에서 내려 남자를 총으로 쏜다. 정한수가 자신이 총을 글러브박스에 넣어 두었던 것을 기억한다. 정한수가 춘배를 다리 밑으로 끌고가 때리며 누구를 죽였는지 묻는다. 춘배는 조두식을 죽였다고 말한다. 정한수는 조두식이 죽으면 춘배가 용의자 1순위가 된다고 말하고 춘배는 자신의 알리바이만 대주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 주겠다고 말한다. 귀가한 정한수가 술을 마시며 고민하다가 잠이 든다. 다음날 양종찬은 정한수가 전한 아파트에 잠복을 하고 아파트 거주자 인물들을 관찰한다. 현장에서 조선족, 차이나타운 “장사장”(김홍파역), 태국조직원을 카메라에 담는다. 양종찬은 이곳이 완전 쓰레기라고 말한다. 이어 최철기, 최완식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 성과장이 알면서 왜 못잡는지 물어보자 양종찬은 건물에 조선족 들개파 아지트가 있어서 전쟁날까 문제되어 못잡는다고 말한다. 한민태는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묻자 양종찬이 정한수를 바라본다. 정한수는 최철기가 지난달에 사용한 200톤의 수도세 내역을 보여준다. 그레이색 봉고도 찾았는데 혈액형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양종찬은 국과수가 분석중이라고 말한다. 성과장이 기동대 준비하고 1팀이 주

도해서 진행하고 2팀은 지원을 받고 정팀장의 명령에 따르라고 말한다. 정한수가 형사들을 동원하여 아파트현장으로 이동한다.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상황을 점검한다. 때마침 사전 조사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 작전상황실로 이동한다. 광수대 형사들이 태국조직을 체포하기 위해 3개월째 잠복중이라면서 몸싸움을 하고 기동대 차량이 작전현장을 떠난다.

2팀은 기동대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여미영은 광수대가 잠복중이라 철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정한수는 권총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간다. 정한수가 모두 진입하고 2팀은 조선족, 나머지는 태국조직을 막고, 1팀은 타깃을 확보하라고 지시한다. 여미영은 한민태를 따라 4층으로 올라가면서 지원을 요청한다. 조선족이 길을 막고 한민태와 여미영을 공격한다. 조선족이 연장을 들고 아파트에서 나온다. 정한수와 양종찬이 조선족을 제압하면서 뭐하는 짓인지 화를 낸다. 한민태는 정한수가 원하는 것 아닌지 되묻는데 조선족이 계단으로 달려와 공격을 가한다. 정한수와 한민태가 놈들을 제압하고 최철기의 집 입구에 도착한다. 기동대가 현장으로 복귀하고 들개파와 태국조직은 완전히 제압된다. 양종찬이 현관문을 부수고 4명이 집안으로 진입하여 최철기에게 손을 내밀라고 지시한다. 정한수가 집안을 살피는 동안 최철기가 손을 내미는 듯하더니 한민태를 공격한다. 형사들이 최철기를 막으려는 순간 최철기는 양종찬을 안고 창문밖으로 뛰어 내린다. 정한수는 집안을 수색하며 옷장 뒤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한다. 최철기가 저지른 증거가 있다. 그 가운데 녹음테이프를 재생해서 들어 본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추가피해자가 14명이 있다는 방송이 보도된다. 체포과정에서 사망한 경찰도 3명이나 되고 유가족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무리한 진압을 시도한 경위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경찰은 조선족과 태국조직의 검거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작전의 성과라고 말한다. 경찰의 장례식장에 한민태가 나타나자 모든 것이 한민태 때문이라면서 고성을 지른다. 한민태는 감사과 경찰을 만나지만 경찰은 경찰이 3명이나 죽어서 자신이 해줄 것이 없다고 말하며 정한수가 한민태의 목줄을 잡고 있으니 가서 무릎이라도 꿇는게 상책이라고 말한다. 정한수는 오마담의 가게에서 죽은 양종찬의 이야기를 나눈다. 한민태가 정한수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는다. 정한수는 범인을 잡아도 끝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정한수는 전생에 범죄자들이 경찰이 되는 것이라면서 술을 마신다. 같은 시간 인천 앞바다에서 자동차를 건져 올리고 있다. 한민태가 오마담의 가게를 찾아 정한수에게 뭐라고 증언할 것인지 묻는다. 한민태는 그런다고 죽은 양종찬이 살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단지 범인을 잡으려다가 그런 것 뿐이라고 말한다. 정한수가 답이 없이 나가자 한민태가 화를 내며 테이블을 내리 친다.

바다에서 건져올린 차량을 대상으로 2팀이 조사를 시작한다. 감식반은 유리창에서

총격흔적을 발견한다. 여미영은 예전에 만난적이 있는 질나쁜 브로커 조두식이라고 말한다. 정연은 범인의 집과 차에서 나온 DNA만 30개가 넘는다고 말하고, 정한수는 이들은 모두 실종처리 되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정연이 최완식은 중증 당뇨병자라서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고 말한다. 병원처방이 반드시 필요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연은 모래제거 작업자들이 차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하며 부검전에 끝날 것 같고 용의자도 체포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춘배는 남자에게 판매처를 찾았는지 묻는다. 남자는 차이나타운 조직이 조두식을 죽인 놈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조두식은 장사장의 조카로서 잡히는 순간 우리도 죽는다고 말한다. 춘배는 물건을 챙긴뒤 도망하려 한다. 2팀 형사들에게 체포된 춘배는 여미영이 조두식을 죽였는지 묻자 그날 아는 형사와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낸다. 한민태는 계속 이야기 하라고 말한다. 정한수가 형사들에게 최완식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데 한민태와 여미영이 경찰서로 돌아온다. 2팀 형사들이 탄두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묻고 한민태가 38구경 사제총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여미영이 범인이 경찰인지 묻고 한민태는 권총 강선이 지문과 같아서 총마다 다르다고 말한다. 정한수는 한민태의 이야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증거물 보관실을 찾는다. 정한수는 최철기 증거품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찰이 찾는 동안 정한수는 차이나타운 사건의 증거 권총과 휴대전화를 챙긴다. 같은 시간 국과수 정연은 조두식의 몸에 있는 탄두를 제거한 뒤 캐비닛에 넣고 잠근다. 여미영이 한민태에게 112 신고접수기록에 새벽에 총소리 신고가 있었다고 말한다. 정한수는 춘배에게 전화해 한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묻는다. 춘배는 협박을 받아 어쩔수 없이 정한수 형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말한다. 정한수는 춘배에게 인천을 떠나 있으라고 말한다. 춘배는 남자와의 약속장소에서 차이나타운 직원들을 보고 도망한다. 정한수는 며칠전 고라니가 죽은 해안가를 찾는다. 정한수는 숲에서 고라니를 옮긴뒤 총을 쏘고 탄두를 회수한다. 한민태는 여미영과 조두식 사건 현장을 찾는다. 한민태가 주변 CC-TV를 발견하고 영상을 확인한다. 한민태는 누가 차를 가져 가는지 확인하자고 말하고 여미영은 왜 정팀장에게 말 않았는지 묻는다. 한민태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후 남자가 나타나 차를 가져가는데 얼굴은 확인이 안된다. 한민태는 오마담을 찾아 가는데 오마담은 차이나타운 장사장과 같이 나온다. 한민태는 오마담에게 여자를 찾아 달라고 말한다.

정한수가 국과수 앞에서 정연의 출근을 기다리다가 정연을 보고 후배경찰에게 10분 후 윤박사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다. 정한수는 정연에게 물어 볼게 있다고 시간을 물어본다. 정연이 8시에 한팀장과 약속이 있다고 20분정도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정연이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다녀오겠다고 부검실을 나가자 정한수는 바로 장갑을 끼고 열쇠를 찾는다. 정한수는 정연이 열쇠를 둔 곳을 기억하고 옷을 뒤져 열쇠를 찾는다. 탄두가 들어 있는 지퍼백을 열다가 찢어지면서 탄두가 바닥에 떨어진다. 정

연이 사무실로 가다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전화를 하면서 부검실로 향한다. 정한수는 사방으로 흩어진 탄두를 찾기 위해 불을 켜지만 탄두는 섞여 버리고 탄두에 남아있는 강선의 흔적을 확인한 후 캐비닛에 집어 넣는다. 정연이 부검실로 돌아오자 정한수는 불을 끄고 서 있다. 정연이 최철기의 몸에 난 상처는 오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정한수가 찾지 못한 탄두를 발견하고 긴장한다. 정연은 최철기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정연은 최철기가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 신경근육 일부가 손상되어 메스로 정교한 칼놀림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연은 우리가 반대로 보고 있을수도 있다고 말한다. 순간 한민태가 부검실로 들어온다. 한민태는 두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서 재결합하는지 농담을 던진다. 한민태는 정한수에게 춘배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정한수는 춘배가 그렇게 말했으면 사실일 것이라고 말한다. 한민태가 걸어가면서 탄두를 차 버린다. 탄두가 정연의 앞으로 날아오고 탄두를 발견한 정연이 정한수를 바라 본다. 한민태는 정한수에게 춘배와 무엇을 한 것인지 묻는다. 두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정연이 탄두를 발로 밟아서 감춘다. 정한수는 한민태에게 영장을 가져 오라고 말한뒤 부검실을 나간다.

정한수가 운전을 하며 탄두를 창밖으로 던져 버린다. 정연의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고 정연이 한 말을 기억하며 최완식이 범인임을 직감한다. 최완식이 터미널에서 TV를 보며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정한수는 사건 공범으로 최완식을 공개 수배한다. 장사장은 춘배에게 조카를 죽인 것인지 물으며 그것보다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것이 더 싫다고 말한다. 장사장 부하는 춘배와 함께 잡혀온 남자를 끌고 온다. 장사장은 춘배에게 경찰이 자기 물건을 가져 갔다면서 찾아 오라고 시키고 이 모습을 오마담이 지켜 보고 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한수가 두통으로 고통스러워 한다. 한민태가 정한수의 차에 타 범죄를 은폐한 댓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추궁한다. 정한수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민태는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한수는 쓰레기 브로커 조두식이 죽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은 안하는지 묻는다. 한민태는 가끔씩 정한수가 악당인지 경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고 정한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한민태는 현장 CC-TV가 나왔고 그 여자가 오기로 했는데 만나 볼 것인지 묻는다.

정한수가 사건 브리핑을 받고 있지만 집중을 못한다. 경찰서로 여자가 도착하고 한민태는 여자를 조사한다. 춘배는 계속 정한수에게 전화를 한다. 정한수가 한민태의 조사를 지켜 보는데 2팀 형사들이 팀장이 조사하는 여자가 소매치기 당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조사실로 달려가 한민태의 목살을 잡는다. 그때 1팀 형사들이 최완식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CC-TV에 찍힌 최완식이 카메라를 보고도 미소를 짓는다. 한편, 정한수가 전화를 안받자 춘배가 경찰서까지 찾는다. 정한수는 춘배를 밖으로 끌고 가는데 춘배는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만 돌려 주면 다 해결 된다고 말한다. 춘배는 정한수에게 한팀이라고 말하자 정한수는 춘배를 때리며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돌아서는 정한수를 벽돌로 내리친 춘배는 내일까지 약을 가져 오지 않으면 한민태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한 후 돌아간다. 골목에서 최완식이 두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성과장이 한민태에게 정한수의 통신내역을 보여주며 누군지 몰라도 불법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민태는 춘배가 귀휴를 나와 정한수를 만났고 사건현장에 정한수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성과장은 증거가 있는지 묻는다. 한민태는 목격자가 있고 찾는 중이라고 말한다. 성과장은 증거도 없이 강력계팀장을 수사하고 있는지 묻는다. 한민태는 사람이 죽었고 단지 범인을 잡으려는 것 뿐이라고 말하는데 성과장은 잡고 싶은 게 범인인지 정한수인지 묻는다. 성과장은 정한수가 한민태의 책임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고 찢어 버리고 나갔다면 이 것이 동료애라고 말한다. 성과장은 정한수에게서 손 떼라고 경고한다. 성과장은 강력계 형사들에게 국과수에서 보내온 소견서를 설명한다. 범인은 최철기가 아니라 수배중인 최완식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체포하라고 지시한다.

정한수는 아내가 집에서 기다린다는 문자를 받고 귀가를 서두른다. 정연은 정한수에게 탄두를 돌려주면서 무슨 일인지 묻는다. 정한수는 자신의 정보원이 조두식을 죽였고 그 현장에 있었다고 말한다. 정연은 살인을 방조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한수는 눈감아주는 대신 정보를 얻었는데 정연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연은 자신은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정한수는 자신이 해결할테니 잠깐만 눈 감아달라고 말한다. 정한수가 집을 나서자 최완식이 복도에서 뒷모습을 주시한다. 한민태는 오마담에게 목격자를 찾았는지 묻는다. 한민태는 약을 가져 오라는 이야기에 화를 낸다. 정한수는 케비넷에 있는 물건을 가방에 담는다. 최완식이 전기충격기로 정연의 집 도어락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집에 있던 정연이 목욕탕에서 생각한다. 최완식이 거실 오디오 볼륨을 높이자 정연이 놀라 거실로 나온다. 정연이 테이블위에 놓인 주사기를 발견하고 핸드폰을 챙겨 도망하려 하는데 숨어있던 최완식이 공격하여 넘어 뜨린다.

정한수가 춘배를 만나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조수석에 앉는다. 춘배는 외곽지역으로 가서 가방속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책밖에 없다. 춘배가 놀라면서 정한수를 공격하자 정한수가 춘배를 쓰러뜨린 후 누가 시킨 것인지 묻는다. 춘배는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후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정한수가 가까이 다가간다. 그때 춘배가 주머니 칼로 정한수의 옆구리를 찌른다. 정한수가 고통스러워 하며 총을 겨누고 모든 것이 춘배때문이라고 원망한다. 춘배는 모든 선택은 정한수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한수가 총을 내리자 춘배가 도망을 하지만 정한수는 다시 총을 겨누고 춘배를 쏘아 낭떨어지에서 떨어 뜨린다.

최완식이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자 배달부가 발견하고 수배전단지의 얼굴과 대조한 후 오마담의 부하에게 돈을 받고 알려 준다. 장사장은 오마담에게 정형사와 춘배가 연락이 끊었다고 말한다. 장사장은 오마담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오마담의 부하가 최완식의 소재에 대해 알려 준다. 정한수는 오마담의 술집을 찾는다. 정한수는 춘배에게 약을 가져 오라고 시킨 사람이 오마담인지 묻는다. 오마담은 은퇴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면서 모든 것이 정한수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파트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모두가 해피엔딩이라고 말한다. 오마담은 춘배가 사람 죽인 것은 눈감아 주면서 자기는 왜 안되는지 물으며 도와 달라고 말한다. 정한수가 오마담의 목을 붙잡는다. 오마담은 춘배를 협박하라고 정보를 준 것이 한팀장이라고 말하고 정한수는 어디서 수작이냐고 급박한다. 오마담이 한민태와의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려 준다. 오마담은 한민태에게 아파트에서 압수된 약을 먼저 받고 목격자를 넘겨 주겠다고 말한다. 오마담은 보너스로 정팀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춘배의 증언도 넘겨 주겠다고 말한다. 오마담은 한민태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한민태는 일처리나 바로 하라고 말한다. 오마담은 최완수가 있는 집 주소를 정한수에게 건넨다.

경찰서에 찾아온 노인이 친구가 5일전부터 연락이 안되어 집을 찾아 갔는데 그 집에서 최완식이 나왔다고 말한다. 2팀 형사들이 한민태에게 출동을 묻고 2팀 형사들은 노인이 제보한 집으로 출동해 현장을 수색한다. 정한수는 오마담이 알려준 동물병원에 도착하여 주변을 확인한다. 숨어 있던 최완식이 나타나 정한수를 공격한다. 한편, 한민태는 집주인이 동물병원 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물병원으로 이동한다. 정한수는 최완식과 격투중에 주사 바늘에 찔려 몸을 가누지 못한다. 피를 흘리며 도주하는 최완식을 역시 권총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정한수가 추적한다. 최완식이 정한수에게 투여한 약은 점점 마비증세가 일어나고 숨을 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민태가 동물병원에 도착해 출입문을 확인하려는 순간 정한수가 쏜 총소리를 듣는다. 최완식이 정한수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동물병원을 빠져 나가려다 한민태를 발견하고 몸을 숨긴다. 점점 마비증세가 심해져 가는 정한수가 앉아 거친 숨을 몰아 쉰다. 지켜 보던 최완식이 정연을 죽이면서 녹음한 소리를 재생해서 들려준다. 정한수가 정연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울부 짖는다. 한민태가 정한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움직인다. 정한수가 움직이는 소리에 총을 쏜다. 한민태는 튕겨 나온 총알이 얼굴을 스치며 굴러 넘어진다. 정한수가 도망치던 최완식을 붙잡고 총을 쏜다. 한민태는 총소리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가 정한수에게 이제 다 끝났으니 총을 내려 놓아라고 말한다. 정한수가 총을 겨누며 왜 그랬는지 묻고 한민태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정한수가 비어 있는 총의 방아쇠를 당긴 후 숨을 몰아 쉬다 그대로 쓰러진다.

한민태는 과장으로 승진하고 여미영은 예전 부서로 돌아 가겠다고 말한다. 여미영

은 응급처치를 했다면 정한수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한다. 한민태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 본다. 영화는 끝이 났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는 것인지 진급 경쟁자로서 동료 경찰을 잡으려는 것인지 궁금해 진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마저 잃어버린 정한수를 보며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결국 과장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한민태에게 남은 것은 또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붙잡으려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도 오르기를 열망하고 오르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변명하고 싶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영화는 흥행에도 실패했다. 최고의 배우들이 펼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건강한 경찰들이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다는 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29. "진범" The Culprit

한국영화, 장르:범죄,스릴러, 개봉:2019.07.10..

감독,각본:고정욱, 제작:곰픽쳐스

주연:송새벽,유선,

관객:168,119명(2019.08.07.기준)

지금으로부터 6개월전, "김준성"(오민석역)은 "임유정"(한수연역)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간다. "조상필"(정해균역) 형사는 사건 현장에 나타난 김준성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말한다. 김준성은 계단에 앉아 있는 "이영훈"(송새벽역)을 발견하고 슬퍼하면서 안아준다. 임유정은 범인을 피해 방으로 도망하였고 안방 입구에서 피를 흘리며 뒷걸음질 하다가 침대에 쓰러져 죽는다. 수사관은 임유정의 입에서 피와 응고되어 붙어버린 머리카락을 발견한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영훈은 자동차에서 잠들었다가 전화벨 소리에 깨어 난다. 이영훈은 "박상민"(장혁진역)이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뒤에서 공격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을 붙잡아 기절시킨 후 집으로 이동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의 수첩에서 임유정의 이름과 사건 날짜, 담당형사, 사건번호를 발견한다. "정다연"(유선역)은 증언을 하기로 한 이영훈이 연락이 없자 전화를 한다. "정변호사"(정희태역)는 어제 무슨일이 있었는지 묻고 정다연은 이영훈에게 가려고 간다. 정다연이 가면서 이영훈 때문에 괴로워 한다. 집에 도착한 이영훈은 박상민을 데리고 와 침대에 포박한 후 깨운다. 깨어난 박상민이 몸부림을 치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이영훈이 입을 막은 테이프를 떼어 낸후 유정이와 어떤 사이인지 묻는다. 박상민은 모르는 관계라면서 오해라고 말하는데 이영훈은 박상민을 때리면서 그러면 수첩에 적혀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그친다. 박상민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이영훈은 상관없다는 놈이 며칠전에 이곳에 온 이유는 뭐냐고 하면서 다시 때린다. 박상민은 호기심으로 왔다고 말하는데 이영훈은 신문에 기사한 줄 난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묻고 박상민은 집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해서 찾아온 것 뿐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살인사건 6개월이나 지나 1심 공판이 끝났는데 호기심때문이라는 게 납득이 가냐고 되묻는다. 박상민이 다시 아내의 말을 변명하자 이영훈은 망치를 가져와서 박상민의 다리를 때린다.

지금으로부터 1개월전, 이영훈이 전화를 받고 경찰서를 찾는다. 조상필 형사는 임유정의 물품을 건네고 서명을 받는다. 조상필 형사는 이영훈에게 모텔에서 그만 보내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다. 조상필 형사가 사건 파일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본 이영훈이 소리를 지르며 사건파일 상자를 챙겨 경찰서를 나선다. 박형사가 사건파일은 압된다고 말하자 조상필 형사가 수사 종결되었고 어차피 소각하려던 것

이었다고 말한다. 이영훈이 박스를 가지고 모텔로 가는데 버스정류장에서 정다연이 이영훈을 보고 불러 보지만 이영훈은 뒤돌아 보지도 않은채 가 버린다. 이영훈은 정다연에게 무슨일이 있는지 묻고 정다연은 “은진아빠”(김준성역) 항소심에서의 증언을 부탁한다. 이영훈이 그냥 돌아 가라고 말하자 정다연은 사정을 한다. 이영훈은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정다연은 처음 경찰 진술처럼 김준성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만 해주면 된다고 부탁한다. 정다연은 이영훈에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묻고 이영훈은 그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이영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답답해 하고 이영훈은 김준성만 생각하는지 되물으며 죽은 임유정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따진다. 정다연은 그래서 진범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정다연에게 김준성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묻고 정다연은 단지 은진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만 답한다. 정다연은 이영훈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도 마음으로는 알지만 증거가 없으니깐 그런거라고 말하고 이영훈은 가방을 던지며 소리를 지른다. 정다연은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는 임유정도, 김준성도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정다연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르고 정다연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자 정다연을 방 밖으로 끌어내 버린다. 이영훈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경찰 통제선을 뜯어 내 버린다. 사건 이후 엉망이 된 집을 바라보며 집안 청소를 하고 물건들을 버린다.

다음날 이영훈은 근처 슈퍼에서 정다연과 동네 아줌마들이 싸우는 것을 본다. 정다연이 길에서 “미나엄마”(윤송아역)의 얼굴을 때린다. 아줌마들이 다연이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면서 곱게 미쳐라고 소리 지르고 정다연은 은진을 안고 달려간다. 집으로 돌아온 이영훈은 임유정의 휴대폰을 확인한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는 소리를 듣고 수상한 남자 박상민을 발견하고 달려가 붙잡는다. 이영훈은 박상민에게 뭐하는 놈인지 묻고 박상민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온 것이라고 도망을 한다. 귀가한 이영훈이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빨래대 수건을 집다가 유정의 속옷을 보고 사건자료 박스에서 당시 사진을 찾는다. 이영훈은 사진과 빨래대를 비교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에게 김준성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한 것인지 묻는데 박상민은 무슨 말인 못 알아 듣는다. 박상민은 이영훈에게 자신이 이영훈의 아내를 죽인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박상민은 이 사건은 이미 범인이 잡힌 사건인데 왜 그러는지 묻는다. 박상민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박상민은 자신이 이영훈의 아내를 죽였다는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 것인지 묻는다. 박상민은 왜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인지 묻는다. 그때 정다연이 이영훈의 집을 찾는다. 박상민이 달려 달라고 소리 지르자 입을 다시 틀어 막는다.

사건 발생 2주후, 정다연이 영훈을 부르면서 납골당으로 간다. 경찰은 김준성을 체포하고 떠나는데 정다연이 남편은 아니라고 소리 지르며 경찰차를 뒤따른다. 조상필 형사는 정다연에게 검사결과를 보여 주며 99%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다연은 그 집에 많이 갔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항변하고 이영훈은 사고 며칠전에도 왔었다고 말한다. 조상필 형사는 증거를 아무곳에서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피해자의 입가에 출혈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입술에 묻은 혈액과 응고된채 발견된 것이라고 말한다. 조상필 형사는 출혈이 난 직후에 머리카락이 입술에 떨어진 것이라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항변한다. 조상필 형사는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각이 9시쯤인데 그 시각 김준성이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다연은 언니집에 있었고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영훈이 CC-TV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조상필 형사는 그 방향으로 향하는 카메라가 없고 비가 많이 와서 알아 볼수 없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만약 형사가 잘못 안 것이라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상필 형사는 조사결과 피해자가 사망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김준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다연은 남편이 아니라고 고함을 지른다. 조상필 형사는 정다연도 이 사건의 수사대상이라고 말하며 이영훈과 함께 있으면 곤란하다고 말한다. 조상필 형사가 정다연을 수사하면서 박형사는 가택수색중이라 당분간 귀가를 못한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남편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조상필 형사는 당분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조상필 형사에게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조상필 형사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서 임유정 사건은 100% 치정사건이라고 잘라 말한다. 조상필은 김준성이 카페를 개업할 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는지 묻는다. 정다연은 두사람이 대학교 선후배라 원래 친하다고 말하고 조형사는 김준성의 주변조사를 하니 예전에 김준성이 임유정을 좋아했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이영훈과 임유정을 소개한 사람이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조형사는 그 동네로 이사오라고 말한 사람도 김준성이고 자주 만나자고 한 것도 김준성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피해자인 임유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는다. 정다연은 남편이 권해서온 것이 아니라 이영훈에게 가족은 할머니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조형사는 정다연이 부모님이 없고 언니밖에 없어서 아내가 외롭다는 핑계로 이사를 권한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사실과 충돌한다고 말한다. 조형사는 사건 당일 정다연과 김준성이 임유정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닌지 묻는다. 조형사는 다른 물건은 다 그대로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폰만 사라졌다고 말한다. 발견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면식범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그렇다고 남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말한다. 조형사는 사건당일 피해자와 김준성이 주고 받은 문자를 보여 주고 정다연은 문자를 보고 매우 놀란다. 김준성과 임유정은 비밀에 대한 문자를 주고 받고 김준성은 자신이 정리하겠다고 답을 한다. 조형사는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도구는 가택수색이 들어가서 곧 발견될 것이라고 말한다.

면회실에서 정다연은 남편인 김준성을 만난다. 정다연이 임유정의 집에 왜 갔는지 묻고 김준성은 당신과 싸우고 유정과와 상의하러 간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정다연이 눈물을 흘린다. 김준성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다연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사건당일 김준성과 정다연의 집에서 정다연은 임유정에게 전화를 한다. 김준성은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기를 빼앗고, 정다연은 무엇이 구려서 전화를 못하게 하는지 묻는다. 김준성은 아내가 이러는 이유가 처형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언니 만나게 무엇이 잘못인지 따져 묻고 김준성은 처형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났다고 동생에게 계속 주입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유부녀가 밤마다 술먹자고 전화하는게 정상인지 묻고, 김준성은 이영훈이 없으니 같이 먹자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정다연은 자신이 은진이 두고 못가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부르는 것이고 낮에도 사우나 간다고 가게 비우고 임유정 만나러 가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김준성은 아내와 처형이 정신병자라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예전 처럼 둘이 살아라고 말하고 정다연은 엄마아빠 없이 둘이 산게 죄냐 아니면 멀쩡한 집안 망치는 그 여자가 잘못인지 묻는데 방에 있던 은진이 울면서 나오고 김준성도 화를 내며 나가 버린다.

면회실에서 정다연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는지 묻는다. 김준성은 사태가 이렇게 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한다. 김준성은 정다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처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영훈도 모른다고 말한다. 김준성은 그날 이상한 남자가 유정의 집을 찾아와 자신을 보았다고 말한다. 김준성은 처음보는 남자라고 했고 정다연은 지금이라도 경찰에 이야기 하자고 말한다. 김준성은 변호사가 살해동기를 밝히는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면서 정다연에게 자신이 유정과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것만 알아 달라고 말한다. 김준성은 아직은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이영훈의 집을 찾아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자고 말하는데 집안에서 신음 소리가 들린다. 그러자 정다연은 집안으로 들어가고 이영훈은 집에 온거 누구에게 이야기 했는지 물어본다. 정다연은 이영훈에게 남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묻는데 이영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다른 아무말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영훈을 보며 놀란 눈빛으로 박상민을 본다. 정다연은 당장 남자를 풀어 주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이 사람이 아니면 이영훈까지 잘 못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면서 김준성이 먼저 석방되어야 이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김준성이 석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정다연은 이 남자가 자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지금 아니면 이 남자가 범인인지 아닌지 밝혀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정다연은 경찰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한다.

다. 이영훈은 경찰에서 내가 친구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김준성의 무죄가 먼저라고 말하고 이영훈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1개월전, 이영훈은 이사를 취소하고 경찰수사 자료를 보면서 집 구조를 사건 당일과 같이 다시 재현한다. 집을 찾은 정다연은 집안을 보고 놀라 기겁을 한다. 이영훈은 자신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면서 놀라지 말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다른 것은 그냥 두고 방으로 오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를 묻고 이영훈은 마음으로는 알겠지만 그게 증거가 안되어 괴롭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무슨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야 누굴 용서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남은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사건을 재연해 얻은 것이 있는지 묻고 이영훈은 준성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경찰이 찍은 사진과 똑같이 재현한 것인지 그날 누군가 오니까 유정이 속옷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준성이 왔다면 속옷부터 치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고직전에 찾은 사람은 준성이 아니고 잠깐 들른 사람이거나 보여줘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정다연에게 사진을 보여 주면서 범인이 얼굴을 가린 수건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사진을 보면서 은진이 돌잔치 수건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준성이 은진이 태몽이 무지개라서 찾아 다닌 것을 알고 있다며 딸 돌잔치 수건으로 유정이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찰에서는 내연관계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영훈은 증언을 하겠으니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한다. 정다연이 왜 자기보고 도와 달라는 것인지 묻자 이영훈은 정다연이 자기보다 두사람을 더 믿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준성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왜 유정을 죽였는지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이 남자가 아닐수 있다는 것은 준성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준성은 아니라고 말하고, 경찰은 준성이라고 하고 그럼 누구란 말인가 하고 이영훈이 소리를 지른다. 정다연도 준성이 무죄를 받아도 믿지 못할 것이라면서 소리를 지른다. 이영훈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정다연도 이 남자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며 일어난다. 그때 포박되어 있던 박상민이 신음을 하며 이야기를 하려하고 정다연이 남자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 낸다. 박상민은 두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났다면서 이영훈이 범인이라고 말한다. 전에 이 집에 왔을 때 이영훈을 보았다고 말한다.

1개월전, 정다연과 이영훈이 통화를 하고 귀가를 한다. 이영훈이 사건기록을 정리한 방에 들어가 커피잔 두 개가 찍힌 사진을 가방에 숨기고 사건기록을 뒤진다. 정다

연은 책상에서 임유정의 휴대폰을 찾는다. 뒤에서 이영훈이 들어오며 유정이 휴대폰이 맞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놀라며 도시락통을 떨어 뜨린다. 이영훈이 도시락통을 치우고 처음부터 숨기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유정이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 너무 많았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유정이 찍은 사진을 보다가 남편과 유정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된다. 이영훈은 휴대폰이 잠겨져 있었는데 범인이 열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범인이 휴대폰속에서 무엇을 찾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정다연은 휴대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묻는다. 이영훈은 준성에게 보내려다 전송이 않된 메시지가 있다면서 정다연에게 보여준다. "지금 집에 ㅇ"이라고 적혀있다. 정다연이 "ㅇ"이라는 것을 보며 영훈을 본다. 영훈은 잘못 놀렸을 것이라면서 경찰에게는 휴대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정다연의 "언니"(우미화역)는 집에 왔을 때 그대로 두었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언니에게 중요한 사건 서류도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나중에 다 치우겠다고 말하며 며칠만 은진이를 맡아 달라고 말한다. 언니는 무슨 일인지 묻고 다연은 사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언니는 경찰에서 재조사하는 이유를 묻고 정다연은 경찰이 아니라 이영훈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사건 당일을 추리한다. 누군가 집에 왔으니 수건으로 속옷을 가렸을 거라고 말하고 처음 주방에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주방에 물건들이 많은데 유정은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다연은 너무 무서워서 그럴수 있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유정이 저항한 흔적이 있다면서 정다연을 눕히고 목을 조른다. 정다연은 목을 조르고 현관으로 도망한다. 이영훈이 그쪽으로 도망하는게 정상인데 유정이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방으로 갔다고 말한다. 당황한 정다연은 그대로 집밖으로 도망한 뒤 눈물을 흘린다. 면회실에서 정다연은 김준성과 면회를 하면서 이영훈이 무섭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유정이를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영훈이 죽인 것이 아닌지 묻는다. 김준성은 괜한 의심으로 증언마저 포기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한다.

박상민은 정다연에게 묶인 손을 풀어 달라고 말하고 정다연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박상민은 이영훈이 아내를 죽인 목격자를 묶은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묻고 정다연은 이 집에 왜 다시 온 것인지 묻는다. 박상민은 그 날도 집을 잘 못 찾은 거라면서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박상민은 자신을 풀어주면 경찰에 모두 이야기 하겠다면서 이대로 있으면 정다연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손목에 묶인 테이프를 풀어준다. 담배를 피우던 이영훈이 놀라서 달려 오는데 정다연이 문을 닫고 잠귀버린다. 박상민은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말하고 정다연도 이영훈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영훈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전화기를 던져 버린다. 이영훈은 박상민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소리를 지르고 박상민은

사고당일 이 집에 왔었다고 말한다. 이영훈이 박상민이 진범이라고 말하면서 정다연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는지 고함을 친다. 박상민은 그때 이영훈을 보았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박상민이 거짓말을 한다고 믿지 말라고 말하고 박상민은 다시 거짓말이라면서 자신이 본 사람은 김준성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이 박상민의 말을 막고 고함을 친다. 박상민은 자신이 이집에 왔을 때 김준성과 임유정이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말하는데 정다연은 저 남자가 우리를 갖고 논다면서 믿지 말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정다연에게 어떻게 이놈을 믿고 자기를 범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묻고 정다연은 미안하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모두가 준성이를 범인이라고 말할 때 자신만큼은 준성이를 믿었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에게 왜 나를 본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묻는다. 박상민은 이영훈이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준성이를 보았다고 해도 역시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상민은 정다연이 자기말을 믿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영훈을 보았다고 진술하겠다고 하니깐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박상민이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에게 지난번에 칼까지 가지고 온 이유를 묻는다. 정다연은 박상민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 공판 하루전, 이영훈의 "장인"(김귀선역)과 "장모"(최정원역)가 찾아와 김준성을 위해 증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때리고 화를 낸다. 장인은 내일 법정에 가면 가만있지 않겠다면서 집을 나간다. 정다연은 이제 할만큼 했고 내일이 마지막 공판이니 그만하자고 말하지만 이영훈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영훈이 소리를 지르고 테이프를 사러 수퍼로 간다. "수퍼사장"(김필역)이 아들이 경찰오면 주려고 CC-TV영상을 USB에 담아 두었는데 경찰은 보기만 하고 가져가지 않았다면 건네준다. 이영훈이 집으로 돌아와 정다연과 함께 영상을 확인한다. 이영훈의 집을 직접 비추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확인 가능하다고 말한다. 영상을 돌려 보던 이영훈은 박상민이 마트에서 칼을 사는 영상을 확인한다. 이영훈은 남자가 타고 가는 자동차 84너2421을 확인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에게 칼을 산 뒤 집에 온 이유를 묻는다. 박상민의 아내가 아니라 김준성을 죽이려 했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왜 김준성을 죽이려 했는지 묻고 박상민은 저여자가 더 잘 알거라고 말하는데 정다연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영훈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그치자 박상민은 경찰이 오면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다. 이영훈이 박상민의 목을 조르며 재차 종용하자 박상민은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아무말도 못한다고 말한다. 박상민은 자신이 진실을 이야기 해도 이영훈이 자기를 죽여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이야기를 거부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을 묶었던 테이프를 다시 푸는데 정다연은 박상민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이영훈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남자의 묶인 다리를 풀고 준성이를 죽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묻는다. 박상민은 자신의 아내가 다연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놀라면서 주저 앉는다.

면회실에서 정다연은 남편에게 왜 그런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인지 묻는다. 김준성은 유정이가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김준성은 은진이 유치원 미나엄마(윤송아역)를 밖에서 한 번 만난 적 있다고 말한다. 김준성은 한번 영화를 보았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남편이 밤마다 전화를 한 것이 유정이 아니라 미나 엄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김준성은 그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변한다.

정다연은 저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영훈에게 박상민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영훈은 정다연의 손을 뿌리치며 이 집에 온 이유를 묻는다. 박상민은 그날도 아내가 차를 타고 나가서 당연히 김준성을 만나러 가는 거라 생각하고 어디서 만날지 몰라 김준성의 집으로 갔다고 말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때 그놈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뒤쫓았는데 어느 집으로 들어 갔다고 말한다. 박상민은 집을 빌려서 그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근처 슈퍼에서 칼을 산 것이라고 말한다.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 가려는데 아내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사건 당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임유정이 문을 여는데 박상민을 보고 누구인지 묻는다. 김준성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누군지 묻는다.

이영훈은 박상민에게 여기에 다시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박상민은 그날 일로 아내에게 오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아내가 얼굴을 다쳐서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날 정다연과 미나엄마가 시비가 있어서 정다연이 미나엄마의 얼굴을 때린 날이었다. 그 날 이후로 아내가 밥도 안먹고 불안해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 보았더니 아내가 모든 것을 털어 놓았다고 말한다. 아내는 자기와 바람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죽였는데 어쩌면 자기가 그 여자처럼 죽을 뻔 했다는 생각에 그동안 무서웠다고 말한다. 그날 정다연이 아내에게 와서 죽여 버리겠다면서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그 사건에 대해 알아 보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났던 날이 자신이 그 집을 찾아갔던 그 날이었다고 말한다. 박상민은 내가 간 그 집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온 것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거짓말이라면서 이영훈에게 믿지 말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묻자 박상민은 믿고 앓민고는 이영훈의 문제라고 말한다. 박상민은 정다연이 이곳에 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박상민은 정다연이 이 집에서 자신을 보자마자 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박상민은 저 여자가 자신이 이영훈에게 무슨말을 했는지부터 물었다면서 저 여자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정다연이 한 말들을 상기해 본다. 박상민은 자신이 김준성을 본 것을 이영훈에게 말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달려 온 것이라고 말한다. 박상민은 이영

훈에게 저 여자와 친구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영훈은 정다연에게 그래서 법원으로 안가고 여기로 온 것인지 되묻는다. 박상민은 저 여자는 범인이 누구든지 남편만 석방되면 상관없는 여자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그만하라고 소리 지른다. 박상민은 자신이 이영훈을 보았다고 말하자 자기 남편과 영훈을 착각하는 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한다. 분노한 이영훈은 망치를 들고 옷장을 부숴 버린다.

마지막 공판 하루전, CC-TV를 확인한 이영훈은 경찰서를 찾는다. 이영훈은 조상필 형사에게 박상민에 대해 알려 달라고 말하는데 조상필 형사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그 날 박상민이 칼을 사 가지고 갔다면 조사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상필 형사는 알겠다면 박형사에게 이영훈을 돌려 보내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당장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른다.

정변호사를 만난 이영훈과 정다연, 정변호사는 당장 내일이 공판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정변호사는 박상민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남편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정다연은 대법원에서 진범을 밝히면 남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데 정변호사는 대법원은 서면심의회 원칙으로 서류만 보고 1,2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인신문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으면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변호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정변호사는 내일 공판이 중요하니 최선을 다하고 선고기일전에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해 보겠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박상민이 범인일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게 맞는지 묻고 정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준성을 진범으로 확신하고 있어서 그걸 밝히려면 무죄판결이 나아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영훈은 경찰서 밖에서 조상필 형사를 기다리고 조상필 형사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묻는다. 이영훈은 경찰이 틀렸고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상필은 그런 말은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말하며 모두가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한다. 그말이 사실이면 지금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자기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상필은 김준성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는 것인지 범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조상필은 2421 차량 주소를 영훈에게 건네며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영훈은 가지고 있던 봉투를 형사에게 던져 준다. 이영훈은 박상민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간다. 정변호사는 김준성이 석방되려면 무조건 무죄판결이 나와 된다고 말하고 그래야 검찰에서 다른 용의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상필 형사는 김준성이 무죄석방되었다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나와도 다시 체포 못한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을 말한다.

이영훈은 정다연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면서 어떻게 되든 김준성만 석방되면 된다고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린다. 그러자 박상민이 살려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달려 나가고 정다연이 박상민을 붙들며 경찰이 이영훈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박상민은 자신은 그런 거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박상민은 자기 말대로 해야 진범을 잡고 아내와 바람핀 놈을 잡을수 있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이영훈을 붙들며 법정에서 증언 안해도 되니깐 공판 끝날때까지만 아무말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이영훈은 망치를 내려 놓고 끝이라면서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정다연이 말리고 이영훈을 말리려는 정다연을 박상민이 붙든다. 이영훈이 현관으로 가면서 그동안의 일을 떠올린다. 그때 정다연의 전화진동이 울리는데 발신자가 언니다. 이영훈은 언니라는 단어를 보고 아내가 보내려던 문자가 언니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영훈이 돌아서는데 정다연이 망치로 박상민을 내리친다.

사건 당일, 정다연은 남편이 임유정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해 한다. 빨래대를 옮기던 임유정이 수건으로 속옷을 가리고 밖으로 나간다. 때마침 현관문 벨이 울리자 임유정은 다연 언니로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 오라고 말한다. 임유정은 식탁위의 컵을 재빨리 치우고 정다연은 임유정에게 은진아빠가 왔었는지 묻는다. 임유정은 준성오빠가 오기로 했는지 묻고 거짓말을 한다. 그때 김준성이 임유정에게 문자를 보내고 임유정은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정다연이 유정의 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든다. 임유정이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는지 유정을 때리고 목을 조른다. 발버둥치던 임유정이 정다연을 밀치고 진정하라면서 방으로 도망한다. 정다연은 순간, 가지고 있던 칼로 유정을 찔러 버린다. 임유정은 피를 흘리며 침대에서 쓰러지면서 고통스러워 한다. 정다연은 피를 보고 당황하며 울부 짖는다. 정다연은 유정의 휴대폰을 보려다가 화면이 잠기자 침대맡으로 던져 버린다. 정다연은 걸옷을 벗은 후 수건으로 피를 닦는데 딸의 돌잔치 수건인 것을 알고 슬퍼한다. 정다연은 유정이 자신을 보면서 죽은 것을 보고 수건을 얼굴에 던진다. 그때 수건에 붙어 있던 김준성의 머리카락이 임유정의 입에 달라 붙는다.

이영훈은 정다연이 임유정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다연은 모두 이영훈과 임유정 때문이라면서 두사람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다연은 이영훈이 이런 미친 짓만 하지 않았어도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영훈은 정다연에게 망치를 내려 놓아라고 말한다.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라고 경고한다. 정다연은 지금 문을 열면 경찰에게 모두 이영훈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협박한다. 정다연은 박상민에게 진범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김준상을 살려 달라고 말한다. 이영훈은 정다연의 말을 듣고 고통에 빠진다. 경찰이 문을 강제

로 여는 순간 정다연은 망치를 휘둘러 자신의 배를 찢러 버린다. 출동한 경찰은 자초지정을 알아 보지도 않은채 이영훈을 체포하고 구급대원은 정다연의 상태를 확인 후 응급처치를 한다.

이영훈은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김준성은 무죄 석방된다. 정변호사는 임유정과 김준성을 내연관계로 오해하여 이영훈이 아내를 죽이고 난후 김준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 사실이 박상민 때문에 들통이 날 것 같아 뒤늦게 박상민을 납치 감금하고 그 사실을 정다연이 알게 되자 죽이려 한 것이라고 말한다. 김준성이 이영훈은 뭐라고 말하는지 묻는데 정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서 담당 변호사도 포기했다고 말한다. 김준성은 은진을 데리러 가는데 다연언니는 은진을 더 맡겨도 된다면서 다연이 맡긴 가방을 준다. 차에서 은진은 아빠에게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달라고 말한다. 김준성은 과자 그만 먹어라고 말하며 가방속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으라고 건넨다. 준성은 가방 안에서 검은 비닐을 발견하고 그 속에 피묻은 옷을 발견한다. 놀란 김준성이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닐안에 든 옷과 칼을 보고 슬퍼한다.

이영훈은 포승줄에 묶인 채 이송되어 간다. 이영훈은 조상필 형사가 주소를 건네면서 후회할 수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그때 이영훈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진실을 모르고 있을때나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다연은 병원에서 태연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물리고 물리는 영화, 진범은 진범을 잡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정다연이 범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이영훈은 왜 입을 닫은 것일까? 경찰수사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장난하듯 아무렇게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범인을 잡는가? 이영훈의 진실을 향한 집착과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진실을 추적하는 자를 위에서 내려다 보는 듯한 정다연의 모습에서 세상에서의 선과 악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와 과거가 혼돈의 무질서를 말하듯 퍼즐을 맞추어 가는 영화 진범에서 그리스도인은 가려진 진실을 발견한다. 언제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적인 종교임에도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향을 어렵지 않게 교회에서 만나게 된다.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뒤로 한 채 언제나 남을 향하는 기독교인에게서 빛은 결코 찾을 수 없다. 진실은 당연히 없다. 영화 진범에서 진범은 안전한 귀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슬프지 않은가? 정작 자신의 범죄 도구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딸의 가방속에 숨겨 두었다는 것은 인간의 최악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의 잘못을 덮기만 하려 한다면 언젠가 가장 무서운 것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0. “봉오동전투”戰鬪, The Battle: Roar to Victory

한국영화, 장르:액션,드라마, 개봉:2019.08.07.
감독,각본:원신연, 제작:빅스톤픽쳐스,더블유픽쳐스,
주연:유해진,류준열,조우진,
관객:4,579,786명(2019.08.27.기준)

1. 봉오동전투(1920,鳳梧洞戰鬪)

봉오동 전투는 1920년 만주 봉오동에서 홍범도, 최진동을 중심으로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대패시킨 전투를 말한다. 1920년 6월4일, 독립군 홍범도(洪範圖), 최진동(崔振東,明錄) 부대의 1개 소대가 북간도 화룡현(和龍縣), 월신강(月新江), 삼둔자(三屯子)를 출발해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증성군 강양동에 주둔하고 있던 1개 소대의 일본군 헌병 국경 초소를 습격하였다.일본군은 독립군의 국내 진입전과 대안의 독립군의 활동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양동 전투는 대전투의 도화선이 되었다. 급보를 받은 일본군 남양 수비대는 1개 중대를 출격하여 반격을 전개하였다. 한편 독립군 사령부는 1개 소대를 삼둔자 서남방향 봉화리에 준비하였다. 일부 병력으로 총격전을 전개하면서 일본군을 봉화리로 유인하였다. 일본군이 잠복해 있는 독립군 부대앞까지 추격해 왔을 때가 6월6일 오전 10시다. 독립군은 100m 고지에서 사격을 하여 60명을 사살하였다. 전투에서 독립군 2명이 사망하고 재류동포 9명이 유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이 전투에서 이화일 소대장의 유도작전은 독립전쟁사에서 높이 평가 된다. 이에 일본군 제19사단장은 보병 야스카와(安川二郎) 소좌가 보병 및 기관총대 1개 대대를 출격한다. 홍범도, 최진동 등 독립군 수뇌부에서는 열악한 병력으로 적과 대결하기 위해 작전상 요지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북편으로 퇴각한 안산 후방고지에서 수세를 취한 후 6월7일 새벽 야스카와 부대가 전방 30m의 안산 촌락으로 돌입하자 잠복중인 독립군이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야스카와 부대는 니히미(新美) 중대와 합류하여 교전했으나 지리전 악조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퇴각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야스카와 부대가 야마자키(山崎) 중대를 주력군으로 독립군과 교전을 전개하였다. 야스카와 부대가 고려령(高麗嶺) 서방향에 도착했을 때 북방 및 동북방 고지에 매복중이던 독립군의 기습적인 사격을 받고 참패를 입었다. 일본군은 안산과 고려령 전투에서 120명이 전사를 당한 후에도 독립군의 유도작전에 유인되어 봉오동으로 향한다. 봉오동 전투는 삼둔자 인근 전투에 이어 계속되었다.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40리 거리에 위치한 고려령의 험준산령으로 이어진 계곡지대였다. 봉오동에는 100여호의 민가가 있었고 독립군의 근거지로서 최진동 가족들의 생활터전이었다. 이들 민가는 상촌(북촌), 중촌(남촌), 하촌 등 3개 부락에 분산되어 있으며 상촌은 봉오동을 대표하는 독립군의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다. 독립군은 6월7일,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해 홍범도와 최진

동의 연합부대를 편성하였다. 1~4중대 책임자로 이천오, 강상모, 강시범, 조권식을 지정하고 별도로 2개중대를 편성하였다. 사령부 부관 안무와 연대부 장교 이원, 사령관 최진동, 연대장 홍범도 등 독립군의 사기는 중천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견인한 사람은 홍범도 장군이었다. 1중대는 상촌 서북단에, 2중대는 동쪽 고지에, 3중대는 북쪽 고지에, 4중대는 서산 남단 숲속에 매복하였다. 홍범도 연대장은 2개 중대를 지휘하여 서남산 중턱에 위치하여 일본군 선봉이 봉오동 어구를 통과하기 까지 유도하였다. 일본군 부대가 독립군의 포위망에 들어올 때 일제히 사격을 단행하는 계획이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계획대로 봉오동 상촌 독립군 700명이 기다리고 있던 포위망으로 들어왔다. 역시 일본군은 우왕좌왕하며 대패하였다. 오후 3시경, 야스카와 소좌는 가미야(神谷) 중대와 나카니시(中西) 소대를 지휘하여 동쪽 고지의 강상모 중대에 반격을 하였다. 강상모 중대는 100여명을 사살하고 격퇴하였다. 일본군은 온성 유원진으로 퇴각하면서 157명이 전사자와 200여명의 부상자 등 큰 손실을 입었다. 그에 비하여 독립군은 장교 1명, 병졸 3명이 전사하고 소수의 부상자 등 경미한 손실을 입었다. 압도적인 연전 연승은 독립군의 높은 사기와 함께 홍범도 장군의 뛰어난 전략전술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최진동 부대가 일본군 정규군을 대파함으로써 독립군의 위상과 가치를 더 높인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전과가 되었다.

2. 영화 “봉오동전투”

두만강 중국 접경지역, 어린 황해철이 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고 일본군은 황해철을 따라 강을 도하한다. 강을 건너 일본군들은 길을 물어 보고 자루채로 식량을 준다. 동생이 자루속을 펼치며 감자를 먹다가 폭탄을 발견하는데 동생이 해철을 밀어내며 폭탄을 안고 죽는다.

두만강 국경초소, “황해철”(유해진역)과 “마병구”(조우진역)는 독립군과 함께 군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동중이다. 국경 초소를 발견하고 황해철은 수류탄을 투척한다. 마병구와 소총수들이 초소에서 도주하는 일본군을 저격하여 제거한다. 황해철은 초소안에서 어린 소년 일본군 “유키오”(다이고 코타로역)를 생포한다. 황해철은 초소 벽면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적은 뒤 떠난다.

함경남도 나남 일본군 19사단, 일본군은 독립군이 봉오동, 후안산 일대를 지나 러시아로 철수할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호랑이 여우보다 신속하고 난폭하다면서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한다. 황해철이 숲속에서 말소리를 듣고 정지 신호를 보낸다. 황해철이 장난삼아 소리를 지르자 삽과 몽둥이를 든 농민들이 월강추격대 때문에 도주중이라고 말한다. 농민들은 황해철의 항일대도를 보고 그를 알아 본다. 황해철은 농민들에게 어서 빨리 떠나라고 말한뒤 이동을 서두른다. 청년 농민들은 황해철을 따

라 가겠다고 말한다.

황해철과 독립군이 삼둔자 방어고지에 도착한다. 황해철은 이장하 분대장이 독립군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독립군은 이진성이 여자와 함께 독립자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장하의 누나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순간 황해철이 삼둔자 마을에 일본군이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국경을 지키던 남양수비대의 "아라요시 시게루"(박지환역)는 부하들을 데리고 마을을 공격한다. 옥수수 밭에 있던 "춘희"(이재인역)가 일본군을 발견하고 숨직한채 숨어있다. 아라요시는 촌장을 찾아 후안산으로 이동중인 이진성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촌장은 후안산으로 갈 것이지 여기는 왜 온 것인지 묻는데 아라요시는 징검다리 는 뒷사람을 위해 밟고 지나가는 것이라면서 이진성이 이곳을 경유했는지 묻는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달리라고 소리치며 아라요시에게 달려 든다. 일본군은 도망하는 마을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아라요시는 하늘에 떠 있는 연을 발견하고 아래쪽을 총으로 쏜다. 아이가 도망하다 아라요시가 쏜 총을 맞고 쓰러진다. 동생이 쓰러지자 춘희가 울부짖으며 뛰어 나온다. 아라요시는 자신이 죽이겠다면서 칼을 뽑아 다가간다. 순간 "이장하"(류준열역)가 총을 쏘며 일본군을 공격한다. 잠시후 황해철 부대까지 합류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고 아라요시는 공격을 피해 숲으로 도망한다. 황해철은 일본군을 추적하며 사격을 하는데 장전불량이 되자 항일대도를 뽑아 놉을 베어 버린다. 겁에 질린 야라요시는 환급히 도망을 한다. 황해철이 일본군 포로에게 질문을 하자 "마병구"(조우진역)가 통역을 한다. 일본군이 대답을 거부하자 황해철이 급소를 공격하고, 겁에 질린 포로들은 독립자금 운반책인 이진성과 여자를 잡으러 온 것이라고 말한다. 마병구는 이진성이 여자와 함께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장하의 누나는 안전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장하는 병력을 2개조로 나누어 저격조는 후안산으로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라고 지시한다.

월강추격대는 국경수비대의 야스카와가 아라요시의 부대가 후안산으로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야스카와는 아라요시에게 월강추격대와 합류하라고 지시한다. 이장하는 병력을 데리고 이동을 계속한다. 황해철은 이장하에게 병력이 적으니 그만하자고 말한다. 황해철이 우리의 임무는 독립군에게 총을 넘겨주고 독립자금을 받는 게 임무라고 말한다. 이장하는 여기가 마지막 조선이고 마적은 빠지라고 말한다. 황해철이 한때는 마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한다. 독립군 이름을 붙여 준것도 흥범도 장군이라고 말한다. 황해철은 마병구에게 이장하가 누나때문인 것 같다고 비위를 거슬리지 말자고 말한다. 황해철은 이동중에 이장하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이장하는 독립군 "함철훈"(박희순역)과 함께 돌무덤을 만든다. 함철훈은 고향바람이 좋으면서 고향을 그리워 한다. 함철훈은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말한지가 벌써 2

년이라고 말한다. 이장하는 함철훈에게 이번 임무에 지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이장하는 후회가 없다고 말한다. 지난날, 이장하가 훈련받던 시절, 이장하의 누나는 절대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말한다. 누나는 엄마가 이장하에게 남긴 유품반지를 건넨다. 이장하가 자신에게 누나는 엄마와 같다면 나중엔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직접 끼워 달라고 말하며 누나가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다. 그때 수류탄이 날아오고 이장하는 누나를 밀어내고 수류탄을 꺼 안는다. 지켜보던 황해철이 나타나 수류탄이 날아오면 옆에 누가 있던지 몸을 피하라고 말한다. 황해철은 오늘부터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는데 화가 난 이장하가 돌을 들어 황해철의 머리를 내리친다.

독립군 사령부, 참모들은 이장하 분대장이 월강추격대를 유인하여 후안산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고한다. 내일이면 봉오동까지 추격대를 유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참모들은 북만주에서 온 황해철이 도와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홍범도 장군에게 퇴로를 열어 둘 것인지 묻는다.

월강추격대가 삼둔자 마을에 도착하여 이미 썩대밭이 되어 버린 마을을 보며 사상자를 확인한다. 일본군은 아라요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야스카와는 독립군 포로 함철훈을 불러 후안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어딘지 묻는다. 함철훈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쳐 준다. 한편 이진성은 독립군자금을 가지고 약속장소에 도착한다. 노인은 북만주에서 오는 황해철에게 돈을 넘겨야 하는데 황해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임자현"(최유화역)이 급히 불을 소등한다. 노인이 누구인지 묻자 일본군들이 총을 쏘며 공격하고 이진성, 임자현, 독립군은 후문으로 빠져 나간다. 독립군은 이진성과 임자현이 빠져 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일본군과 대치한다. 그때 이장하와 독립군이 나타나 두사람을 구출한뒤 일본군을 지켜 본다. 일본군들은 어두워서 수색이 곤란하다고 철수를 한다. 이장하가 이진성에게 자신의 누나의 안전을 물어본다. 이진성은 일본군이 1919년 만세운동 이후에 옥에 투옥중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태워 죽였다고 말한다. 그때 누나도 함께 죽었다면서 유골함을 보여준다. 임자현은 이장하의 누나 반지도 간신히 가지고 나왔다면서 이장하에게 건넨다.

일본군 본진은 수색을 중단하고 돌아온 일본군이 삼부능선에 독립군이 숨어 있다고 보고한다. 일본군은 몇 명 더 결집하면 추격하겠다고 말하는데 도망했던 아라요시가 월강수비대로 합류한다. 일본군은 마을 사람들을 끌고 와 함철훈에게 독립군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촌민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어쩔수 없이 손으로 방향을 가르킨다.

후안산 방어기지에서 "개똥이"(성유빈역)가 유키오에게 밥을 주는데 유키오가 밥을

발로 차 버린다. 분노한 개똥이가 유키오를 때리면서 직접 보라고 말한다. 가족을 잃은 춘희는 배식을 하며 울고 있고 유키오는 슬픔에 빠진 춘희를 바라 본다. 이장하가 권총을 꺼내 유키오를 겨누며 죽이려 한다. 황해철은 추격대를 유인할 때 미끼로 사용하자면서 이장하를 말린다. 황해철은 이장하에게 이 놈을 죽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놈이 된다면서 위로한다. 이장하는 총을 내리고 진정을 한다. 춘희는 유키오에게 밥을 주면서 살아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지켜 보라고 말한다. 독립군이 모여 밥을 먹고 있다. 황해철은 개똥이에게 봉오동에서 마지막으로 본 독립군 숫자가 몇 명인지 묻는다. 개똥이는 100명 정도라고 말하는데 황해철이 독립군 숫자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황해철은 어제의 농사군이 오늘은 독립군이 되는 것이라면서 나라 잃은 설움이 우리들에게 총을 잡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장하는 황해철에게 독립군자금을 받으면 그만 돌아가라고 말한다. 황해철은 이장하가 가는 길에 자신들도 한 힘을 도우겠다고 말한다. 마병구가 황해철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북만주에서 가져온 총을 반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무기와 돈을 가지고 내려 가자고 말한다. 황해철은 무기하고 돈은 가져 가서 쓰면 되지만 우리가 살 곳이 없다고 말한다. 마병구는 총으로 탈취하면 된다고 말하고 황해철은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마병구는 총으로 돈을 빼앗으면 된다고 말한다. 한편 일본군 정찰병이 후안산 방어기지에 있는 독립군을 발견하고 돌아간다. 다음날 독립군이 목표지점으로 이동한다. 이장하가 지도를 보며 작전을 설명한다. 황해철은 지도를 보며 장군의 지원이 없다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장하가 겁이나면 지금이라도 빠지라고 말하고 황해철은 이진성에게 봉오동까지 군자금을 부탁한다고 말한다. 이장하는 개똥이에게 춘희와 함께 봉오동으로 먼저 가라고 지시하며 춘희에게 유골함을 장군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월강추격대 본진으로 돌아온 정찰병이 후안산에 독립군이 40명 정도 있다고 말한다. 그곳에 독립군자금을 이전하는 이진성도 있고 포로도 있다고 말한다. 아스카와는 포로를 반드시 구출하라고 말한다. 아라요시는 자신이 하겠다고 요청하고 야스카와는 어느쪽 손으로 총을 쏘는지 묻고 왼쪽 손가락을 자르며 피가 마르기 전에 잡아 오라고 명령한다. 개똥이와 임자현은 주위를 확인하며 이동하다가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개똥이는 춘희에게 물을 건넨다. 춘희는 물을 마신후 유키오에게 마시라고 건네며 마시라고 할 때 마셔라고 말한다. 다시 출발하고 임자현이 앞장서면서 이동하다 춘희 앞에 일본군이 나타나 총을 겨누자 춘희는 도망치라고 소리 지른다. 임자현은 자신을 공격하는 일본군을 꺼안고 절벽에서 뛰어 내린다. 춘희의 고향소리에 개똥이와 유키오가 바위뒤에 숨는다. 유키오가 개똥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뒤 자신의 손을 칼로 긁고 일어 난다. 유키오가 여자 아이는 인근 촌민이니 돌려 보내라고 말하지만 정찰병은 유키오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춘희를 끌고 간다. 그 사이에 개똥이 계곡을 빠져 나가 독립군이 있는 곳으로 달려 간다. 개똥이가 소총을 챙기며 춘희가 잡혔으니 구하러 간다고 말한다. 반대편에서는 추격대가

나타나 이동중이다. 이장하는 계획대로 돌무덤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개똥이는 춘희를 구하기 위해 혼자 달려간다. 황해철이 자신이 아이들을 구해서 갈테니 이장하는 독립군을 데리고 돌무덤으로 가라고 말한다. 이장하는 독립군에게 추격대에게 쫓기는척 유인하다가 돌무덤으로 오라고 말한다. 아라요시는 독립군을 발견하고 출발시키고 이장하와 독립군은 사거리를 유지하면서 일본군을 유인한다.

월강추격대 본진에서 야스카와는 유키오에게 자원한 이유를 묻는다. 유키오는 일본이 부끄럽다면서 열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야스카와는 칼을 던져 주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 유키오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데 천막내부로 수류탄이 날아온다. 가짜 수류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키오를 구출하고 천막안에 있는 일본군을 제압한 황해철은 독립군이 잡혀 있는 천막을 발견하고 쇠사슬을 끊으려 한다. 함철훈은 황해철을 보고 자기는 임무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서 돌아 가라고 말한다. 춘희를 제거하려는 일본군을 유키오가 제압하고 유키오를 공격하는 일본군을 임자현이 총으로 제거한다. 일본군들이 황해철을 추격하고 춘희와 유키오와 임자현은 분산하며 서로를 교란한다. 일본군은 아라요시에게 독립군이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말한다. 그때 돌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황해철과 독립군을 발견하고 추적하라고 명령한다. 황해철과 독립군은 일본군들의 추격을 피해 숲으로 달려간다. 달려가던 춘희가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데 깨어진 유골함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황해철은 마병구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한뒤 항일대도를 들고 일본군들을 향해 달려가 일본군을 제거한다. 순간 이진성이 말을 가지고 나타나 춘희와 개똥이를 태우고 임자현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는데 임자현은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다. 마병구는 일본군이 있으니 조심해서 이동하라고 말하고 유키오를 풀어주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한다. 황해철과 독립군은 일본군을 공격하고 숲으로 돌아와 몸을 숨긴채 바닥에 떨어진 유골을 가방 주머니에 담는다.

봉오동 남쪽 고려령, 이장하는 일본군을 유인하면서 돌무덤으로 달려가 돌을 건어낸다. 황해철과 독립군은 돌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뒤 몸을 은닉한다. 일본군이 추적하자 이장하는 숨겨 두었던 기관총을 들어 올려 총을 쏜다. 함정에 걸린 일본군 추격대가 총에 맞고 쓰러진다. 이진성과 춘희, 개똥이가 말을 타고 달려간다. 일본군이 이진성을 발견하고 총을 쏘며 뒤쫓는데 이진성이 총상을 입고 숲으로 달려간다. "쿠사나기"(이케우치 히로유키역)는 매복이 있을지 모른다고 정찰병을 먼저 보낸다. 이진성은 군자금 가방을 개똥이에게 넘기고 일본군을 기다린다. 일본군이 나타나자 총을 쏘며 전사한다. 일본군은 도망하는 개똥이와 춘희를 발견하고 추적을 계속한다. 고지에서 망을 보던 마병구가 개똥이와 춘희가 일본군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하고 이장하는 아이들이 가는 방향은 막다른 길이라고 우려한다. 이장하는 자신이 적을 유인할테니 황해철에게 아이들을 구하고 독수리 계곡에서 포로로 잡힌 독립군을 구출하라고 말한다.

고려령 협곡에서 쿠사나기는 무작정 달려 들다가 죽을 것이라면서 주변을 경계한다. 쿠사나기는 아라요시에게 가서 매복을 하라고 지시하고 부하들에게 돈을 빼앗으라고 말한다. 황해철은 춘희에게 유골가방을 건네주고 개똥이와 춘희에게 빠져 나갈 길을 알려 준다. 황해철과 독립군은 독수리 계곡으로 이동한다. 고지에서 이장하가 아이들을 협곡에서 빼내려면 일본군을 유인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마병구는 총알도 나눠 맞으면 덜 아프다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이장하는 자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빠르다면서 협곡을 달려 내려간다. 마병구와 독립군은 이장하가 목표지점에 도착할때까지 기다린다. 분대장 완장을 한 이장하를 발견한 쿠사나기가 이장하를 잡으라고 말하고 매복을 하던 아라요시는 총소리를 듣고 부하들에게 준비를 지시한다. 독립군은 매복 일본군 뒤에 은밀하게 나타나 조준을 한다. 이장하가 적의 총을 피하면서 목표지점으로 향하고 마병구와 독립군은 적에게 사격을 시작한다. 매복하던 일본군도 총에 맞아 죽었지만 아라요시는 구질하게 생명을 건지며 도망한다. 일본군이 이장하를 총으로 쏘고 마병구가 달려가서 저격하여 제거한다. 이장하가 총에 맞고 쓰러졌지만 숨겨둔 총을 찾는다.

황해철과 독립군이 독수리 계곡에 도착하는데 추적대 본진이 지나가고 있다. 황해철이 독립군 포로 구출을 위해 숨어서 지켜 보는 순간, 포로 함철훈이 쓰러진채 끌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척후병이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는데 야스카와는 독립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기전에 잡으라고 지시한다. 야스카와는 소용 가치가 없는 포로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황해철이 달려 나가려 하자 독립군이 황해철을 붙잡고 참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군이 함철훈을 칼로 찌른 후 버려두고 떠난다. 일본군이 떠난 후 황해철이 함철훈에게 달려 간다. 함철훈은 황해철에게 작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함철훈은 골짜기에는 독립군이 없고 봉오동에 매복해 있다고 말한다. 이장하가 상촌에서 막아 준다면 적을 죽일 계획이라 말한다. 함철훈이 자신이 떠날 때 독립군 숫자가 100명이 채 안되었다면서 추격대 숫자를 확인하고 러시아로 퇴각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작전 성패여부와 상관없이 이장하는 상촌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함철훈의 이야기를 들은 황해철은 상촌으로 달려간다.

이장하가 상촌에 도착하고 준비해둔 연막을 터뜨리며 달려 간다. 이장하는 일본군이 다가 오자 미리 숨겨둔 폭탄을 터뜨린다. 탄약이 떨어진 이장하는 총과 탄약을 은닉한 건물로 달려 가 총을 꺼낸 뒤 일본군이 접근하는 것을 지켜 본다. 순간, 지붕위로 올라간 일본군은 굴뚝으로 수류탄을 던진다.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장하는 밖으로 날아가 쓰러진다. 이장하가 누나의 모습을 보고 누나는 햇빛을 가리며 장하에게 물을 먹여 준다. 이장하는 누나를 보며 보고 싶다고 말한다. 쿠사나기가 칼을 뽑아 이장하를 찌르려 하는 순간, 황해철이 나타나 쿠사나기를 밀며 이장하를 구출하고 독립군은 주위 적들을 제거한다. 황해철의 항일대도에는 "어떤 죽음은 태산보

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황해철은 쿠사나기에게 칼을 던져 주고 대결을 한다. 쿠사나기가 사람 눈빛이 그렇게 변하는지 묻는다. 황해철은 적에게 받은 대로 돌려 주는 것이니 섭섭해 하지 말라고 말한다. 황해철의 항일대도 날이 부러지면서 쿠사나기의 목을 날린다. 이장하는 황해철에게 월강추격대가 도착한다면서 피신을 종용한다. 황해철이 이장하 혼자 죽는 임무는 끝이 났다면서 부축을 한다. 일본군은 상촌을 향해 포를 발사한다. 독립군들은 포를 피해 봉오동 골짜기를 향해 달려 간다. 아스카와가 상촌에서 죽은 쿠사나기를 발견한다. 쿠사나기의 칼에는 “대한독립만세”가 적혀 있다. 그때 황해철이 분대장 완장을 차고 소리를 지른다. 적들은 포를 쏘면서 공격하고 황해철은 연막을 피우며 달려 간다. 아스카와가 위협사격만 하고 생포하라고 지시한다.

황해철은 이장하를 어깨에 매고 떨어지는 폭탄을 피해 달려간다. 황해철은 봉오동에 도착한 후 이장하를 내린다. 이장하는 봉오동 주변을 돌아보며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한다. 포탄이 두사람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자 이장하가 황해철을 밀어내며 몸으로 막아선다. 정신을 차린 황해철이 이장하가 다리를 다친 것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다. 황해철은 울면서 동생이 형보다 먼저 죽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그런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아스카와가 말을 타고 달려 오는 것을 발견한 황해철은 항일대도를 들고 달려 간다. 순간 봉오동 고지에서 매복하던 대한 독립군 저격수가 총을 쏜다. 잠시후 사방에서 매복중이던 독립군이 나타나 일제히 사격을 가한다. 혼비백산한 일본군이 그대로 쓰러진다. 아스카와가 도망하는 병사들을 쏘면서 싸우라고 명령한다. 황해철은 야스카와와 검으로 대결을 한다. 황해철은 야스카와를 쓰러뜨린후 이땅에서 떠나라고 말한뒤 돌아 간다. 아스카와는 뒤돌아선 황해철을 공격하는데 황해철이 야스카와의 공격을 막고 찢러 버린다.

숲속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아라요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혼자말을 하며 도망하려 하는데 “홍범도”(최민식역) 장군과 마주친다. 홍범도 장군은 사방이 다 막혔다고 말한다. 홍범도 장군과 황해철, 이장하와 독립군은 고지에서 훈련장을 바라본다. 황해철이 홍범도 장군에게 다음엔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 보는데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라고 말한다. 바람이 고국을 향해 불어 온다. 홍범도 장군은 춘희가 가져온 유골을 바람에 날려 뿌린 후 태극기를 꺼내 든다.

영화는 끝이 났다. 1920년대, 독립군이 일본을 이기고 또 이기는 전투의 현장, 봉오동 전투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며 자존심이다. 봉오동전투에는 6명의 영웅적 캐릭터가 있다. 항일대도를 휘두르며 일본군을 단칼에 물리치는 전설적인 독립군 황해철, 올림픽 금메달감인 사격 실력과 초스피드가 강점인 독립군 분대장 이장하, 총과

지혜와 통역에 능한 저격수 마병구, 홍일점 저격수 임자현, 일본군에게 부모를 잃은 개똥이, 일본군에게서 살아남은 춘희, 그리고 포로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한 함철훈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독립군들. 그리고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동반 성장을 하기 보다는 한국을 여전히 하수로 여기는 일본의 모습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역시 대국은 한국이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배려의 나라다. 우리는 일제식민지 시대 40년을 우리 스스로 용서하고 일본과 손을 잡고 친구가 되려 했다. 일본은 가해자임에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한다. 우리는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우리를 동방의 변방민족이라고 격하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동방대국으로 자존심을 지켜 주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못사는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봉오동 전투는 본래의 우리 것을 되찾으려는 것일 뿐 일본과 적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도 가진 것이 넘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4강의 틈바구니속에서 남과 북은 여전히 대치중이다. 그리스도인은 샌드위치처럼 끼여 있는 우리나라가 보다 지혜롭고,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함으로서 하나님의 왕성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세계가 넘치고 왕성해져 가도록 기도하고 더 기원해야 할 것이다.

31. “라이언킹”The Lion King, 2019

미국영화, 장르:모험,드라마, 개봉:2019.07.17.

감독:존 파브로(Jon Favreau), 제작:월트디즈니,

주연:도날드 글로버(Donald Glover,심바대역), 비욘세(Beyonce Knowles,날라대역), 제임스 얼 존스(James Earl Jones,무파사대역),차웨텔 에지오포(Chiwetel Ejiofor,스카대역),세스 로건(Seth Rogen,폼바대역),빌리 아이크너(Billy Eichner,티몬대역),알프리 우다드(Alfre Woodard,사라비대역),

관객:4,743,019명(2019.08.27.기준)

개봉:①1994.07.02.②2011.12.29.③2019.07.17.

아프리카 대평원 프라이드 랜드 내 동물들이 프라이드 락으로 집결한다. 라피카는 아기 사자 심바를 프라이드 락위에 올려 놓고 새로운 후계자의 탄생을 알린다. 무파사는 동생 스카를 찾아가 후계자 선포식에 불참한 이유를 물어보는데 스카는 무파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자리를 떠난다. 성장한 심바(JD.맥크러리대역,아역)는 스승인 무파사로부터 왕국의 규칙과 자연의 섭리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심바는 스카를 찾아가 자신이 배운 내용을 말하는데 스카가 심바에게 코끼리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심바가 친구 날라(사하디라이트조셉대역,아역)와 코끼리 무덤을 찾으려 하자 걱정한 사라비가 “자주”(존올리버대역)를 함께 따라 붙인다. 자주를 제외할 방법을 생각하던 심바가 자주에게 자신이 왕이 되면 마음대로 할 것이라면서 동물들을 모은다. 심바와 날라가 코뿔소를 자주위에 얹혀 놓고 자주를 따돌린 후 코끼리 무덤에 도착한다. 그때 하이에나 쉐지, 반자이, 에드와 마주치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 위험에 직면한 순간 자주에게 이 소식을 들은 무파사가 하이에나를 제압하고 심바와 날라를 구출한다. 무파사가 심바왕국을 이탈하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꾸중하면서 과거의 위대한 위대한 왕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도와 준다는 이야기를 들려 준다. 한편, 스카가 쉐지, 반자이, 에드앞에 나타나 어린 사자하나 제거하지 못한 하이에나를 믿지 못한다. 스카는 이들을 이용하여 무파사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음모를 계획한다.

스카는 심바를 계곡 아래로 데려간다. 스카는 하이에나를 이용해 누 떼가 심바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스카는 이것을 기회로 심바가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무파사에게 알리고 무파사는 심바를 구출하기 위해 누 떼로 향한다. 무파사가 심바를 구하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 스카에게 구조를 요청하는데 만수무강 하소서라고 말하며 무파사를 계곡 절벽 아래로 던져 버린다. 무파사가 낙하하는 것을 목격한 심바는 죽은 무파사의 시체로 가 깨워 보려고 하지만 이미 죽은 후다. 무파사가 심바에게 나타나 무파사의 죽음은 너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한다. 스카는 심바를 완전히 제거할 목적으로 하이에나를 청부살해범

으로 보내지만 이를 눈치 챈 심바가 가시덤불을 어렵게 통과하면서 하이에나들의 미행을 따 돌린다. 심바를 죽이는데 실패한 하이에나들이 심바에게 앞으로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비웃는다. 스카는 사자들을 집합시키고 무파사와 심바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스카는 하이에나들이 사자와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심복 부하들을 측근의 위치로 격상시킨다.

프라이드 랜드에서 나와 겨우 목숨을 구한 심바가 탈진하여 쓰러진 채로 방치되었으나 티몬과 품바가 나타나 심바의 생명을 구조한다. 티몬과 품바는 정글에서의 새로운 생활방식을 가르쳐 주며 과거의 나쁜 기억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모두 잃어버리자는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를 이야기 한다. 프라이드 랜드의 기억을 조금씩 잃어 가는 심바는 티몬과 품바와 함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성체로 성장한다.

스카가 지배하는 프라이드 랜드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먹을 것이 부족하여 자주뿐 아니라 스카를 따르는 하이에나들마저 무파사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만에 스트레스를 받은 스카는 더욱더 고립되어 간다. 티몬과 품바와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던 심바가 하루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무파사의 말을 상기한다. 선대 왕들이 별이 된다는 무파사의 이야기를 티몬과 품바에게 들려주지만 티몬과 품바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심바가 무파사를 그리워 하는 동안 바람을 타고 날아온 심바의 흔적을 발견한 라피키가 심바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심바가 품바를 추적하여 찾아온 사자와 맞서 격투를 벌이다 그 사자가 자신의 어린 옛친구 날라인 것을 확인한다. 죽었다고 생각한 심바를 만난 날라는 서로의 우정을 재회하며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날라는 심바에게 프라이드 랜드에 문제가 있으니 복귀하여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한다. 심바는 하쿠나 마타타를 이야기 하며 이전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심바와 날라가 떨어져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된 환경의 차이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분노하며 날라는 가버린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가 죽은 과거를 기억하며 괴로움에 빠져있는 심바의 앞에 라피키가 나타난다. 심바가 라피키에게 누구냐고 묻고 라피키는 심바에게 누구냐고 되묻는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심바에게 라피키는 너는 무파사의 아들 심바가 아니냐고 말하자 심바가 당황하며 라피키를 뒤따라 간다. 라피키는 심바를 물가로 데려가 물에 비친 반영을 자세히 바라 보라고 말한다. 순간 심바의 눈앞에 무파사의 영혼이 나타나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너는 나의 아들이자 유일한 참된 왕이다”라는 말을 한다. 프라이드 랜드로 되돌아 가면 그때의 아픈 기억과 마주해야 한다고 심바가 괴로워 하자 라피키는 과거는 아플 수 있지만 과거로부터 도망하거나 과거로부터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너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물에서 돌아온 심바가 프라이드 랜드로 돌아가기로 결정

하고 라피키는 날라와 티몬과 품바에게 심바의 결심을 알려 준다.

프라이드 랜드에 도착한 심바는 너무나 변해버린 고향땅에 충격을 받는다. 티몬과 품바가 스스로를 미끼로 하여 하이에나를 유인하고 날라는 암사자들을 집합시킨다. 프라이드 락에서는 스카가 사라비에게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을 추궁하고 있다. 사라비가 무파사를 말하자 스카는 분노하며 사라비를 공격한다. 이때 심바가 나타나 암사자들과 함께 스카에게 자리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한다. 매우 당황한 스카는 무파사의 죽음을 이용해 심바를 다시 곤경에 빠뜨린다. 과거는 극복하였지만 무파사의 죽음이 자신때문이라는 죄책감에 빠진 심바는 무파사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이를 이용한 스카가 심바에게 죄가 있음을 주장하여 밀어 붙인다. 스카는 결국 심바를 절벽끝으로 몰아 넣는다. 스카는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심바에게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이제 알려 주겠다면서 무파사는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야기를 들은 심바가 충격을 받고 매우 분노하여 순식간에 스카를 제압하고 그 동안의 진실을 모두 자백하게 만든다.

이로 인하여 사자들과 하이에나들의 전투가 발생하고 티몬과 품바, 리피카가 사자들과 함께 하이에나와 충돌한다. 심바는 스카와 결전을 벌이고 최후의 위기에 내몰린 스카가 심바에게 이 모든 것은 하이에나들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심바가 스카에게 자비를 베풀며 과거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프라이드 랜드를 떠나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카가 심바가 방심하는 사이 옆에 있던 불씨를 심바의 눈에 뿌리고 다시 공격을 가한다. 스카가 온 힘을 다해 심바를 덮치려 할 때 심바가 스카를 그대로 받으며 절벽 아래로 던져 버린다. 스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구사일생을 하지만 이번에는 하이에나를 탔던 스카의 구질한 생명에 구역질이 난 하이에나가 스카를 공격하여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모든 것이 끝나고 프라이드 랜드에도 정상화의 길을 찾는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라피키의 말에 심바는 프라이드 락위에 올라 포효하며 무파사에 이어 왕위를 승계한다. 심바가 왕위에 오른후 프라이드 랜드에는 예전의 평화가 회복되고 활기찬 생명의 도시로 발전한다. 심바와 날라가 결혼을 하고 그들의 아이가 새로운 후계자로 선포되면서 막을 내린다.

월트 디즈니의 힘, 디즈니가 만들면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역사가 된다. 1994년과 2011년에 이어 2019년에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장르로 찾아온 라이온 킹은 전세계 1억명을 강타하며 승자의 지위를 과시하고 있다. 스토리의 완성도와 치밀함은 심바를 능가하는 새로운 후계자를 예고하며 끝이 났다. 라이온 킹은 거짓이 묻어 버린 진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에 결코 KING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이지만 진실된 왕, 진정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왕의 진심을 알았을 때 모두는 나쁜 힘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에 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

다. 그리스도인은 영화 라이온 킹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도 세상앞에서 왕자와 같은 존재이다.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세상이 승리하고 커 보여도 어디까지나 착시이고 거짓일 뿐이다. 심바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힘이 되듯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하여 위로와 능력과 힘을 준다. 성령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며 그 일의 책임자라고 말씀한다. 용기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길을 바르게 달려 갈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라이온 킹의 길이다.

32. “김복동”My Name Is KIM Bok-Dong 2019

한국영화, 장르:다큐멘터리, 개봉:2019.08.08.

감독:송원근, 제작:뉴스타파,

주연:김복동, 나레이션:한지민,

관객:33,244명(2019.08.12.기준)

1. 김복동의 생애

1926년4월24일(음력3월13일), 경상남도 양산 태생, 양산 보통학교 4학년 재학
1941년, 16세(만14세)에 동네 구장과 반장과 일본인에게 속아 정신대에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본군
침략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끌려 다니며 성노예 생활을 함.

1945년,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제16사령부 소속 제10육군병원 간호사로 위장당하여
일본 군인 간호노동후 방치되어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됨.

1947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징용 당한지 8년만인 22세에 귀향함.

1992년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개,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을 시작함.

1992년8월, 제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공식증언.

1993년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세계인권대회”에서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증언.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 원고로 참여하여 위안부 실상을 문서
로 공식증언.

2011년3월, 일본 동북부대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제안, 제1호로 기부.

2011년12월14일, 수요집회1000회기념 평화의 소녀상 일본대사관 앞 최초 설치.

2012년3월8일, 세계여성의 날,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 김원옥과 함께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설립.

2012년7월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의회로부터 “용감한 여성상” 수상.

2013년7월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해외 최초 평화의 소녀상 설치, 평
화의 소녀상 제막식 참석.

2014년3월7일, 베트남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지원 연설 오프닝 영
상 공개.

2015년5월, 국경없는 기자회, AFP선정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 100인의 영웅”에
선정.

2015년6월25일, 전쟁,무력분쟁지역 아이들 장학금으로 5천만원 나비기금 기부.

2015년12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 “2015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수상.

2017년7월6일, 재일조선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김복동 장학금 전달.

2017년8월, 사후 전재산 기부약정.

2017년9월26일,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 선정.
2017년11월23일, 포항지진 피해자 돕기 1천만원 후원.
2017년11월25일, 정의기억재단 여성인권상 수상.
2017년11월27일, 여성인권상 수상금 5천만원을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활동을 위해 “김복동평화상” 제정, 정의기억재단에 기부. 제1회수상자로 우간다 내전 성폭력 생존자인 인권운동가 아칸 실비아 선정.
2017년12월10일, 국제여성인권단체 “성평등 유산의 벽” 김복동 할머니와 정신문제 대책협의회 선정.
2018년6월9일, 일본 도쿄 사단법인 희망씨앗기금 주최 집회 참석 연설. 재일 조선 학교 학생들에게 김복동 장학금 수여.
2018년9월, 외교부 청사입구, 화해치유재단 즉각해산을 위한 1인시위 참가.
2018년11월22일, 재일조선학교 지원금 5천만원 김복동의 희망에 기부.
2018년12월10일, 비영리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 명예회장 취임.
2019년1월2일, 제1회 바른의인상 수상, 수상금 5백만원. 재일조선학교를 위해 김복동의 희망에 기부.
2019년1월28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암투병중 94세로 별세, 마지막소원은 아베 수상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받는 것이었지만 결국 듣지 못하고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하였음.

2. “김복동”

경남 양산의 한 마을에서 보통사람의 여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김복동은 전 세계의 메스컴 그 중심에 서 있다. 단지 소원은 하나, 27년간의 기나긴 투쟁의 끝에는 진심어린 일본의 사과가 있다. “나이는 구십넷,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김복동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희망을 잡고 살자.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어린 나이의 여성이 겪은 참혹한 삶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그저 불쌍한 김복동이었다. 일본은 그녀가 그렇게 살아 가기를 희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김복동의 저항은 시작되었다. 그녀도 그녀가 가진 힘과 노력과 열정이 이렇게 강한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힘이 없는 나라의 백성이었을 때는 나라가 없어서 그렇다 하겠지만 나라가 있고 한국경제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나라가 자기를 지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국민운동이었다.

1992년 3월, 김복동은 피해자로서의 굴레를 던지고 일어나는 용기를 선택했다. 세상은 아직 어둠에 머물러 있고,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김복동의 전쟁은 해

피엔딩이 되지 못했다. 분명 피해자가 있고 또한 선명하게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을 수 없었다. 그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보다 강하고 여전히 세계경제대국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식민지가 아니고 아시아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김복동의 눈에는 여전히 대등하지 못하다. 가해자인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듯 사과와 빈정거림을 반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왜곡과 오만함은 해가 갈수록 그 횡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김복동은 이제 나약한 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김복동은 1941년의 힘없이 당하기만 해야 하는 어린 위안부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1992년 1월 수요일에 시작되어 2019년 8월14일이면 1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리한 것인지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민은 이제 멈추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국민은 국민의 힘으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쓴다.

2015년, 한국과 일본은 10억엔의 위로금으로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는 합의를 이룬다. 그러나 김복동과 생존자들은 이 합의가 자신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비원칙의 합의라고 거부하였다. 김복동의 저항은 바로 이 합의의 중심에 한국정부가 있다는 것이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 그 합의 이후 일본은 단 한번도 사죄를 하지 않았다. 2019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김복동은 마지막까지 일본의 사죄를 듣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사람은 2019년 7월18일 기준 21명뿐이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이 사죄할때까지 전세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다짐하고 전국112개 가운데 32개가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었다.

김복동은 자신의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UN과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등 매년 수차례의 해외 회의와 법정과 캠페인에 참여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은둔자가 되지 않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암투병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한채 임종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시골 마을의 평범한 소녀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할 나이에 가장 공포스러운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노예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김복동은 1992년, 여성인권운동가로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김복동 할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문제는 여전히 원점에 서 있다.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고 이미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쉽게 대하고 나약한 나라로 인식한다. 그러나 아니다.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문제의 유산을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남은 자들의 확고부동한 과제다. 그리스도인들도 잊어서는 안된다. 식민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받았고 믿음의 경주는 너무나 힘들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할 때 용서의 가치가 효력이 있는 것이다. 김복동 할머니를 잊지 말자. 기억하고 되뇌이어서 그녀가 다 하지 못한 희망을 전파하고 이어가자. 이것이 그녀를 잊지 않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이다.

33. “광대들:풍문조작단”Jesters: The Game Changers 2019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08.21.

감독:김주호, 제작:영화사심플렉스,

주연:조진웅,손현주,박희순,고창석,김슬기,윤박,김민석,

관객:502,072명(2019.08.27.기준)

1. 영화의 역사적 배경 : 세조실록(세조혜장대왕실록,1455.07~1468.09)

“세조실록”(世祖實錄)의 정식 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으로 1455년 07월부터 1468년 09월까지 세조의 재위 13년3개월간의 국정에 관한 역사를 담고 있다. 세조실록에는 야사와 같은 기이한 내용들도 알려져 있다. 세조가 건립한 원각사를 에워싼 황색구름과 향기가 넘치는 4색꽃비, 오대산 계곡에서 목욕 중이던 세조의 몸을 치유한 문수보살, 금강산 순행중인 세조의 앞에 나타난 담무갈보살, 속리산 산행길, 세조의 가마가 무성한 가지를 이룬 소나무를 지나갈 때 왕을 위하여 나무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품송이라는 기이한 벼슬까지 내린 사건, 왕을 제거하려는 자객으로부터 목숨을 구하도록 한 고양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 영화는 이러한 기이한 사건의 배경에서 시작한다.

2. 영화 “광대들:풍문조작단”

“양정”(장남열역)이 광대를 포박하고 “육신의 충” 원본 소재지를 추궁한다. 광대들은 끝까지 신하를 조롱하며 대답을 거부한다. 이에 분노한 “홍윤성”(최원영역)이 화살을 당겨 한명씩 죽인다. “한명회”(손현주역)가 마지막 남은 한 명을 화살 한방으로 죽여 버린다.

여인이 “보살”(김슬기역)을 찾아와 소문듣고 왔다면서 점을 본다. 대감이 얼마전 첩을 집에 들였는데 대감의 마음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한다. 첩이 길을 걷고 있다. “팔풍”(김민석역)이 똥지게를 지고 지나가는데 “홍칠”(고창석역)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마덕호”(조진웅역)가 첩을 품에 안게 된다. 마덕호가 화려한 언변으로 첩의 마음을 사로잡고 물레방아간으로 데리고 간다. 때마침 물레방아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첩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대감에게로 간다.

한명회가 공갈패들의 행동들을 지켜 보는데 부하가 공갈패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한다. 팔풍은 발숨씨가 뛰어나고, 무엇이든 똑같이 그려내는 “진상”(윤박역)은 도화서 회원을 사직하고 공갈패로 들어갔다. “근덕”(김슬기역)은 악기에 능하고, 홍칠은 고래힘출로 곡예를 하고 무엇이든 만들줄 아는 만능재주꾼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

고 진상이 그린 그림이 빗물에 번져 흘러 내린다. 홍칠이 지붕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면서 관군이 현장을 급습하여 공갈패는 모두 체포된다. 한명회가 효부, 효자소문듣고 왔다고 말하자 덕호가 공갈패를 찾아온 이유를 묻는다. 덕호는 한명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명회가 왕이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덕호는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세종대왕과 같이 백성을 애민하고 부패한 신하를 엄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명회는 공갈패의 재능으로 하늘의 뜻이 대왕에게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 준다면 목숨을 살려 주겠다고 협박한다. 덕호와 공갈패가 회의를 한다. 진상은 폭군을 성군으로 포장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근덕도 동의한다. 팔풍은 덕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덕호는 죽통을 던져 똑 바로 서면 하겠다고 말하는데 던진 죽통이 똑 바로 서 버린다. 덕호는 패거리에게 목숨 걸고 이왕하는거 판을 키워 보자고 말한다.

속리산 법주사, 한명회는 왕이 절을 돌면서 불공을 드리고 있으니 재주를 보여 달라고 말한다. 공갈패가 사전에 법주사 입구에 도착해 답사를 한다. 덕호가 소나무 한그루를 발견하고 준비를 한다. 팔풍은 나무위로 올라 가고 홍칠이 도르레 설치장소를 알려준다. 진상은 공갈패를 은닉할 그림 가림막을 만든다. 잠시후 왕의 가마가 법주사 입구에 도착하고 신하가 소나무 가지가 내려와 막아선 것을 보고 가마를 멈춘다. 그때 근덕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덕호와 홍칠과 진상과 팔풍은 밧줄을 잡아 당겨 나뭇가지를 위로 들어 올린다. 지켜 보던 신하들은 신기한듯 바라만 보고 선두의 신하가 "행차"라고 말한다. 덕호가 밧줄 가운데가 끊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팔풍이 빠르게 나무위로 올라가 도르레를 잡는다. 그 사이 왕의 가마가 나무 아래를 지나간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명회가 공갈패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덕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덕호는 소문을 말하며 임금행차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의해 5일이면 천리까지 퍼질 것이라고 말한다. 5일후, 한명회는 덕호를 만나 죄를 사하는 조건으로 전하와 백성들을 위해 보답하라고 말한다. 덕호는 이제 공짜로 일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소속이 없는 천민예인이라고 말한다. 한명회는 상처받은 왕을 위해 일을 하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덕호는 집과 면천을 원한다. 한명회는 공갈패와 함께 한양으로 향한다.

한편, 왕은 자신이 행차할 때 나뭇가지를 들어 올렸던 소나무에게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한다. "양정"(정남열역)은 소나무를 지날 때 마다 말에서 내려 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웃는다. 한양에 도착한 공갈패는 천민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신분이 되었다. 한양거리에서 "말보"(최귀화역)가 명나라 황제의 이야기 공연을 하고 있다. 불에 달군 인두기를 들다가 바가지로 돌리며 엽전을 받는다. 공연을 끝낸 말보가 덕호를 보며 인사를 한다. 말보는 정이품송 이야기를 하며 그 짓거리 하라고 재주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덕호는 말보에게 벌써 10년전 일이라면서 역모를 일으킨 것을 보았는지 묻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만 믿는다고 말한

다. 한명회는 덕호에게 하늘의 뜻이 지금의 대왕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한다. 공갈패는 일을 계획한다. 덕호는 부처가 하늘에 뜨면서 꽃비가 내리는 계획을 한명회에게 말하고 한명회는 은밀하게 잘하라고 말한다. 공갈패가 소품을 만들고 빛이 반사되게 금가루를 뿌린다. 홍칠과 팔풍이 근덕과 함께 연습을 한다.

양주 회암사, 스님이 원각 법회를 하고 있다. 순간 오색빛의 안개가 피어 오르고 빛을 비추면서 부처가 현신한다. 법회중인 스님들이 놀라서 절을 하는데 팔풍이 뛰어다니며 안개를 피우고 근덕이 부처 복장으로 하늘 높이 솟아 오른다. 종로 원각사에서는 덕호와 팔풍이 붉은 꽃잎을 모은다. 원각사가 갑자기 황색구름에 휩싸이고 사방에서 꽃비가 내리는데 도성 사람들 가운데 이 광경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금강산으로 왕이 산행을 하고 있다. 덕호가 왕의 행렬을 보며 신호를 보낸다. 폭발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황금빛을 발하며 꽃비가 내린다. 순간 화엄경속의 담무갈 보살이 모든 사람들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산중 곳곳에 은밀하게 있던 보살의 권속이 모습을 드러내자 신하들이 놀라면서 기이한 현상을 기록에 남긴다. 세조는 이 일로 강도죄를 제외한 단순경미한 죄인을 모두 석방하고 곡식과 은자를 백성들에게 하사한다.

한명회의 초대로 공갈패가 연회에 참석한다. 양정이 다음에는 자신이 부처가 되어 근덕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조롱한다. 근덕은 화를 내며 양정을 밀치고 이에 분노한 양정이 병으로 근덕을 내리치려 하자 덕호가 양정을 말리며 근덕은 무너라서 양정의 몸에 있는 악귀를 쫓으려 한 것 뿐이라고 말한다. 한명회가 도착하고 공갈패를 격려한다. 한명회는 왕의 지병을 걱정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라고 말하고 덕호는 우려를 한다. 덕호는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옆에 두기 위해 벼슬을 하사했다고 말한다. 양정이 덕호의 언변이 청산유수라고 말하며 말보의 제자가 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홍윤성"(최원영역)이 말보가 육신의 총 이야기를 명나라 황제의 이야기로 바꾸어 한다고 말하자 덕호는 말보를 부인한다.

10년전, 말보는 육신의 총 책을 덕호에게 건넨다. 덕호는 이런 책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를 생각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여긴다. 덕호는 말보에게 이 이야기를 할 것인지 묻고 덕호는 이야기를 소문낼 것이라면 앞으로 모르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10년후 지금, 덕호는 왕의 문동병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중이다. 공갈패는 일이 점점 커진다고 염려한다. 덕호는 이번일만 성공하면 왕 아래로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계획구상을 마친 덕호가 공갈패들에게 설명을 한 뒤 한명회를 찾는다. 한명회는 덕호를 세종대왕에게 데리고 간다. 왕의 처소에서 세조는 올빼미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서 형수를 보았는데 그 후로 몸이 더 앓잖아 졌다고 말한다. 세조는 웃고름을 풀어 자신의 상처를 덕호에게 보여준다. 세조는 햇빛을 받으면 역사가 되고 달빛을 받으면 야사가 된다고 말한다. 덕

호는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아뢴다. 덕호가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모신 사찰이므로 구경꾼들을 쫓아 버리지 말라고 부탁한다.

오대산 상원사, 왕이 상원사로 향하는 길에 부처의 덕을 받은 왕을 보려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다. 왕은 상원사에서 천배를 올린후 계곡으로 간다. 왕이 가림막으로 들어간 후 덕호가 왕으로 변장한 뒤 계곡에 몸을 담근다. 동자승으로 변신한 근덕이 연꽃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와 폭포수로 때를 밀어 준다. 동자승이 왕의 몸에 난 증기를 깨끗하게 씻어낸다. 왕은 증기가 깨끗하게 나았다면서 기뻐하고 동자승은 왕에게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말하자 말하지 말라면서 떠난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문수보살이라는 말에 놀란다. 한양 장터에 상원사의 소문이 퍼지고 백성들은 너나없이 왕에 대한 욕을 중지하자고 말한다. 한명회는 백성들의 민심이 변한 것을 보고 덕호와 공갈패를 집으로 초대한다. 한명회는 자신의 집에서 덕호와 공갈패에게 베틀을 하사한다. 덕호는 최하위 말단 벼슬에 실망하고 한명회는 직위에 관계없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산다면서 위로한다. 한명회가 "육신의 역"이라는 책을 건넨다. 한명회가 이야기를 만들고 육신의 충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덕호는 무슨 내용인지 반문하고 한명회는 육신의 혼으로 인해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듣던 진상은 술상을 얹으며 화를 낸다. 덕호가 웃으면서 진상의 말은 극중대사라고 말하지만 흥윤성이 칼을 뽑으며 그러면 죽는 장면도 보여 주겠다고 급박한다. 한명회는 흥윤성을 제지하고 덕호에게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한명회의 집을 나선 진상이 덕호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어디 있는지 물으며 화를 낸다. 덕호는 이제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진상은 자신이 모시던 상삼문 대감이 왕을 지키다가 죽었다면서 공갈패를 하지 않겠다고 가버린다. 저자거리에서 말보가 육신의 충 공연을 하고 있다. 덕호의 공갈패로 인해 말보의 공연에는 소수만이 자리하고 있다. 말보가 공연을 중단하고 남원국밥집을 홍보하는데 백성들이 하늘이 내린 왕을 욕하면 천벌을 받는다면 외면한다. 덕호가 말보를 찾는다. 말보는 덕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며 벼슬은 목줄이라면서 목줄 채워 주니깐 좋은지 묻는다. 덕호는 말보가 숨겨둔 육신의 충 책을 찾은 후 이것도 목줄이라고 말한다. 덕호는 10년전을 기억한다. 그동안 시궁창에서 살아왔다면서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고 말한다. 덕호는 앞으로 자기를 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내려 온다. 덕호가 눈송이를 손위에 올리는데 불에 탄 재가 떨어진다. 팔풍이 덕호에게 달려와 큰일났다고 소리친다. 덕호가 원각사 주변 마을로 달려간다. 그곳의 집이 불에 타고 있다. 관리는 이곳에 원각사를 증축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덕호가 꽃비는 가짜라고 말하지만 관리는 덕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덕호는 멀리서 한명회와 흥윤성과 양정을 발견하고 놀란다.

왕의 처소에서 왕과 신하들이 술을 마시며 축하를 한다. 세조가 완쾌하여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양정은 왕에게 세자에게 양위를 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경고한다. 왕이 분노하며 칼을 꺼내려 하자 한명회는 왕에게 양정을 건드리면 세자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협박한다. 원각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움막을 짓고 살아간다. 덕호는 한명회의 집을 찾아 너무나 처사라고 호소하는데 한명회는 덕호도 자신과 생각이 같은 줄 알았다고 되받는다. 한명회는 계유년에 죽은 자들은 모두 충신으로 그들은 신념을 지켜 죽음을 선택하였고 우리는 나라의 안위를 지킨 것이라고 말한다. 한명회는 그날 왕과 신하들은 회맹을 했고 회맹을 깨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한명회는 왕의 광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덕호에게 왕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을 이야기를 가져 오라고 말한다.

덕호가 공갈패에게 한명회 이야기를 하고 홍철은 당장 떠나자고 말한다. 덕호는 이미 감시자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일은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는다고 말한다. 덕호는 살기 위한 계획도를 만들고 공갈패에게 설명을 한다. 덕호가 한명회를 찾아가 자신의 계획도를 설명한다. 덕호는 세조가 상원사 문수보살상 제막식에 참석하는 날, 고양이들이 길을 막고 그때 한명회가 절에서 자객을 발견하고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를 하는데 자객의 입에서 "세자 황"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자고 말한다. 덕호는 일을 끝내기 위해 왕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자객의 입에서 "한명회"가 자수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홍철은 덕호의 계획을 들으면서 고양이들이 어떻게 막게 할 것인지 묻고 덕호는 암고양이 체액을 용포에 발라 숫고양이들을 유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덕호가 공갈패들에게 발정난 숫고양이들을 잡아 오라고 말한다.

상원사, 문수보살 제막식이 있는 날, 팔풍이 어디론가 가고 없다. 덕호가 자객옷을 입고 "한명회"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때 홍윤성과 부하들이 나타나 덕호를 체포하고 팔풍에게 시키는대로 하면 패거리의 목숨은 구해 주겠다고 말한다. 팔풍은 밖으로 나가 "세자 황"이 시켰다고 말하고 한명회는 세자와 자객을 한양으로 압송하라고 지시한다. 세조는 한명회에게 무릎을 꿇고 세자를 살려 달라고 애원한다. 한명회는 회맹을 열어 세자를 왕으로 승계하고 세조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한다. 한명회는 상원사에서 자객으로 체포한 덕호와 팔풍을 처형하라고 지시한다. 덕호는 팔풍은 살려 달라고 말하는데 팔풍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 한다. 그때, 말보가 육신의 총 책표지를 한명회에게 보여 준다. 한명회가 책을 보며 놀라서 어디서 구한 것인지 묻고 말보는 덕호와 팔풍을 살려주면 원본을 주겠다고 말한다.

옥사에서 덕호가 말보에게 원본을 준다고 해서 우리를 살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보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양정은 충신의 충을 보며 우리가 그 날 한 짓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한명회는 회맹을 열고 세자를 왕으로 추대하고 책은 불태워 없애 버리겠다고 말한다. 옥사 밖에서 연기가 나며 말보와 덕호의 이야기를 듣던 포졸들이 쓰러진다. 옥사안을 확인하던 포졸은 죄수가 탈옥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잠시 후 누워 있던 포졸들이 일어나는데 죄수와 근덕과 진상이다. 덕호와 공갈패들은 말을 타고 성문 밖으로 도망한다. 관군들이 광대들을 추적하며 활을 쏜다. 말보가 덕호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는다. 말보는 덕호의 공갈패가 한양에 남아 있는 마지막 광대라고 말하고 좋은 재주에 진심을 담아라고 유언을 남긴다.

덕호는 말보의 돌무덤을 만들고 공갈패는 끝났다고 말한다. 진상은 덕호에게 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홍철은 공갈패가 끝이면 이제 진실패로 하자고 말한다. 덕호가 왕과 공신들은 회맹에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서로 칼을 겨누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덕호가 상원사 주변 마을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준비를 한다. 회맹이 열리고 회맹의식이 진행된다. 순간 안개가 들어 오는데 환각제다. 홍윤성이 환각제라고 말하자 한명회는 모두에게 코와 입을 막으라고 말한다. 그때 산 위에서 성삼문의 모습 나타난다. 양정이 도망하려 하자 회맹단 주변에 불길이 솟아 오른다. 덕호는 성삼눈 대감이 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세조를 꾸짖는다. 성삼문은 용상에 오르려고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는지 물으며 간신들을 단죄하라고 말한다. 덕호의 말이 끝나자 근덕이 나타나 세조가 꿈에서 만난 형수의 이야기를 하고 세조가 당황하면서 매우 슬퍼한다.

세조는 칼을 뽑아 회맹을 중단하며 사필하는 자는 아들을 죽인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한다. 양정이 회맹의식을 계속하려 하자 세조가 양정을 죽인다. 홍윤성이 왕이 회맹을 깨려 한다면서 칼을 꺼내지만 역시 왕의 칼에 홍윤성이 죽는다. 한명회가 회맹의식을 계속하자 세조가 한명회에게 칼을 겨눈다. 한명회가 세조를 인질로 붙잡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약속했으니 물러나라고 말한다. 한명회가 역사는 힘 있는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라면서 충신의 충 책을 불속에 던져 버린다. 그러나 한명회는 책이 뒤바뀐 것을 발견한다. 덕호가 진짜 육신의 충을 들고 나타난다. 한명회는 관군들에게 덕호를 체포할 것을 지시하는데 덕호가 고래힘줄을 흔들자 홍철과 사람들이 덕호를 하늘위로 올린다. 한명회가 덕호를 잡으려고 담벽위로 올라 가다가 몸에 불이 붙어 떨어져 버린다. 세조가 역사는 우리를 역적으로 기억하고 사육신은 충신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작거리 백성들은 사육신이 충신이었고 지금의 공신들이 역적이었다고 말한다. 한명회가 이같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외면하려 한다. 덕호와 근덕은 스님을 찾아가 육신전 책을 널리 보급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스님이 덕호에게 누구인지 묻고 덕호는 말보의 제자라고 말한다. 그후 공

갈패는 명나라에서 지내며 조선으로돌아갈 날을 기대한다. 근덕은 조선에서는 아직 우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다. 순간 한 손님이 공갈패를 찾는다. "여인"(이국주역)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한다.

영화는 끝이났다. 역사의 한켠에 기록된 야사를 그럴듯하게 그려낸 광대:풍문조작단은 일리가 있다. 그 옛날 기적같은 일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였을 것이다.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기도 하고 진실이 뒤바뀌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광대들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였던 광대들이 정치와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나는 변질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스도인도 정치와 권력과 명예와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사는 그렇지 않다. 늘 권력과 금력과 명예욕의 주변에서 서성거리게 마련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일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현실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34. “레드슈즈”Red Shoes 2019

한국영화, 장르:애니메이션, 개봉:2019.07.25.

감독,각본:홍성호, 제작:싸이더스,

주연:클로이모레츠(스노우화이트역,Chloe Moretz),샘클라플린(얼린역,Sam Claflin),

지나거손(레지나역,Gina Gershon),패트릭워버튼(마법거울역,Patrick Warburton),짐래

쉬(애버리지역,Jim Rash),프레더릭하멜(잭역,Frederik Hamel),아바콜커(우드베어역,Ava

Kolker),안소이(레드슈즈,스노우역),신용우(멀린역),전진아(레지나역),권성혁(아더역),정

재헌(애버리지역),최한(마법거울역),윤세웅(잭역)

관객:768,255명(2019.08.27.기준)

왕자와 공주, 마녀와 괴물이 사는 마법의 섬이 있다.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
곱왕자를 찾는다. 일곱명의 왕자는 용을 제거하고 공주를 구하지만 공주를 마녀로
착각하고 요정공주를 공격하는 실수를 범한다. 요정공주는 일곱왕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 누군가 일곱왕자를 바라보면 녹색의 난장으로 변하는 저주를 내린다. 저주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부터 키스를 받는 것이다. “레
지나”왕비가 마법나무를 찾아 능력을 보여 달라고 말한다. 마법나무가 빨간 사과를
빨간 구두로 변화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레지나 왕비가 마법나무에서 레드슈즈를
떼어 신어 보자 여왕이 젊어지는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다. 실망한
레지나는 구두를 던지며 돌아가 버린다. 밤이 되어 “스노우 화이트”는 “와”의 방에
빗줄을 타고 들어가 가구뒷쪽 비밀금고를 열어 보는데 아무것도 없다. 스노우 화이
트가 방을 뒤지던 중 “나무곰”이 빗줄을 발견하자 스노우 화이트가 책상밑에 숨다
가 화이트왕의 일기를 발견한다. 나무곰은 인기척이 없자 다시 나가 버린다.

스노우의 18세 생일 파티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경비병이 레지나를 데려왔
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말한다. 그러나 화이트왕은 레지나에 반하여 마녀
라는 말을 믿지 않고 결혼을 한다. 레지나가 가져온 거울은 매우 이상했고 왕국 사
람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다. 화이트왕이 레지나가 나무와 말하는 것을 보고 스노우
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면서 일곱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다. 화
이트 왕은 사과가 세상에서 가장 수상한 과일이라고 기록했다. 아침이 되는 시간,
나무에 두 개가 사과가 열린다. 스노우는 사과가 위험해 보이지 않아 다가간다. 그
때 레지나가 마법나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스노우가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을 발
견한다. 레지나가 여자를 잡아라 소리치고 스노우는 레지나의 공격을 피하여 마
법 빗자루를 타고 하늘로 날아간다. 순간 마법나무는 시들어 버리고 레지나는 앓된
다고 분노하지만 멈출수 없다.

“멀린”이 녹색으로 변한 칼라에 짜증을 낸다. “아더”는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야 한

다고 말하는데 왕자들 위로 스노우가 날아간다. 레지나가 마법거울에게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인지 묻는데 거울이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라고 말한다. 레지나가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 이름을 묻자 거울은 밖에 나간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말하며 왕비도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라고 말한다. 레지나는 나무곰에게 수배 전단을 뿌리고 생포해 오라고 말한다. 마법거울은 여왕을 도와 줄 사람을 보여주고 여왕은 거울에 비춰진 사람의 이름을 묻는다. 집으로 돌아온 일곱왕자는 마당과 나무에 인기척을 발견하고 주위를 경계한다. "책"이 흔적을 보고 마녀일 것이라고 말한다. 멀린은 "한스"에게 뒷문으로 들어 오라고 말한다. 다른 왕자들이 일제히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왕자들이 스노우를 보고 모두 무기를 내려 놓는다. 아무것도 모른 채 뒤로 들어온 한스가 프라이팬으로 스노우의 머리를 쳐 기절시킨다. 스노우가 기절하여 잠이 들고 일곱 왕자들은 스노우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에 극찬을 한다. 스노우가 잠에서 깨어 나고 아더가 여기는 우리 집인 동시에 작전본부라고 말한다. 스노우는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있는 음식을 먹어 버려 미안하다고 말한다. 스노우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자신의 모습이 거울의 모습과 같은 것인지 왕자들에게 묻는다. 왕자들은 한결같이 천사같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멀린이 이름을 묻자 고민하던 스노우는 "레드슈즈"라고 말한다. 멀린이 공주인지 묻는데 레드슈즈는 일곱명이 누구인지 되묻는다. 멀린이 자신과 일곱왕자를 소개하고 레드슈즈도 일곱왕자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레드슈즈는 아직 이들이 왕자인지 알지 못한다. 레드슈즈는 아빠를 찾기위해 일곱왕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왕자들은 한결같이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레드슈즈는 모두 마음씨가 좋고 귀엽게 생겼다고 말한다. 멀린은 난쟁이의 저주를 풀어 줄지 모른다고 말한다.

"에버리지"는 생일파티에 누가 오기로 한건지 묻는다. 부하들이 다른 공주들은 일이 있어서 못온다고 말한다. 레지나는 에버리지를 찾아와 공주가 왕자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백성이 왕자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한다. 레지나는 레드슈즈의 그림을 보여주며 생일에 초대하라고 말한다. 레지나는 레드슈즈가 자신의 물건을 도적질해 갔다고 말한다. 레지나는 레드슈즈를 찾아 왕자는 인기남이 되고 자신은 구두를 찾겠다고 말한다. 에버리지 왕자는 도둑을 잡아 죄값을 주겠다고 말한다.

스노우(레드슈즈)도 아빠를 찾는 전단지 그림을 그린다. 거울을 보던 스노우가 자신의 모습을 아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노우가 구두를 벗으려 하지만 잘 안되어 억지로 구두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다. 그때 "책"이 스노우방을 노크하며 마스크팩을 같이 하자고 말하는데 레드슈즈는 피곤하다고 말한다. 멀린은 사랑에 빠지는 마법책을 찾는다. 한스가 방으로 들어와 요리책을 묻는다. 레드슈즈가 숲에서 아빠를 발견하고 뛰어 나간다. 레드슈즈가 아빠를 부르는데 거대한 나무 토끼가 나타난다. 한스는 여자의 마음에는 역시 요리라고 말하고, "피노"와 "노키"와 "키오"는 레드슈즈가 즉석사진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여자는 역시 다이

아몬드라고 말한다. 아더가 멀린의 방을 찾는데 방바닥에 떨어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주문서라는 책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간다. 한편, 거대한 나무토끼가 스노우에게 다가오고 그때 멀린이 번개로 나무토끼를 공격하며 레드슈즈의 손을 잡고 달린다. 멀린은 마법을 사용할 줄 안다고 말하며 앞을 보고 달리는데 멀린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멀린은 레드슈즈에게 무슨일이 일어나도 앞만보고 달려 가라고 말한다. 멀린이 토끼의 공격을 받고 자신이 번개를 맞는다. 거대한 나무토끼가 레드슈즈에게 다가가자 절벽위에서 아더가 뛰어 내린다. 레드슈즈가 아더를 바라보자 다시 난쟁이로 변한 후 나무토끼위로 추락한다. 나무토끼가 넘어지고 아더가 자기는 죽어 간다고 말한다. 순간 잭과 한스가 달려와 레드슈즈의 안부를 묻는다. 삼둥이와 멀린까지 레드슈즈가 있는곳에 달려 온다. 아더는 레드슈즈와 걸으며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말하며 고마우면 키스해 달라고 말한다. 당황한 레드슈즈가 키스 대신 아더의 뺨을 때리고 가버린다.

집으로 돌아온 아더는 저주를 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고 구역을 나누어 사람을 찾기로 한다. 한스와 잭은 어둠의 호수에서, 삼둥이는 절망의 동굴에서, 아더와 레드슈즈는 골든구스 길을 정하는데 멀린이 골든구스는 데이트의 길이라고 말한다. 멀린이 골든구스에서 다시 구매하다가는 더 맞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더는 저주에 걸린후로 뺨이라도 맞는 스킨십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다음날 레드슈즈는 아빠 그림을 일곱난쟁이들에게 나눠 준다. 한스는 그림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멀린은 아빠의 몸짓이 큰 것 같다고 말하며 레드슈즈는 엄마를 닮든 것 같다고 말한다. 아더는 멀린에게 거대한 토끼를 지키라고 말한후 나간다. 아더가 레드슈즈에게 먼저가 볼 때가 있다고 말한다. 아더는 바위에 꽂혀있는 전설의 검 엑스카리버를 보여준다. 레드슈즈가 힘으로 검을 뽑으면 앓된다고 말하면서 엑스카리버를 쉽게 뽑는다. 레드슈즈가 엑스카리버를 다시 바위에 꽂아 놓는데 옆에는 선하고 너그럽고 진실된 자만이 엑스카리버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적혀있다.

멀린은 토끼를 지키며 당근을 먹인다. 아더와 레드슈즈가 골든구스에 도착한다. 아더가 전단지를 들고 이동하고 레드슈즈는 조각가에게 인사를 하는데 조각가가 화를 내며 돌아선다. 그때 조각상 머리가 떨어지고 조각가는 레드슈즈가 괜찮은지 바라본다. 레드슈즈는 그림을 보여주며 확인을 한다. 아더가 엑스카리버 기념품점을 바라 보는데 레드슈즈가 엑스카리버를 뽑겠다고 말한다. 아더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말하며 빨리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길에서 자신의 수배전단지를 발견하고 도망한다. 에버러지의 부하들이 레드슈즈를 발견하고 추적한다. 골목으로 도망한 레드슈즈가 구두를 벗고 부하들을 따돌린다. 아더가 레드슈즈를 찾고 멀린은 아더에게 레드슈즈의 행방을 찾는데 병사들이 멀린에게 레드슈즈의 수배전단지를 보여 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스노우가 거울을 제자리에 두는 사이에 골목에서 병사들이 들어와 구두를 쥘는데 스노우가 자기 것이라고 돌려 달라고 말한다.

병사들이 스노우의 발을 보며 어이 없어하고 장난을 치는데 아더와 멀린이 레드슈즈를 부르며 골목을 지난다. 그때, 스노우가 여기에 있다면서 구조를 요청하지만 아더와 멀린이 바라 볼 뿐 그냥 가버린다. 병사들이 스노우를 비웃자 스노우가 병사들을 넘어 뜨린다. 화가난 병사들이 창으로 위협하며 두손을 머리위로 올리라고 말한다. 순간, 지나치던 멀린이 다시 나타나 부적으로 병사들을 쓰러 뜨린다. 멀린이 구두를 스노우에게 건네며 우리가 만난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스노우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말하는데 멀린은 아더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버린다.

스노우가 다시 구두를 신고 골목을 나온다. 레드슈즈가 멀린과 아더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아더가 레드슈즈를 보며 다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에버리지의 부하들이 추격하지만 실패한다. 에버리지 부하들이 아빠를 찾는 전단지를 발견하고 이제 잡았다고 안도한다. 나무토끼가 레드슈즈를 안고 골든구스를 무사히 나온다. 레드슈즈가 멀린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멀린은 수배전단지를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한다. 레드슈즈는 이것은 마법의 구두라고 말한다. 멀린은 그런데 왜 쫓기고 있는지 되묻는다. 레드슈즈는 빨간구두가 마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곧 경비병들이 올 것이니 돌아 가자고 말한다. 거대한 토끼는 꽃밭을 돌아 다닌다. 멀린이 꽃밭을 뛰면서 그림을 그리고 위태로운 바위로 연락을 달라고 말한다. 레드슈즈는 정말 멋진 생각이라면서 멀린에게 고마워 한다. 레드슈즈가 멀린의 얼굴에 붙어 있는 꽃잎을 붙여 준다. 레드슈즈는 멀린과 아더에게 돌아가자고 말하고 에버리지 부하들은 레드슈즈를 찾는다. 꽃밭에 도착한 부하들이 장소를 알아내고 웃음을 짓는다. 이들을 지켜보던 나무곰도 위태로운 바위로 간다.

멀린이 당근밭에서 레드슈즈와 키스하는 상상에 빠져있다. 아더가 당건을 던지면서 멀린이 레드슈즈와의 관계를 망친다고 소리친다. 아더는 레드슈즈와의 은밀한 비밀이 있다고 말한다. 멀린은 아더에게 누가 대신 엑스카리버를 뽑아 주기로 한건지 묻는다. 서로 다투는 사이 누군가 던진 그물에 갇힌다. 한스는 레드슈즈를 위해 도너츠를 주며 평생토록 만들어 주겠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잭은 세계최고의 보석세공사가 만든 다이아 반지를 보여주며 공주것이라고 말한다. 레드슈즈는 보석은 예쁘지만 필요없다고 말한다. 그 순간, 에버리지 왕자와 병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 에버리지는 오두막에 아름다운 범죄자가 있다고 말하며 협조하라고 요구한다. 에버리지 왕자가 병사들에게 돌격명령을 내리는데 레드슈즈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병사들은 레드슈즈를 보고 놀라 넘어지고 에버리지도 진짜 사람인지 이슬먹은 천사인지를 묻는다. 레드슈즈는 함께 갈테니 친구들을 풀어 달라고 말하고 에버리지는 부하들에게 풀어 주라고 명령한다. 에버리지는 오늘 자신의 생일파티에 초대하며 파티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레드슈즈는 에버리지의 초대를 거절한다. 에버리지는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멀린이 레드슈즈가 싫다고 말한다. 에버리지가 멀린에게 괴물은 끼여 들지 말라고 말하는데 레드슈즈가 에버

리지의 얼굴을 때린다. 에버리지가 부하들에게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병사들은 멀린과 아더를 공격한다. 한스가 밖으로 나오고 잭은 멀린과 아더에게 무기를 던지며 작전을 묻는다. 아더가 작전은 없다고 말하고 멀린은 레드슈즈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4명은 병사들을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에버리지 부하들은 아더와 한스를 공격한다. 그동안 잭이 투명망토를 입고 레드슈즈를 잡고 있는 병사들을 공격해 넘어뜨린다. 잭과 레드슈즈가 언덕위로 도망하고 에버리지는 부하들에게 뒤쫓아가 잡으라고 명령한다. 멀린이 레드슈즈를 따라가는 병사들을 보며 부적을 사용하려는데 부적을 다 쓰고 없다. 멀린이 당근을 던지자 거대토끼가 당근을 집어 먹는다. 바로 옆에 있던 부하가 거대토끼를 망치로 때리니 멀린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버린다. 언덕위로 도망한 레드슈즈와 잭이 병사들에게 포위되는데 레드슈즈가 투명망토를 쓰고 아래로 뛰어 내린다. 에버리지의 부하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 오는데 창고안에 있던 삼둥이가 거대한 기계를 타고 놈을 공격한다. 삼둥이가 로켓엔진을 켜자 하늘위로 솟아 오른다. 삼둥이가 다시 적을 쓰러뜨리고 땅에 착지하려는데 에버리지 부하들이 대포를 발사한다. 멀린이 레드슈즈를 향해 날아오는 대포를 보고 몸을 날려 구해주는데 에버리지가 병사들에게 공주에게는 쓰지 말라고 명령한다. 에버리지가 항복하라고 명령하자 레드슈즈가 앓된다고 말하면서 나가려는데 멀린이 레드슈즈의 손을 잡는다.

멀린이 벽에 박혀있는 포탄을 던지자 성벽이 무너지며 에버리지의 부하들이 성벽에 깔려 버린다. 멀린은 문을 열고 모두 안으로 들어가 대피한다. 분노한 에버리지는 자신의 무서운 모습을 목요일에 보여 주겠다고 말하며 도망을 한다. 레드슈즈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채 멀린을 안아 준다. 이를 보던 다른 난쟁이들도 안아 달라고 조른다. 그날밤 멀린과 레드슈즈가 오늘의 이야기를 나눈다. 멀린은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은 녹색 난장이가 아니라 인기인이라고 말한다. 레드슈즈는 멀린은 녹색난장이가 맞지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다. 멀린은 언젠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한다. 멀린은 눈을 감고 자기를 상상해 보라고 말하는데 레드슈즈가 조금 다른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멀린은 멀린이라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자신은 어떤 사람같은지 묻는다. 멀린은 자신을 멋진 사람으로 바꿀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자기를 보여 주겠다면서 구두를 벗으려 한다. 레드슈즈와 멀린 두사람이 구두를 벗기려고 아무리 애써 보았지만 되지 않는다.

성으로 귀환한 에버리지는 부하들에게 성벽이 무너질 때 어디에 있었는지 화를 낸다. 레지나가 에버리지를 기다리고 있다. 레지나가 구두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에버리지는 구두를 찾았는데 난쟁이들이 방해해서 못가져 왔다고 말한다. 레지나가 실패한 것인지 묻자 에버리지는 작전상 후퇴한 것이라면서 목요일에 다시 갈 것이라고 말한다. 레지나가 사과를 한입만 먹으면 엄청난 힘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하

는데 에버리지는 사과먹고 잘되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묻는다. 레지나가 자기를 화나게 하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며 사라진다. 에버리지와 부하들이 책상위의 사과를 한입 먹자 에버리지가 나무괴물로 변화한다.

다음날, 레드슈즈와 난쟁이들이 벽을 다시 세우고 도색작업을 한다. 레드슈즈가 이제 진짜 집같이 보인다고 말한다. 잭은 적응을 여전히 못하고 삼둥이는 레드슈즈가 그린 전단지 복사작업을 한다. 삼둥이가 하늘에서 전단지를 살포하면 금방 나누어 줄수 있는데 자신의 기계는 날지 못한다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고맙다고 말하며 삼둥이를 안아준다. 그러자 멀린이 나무에 박힌 마법빗자루를 뽑는다. 마법빗자루를 기계등에 붙인후 하늘을 날아간다. 레드슈즈가 하늘을 날아가며 멀린을 안고 있다. 삼둥이가 마을을 지나며 전단지를 살포한다. 레드슈즈는 멀린을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말하고 멀린도 레드슈즈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늘을 날아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숲속에 떨어진다. 레드슈즈와 멀린이 마법구두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간다. 레드슈즈가 자신은 본래 엄청 튼튼하고 힘도 강하다고 말한다. 빨간 구두를 신으면 힘도 약해지고 날씬해 진다고 말한다. 멀린이 외모와 진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안다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멀린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엇인가 주고 싶다고 부적을 달라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부적으로 네 앞클로버를 만들어 입술도장을 찍어 주며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하라고 멀린에게 건넨다. 멀린이 입술도장에 입술을 갖다 대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레드슈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데 멀린은 분명하게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레드슈즈는 이대로그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긴다. 멀린이 이렇게 못생긴 난쟁이가 괜찮은지 묻고 레드슈즈는 키와 색깔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서로 키스를 한다. 멀린이 저주를 풀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 좋아 하지만 외모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때 나무괴물로 변한 에버리지의 부하들이 레드슈즈와 멀린을 공격한다. 멀린과 레드슈즈가 나무괴물의 공격을 받고 멀리 날아가 떨어진다. 반대편에서 부하들이 잡으려 하자 멀린이 번개를 쏘며 도망한다. 멀린이 바위위에 있는 나무괴물을 보며 바위에 번개를 쏘아 나무괴물을 절벽아래로 떨어 뜨린다. 나무괴물이 레드슈즈와 멀린을 향해 바위를 던지는데 멀린이 레드슈즈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눈을 감자 멀린의 본모습으로 돌아온다. 멀린은 레드슈즈에게 다러건너 숲으로 달려가라고 말한다. 멀린은 나무괴물을 공격해 절벽아래로 떨어뜨린다. 멀린이 레드슈즈에게 돌아보라고 말하는데 떨어진 나무괴물이 멀린을 붙잡으며 물속으로 떨어진다. 레드슈즈가 멀린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바위틈에 깔려 움직이지 않는다. 레드슈즈가 구두를 벗고 바위를 들어 올려 멀린을 물밖으로 구한뒤 쓰러진다. 나무곰이 스노우 공주를 확인하고 끌어 당기는데 거대토끼도 스노우 공주를 알아 본다.

레지나가 마법거울을 보며 구두 도둑이 스노우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법거울

이 흥미를 느끼며 구두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레지나는 스노우 공주를 잡으러 떠난다. 레드슈즈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채로 멀린과 모닥불앞에 앉아 있다. 레드슈즈는 지금의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한다. 멀린이 지난번 골든구스 길에서 만난 그녀가 로드슈즈인지 묻는데 로드 슈즈는 그 사람이 맞고 진짜 이름은 스노우라고 말한다. 스노우는 새 왕비가 마녀라는 것을 알았을때는 아버지가 실종된 후였다고 말하며 우리를 공격한 사람은 구두를 찾기 위해 마녀 왕비가 보낸 괴물이라고 말한다. 멀린은 구두를 돌려 줄 생각은 왜 않았는지 묻고 스노우는 마법을 포기했다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멀린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신도 저주에 걸려 있다고 말한다. 스노우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마법은 깨고 싶지 않은 마법이라고 말한다. 멀린이 앉아서 생각을 한다. 거대토끼가 일어나고 스노우도 깨어나 멀린이 마법에 걸린 자신을 더 좋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구두를 신는다. 멀린이 숲에서 나뭇가지를 모은다. 멀린이 그날 헛간에서 구두가 벗겨 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한다. 난쟁이 멀린은 스노우 공주와 레드슈즈 중에 누가 더 좋은지 묻는데 레드슈즈라는 답이 절로 나온다. 멀린은 스노우가 멀린의 지금의 모습을 더 좋아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레드슈즈가 일어나 난쟁이 멀린과 있었던 추억을 떠올린다. 그때 나무에서 있는 멀린을 만난다. 자짜 멀린이 구두를 벗어라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구두를 벗으려 하지만 벗겨지지 않는다. 가짜 멀린이 사과를 먹으면 구두가 벗겨 질 것이라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사과가 어디서 난 것인지 물어보며 먹으려는 순간 진짜 멀린이 나타나 레드슈즈를 부른다. 가짜 멀린이 레지나로 변하여 레드슈즈를 데리고 사라져 버린다. 멀린이 나무곰에게 친구들을 불러오고 부적도 많이 복사해 달라고 말한 후 거대토끼를 타고 달려간다. 레지나가 레드슈즈를 데리고 성으로 돌아온다. 마법거울은 레지나가 마법을 사용해서 더 늙었다고 말하는데 듣기 싫어한다. 레지나가 공주를 나무에 결박하라고 명령한다. 한편 난쟁이들은 집에서 멀린과 레드슈즈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무곰의 소식을 듣고 무기를 챙겨 출발준비를 한다. 나무곰은 멀린의 부적을 복사하고 아더는 엑스카리버를 뽑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멀린은 거대토끼를 타고 성으로 향한다. 토끼가 방향을 돌려 비밀통로로 향한다. 레지나는 공주가 깨어나자 사과를 먹고 자유의 몸이 되라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아버지의 행방을 묻자 레지나는 사과를 먹어야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가족을 다치게 했으니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레지나가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나무에 묶여 있는 멀린을 데리고 나타난다. 레지나가 사과를 먹지 않으면 멀린은 죽는다고 말하자 레드슈즈가 멀린을 석방할 것을 약속하라고 말한다. 레지나는 종이 세 번 올리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레드슈즈가 멀린에게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사과를 먹는데 레드슈즈의 몸이 마법나무로 변하기 시작한다. 마법거울이 멀린을 끌고 온다. 멀린이 마법거울에게 구두만 가져가

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한다. 마법거울이 구두는 마법의 사과로 만들어 졌는데 끊을수 없는 유혹의 과일라라서 소원을 들어 준 후에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멀린이 강에서 구두를 벗었다고 말한다. 멀린은 마법거울에게 사과를 먹은 후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마법거울은 사과를 먹으면 마법의 사과나무가 된다고 말한다. 첫째종은 그냥 올리고, 둘째종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아침햇살을 받으면 사과가 빨간구두로 바뀌고, 세 번째 종이 올리면 완성되는데 레지나가 이 왕국 최고의 미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멀린이 스노우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데 스노우는 시들어 죽게 된다고 말한다. 멀린이 부적으로 포박을 풀고 벗어나는데 마법거울이 멀린을 당긴다. 순간 다른 난쟁이들이 성내로 들어와 멀린을 구출한다. 마법거울은 7대 1이라고 만족하며 공격을 한다.

멀린은 아더가 엑스카리버를 뽑았다고 축하를 전한다. 나무곰이 멀린에게 부적을 던져 주는데 순간 종이 한번 올린다. 멀린과 난쟁이들이 공격을 한다. 한스가 프라이팬을 들고 공격한다. 마법거울은 빠져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아선다. 삼둥이가 문을 부수고 나간다. 잭은 다이아반지로 거울을 깨 버린다. 멀린이 성벽을 넘어 건넌다. 두 번째 종이 올리면서 태양이 떠 오른다. 멀린이 방안으로 들어가 레지나를 안고 성위에서 뛰어 내린다. 부적이 휘날리며 번개를 일으키며 큰 폭발과 함께 레지나의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본래대로 돌아온다. 스노우도 아빠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안는다. 스노우가 멀린이 보이지 않자 어디에 있는지 묻는데 화이트 왕이 멀린이 레지나를 막으려고 희생하였다고 말한다. 스노우가 울면서 멀린을 부른다. 삼둥이가 멀린을 안고 하늘로 올라 온다. 스노우가 멀린을 보며 떠난줄 생각했다고 말한다. 멀린은 스노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눈을 감고 두 사람이 키스를 한다. 순간 빛이 번쩍이며 멀린의 본모습으로 되돌아 온다. 스노우는 작고 녹색이었던 멀린이 좋았다고 말하는데 멀린은 그 멀린이 지금의 멀린이라고 말하며 스노우 공주와 키스를 한다. 난쟁이 왕자들이 환호를 외치며 아더가 스노우를 바라보며 누구인지 묻는다. 요정공주가 낚시를 즐기고 있다. 공주가 입질하는 것을 보고 낚시대를 당기는데 에버리지가 물밖으로 나온다. 요정공주가 에버리지를 녹색 난쟁이로 만든후 떠난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를 패러디한 한국 애니메이션 레드슈즈가 끝났다. 한국의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보여주는 탁월한 작품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진실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멀린과 스노우 공주의 사랑은 외모와 물질이 아니라 진심 그 자체였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도 모든 죄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분으로부터 더 이상의 무엇을 얻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일 것이다. 이것이 레드슈즈를 신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할 것이다.

35. “변신”變身, Metamorphosis, 2019

한국영화, 장르:공포,스릴러, 개봉:2019.08.21.

감독,각색:김홍선, 제작:다나크리에이티브,

주연:배성우,성동일,장영남,김혜준,조이현,김강훈,

관객:1,537,905명(2019.09.02.기준)

선우의 삼촌이며 구마사제인 “박중수”(배성우역)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카톨릭 신자를 구마하고 있다. 이미 몸과 마음의 전부를 빼앗겨 버린 “소녀”(김세희역)를 구하기 위한 박중수 사제의 집중된 의식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소녀의 몸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밖에서 딸의 완쾌를 기다리던 “어머니”(전미도역)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박중수 사제의 구마가 계속되지만 악마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가끔씩 들리는 딸의 엄마를 찾는 목소리는 결국 열어서는 안되는 방문을 열게 하고 만다. 구마에 사로 잡혔던 딸이 포박을 풀고 자살을 결심한다. 2층 창밖으로 뛰어 내리는 소녀의 발꿈치를 잡으며 간신히 붙들고 있는데 소녀는 자신의 이빨로 박중수의 손목을 끊어내며 1층의 쇠창살위로 떨어져 자살을 해 버린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박중수는 근신기간을 갖게 되고 신학교의 교수직만을 갖고 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박중수의 친형인 “박강구”(성동일역)의 가족도 이사를 가야만 했다. 경매로 나온 집으로 이사를 하는 박강구의 둘째딸 “박현주”(조이현역)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다. 학교도 멀고 모든 현실이 버거울 뿐이다. 이렇게 이사를 한 첫날 밤, 바로 맞은 편 주택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소리가 밤잠을 깨운다. 주택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까마귀떼들이 넘치고 음산한 기운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다음날 아침 무거운 몸으로 박강구가 출근을 하고 가족들의 마음도 어지럽기만 하다. 주택가 눈앞에 짐승의 가족을 벗겨 전시하듯 걸어 놓았다. 이 장면을 눈앞에서 목도한 최명주와 두 딸들은 겁에 질린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박강구의 퇴근길, 저녁시간 집 앞의 도로를 막아선 트럭 한 대가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박강구가 앞 집을 바라 보는데 출입문이 저절로 열린다. 주택의 정원에는 온갖 까마귀의 박제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다른 짐승들의 가족과 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집안은 모든 거실이 피로 얼룩져 있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악마의 소굴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박중수는 악마에 대하여 정의한다. “인간도 여러 유형이 있듯이 같은 살마도 같은 악마도 없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흔히 빙의로 알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 영혼을 괴롭히거나 환영처럼 누군가의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그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있는 "박현주"(조이현역)의 이불이 누군가 당겨 내린 것처럼 내려 간다. 잠결에 이불이 뒤엎킨 듯한 현주가 다시 이불을 당겨 올리는데 이번엔 이불이 밑으로 확 빨려 내려간다. 잠이 깬 현주의 침대 머리맡에 아버지 박강구가 음흉한 눈빛으로 현주를 내려다 보며 얼굴을 만진다. 겁에 질린 현주가 소름돋는 얼굴로 마비가 되어 있고 잠시후 박강구가 방을 나간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 "최명주"(장영남역)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식탁에 앉은 어머니 최명주가 마치 까마귀가 음식을 쪼아 먹듯이 거침없이 먹고 있다. 이 장면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막내아들 "박우중"(김강훈역)이 계란말이를 먹는데 도저히 삼킬 수 없어서 뱉아 버린다. 이에 분노한 최명주가 욕설을 퍼부으며 짐승이 먹이를 삼키듯 입안으로 계란말이를 넣고 있다. 남편인 박강구와 함께 가족들이 수상한 눈빛으로 아내와 엄마를 바라 보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 놀란 우중이를 달래는 큰 딸 "박선우"(김혜준역)의 마음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날 밤, 여전히 앞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결국 박강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집안을 수색하는데 어제의 아수라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둘째딸, 현주의 방에서 언니 선우가 빼돌려진 현주를 달래려고 하는데 현주가 어제밤에 자기방에서 아빠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 한다. 이들의 대화를 우연하게 듣고 있던 아빠 박강구가 듣고 화를 낸다. 잠시후, 아빠 박강구가 공구함에서 망치를 들고 나타나 딸을 죽이려고 망치를 휘두른다. 서로 밀고 밀치는 사이에 아빠 박강구가 큰 딸 선우를 계단으로 던져 기절을 한다. 1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타난 엄마 최명주가 다시 망치를 들고 딸을 죽이려고 내리치고 딸을 공격하던 아빠 박강구가 다시 아내의 공격을 막아서는 아이러니가 밤새 지속되었다. 작은 딸 현주를 죽이기 위해 아내가 내리친 망치에 두들겨 맞은 남편 박강구가 골절이 된다. 온통 공포속에 몰아 넣은 깊은 밤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가족 가운데 누구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코미디 프로를 보며 박장대소를 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 박강구의 마음이 복잡하다. 아내와 딸들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나려 하는데 박강구가 말리며 대책을 강구한다.

이상한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우가 삼촌인 박중수를 부르자고 말하는데 다른 가족들이 삼촌 때문에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결사코 반대한다. 그러나 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공포의 그림자가 더욱더 짙어 오른다. 결국 삼촌인 박중수에게 현우가 전화를 한다. 그러나 곧 해외선교사로 떠나기로 한 박중수가 불편한 거절을 한다. 현우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박강구가 다시한번 동생에게 요청을 하는데 박중수는 예전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이번엔 가족마저 다치게 할까봐 나서기를 두려워 한다. 마음이 불편했을까? 박중수는 마지막 강의를 끝으로 해외로 나가려던 마음을 접고 형의 집으로 향한다. 구마사제 박중수를 환영하듯 을씨년스러운 바람

이 낙엽을 쓸어 담고 까마귀떼들이 주택가 옥상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박중수가 트럭이 세워진 주택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며 박중수를 손짓하는 듯 하는 기운이 감돈다. 박중수 사제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강구가 보았던 피의 아수라장이 그대로 나타난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도 짐승의 피가 묻어나 있다. 방안 한 칸에 쥐들의 먹이감이 된 시체가 놓여 있다. 어제 밤 박강구가 만난 바로 그 남자였다. 그 또한 오래전에 박중수가 구마한 소녀의 엄마의 손에 목이 날아 갔다. 악마는 악마의 손에 죽지 않는다. 허약하고 나약하고 분노한 사람의 몸을 이용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의심의 총구를 겨누게 한다.

모두가 겁에 질린 형의 가족들을 한 군데 모은 박중수는 따로 떨어져 자지 말고 다 함께 잠을 청하자고 말한다. 거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다함께 잠을 청하는데 막내인 우종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 누나들을 깨우지만 잠이든 엄마와 누나가 인기척이 없자 혼자서 화장실을 간다. 순간 또 다른 우종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타나 박중수의 이마에 칼을 겨누며 죽일 듯이 위협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죽이지는 않는다. 다음날 아침 박중수가 은밀히 녹화해 둔 어제밤의 상황을 노트북에서 영상으로 보여 준다. 분명 우종의 얼굴을 한 막내가 삼촌의 이마에 칼을 겨누고 있는 장면에서 가족 모두가 경악한다. 아침 식사시간, 다른 가족들은 의심없이 평소대로 물을 마셨지만 큰 딸인 선우가 박중수가 사전에 성수를 타 놓은 물을 마시려다 물컵을 그대로 내려 놓는다.

혼자 힘으로는 구마를 할 수 없었던 박중수는 필리핀에서 구마사제로 사역중인 스승, "발타자르"(박윤식역) 신부를 초청한다. 박중수는 공항에 가는 동안 조카들에게 지하에 갖다 놓은 십자가상과 성모상들을 가져 오라고 말한다. 현주가 지하에 내려가 성물들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갑자기 지하 화로판이 열리고 현주가 그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화장을 당해 목숨을 잃는다.

한편,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박중수는 발타자르 신부와 함께 귀국한 구마 보조사제 두 분을 차에 태우고 형의 집으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날아든 까마귀떼의 공격을 받고 차량이 추락하며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다. 차량에서 겨우 빠져 나온 박중수가 집으로 향한다. 박강구는 동생의 말을 기억하며 큰 딸인 선우를 침대에 묶는다.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는 선우를 바라보며 최명주가 남편을 막아 서지만 박강구는 선우를 위한 일이라면서 명주를 밀어 낸다. 그때, 박중수가 다친 몸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오고 선우의 방에서 구마를 시작한다. 악마는 때로 사제의 모습을 하기도 한다. 악마는 박중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족들을 속이며 선우를 채찍으로 죽이려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구마사제는 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성모상에 피가 흐르고 성물들이 부패한 향기를 드러내며 스스로가 악마의 신분을 드러낸 것이다. 그순간, 다시 진짜 박중수가 붕대를 감은 채 나타났다. 또 다시

의심의 구렁에 빠질 것 같은 가족들에겐 더 이상 의지할 곳 조차 없어졌다. 결국 동생을 다시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지하에서 현주가 죽은채로 발견되고 악마에 현혹되지 않은 것 같았던 선우가 다시 악마의 모습으로 아빠와 삼촌을 공격하며 우종이 마저 위협한다. 결국 박중수가 악마를 받아 들이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발타자르 신부가 영적으로 이것을 직감한다. 그러나 가족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박중수가 형에게 십자가의 칼을 건네고, 스스로가 그 칼에 자결을 하면서 악마 또한 죽음을 맞이 한다.

결국 박중수 구마사제의 죽음으로 영화는 끝이 났다. 아빠가 두 사람이 되고, 엄마가 두 사람이 되는 의심의 흔적에서 믿음을 갖기란 참으로 어렵다. 악은 분노한 자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들어 간다고 말하는 박중수 사제의 말은 분노의 함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한다. 영화는 예고편대로 극강의 공포를 자극한다. 계속되는 충격과 공포에 영화관은 시베리아 혹한의 한기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인은 영화 변신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영화 곡성과 마찬가지로 의심을 자극한다. 믿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참다운 믿음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지만 전혀 다른 상황과 공격으로 다가 온다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늘 현실의 함정에 넘어진다.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마귀가 다른 얼굴로 다가오는 현실에 속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반석같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속에서 구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

36. “암전”Warning: Do Not Play

한국영화, 장르:공포,미스터리, 개봉:2019.08.15.
감독,각본:김진원, 제작:토닉프로젝트,아이뉴컴퍼니,
주연:서예지,진선규,
관객:102,429명(2019.09.15.기준)

“박미정”(서예지역)이 뒤를 돌아 보는데 주차장의 불이 갑자기 소등한다. 박미정이 겁에 질려 핸드폰 라이트를 켜는데 귀신이 박미정을 덮치며 꿈에서 깨어 난다. 박미정이 PC앞에 앉아 꿈의 기억을 기록한 후 공포영화 서적을 뒤적거리며 공포영화를 관람한다. “영화사PD”(윤정로역)가 박미정에게 공포영화 시나리오를 독촉한다. 박미정은 “김준서”(지윤호역)로부터 영화소재 이야기를 듣고 있다. 졸업작품 상영회에서 동기가 만든 공포영화를 관람했는데 절반은 극장에서 도망하고 한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한다. 김준서는 영화를 제작한 학생이 조사를 받고 귀신이 찍은 영화라고 진술했는데 대전대 영화과 출신이라고 알려준다. 박미정이 대전대 영화과 “조미경”(김미경역)지도교수를 찾는다. 박미정이 수년전 졸업작품으로 공포영화를 상영한 이야기를 꺼내고 조미경교수는 가끔씩 공포영화를 찍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한다. 박미정이 귀신이 찍은 영화에 대해 묻는데 조미경 교수는 교수로 부임한지 10년째인데 처음듣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박미정은 10년전에 만든 영화라고 묻고 조미경 교수는 연극영화과가 개설된 것이 10년전이라고 말한다. 박미정이 학교에서 발간된 옛 책들을 찾아 보지만 정보가 없다.

박미정이 조개구이집에서 혼술을 하다가 대전대 연출전공 학생들과 합석을 한다. 박미정이 공포게임을 제안하고 실화면 10점, 대전대 실화면 20점에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말한다. “성태”(남태부역)가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다. 학교 인근 폐극장에서 “순미”(조아라역)라는 여배우가 화재사고로 귀신이 되었다고 전한다. “정민”(주종혁역)은 10년전 영화과 학생이 공포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너무 무서워 기절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감독이 귀신이 찍은 영화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 정민은 폐극장에서 영화촬영을 위해 스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 귀신이 나타나 팔을 꺾고 공격하였다고 말한다. 성태가 자기 이야기가 바로 순미 이야기라고 거든다. 성태는 귀신이 감독에게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고 감독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귀신이 감독을 기절시킨후 영화를 찍었는데 “경식”(추정훈역)이 암전이라는 이 영화가 실제로 부천영화제에 출품되었다고 말한다. 귀가한 박미정은 암전이라는 영화정보를 찾는다. 그때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듣고 학창시절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워 한다.

박미정은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프로듀서 “강선배”(서석규역)를 찾는다. 10년전 출품

작 암전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강선배는 상영 취소된 작품이라고 말한다. 박미정이 작품을 구하려 하자 강선배는 고민 끝에 김프로에게 부탁하려 자리를 비운다. 순간 박미정이 PC에서 암전파일을 폰으로 옮긴후 자리를 떠난다. 귀가한 박미정이 파일을 확인하는데 예고편이다. 예고편에는 영화스텝이 극장을 확인하는 순간 매우 놀라는 장면이 나온다. 박미정이 출품신청서에 적힌 "김재현"(진선규역)의 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결번이다. 박미정이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암전 영상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다. 김준서가 알바로 일하는 카페에서 박미정이 노트북으로 댓글을 읽고 있는데 자신을 김재현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암전에 대한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한다. 박미정은 김재현에게 암전에 대하여 궁금해하는데 김재현은 무조건 글부터 지워라고 말하고 박미정은 만나주면 글을 삭제하겠다고 말한다. 박미정과 김재현이 만나기로 약속한 다방에서 마주한다. 김재현이 담배를 입에 물고 떨리는 입술로 글을 당장 삭제하라고 말한다. 박미정이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을 김재현이 직접 지우고 암전에 대해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 물으며 암전에 대해서는 잊고 내일부터 교회라도 나가라고 말한다. 김재현이 나가려 하자 박미정이 다시 올릴거라고 말하고 김재현이 박미정의 목살을 잡으며 상도동423번지 88년생 박미정감독!!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말라고 말한뒤 나가 버린다. 박미정이 곧바로 김재현을 은밀하게 뒤따른다. 김재현이 뒤따르는 느낌을 받고 뒤돌아 보지만 아무도 없다. 밤이되고 김재현이 집에서 외출을 한뒤 박미정이 몰래 집안으로 들어간다. 김재현의 집안에 촛불과 십자가들이 온통 걸려 있다. 박미정이 벽에 그려놓은 그림 사진을 찍고 자물쇠로 잠긴 장농문을 열어 암전 원본을 발견한다. 순간 김재현이 귀가를 하고 놀란 박미정이 침대밑에 숨어든다. 김재현이 등불을 켜고 방안을 확인한다. 김재현이 다시 반복할수 없다고 혼자말을 하며 술을 마신다. 김재현이 불빛을 보며 꺼지라고 고함을 치며 밖으로 다시 나간다. 박미정이 침대로 나와 집을 나서는데 김재현이 박미정의 머리채를 당긴다. 박미정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잡으려는데 김재현이 빼앗으며 순미랑 영화를 다시 만들려는 것이냐고 욕박지른다. 김재현이 다시 그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물건을 박살내려 하는데 박미정이 김재현을 발로 차며 물건을 다시 빼앗는다. 김재현이 박미정을 다시 눕히고 죽음보다 무서운게 살아있는 공포라고 말하며 박미정의 목을 조른다. 박미정이 옆에 있는 병으로 김재현의 머리를 내리치고 물건을 다시 빼앗은 후 집을 나간다.

귀가한 박미정이 김준서에게 연락하고 김준서는 영상을 확인한 후 포맷을 한다. 박미정이 잘 앓된다고 돌아서는데 쓰러진다. 다시 정신을 차린 박미정이 김준서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 김준서가 고개를 돌리는데 김재현의 얼굴이 나타나고 김재현이 박미정의 목을 조르면서 자기 영화가 무서운지 되묻는다. 놀란 박미정이 꿈에서 깨어나고 김준서는 박미정에게 괜찮은지 살핀다. 김준서는 복구프로그램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의 파일을 복원한다.

메이킹영상, 김준서가 영상을 재생하자 김재현과 스텝들이 배우오디션을 보고 있다. 오디션후 김재현이 배우의 표정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차광배"(차엽역)가 시나리오도 없이 오디션을 보는게 문제라고 말하고 "김지수"(김보라역)는 김재현에게 시나리오를 독촉한다. 차광배가 김재현에게 영화를 왜 하는지 묻는데 김재현은 공포영화를 만들려는 의지를 표현한다. 김재현은 고교시절 왕따를 당하며 매일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어느날 엑소시스트를 보고 경악하고 너무 무서웠지만 오히려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 후로 김재현은 누군가의 공포를 잊을 수 있는 공포영화를 만들 결심을 하였다고 말한다. 메이킹영상을 보던 박미정이 자신이 예전에 병원에서 공포영화를 보며 느꼈던 감정과 기억을 떠올리며 손목을 만진다. 김준서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하드가 복구되는 동안 잠이든 박미정이 노크소리에 깨어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화장실로 가는데 쿵쿵 하며 더 큰 소리가 들려 문을 여는데 아무도 없다. 박미정이 문을 닫자 다시 같은 소리가 들린다. 비오는 날 밤, 박미정이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중 전등이 깜박거리며 불이 꺼지고 노트북마저 꺼져 버린다. 박미정이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차단기를 확인하는데 화장실 문이 열린다. 박미정이 화장실 안을 확인하는데 욕조에 칼이 있다. 순간 화장실문이 저절로 닫혀 버리고 놀란 박미정이 뒤돌아 보는데 칼이 사라지고 없다. 겁에 질린 박미정이 화장실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잠시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리고 박미정이 돌아서자 검은 물체가 서 있다. 박미정이 겁에 질려 주저 앉았다가 사진을 찍는다. 귀신이 모습을 나타내었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순간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켜진다.

박미정이 김준서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김재현을 언제 처음 만난것인지 묻는다. 김준서는 10년전 첫 단편영화에서 연출부로 만났다고 말하면서 자기옆에 남아 있어서 고맙다고 말한다. 김준서는 박선배가 멋있다고 말하고 선배의 시나리오 대본을 읽었다고 말한다. 김준서는 시나리오속의 여자감독과 후배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박미정은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시간 복구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되어 영상파일 3개가 복원된다.

메이킹영상, 김재현이 스텝들과 촬영현장으로 이동한다. 국도복합영화관에 도착한 김재현이 촬영을 하면서 극장내부로 들어간다. 김재현이 스텝들에게 대학생들이 친구 한 명을 폐극장으로 데려와 공포에 떨고 있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조영민"(조재영역)이 우리도 영화에 나오는지 묻고 김재현은 그럴수도 있다고 말한다. 김지수가 확실하게 정하라고 말하고 김재현은 극장을 둘러 보면서 확정하자고 말한다. 김재현이 극장을 둘러보며 스텝에게 장난을 거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김재현이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뒤집는데 액자에는 사진과 배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김재현이 기계실

을 둘러보며 무엇인가를 보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온다. 김재현이 출입구에서 카메라를 바라 보며 거친 숨을 내쉰다. 김지수가 조영민에게 이 극장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묻는데 조영민이 화재로 죽은 순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차광배는 귀신이야기는 걱정 않하는데 먼지가 걱정이라며 기침을 한다. 김지수가 귀가하는 김재현을 부르는데 김재현은 갑자기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 급히 가버린다.

박미정은 영상을 보면서 김재현이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한다. 박미정이 김재현이 지하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되돌린다. 영상에서 순미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김재현과 성태가 말하는 순미를 되뇌인다. 박미정은 자동차를 타고 대전으로 출발한다. 한편, 김준서가 박미정의 집에 도착해 복원된 영상파일을 확인한 후 메이킹영상이 영화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암전2008, 김재현감독작, 차광배와 김지수와 조영민이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촬영을 준비한다. 차광배가 조영민과 김지수에게 소품으로 가져온 부싷돌로 불을 켜는 방법을 설명한다. 조영민이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하고, 김지수는 김감독이 오면 필요한지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차광배가 부싷돌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너무 어두우니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다. 잠시후 김재현이 나타나고 김지수가 여배우는 언제 오는지 묻는다. 김재현은 금방 온다고 기다리라고 말하며 외부영상을 더 찍은 후 오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간다. 스텝들이 극장안에서 투덜거리면서 김재현을 기다린다. 김지수는 폰 배터리가 없다고 말하고 차광배 마저 잠시 나갔다 오겠다면서 나간다. 순간 조명이 깜박이자 스텝들이 놀라서 장비를 확인한다. 김재현이 숨어서 스텝들을 촬영한다. 조영민이 장비를 잡다가 넘어 쓰러진다. 잠시후 비명소리가 들리고 김지수가 조영민을 부른다. 차광배가 소품용 라이트로 어두운 극장안을 밝힌다. 조영민은 사라지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다. 김지수가 피를 보며 차광배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지켜 보던 김재현이 갑자기 극장밖으로 도망을 한다.

박미정이 영상에 나타난 실제 극장을 찾는다. 김재현이 극장밖으로 도망하는 장면을 생각하며 극장안으로 들어간다. 박미정은 폰으로 녹화를 하면서 지하실로 내려간다. 박미정은 차광배가 조영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조영민이 차광배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데 귀신이 조영민의 머리를 쳐 쓰러뜨린다. 조영민이 쓰러지자 차광배가 겁에 질린채 파이프를 잡는다. 놀란 박미정이 뒷걸음질 하는데 차광배가 돌아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른다. 박미정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지 묻는다. 차광배가 본 것은 박미정이 아니라 귀신이다. 박미정이 서 있던 자리에 있었던 귀신이 차광배를 죽인다. 박미정이 그 장면을 보고 겁에 질린채 촬영중인 폰을 확인해 보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박미정이 공포에 질린채 지하실에서 위로 올라온다. 순간, 극장안에 있던 김지수가 스크린에 나타난 순미의 영상을 보고 있다. 잠

시후 소리가 들리고 김지수가 뒤돌아 보는데 귀신이 김지수를 공격한다. 환상을 보고 놀란 박미정이 극장밖으로 나오는데 김재현과 마주치며 그대로 주저 않는다. 김재현은 박미정을 순미로 착각하고 박미정을 쓰러 뜨린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의자에 묶는다. 김재현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박미정이 자기는 순미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김재현은 박미정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도끼로는 순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 박미정은 김재현에게 하드 훔친 것을 사과하고 암전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박미정은 여자 스텝들을 다 죽이고 극장에 상영한 것은 모두 순미 짓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나가서 김재현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한다. 김재현은 박미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김재현은 극장안으로 들어와 스텝들이 죽어 있는 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테이프를 꺼낸후 편집했고 극장에서 상영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영화를 보고 경악하며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김재현은 자신의 영화에 만족하며 박수를 친다. 박미정은 김재현을 보며 경악하지만 김재현은 박미정을 보며 순미가 자기 인생을 공포영화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김재현이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린후 라이터를 켜고 이제 영화를 끝낼 순간이라고 말한다. 순간 바람이 불며 라이터가 꺼지고 김재현이 뒤를 돌아보는데 귀신이 나타나 김재현의 목을 조른다. 의자를 넘어뜨리고 줄을 푼 박미정이 핸드폰으로 김재현의 모습을 촬영하고 김재현은 박미정에게 미친 짓이라고 말한다. 박미정이 사진을 찍는데 플래시가 터지며 김재현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박미정이 도망을 하는데 스크린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난다.

귀신이 칼을 들고 박미정을 공격하고 박미정은 도망하다가 귀신에게 끌려 간다. 귀신이 넘어진 박미정을 공격하고 박미정은 다시 울면서 도망을 한다. 박미정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휘두르고 귀신은 박미정의 목을 조른다. 박미정이 자신의 모습 사진을 찍으며 플래시를 터뜨리자 귀신은 사라지고 박미정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귀신은 다시 박미정을 칼로 공격한다. 박미정이 극장 안쪽에서 소품을 발견하고 불을 켜고 자신을 공격하려는 귀신에게 불을 던진후 돌아선다. 극장에는 온통 불이 불고 박미정은 사진을 찍은 후 극장을 나온다.

귀가한 박미정이 집안 모든 곳에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영화사 PD가 박미정에게 전화를 해 내일 사무실에서 계약하자고 말한다. 다음날 영화사 PD는 박미정에게 투자자가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어디까지가 논픽션인지 묻지만 박미정은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암전 영화 시사회가 열리고 박미정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 완전 복원된 영상을 본 김준서가 박미정이 전화를 받지 않자 대전으로 향한다. 박미정이 겨우 극장 밖으로 빠져 나온다. 그때 김준서의 전화가 온다. 김준서가 극장안에서 박미정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 박미정은 극장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김준서를 버려 둔채 자동차를 타고 떠나 버린다. 영화 암전이 끝난후 박미정이 자신의 손목에 그어진 상처를 본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박미정이

일어나 인사를 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영화 곤지암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공포영화가 맞는지 아니면 공포영화를 찍으려 하는 토막을 끼워 맞춘 것인지 알 수 없다. 흥행은 실패로 끝났고 극장도 조기에 막을 내려 버렸다. 공포영화 다운 공포를 주기 위해 사용한 캐릭터들은 싸늘한 반응으로 되돌아 왔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영화는 무엇이든 생각할 여유를 주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일 것이다. 신앙인으로서 늘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 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순간 자신의 영혼을 짓밟으려는 순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37. "타짜:원 아이드 잭" Tazza: One Eyed Jack, 2019

한국영화, 장르:범죄,드라마, 개봉:2019.09.11.

감독:권오광, 제작:싸이더스,

주연:박정민,류승범,최유화,

관객:1,769,636명(2019.09.16.기준)

1. 타짜2006(지리산작두편)

감독:최동훈, 개봉:2006.09.28. 관객:5,685,715명, 원작:허영만,

주연:조승우(고니역),김혜수(정마담역),백윤식(평경장역),유해진(고광렬역),

가구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고니는 대학 진학보다는 돈이 급한 청년이다. 어느날 고니는 가구공장 한쪽방에서 박무석 일행이 주도하는 화투판에 참여한다. 스무장의 화투로 게임하는 셋다 한판에서 3년동안 저축한 모든 돈을 탕진한다. 후일 전문도박단 타짜들이 짜고치는 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고니가 박무석 일당을 추적하는 가운데 전설의 타짜 평경장을 만난다. 잃었던 돈의 5배를 취득하면 화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고니는 평경장과 함께 타짜의 길로 접어 든다. 평경장과 전국을 평정하던 고니는 타짜의 설계자 정마담을 소개받고 더 큰 욕망의 바다로 향한다. 평경장과의 약속을 위반한 고니는 평경장과 결별하고 극악무도한 죽음의 타짜 아귀를 만난다. 고니는 화려한 입담으로 화투판을 움직이는 고광렬을 만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정마담과도 결별한다. 고광렬은 남들 버는 만큼 따면 만족하는 직장인형 타짜다. 고광렬과의 전국원정중 술집주인 화란을 만나지만 타짜의 인생에서 사랑은 만만치 않다. 고니는 박무석과 그의 우두머리 곽철용을 만난다. 타짜판에도 앙금은 있다. 곽철용을 대패시킨 고니앞에 아귀가 정마담을 미끼로 나타냈다. 죽음의 한판승부라는 것을 직감한 고니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2. 타짜:신의 손2014

감독:강철형, 개봉:2014.09.03. 관객:4,015,364명, 원작:허영만,

주연:T.O.P(함대길역),신세경(허미나역),곽도원(장동식역),이하늬(우사장역),

삼촌 고니를 닮아 유년시절부터 탁월한 재주와 승부욕을 가진 대길이가 고향을 떠나 서울 강남 하우스에서 타짜로 데뷔한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탕진하고 우연하게 고니의 파트너인 고광렬(유해진역)을 만난다. 고광렬과 함께 전국을 일주하며 대길이는 악의 사채업자 장동식과 아귀를 만나 고니의 못다한 승부를 벌인다. 영화 타짜는 허영만의 4부작 만화다 1부:지리산작두, 2부:신의 손, 3부:원 아이드 잭, 4부:벨제붐의 노래로 구성된 시리즈에서 1부에 이어 2부가 영화로 제작되었다.

3. "타짜:원 아이드 잭"2019

"짜귀"(주진모역)가 크레인 위에서 남자에게 쫓기다 아래로 떨어져 의족으로 겨우 버티다가 의족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래로 추락한다. 남자는 짜귀의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진다. 20년후, "도일출"(박정민역)이 하우스에서 포커를 하며 상대편 남자의 표정과 행동을 살핀후 베팅을 한다. 도일출이 원페어로 게임에서 돈을 낚아 찬다. 남자가 도일출을 의심하며 어떻게 자신이 뺑카를 치는지 알았는지 묻는다. 도일출은 영업비밀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지갑에서 백만원을 주면서 설명을 요구한다. 도일출은 남자에게 습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히든이 들어오면 카드를 너무 쪼이고 히든이 아니면 카드를 너무 반듯하게 정리한다고 말한다. 메이드가 되면 3초 리듬이 있고, 뺑카면 반박자가 빠르다고 말한다. 남자는 복수를 말하고 도일출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여운을 남긴다. 도일출이 칩과 현금을 챙겨 사무실로 가서 "털보"(이지훈역)에게 칩을 건네고 계산을 한다. 털보는 우수리를 공제하고 3백만원을 지급하려 하는데 도일출이 우수리를 떼지말고 계산해 달라고 말한다. 털보가 319만원이라고 하자 도일출이 천만원이 넘었다고 자랑한다. 털보가 도일출에게 왜 도박을 하는지 묻는데 도일출이 가진놈은 출발부터 다르고, 학원에 명문대와 유학을 가지만 여기서는 금수저나 흙수저나 동일하게 카드 7장갖고 경쟁한다고 말한다.

도일출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한다. 방에서 잠을 자는 "엄마"(서정연역)를 보고 놀라서 왜 온 것인지 묻는다. 도일출에게 반찬을 주려고 찾은 엄마는 일출이 잘 있는지 걱정이다. 엄마는 첫차로 가게에 가야한다고 말하고 도일출은 하루정도 문을 닫고 쉬어라고 염려를 한다. 엄마는 아침에 가게로 오는 손님과 약속이 있어서 꼭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날, 도일출이 학원에서 공무원시험공부를 한다. 강의시간 내내 잠을 청하던 도일출이 잠에서 깨어나 칠판을 보는데 칠판이 하우스스테이블로 보이며 카드와 칩이 눈앞에 나타난다.

도일출이 하우스에서 게임을 하며 또다시 돈을 거머쥐고 있다. 하우스 복도에서 "마돈나"(최유화역)를 만나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있다. 마돈나는 학생은 하우스같은 곳에 오면 안된다고 말하고 도일출은 잘하는게 카드밖에 없다고 말한다. 마돈나는 도일출의 손이 투박하고 따뜻하다면서 도박보다는 공부가 제격이라고 말한다. 마돈나는 조금전 1억을 날렸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낸다. 도일출이 왜 계속 반말을 하는지 따지려는 순간 마돈나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달려 나가 타고 가버린다. 도일출이 뒤따르려다가 계산대로 간다. 다음날 도일출이 하우스에서 게임도중에 출입문을 확인한다. 게임을 끝내고 귀가길에 "이상무"(마귀,윤제문역)의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다. 이상무가 자동차 문짝값을 이야기 하며 화를 낸다. 도일출이 문짝이 얼마냐고 따지는데 마돈나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만하라고 말하고 이상무가 잔소리

끝에 하우스로 들어간다. 도일출이 자전거를 확인하는데 바퀴가 휘어졌다. 도일출이 다시 하우스로 들어가 문짝이 얼마냐고 소리지르고 이상무가 천만원 정도라고 말한다. 도일출이 자기 자전거도 천만원이라고 말하고 이상무와 천만원빵 카드를 한다. 도일출이 국밥값 1만8천원까지 포함하자고 말한다. 이상무가 딜러는 마돈나, 빵은 10만원을 제안하고 게임이 시작된다. 도일출의 카드는 스페이스3장, 클로버1장인데 클로버를 버리고 베팅을 시작한다. 이상무가 도일출의 베팅금을 받고 액수를 올려 베팅을 한다. 도일출은 이상무가 빵카로 베팅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히든에서 스페이드 카드가 들어오자 올인을 한다. 이상무도 모두 베팅을 날린다. 도일출이 플러시라며 카드를 보여 준다. 이상무는 도일출의 패를 모두 읽었다고 말하며 3집을 보여준다. 도일출이 공지를 빌리고 칩을 받는다. 털보는 일출에게 공지를 하지 말고 그만하라고 충고하지만 게임을 계속한다. 마돈나 마저 도일출에게 게임을 중단하라고 충고하는데 도일출은 마돈나에게 왜 저 남자를 만나는지 되묻는다. 마돈나는 대답 대신에 왜 도박을 하는지 묻고 도일출은 결국 모든 돈을 탕진해 버린다.

“애꾸”(류승범역)가 휘파람을 불며 골목을 건다가 옥상에서 도일출이 공지에게 맞는 장면을 보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공지는 도일출 엄마 사진을 보여주며 찾아 가겠다고 협박하고 도일출은 엄마를 찾아가면 죽이겠다고 대응한다. 공지가 무엇 하나라도 잘라야 겠다면서 내려치려 하는데 애꾸가 나타나 노름꾼의 손을 자르면 어떻게 돈을 갚냐고 말하면서 도일출이 맞는지 묻는다. 애꾸가 공지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지 묻는다. 공지가 원금 4500에 이자까지 1억정도 된다고 말한다. 애꾸가 지금은 줄 돈이 없지만 자신이 대신 갚아 줄테니 풀어주고 지금부터 이자는 받지 말라고 말한다. 애꾸가 청량리 용팔이 애들인지 묻고 애꾸가 보증을 선다고 말한다. 도일출이 애꾸를 뒤쫓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데 애꾸는 자신은 타짜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말한다. 애꾸는 예전에 짝귀라고 부르는 도성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진짜 타짜였다고 말한다. 도일출이 도성길은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라고 말하고 애꾸는 일출은 모르는 것이 약이라면서 자신이 어릴 때 빚을 진 게 있었는데 갚은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애꾸가 경상도에는 짝귀, 전라도에는 아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도박꾼은 길에서 객사할 팔자라고 도박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도일출이 나가려다가 하우스 손님과 충돌하면서 칩이 쏟아진다. 손님은 일출을 보며 재수없다고 말하는데 애꾸는 일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을 하라고 충고한다. 도일출이 하우스를 찾는데 털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후다. 도일출이 애꾸를 찾아가 가르쳐 달라고 말하자 원피스를 입은 “준이 엄마”(김예은역)를 부른 후 지금 나가서 일출과 함께 한번 하고 오라고 말한다. 애꾸가 준이엄마는 아이와 가족이 있지만 도박에 빠지면 돈과 가족과 영혼까지 잃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일출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꾼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애꾸는 일출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고 말한다. 애꾸가 공지돈을 쓰는 놈은 았된다고 말하고 도일출은 그때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애꾸가 운도 재능이라고 말

하면서 기회는 단 한번뿐이라고 시험을 해 본다. 도일출이 룰렛게임에서 빨강에 베팅을 한다. 애꾸가 베팅은 크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져온 칩을 모두 빨강에 던진다. 룰렛 딜러가 공을 굴리는데 빨강에 공이 들어간다. 도일출의 한판승이다.

“까치”(이광수역)가 호텔에서 여자를 만나 그녀와의 탐닉을 즐긴다. “권원장”(권해효역)은 아내가 돈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는다. 기원 손님이 권원장을 부르고 권원장이 훈수비를 받고 대리 바둑을 두며 재떨이를 비우는 사이 바둑돌 하나를 몰래 옮긴뒤 자리를 비켜 준다. “윤영미”(임지연역)가 테이블에 술잔을 내려 놓고 상담을 하는 적 하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컵아래 붙어 있는 칩을 가슴에 은닉한다. 호텔방에 들어온 까치가 통화를 하고 잠시 후 노크소리가 들린다. 까치가 문을 여는 순간 덩치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꾼 “남편”(김희원역)이 방으로 들어와 까치에게 아이가 있는 여자라면서 돌려 보내라고 말한다. 한편 내기 바둑을 두던 남자가 노름꾼에게 패배한 후 돈을 건네고 바둑판을 엮는다. 노름꾼은 권원장에게 고맙다면서 돈을 건네는데 더 달라고 조른다. 노름꾼이 필리핀 아들에게 보내는 돈이 맞는지 궁금해한다. 사랑꾼 남편이 까치가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이 준 J카드를 주고 나가는데 권원장이 바둑판 밑에서 발견한 것도 J카드다. 애꾸가 도일출에게 원 아이드 잭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카드라면서 J카드를 건넨다. 윤영미가 애꾸와 일출에게로 와 대화를 하다가 다시 돌아가려는데 애꾸가 영미에게 컵 밑에 있는 칩을 챙긴후 하우스를 나간다. 당황한 영미가 두사람을 따라나가 남의 영업장에서 무슨 짓인지 고함을 친다. 애꾸는 칩을 훔치는게 일인지 묻고 영미는 지금 실직 당했다고 말한다. 애꾸는 남의 돈 먹는게 쉽지 않다면서 영미에게 J카드를 건넨다.

도일출과 권원장과 까치가 도착해 자기 일을 망쳤다면서 나오라고 말한다. 애꾸가 들어오자 권원장이 인사를 하고 까치는 방배동 애꾸라는 말을 듣고 놀라 쳐다본다. 윤영미가 이력서를 제출하러 왔다면서 창고안으로 들어온다. 애꾸가 밀작업이 끝난 호구가 사이즈가 커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후 각자 통성명을 한다. 권원장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소개하고 윤영미는 배우라고 소개하는데 까치가 영미를 보며 배우할 얼굴은 아니라고 말한다. 까치가 카드를 섞은 후 나눠 주면서 하트를 윤영미에게 주며 작업을 건다. 윤영미가 보여주겠다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다가 까치하고만 약속한 것이라면서 차에서 보여 주겠다고 말한다. 권원장이 윤영미가 차 키를 빼는 것 봤으니 그냥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다. 애꾸가 “물영감”(우현역)이 서천지역 자기 땅에서 온천이 터져 건물을 지은 졸부라고 말한다. 애꾸는 까치와 영미가 신혼부부 행세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영미는 일출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애꾸는 일출은 다른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물영감이 자존심이 강하고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까치는 영미와 함께 젊은사업가 부부 연기를 하며 까탈스럽게 동네 욕을 하며 물영감의 자존심을 해친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까치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잠시 나간 사이 영미는 물영감에게 흥미로운 일이 있는지 묻고 물영감은 카드치는

사람들과 판을 키운다. 까치는 3판을 연달아 치며 판돈을 1억까지 키운다. 다음날 까치와 영미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물영감 땅은 가치가 없다고 다른 땅을 구해 달라고 말한다. 까치가 중개업자에게 물영감이 도박에는 소질이 없다고 비웃자 중개업자가 까치의 말을 그대로 물영감에게 전하고 물영감은 분노한다. 애꾸는 권원장과 일출이 그때 등장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애꾸는 조기축구회 감독을 맡으며 물영감에게 믿음을 얻는다.

물영감이 권원장과 일출과 함께 이가기를 나눈다. 축구를 보는 “나사장”(류승범역)을 믿는다면서 젊은 부부를 확실하게 잡아 달라고 부탁한다. 물영감이 까치와 윤영미를 부른후 하우스판을 만든다. 물영감이 일출의 신호를 보면서 카드를 치고 돈을 거머쥔다.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며 권원장에게 공사비 1천만원을 건네고 보너스 봉투를 추가로 건넨다. 까치는 애꾸에게 공사비 받으려고 서천까지 갔는지 묻고 애꾸는 50억판을 만들거라고 말한다. 애꾸가 까치에게 물영감이 미끼를 물었다고 전화하고 까치는 물영감에게 전화해서 이대로는 앓된다고 크게 한판 하자고 말한다. 도일출이 까치로부터 카드 기술을 전수받는다. 연습은 하던 도일출의 실력이 일취월장한다. 애꾸는 도일출에게 도박판에서 상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게임이 시작되고 도일출이 베팅금을 올린 뒤 물영감이 이길 수 있게 코치한다. 까치가 돈을 잃은 후 일어나 화를 내며 시선을 돌린다. 도일출과 윤영미가 준비한 카드로 교체하고 기존 카드는 까치 뒤주머니에 은닉한다. 다시 카드를 돌리고 윤영미는 히든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까치는 1억을 베팅한다. 도일출이 카드를 엮으며 물영감에게 죽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물영감은 오히려 올인을 한다. 윤영미도 죽고 까치도 올인을 한다. 영감은 히든에 카드가 들어 왔다면서 23456, 스트레이트를 보여준다. 물영감은 까치가 죽을까 걱정했다면서 좋아 하는데 까치도 마지막에 카드가 들어 왔다면서 자신의 카드를 보여 준다. 까치도 물영감이 죽을까 고심했다고 말한다. 권원장은 물영감에게 왜 시키는대로 하지 않았는지 추궁하고 빠지겠다고 말하는데 물영감은 한번만 더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순간 물영감이 호텔 입구로 달려가 “마돈나”(최유화역)를 도일출에게 소개한다. 물영감은 권원장과 도일출과 룸에서 술을 마신다. 도일출이 물영감에게 마돈나가 누구인지 묻는다. 물영감은 서울과부인데 남편죽고 고향에서 정착한다고 도와주고 있다고 말한다. 까치와 윤영미가 방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내일이 디데이라고 말하지만 두사람의 호흡은 원만하지 않다. 도일출이 마돈나의 방을 찾아 마돈나의 남편이 죽었는지 묻는다. 마돈나가 원래 노름판에서 죽는다고 말하고 도일출은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말한다. 도일출은 물영감을 수술하러 온 것이라고 말하며 마돈나가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라고 말하는데 마돈나가 도일출에게 키스를 한다. 도일출과 마돈나는 깊은 밤을 보낸다.

다음날 물영감이 잠든 도일출을 깨운후 서천물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신혼부부와 나사장까지 다 잡아 오라고 명령한다. 모텔에 있던 까치가 윤영미의 방을 찾아 큰일 났다고 말하는데 권원장이 창문으로 나오라고 문자를 보낸다. 까치는 자신이 막고 있을테니 영미에게 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면 꼭 한번 달라고 말한다. "조철봉"(임현성역)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멈춰선다. 물영감은 새벽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신호를 지킨다고 때린다. 조철봉이 차를 출발하는 순간 애꾸가 물영감의 차를 들이 받는다. 애꾸는 도일출을 구출하고 서울로 돌아온다. 도일출이 권원장의 기원에서 정신을 차린다. 영미는 일출이 배신했다고 고함치고 권원장은 영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애꾸가 칼을 주면서 손목을 잘라라고 말하고 도일출은 손목을 자르면 용서가 되는지 묻는다. 애꾸가 오래전에 "마귀"(이상무,윤제문역)를 만났는데 잔인하고 침착하고 무서웠다고 기억한다. 마귀가 자신의 배신으로 짝귀를 죽였다고 말한다.

어린 애꾸가 마귀와 화투를 치면서 거짓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고 짝귀에게 연락을 한다. 짝귀가 돈가방을 들고 마귀를 찾아와 애꾸를 구하고 떨어져 죽는다. 애꾸가 배신자에게는 용서가 없고 평생 죄책감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애꾸가 도일출에게 복수하려면 지금하라고 말하고 도일출이 자리를 떠난다. 권원장이 애꾸에게 까치를 데리러 가자고 말하는데 애꾸는 혼자 가겠다고 말한다.

조철봉은 물영감에게 나사장이 애꾸라고 말하고 마돈나는 물영감에게 복수를 하든, 보상을 받든, 마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일출이 바닷가에서 카드를 한다. "마담"(이상희역)이 도일출 때문에 손님이 없다면서 가라고 말한다. 다음날 도일출이 남자와 카드로 돈을 따고 앉아 있는데 까치가 도일출을 찾는다. 도일출이 까치에게 복수하려 온 것인지 묻는다. 까치가 노름은 이제 명절에만 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애꾸가 죽었다고 말한다. 애꾸가 서천에 다시 왔는데 마돈나가 선수를 기용해 당했다고 말한다. 도일출이 그사람이 마귀인지 묻고 까치는 마귀가 국밥값 18000원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전한다. 도일출이 국밥값을 듣고 이상무가 마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일출이 권원장을 찾는데 권원장이 기원을 정리하고 떠나려 한다. 권원장은 지긋지긋한 인연이라면서 복수를 하면 후회만 남는다고 충고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린다.

마귀가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오는데 물영감이 도일출이 돈가방을 들고 찾아 왔다고 말한다. 마귀는 도일출이 마돈나를 찾아 올 것이라고 말하고 물영감은 자신이 판을 만들테니 50%를 달라고 합의한다. 마귀가 도일출을 만나 무엇을 걸 건지 묻는데 일출이 목을 건다. 물영감이 5미터 수조를 보여주며 드럼통을 밀어넣자 쇠사슬에 연결된 남자가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 물영감이 기술을 쓰면 바로 물에 박겠다고 협박한다. 마돈나가 도일출 방을 찾아와 마귀와 물영감을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돈만 가지고 도망가자고 말한다. 도일출이 두 번이나 속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믿느냐고 되묻자 마돈나는 돈만 믿으라고 말한다. 도일출이 마돈나에게 계획을 묻고 마돈나는 술잔에 약을 탈 것인데 마시지 말라고 귀뜸한다. 다음날, 도일출과 마귀와 물영감과 마돈나가 게임을 시작한다. 도일출이 J를 선택하고 카드를 섞어 돌린다. 4명이 각자 카드를 받고 한 장씩 카드를 버린다. 마귀는 스페이드A 카드를 버린다. 게임이 진행되고 도일출이 마귀에게 짝귀는 왜 죽인것인지 묻는다. 마귀는 짝귀가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자기 돈을 갖고 도망갔다고 말한다. 그 당시 마귀의 부하는 짝귀의 가방을 확인하는데 가방에는 백지만 가득히 있었다. 짝귀가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도일출은 그래서 자신에게 돈받으러 온 것인지 묻고 마귀가 이번에 따면 돈은 다 회수 할 것 같다고 말한다. 도일출이 술을 마신후 올인으로 베틀한다. 물영감은 포기하고 마귀도 올인으로 베틀하고 카 플러시를 자랑하며 한 수 위라고 자만한다. 도일출이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카드를 오픈한다. 마귀가 자신이 버린 스페이드A카드가 일출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의심한다. 마귀가 버렸던 카드를 확인하는데 다이아A다. 물영감은 도일출과 마돈나에게 열쇠를 건네고 부하들에게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한다.

하루전날, 마돈나가 도일출을 찾아 돈을 갖고 도망할 계획을 말한다. 그때 도일출이 마돈나는 예상대로라면 옆 룸의 불을 켜다. 룸에는 물영감과 부하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도일출은 백지가방을 들고 물영감을 찾아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도일출은 돈의 절반인 20억만 갖겠다고 제안한다. 도일출과 물영감과 마돈나가 힘을 모아 마귀를 상대하기로 미리 계획한 것이다. 도일출은 자신이 싸인을 보내면 그때 들어 가라고 말한다. 싸인은 짝귀이고 마귀가 짝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물영감이 바람을 넣는다. 도일출은 마귀가 버린 카드를 바꿀 것인데 마돈나가 찰나에 바꾸어야 목숨을 건질수 있다고 말한다. 도일출은 애꾸가 자신에게 해 준 이야기를 상기한다. 도박판에서 상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영감의 부하들은 마귀의 부하들을 막고 드럼통을 수조속에 빠뜨린다. 마귀는 난간을 겨우 붙잡고 발악을 한다.

마돈나가 20년전의 기억을 되새긴다. 마귀에게 잡혔던 어린 애꾸가 차에서 내릴 때 어린 마돈나(최명빈역)는 자기도 데려 가라고 애원한다. 애꾸는 마돈나에게 살려 달라고 말한다. 마돈나는 글라인더로 마귀를 물속에 빠뜨려 버린다. 마귀는 물속으로 가라 앉아 버리지만 마돈나는 돈을 챙기지 않고 떠난다. 돈을 챙긴 물영감이 도일출의 돈을 챙긴다. 물영감이 이동하면서 40억을 벌여 준 사람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길로 들어선다. 물영감이 돈을 투자한 것은 자신인데 도일출이 20억이나 가져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도일출이 이미 예상한 대로다. 조철봉이 칼을 뽑아 찌른 것은 도일출이 아니라 물영감이었다. 모든 것을 예상한 도일출의 시나리오대로다. 조철봉은 그동안 물영감을 보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칼을

멀리 던져 버리고 돈가방을 든채 떠난다. 한편 도일출은 도박판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하려 한다.

윤영미가 까치와 함께 산부인과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자동차에서 J카드와 돈가방을 발견한다. 권원장의 기원에도 J카드와 돈가방이 놓여져 있다. 도일출은 엄마의 식당을 찾는다. 도일출도 엄마에게 종이 봉투를 건네는데 그 속에는 돈이 아니라 공무원 합격통지서가 들어 있다. 엄마는 아버지가 유명한 도박꾼이었는데 남기고 간 유산이 있다고 말하면서 냉장고안에 들어 있는 돈다발을 보여 준다. 공무원이 된 도일출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문주사"(배유람역)는 도일출에게 돈 심부름을 시킨다. 문주사가 도일출에게 카드 할 줄 아는지 묻고 도일출은 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문주사가 같은 그림맞추기라고 말하며 안에 "계장"(최동훈역)도 있으니 인사하고 가라고 말한다. 도일출이 계장에게 인사를 하는데 계장에게 들어와서 함께 놀다 가라고 말한다. 도일출이 계장에게 괜찮겠냐고 묻고 계장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다. 도일출이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영화는 끝이 난다.

허영만의 인기만화 타짜가 3편까지 이어졌다. 서로 다른 감독들이 1편에서 3편까지 릴레이를 달리면서 수많은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 도일출의 삶도 복잡하다.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청년과 타짜가 어울리는가? 그리스도인은 화투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하는가? 명절날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스톱을 즐기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재미로 치는 것이었지만 복음을 든 기독교인과 화투의 조합이 어울리는지 묻고 싶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이럴땐 되고 저럴땐 안되는 것이 아니다. 타짜 도일출의 결론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민센터에 도달한다. 이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하는 보통의 삶일 것이다.

38. “나쁜녀석들:더 무비”THE BAD GUYS: REIGN OF CHAOS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9.09.11.

감독:손용호, 제작:CJ엔터테인먼트,영화사비단길,

주연:마동석,김상중,김아중,장기용,

관객:3,015,215명(2019.09.17.기준)

동방파 보스 “남명석”(공정환역)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던 “임춘호”(윤병희역)가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한다. “박웅철”(마동석역)이 교도소에서 재봉1자박기 연습을 하는데 한쪽에서 싸움판이 벌어진다. 박웅철이 교도관에게 무슨일인지 묻고 교도관은 살인하고 들어온 신입독종이라고 말한다. 박웅철이 “고유성”(장기용역)을 한방에 제압하고 싸움판을 정리한다. 교도소장이 박웅철에게 친구 남명석이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여 주면서 2일간 귀휴를 허가한다. 박웅철은 남명석이 마지막으로 면회와 한 이야기를 상기한다. 남명석은 박웅철이 있을 때 보다 일이 안된다고 말하고 어머니가 재봉기술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린 것이라고 어머니의 장갑을 선물로 받는다. 박웅철이 그때를 기억하며 남명석의 납골당에 장갑을 올려 놓고 “오구탁”(김상중역) 과장을 찾는다. 오구탁 과장은 암에 걸려 얼마 못산다고 중구파를 추적하는 “유미영”(강예원역)을 찾아 가라고 귀뜸한다.

교도소에서 호송차량이 출발한다. 유미영이 호송차량을 통제하며 이동한다. 박웅철이 유미영에게 전화해 아버지일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박웅철이 유미영과 약속하는 사이 호송차량의 기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유미영이 주유소로 코스 변경을 지시한다. “곽노순”(김아중역)이 주유소 화장실에서 휴대폰 유심과 수표를 버린다. 경찰이 곽노순을 종용하자 제시카라고 불러라면서 다시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자고 떼를 쓴다. 호송차와 곽노순을 태운 SUV가 출발하는데 도로 반대편 대형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경찰차와 호송차를 들이받고 폭발한다. “김창민”(박상욱역)이 일어나 교도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빼내 수갑을 풀고 창문밖으로 나와 도망한다. 곽노순도 수갑을 풀고 도주하고 정신을 차린 유미영이 전화를 하는 사이 괴한들이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 버스로 향한다. 유미영은 죄수들을 체포해 수갑을 다시 채운다. “복면남자”(해골문신,김실장,이재윤역)가 호송버스안으로 들어가 “노상식”(조영진역)을 찾아 같이 가자고 말하는데 “고유성”(장기용역)이 복면남자를 공격한다. 복면남자가 다시 고유성을 넘어 뜨린후 노상식과 함께 도주한다. 고유성이 경찰차 무전기로 구조를 요청한다. 유미영이 복면남자와 격돌하고 수갑을 채우려는데 수갑이 없다. 복면남자가 다시 유미영을 공격하고 고유성이 달려와 복면남자를 공격한다. 고유성이 복면남자의 복면을 벗기려는데 목에서 해골문신을 발견한다. 복면남자가 다시 도망하고 추적하던 고유성이 자동차에 부딪혀 기절한다. 병원에서 깨어난 고유성은 범인이 심장마비로 죽는 꿈을 꾸다. 박웅철과 오구탁이 유미영의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는다. 박웅철이 부상당한 유미영을 바라보며 오구탁에게 몸관리를 부탁한다. 박웅철이 중구파 아지트를 찾아가 부하들을 일거에 제압하고 두목을 찾는다. 중구파 부하가 노상식이 부하인데 지금은 감옥에 있다고 말한다. 동방파는 얼마전 중구파와 통일을 달성했다. 오구탁 과장은 중구파 사무실을 찾아 박웅철이 여기에 있을 거라 짐작했다고 말하며 단기간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염려한다. 곽노순은 병원에서 가운으로 갈아 입은후 119구급차로 도망하면서 남자에게 여권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다.

경찰청 "엄정한"(김형묵역)차장실에 "조동철"(박원상역)과장이 들어와 탈주범 가운데 몇놈은 잡았고 노상식, 박성태, 김창민, 곽노순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탈주사건에 노상식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엄정한 차장이 경찰 여섯명이 죽었다면서 당장 나가 탈주범을 검거하라고 지시한다. 조동철이 차장실 입구에서 특수범죄수사과 오구탁 과장과 마주치지만 오구탁은 외면한채 차장실로 들어간다. 엄정한 차장이 중구파 노상식이 심미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기업가로 탈바꿈했다고 말한다. 얼마전 노상식이 신변위협을 느끼고 유미영에게 안전담보조건으로 증언을 약속했다고 말한다. 노상식은 바지사장이고 그것을 증명할 장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2차 살해시도가 있었고 호송중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말한다. 오구탁 과장은 경찰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말하고 엄정한 차장은 오구탁에게 총과 배지를 주면서 복귀해 모두 일망타진해 달라고 부탁한다. 오구탁 과장은 미친개를 다시 풀자고 말한다.

조동철 수사과장은 "남영규"(지승현역)와 술잔을 기울인다. 조동철 과장은 특수범죄수사과가 1년넘게 끌던 사건을 3주만에 해결했는데 오구탁, 유미영, 박웅철, "정태수"(조동혁역)의 역할분담이 해결했다고 말한다. 고유성과 오구탁이 유미영의 병실에 함께 있다. 오구탁은 고유성에게 감옥에 간 이유를 묻는다. 고유성은 범인 체포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실치사로 5년형을 받았다고 말한다. 오구탁은 고유성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고유성이 경찰대 수석졸업인데도 출세에 무관심하다고 말한다. 오구탁이 특수범죄수사과는 윗사람 눈치 앎본다면서 우리팀에 합류하면 5년을 감형하겠다고 말한다. 고유성은 놈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말한다. 박웅철이 성당으로 들어와 오구탁을 만난다. 오구탁이 고유성을 소개하고 박웅철은 고유성에게 제대로 하라고 말한다. 정태수는 이제 보통사람의 삶을 선택하며 사건에서 빠진다. 오구탁이 호송버스에서 탈출한 죄수를 설명한다. "박성태"(박형수역)는 연쇄살인범으로 2007년 검거된후 사형선고받고 복역, 김창민은 절도, 특수강도죄로 15년형 복역중 2009년 부산교도소 탈옥후 907일만에 체포되었으나 다시 탈옥했다고 말한다. 오구탁은 노상식의 사진을 붙이는데 박웅철이 노상식은 자기 몫이라고 말한다. 박웅철은 중구파가 단기간내에 전국을 접수한 것이 수상하다고 말한다. 곽노순은 도박사이트 개설해 노름꾼들의 돈에 빨대를 꽂은 여자라고 설명하는데 박웅철이 제시카라고 부르며 알박기하는 "윤철주"(박효준역)의 친

구라고 부연한다.

오구탁과 박웅철과 고유성은 곽노순을 잡기 위해 윤철주를 찾는다. 박웅철이 옛말에 아는 친구에게는 잘 챙겨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가게로 들어간다. 윤철주가 식당주인에게 물수건을 납품받기로 약속하고 안지키는 이유를 묻는다. 주인은 물수건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윤철주는 물수건의 냄새를 맡은 뒤 자신은 서울을 25일 만에 접수한 박웅철이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모두 쫓아낸다. 윤철주가 한쪽에서 식사중인 남자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데 박웅철이 고개를 돌리자 윤철주가 당황한다. 윤철주의 부하가 위협하려 하자 윤철주는 자신의 친구 윤철주라면서 막아 선다. 박웅철이 윤철주 부하의 손을 꺾으며 손님들이 먹고 간 음식값을 모두 계산하고 청소까지 하라고 말한다. 윤철주가 대문을 잠근채 창고 자물쇠를 채운뒤 떨고 있다. 박웅철이 철문을 한방에 밀고 들어와 달려드는 윤철주를 한방에 기절시킨다. 박웅철이 박스뒤쪽에 윤철주를 앉히고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한다. 제시카(곽노순)가 매장에서 갈아입을 옷을 고르는데 윤철주가 제시카를 부른다. 제시카는 자신의 여권을 가져왔는지 묻는다. 제시카가 여권을 받으며 식은땀을 흘리는 윤철주를 보며 경찰에 자신을 팔았는지 묻고 윤철주는 이해를 구한다. 오구탁과 박웅철이 나타나 곽노순을 부른다. 곽노순이 윤철주를 인질로 위협하지만 실패하고 자수를 하겠다고 말한다.

등산을 마친 사람들이 별장에 함께 있다. "김실장"(해골문신,이재윤역)과 "임춘호"(윤병희역)가 인사를 하고 여자들을 보내 접대를 한다. "요시하라"(김인우역)가 거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지켜본다. 곽노순은 성당에 잡혀 고함을 지르며 소란스럽게 한다. 박웅철이 너무 시끄러워 곽노순을 풀어주고 조용히 있으라고 경고한다. 곽노순이 자켓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앉아 있는데 고유성이 노상식의 꼬리를 잡았다고 성당안으로 들어 온다. 고유성이 오구탁에게 철원으로 가는 사진을 보여 주며 노상식과 김창민이 함께 다닌다고 말한다. 곽노순은 김창민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곽노순이 카라멜 마끼아또가 먹고 싶다고 느스레를 뜬다. 곽노순이 전국지도에 907일동안 도망한 위치를 표시하고 설명한다. 곽노순은 김창민이 강원도에 지인이 없어서 한번도 간 적이 없다면서 철원은 거짓말이라고 확신한다. 곽노순은 2009년 경찰이 개포동 하수구를 추적할 때 김창민이 전북 익산까지 도망한 사실을 밝히며 김창민을 잡으려면 이성적 접근보다 인문학적, 감상적 접근과 여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웅철은 곽노순의 사기라고 의심하지만 오구탁은 용의점이 있다고 전자팔찌 착용후 사건 자료를 공유한다. 오구탁은 곽노순이 잔챙이를 잡으면 3년, 대가리를 잡으면 5년감형이라고 말하고 곽노순은 대가리를 잡겠다고 공언한다. 곽노순이 피해자들의 사건기록에서 언니의 기록을 보고 찢어 버린다. 곽노순은 지도에 사진을 부착한후 공통점이 제로라고 말하고 김창민이 의적으로 불렸지만 의적도 도둑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오구탁은 엄정한 차장에게 빈집털이 관련자

료를 요청하고 엄정한 차장은 곽노순은 적당하게 사용하고 폐기하라고 말한다. 사건기록이 도착하자 빈집과 담이 있는 집을 중심으로 기록을 찾는다. 곽노순이 김창민은 한 지역을 두 번 털지 않는다고 조건에 맞는 집의 위치를 표시하며 이동경로를 줄로 연결시킨다. 곽노순은 "최선미"(전익령역)가 있는 곳에 김창민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오구탁과 일행이 최선미를 찾는다. 곽노순은 최선미가 도시락을 들고 나오자 자신의 언니도 당했다고 김창민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당하고 죽인 사람이 15명이라고 말한다. 최선미가 김창민의 은닉처를 찾아 도시락을 건네며 경찰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시락을 먹다가 도망을 한다. 골목에서 기다리던 오구탁과 고유성이 김창민을 부른다. 김창민이 반대방향으로 도주하다가 박웅철이 김창민을 잡는다. 최선미가 다가가 염려하자 김창민은 최선미를 인질로 위협한다. 김창민의 비겁한 행동을 사전에 감지한 곽노순의 신호에 따라 최선미가 스프레이를 꺼내 눈에 뿌리고 빠져 나온다. 박웅철이 김창민을 때려 기절시키는데 조동철과 남영규가 갑자기 나타나 김창민을 데려가 버린다. 수사중 가슴통증을 느낀 오구탁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 고유성이 박웅철이 연락두절되었다고 보고하자 오구탁이 전자팔찌로 찾아라고 말한 뒤 수십건의 살인사건을 맡았던 경찰이었으니 나름대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박웅철은 임춘호를 지켜 본다. 임춘호는 부하들과 술을 마신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바람에 부하들이 뒤쫓아가지 못한다. 박웅철이 술에 취해 잠이든 임춘호를 깨우며 중구파 진짜 두목이 누구인지 묻는다. 깜짝놀란 임춘호는 한번도 눈으로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박웅철이 아지트를 묻고 임춘호가 인천이라고 말하며 도망하는데 임춘호의 부하들이 나타나지만 박웅철의 한방에 다 나가 떨어진다.

고유성과 곽노순이 박웅철의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와 팀웍을 강조하며 김창식이 체포된 경찰서를 찾는다. 고유성이 조사실에서 남영규를 때리고 내보낸다. 고유성이 조사실 유리창을 보며 조동철에게 어제 일은 통치자고 말하고 오구탁이 다시 애들 건드리면 머리통을 깬다고 전해 달라는 말을 한다. 고유성이 김창민에게 노상식의 위치를 묻는다. 곽노순이 들어와 김창식에게 대답하지 말라며 때린다. 김창식은 터미널로 도망한 놈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찍힌 것이라고 말한다. 고유성이 터미널 CC-TV영상을 다시 돌려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노상식을 발견한다.

박성태가 순찰중인 경찰에게 여자를 찾는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는 경찰을 죽여버린다. 노상식은 박성태에게 그만 찢어 지자고 말한다. 박성태가 경찰차 무전기로 신원조회를 한다. 고유성과 박웅철과 곽노순이 "한미정"(한정현역)을 찾아가 위험하다고 말한다. 한미정이 박성태를 체포하지 못하자 신고한 것을 후회한다. 고유성이 엄정한 차장의 전화를 받고 찾는다. 엄정한 차장은 어제밤에 박성태가 경찰 2명을 죽

었다고 말한다. 고유성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대하여 도로의 거울에 비친 노상식의 모습을 확인한다. 곽노순은 고유성에게 한미정이 뒷문으로 나가 일하러 갔다고 전화를 한다. 노상식이 다방에서 킁으로 장부를 받는다. 한미정이 노래방에 도착해 주인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박성태를 보며 주저 앉는다. 박성태가 한미정에게 보고싶었다면서 때리고 한미정은 차라리 죽이라고 말한다. 박웅철과 고유성과 곽노순이 한미정의 노래방에 도착하고 고유성이 계단을 올라가다 내려오는 노상식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한다. 곽노순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데 주인이 쓰러져 있고 한미정의 비명소리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는다. 곽노순이 전화를 하고 박웅철이 해머를 들고 나타나 문을 박살낸다. 박웅철이 박성태를 때려 쓰러뜨리고 죽이고 싶지만 죽일수 없으니 앞으로는 누워서만 살아라고 허리를 강하게 안아 부숴 버린다. 곽노순은 한미정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고유성은 건물 난간에 서 있는 노상식을 붙잡는다.

고유성, 박웅철, 곽노순이 성당에 모여 노상식을 심문한다. 박웅철은 노상식은 자기 것이라고 표적을 둔다. 박웅철이 노상식에게 남명석을 죽인 이유를 묻는다. 노상식이 중구파의 보스는 일본 야쿠자의 "요시하라"(김인우역)라면서 5년전 중구파를 만들었을 때 요시하라가 찾아 왔다고 말한다. 노상식은 요시하라가 제약회사를 인수하였고 노숙자와 행불자를 이용해 인체실험을 했다고 말한다. 노상식이 어느 편인지 묻는데 고유성은 유미영과 같은 편이라고 말한다. 노상식은 동네 노래방까지 약이 들어 갔을 것이라면서 장부를 꺼내 보여준다. 순간 엄정한 차장이 경찰특공대와 함께 성당을 찾아 사건을 접수하려 한다. 엄정한 차장은 씹던 껌도 단물빠지면 버리는 것이라면서 김실장이 노상식을 데려 가려고 온다. 고유성이 김실장의 목에 있는 해골문신을 보고 호송버스를 공격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고유성이 요시하라가 사건을 만들고 범인을 잡게 하고 우리를 이용해 오구탁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 묻는다. 엄정한 차장은 오구탁이 간암말기로 죽기 일보직전인데 함께 죽으니 외롭지 않겠다고 말한다. 엄정한 차장의 부하들이 세명을 기둥에 포박하고 성당에 불을 지른다. 곽노순이 애를 쓰고 박웅철이 힘으로 밧줄을 끊어 버린 후 쓰러진 고유성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으로 구조를 한다. 오구탁도 병원으로 자신을 죽이려 온 놈을 공격한 후 자동차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 온다. 오구탁은 엄정한 차장의 부하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자동차로 밀어 버린다. 한편, 조동철과 남영규가 현장에 도착해 엄정한 차장의 부하들을 체포한다. 박웅철은 오구탁에게 돌아 다녀도 되는지 묻고 조동철은 박웅철의 말대로 문제될 곳이 한군데 있었다고 말한다.

얼마전 고유성이 조사실로 들어 갔을 때 박웅철은 조동철을 만나 인천 조폭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조동철은 왜 자기에게 부탁하는지 묻고 박웅철은 명품없는 것 보면 뒷돈 얹받고 승진않되는 것 보면 상급자에게 아부 얹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박웅철은 조동철이 보여준 지도에서 약공장을 찾는다. 오구탁이 조동철에게

함께 할 것인지 묻는데 조동철은 영장도 없고 병력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오구탁, 고유성, 박웅철과 곽노순이 인천으로 향한다. 인천창고에서 엄정한 차장이 요시하라에게 장부를 건넨다. 요시하라는 손에 연장을 착용하고 노상식을 때린다. 요시하라는 여기는 테스트시장이고 약이 본격 생산되면 대륙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구탁이 자료를 보며 문열다가 끝날 것 같다고 말하자 박웅철이 그래서 발이 빠른 "도깨비발"(강영목역)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도깨비발이 중국집 배달부로 변장해 약공장에 도착하여 철가방을 보여주고 안심시킨 뒤 통제실로 들어가 안에 있던 놈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문을 열어 준다. 해골문신이 엄정한 차장의 부하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요시하라에게 보고한다. 박웅철이 창고안으로 들어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파괴한다. 박웅철이 막아선 놈들을 족판매야 라고 말하며 공격한다. 요시하라가 엄정한 차장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고 엄차장의 일로 꾸미려 한다. 김실장이 모니터를 보며 오구탁 일행이 들어 온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한 명을 잡아 오면 10억씩 주겠다고 약속한다. 요시하라의 부하들이 총공격한다. 오구탁과 고유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박웅철은 도깨비발에게 길을 열라고 말하며 임춘호를 찾는다. 오구탁과 고유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부하들이 몰려온다. 오구탁이 총을 쏘면서 진입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줄까지 끊어 버린다. 박웅철은 임춘호를 쓰러 뜨리고 비상구를 통해 위층으로 향한다. 김실장이 요시하라에게 위에서 움직이기로 했으니 본국으로 가라고 말한다. 오구탁과 고유성이 부하들을 제거하자 해골문신이 두명을 동시에 공격한다. 요시하라가 옥상으로 도망하는 사이 해골문신은 오구탁을 쓰러뜨리고 고유성과 격돌한다. 박웅철이 비상계단으로 올라와 해골문신과 다투려 하자 고유성이 자신이 하겠다면서 요시하라를 잡으라고 말한다. 도깨비발과 곽노순은 1층에 집결한 부하들과 격돌하다가 곽노순이 칼을 맞고 쓰러진다. 고유성이 해골문신과 격돌하다가 넘어진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공격한다. 해골문신이 고유성을 공격하는데 고유성이 엘리베이터로 밀어 추락시켜 버린다. 박웅철은 요시하라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고 요시하라의 손을 꺾으며 한 대는 유미영 뒤통으로, 또 한 대는 남명석의 뒤통으로 한방씩 날린다.

오구탁이 일어나 남차장에게로 간다. 엄정한 차장은 오구탁이 간이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말한다. 오구탁은 국민세금으로 나쁜짓하면 앓된다고 엄정한 차장을 때린다. 도깨비발은 놈들을 제압하고 곽노순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곽노순이 그냥 일어나 주위를 보고 잘 되었다고 말한다. 조동철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인천창고에 도착한다. 창고문이 열리고 박웅철과 곽노순, 오구탁과 고유성이 유유히 걸어 나온다. 오구탁은 병원에 입원한다. 고유성은 장부를 건네며 장부에 적힌 이름을 보면 놀랄 것이라고 말한다. 곽노순은 간이식 기부자도 나타났으니 이식수술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엔딩후 쿠키영상, 곽노순은 교도소에서 커피를 마신다. 교도관들이 강의실에서 곽노

순의 비트코인 강의를 듣고 돈을 이체한다. 고유성은 교도소에서 재봉틀 일자박기 연습을 하고 박웅철은 남명석의 납골당에 술을 넣고 장갑을 챙긴다. 남영규가 전화를 받고 박웅철에게 미친개를 다시 풀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마동석의 파워를 느끼는 신나는 영화다. 악질경찰과 돈먹는 경찰은 득세하고 진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무엇인가 뒤틀린 우리 사회의 정의관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영화 나쁜녀석들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 정의를 힘으로 장악할 수는 없다. 오직 믿음과 사랑, 정의와 공평함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견인하도록 공의의 빛을 발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가 더욱더 필요하다.

39. “커런트 워”The Current War, 2017

미국영화, 장르:역사,드라마, 개봉:2019.08.22.

감독:알폰소 고메즈 레존(Alfonso Gomez-Rejon),

제작:티무르 베크맘베토브(Timur Bekmambetov) 외,

주연: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토머스 에디슨역),

톰 홀랜드(Tom Holland,사무엘 인설역),니콜라스 홀트(Nicholas Hoult,니콜라 테슬라역),마이클 샐런(Michael Shannon,조지 웨스팅하우스역),

조연:캐서린 워터스톤(Katherine Waterston,마가렛 웨스팅하우스역),매튜 맥퍼딘(Matthew MacFadyen,JP모건역),튜펜스 미들턴(Tuppence Middleton,메리 에디슨역),

코너 맥닐(Conor MacNeill,윌리엄 케플러역)

관객:210,869명(2019.09.18.기준)

쇼맨십의 천재, “토머스 에디슨”(베네딕트컴버배치역)은 1,093개의 특허를 등록하고 GE의 설립자인 동시에 최고의 발명가다. 협상의 천재, “사무엘 인설”(톰홀랜드역)은 대규모 발전소를 건립하고 65개의 계열사를 설립한 창조적 기업가다. 비즈니스의 천재, “조지 웨스팅하우스”(마이클샐런역)는 철도 브레이크를 발명하고 현대 전기 보급망의 시초가 되었다. 상상력의 천재, “니콜라 테슬라”(니콜라스홀트역)는 무선통신 기술과 라디오와 레이더를 최초로 발명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상한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며 테슬라 역사의 산증인이다. “커런트 워”(The Current War)는 “전류전쟁”으로 1880년대 후반 전기표준송전방식을 두고 직류의 에디슨과 교류의 테슬라 두 천재가 벌이는 역사적 경쟁을 말한다.

1880년, 세상은 오랫동안 등불과 횃불을 사용하고 있었고 기계는 손과 발과 증기의 힘으로 동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철도 에어 브레이크를 발명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조명과 천연가스산업에 투자하였다. 재력이 부족한 에디슨은 차세대 에너지인 전기산업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두사람은 현대세계를 새롭게 변화할 중요한 발화점이 되었다. 뉴저지, 멘로파크에 증기기관차가 멈추어 선다. 승객들이 기차에서 내려 놀라운 빛의 장소로 향한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등에 불을 켜고 사람들에게 백지수표를 가지고 왔는지 되묻고 있다. 한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는 “마가렛 웨스팅하우스”(캐서린워터스톤역)가 에어브레이크에서 얻은 수익을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설명회를 하고 있다. 어떤 남자가 “조지 웨스팅하우스”(마이클샐런역)에게 전기가 가스보다 값이 매우 저렴한데 걱정되지 않는지 물어보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프랭크에게 에디슨이 수개월내에 세상을 밝히려 한다고 말하지만 프랭크는 훌륭한 기술이지만 상용화는 10년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조지는 에디슨을 만나려 하는데 프랭크는 수년을 알고 있지만 사교행사는 물론 신발끈 묶는 것도 귀찮아 하

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조지는 마가렛에게 에디슨이 밤을 없애버리겠다고 한 말을 이야기한다.

워싱턴DC.백악관, 토머스 에디슨이 가족과 함께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난다. "사무엘 인설"(툼홀랜드역)이 에디슨에게 웨스팅하우스와 저녁약속이 있다고 말한다. 사무엘이 "JP.모건"(매튜맥퍼딘역)이 시스템의 실용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백악관에 도착한 에디슨이 모건과 인사를 하고 대통령을 만난다. 대통령은 축음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감탄해 한다. 모건은 에디슨에게 500만달러 투자를 거절한 이유를 묻는다. 에디슨은 무기연구를 반대하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장비를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맨하탄 1지구 1제곱마일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전구는 무취, 무독성, 13시간 수명으로 가스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발전기 6대를 설치할 건물 2채가 필요하고 전선을 매설해 에너지와 난방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모건을 막대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50만달러의 투자를 제안한다. 에디슨 가족이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사무엘이 회사명을 에디슨전기로 하겠다고 말한다.

조지는 닷과 대시의 선물을 준비하며 에디슨의 기사를 읽는다. 만찬준비를 한 조지와 마가렛이 역으로 출발한다. 사무엘은 에디슨에게 웨스팅하우스와 저녁만찬 약속이 있다고 알리는데 에디슨은 오늘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 피곤하다고 정차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사무엘이 기관사에게 알리러 가고 기차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 역에서 프랭크와 함께 에디슨을 기다리던 조지는 허탈한 마음으로 귀가를 한다. 조지는 에디슨이 어떻게 일하는지 묻는다. 프랭크는 에디슨이 자신만의 현실을 구상하고 건조실에서 바늘을 찾는다고 말한다. 프랭크는 에디슨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작 돈에는 무관심하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집에서 축음기의 저항실험을 하고 있는데 모건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50만달러 투자를 원하면 셔먼 장군에게 팔 군수품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관심을 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걸 물어 본다. 에디슨이 미국지도를 만든뒤 아이들에게 뉴욕을 밝혀줄 이벤트를 준비한다. 에디슨이 기대하는 원대한 꿈의 출발점이다.

1882년9월4일,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사무엘은 성공을 기대하고 에디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에디슨이 추하게 넘어질거라면 군중앞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오늘밤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카운트다운을 하자 뉴욕건물에 불을 밝힌다. 조지는 콤파스로 거리를 측정하며 지도에 표시를 한다. 조지는 에디슨이 전선 10만피트를 깔고 고객 87명을 유치하고도 수익이 없다고 말한다. 조지는 지멘스 발전기와 골라드, 깁스 변압기 특허로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하는데 프랭크는 말이 변압기지 철가방 수준이라고 말한다. 조지는 에디슨의 전류는 묶여있는 호스로 발전기를 마일당 1대씩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프랭크는 교류시스템에 전동기를 쓰기

는 너무 싸다고 말한다. 조지는 교류 발전기 1대로 공급가능한 거리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프랭크는 몇천 마일로 모두 커버된다고 말한다. 프랭크가 전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조지는 하이럼이 특허를 빌려 주었다고 말하는데 프랭크는 밝기부터 차이가 나서 상대가 양된다고 말한다. 조지는 작은 마을을 시범적으로 에디슨 앞에서 시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조지는 긍정적이지만 프랭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교류가 맞으면 에디슨이 먼저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니콜라 테슬라”(니콜라스홀트역)가 에디슨연구소를 찾는다. 에디슨은 자신과 일하고 싶은지 묻고 테슬라는 그렇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12개 도시까지 직류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테슬라는 교류가 효율적이고 전압도 높으며 거리도 길고 전선도 덜 들어 매우 유용하다고 교류로 제안한다. 에디슨은 교류는 위험하고 전동기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테슬라의 급여를 100달러로 하고 자신이 풀지 못한 숙제 다섯개를 풀면 5만달러를 주겠지만 해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입사를 환영한다. “메리 에디슨”(튜펜스 미들턴역)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은 발명가, 자신은 직원으로 결혼식날 저녁 나이아가라폭포에서 한주를 보냈다고 말한다. 메리가 연구실의 에디슨을 찾는다. 메리는 아이들과 함께 코니 아일랜드에서 산책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에디슨은 내일 세 번 하겠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아빠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에디슨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음날 메리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다. 왕진 의사가 눈의 피로로 신경통이 온 것이라면서 안경을 맞출 것을 권한다. 에디슨이 두통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의사가 시력 적응기까지 진통제를 주겠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왕진비를 천천히 주어도 괜찮은지 묻고 의사는 아들에게 줄 사인 한 장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조지의 공장에 교류발전기가 배달된다. 조기와 마가렛, 프랭크가 장비를 확인한다. 프랭크는 조잡하다고 여기고, 마가렛은 가격, 조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말한다. 조지는 에디슨의 전기는 1마일 이상 가기 어렵고 점점 약해져 마을 하나 밝히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전동기와 전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류 발전기는 1대로 멀리까지 보낼수 있고 전신주에 전선만 달면 75%저렴하다고 말한다.

1886년3월6일, 메사추세츠 그레이트 배링턴 교류시연회장,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 직원들이 마을에 전신주를 설치하고 마가렛이 스위치를 올린다. 교류 1마일 전송을 성공한 그레이트 배링턴으로 에디슨을 초대한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가 전구를 구한 방법을 묻고 직원은 하이럼의 전구를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에디슨은 하이럼이 자신의 전구를 훔친 것이라고 분노한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에게 소송구실을 찾아라고 말하자 사무엘은 에디슨에게 베링턴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15년 연구를 도둑질 당했다면서 자신은 시스템을 만들지만 조지는 특허를 사서 합법적으로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디슨이 전구가 없으면 발전기라도 소송을 걸라고 말한다. 사무엘이 조지는 교류를 사용한다고 말하자 에디슨이 놀란다. 어떤 사람이 웨스팅하우스를 찾아와 에디슨이 1마일당 발전기를 한 대씩 구입하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러던 중 신문에서 웨스팅하우스 전기가 에디슨 전기보다 66%저렴했다고 말한다. 다른 고객은 콜럼버스도 웨스팅하우스 전기를 선택한다. 조지는 특허가 목적이고 전구는 에디슨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한다. 프랭크는 에디슨이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연구소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은 실패라고 재봉틀 1대도 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테슬라는 전류를 정류자로 변환하지 않고 2개 이상의 활성화 회로에 교류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직류발전기를 이용할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한다. 테슬라는 에디슨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하며 직류는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되지만 미국 미개발지에는 고압전류가 있어야만 장거리로 보낼수 있다고 말한다. 테슬라는 교류기술을 완성시켜 효율적인 전동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에디슨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테슬라가 5만달러 보수는 없던 것인지 묻는데 에디슨은 농담이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간다. 에디슨은 기자들에게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하고 테슬라는 에디슨을 바라보며 에디슨을 떠난다. 기자들이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의 기술을 도용한 것인지 묻고 에디슨은 맞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직류는 만져도 되지만 교류는 만지면 죽는다고 위험성을 경고한다. 에디슨은 정부에서 무기개발에 자신의 연구성과를 이용하려 하지만 자신은 사람을 해치는것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웨스팅하우스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에디슨의 기자회견에 교류전기에 대한 위험성이 신문에 실리지만 조지는 반박하지 않고 우리 시스템의 우월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한다. 마가렛이 조지의 시계를 바라보며 웨스팅하우스 전기는 9시15분에 설립되었다고 말한다.

노스타코다, 뉴올리언스, 포트워스, 수시티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교류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모건이 에디슨에게 웨스팅하우스에서 코크스크류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에디슨이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웨스팅하우스 전기에서 모건은 초대형소송이라고 코크스크류 외 다른 방식을 찾는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다른 방식을 찾았고 조명 뿐만 아니라 전동기 장비까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웨스팅하우스를 찾은 남자는 조명에 관심이 없고 가스에 관심을 가지며 생산성을 말한다. 에디슨은 이미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말하며 이해를 하지 못한다. 시애틀 공장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재봉틀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실험하는데 전동기에서 불꽃이 튀며 스위치를 내린다. 프랭크의 말대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

1887년, 뉴욕에서 니콜라스 테슬라는 건물 사이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전기선을 바라본다. 랜이 회사명을 니콜라스 테슬라 전기 조명회사라고 말한다. "워맥"(사이먼 쿤즈역)은 테슬라에게 아크등 생산일자를 묻는다. 테슬라는 백열전구와 전동기, 배전까지 만들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워맥은 그것은 에디슨에게 주라고 말한다. 테슬라는 에디슨을 능가할 방식을 연구중이라고 반박하고 워맥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묻는다. 테슬라가 연구소와 엔지니어, 장비와 경비가 있으면 수년내에 가능하다고 말하자 워맥이 경비가 필요하면 특허를 자신에게 매각하라고 말한다. 워맥은 주식을 댓가로 지급하고 리스크의 66%를 자신들이 갖겠다고 말한다.

메리는 뇌출혈진단을 받는다. 에디슨은 뇌종양이 퍼져 시력을 상실하고 언어도 상실하며 운동신경까지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의사에게 얼마전 안경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되묻는데 의사는 모든 것은 알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한다. 에디슨은 오늘 저녁, 뉴욕에 꼭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의사가 에디슨이 없는 동안 자신이 옆에 있을테니 되도록 빨리 돌아 오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수첩을 넘기며 그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 JP모건이 오하이오, 콜럼버스, 제인즈빌도 웨스팅하우스로 가기로 했다고 말하자 에디슨은 갈테면 가라고 반박한다. 모건은 교류가 대세는 아닌지 염려한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가 기계판매를 잘한다 해도 결국 인명피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기계라고 말하지만 모건은 그래서 누가 죽었는지 되묻는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가 지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지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에디슨은 전화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직접와서 말하는지 묻고 모건은 자신의 성격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모건에게 자신은 기적을 만들테니 자금이나 잘 지원하라고 말하는데 모건이 쪽지를 건네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에디슨은 아내 메리의 장례식을 치르며 축음기에 녹음된 아내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듣는다.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시카고가 선정된다. 사무엘은 에디슨에게 제안서를 읽었는지 묻는다. 에디슨은 박람회 조명을 설치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사무엘은 전국민의 3분의 1이 빛의 도시인 시카고로 관광을 온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1년후면 철거하는 광고판이라고 말하고 사무엘은 3천만명이 본 후에 철거하는 것이라고 웨스팅하우스도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변호사에게 모자가 맘에 든다고 말하고 변호사는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가 인정되었다면서 그쪽 전기가 살인전기라는 증거를 보여주는건 어떤지 묻는데 에디슨이 고민을 한다. 에디슨이 사무엘에게 우리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사무엘은 도살당할 말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 에디슨이 3천볼트면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죽는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말에게 웨스팅하우스가 사용하는 전기와 동일한 전기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리자 그대로 죽어 버린다. 사형위원회의 사우스윅 브라운이 노스이트스에는 교수형이 있는데 자신이 추천하면 뉴욕 주지사가 전기처형장치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

하며 자기들과 계약을 하자고 말한다. 에디슨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다고 말하고 사우스윅은 인간을 인간답게 돌려 보내는 최초의 기회라고 변호한다.

테슬라의 사무실에서 워맥은 테슬라에게 아크등을 만들지 않기로 한 것이 사실인지 묻는데 테슬라는 아크등은 이미 완료했다고 말한다. 워맥은 브로드웨이 한 곳에 설치한 것 뿐이라면서 테슬라의 임무는 아크등 설계라고 말한다. 테슬라는 랜이 교류 전동기 연구에 동의했다고 말하는데 워맥의 아들 랜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한다. 워맥이 랜을 밖으로 보낸후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전력공급사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며 에디슨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워맥은 테슬라를 공상이라고 몰아 붙이고 테슬라 같은 사람이 널려 있다고 말한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직류도 교류도 아니고 돈이라고 말한다. 테슬라가 특허는 테슬라 전기소유라고 물건을 챙기려 하자 워맥이 이제는 유니온 전기고 이곳의 특허와 설계와 엔지니어는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테슬라에게 공상만 챙겨 떠나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축음기에 녹음된 메리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메리가 언젠가 나이가 가라폭포에 가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사무엘에게 웨스팅하우스가 도시를 하나씩 먹고 있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고양이와 개와 양과 말 열한마리가 죽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말하는데 사무엘은 교류로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다. 사무엘이 에디슨에게 축음기를 시장에 내놓고 돈을 벌자고 말하자 에디슨이 개선점이 아직 많다고 말한다. 사무엘이 벨이 먼저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에디슨은 그래퍼 폰 이름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무엘이 50만달러를 주면서 축음기 발표를 종용한다. 1890년,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표한다. 에디슨은 속기사없이 녹음을 기록하고 맹인들을 위한 음성도서, 음악복사, 말하는 장난감, 시간을 말하는 시계, 언어의 보존, 웅변교육, 가족의 유언을 담을수 있다고 말한다.

프랭크는 조지에게 에디슨이 전국을 순회하며 고양이를 죽인다고 말한다. 프랭크는 에디슨이 추잡하게 나오고 있으니 조지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조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회초리로 맞았는데 한 대 맞고 세 조각이 나 벽에 걸린 가죽끈을 보고 더 좋은 회초리가 있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그만 두었다고 말한다. 조지는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어슬픈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프랭크는 이번 시카고 박람회에 전동기를 꼭 전시하겠다고 말한다. 조지는 귀가하고 프랭크는 남아서 작업을 계속한다. 프랭크가 전선을 분리하고 순서대로 테이블에 내려 놓는데 전선이 꼬이면서 위치가 변경되고 이것을 간과한 프랭크가 책상에 놓여진 순서대로 전선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리는데 공장의 불이 모두 나가 버린다. 다음날 에디슨은 프랭클린 레오나드 포프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조지와 마가렛이 프랭크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추도사를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자 마가렛이 대신 읽는다. 에디슨은 피할 수 있는 사고라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업계에 있는 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분노한다. 모건은 조지에게 애도를 표하며 두 회사를 합병하여 소동을 수습하자고 제안한다. 조지는 회사의 가치를 500만달러로 보는지 묻는데 모건은 기업의 가치는 최고 가격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조지는 800명이 생계를 잃는다고 말하고 모건은 고용은 승계하지만 주5일 근무는 불허한다고 조건을 건다. 또한 에디슨이 선택하는 전류를 쓰는 조건이 추가된다. 마가렛은 조지에게 앓된다고 말하지만 조지는 회사가 파산직전이라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조지는 언제나 에디슨과 동업을 원했다면서 이제 기회가 온 것이고 우리에게는 전동기마저 없어서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마가렛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남편사전에 없는 말이라지만 조지는 웨스팅하우스전기는 해체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지는 매각대금으로 손해를 만회하고 에디슨의 실수는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가렛은 조지가 에디슨의 선장이 아니고 돈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마가렛은 사람들이 조지를 오해해도 상관없는지 묻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조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조지가 다시 고민에 빠진다.

다음날, 조지는 기자회견에서 프랭크의 죽음은 애통하고 충격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다. 조지는 에디슨은 사기꾼이라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한다고 몰아 붙인다. 조지는 자신의 시스템이 더 좋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전기는 잘 이겨 낼 것이라고 말한다. 모건은 에디슨에게 웨스팅하우스가 합병을 거절했다고 전화한다. 사우스윅은 에디슨을 찾아와 버팔로에서 사형수의 첫 전기사형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전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다. 사우스윅은 웨스팅하우스의 이름을 전면에서 내세우겠다고 제안하며 전기의자를 박람회 전시할 계획까지 밝힌다. 에디슨은 자문역에 자기 이름을 빼고 살인전기라는 광고만 해달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자문에 응하면서 자신이 보낸 편지는 모두 소각할 것을 요구한다. 사우스윅은 전기의자에 사용할 고정식 의자를 구입한다. 에디슨은 고정식 엔진과 3000볼트를 생산할 교류발전기, 머리 지지대가 있는 나무의자, 구속 띠와 조절식 전극이라고 말한다. 사우스윅은 에디슨의 답신을 받고 전기의자를 만들면서 에디슨의 편지를 소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서랍에 보관한다. 이로서 사우스윅은 에디슨의 조언에 따라 전기의자를 완성한다. 전압계, 전류계, 전류조절배전반은 감시를 위해 처형실에 설치하고 발전실과 전기신호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 장치단가는 3600달러로 웨스팅하우스 전기에 대한 강조점은 방식의 잔인함과 전류와 접촉시 살이 탈수 있으나 위험전류의 범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편지는 반드시 소각할 것이다. 이것이 에디슨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부크 코크란”(데미언 몰로니역)이 조지에게 처형장치건은 평판이 좋다고 말하는데 조지는 에디슨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크는 자신의 지인 가운데

에디슨과 전기의자의 관계를 확인해 줄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조지는 수정헌법 8 조로 전기의자를 막자고 말하면서 에디슨의 실체를 밝히는게 재판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조지 또한 이 재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부탁한다. 에디슨이 재판에서 참고인 증인으로 소환된다. 법정에서 부크는 사우스윅에게 전기의자형이 인도적인 이유를 묻는다. 사우스윅은 전류속도가 빨라 뇌가 순간적으로 마비되고 신경이 충격을 전달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크는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사우스윅은 런던 동물원에서 온 고릴라로 실험을 했다고 말하는데 부크가 사우스윅과 관련된 전기회사가 있는지 묻는다. 사우스윅은 없다고 말한다. 정부측 변호인은 에디슨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호사가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을 묻는다. 에디슨이 직류는 관을 통과하는 물과 비슷하고 교류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하는데 변호사가 물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에디슨이 익사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말한다. 변호사는 에디슨에게 웨스팅하우스의 전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에디슨은 위험한 전류라고 말한다. 부크는 웨스팅하우스의 전류가 "윌리엄 케믈러"(코너맥닐역)의 사형집행에 5~6분정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부크가 1500볼트면 열기를 느낄 때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에디슨은 온도상승 수준은 평상시보다 4~5도 이고 계속 올라가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부크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지 묻는데 에디슨은 1000파운드의 말을 전기로 도살해 보아 잘 안다고 말한다. 부크는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관계를 묻는데 에디슨은 싫어하지는 않지만 경쟁자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다. 에디슨이 전문가적인 견해로 유일한 인도적 사형방식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에디슨의 증언을 조지가 법정뒤에서 듣고 있다. 재판이 끝나고 에디슨이 법정을 나서자 아이들이 에디슨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다가온다. 윌리엄 케믈러를 데리고 나오던 경찰도 에디슨에게 사인을 부탁한다. 조지와 함께 걸던 부크가 에디슨을 보며 명성은 늘 정의를 이긴다고 말한다. 조지는 부크와 식사를 하면서 오래전의 일을 기억한다. 부크는 둘 다 증언대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부크가 정의를 위해서 때로 규칙을 벗어날때도 있다고 말한다. 조지는 앞자리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남자가 일어나 돈봉투를 건넨다.

1891년, 에디슨은 딸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다. 에디슨이 조지의 전화를 받는다. 조지가 에디슨이 사우스윅에게 보낸 편지를 보며 이야기하자 에디슨이 어디서 구한 것인지 묻는다. 조지가 에디슨의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겠다고 하자 에디슨이 도난당한 편지라며 사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조지는 에디슨에게 다시한번 웨스팅하우스를 거명하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기의자 배후에 에디슨이 있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에디슨이 사우스윅에게 편지를 태우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 에디슨의 편지라서 태우지 못했다고 엉뚱한 변명을 하며 역사에 남을 의자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사형에 몇볼트가 필요한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사우스윅은 에디슨이

1500볼트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한다. 에디슨이 추정만 한 것일뿐이라고 체내 수분이 증발하면 불에 탈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사우스윅이 볼트를 낮추겠다고 말하자 에디슨이 그렇게 하면 천천히 굽는 것이라면서 지금하는 짓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사우스윅은 에디슨의 전문적인 소견과 자문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사무엘이 에디슨의 통화내용을 듣고 에디슨에게 사람죽이는 물건은 많만든다고 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에디슨은 불가능한 물건을 만들면 훔쳐가고 전류는 나머지 것들과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변명한다. 에디슨은 미래로 향하는 길은 벽돌이 아니라 전선으로 자동화, 수송, 통신, 전류를 장악하는 사람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무엘은 웨스팅하우스가 옳고 교류사고 몇건으로 없어질 것도 아니라면서 오직 에디슨의 경쟁심때문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려는 것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무엘은 그 사람을 12톤 열차로 밀어버린 결과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브레이크는 그 사람이 독점한다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전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분노한다. 사무엘은 에디슨이 백열등 발명가가 아닌데도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소금과 곡물과 열과 정성이 들어가는 빵에도 한 사람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말한다. 사무엘은 에디슨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이대로 가면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라 사기꾼 쇼맨십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안타까워 한다.

1891년 5월20일, 콜롬비아대학, 니콜라 테슬라는 연구실적이 훌륭하고 이해가 높은 사람으로 소개받고 자신이 설계한 교류전동기에 대해 설명한다. 테슬라는 교류시스템만 있으면 에디슨의 3분의1 단가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다. 테슬라가 가설 시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상상속에서 완성했고 완벽하다고 말한다.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가 발표한 교류 전동기 기사를 보고 찾아 간다. 테슬라는 조지의 에어 브레이크에 대해 엔진이 공기를 압축해 탱크로 보내면 파이프를 이동하여 각 객차를 제동해서 동시에 정지하게 만드는 영리한 설계라고 말한다. 테슬라는 조지에게 학창시절부터 구상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용한 발전기 설계도를 보여 준다. 테슬라는 에디슨과 일했는데 하루만에 직류발전기 2대를 고쳤는데도 칭찬만 할 뿐 대우를 하지 않아 독립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다. 테슬라는 그동안 도랑파는 일을 하며 일당 2달러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조지가 회사를 묻자 에디슨 전기였다고 말한다. 테슬라는 에디슨이 먼저 성공을 하면 다시는 따라갈 수 없다면서 박람회에도 교류를 사용하고 자신의 전동기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시카고는 빛의 도시라는 상징성이 있고 나이아가라 발전소는 미래산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항변한다. 테슬라는 에너지는 식량과 물과 공기처럼 필수자원이지 돈있는 자들의 점유물이 아니라 동부해안을 밝힐 시설로 대박상품이라고 말한다. 테슬라는 조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묻는데 조지는 알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은 테슬라의 전동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지는 테슬라와 합의가 안되면 웨스팅하우스 회사는 이 방에서 끝이고 합의가 성사되면 나이아가라의 꿈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테슬라는 처음

에 5천달러를, 다음엔 1천달러를 요구하는데 조지는 1마력당 2.5달러씩 해서 수백만달러를 제안한다. 테슬라가 델모니코에서 저녁을 대접하려 하는데 호텔 주인이 숙박비가 한달이나 밀렸다면 나가라고 말한다. 그때 조지가 테슬라의 1년간 숙박요금을 묻는다.

1892년 시카고, 에디슨은 모건에게 시카고 박람회 설치할 25미터 1만6천개의 전구에 달하는 타워설계도를 보여 준다. 모건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 니콜라 테슬라가 누구인지 묻는다. 모건은 테슬라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발표하고 웨스팅하우스에게 전동기를 만들어 준다고 말하면서 웨스팅하우스도 조명과 동력 모두 가능하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테슬라의 실제 작동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모건은 오늘 아침기사에 9개 도시가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였다고 말한다. 모건은 에디슨 전기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이고 에디슨과는 끝이라고 말하며 에디슨은 주식을 받고 한발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회사명은 에디슨전기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모건은 에디슨 편지가 유출되어 신용이 떨어져 새로운 상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소개하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리자 사무엘 인설이 따라 나가는데 모건이 인설에게 대화를 주문한다. 에디슨이 방으로 돌아간 후 사무엘이 에디슨의 방을 찾는다. 사무엘은 모건의 의견을 제안한다. 사무엘은 회사명은 그대로 하는 대신 합병반대를 언론에 흘리지 않는 조건이다. 사무엘은 부사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자 에디슨이 수락하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사무엘에게 교류 송전 전압을 묻자 사무엘은 23만볼트라고 답한다. 1만2천시간 램프 필라멘트 원료가 무엇인지 묻는 에디슨에게 사무엘은 대나무 숯이라고 말한다.

조지와 마가렛이 시카고 세계박람회 입찰 대기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마가렛이 에디슨 전기의 사람들이 안보인다고 말하는데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무엘 인설이 가방을 들고 들어 온다. 마가렛이 사무엘을 보고 12세 아이같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사무엘에게 빛의 질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의 전기를 복제한 것이고 실외전구의 수명이 2시간밖에 되지 않아 교체주기를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디슨에겐 경쟁상대가 없다는 우월성을 강조하라고 다시한번 말한다. 에디슨은 사무엘에게 표준, 순수한, 아름다운 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말하며 위원의 성향파악을 빨리 하라고 말한다. 위원들은 실용적인 척 하면서 몽상가인 모험의 부류가 있고, 웃으면서 칭찬하지만 지갑을 보고 투표하는 2개의 부류가 있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사무엘에게 병렬과 전기회로를 암기하도록 설명을 잘 하라고 말한다. 사무엘 인설은 전구와 제안서를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본격적인 설명을 한다. 사무엘은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면 2,800만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웨스팅하우스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해서 가로등 기둥에만 기대어도 사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위원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전기가 치명적

위험이 있음을 알아 듣는다. 사무엘은 200밀리암페어 이상의 전류는 어떤 전기든 위험하다고 말한다. 위원들이 사무엘 회사의 전기는 어떤지 묻는다.

웨스팅하우스의 조지는 한시간내로 설명을 마쳐 달라는 위원들 앞에서 입찰액을 위원들에게 보여 준다. 위원들이 총액을 확인하고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해야 할 이유를 묻는다. 조지는 우리의 시스템이 우월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말한후 시간을 내어 주어 고맙다고 말하며 돌아선다. 위원들은 웨스팅하우스는 위험하고 교류는 버팔로에서 사형에 사용할 전기라고 말한다. 다른 위원은 둘다 조명을 밝힐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웨스팅하우스를 사용하면 비용절감, 에디슨을 사용하면 홍보효과를 말하며 오늘밤 낙찰자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연구실에서 돌아가는 장비의 날개를 관찰하는 동안 조지와 테슬라는 당구를 치고 있다. 조지는 테슬라의 수첩이 미래로 향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테슬라는 조지와 에디슨은 시스템과 전동기와 전등에만 집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전선은 꼭 필요한 것인지 묻는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조지와 마가렛은 전화를 받고 매우 기뻐한다. 에디슨의 아들 대쉬가 연구소로 들어온다. 에디슨은 축음기와 비슷한데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에디슨이 손잡이를 돌리자 딸 닷이 줄넘기 하는 사진이 빠르게 넘어가며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시효과가 있다. 에디슨은 전구가 쫓힌 지도를 바닥에 내리고 대쉬가 망치로 전구를 부숴 버린다.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 웨스팅하우스의 전구가 시카고 박람회장에 달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장에 입장한다. 사형집행장에서 윌리엄 케플러가 전기의자에 앉는다. 윌리엄은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사우스윅은 오늘부터 더 발전된 문명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뒤 스위치를 올린다. 한편, 시카고 박람회장 스위치가 올라가고 웨스팅하우스의 전구에 불이 밝혀진다. 사람들은 불빛을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 사무엘이 사형집행 기사를 읽고 있다. 에디슨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레스토랑 손님들에게 곧 전기등이 사용되고 이런 사건은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이 자신의 아이디어는 인생을 열두번 되살아도 다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박람회와 나이가가라폭 포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 가라고 말한다. 사무엘은 웨스팅하우스보다 에디슨과 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조지가 박람회장을 돌아 보던중 에디슨이 다가 온다. 조지는 에디슨에게 박람회 관람은 했는지 묻고 에디슨은 마이브리지 강좌와 이집트를 관람했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율타리 이야기를 한다. 옆집에서 율타리를 세우면 갑자기 하나가 둘이 되고 우리 집에도 율타리가 생긴다고 말한다. 문제는 우리 집에서 율타리를 설계하고 만들고 돈까지 투자했지만 다른 집은 공짜로 율타리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조지가 에디슨의 아이디어를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관람중인 아이가 에디슨에게 사인을 부탁한다. 조지는 에디슨에게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한다.

에디슨은 13시간 전구의 재료가 알고 싶은 것인지 묻는데 조지는 재료는 이미 알고 있고 성공의 순간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 뿐이라고 말한다. 에디슨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수 년 동안 필라멘트 1만종을 실험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라 생각하고 했는데 달랐다고 말한다. 그때까지 최고기록이 10분이었지만 이번 전구는 20분을 넘었고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났을 때 직원들은 함성을 지르고, 7시간, 8시간, 10시간이 되자 모든 직원들은 침묵했다고 말한다. 전구곁에 앉아 마법에 취한 듯 낮을 잃고 바라보다 13시간 30분 경과 후 금이가고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이제 획기적인 것을 연구하여 자신이 전구를 연구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잊혀질 정도의 연구를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조지는 에디슨에게 그것을 이미 찾았는지 묻는다. 조지가 울타리의 해결책은 울타리 비용을 나누거나 울타리를 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 에디슨의 정원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테슬라는 박람회에 우리가 있었음을 후세에 전할 기념물을 만든다고 말한다. 진정한 유산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말한다. 세월이 흐른 후 에디슨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풍경을 촬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상을 감상한다.

쿠키영상, 니콜라 테슬라와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발전소를 나이아가라 폭포에 건설하였다. 그러나 탁월한 재능을 갖고도 수익을 내지 못한 테슬라는 빛더미에 시달리다 뉴욕호텔 3327호실에서 홀로 사망했다. 1911년, 미국 전기공학 협회는 웨스팅하우스에게 상을 수여 했으며 그 상은 에디슨 메달이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죽기전 개인서류 일체를 소각하였고 자신의 행동으로만 기억되길 원했다. 에디슨은 전류전쟁에서 패한 후 활동사진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영화산업을 창조하였다. 에디슨이 사망한 날 그를 기리기 위해 미국전역은 1분간 소등을 하였다.

영화는 끝이 났다. 20세기 최고의 발명가 에디슨, 대규모 발전소를 건립한 사무엘, 현대전기 보급망의 시초를 놓은 웨스팅하우스, 상상력과 비운의 천재 테슬라 등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동시대를 창조해 간 커런트 워는 분명 미국을 넘어 전세계를 강타한 최고의 발명작이다. 그들의 발자취를 오늘에 그대로 살펴본 영화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에디슨은 자신이 믿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여 1,093개의 특허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인은 이보다 더 큰 신념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되 매순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이루어 가는 그리스도인 다운 신념이 에디슨 보다 더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출 것이다.

40. "신의 한 수:귀수편" The Divine Move 2: The Wrathful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9.11.07.

감독:리건, 제작:메이스엔터테인먼트,아지트필름,

주연:권상우,김희원,김성균,허성태,우도환,정인겸,원현준

관객:2,118,769명(2019.11.26.기준)

* 바둑용어정리

- ① 세사기일국(世事棋一局) : 세상사는 한 판의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 ② 대국(對局) : 바둑을 두는 행위
- ③ 기보(棋譜) :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 ④ 사활(死活) :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돌과 돌이 살고 죽는 싸움을 총칭하는 단어
- ⑤ 착수(着手) : 바둑판에 바둑돌을 번갈아 한 수 씩 두는 일
- ⑥ 초읽기 : 규정된 제한시간을 다 소비하기전에 계시원이 해당의 대국자에게 1회 착수시한을 숫자로 읽어 주는 것
- ⑦ 포석(布石) :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을 차지하는데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벌여 놓는 일
- ⑧ 단수(單手) : 한 수만 더 두면 상대의 돌을 따내게 되는 상태
- ⑨ 축(逐) : 상대의 돌을 계속 단수가 되도록 몰아가는 수법
- ⑩ 패착(敗着) :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결정적인 악수
- ⑪ 집 : 자기 차지가 된 바둑판의 반자리를 세는 단위
- ⑫ 계가(計家) : 바둑을 다 둔 뒤에 집 수를 헤아림
- ⑬ 복기(復棋) :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 두었던 그대로 처음부터 놓아 보는 일

1988년, 소년 "귀수"(아역,박상훈역)가 일을 하며 치통을 앓고 있다. 황덕용 바둑교실에서 아이들이 빵을 먹으며 바둑을 두는데 소년 귀수가 훈수를 하자 짜증을 낸다. "수연"(신수연역)이 "황덕용"(정인겸역)의 방을 청소하고 돈을 받는다. 황덕용이 수연에게 바둑을 배우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청소뎀가로 수강료를 무료로 해 주겠다고 말한다. 수연의 동생 귀수가 누나를 찾다가 2층 베란다 깨진 창문틈으로 황덕용을 보며 놀란다. 소년 귀수가 황덕용을 찾아가 한판 바둑을 제안하고 두사람은 바둑을 둔다. 황덕용이 소년 귀수를 재촉하고 소년 귀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돌을 멈춘다. 황덕용이 죽음 앞에서는 미련을 두지 말라며 재주가 없으니 장래희망에 바둑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다. 소년 귀수가 눈물을 흘리며 귀가를 한다. 잠을 이루지 못한 귀수가 일어나 누나의 지갑을 훔쳐 기차역 매표소앞에서 여기에서 가장 먼곳으로 표를 끊어 달라고 말한다.

1. 첫수 : 상변과 하변

소년 귀수가 기차에 올라 상경을 하지만 서울 건달들이 귀수를 붙잡고 폭력을 휘두른 후 지폐를 빼앗고 동전과 지갑을 던져준다. 소년 귀수가 88기원에 들어가 백원을 놓으며 바둑 한판승을 제안한다. 한명씩 기원을 제압한 귀수에 모두가 감탄을 쏟아 놓는다. 기원 한쪽켠에서 "허일도"(김성균역)가 바둑을 두고 있다. 귀수가 국수를 먹고 있는데 허일도가 귀수옆에 앉아 닭똥집과 꼼장어를 시켜 놓고 서울에서는 등돌리면 사기꾼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면서 잘 곳은 있는지 물어 본다. 소년 귀수는 100원을 꺼내 던져 숫자가 나오면 아저씨를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허일도가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것이라고 돌아서는데 귀수가 운은 안 믿는다면서 허일도를 뒤따른다. 소년 귀수와 함께 산에 도착한 허일도는 내기 바둑에서 한번도 지지 않은 고수 "남자"(김정팔역)를 소개한다. 허일도가 막걸리 한병을 들고 소년 귀수와 함께 산속 암자에서 고사를 지낸 후 바둑 한판이 끝날 때 마다 돌을 쌓으라고 말한다. 귀수를 알아본 허일도는 혹독한 훈련에 돌입한다. 바둑문제를 보여주고 5초만에 암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허일도는 스피드있는 바둑을 가르치고 귀수가 쌓아 올린 돌탑은 하늘위로 올라간다. 소년 귀수를 창고에 가둔 허일도는 머릿속으로 바둑들 두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면 종을 치라고 말한다. 혹독한 훈련에 지친 귀수가 종을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며 누나와 지낸 지난날을 기억하며 슬피 운다. 다음날 허일도는 소년 귀수와 한판승에서 패하고 드디어 하산을 한다. 소년 귀수의 손에는 피가 흐르고 나무벽에는 피로 그려진 바둑판 격자가 있다.

허일도와 소년 귀수가 한팀으로 내기 바둑을 둔다. 소년 귀수가 허일도에게 훈수를 두고 허일도는 제일정밀 사장을 단번에 이긴다. 사장이 허일도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허일도는 돈뭉치를 주며 다시 게임을 이긴다. 소년 귀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 돈을 돌려 주자고 말하는데 허일도는 자신과 귀수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귀수에게 계산기가 되라고 말한다. 귀수가 허일도를 따라 가다가 어린 "외톨이"(박민수역)와 눈이 마주치는데 제일정밀 사장이 몸이 기름을 뿌리고 자살을 한다. 혼자 남은 외톨이 아버를 부르며 울부 짖는다. 한편, 허일도가 "부산잡초"(허성태역)를 찾는다. 허일도가 양주를 건네는데 부산잡초가 금주를 선언한다. 부산잡초가 허일도와 바둑에서 패하자 판돈을 두배로 올린다. 부산잡초가 허일도의 의수를 노려 보자 모니터를 보던 소년 귀수가 부산잡초를 바라보며 당황한다. 부산잡초가 허일도의 관상을 보며 남은 손목도 날아갈 것이라고 말하자 허일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갈고리눈"(홍기준역)에게 눈을 고치지 않으면 단명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허일도가 골목에서 소년 귀수의 뒤통을 건넨다. 무슨일이 생기면 관철동에서 죽지않는 똥같은 돌을 찾으라고 말한다. 순간, 골목에서 갈고리눈이 허일도를 찾는데 허일도가 소년 귀수에게 도망쳐라고 소리친다.

2. 사활 : 삶과 죽음

부산잡초는 어린싹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도끼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소년 귀수를 위협한다. 소년 귀수는 빌딩숲을 헤치며 도망을 하지만 허일도는 갈고리 눈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세월이 흐른 후, "귀수"(권상우역)가 암자에서 단련을 하며 바둑을 둔다. 고수가 겨울날에 입으라고 옷을 건네며,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마음만 내려 놓으면 그곳이 놀이터가 된다고 위로를 한다.

"홍마담"(유선역)이 가게손님을 돌면서 바둑을 둔다. "똥선생"(김희원역)이 홍마담 가게에서 "살모사"(김선동역)와 "능구렁이"(김윤구역)의 내기 바둑을 주선한다. 귀수가 똥선생을 찾아와 쓸모없지만 죽지 않는 똥같은 돌을 찾는다고 말하자 똥선생이 여기저기서 똥타령이라며 짜증을 낸다. 귀수가 허일도의 의수를 테이블위에 내려 놓는다. 똥선생이 귀수의 실력을 보겠다면서 인천 내기바둑 고수를 찾아 도장깨기를 한다. 귀수가 지역의 고수들을 하나씩 누르자 똥선생이 홍마담에게 소원을 묻는 전화를 한다. 바닷가에서 똥선생이 내기바둑에서 이긴 돈을 나누고 있다. 귀수는 똥선생에게 언제부터 허일도를 알았는지 묻고 똥선생은 귀수에게 사회생활을 해본적이 있는지 되묻는다. 똥선생은 인생이 바둑이라고 말하고 귀수는 탄돈을 모두 가져 가라고 말하며 황덕용의 기사를 보여준다. 귀수가 장성에 들렀다가 부산에 가자고 말하며 일어선다. 장성에 도착한 똥선생과 귀수가 장성무당집을 찾는다. "장성무당"(원현준역)이 안쪽에서 작두 날을 갈고 있다. 귀수가 점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장성무당은 귀수는 점이 필요없다고 손을 찾으러 왔으면 가져 가라고 말한다. 장성무당이 똥선생을 보며 쓸모없는 놈인데 명은 길다고 말한다. 장성무당이 작두를 설치하고 진 놈은 알아서 자르자고 말한다.

3. 현혹수

귀수는 장성무당의 바둑돌이 흑백이 아니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나의 지갑을 테이블위에 올리자 장성무당이 재수없다고 말한다. 대국은 시작되고 귀수가 바둑돌을 내려 놓자 장성무당이 집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길을 잃는 순간 죽을 것을 경고한다. 젊은 시절 허일도가 장성무당과 바둑을 두면서 점을 보고 처가 죽은 것을 이야기 한다. 장성무당이 딸이 잘 지내는지 묻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 동생의 자식을 낳았다고 말한다. 허일도가 외동이라고 말하자 장성무당이 그렇다고 동생을 죽일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당황한 허일도가 고개를 드는 순간 장성무당이 고개를 들면 길을 잃는다고 말한다. 허일도가 귀수에게 귀를 막고 고개를 들면 안된다고 경고했었다. 황덕용이 수연에게 동생의 장례이야기를 하자고 옆에 앉으라고 말한다. 장성무당은 그날이 아니었으면 수연의 남은 인생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소

년 귀수는 아픈 이를 스스로 뽑으려고 한다, 황덕용과 바둑을 두던 소년 귀수가 누나의 옷 단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둑을 멈추고 눈물을 흘린다. 귀가한 소년 귀수가 누나에게 이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는데 약을 먹으라고 말하고는 그날 밤 수연은 자살을 한다. 장성무당은 귀수에게 누나를 죽인 악마를 죽이면 너의 운명도 끝이라고 말하는데 귀수가 고개를 들어 장성무당을 바라본다. 장성무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면 길을 잃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귀수는 짧은 인연인데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바둑을 둔다. 장성무당은 귀수가 신이 되려다 괴물이 될 운명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작두에 손을 넣는다. 고수가 암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찾아온다. "외톨이"(우도환역)가 고수에게 손목이 하나 없는 아저씨를 찾는다고 말하는데 고수가 없다고 하자 침으로 고수를 찌른다. 외톨이가 되 문자 고수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하고 외톨이가 옆에 있던 친구는 어디있는지 다시 문자 고수는 떠났다고 말한다.

4. 축

외톨이는 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면서 스스로 만든 장난감을 설치한다. 외톨이는 고수와 바둑을 두면서 죽은 돌을 통에 담는다. 죽은 돌이 쌓이면서 한쪽으로 기울어 뜨거운 기름이 흐르고 고수가 고통속에 쓰러진다. 똥선생이 부산잡초의 사무실을 찾는다. 똥선생은 동갑인 부산잡초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과일바구니를 내려 놓는다. 부산잡초는 똥선생이 찾아온 이유를 묻는다. 똥선생은 기력이 1급에 조금 못미치고 판당 백이라고 말하며 부산잡초가 이기면 조금 떼달라고 이야기한다. 부산잡초가 내기 바둑을 제안한다. 똥선생이 귀수에게 부산잡초는 룰이 없고 부산잡초가 지면 판돈은 따따블로 올라간다고 말한다. 귀수는 계속 이기면 된다고 말하고 귀가길에서 귀수는 골목에서 갈고리눈을 발견한다. 귀수가 갈고리눈에게 다가가 눈흥터를 안고치면 단명한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갈고리눈에게 기억안나는지 문자 갈고리눈이 칼로 공격하고 귀수가 갈고리눈을 공격하며 박살을 낸다. 귀수의 공격에 물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겨우 도망을 한다.

5. 초 읽기 : 빠르게 더 빠르게

부산잡초와 귀수가 바둑을 두는데 귀수가 이기자 판돈을 두배로 올린다. 연이어 패배한 부산잡초가 건물을 담보로 제한시간 5분게임을 제안한다. 귀수가 부산잡초에게 한점 또는 두점을 먼저 깔아도 된다고 말하자 부산잡초가 걱정하지 말라고 응수하며 게임을 시작한다. 대국에서 패한 부산잡초가 건물문서를 넘기자 똥선생이 돈뭉치를 부산잡초에게 넘기며 대국을 마무리 한다. 부산잡초가 돈을 칼로 찌르며 복수를 결심한다. 순간, "수희"(주서은역)가 사무실로 담배를 갖고 찾아와 짜증을 내는데 부산잡초가 수희를 판돈으로 걸고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종료 5초전, 부산

잡초가 바둑돌을 내려 놓고 귀수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말한다. 게임을 중단한 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똥선생도 뒤따라 나선다. 그날밤 귀수를 찾은 부산잡초가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라고 말한다. 귀수가 부산잡초에게 목숨을 걸려면 몇 점을 깔 것인지 묻자 고민하던 부산잡초가 석점을 깔겠다고 말한다. 귀수와 부산잡초가 기차길 철길위에서 바둑을 둔다. 부산잡초가 석점이면 신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귀수는 신의 계획은 다를 것이라고 응수한다. 부산잡초는 빛이 없는 터널에서도 살아 남는게 잡초라고 말하고 게임은 귀수의 승리로 끝난다. 귀수가 패배를 인정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선택을 종용한다. 순간, 기차가 지나가고 부산잡초가 기차를 피해 난간에 매달린다. 부산잡초가 귀수에게 살려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하고 귀수가 부산잡초의 머리채를 끌어 올려 구명한다. 귀수와 똥선생이 식당에서 황덕용9단과 20인의 바둑기사와 다면기 바둑을 두는 TV를 본다. 갈고리눈이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발견한 귀수가 똥선생의 스카프에 바둑돌을 넣고 기다린다. 갈고리 눈의 부하들이 화장실에서 귀수를 공격하지만 귀수가 그들을 한방에 날려 버리고 마지막 갈고리 눈까지 싹쓸이 한 다음 똥선생과 자리를 떠난다. 한편, 홍마담이 가게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똥선생이 홍마담 생일을 축하하며 케익을 들고 나타난다. 똥선생이 신의 한수가 있다면 홍마담에게 두겠다고 말한다. 똥선생과 홍마담이 소원 들어주기 내기 바둑을 둔다. 황덕용 출판기념회에 부산잡초가 과일바구니를 들고 축하 인사를 한다. 부산잡초가 황덕용에게 인승샷을 찍으려 하자 "황선희"(스테파니 리)가 막아서서 진행요원을 부른다. 황선희가 과일 바구니를 돌려 주며 가져가라고 말한다. 행사후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황선희를 부산잡초가 납치를 한다. 황덕용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이 귀수가 대기실을 찾아와 축하인사를 한다. 귀수는 황덕용이 나중에 자신을 찾아 오라고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기억하는지 묻지만 황덕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귀수가 창문뒀고 받은 돈, 책상뒀고 받은 돈, 바닥뒀고 받은 돈이라면서 머리위에 부어 버린다. 귀수가 황덕용의 딸 황선희가 이쁘게 잘 자랐다고 말하는데 순간 황덕용의 폰으로 황선희가 포박되어 있는 사진이 도착한다. 부산잡초가 황덕용에게 전화를 하고 폰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고 귀수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친다. 귀수가 황덕용에게 목숨을 건 단판승부에 거부하면 딸은 죽는다고 경고한다. 황덕용이 귀수 백명이 와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자 귀수가 룰을 바꾸고 황덕용같은 기사 백명과 바둑을 두고 한놈도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딸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똥선생이 방안에서 홍마담을 생각하다가 화장실을 가려는데 외톨이가 나타나 침으로 공격한다. 외톨이가 똥선생을 공장으로 끌고가 용광로 위에 묶고 위협을 한다. 똥선생이 외톨이의 수하가 되겠다고 말하는데 귀수가 똥선생이 잡힌 곳을 찾는다. 외톨이가 이제는 자신의 복수차례라고 말하는데 귀수가 사과를 청한다. 외톨이는 사과는 필요없고 죽음만이 위로가 된다고 말한다. 귀수와 외톨이가 바둑대국을 한다. 귀수가 용광로의 열기에 땀을 흘린다. 외톨이는 외로운 곳 구멍가게에 노인이

있었다면서 지옥에서 만날 것을 경고한다. 외톨이가 죽은 돌을 통에 내려 놓자 귀수도 죽은 돌을 통에 던진다. 귀수가 모든 바둑돌을 사용하고 외톨이가 마지막돌을 통에 넣는데 장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외톨이가 세상이 펄펄 끓으면 좋겠다고 바둑판을 내려 치자 뜨거운 기름이 용솨음치며 하늘로 솨구친다. 귀수가 몸을 피하는 사이 외톨이가 크레인 버튼을 눌러 아래로 던지고 귀수를 공격한다. 외톨이가 공중에 묶어둔 기름통 줄을 풀어 버리자 기름통이 떨어지다가 멈추어 버린다. 외톨이가 밸브를 열어 수증기로 귀수를 공격한다. 귀수와 외톨이가 격돌하는 사이 기름통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자 귀수가 외톨이를 밀치면서 몸을 피한다. 귀수가 크레인 스위치를 찾아 똥선생을 끌어 올린다. 귀수와 똥선생이 대국장으로 이동하고 100인의 다면기 대국장에서 황덕용은 아마추어 바둑기사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한다.

6. 수상전 : 일대 백

부산잡초는 폐차장에서 황선희를 묶고 자동차를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잡초는 자신과 황선희를 위해서는 황덕용의 승리를 기원하지만 목숨을 건다면 귀수에게 걸겠다고 말한다. 귀수는 허일도가 자신에게 계산만하는 기계가 되라고 한 말을 취소하고 사람이 되어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대국이 시작되고 사회자는 시간관계상 10수씩 두고 이동을 한다. 귀수는 100인과 10수씩 두고 마지막에 황덕용과 바둑 10수를 둔다. 똥선생이 망원경으로 바둑판을 지켜보며 부산잡초에게 중계를 한다. 귀수가 대국에서 모두 승리하고 황덕용과 대국을 이어간다. 부산잡초는 귀수가 대국 중 실수를 했다고 말한다. 황덕용은 귀수에게 대단하다면서 빨리 두라고 소리친다. 마지막 순간 귀수는 바둑돌 대신 지갑속에 보관하던 누나의 단추를 꺼낸다. 귀수가 단추를 바둑판에 올려 놓으며 단수라고 말한다. 귀수가 황덕용에게 단추를 기억하는지 묻고 황덕용은 모두 기획한 것이냐고 응수하며 수연의 커다란 눈은 기억한다고 답한다. 귀수는 황덕용에게 너와 딸 중에 선택하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너같은 하수의 운명이라고 말한다. 황선희는 아빠가 진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 부산잡초가 일어나 돌아가려다 바둑판의 흑돌을 연결하니 죽을 사(死)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7. 끝내기

황덕용은 귀수가 둔 바둑돌이 죽을 사(死)자라는 것에 당황한다. 황덕용은 스스로 자살을 해 버리고 부산잡초는 황선희를 살려 준다. 귀수가 누나의 납골당을 찾는다. 성당 "신부"(고세원역)는 똥선생과 홍마담과의 결혼식을 주례한다. 결혼식이 끝난 후 똥선생이 귀수의 이름을 묻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귀수가 거리를 걷다가 허일도와 처음 만나 동전을 던지던 때를 기억한다. 귀수가 동전을 던지자 이번에는 숫자가 나타난다. 똥선생이 귀수에게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인지 묻는데 귀수는 안식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8. 쿠키영상

허일도가 소년 귀수에게 풍경이 물고기인 이유를 묻는다. 허일도가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잠을 자는데 이와같이 항상 깨어 있어라는 뜻이라면서 마음의 눈을 떠라고 말한다. 허일도는 세상의 모든 바둑판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 보아야 잘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평화로운 바둑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참으로 냉혹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누군가 던지고 놓은 바둑돌처럼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신의 한수 귀수편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바둑돌 하나를 놓고 원한과 복수가 넘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한과 원수와 분노의 죄사슬을 끊어 내어야만 한다. 그것이 반복되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원한과 복수를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다.

41. "퍼펙트맨"Man of Men, 2018

한국영화, 장르:코미디,드라마, 개봉:2019.10.02.

감독,각본:용수, 제작:MANFILM,(주)쇼박스,

주연:설경구,조진웅,

관객:1,238,482명(2019.11.27.기준)

"강정기"(김민석역)가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며 돌아온다. "강영기"(조진웅역)는 차값이 두배라서 주차장도 두배로 사용한다면서 핀잔을 준다. 정기는 전세금 날린 것도 모자라 주식까지 손대냐고 대응한다. "구대국"(진선규역)은 영기말만 믿고 회사돈 7억원을 투자했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영기가 돈은 굴려야 제맛이라지만 대국은 그돈이 회사대표 돈이라는게 문제라고 말하며 주주총회 갈 준비를 서두른다. "난다리, 최기태"(지승현역)가 회사대표 "범도"(허준호역)를 주주총회장으로 인도한다. 주총장에 영기와 대국이 입장하고 "난다리"(지승현역)가 영기의 옷을 보며 비웃는다. 임시주총이 시작되고 범도가 카이저랜드 분양대행을 위해 라이거스 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만든다. 범도가 대표후보로 최기태 상무를 단독 추천하는데 영기가 화를 낸다. 요양원 간병인이 "한장수"(설경구역)에게 양복을 입혀 준다. "은하"(김사랑역)가 회사로 전화해 대표가 준비중이니 임원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한다. 장수는 로펌임원회를 개최하는데 임원들이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한다. 장수가 30분내로 불일을 봐야 하는데 오줌받을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장수가 문제는 자신이 직접 검토후 결정하겠다고 잘라 말한다. 주총후 범도가 라이거스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다. 최대표가 라이거스라고 외치자 직원들이 파이팅을 하고 영기는 말없이 술을 마신다.

은하가 장수의 부동산과 현금자산 모두 기부완료되었고 신규대표 선임건과 보험만 정리하면 끝이라고 말한다. 장수의 보험금은 질병사망시 12억, 재해사망시 27억이다. 은하가 장학재단에 대표의 흉상제작을 하려 한다고 보고하고 장수가 OK사인을 보낸다. 영기와 대국이 판타지아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대국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아가씨가 영기에게 창득이파에게 안되는지 묻는다. 영기가 창득이파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룸으로 찾아간다. 창득이파가 갑자기 119에 신고를 하고 영기는 경찰서에 체포 구금된다. 장수가 요양원에서 머리를 한다. 요양원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녹취를 하는데 장수가 모든 항목을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영기는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15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출소를 한다. 영기와 대국이 바닷가에서 어묵을 먹으며 대국은 창득이파 두목과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가 된 것이라고 말한다. 대국이 주식 이야기를 하자 영기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7억이 70억 된다고 말한다. 요양원 의사가 장수에게 연명의료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으니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말하지만 장수는 페라리자동차 모형을 보며 진통제용량을 늘

려 끝내자고 말한다. 귀가한 영기가 자동차가 안보이자 정기를 찾는다. 정기가 학원비, 월세가 다 밀려서 차를 팔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다. 영기는 사회봉사를 위해 요양원을 찾는데 요양원 "원장"(소희정역)이 "장수"를 소개한다. 원장이 장수에게 봉사하러 온 영기를 소개하자 장수가 도장찍어 줄테니 가라고 말한다. 영기가 돌아가려 하자 원장이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하는 것인지 묻는다. 잠이든 장수의 얼굴에 모기가 있어서 영기가 모기를 잡으려고 뺨을 때린다. 영기가 못움직이는지 묻고 일본야동과 서양야동을 보여주며 힘내라고 말하는데 장수가 치우라고 고함을 친다. 그때 은하가 문앞에서 영기를 보며 경고를 한다. 은하가 "박변호사"(박진우역)측에서 경영권소송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말하며 변호인단 선정하면 바로 팀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한다. 범도가 영기와 대국을 불러 카이저랜드 건으로 영기가 섭한거 안다고 말하며 난다리를 밀어주면 입장관리와 분양권과 플러스를 주겠다고 말한다. 범도는 명동에 20개를 사용하기 위해 대국에게 캐피탈 자금을 정리해 오라고 말한다. 범도가 영기를 불러 정장 한 벌 사 입어라고 돈을 건넨다. 영기와 대국이 술을 마시며 영기는 범도가 자기앞에서 패션을 논한다면서 욕을 한다. 대국은 원금 회수될 때 돈을 빼자고 말하는데 영기는 밥통에 밥이 다 되어 가는데 코드 뿔지말라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다음날 영기와 대국이 요양원에서 일어나는데 장수가 영기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을 친다. 대국이 일어나 범도의 전화에 나가고 장수는 영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데 영기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자기가 마신다. 영기가 여자와 통화를 하면서 빅셀 바이오 주식을 말하자 장수가 듣고 무엇을 말하려다 멈춘다. 다음날 아침 영기가 대국의 전화를 받고 빅셀 바이오 회사를 찾는다. 대국이 영기에게 공시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대표전화가 걸려 온다. 양기는 난다리를 찾아가 범도대표가 주기로 한 분양권을 넘기겠다면서 돈을 요구한다. 난다리는 돈을 주는 대신 차 세차를 해 달라고 빈정거린다. 영기는 난다리 책상위 물건을 쓸어내고 밖으로 나와 자동차에 소변을 본다. 영기가 최대 대출한도를 확인하는데 140밖에 안된다. 요양원 원장이 강영기에게 전화해 사회봉사에 나오지 않으면 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다. "박철승"(박진우역)이 장수를 찾아와 경치와 공기 좋은 곳에 산다고 말하는데 장수는 가끔 똥파리가 있다면서 별로라고 말한다. 철승은 자신에게 회사경영권을 넘겨 달라고 말하는데 장수는 부탁하려면 음료수라도 사와서 말하라고 거절하자 철승이 고함을 지른다. 그때 영기가 들어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는데 철승이 나가라고 말한다. 철승이 장수에게 경영권 지키려고 용역부른거냐고 말하는데 영기가 국가의 부름으로 온 것이라고 말한다. 장수가 영기에게 용역, 그 놈 치워 버려라고 말하고 영기는 철승을 밖으로 끌고 나간다. 난다리는 영기가 자기에게 돈 빌릴 사람이 아니라면서 뒤를 파 보라고 지시한다. 장수는 자신의 흉상을 보며 의아해 하자 은하가 수정해서 다시 보여 주겠다고 말한다. 영기가 대국에게 이 상황에서 대표전화를 계속 피하면 의심한다고 적당히 둘러 대라고 말한다. 영기는 흉상

을 보며 무엇으로 만든것인지 물으며 만지는데 바닥으로 떨어져 엉망이 되어 버린다. 영기는 80평 펜트하우스에 페라리가 꿈이라고 말하는데 장수는 돈이면 세상을 제대로 살수 있는지 되묻는다. 영기가 인생은 퍼펙트라면서 무이자 7억을 빌려달라고 말하지만 장수는 대꾸 없이 가버린다. 영기는 돈을 빌리기 위해 전화를 하지만 실패하고 장수가 영기에게 흘린거 휴지로 닦으라고 하면서 빅셀 바이오 주식으로 닦으면 되겠다고 말한다. 그 사람들은 영기같은 호구 돈빼먹는 기업사냥꾼이라고 귀뜸하자 영기는 망연자실한다. 장수가 영기에게 주식이야기 안한 대가로 사망보험금은 영기에게 주겠다고 말하며 죽기전에 해야할 일을 도와 달라고 말한다. 영기가 보험금이 얼마냐고 묻자 장수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12억, 사고로 죽으면 27억이라고 말한다. 영기는 장수의 보험금에 귀를 쫓긋하며 귀를 기울인다.

대국이 장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영기에게 넘긴다. 대국은 장수가 서울지검 검사를 사임하고 부산에서 개업해 연매출 500억이라고 말하며 돈만 주면 살인사건도 뒤집는 독사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영기는 금줄이라고 말하지만 대국은 영기에게 정신줄이나 잡으라고 경고한다. 은하는 장수에게 영기를 수익자로 하는 이유가 협박당한 것인지 묻는다. 장수는 보험금 깡패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 있는 시간에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기가 인감증명서를 주며 정리를 서두르자 장수는 수익자 변경시점은 자신이 정한다고 말한다. 장수는 자신이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보여주며 야구장, 수영장 가기를 보여주며 그것부터 함께 하자고 말한다. 영기는 롯데팬, 장수는 넥센팬이다. 사직 야구장 롯데팬 좌석에서 장수는 넥센 타자의 안타에 환호성을 지른다. 영기는 수영장에서 대국에게 전화해 야구장에서 맞아 죽을뻔 했다고 말하며 바나나 우유를 장수에게 먹인다. 장수가 딸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다고 말하자 영기가 딸이 어디있는지 묻고 장수는 엄마와 있을 것이라고 답한다. 영기가 장수가 돈벌어 바람피우다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겼을 것이라고 빈정거린다. 그때 몸에 문신을 한 덩치가 수영장에 들어와 물장구를 치면서 놀자 영기가 수세미로 문신을 지워주겠다면서 나가서 놀아라고 말한다. 수영장을 나온 영기는 장수를 문신샵으로 데려가 "진빠이"라는 문신을 새긴다. 영기는 마트에서 장수를 카트에 태운 채로 의대 진학 준비중인 동생과 통화를 하며 물건을 고른다. 장수는 호랑이 띠, 영기는 용띠라고 서로 소개하고 친구하면 된다고 말한다. 영기는 복지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험금에 관심을 가진다. 장수는 복지사업이 영기 혼자 27억 꿀꺽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안아프게 잘 할수 있는지 묻는다. 장수는 1+1로 영기도 한 칼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기와 장수가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 영기와 장수가 나이트클럽을 향하는데 기도들이 입구를 막아선다. 기도가 온천장 나이트로 가라고 말하는데 장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24조2항, 장애인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이라고 말하며 입장을 한다. 범도가 영업장을 찾아와 강이사를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영기와 장수가 소주를 마신다. 영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탔고 자신도 선

장이 꿈이었지만 동생이 태어난지 일주일만에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영기는 매일 술먹고 와서 때리고 옆집 사람과 싸우는 엄마를 죽이는 것이 두 번째 꿈이었다고 말한다. 공부보다 주먹질이 자연스러워서 강패가 되었다고 회상한다. 그 후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죽었는데 화장끝내고 유품으로 3천원과 사진 한 장이 전부라 납골당에 모실 돈이 없어서 황령산에 뿌렸다고 말한다. 영기는 똥 묻은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동생과 함께 퍼펙트하게 사는 것이 세 번째 꿈이라고 말한다.

돌아온 장수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정리하며 "석현"(윤상화역)의 사진을 바라본다. 영기는 범도의 사무실에 불려가 즉석복권을 긁는다. 짱이 나오면 죽는다는 말에 첫 줄은 짱, 둘째줄에서 오백원이 나온다. 범도가 영기는 지금 밥그릇은 안지키고 무얼 하고 다니는지 묻는데 영기는 사회봉사시간 채우느라 바쁘다고 말한다. 영기와 장수가 케이블카를 타고 영기가 장수에게 사정이 생겼다면 보름안에 깔끔하게 마무리 하자고 어차피 죽을거 빨리 간다고 나뽤 것이 없다고 말한다. 영기는 투스카니를 끌고 나타나는데 장수는 스포츠카를 원한다면 되돌아 가버린다. 그러자 영기가 페라리를 갖고 나타나 장수와 함께 출발한다. 영기는 천만포인트 종이쿠폰에 불을 붙인후 담배를 문다. 장수는 자신의 드림카는 클래식카인데 시한부 선고받은 날 네덜란드에서 구했다고 말한다. 영기가 담배는 남자의 한숨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장수에게 피워 보라고 하자 장수가 한 입 물고 기침을 한다. 영기는 담배든 뭐든 제때 뱉어야지 오래 담아두면 탈만 나는 것이라고 말한후 차 반납해야 한다고 레카에 싣고 장수가 운전석에 앉은채 되돌아 간다. 영기는 장수의 버킷리스트에서 집 구하기, 셋이서 함께 하기를 바라보며 집은 왜 구하려는지 묻는다. 영기가 사진을 내밀자 장수가 자신이 죽기전에 꼭 봐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다. 장수가 영기에게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기침을 하는데 피를 토한다. 영기는 대국에게 사람을 찾으라고 부탁한다. 은하가 영기에게 장수가 급성폐렴에 걸렸다면 사회봉사가 끝나면 더 이상 볼일 없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영기는 자신은 보험금만 찾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은하는 그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며 대표가 영기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토로한다.

영기와 정기가 함께 술을 마신다. 영기는 정기가 의사가 되었을 때 형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는데 정기가 부끄럽다고 말하며 맨날 술냄새, 피냄새, 술집누나들 향수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지난날을 끔찍하게 생각한다. 정기는 이제 형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영기는 못들은척 잠자는 연기를 한다. 잠이든 장수가 꿈을 꾸다. 꿈에서 "지은"(옥예린역)이 아빠를 또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있다. 장수는 내일 꼭 수영을 함께 하자고 말한다. 지은이 바나나우유도 먹는 것인지 묻고 영기는 꿈속의 자신에게 가라고 말한다. 대국은 64년생 허석현이 작년까지 교도소에 있다가 지금은 영도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말한다. 대국이 사건에 대해 영기에게 설명을

한다. 석현의 부인이 죽은 후 외동딸을 홀로 양육했다. 석현의 딸이 어느날 양아치에게 당했는데 아버지가 중견기업 회장으로 대형로펌을 이용해 재판을 돈으로 막아 버렸다. 분노한 석현이 회사택시로 변호사 차를 들이 받았는데 변호사는 전신마비가 되고 뒷좌석의 아내와 딸은 즉사해 버렸다. 대국은 영기를 이용해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영기가 석현의 자료를 갖고 장수를 찾는다. 영기는 자기가 돈 좋아 한다고 궁해 보였는지 물으며 여기에 자기보다 돈 더 좋아하는 놈이 있는데 딸 가진 놈이 그런 쓰레기를 변호했다고 빈정거린다. 장수가 영기가 깡패니까 죽여 달라고 부탁하려 했다고 말한다. 영기가 사이즈가 다르다며 100억을 가져오면 죽여 주겠다고 말한다.

난다리는 범도에게 알아봤더니 회사공금으로 장난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은하는 영기를 찾아와 전에 함부로 말한 것을 사과하며 영기 때문에 대표가 많이 웃었다고 말한다. 영기는 동생 정기에게 만약 두달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지 묻는다. 정기는 돈 때문에 누가 죽인다고 협박하는지 되물으며 주식은 왜 한것인지 잔소리를 한다. 영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하고 정기는 살인은 절대금물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영기가 장수를 찾는다. 장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이야기를 한다. 장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다. 영기가 석현을 만나 장수에게 데려 간다. 석현이 장수를 보고 돌아가려 하자 영기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 준다는데 곧 죽을 사람 말이라도 들어 보라고 말한다. 장수는 석현에게 딸이 잘 지내는지 물으며 변호사를 통해 보상금을 책정해 두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석현은 자신이 감옥살이 하는 동안 딸이 자살했다고 말하며 이제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묻는다. 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석현도 자기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로가 눈물을 흘린다. 석현이 꿈에 딸이 보인다면 사진(미연, 박소라역)을 장수에게 보여 준다. 장수는 미연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장수와 석현이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를 지켜보던 영기는 대국에게 사람 하나 더 찾아 달라고 말한다. 영기가 이충원 원장의 병원을 찾아가 진료중인 이충원을 때리고 밟아 버린다. 장수는 자신의 유골함을 직접 고른다. 영기가 최대한 늦게 꼼꼼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뒤 장수와 함께 나온다. 장수와 영기가 황령산 전망대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 본다. 장수는 영기에게 엄마 보낼때를 물어 보지만 영기는 20년만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장수가 영기 어머니를 부르며 자신이 곧 찾아가서 술 한잔 올리겠다고 말한다. 영기는 엄마에게 장수가 올라가면 아들이 못해준거 다 얻으라고 말한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영기는 버킷리스트에 한가지 더 남았다고 말한다. 장수는 아내와 딸을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라면서 영기에게 고생했다고 말한다. 영기는 보험금 수익자 변경 확인서를 챙기면서 사회봉사가 끝났다고 말한다. 영기는 장수에게 사고사로 죽을 의향이 없는지 묻고 장수는 잘가라고 말한다.

영기가 전화를 받고 범도를 만나는데 대국이 붙잡혀 있다. 범도는 계열사 대표가

비리를 저질러 그룹이 위태롭다고 말한다. 대국은 영기가 꽃뱀을 소개해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지른다. 범도가 강이사에게 몰랐는지 묻고 영기는 몰랐다고 말하는데 난다리가 영기를 보며 웃는다. 영기는 대국과 20년지기라며 자신이 그 돈을 갚겠다고 말한다. 범도가 술잔을 집어 던지며 비리 임원 감사를 하라고 지시한다. 범도가 대국이 횡령한 7억을 제대로 불렀으면 세배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영기에게 자신 있는지 묻는다. 범도는 영기에게 3일의 시간을 주고 영기는 대국과 함께 돌아간다. 영기는 보험금 수익자 변경 확인서를 보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수의 방을 찾는다. 영기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수와 함께 바람을 쐬러 간다. 장수는 영기에게 돈 갚고 강패는 그만 두라고 말한다. 영기는 동생과 힘들 때 라면국물에 밥 말아 먹게 해준게 강패라고 말한다. 장수는 영기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한다. 장수가 이제 그만 밀어서 끝내라고 말하고 영기는 장수를 바다로 밀어 버린다. 난다리는 범도와 술을 마시며 영기는 절대로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범도가 선배이름을 함부로 올린다며 난다리를 때린다.

영기와 장수가 부닷가에 누워서 장수는 자기가 죽어야 영기가 산다고 말한다. 영기는 119대원들의 노고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영기는 그냥 운명에 맡기겠다고 말한다. 장수는 자신이 유도를 8년했다면서 15초면 된다고 느스레를 뜬다. 영기는 카트를 밀며 부산항대교를 달린다. 장수는 회사임원들을 요양원으로 불러 떠날 준비를 하고 은하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기가 회사 행사장을 찾는다. 후배 "형대"(이호철역)가 영기에게 선배대우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영기가 형대를 행사장으로 끌고와 넘어 뜨린다. 난다리가 영기를 막아서자 난다리를 때리고 밀어 버린다. 범도는 행사장 손님들을 퇴장시키고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다. 영기가 이제 강패 그만한다고 계산을 하려 한다. 영기는 자신이 해먹은 7억에서 분영권 5억까고 남은 2억은 몸으로 때우려 한다. 범도 부하들이 영기를 때리는데 대국이 부하들을 데리고 행사장에 나타나 난장판이 된다. 난다리가 대국을 쓰러 뜨리고 범도는 영기를 쓰러뜨린 후 다리를 내리친다. 범도가 영기와 대국에게 가라고 소리치며 돌아 선다. 난다리가 범도에게 이대로 보내면 앓된다고 말하는데 범도는 그만하자고 말한다. 순간 난다리가 영기를 칼로 찌르고 범도가 난다리를 때려 넘어 뜨린다. 범도가 자신의 피같은 돈은 무릎과 함께 일한 20년 퇴직금으로 통친다고 말하고 가라고 말한다. 영기가 장수를 찾아와 아직 안자는지 묻고 장수는 영기를 보고 아직 안죽었는지 묻는다. 영기는 장수 부조금 주려고 왔다고 10만원을 꺼낸다. 영기는 장수의 아내와 딸이 있는 납골당을 데려가 장수를 업고 영정사진을 보여 준다. 영기가 자신은 장수형 동생 강영기라고 소개한다. 장수는 아내에게 잘 지냈는지 묻고 딸에게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장수와 영기가 드림카인 클래식카를 바라본다. 장수가 영기에게 진빠이 인정하는지 묻고 영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다. 영기는 정기에게 오늘 합격자 발표일인지

묻는다. 영기가 장수의 납골당을 찾아가 방명록에 장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남긴다. 은하는 한장수 대표가 남긴 부조금 답례품을 영기에게 전한다. 영기가 요트 시동을 거는데 엔진에서 불이나 멈춰 버린다. 하늘에서는 비까지 내리고 정기의 전화가 걸려오자 긴장하며 전화를 받고 외친다. "퍼펙트하다!!"

영화는 끝이 났다. 감동과 코믹이 연결되며 한사람의 사람됨의 과정을 지켜 본다. 깡패 영기가 장수라는 사람을 만난 후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인생의 행로처럼 그려져 있다. 그리스도인도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 영기가 장수를 만났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영기가 깡패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죄로부터의 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42.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Terminator: Dark Fate, 2019

미국영화, 장르:SF,액션, 개봉:2019.10.30.

감독:팀 밀러(Tim Miller),

제작:월트디즈니,

주연:맥켄지 데이비스(그레이스역,Mackenzie Davis),아놀드 슈왈제네거(터미네이터역,Arnold Schwarzenegger),린다 해밀턴(사라 코너역,Linda Hamilton),나탈리아 레이즈(대니 라모스역,Natalia Reyes),가브리엘 루나(터미네이터역,Gabriel Luna)

관객:2,396,107명(2019.11.28.기준)

"사라 코너"(린다 해밀턴역)가 거대한 섬광과 핵폭풍으로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전한다. 박사는 종말에 대한 꿈은 흔한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사라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1997년 8월29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당신들도 곧 생생한 현실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1998년 과테말라 해변, 사라와 "존 코너"(에드워드 펄롱역,Edward Furlong)가 해변에서 여유를 누리는 시간, "터미네이터T-800"(아놀드슈왈제네거역)이 나타나 존 코너를 향해 총을 쏘아 사살한 후 사라진다. 22년후 멕시코시티, 도로 바닥이 열고 구형물체가 생기며 스파크가 발생한다. 잠시후 구형물체는 사라지고 "그레이스"(맥켄지데이비스역)가 다리 아래로 추락한다. 다리 아래에서 데이트중인 남녀가 그레이스를 발견하고 부축해서 이동중에 경찰이 도착한다. 정신을 회복한 그레이스가 남녀를 위협하는 경찰을 제압하고 남자의 옷을 빼앗아 떠난다. "대니 라모스"(나탈리아레이즈역)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한다. 대니와 친동생 "디에고 라모스"(디에고보네타역)는 아버지 "빈센트"(엔리크 아르세역)에게 출근 인사를 한다. 아파트에 구형물체가 나타나 "터미네이터Rev-9"(가브리엘 루나역,Gabriel Luna)가 아래로 떨어진다. 터미네이터Rev-9가 옷을 만지며 복제하고 대니의 집을 찾아가 라모스가 집에 있는지 묻는다. 빈센트는 친구들은 대니라고 부르는데 무엇인가 수상하다고 말한다. 대니와 디에고가 자동차부품공장 작업장에서 자신의 자리에 로봇팔을 보고 놀란다. 옆자리 동료가 주임이 디에고를 찾으니 사무실로 가라고 하는데 대니가 대신 간다. 빈센트로 변신한 터미네이터Rev-9가 공장 입구에서 대니 라모스가 도시락을 두고 갔다고 만남을 요청한다. 경비원이 안전모와 안전복 착용을 요구하자 알았다고 말한다. 그레이스도 공장에 도착해 경비원을 제압한 후 안전복을 착용하고 공장으로 들어간다. 디에고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무슨일인지 묻고 빈센트는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대니를 찾는다. 사무실에서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대니를 발견한 터미네이터Rev-9이 도시락을 총으로 바꾸어 사격하려 하는데 그레이스가 나타나 터미네이터Rev-9에게 총을 쏜다. 그레이스는 대니와 디에고를 붙들고 지금 도망해야 한다고 말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다시 일어나자 대니와 디에고를 밀치고 공격을 막아선

다. 터미네이터Rev-9이 그레이스를 던지며 공격하고 그레이스도 해머를 들고 공격한다. 그레이스가 싸움에서 밀리자 디에고가 엔진을 떨어뜨려 터미네이터Rev-9을 저지한다. 그레이스는 대니와 디에고를 차에 태운뒤 자신은 기계가 아니라 강화된 인간으로 대니를 지키러 온 것이라고 소개하고 터미네이터Rev-9은 미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대형트럭으로 역주행하며 자동차를 밀어 버리고 추적해 온다.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겨 터미네이터Rev-9의 트럭이 다가오자 디에고에게 운전을 맡기고 짐칸으로 이동해 철근을 던진다. 철근이 터미네이터Rev-9의 몸통을 관통하지만 자신의 몸을 분리하여 철근을 다시 앞차로 던져 버린다. 그레이스가 재빠르게 팔로 철근의 방향을 틀어 대니를 보호하는데 터미네이터Rev-9이 자동차로 뛰어 올라 그레이스와 격돌한다. 격투중 자동차에서 추락한 터미네이터Rev-9이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만 그레이스도 충격으로 날아가 떨어진다. 대니는 디에고가 상처를 발견하고 그레이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 디에고를 남겨둔채 가려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다시 자동차를 타고 대니를 향해 돌진하고 그레이스가 이를 막아서는데 자동차가 폭발하여 디에고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레이스가 대니를 데리고 도주하려는데 터미네이터Rev-9이 다시 막아선다. 그때 사라가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 터미네이터Rev-9을 향해 총을 쏘아 도로밖으로 떨어뜨리고 슈류탄을 다시 던진다. 그레이스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후 사라의 자동차를 타고 떠난다. 대니는 그레이스에게 아빠를 만나 디에고의 사망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레이스가 터미네이터Rev-9을 복제한 것은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레이스가 몸에 열이나 약을 필요로 하고 터미네이터Rev-9은 다시 몸을 합체하고 대니를 추적한다.

그레이스가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한다. 놀란 대니가 운전을 하며 그레이스를 진정시킨다. 대니가 자동차에서 내려 경찰에 가겠다고 말하자 그레이스는 경찰 100명이 와도 놈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대니가 약국앞에서 차를 세우고 총으로 처방전을 대신하며 약제실에서 약을 갖고 나온다. 사라가 도착하고 다른 자동차로 짐을 옮긴후 둘을 구해 줬는데 차를 훔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진다. 사라는 대니에게 이름을 묻고 대니는 다니엘라 라모스라는 보통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라가 대니의 폰을 위치추적된다고 던져 버리고 모텔에 도착해 그레이스에게 약을 주사한다. 대니가 감자칩을 뜯으려 하자 사라가 안에 핸드폰이 있으니 열지 말라고 말한다. 대니는 감자칩이 열 개나 되는지 묻고 사라는 비상용이라면서 자신이 50개주에 수배되어 있다고 말한다. 대니는 아버지와 동생이 죽었는데 장례식과 작별인사도 없었다면서 울지만 사라는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42년, 그레이스와 군인들이 부상당한 사령관을 태우고 이동하려는 순간 터미네이터가 나타나 공격을 한다. 그레이스가 일어나 터미네이터를 공격하고 사령관을 호위한다. 의사들이 부상당한 그레이스를 확인한다. 그레이스가 사령관부터 지키라고

말하고 의사는 잘 도착했다고 말한다. 그레이스는 강화시술을 지원한다. 현재, 사라가 그레이스에게 총을 겨누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는데 그레이스가 사라의 총을 다시 빼앗아 먼저 말하라고 요구한다. 사라는 침대에 앉아 그레이스 같은 유형은 처음이라고 말하고 그레이스는 강화된 인간이라고 말하며 2042년에서 과거로 온 것이라고 말한다. 사라는 터미네이터가 자신과 아들이며 대항군 지도자인 존 코너를 죽이려고 터미네이터를 보낸 것이라고 말한다. 사라는 자신과 아들 존이 미래를 바꾸어 30억명의 목숨을 지켰다고 말한다. 그레이스가 존의 행방을 묻고 사라가 스카이넷은 터미네이터를 보내 존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때부터 터미네이터 사냥군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레이스가 대니는 자신이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사라는 전역에 CC-TV가 있어서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열시간도 못버틴다고 말한다. 그레이스는 사라에게 대니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면 죽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자동차로 이동 중에 사라가 대니를 죽이러 온 기계는 누가 보낸 것인지 묻는다. 그레이스가 리전이 보낸 터미네이터Rev-9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레이스가 리전은 방어용 프로그램인 모든 인간을 공격했다고 말하는데 대니가 사라에게 다리는 어떻게 알고 온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사라가 존이 죽은 후 좌표, 장소, 시간, 날짜와 존을 위해서라는 문자가 와서 찾은 것이라고 말한다. 2년후에도 문자가 왔고 문자를 받을 때 마다 찾아가서 박살냈다고 말한다. 그레이스는 사라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러레이도 외곽지역에서 보낸 것이라고 말한다. 그레이스는 자신이 떠나기 전 사령관이 도와줄 사람이 있는 좌표를 알려준 문신을 보여준다. 그레이스가 텍사스로 가려하자 사라가 수배된 상태라 국경을 넘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니가 삼촌이 국경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자동차를 터널 아래에 버리고 함께 기차를 타고 이동한다.

가차에서 대니가 그레이스에게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궁금해 한다. 그레이스는 첫째날 예고없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했다. 둘째날 정부에서 핵공격을 하고 EMP로 리전을 멈추려 했지만 실패했다. 셋째날 세계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레이스가 먹을 것이 없고 아빠는 캔 한통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리전의 인간사냥이 시작되었다. 그후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리전에게 반격을 시작했다. 더 이상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사라는 자신도 대니 나이때 존을 출산했다면서 대니가 저항군 남자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차가 도착하고 대니의 삼촌집으로 간다. 삼촌은 미국인이 손님인 적이 없었는데 죄를 지었는지 묻는다. 대니는 삼촌에게 로봇이 나타나 아빠와 디에고를 죽였다면서 함께 도망가야 한다고 말하며 국경으로 이동한다.

국경수비대 UAV상황실, 터미네이터Rev-9은 무인항공기 상황실 요원들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연결하여 모든 데이터를 확인한후 UAV로 대니의 위치를 알아낸다. 이동하는 그레이스가 UAV를 발견하고 무인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라는 감지하지 못한

다. 터미네이터Rev-9은 국경수비대에 멕시코 카르텔로 수배된 자들이 국경을 넘어
러 하니 사살하라고 지시한다. 국경 비밀입구에 도착한 삼촌은 대니에게 철망아래
쪽에 덮개를 열면 된다고 알려 준다. 삼촌은 플라코가 국경을 건너가서 안내할 것
이라고 말하고 그레이스가 덮개를 열고 지하통로를 통해 모두 넘어 간다. 그때 국
경수비대가 불을 켜고 총을 겨눈다. 그레이스는 사라에게 자신이 대니와 떨어지면
사라와 함께 도망하라고 말한다. 국경수비대가 네사람을 체포하고 끌고 간다. 지켜
보던 터미네이터Rev-9은 UAV로 대니를 공격하는데 그레이스가 대니를 밀면서 보호
한다.

텍사스 더레이드 구금센터에 도착한 국경수비대는 대니에게 이름, 출생일, 출신국
등을 말하라고 하는데 대니는 이곳이 위험하다고 알린다. 의사는 부상당한 그레이
스를 확인하고 약을 발견한 후 놀라 사진을 찍는다. 터미네이터Rev-9이 구금센터에
도착한후 라모스 등 용의자 호송을 요구한다. 터미네이터Rev-9가 금속탐지기 문을
통과하여 대니를 찾는다. "락비"(스티븐 크리역)는 사라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찾
아와 데려간다. 그레이스가 정신을 회복하고 요원들을 제압한다. 남쪽 구금시설에
간 그레이스가 터미네이터Rev-9이 대니를 찾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경보기를 울린
다. 사라의 화재경보가 울리자 락비와 요원을 공격한 후 수갑을 풀고 빠져 나온다.
그레이스는 문을 개방하고 구금자들을 석방한다. 구금자들이 도망하면서 아수라장
이 되고 그레이스는 대니를 데리고 나온다. 터미네이터Rev-9이 대니를 발견하고 추
격하던중 국경수비대를 공격하고 이동한다. 그레이스와 대니가 건물밖으로 나와 헬
기에 탑승한다. 대니는 사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가자고 말하는데 그레이스는 터미
네이터Rev-9가 추격해 온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대니가 헬기에서 내려 터미네
이터를 향해 총을 쏜다. 사라가 헬기에 올라타 터미네이터Rev-9을 향해 총을 쏜다.
그레이스가 헬기를 이륙시키자 헬기를 붙잡으려 하는데 사라의 총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터미네이터Rev-9은 구금센터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헬기를 구할 곳을
묻는다. 그레이스는 좌표위치에 도착한다. 사라의 1km앞에 착륙하자고 말한다. 좌표
가 있는 집옆에 세워진 차에 칼이라고 적혀 있다. 그레이스가 노크를 하자 "터미네
이터T800"(아놀드슈왈제네거역)이 밖으로 나오는데 사라가 존을 죽인 놈이라고 총
을 겨눈다. 그레이스는 사라의 손을 잡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라가
사람이 아니라 터미네이터라고 말하는데 그레이스가 칼에게 사실인지 묻는다. 칼은
자신이 존을 죽였고 사이버다인 시스템 모델101이라고 말한다.

사라가 숲속에 앉아 있는데 대니가 사라를 위로한다. 네명이 거실에 앉아 있다. 그
레이스가 배에 있는 좌표문신을 보여주며 사령관이 알려 주어 온 것이라고 설명한
다. 칼이 사진속에 있는 마테오가 존 코너를 죽이고 몇 달뒤 만났다고 말한다. 칼은
존을 죽인후 임무가 완료되어 가족을 지키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말한다. 칼
은 가족을 지키면서 존의 죽음이 어떤 감정인지 알게 되었고 임무완료후 인간의 감

정확습 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한다. 칼은 미래가 바뀔 때 마다 미세한 파동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칼은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데 스카넷을 파괴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고 말하자 화가난 사라가 칼에게 총을 쏜다. 그때 칼이 지키는 알리시아와 마테오가 귀가하는데 칼이 손님들이 왔다고 말한다. 칼의 가족들은 터미네이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네명은 터미네이터Rev-9을 파괴할 방법을 이야기하며 칼이 터미네이터는 임무만 생각한다고 말한다. 사라가 살상지대를 만들어 대니가 유인하는 방법으로 공격하자고 말하는데 그레이스가 위험한 대니를 광산에 은닉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칼이 살상지대를 만든다면 성공확률이 74%로 높아진다고 말하는데 그레이스가 무기가 없다고 말하자 칼이 자신이 준비한 무기를 보여준다. 칼은 인공지능시대와 야만시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준비해 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레이스는 대니에게 권총사격자세와 사격 방법을 교육한다. 사라는 빙엄에 있는 공군장교에게서 군용에너지 무기인 EMP(에너지펄스)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칼이 150km 거리에 있어서 오늘 오후에 출발하기로 한다. 칼이 알리시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알리시아와 마테오는 집을 떠난다. 칼이 사라에게 이곳에 누군가 찾아 온다면 노출되어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과거일로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라의 일이 끝나고 대니가 안전해지면 칼을 죽이겠다고 말하며 떠나는데 터미네이터Rev-9가 한발 늦게 칼의 집에 도착해 아무도 없는 집을 돌아본다.

빙엄에 도착한 후 창고안에서 소령을 만나 EMP가 든 가방을 건넨다. 소령이 기지에 블랙호크와 치누크 헬기가 있다고 말한다. 그레이스와 칼이 터미네이터Rev-9이 온 것을 감지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헬기 유리창을 뜯어내고 몸을 분리하여 공격한다. 칼은 몸으로 총을 막으며 사라를 보호하지만 소령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다. 네명이 소령을 태우고 공군기지로 이동하는데 소령이 도난당한 헬기공격을 받고 있다고 무전을 친다. 그레이스가 공군기지를 지나 활주로로 달려가고 칼은 C-5로 가자고 말한다. 수소기안으로 들어간 후 그레이스는 비행기 조종을 준비하는데 소령이 비행기 이륙시까지 막아 서겠다고 말한다. 수송기가 출발하고 칼은 짐을 밀어 떨어뜨린다. 터미네이터Rev-9이 수송기에 올라 타려는데 칼이 수송기 밖으로 밀어버린다. 사라와 대니가 자동차를 밀어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다. 대니는 그레이스에게 EMP를 사용할 살상지대로 가자고 말하지만 칼은 EMP가 파괴되어 현재 승산은 12%라고 우려를 한다. 대니는 0%가 아니니 죽일 무기를 찾아 공격하자고 말하는데 그레이스는 놈을 죽일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위험성을 경고한다. 대니가 미래에서도 자신은 싸우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그레이스가 심판의 날 이후에 자기를 찾은 사람이 대니라고 말한다. 미래의 대니가 그레이스 주변의 사람들을 구해 주었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기계와 싸우자고 말한다. 대니는 리전도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레이스가 대니는 자기를 구했고 키웠고, 가르치고 부랑자를 민병대로, 민병대를 군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그레이스가 대니는 미래를 구하는 남자의 엄마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레이스가 공

중급유기가 왔다는 무전을 듣고 놈이 온것이라고 말한다. 그레이스는 대니에게 험비를 타라고 말한다. 터미네이터Rev-9은 비행기를 근접하고 수송기에 오른다. 그레이스가 오토파일럿을 설정하고 이동하는데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선체에 손상이 생기고 추락하기 시작한다. 칼이 터미네이터Rev-9을 막으며 공격하고 사라가 문을 여는데 열리지 않는다. 칼이 문을 파괴하고 사라와 그레이스가 험비 고정줄을 풀고 탈출한다. 험비가 비행기 밖으로 떨어지고 그레이스가 낙하산을 펼친다. 칼과 터미네이터Rev-9이 댐으로 추락한다. 험비가 댐위에 기울어져 매달려 있다. 그레이스가 차에서 밖으로 나간다. 터미네이터Rev-9이 칼을 공격하고 물밖으로 나와 대니를 공격하려 하자 그레이스가 줄을 끊고 터미네이터Rev-9을 공격한다. 험비는 물속으로 떨어져 밀려 내려간다. 터미네이터Rev-9이 물속에서 대니를 공격한다. 험비안에 구멍이 생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문을 뜯고 들어오자 대니가 낙하산을 펼치는데 터미네이터Rev-9이 낙하산에 휩쓸려 밀려 나가고 대니와 사라가 수면위로 오른다. 사라와 대니와 그레이스가 건물안으로 들어 가려는데 문이 잠겨져 있고 그레이스도 넘어 지며 대니에게 도망하라고 말한다. 그레이스가 자신의 동력원으로 터미네이터Rev-9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대니가 동력원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레이스 자신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순간, 칼이 총과 약을 가지고 물밖으로 나와 그레이스에게 주사를 하여 회복을 찾는다. 칼이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대니가 여기가 살상지대라고 말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이들을 뒤따라 들어가 대니를 넘기라고 말하자 칼이 거절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말하는데 칼은 자신이 온 미래는 실패한 곳이라고 말한다. 터미네이터Rev-9은 리전이 미래라면서 몸을 분리해 공격한다. 칼과 그레이스가 터미네이터Rev-9과 싸우는데 터미네이터Rev-9이 합체와 분리를 반복하며 공격한다. 칼과 그레이스가 힘을 모아 터미네이터Rev-9을 발전기 터빈속으로 밀어 넣고 터빈이 회전하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다. 폭발후 대니는 쓰러진 그레이스를 찾은 후 상태를 확인한다. 사라도 칼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반응이 없다. 사라가 터빈을 확인하고 아직 안죽었다고 말하자 그레이스가 대니에게 자신의 동력원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터빈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라는 공격한다. 사라는 터미네이터의 공격을 받고 칼 옆에 쓰러진다. 대니가 울면서 그레이스의 동력원을 꺼낸다. 대니가 터미네이터Rev-9의 머리를 공격하자 반대로 대니를 쓰러 뜨린다. 사라가 칼을 부르며 대니를 도우라고 말하자 칼이 깨어나 터미네이터Rev-9을 붙드는 순간 대니가 동력원을 터미네이터Rev-9의 머리에 꽂는다. 칼이 터미네이터Rev-9을 아래로 던지는데 터미네이터Rev-9이 칼과 함께 추락한다. 칼이 터미네이터Rev-9이 자신의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사라에게 존을 위하여 라고 말하며 함께 추락한다. 터미네이터Rev-9이 발버둥치지만 칼이 제압하면서 동력이 폭발하고 터미네이터Rev-9과 칼이 죽음을 맞이한다. 대니와 사라가 어린 "그레이스"(스테파니 길역)를 찾아간다. 대니는 어린 그레이스에게 그레이스가 자신을 지켰다고 말하고 그레이스가 자신을 위해 죽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준비를 세운다.

영화는 끝이 났다.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인간의 진화가 아니라 로봇의 진화가 가져온 부산물이다. 인간을 위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로 변이되는 과정속에서 터미네이터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하나님앞에서 범죄하고 모든 생각이 죄로 뒤덮여 있다. 그러한 인간이 괴물을 양산하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살아 있는 죄성을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하다.

43. “블랙머니”BLACK MONEY, 2019

한국영화, 장르:범죄,드라마, 개봉:2019.11.13.

감독:정지영, 각본:한현근,

제작:질라라비,아우라픽처스,

주연:조진웅,이하니.

관객:2,259,960명(2019.12.01.기준)

1. 외환은행과 론스타 사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BIS자기자본비율이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규정한 부실채권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데 최소 8%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만 건전성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아닌 주체가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면 8%이하인 부실금융기관만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2003년, 대부분의 보고서에는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8.24~9.14%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불과 1주일만인 7월25일, 6.16%의 보고서가 등장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행장으로 부터 받은 팩스로 만들어진 자료로서 보고서 작성자가 그날 사망했다는 것이다. 1998년에 한국에 진출한 론스타는 1999년 2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2001년, 스타타워를 인수한 후, 2003년, 극동건설과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다. 그후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 무효소송을 하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05년 9월,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경제관료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사건은 본격화 한다. 윤석열 검사(현,검찰총장)를 중심으로 하는 론스타 수사팀은 2006년3월30일, 오광수 중앙지검 2과장을 비롯한 4명의 검사가 투입되어 론스타 본사와 임원 자택 8곳을 압수수색 하였다. 8월에 들어서 중수1과가 합류하면서 검사 20명, 수사인력 100명이 투입되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다. 중수부장 박영수 특별검사와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전,검찰총장)이 론스타 수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최재경 중수1과장, 이동열 부부장, 이두봉 검사와 조상준, 한동훈, 이복현 검사와 같은 베테랑 수사팀이 전력투구하였다.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수사에서 가장 큰 복병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국계 대형 언론이었다. 이러한 저항에 대하여 대검은 예외적으로 항의문을 전달하며 수사의 기치를 올렸다. 거기에다 유희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4차례나 기각함으로써 론스타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검찰이 기각된 영장을 그대로 다시 재청구하는 항의형 영장청구도 발생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영장 청구도 2차례나 기각했다. 론스타 미국 본사임원에 대한 체포영장마저 기각되었을 때 박영수 중수부장과 채동욱 대검수사기획관은 노골적으로 법원을 비판하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였다. 결국 유희원 론

스타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또한 2011년 론스타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고 론스타에 우호적인 거래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변양호 금융정책 국장은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면죄부를 주었다. 당시 론스타 수사팀은 그때를 계기로 1년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당시 이두봉, 조상준, 한동훈 검사는 모두 현직 검사장이 되었고, 이복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부장검사로 승진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은 역시 윤석열 검사로서 현직 검찰총장의 위치에 까지 수직상승 하였다.

2. 영화 “블랙머니”

2011년 5월16일, 매각 심의73일전, 한국은 IMF구제금융 이후 스타펀드가 대한은행을 인수한다. 그 후 스타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남긴채 대한은행 매각을 서두른다. “최민규”(류승수역)가 “박수경”(이나라역)에게 서울지검 중수부에 출두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박수경이 검찰에서 알아낸 것이 있는지 묻는다. 최민규가 우리 관계를 아는 눈치라면서 팩스보냈는지 물어보면 모르는 일이라고 하라고 입을 맞춘다. 최민규와 박수경이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최민규는 의식을 잃고 박수경은 간신히 탈출한다. 마침 승용차가 사고현장을 목격하자 트럭이 현장을 떠나 도주를 한다. 박수경이 승용차 안에서 최민규의 장례식을 바라본다. 박수경이 동생 “박수현”(권소현역)의 전화를 받고 수현이 뺑소니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검찰출두 문자가 왔다고 말하며 나중에 전화 하자면서 끊는다. 박수경이 뒤따라 오는 트럭을 발견하고 두려워 한다. 박수경이 트럭을 따돌리기 위해 질주하다가 옆차선의 자동차와 충돌하고 경찰차가 박수경을 잡는다. 강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여자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데 경찰은 박수경이 성추행을 당한 후 자살한 것으로 발표한다. 사무실에서 직원과 식사를 하던 “양민혁”(조진웅역)검사가 TV에서 성추행 검사 이야기를 듣고 검사 망신이라고 말한다. “박수사관”(윤병희역)은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호출을 받는다. 양민혁 검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수경이 죽기 전에 보낸 문자를 보여 준다. 3일 전, 박수경은 “장수사관”(강신일역)에게 감옥에 보내 달라고 말하는데 양민혁 검사가 벌금형이라고 하자 박수경이 양민혁 검사의 손을 붙잡고 감옥에 보내 달라고 애원을 한다. 양민혁 검사가 박수경의 부검을 요청하는데 가족들이 부검을 반대하고 화장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가 장례식장을 찾아가자 유가족들이 양민혁을 때리며 진입을 막아선다. 양민혁 검사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막무가내다. 양민혁 검사가 부장검사를 만나는데 부장검사는 징계 6개월을 1개월로 감해 주겠다고 말한다. 양민혁은 이 사건은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결심하며 검찰을 불신한다.

매각 심의 57일전, CK로펌 "김나리"(이하늬역) 변호사는 대한은행 매각 관련회의를 한다. 스타펀드측에서 한국이 여론 때문에 은행매각을 주저한다고 말하며 김나리에게 자료 검토를 했는지 묻는다. 김나리는 스타펀드 코리아 "스티브 정"(유대오역) 대표가 세금 78억을 내지않고 출국했는지 묻는다. 스티브 정은 돈이 없으니 은행을 매각하면 주식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말한다. 김나리는 세금부터 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 버린다. 양민혁 검사는 박수경이 발견된 곳에서 현장을 확인한다. 장수사관도 박수경의 동생 수현과 현장을 찾는다. 수현이 평소 언니가 마침표를 안찍는데 이상하다면서 대검중수부 조사이후 이상했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최재관"(허성태역)검사에게 전화로 확인한다. 양민혁 검사는 최재관 검사에게 박수경이 조사받은 내용을 묻자 최재관 검사가 주변을 살피며 화장실로 이동해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7천억에 넘어 갔는데 대한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낸 5장의 팩스때문이라고 전한다. 최재관 검사가 팩스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최민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박수경 마저 자살해서 중단되었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묻혀 버렸다고 말하자 양민혁 검사는 성추행이 없었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가 "김남규"(조한철역) 중수부장을 찾아가 대한은행 매각사건 수사를 종결했는지 묻고 박수경이 금융감독원 최민규와 내연관계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둘 다 사망했다면서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아니라고 항변하자 중수부장은 아직 징계받지 않았는지 되묻는다. 양민혁 검사가 점심을 마치고 서울지검으로 귀소하는데 게시판에 정직1개월 징계처분을 바라보고 공고문을 찢는다.

양민혁 검사가 경찰서를 찾아가 트럭운전수 조사결과를 듣고 경찰에게 5월16일 당시 운전자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검찰에서 대한은행 초저가 매각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다. 김남규 중수부장과 최재관 검사가 스티브정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BIS(국제결제은행) 조사후에 김상철이 민정수석으로 들어 간후 중단되었다고 "검찰총장"(이성민역)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끝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한다. 김나리가 "김박사"(남명렬역)를 만났을 때, 김박사는 스타펀드 먹튀논란으로 여론이 징벌적 매각을 하라는 의견이라고 말한다. 그때 "이광주"(이경영역) 전 총리가 집으로 찾아 오자 김나리는 이광주에게 다보스 포럼에 가는 것을 축하한다. 이광주가 신문을 보며 "서권영"(최덕문역) 변호사가 전현직 모피아가 IMF를 불렀고 대한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이광주가 서권영 변호사를 아는지 묻고 김나리는 자신이 인정하는 선배 변호사라고 답한다.

양민혁 검사가 서권영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대한은행 단순매각 반대 대책위원회를 찾아간다. 단식투쟁 14일째, 양민혁 검사가 몰래 먹을 것이라고 말하자 배영국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고 양민혁 검사가 곧바로 사과한다. 서권영 변호사가 자료를 양민혁 검사에게 보여주며 대한은행 매각당시 금융감독원 차장이 국장으로, 국장은

위원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하고 양민혁은 대가성 승진이라고 응한다. 그때 김나리가 서권영 변호사의 카페를 찾고 서권영 변호사와 김나리가 대화를 나눈다. 양민혁 검사가 두사람의 대화에 끼여 들자 김나리가 누구인지 묻는다. 서권영이 성추행 검사라고 소개하고 스타펀드는 처음부터 은행업 자격이 없었다고 말하며 스타펀드에서 BIS를 조작해 대한은행을 부실화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양민혁 검사는 팩스를 받은 사람이 최민규, 승인한 사람이 "임승만"(서현철역) 국장이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 박수사관에게 최민규와 임승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장수사관에게는 탐문조사를 지시한다. 서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친 김나리가 스타펀드회장에게 전화해 BIS조작을 묻는데 스타펀드 회장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PD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김나리는 질문지를 보내 달라고 말한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양민혁 검사가 김나리에게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나리는 무관심을 표명하고 돌아간다. 경찰은 양민혁 검사에게 사고트럭을 찾았는데 도난차량이었다고 운전자는 추적불능이라고 유선 보고한다. 양민혁 검사는 정직기간중 부모님의 횃집에서 일을 도와 주고 있다.

매각 심의 24일전, 정직기간이 끝난 양민혁 검사가 다시 출근하고 박수사관은 임승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는데 장수사관은 탐문결과 교회에서 평판이 좋았다고 보고한다. 양민혁 검사는 금융감독원 임승만 국장을 찾아가 최민규 차장이 떠난후 어디 있었는지 묻는데 임승만 국장은 끝난 사건인데 왜 그러는지 되묻는다. 임승만 국장은 달력을 보며 20일까지 유럽 출장중이었다고 말하고 6월7일에도 출장중이라고 답한다. 순간 비서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 임승만 국장이 확인하려 나가는 사이 양민혁 검사가 임승만 국장의 핸드폰을 복사한다. 검사실로 복귀한 장수사관이 막프로 성추행검사 딱지 떼기 위해 임승만 국장의 전화를 불법 감청한다고 말한다. 임승만 국장이 누군가와 통화중 서울지검에서 찾아 온 사실을 이야기 하자 남자는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MBS방송 취재수첩PD를 만나러 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 방송내용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자 PD는 방송보류와 함께 모든 자료를 가져 갔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가 방송국 사장이 나오는 것을 보고 취재수첩 방송보류를 묻자 "사장"(이재용역)이 정식공문 접수를 요구한다. 양민혁 검사는 성당 "신부"(정인기역)를 통해 김나리를 만난다. 양민혁 검사는 스타펀드에서 무엇인가 찢리는게 있어서 방송을 막았다고 추측한다. 양민혁 검사는 금융감독원으로 팩스보낸 사람이 박수경으로 타살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만큼 가십거리가 없고 취재수첩도 그래서 막은 것이라고 누명을 벗게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이광주 전 총리가 다보스포럼을 마치고 귀국한다. 김나리는 이광주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이광주는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전직대통령만 10명 넘게 만나고 왔다고 말한다. 김나리는 이광주에게 취재수첩에서 스타펀드 취재에 압력을 넣었는지 묻자 그런 방송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않된다고 말한다.

김남규 중수부장이 양민혁 검사를 불러 금융감독원을 찾아 간 이유를 묻는다. 양민

혁 검사는 대한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팩스를 보냈고 그것과 관련된 임승만 국장을 만났다고 말한다. 김남규 부장은 물증을 잡고 간 것이냐고 묻고 타킷을 조심해서 잡고 수사하는데 왜 나서서 설치하는 것이냐면서 사건에서 손떼라고 말한다. 김남규 부장이 통화하는 사이 양민혁 검사는 화이트 보드 수사자료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 버린다. 양민혁 검사는 서권영 변호사의 공동대책위를 찾는다. 단식투쟁 43일째, 쓰러진 위원장이 구급차에 실려 간다. 서권영 변호사는 스타펀드가 2003년에 대한은행을 인수하였고 2008년, 매각 실패후 정권교체 시점에 대한은행 매각을 추진했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서권영이 받은 CK로펌 초대장을 가지고 파티장을 찾는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는데 양민혁 검사는 자신을 서권영으로 소개하고 들어간다. 김나리는 파티에 참석한 CK로펌 고문들과 인사를 나누며 양민혁 검사에게 파티가 어떤지 묻는다. 양민혁 검사는 김나리가 인사한 사람들이 TV에 나왔던 사람들이 맞는지 묻는데 김나리는 고문들이라고 설명한다. 양민혁 검사는 자신에게 누명 씌운 사람을 찾는중이라면서 핸드폰 녹음기를 켜 뒤에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한다. 양민혁 검사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목소리를 기억한다고 말하는데 김나리가 불법도청을 하는 것이냐고 따진다. 양민혁 검사는 자신을 막프로라고 소개하자 김나리는 방송보류된 취재수첩 파일을 건넨다. 김나리가 양민혁 검사에게 검사의 눈으로 불법을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데 경호원이 양민혁 검사에게 파티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 양민혁 검사가 최고의 횃집을 알고 있다면서 김나리를 데리고 나간다. 양민혁 검사는 직접 회를 준비한 후 먹어 보라고 말한다. 수조에 펄떡이는 것은 양식이고 진짜는 냉장 숙성된 거라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김나리가 어떻게 CK로펌과 한편이 되었는지 묻는데 김나리는 유학할 때 미국 엘리트의 오만한 생각이 자신을 바꾸었고 세계최고 수준의 국제통상로펌을 만들겠다고 말한다. 김나리는 양민혁 검사에게 어떻게 검사가 된 것인지 묻고 양민혁 검사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로 탈바꿈되어 확인해 봤더니 사고친 놈이 고위층의 아들이었다고 회상한다. 양민혁 검사가 검사실에서 MBS방송 자료를 확인하는데 TV뉴스에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이 보도된다. 김남규 부장 사무실에서 수사회의중 검찰총장 뇌물 수수의혹 방송을 확인한다. 최검사가 스타펀드에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짓이라고 말하자 김남규 부장이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막을 것을 찾아 오라고 지시한다. 양민혁 검사는 방송자료를 갖고 중수부장실을 찾는다. 양민혁 검사는 방송보류된 파일로 스타펀드 수사 막으려는 거라고 말한다. 김남규 부장은 방송자료는 이미 본 것이라고 말한다. 테이블위에 해외송금액 서류가 놓여 있다. 김남규 부장은 양민혁 검사에게 CK파티에 간 이유를 물으며 수사에 기여드는 이유를 묻는다. 김남규 부장은 양민혁이 나타나면서 상대방에서 방어막치는 것라고 소리치는데 양민혁 검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대응하며 돌아선다. 양민혁 검사는 서권영 변호사를 찾아가 함께 방송파일을 확인한다. PD는 버진아일랜드에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 5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는데 모두 같은 주소지로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있다. 방송을 보던 서권영은

모두 바지사장으로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가 PD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에서 한국방송국은 상대도 안해주고 앓된다고 잘라 말한다.

매각심의 17일전, 서권영 변호사는 단식중인 배영국 위원장의 사망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방송국 PD를 양민혁 검사에게 소개한다. 순간 김나리가 신부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는다. 신부는 김나리가 배영국 위원장과 같은 성당에 다녔다고 말하며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배영국의 아들이 엄마가 돌려주라고 했다면서 돈을 돌려준다. 양민혁 검사는 김나리에게 스타펀드와 금융감독원이 결탁해 증거를 덮기 위해 사람을 돌이나 죽였다고 말한다. 김나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한다. 김나리는 이광주를 찾아가 스타펀드 법률자문으로서 BIS조작이 사실인지 묻는데 이광주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한다. 장수사관은 양민혁 검사가 준 목소리 파일 성분분석 결과 모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다. 박수사관은 해외가족들에게 300만원을 송금했는데 환율이 올라 94.645달러, 10만원 손해 봤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회의실에서 보았던 서류를 상기하며 최재관 검사에게 전화해 최검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밥 사겠다고 말한다.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나간후 몰래 들어간 양민혁 검사는 자금납입현황서류를 찾는다. 양민혁 검사가 서류를 보며 위의 숫자는 떨어지는데 아래 숫자는 소수점으로 떨어지게 복잡하다고 박수사관에게 말하자 박수사관이 200억, 500억으로 딱 떨어진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돈이 한국에서 달러로 나간후에 다시 들어온 것이라면서 돈의 주인이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장수사관은 스타펀드는 고작 1600억 넣고 70조짜리 은행을 통째로 먹은 말뿐인 해외투자라고 분노한다. 장수사관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나온 돈은 주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한군데 있다면서 PD를 찾아가는데 PD가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한국인 명단을 양민혁 검사에게 보여 준다. 양민혁 검사는 200억 투자자의 최대식 주소지가 강원도 산골이라는게 너무나 수상하게 여긴다. 양민혁 검사에게 팩스를 보내 납입대금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갔다가 돈세탁이 되어 다시 들어 온 것이라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와 장수사관은 최대식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자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두드린다. 임승만 국장이 불을 켜고 양민혁 검사가 최대식이 누구인지 묻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한다. 양민혁 검사가 임승만 국장을 임의 동행해 서울로 이동한다. 임승만 국장은 불법연행이라고 말하는데 순간 트럭 경적이 울리며 앞지르기를 한다. 잠시후 트럭이 도로를 막아서고 양민혁 검사가 차에서 내려 트럭쪽으로 걸어가는데 트럭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을 한후 자동차를 받아 버린다. 자동차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트럭은 도망하지만 추락전 임승만 국장과 장수사관은 탈출에 성공한다. 김나리는 이광주를 찾아가 대한은행에 한국인이 투자했는지 묻는데 이광주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에 균열이 갈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한다. 검찰로 돌아온 양민혁 검사는 임승만 국장을 조사한다. 양민혁 검사가 그 놈들

이 임승만을 죽이려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최검사가 사무실로 들어와 임승만은 자신쪽 참고인이라고 데려가 버린다. 박수사관은 별장 전 주인인 최대식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말한다. 박수사관이 최대식은 육군 중사출신으로 직업이 없었다고 말하자 양민혁 검사는 분명히 차명일 것이라고 돈주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박수사관에게 명단에 나온 다른 사람의 신원을 조사하라고 말한다.

매각 15일전. 양민혁 검사는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받는다. "강기춘"(문성근역) CK로펌 대표는 양민혁 검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강기춘은 국내에 3병만 들어온 3억짜리 술을 한잔 따른다. 강기춘은 양민혁 검사에게 CK로펌으로 들어 오라고 유혹하며 연봉 20억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순간 비서가 VIP전화를 안내하고 강기춘은 양민혁 검사의 선택에 따라 서권영 변호사의 구속정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양민혁 검사가 서권영 변호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서권영 변호사는 빌려준 돈인데 탈세신고가 들어 왔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강기춘이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 다음날 양민혁 검사는 장수사관이 입원한 병실에서 일어난다. 장수사관이 양민혁 검사가 술에 취해 사직서를 쓰고 자신의 여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한다. 장수사관은 양민혁 검사에게 모든 결정은 막프로의 마음이지만 자신의 여생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서권영은 양민혁 검사에게 검찰에 출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양민혁 검사는 사직서를 찢어 버린다. 박수사관이 최대식을 조사하니 본인외에 가족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지적장애자, 양로원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장수사관이 최대식의 친인척을 조사하니 최대식의 고모가 최미자이고 최미자가 이광주의 전부인이었다.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실타래가 풀려 나간다. 검찰총장이 뇌물수수 문제로 사퇴를 한다. 양민혁 검사가 김남규 중수부장실을 찾아가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 한다. 양민혁 검사는 놈들에게 증거인멸한 시간을 주면 안된다고 말하고 김남규 중수부장은 이광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묻는다. 양민혁 검사가 이광주는 집에 있다고 말하자 김남규 중수부장은 사후영장을 받고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지시한다. 이광주가 집에서 스타펀드 회장과 화상회의를 한다. 스타펀드 회장이 한국정부가 대한은행 매각을 지연시킨다면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다. 이광주는 사법부와 여론에서 저항하고 역풍맞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김나리에게 최대식 차명의 주인은 이광주 전 총리가 실제 투자자라고 말한다. 김나리가 이광주 집을 찾는다. 이광주는 모인 사람들과 자축을 하고 김나리는 돈을 투자한 것이 이광주 전 총리가 맞는지 묻는다. 이광주는 국가 주요은행을 해외자본에 넘겨 줄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김나리는 왜 처음부터 숨겼는지 묻는다. 김나리는 자신이 법률대리인지 범죄대리인은 아니라고 말하며 이제부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순간 검사들이 이광주 집에 도착해 이광주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한다. 이광주는 김나리에게 아버지를 만나 보라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이광주가 김나리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묻는다. 김나리는 자기에게 금

융위원회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제안한 사실을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오히려 잘되었다고 금융위원회에 들어가 위원들을 설득해 징벌매각으로 결정하라고 말한다. 이광주가 검찰로 이동하며 민정수석에게 전화하려 하자 양민혁 검사가 수사방해라고 전화기를 압수한다. 검찰청에 도착한 후 김남규 중수부장이 이광주를 직접 심문하겠다고 하면서 수갑을 풀어라고 지시한다. 이광주는 양민혁 검사에게 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가 청탁전화는 안된다면서 전화기를 돌려준다. 김남규 중수부장이 이광주에게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광주는 김남규 부장에게 정권이 세 번이나 교체되었는데 부시대통령이 왜 세 번씩이나 한국에 왔는지, 부시 대통령과 법률자문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김남규 중수부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차기 총장으로 밀어 달라고 말한다. 이광주는 스타펀드 스티브정의 조세포탈로 마무리 하고 출국금지는 해제해 달라고 조건을 건다.

매각 심의 1일전, 김나리는 김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아빠는 이광주와 우리는 한식구라며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김나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고 말을 한다. 양민혁 검사는 그동안 수사자료를 김나리에게 건네며 금융위원들을 잘 설득해 징벌매각으로 결정하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2011년 7월28일 매각심의, 양민혁 검사는 사건을 덮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김남규 중수부장을 찾는다. 중수부장은 양검사가 불법도감청, 지시불이행을 저질러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가는데 김남규 부장이 부하들에게 전화를 해 최검사와 조수사관이 양민혁 검사의 가방을 빼앗고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간다. 최검사는 양민혁 검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 보내는데 양민혁 검사가 박수사관에게 가방을 가져가라는 눈짓을 보내고 박수사관이 가방을 가지고 건물밖으로 나간다. 대한은행 단순매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한다. 금융위원들은 매각 심의를 위해 이동하고 김나리가 시위대를 바라본다. 금융위원회 대한은행 징벌매각에 대한 심의가 개최된다. 스타펀드 주식매각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고 위원들은 토론을 한다. 김나리 아빠가 전화를 하지만 김나리는 통화를 거부한다. 김나리 아빠가 급하게 김나리에게 이광주가 넣은 돈의 50%가 우리 돈이고 그 돈이면 CK로펌보다 더 좋은 로펌을 만들 수 있다는 문자를 전송한다. "금융위원장"(고인배 역)이 김나리의 의견을 묻는데 김나리가 양민혁 검사에게 받은 서류를 꺼내려다 내려 놓는다. 결국 대한은행은 단순매각으로 결정된다. 최검사는 양민혁 검사에게 사건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데 TV NEWS에서 단순매각 결정보도가 나온다. 양민혁 검사가 사무실을 뛰쳐나가 대기중인 박수사관의 차를 타고 출발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융위원들이 이동한다. 시위는 격렬해지고 현장에 도착한 양민혁 검사가 이동하는 김나리와 눈이 마주치지만 김나리는 모른척 자리를 떠난다. 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매각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기자들이 불법증거가 있는지 묻는다. 그때 양민혁 검사가 단상에 올라가 불법증거가 자신의 가방안에 있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결탁해 차명으로 돈을 투자하고 수사중지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중수부장 김남규가 중단 지시를 했다고 말한다. 그순간 최검사가 나타나 양민혁은 이미 검사가 아니라고 말하며 불법도감청, 지시불이행등의 죄를 지은 피의자라고 말한다. 양민혁 검사는 개인자격으로 정치검찰을 고발하고 이광주, 김국종 등 한국의 엘리트 경제관료를 고발한다고 고함을 지른다. 최검사와 수사관들이 막으려고 단상위로 올라오자 양민혁 검사는 가방속에서 증거자료들을 모두 뿌려 버린다.

2012년, 스타펀드는 대한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다. 스타펀드는 ISD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이 패할 경우 국민혈세부담은 5조3천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대한은행 매각으로 실질적으로 구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화는 끝이 났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악연으로 외환은행은 지방은행보다도 못한 중소은행으로 전략하고 결국 다른 은행에 인수되어 그 이름조차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영화 블랜머니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의 두꺼운벽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골리앗은 가장 작은 어린 소년 다윗이 날린 돌멩이 하나에 무너졌고, 가나안 지역의 튼튼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 소리에 무너져 내렸다. 정의와 공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살아 있음이 진실을 향하여 언제나 빛을 비추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이 왜곡되고 억울함이 묻혀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거짓과 속임수와 권력에 눈멀어서는 않된다.

44. “겨울왕국2”Frozen 2, 2019

미국영화, 장르:애니메이션,모험,가족,판타지,뮤지컬, 개봉:2019.11.21.

감독:크리스 벅(Chris Buck),제니퍼 리(Jennifer Lee)

제작:월트디즈니,

주연:크리스틴 벨(Kristen Bell,안나역),이디나 멘젤(Idina Menzel,엘사역)

조연:조시 게드(Josh Gad,올라프역),조나단 그로프(Jonathan Groff,크리스토프역),

스털링K 브라운(Sterling K. Brown,마티아스역),제이슨 리터(Jason Ritter,라이더역),

레이첼 매튜스(Rachel Matthews,허니마렌역),마샤 플림튼(Martha Plimpton,엘라나역)

에반 레이첼우드(Evan Rachel Wood,이두나역),알프리드 몰리나(Alfred Molina,아그

나트 왕역),마테아 콘포티(Mattea Conforti,어린 엘사역)

관객:8,788,019명(2019.12.02.기준)

아빠는 북쪽 끝에 아주 오래된 숲이 있는데 그곳에 바람, 물, 불, 땅의 정령이 있다고 말한다. 그곳에는 노털드라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숲의 정령들이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북쪽에 댐을 선물로 건설하였고 기공식에 참석할때만해도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아빠가 그곳은 마법과 같아서 숲속에서 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공격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싸움에 화가 난 숲의 정령들이 우리를 공격하였고 위기의 순간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아빠를 구해 주었다고 말한다. 그후 정령들은 사라지고 숲속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고 말한다. 아빠는 그날 아렌델로 돌아와 왕이 되었다. 엘사는 누가 구해 주었는지 묻지만 아빠는 알지 못했고 그 후 숲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온 사람도 없었다. 아빠는 정령들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두나는 엘사와 안나에게 자라고 말하고 안나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조른다. 엄마는 북쪽 노털드라에는 아토탄강에 대한 전승이 있다고 말한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는 아토탄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엄마는 자장가를 부르며 아토탄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엄마가 자장가를 부르며 아토탄강을 이야기 한다. 바다와 만나는 곳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아토탄강이 있다. 아토탄강에는 모든 답이 있고 깊고 투명한 목소리에 해답이 있다. 그 소리를 따라 깊이 들어가고 귀울이면 강의 소리가 들린다. 엄마가 엘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렌델의 가을, 엘사는 그곳에 엄마의 기억이 있다고 믿고 있다. 엘사는 바다를 바라 보다가 노래소리를 듣는다. 안나는 가을 들녘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올라프를 찾아간다. 올라프는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하지만 안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함께 있고 혼자가 아니라 좋다고 느낀다. 안나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은 너와 나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엘사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지금의 소중한 순간을 누른다. 바람이 쌀쌀해 지고 가을이 되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간다고 말한다. 엘사와 안나는 거리에서 만나 항상 널 위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크리스토프는 안나에게 프로포즈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한다. 성으로 돌아 온 후 엘사, 안나, 크리스토프, 올라프는 퀴즈게임을 하는데 올라프가 문제를 내고 크리스토프는 모든 문제를 맞춘다. 엘사가 단어에 맞게 동작으로 설명하는데 안나는 모두 오답이다. 그때 엘사는 노래소리에 귀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본다. 엘사는 피곤하다고 게임을 그만한다. 안나가 뒷정리를 하며 문제를 확인하는데 “얼음”이었다. 크리스토프는 안나뒤에서 프로포즈의 기회를 잡으려 한다. 크리스토프가 반지를 꺼내 프로포즈를 하려는데 안나가 키스를 하고 나간다. 안나는 엘사의 방을 찾는다. 엘사가 엄마의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엘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까 걱정하는데 안나가 위로하며 안심시킨다. 안나가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며 엘사에게 잠을 청하도록 한다. 잠깐 잠이든 엘사가 소음처럼 들리는 노래소리에 잠을 깨어 복도로 나온다. 엘사는 노래소리가 싫으니 그냥 내버려 둘 것을 요구한다. 엘사는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며 소중한 사람을 떠나기 싫다고 말한다. 엘사는 마법같은 자기 비밀을 알고 있는 불안한 세상으로 자기를 억지로 밀지 말라고 말한다. 엘사는 자신의 힘이 강해질수록 견디기 힘들고 마음이 깨어난다면서 어둡고 험난한 여정이라도 그곳에 가겠다고 다짐한다. 엘사가 바닷가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자 하늘에서 “바람과 물과 불과 땅의 정령”의 표식이 뜬다. 잠에서 깬 안나가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있다. 바람이 몰아치며 분수대의 물이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기 시작한다. 엘사가 다음은 땅의 정령이라며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아렌델 사람들이 놀라 집밖으로 나오는데 엘사와 안나는 사람들을 절벽위로 인도한다. 엘사는 안나에게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데 안나는 비밀없기로 약속했는데 그동안 숨긴 이유를 묻는다. 엘사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자신이 마법의 숲 정령들을 깨운 것 같다고 말한다. 안나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묻자 그렇게 느꼈을 뿐이라고 말한다. 잠시후 땅이 흔들리고 트롤들이 절벽으로 이동한다. 트롤 파비가 두 자매에게는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엘사에게 약한 마음으로는 숲의 정령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마음 단단히 하라고 말하며 잘못된 일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아렌델 모두가 위험해 진다고 강조한다. 안나는 파비에게 아렌델의 미래를 묻는데 파비가 볼 수 없다고 하며 보이지 않을때에는 지금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엘사의 힘이 강해서 문제였지만 이제는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엘사가 자신은 숲으로 갈테니 안나와 크리스토프는 아렌델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한다. 안나는 엘사에게 혼자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파비가 아렌델 사람들은 자신이 지킬 것이니 함께 가라고 말한다.

북쪽 마법의 숲, 엘사, 안나, 크리스토프, 올라프가 스벤의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난다.

엘사와 올라프가 잠들었을 때 안나가 크리스토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데 크리스토프가 프로포즈하려 했는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그때 엘사가 노래소리에 잠이 깬다. 엘사가 마차를 멈추고 노래소리 방향으로 걸어간다. 크리스토프와 올라프는 안개쪽으로 걸어가다가 튕겨 나온다. 엘사가 손을 뻗으니 안개가 걷히고 입구가 나타난다. 엘사가 이제 혼자가겠다고 말하지만 안나는 끝까지 함께 가려 한다. 엘사와 안나와 크리스토프와 올라프와 스벤이 안개속으로 들어가자 바람이 등을 떠밀고 숲속에서 입구는 막혀 버린다. 엘사가 본 마법의 숲은 아름다웠다. 모두 흩어져 숲속을 찾는다. 안나와 크리스토프는 할아버지가 만든 댐을 바라본다. 안나는 댐이 아직도 견재함을 보고 놀란다. 크리스토프는 댐이 무너지면 아렌델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순간 크리스토프가 안나에게 프로포즈하려는데 말이 헛나온다. 안나는 엘사가 보이지 않아 소리를 지르자 엘사 주위를 맴돌던 것이 사라진다. 올라프는 숲에서 길을 잃고 엘사와 안나를 찾는다. 올라프는 마법의 숲으로 온 이유를 나이가 들면 알게 될지 궁금해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고 노래한다.

바람의 정령, 바람의 정령 게일은 회오리를 일으키며 올라프를 날려 버린다. 회오리는 이동하며 엘사와 안나와 크리스토프와 스벤까지 날려 버린다. 엘사가 바람의 정령과 싸우지만 안나와 크리스토프와 스벤과 올라프는 회오리 밖으로 튕겨 나간다. 안나가 땅으로 내려와 힘을 집중하여 바람의 정령의 회오리를 중지시킨다. 엘사의 힘이 사방으로 퍼져 간다. 공기중의 물이 얼면서 오래전에 숲에서 있었던 일들이 스크린으로 나타난다. 안나는 얼음형상에서 아빠의 어릴 때 모습을 발견한다. 엘사가 물은 이곳의 노덜드라 사람이 아빠를 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래소리가 다시 들리고 엘사는 떠나려 한다. 풀숲에서 움직임을 발견한 안나가 얼음칼을 들고 노덜드라 사람과 아렌델 군인들이 양 진영에서 싸우려 한다. 엘사가 마법으로 빙판을 만들어 서로를 멀리 떨어지게 한다. 엘사가 마법을 쓰고 올라프가 이야기를 하며 나오자 노덜드라 사람들과 아렌델 군인들이 놀란다. 올라프가 자신을 소개하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 한다. 올라프가 엘사는 아렌델의 여왕이고 과거의 진실을 찾으러 이곳에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엘라나가 노덜드라 사람들은 결백하다고 말하는데 매티어스 중위가 먼저 공격한 것은 그쪽이라면서 대치를 계속한다. 엘사가 노덜드라와 아렌델의 싸움을 중지시킨다. 매티어스가 아그나르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한다. 엘사는 6년전, 남해에서 배가 침몰해 운명하셨다고 전한다. 매티어스가 연로하지만 우리는 아렌델의 군인으로 엘사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엘사는 엘라나에게 누가 자신들을 불렀는지 알려 달라고 말하자 노덜드라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연이라고 답한다.

불의 정령, 그 때 불의 정령의 나타나 불을 지르며 사람들을 쫓아 버린다. 불이 번져가자 엘사가 얼음으로 불을 꺼버린다. 라이더가 순록들이 달려간 쪽은 막다른 길

이라고 말하자 크리스토프가 스벤을 타고 달려간다. 안나는 엘사가 남아서 불을 끄는 것을 보고 엘사에게 다가가다 불길에 휩싸인다. 순록들을 데리고 오던 크리스토프가 안나를 발견하고 구출한다. 엘사는 얼음으로 불을 끄고 불의 정령을 따라간다. 바위틈에서 갇혀있는 불의 정령의 모습이 나타난다. 엘사가 등에 불이 붙은 브루니를 발견하고 서로 다가간다. 엘사는 얼음으로 브루니의 등에 난 불을 꺼버린다. 다시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브루니가 달려가다 엘사를 돌아보고 엘사는 브루니를 따라간다. 안나가 엘사를 보고 달려와 껴 안는다. 안나는 엘사에게 위험하게 불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린다. 엘사는 엄마의 스카프를 안나의 어깨에 둘러 주며 안심시킨다. 스카프를 본 엘라나와 허니마렌이 노덜드라 가문의 스카프라고 말한다. 안나와 엘사가 얼음형상에 남아 있는 문양과 스카프를 비교하고 얼굴을 확인하고 그때 아빠를 구해준 것이 엄마였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엘사는 사람들 앞에서 엄마 이두나는 노덜드라 사람이라고 알려 준다. 노덜드라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잡고 노래를 부른다. 엘라나는 엘사와 안나의 손을 잡고 노덜드라인은 태양의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라이더는 크리스토프에게 숲의 저주를 듣고 아렌델에서 찾아온 것인지 물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바위거인, 다시 노래소리가 들려오자 엘사가 떠나려 한다. 엘라나는 엘사를 붙들고 밤에는 바위거인들이 다닌다고 말하며 허니마렌 또한 이곳에서 자고 새벽에 가라고 부탁한다. 크리스토프는 안나에게 고백하려는데 생각처럼 말이 잘 안된다고 말하자 라이더가 좋은 방법이 있으니 따라 오라고 말한다. 매티어스 중위와 안나가 이야기하는 중에 매티어스가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다. 안나가 매티어스에게 보고 싶은 사람을 묻자 매티어스가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다고 말한다. 안나가 모두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한다. 허니마렌은 엘사의 스카프를 보고 스카프에 있는 문양에 대해 설명한다. 허니마렌은 다섯 번째 정령이 있는데 숲의 정령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엘사와 허니마렌은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다가 허니마렌이 아토탄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때 바위거인이 움직이면서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고 몸을 숨긴다. 엘라나는 바위거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근처까지 오자 엘사가 나무뒤에 숨어서 지켜본다. 잠시후 엘사가 바위거인을 따라 가려하자 안나가 엘사의 팔을 붙잡지만 엘사는 목소리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 떠나겠다고 말한다. 안나가 크리스토프를 찾는데 엘라나가 라이더를 따라 같이 갔다고 말한다. 라이더가 크리스토프에게 순록들의 도움을 받아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안나로 착각하고 프로포즈를 하며 청혼을 한다. 엘라나가 다가와 싫다고 말하며 공주는 먼저 떠났는데 지금 가도 못만날거라고 말한다. 엘라나가 우리들은 서쪽 레이켓 초원으로 갈건데 같이 가자고 말한다. 크리스토프가 라이더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후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속마음을 노래로 전한다. 크리스토프가 안나와 헤어져 있어도 내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숲에서 길을 잃고 실망한다. 크리스토프는 운명의 신호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한다.

아렌델 난파선, 엘사와 안나와 올라프가 숲속을 걸어 가던중 바람의 정령 게일이 안나와 엘사를 안내한다. 엘사와 안나는 해안에서 난파선을 발견한다. 엘사가 난파선의 깃발을 보고 아빠와 엄마가 타고간 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엘사와 안나가 배안을 둘러보며 안나가 엄마아빠가 남해로 갔는데 북해에서 발견된 것인지 묻는다. 안내는 아렌델의 배에서 방수되는 사물함을 찾는다. 안나가 사물함을 찾아 노덜드라의 언어로 된 문서와 엄마가 쓴 메모를 발견한다. 메모에는 빙하가 끝나는 곳, 엘사 마법의 근원이라고 적혀 있다. 엘사는 엄마아빠가 북쪽 어둠의 바다를 건너 가려던 곳이 아토할란 마법의 강이었다고 말한다. 엘사가 물은 그때를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 엘사는 침몰직전 엄마아빠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 엘사가 배 밖으로 나가며 눈물을 흘린다. 안나가 엘사에게 다가가 위로한다. 엘사는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것을 찾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한다. 엘사가 마법은 저주라고 슬픔에 잠긴다. 안나는 노덜드라와 아렌델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엄마가 적인 아빠를 구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라고 위로한다. 엘사는 아렌델과 마법의 숲을 위해 다섯 번째 정령을 찾겠다고 말한다. 엘사는 아토할란이 자신을 부른다며 혼자 가려 하는데 안나가 함께 가려 한다. 안나는 엘사에게 모두를 위해 무모한 희생은 하지 말라며 언니를 도울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엘사는 안나와 올라프를 안아 준다. 엘사는 안나와 올라프를 얼음보트에 태운 후 반대방향으로 떠나 보낸다. 안나는 올라프의 팔로 얼음보트 방향을 돌리는데 보트는 강으로 떨어진다. 물이 흐르는 곳으로 내려가던 안나는 바위거인들이 물가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보트방향을 터널로 돌린다. 안나와 올라프는 터널 안쪽에 있는 폭포아래로 떨어져 물밖으로 걸어 나온 후 동굴 안쪽 길로 간다.

물의 정령, 엘사는 어둠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신발과 망토를 벗어 던진다. 엘사가 바다를 향해 달려 가는데 파도가 엘사를 육지로 밀어낸다. 엘사도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계속 돌진한다. 물의 정령이 말의 형상으로 나타나 엘사를 공격한다. 엘사는 얼음으로 물의 정령과 싸우며 헤엄친다. 엘사가 수면위로 올라가자 물의 정령은 엘사를 아래로 끌어 당긴다. 엘사는 물의 정령을 얼린후 얼음을 만들어 위로 올라간다. 물의 정령이 달려 오자 엘사가 얼음 고삐를 만들어 물의 정령의 입과 머리에 건다. 엘사는 물의 정령 등에 올라 타 제압한다. 엘사가 물의 정령을 타고 어둠의 바다를 건너 가는데 멀리서 아토할란의 빙하가 보인다. 엘사가 아토할란의 강이 빙하가 된 얼음의 강이라고 말한다. 엘사는 아토할란에 도착해 노래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한다.

아토할란, 엘사는 노래소리가 들리는 빙하속 터널로 향한다. 엘사는 준비되었으니

아토할란이 기억하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 달라고 말한다. 노래소리가 들리고 불빛은 안쪽으로 이동한다. 엘사는 불빛을 따라 얼음터널 안으로 이동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빙하의 눈회오리가 몰아치고 사라진다. 엘사의 눈앞에 여러 기억들이 회복된다. 엘사는 들려오던 노래소리가 엄마의 노래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엘사는 할아버지 로나드 왕의 모습을 발견하고 따라간다. 로나드 왕은 군사에게 마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것이라고 아렌델의 병력을 데리고 가라고 지시한다. 로나드 왕은 댐을 완성하면 땅의 지력이 약하게 되어 노덜드라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로나드 왕이 군사들에게 노덜드라 사람들과 병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노덜드라 족장이 로나드 왕에게 댐은 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로나드 왕이 방법을 찾아 보자고 말한다. 노덜드라 족장이 기도하는 사이 로나드 왕이 공격을 한다. 엘사는 마법의 숲이 안개에 갇히게 된 것은 결국 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엘사의 몸이 얼어 붙기 시작하자 엘사가 안나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얼음을 날린 후 얼어 버린다. 올라프와 걸어 가던 안나앞에 엘사가 보낸 메시지가 나타난다. 안나는 댐이 선물이라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안나는 숲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댐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댐을 파괴하면 아렌델이 물에 잠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고민한다. 이 때문에 정령들이 왕국을 비우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간, 올라프의 몸에서 떨어진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하며 올라프의 몸이 사라지고 있다. 올라프가 엘사의 마법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엘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올라프는 이제 안나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안나는 슬퍼한다. 안나가 올라프를 안아 주자 올라프가 눈송이가 되어 하늘로 날려 간다. 안나는 엘사와 올라프가 없는 지금 이순간 절망하며 막막해 한다. 이런 어둠과 빛이 없는 공허함은 처음이라 포기해야 하는건지 망설이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듣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다짐한다. 안나는 절벽위로 올라가 동굴을 나와 멀리 보이는 댐을 바라보며 숲속으로 달려간다. 안나가 바위거인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고 소리친다. 바위거인들이 안나의 소리를 듣고 그녀를 잡기 위해 바위를 던진다. 안나는 소리치며 댐을 향해 달려 간다. 매티어스 중위와 군인들이 안나가 바위거인들을 댐으로 유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댐위로 이동한다. 달려가던 안나가 넘어지고 바위거인이 밟으려 하자 크리스토프와 스벤이 나타나 안나를 태우고 달려 가는데 안나가 댐으로 가자고 말한다. 댐아래에 도착한 안나가 위로 올라간다. 안나가 위로 올라가자 매티어스 중위가 앞을 막는다. 안나는 로나드 왕이 모두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하며 엘사는 모두를 위해 희생하였다고 말한다. 매티어스 중위가 방패를 두드리며 바위거인을 유인한다. 안나는 다리위로 올라가 바위거인들을 유도한다. 바위거인들이 바위를 던져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댐에서 안나는 절벽위로 뛰어넘자 매티어스 중위와 크리스토프가 안나를 끌어 당겨 올린다. 댐이 무너지면서 하늘에서 숲의 정령의 빛이 나타나 얼어버린 엘사의 몸을 녹이고 엘사가 있는 빙하까지 부서진다. 엘사가 바다속으로 빠져 들어가자 물의 정령이 엘사를 향하여 달려간

다. 엘사는 물의 정령을 타고 바다위를 타고 아렌델까지 질주한다. 절벽위 아렌델 사람들이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본다. 엘사는 파도가 아렌델을 삼키기 전에 아렌델에 도착한 후 거대한 얼음방벽을 만든다. 엘사가 만든 얼음방벽에 거대한 파도가 막히고 엘사는 파도를 제거한다. 아렌델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엘사는 다시 물의 정령과 함께 북으로 돌아간다.

마법의 숲에 안개가 걷히고 사람들은 기뻐한다. 안나는 크리스토프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크리스토프는 우리 사랑이 그 정도에 무너지지 않다면서 위로를 한다. 매티어스 중위와 엘라나가 안개가 걷힌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스벤은 순록들과 초원을 달리며 좋아한다. 안나앞에 얼음이 나타나고 안나는 얼음을 따라 해안으로 달려 간다. 멀리 바다에서 달려오는 엘사를 발견하고 서로 안으며 기뻐한다. 안나는 변한 엘사의 모습을 보고 언니가 맞는지 확인한다. 엘사가 아렌델은 무사하다고 말한다. 엘사가 아렌델은 안나가 지키기로 정령들과 약속했다고 말한다. 안나는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이라고 기뻐하며 엘사가 안나에게 눈사람을 함께 만들자고 말한다. 엘사가 올라프의 눈송이들을 불러 모으고 안나가 가방속에 보관하던 올라프의 팔과 코를 붙여 준다. 크리스토프는 안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청혼하고 안나는 청혼을 받아 들인다. 엘사는 모두에게 아렌델은 무사하고 아토할란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며 허니마렌은 다섯 번째 정령인 엘사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말한다. 안나는 아렌델의 여왕으로 즉위한다. 스벤, 올라프, 크리스토프가 옷을 멋지게 입었다. 안나는 가죽옷 입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고, 아렌델로 돌아온 매티어스 중위는 가족을 만나 이야기 꽃을 피운다. 안나는 엄마아빠의 동상을 건립하고 땅도 사람도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한다. 바람의 정령 게일이 안나 주변을 날아 다닌다. 안나가 엘사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게일에게 건네고 안나의 편지는 엘사가 있는 마법의 숲으로 날아간다. 엘사가 안나의 편지를 받고 물의 정령을 얼려 금요일 밤 무도회장으로 마법의 숲을 달려간다.

영화는 끝이 났다. 2003년, 10,296,101명(2019.12.02.)의 관객을 사로잡은 겨울왕국 1편에 이어 6년만에 돌아온 겨울왕국 2편도 전세계를 강타하며 천만관객을 향하여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스스로도 정령인지 알지 못했던 엘사가 다시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숭고한 삶이 동생인 안나와 함께 펼쳐진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일 때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럽다는 당연한 말이 새삼 새롭게 들린다. 그리스도인은 동화같은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여왕2편에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거는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위기와 상황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라 실천의 모범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45. “엔젤 해즈 폴른”Angel Has Fallen, 2019

미국영화, 장르:액션,스릴러, 개봉:2019.11.13.

감독:릭 로먼 워(Ric Roman Waugh),

제작:제라드 버틀러(Gerard Butler)외,

주연:제라드 버틀러(Gerard Butler,마이크배닝역),모건 프리먼(Morgan Freeman,트럼프 대통령역)

관객:180,508명(2019.12.03.기준)

1. 백악관 최후의 날2013(Olympus Has Fallen)

감독:안톤 후쿠아, 개봉:2003.06.05.

주연:제라드 버틀러,모건프리먼,아론 에크하트,릭윤,멜리사 레오,라다 미첼,

관객:181,257명

마이크 배닝은 과거에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성탄절 연휴 밤에 대통령 내외를 호위중 영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책임으로 현장직에서 퇴출되었다. 18개월후,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한 벤저민 애셔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문제 논의를 위해 방문한 한국 국무총리 일행을 맞이 한다. 회의 도중 워싱턴 상공에 AC-130이 출현하여 무차별 공습중 격추되면서 워싱턴 기념탑에 날개가 걸려 탑 상단부가 손상을 입는다. 행정직으로 전환한 마이크가 백악관으로 달려가고 대통령과 각료들이 방문단과 함께 지하벙커에 피신한다. 북한계 테러리스트들이 한국방문단 측 경호원들로 위장침입해 대통령과 각료들이 곧바로 인질이 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다. 백악관 외부에서 대기하던 북한공작원들과 반미세력들이 가방에서 중화기를 사용하여 일제히 진격하던 중 마이크도 백악관 안으로 진입하여 테러리스트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백악관을 장악한 테러리스트의 두목 강연삭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트럼볼 하원의장과 각료들에게 DMZ와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철수와 제7함대의 철수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핵무기 자폭시스템인 서버리스 코드를 요구하는데 이것으로 미국 본토내 핵탄두를 자폭시켜 미국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음모를 드러낸다. 트럼볼의 협조아래 마이크는 강연삭을 처단하고 서버리스 시스템 작동직전에 정지시켜 미국을 구조한다.

2. 런던 해즈 폴른2016(London Has Fallen)

감독:바박 나자피, 개봉:2016.03.10.

주연:제라드 버틀러,모건프리먼,아론 에크하트,

관객:731,683명

2016년 3월, 영국 런던에서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한다. 영국 수상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전세계 28개국 정상들이 런던에 도착한다. 역사상 가장 치밀한 보안태세가 유지되던 런던 중심가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쟁과 같은 초대형 테러가 발생하여 5개국 정상이 곧바로 희생되고 미국 대통령이 납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대통령 경호원 마이크 배닝과 M16특수부대가 정체불명의 테러조직과 전쟁같은 혈전을 벌인다. 문제는 엄청난 화력과 병력을 가지고 런던 시내를 활보하기 까지 영국 정보기관의 역할은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이다. 근위병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에 의해 독일 총리가 총살당하고 첼시교에 있던 일본 총리는 교량 폭파로 템즈강에 침수된다. 강변 선착장에 있던 배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자폭테러로 사망하고 이탈리아 총리는 내연녀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종탑이 무너져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그러나 M16 요원이었던 테러리스트가 CC-TV차단코드를 입력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접속후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잊어 버렸던 것이 단서가 되어 중동 무기상들의 테러는 마이크에 의해 하나씩 일망타진되며 종식된다.

3. “엔젤 해즈 플른”2019

“마이크 배닝”(제라드 버틀러역)은 “웨이드 제닝스”(대니 휴스턴역)가 운영하는 세일리언트에서 탈출훈련을 한다. 마이크가 숨어서 대항군을 공격하며 2층으로 내려간다. 계단에서 마주한 “브루노”(로시 윌리엄스역)를 공격하고 1층으로 내려간다. 헬기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건물외곽으로 나온 마이크는 대항군을 제거하고 이동한다. 마이크가 나오자 밖에서 총을 겨누던 “웨이드 제닝스”(대니 휴스턴역)는 총을 쏘고 상황은 종료된다. 웨이드가 아직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없었는데 코스를 묻는다. 마이크는 자신이 착용한 헬멧과 장비를 “트레비스 콜”(프레드릭 슈미트역)에게 벗어준다. 웨이드는 냉전시대 미사일 생산지라고 말한다. 웨이드는 용병업체가 아프간에서 민간인 사고로 계약 해지되고 지금은 훈련계약으로 겨우 유지한다고 말한다. 웨이드는 “데이비드 젤트리”(렌스 레드릭역)가 퇴임하면 후임으로 마이크가 비밀경호국 국장이 되는지 묻고 웨이드는 특별작전 훈련계약을 한다면 나아질 거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웨이드에게 워싱턴에 오면 스테이크 먹자고 말하며 헤어진다. 마이크의 집으로 귀가한 가방을 내려놓고 “레아”(파이버 페라보역)를 찾는다.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마이크가 진통제를 다시 꺼내 먹는다. 레아는 마이크에게 훈련장을 묻고 마이크는 웨이드가 훈련장을 구입했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현대간호법을 보고 복직을 묻고 레아는 그럴 생각임을 밝힌다. 다음날 마이크는 제임스라는 가명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한다. 의사는 목 C3과 C5 척추 사이의 압박이 심하고 척추손상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다.

“앨런 트럼불”(모건 프리먼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한다. 데이비드와 마이크는 함께 대통령을 경호한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용병업체에 관한

질문을 한다. 헬렌 기자가 대통령에게 AUMF개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트럼볼 대통령이 분명한 옵션을 만들겠다고 말한다. 스티브 기자는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 군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트럼볼은 G20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한다. 스티브 기자가 백악관에서 민간용병을 파병부대 보완책으로 사용한다는 소문을 묻자 답을 피한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모들이 회의를 한다. 샘은 언론에 하위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트럼볼 대통령은 선기기간동안 민간용병 기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며 피곤함을 드러낸다. "커비"(팀 블레이크 넬슨역) 부통령은 용병기업의 절반은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며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싸우는 것이라면서 정보누출자 만큼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볼은 우리 잘못이라면서 현상유지 기간이 충분하다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웨이드 제닝스가 마이크의 집을 찾는다. 레아는 마이크와 웨이드가 얼마나 같이 근무한 것인지 묻는데 마이크가 군대시절 4년정도 같이 근무했다고 말한다. 군대앞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 있었는데 "모"라는 이름의 주인이 매일 5마일을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을 보고 대대원들을 모금하여 차를 사주었다고 말한다. 마이크가 통증을 호소하며 국장직을 자신에게 제안해도 지금은 못할 것 같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신임국장에게 웨이드에 대해 잘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TV에서 러시아 군비확장 뉴스가 나온다. 레아는 마이크가 지쳐 있다면서 이야기 하려 하는데 마이크가 아침은 사무실에서 먹겠다고 며칠후에 이야기 하자고 선을 긋는다. 경호원들이 호수 주위를 경계하고 배닝은 이상없다는 보고를 받는다. 마이크는 트럼볼에게 낚시는 좋지만 쉼다고 말한다. 트럼볼이 마이크에게 국장직 지원은 마이크 생각인지 레아 생각인지 묻는데 마이크는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말한다. 트럼볼은 신임국장으로 마이크를 임명하겠다고 말하고 마이크는 최선을 보답하려 한다. 트럼볼이 마이크의 얼굴을 보고 사형선고의 표정이라면서 며칠 여유를 줄테니 집에 가서 레아와 의논하라고 말한다. 순간, 마이크가 통증으로 휘청한다. 트럼볼이 마이크에게 다른 사람과 교대하고 쉬어라고 말하는데 마이크가 괜찮다고 말하고 트럼볼 또한 가라고 말한다. 마이크가 "머피 요원"(오리 페퍼역)과 교대하고 돌아간다. 호수 건너편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남자들이 드론을 대통령 방향으로 날려 보낸다. 강가에서 경호원들이 물체를 보는데 마이크가 드론을 확인하고 머피에게 보호덮개로 대비하라고 지시한다. 경호원들이 드론을 총으로 사격하자 지상으로 추락하며 폭발한다. 마이크는 머피에게 드론이 추적하고 있으니 보호덮개를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다. 경호원들이 사격하지만 드론이 너무 작아 파괴가 안된다. 공격에 경호원들이 쓰러지고 드론이 마이크의 신원확인을 하고 공격을 멈춘다. 마이크가 드론을 사격하며 대통령 보트쪽을 향한다. 드론으로 경호원 머피의 신원을 확인하고 돌진한다. 마이크가 머피에게 드론이 간다면서 대통령을 물로 피신시키라고 말한다. 머피가 대통령을 물에 빠뜨리고 죽는다. 마이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트럼볼 대통령으로

향한다. 마이크가 트럼볼에게 더 깊이 잠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더 깊이 내려가는데 드론이 수면에서 폭발한다. 드론공격에서 벗어난 트럼볼과 마이크가 후송되고 공격자들은 현장에 자동차와 유류품을 버려두고 떠난다.

레아가 커피숍에서 트럼볼 대통령이 공격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병원으로 향한다. 데이비드 젤트리 국장은 대통령의 병환을 확인하고 경호에 들어간다. 병원의 안전을 확인하고 의료진은 대통령과 마이크를 병실로 이동한다. FBI "툼슨"(제이다 핀켓 스미스역) 요원은 존슨 요원과 테러 현장을 찾아 "피터슨"(샤피르 아줄레이역)에게 호수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커비 부통령이 병원에 도착해 트럼볼 대통령의 병환을 확인한다. "시베르츠"(스튜어트 맥쿼리역)박사가 대통령이 헬기이송중 혼수상태였고 현재 뇌손상은 없지만 지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샘 월콕스"(마이클 랜디스역)는 마이크 배닝외에 모든 요원들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한다. 커비가 마이크의 상태를 묻자 의사가 마이크도 현재 무의식상태지만 반응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샘 월콕스가 커비 부통령이 밖으로 나오자 펜실베니아 동부지구의 스파이어 판사를 소개하고 커비는 이 선서가 형식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스파이어 판사는 부통령에게 성경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선서를 하라고 말하고 커비는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며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여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한다.

호수 테러현장에 도착한 FBI요원 존슨은 "라미네즈"(조셉 밀슨역) 요원으로부터 호수인근 1.5km지역에서 버려진 전자기 장비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존슨과 톰슨요원이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할 것을 지시한다. 병원에서 데이빗 젤트리 국장은 사고소식을 들은 레아와 린을 만나 마이크가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데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쉽터로 안내한다. 의식을 회복한 마이크가 깨어나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보고 이유를 묻는다. 기다리던 FBI 톰슨 요원과 존슨요원이 병실로 들어와 헬렌 톰슨 요원이 이름과 소속을 묻는다. 마이크가 비밀경호국 경호원이라고 신분을 밝힌다. 톰슨요원이 마이크에게 세인트메튜스병원에 온 것을 기억하는지 묻고 마지막 기억을 다시 묻는다. 마이크가 머피와 대통령을 떠올리고 대통령의 안전을 묻고 가려하는데 톰슨이 호수에서 있었던 일을 묻고 대통령께 가는 것을 막는다. 쉽터가 아닌 조사실에 앉은 레아를 헬렌 톰슨이 조사를 한다. 레아는 몇시간동안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며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다고 딸 린을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다. 레아가 남편을 만나려 하자 톰슨은 되려 레아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하고 마이크의 해외계좌에 천만달러가 있는데 알고 있는지 추궁한다. 병실에서 톰슨 요원은 현장의 자동차에서 마이크의 DNA가 검출된 이유를 묻는다. 피부세포, 머리카락 등이 발사 컨트롤에 있었다고 말하고 같은 종류의 폭발 잔류물이 마이크의 차고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다크웹에서 마이크의 암호화된 폴더를 찾았는데 폴더에는 분류된 지도와 호수여행을

위한 경호일정이 들어 있었다고 추궁한다.

다시 조사실에서 톰슨은 레아에게 마이크가 신분을 속이고 6개월 동안 의사 4명을 만나 진료를 받고 현찰로만 결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다시 마이크의 병실에서 톰슨은 여행기간 동안 드론배치를 위해 제어장치가 자동으로 유지되었다고 말한다. 톰슨은 현장 안면인식시스템에 다른 요원들의 신분은 있었는데 마이크의 신분정보만 삭제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마이크가 이것은 조작된 모함이라고 항변하는데 톰슨은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레아의 조사실에서 톰슨에게 레아는 마이크는 이미 비밀경호국장으로 내정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톰슨은 바로 그 때문에 마이크가 일을 했고 누군가 돈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추궁하며 그 사람을 찾으려 도와달라고 말한다. 병실에서 톰슨요원이 마이크를 대통령 암살 미수 및 경호원 살인죄로 기소하겠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대통령이 진실을 말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말한다. TV에서 기자들이 트럼볼 대통령의 최고 수호천사가 오늘 밤 떨어졌다고 보도한다. FBI요원들이 마이크 배닝을 무장한 이송차에 태워 이동한다. 레아가 귀가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한다. 레아가 집에 도착하고 FBI요원이 톰슨에게 보고한다.

호송차량을 미행중인 자들이 호송차량을 해킹한후 자동차의 메인보드를 꺾는다. 호송차량의 시동이 꺼지면서 3대가 멈춘다. 경찰차량이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뒤집혀진다. 괴한들이 경찰을 사살하고 마이크 배닝을 끌어 내린다. 괴한들이 마이크를 자신들의 차에 납치하여 이동하며 도착 3분전이라고 보고한다. 순간 마이크가 누군지 물으며 머리로 박고 공격한다. 마이크가 총을 빼앗아 운전자를 그대로 쏘 버린다. 마이크가 수갑을 풀고 괴한들의 복면을 벗기니 웨이드 제닝스 훈련장에서 만난 브루노인 것을 확인하고 이번사태가 웨이드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이크가 옷을 갈아 입고 권총을 챙긴 뒤 은닉한다. 톰슨 요원이 긴급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찾는다. 라미네즈는 호송차가 공격받고 마이크 배닝은 사라졌다고 보고한다. 라미네즈 요원이 전술팀 짓인 것 같다고 말하자 톰슨 요원이 현장 수색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한다. 톰슨은 마이크가 우리가 어떻게 찾을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감시 카메라를 안면인식시스템과 연동하라고 지시한다. 피터슨 요원이 호송차와 멀리 있는 지역에서 혈흔이 묻은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차대번호가 손실되었다고 보고한다. 톰슨 요원은 지원병력을 보내 마이크의 혈흔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그때 톰슨이 CID의 전화를 받고 마이크 배닝계좌는 모스크바 국영은행에서 송금한 돈이라고 말한다.

세일리언트, 팔콘904는 레니게이드607과 통화를 한다. 레니게이드607은 팔콘904에게 마이크의 행방을 묻고 팔콘904가 못찾았다고 말하자 레니게이드607은 마이크의 팀이 그를 구출한 뒤 천만달러를 가지고 사라지는게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마이크

를 찾지 못하면 우리까지 위험해진다고 말한다. 웨이드는 마이크를 범인으로 만들 증거는 아직 충분하고 벤에 심어놓은 DNA증거를 FBI가 찾아 냈고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표출한다. 레니게이드607은 웨이드와 마이크의 친분이 위험요소라고 말하며 이번일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마이크를 끝장내고 트럼볼은 깨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레니게이드607은 웨이드의 가장 큰 실수가 마이크와의 친분관계라고 말한다.

주유소 공중전화박스에서 마이크가 레아에게 전화를 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마이크는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으니 집안에만 머물라고 말한다. 마이크가 레아가 조사 받았는지 묻고 레아는 마이크가 병원다닌 것을 숨긴 이유를 묻는다. 마이크가 지금은 설명이 곤란하다면서 자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감청중인 FBI에게 진범을 찾을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다. 레아는 마이크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하고 마이크는 곧 극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산악 민병대가 마이크 배낭을 알아보고 총을 겨누며 전화를 끊어라고 명령한다. FBI도 163번 고속도로 휴게소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한다. 민병대가 가까이 와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내는 순간 마이크가 총을 빼앗아 트럭을 탈취한 후 고속도로를 달려간다. 마이크의 옆으로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방향을 돌려 트럭을 추적한다. 마이크는 추적해오는 경찰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 버리고 앞에서 막고 있는 경찰차를 피해 산길로 이동한다. 경찰이 도주방향을 무전하고 마이크의 앞길에 다시 경찰차가 막고 있다. 마이크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걸어 트럭위 짐들이 떨어져 길을 막고 마이크는 그 순간 방향을 돌려 운전해 간다. 경찰헬기가 트럭위치를 확인하고 전파하자 마이크는 산길을 질주하며 이동을 가속화하면서 나무 숲속으로 들어간다. 잠시후 마이크의 트럭이 34번마일 표지석과 충돌하며 전복되고 마이크는 산속으로 도망한다. 현장에 도착한 톰슨 요원이 개들이 마이크를 찾지 못하면 이미 떠난 것이라고 철수하라고 말한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이 톰슨에게 회견을 요청하는데 톰슨은 거절한다.

백악관에서 커비 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마이크의 배후가 러시아인지 묻는다. 남자는 실제로 모스크바와 해커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커비는 해커가 암살에 천만달러를 지불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면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참모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커비는 대통령이 혼수상태이고 경호원 18명이 죽은 최악의 상황이 지금이라고 말한다.

마이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차를 편취해 이동한다. 웨이드는 마이크가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트레비스는 경찰이 오전 4시17분에 전화했다면서 경찰에서 390km까지 수색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한다. 웨이

드는 마이크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고 발빠른 지시를 한다. 웨스트버지니아 오두막에서 마이크가 산속으로 이동중에 숲속에서 “클레이 배닝”(닉 놀태역)이 총을 겨누며 나타난다. 마이크가 클레이에게 자기는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소개하고 아버지가 5년전 이곳에 왔고 그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에 있었다고 말하며 아버지께서 자기를 감시한 것인지 묻는다. 클레이는 TV에서 본 것이 마이크 짓인지 묻는데 마이크는 무엇을 믿는지 되묻는다. 마이크는 잠깐 피신하러 왔다고 말하고 아버지에게 전기와 물을 자급자족하는 것인지 묻는다. 클레이는 의존하면 노예가 된다고 말하자 마이크가 두통을 심하게 느끼며 아스피린을 찾는데 클레이가 약은 없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정부에서 왜 범인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마이크는 모함에 걸려 있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정부짓이 아니라 친구 짓인데 다른 동조자가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며 엄마와 자기를 버린 것은 아빠라고 말한다. 클레이는 전쟁이 자신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한다. 클레이는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한국전쟁은 모두 같은 전쟁이라고 말하며 전쟁에 명예와 청춘과 인생을 모두 빼앗겼다고 말한다.

커비 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터림볼은 여전히 혼수상태로 있고 마이크 배닝이 암살시도를 한 것으로 결론지으며 배후에 러시아를 지목한다. 커비 부통령은 강력한 민간용병기업을 고용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한다. 방송을 보던 웨이드가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한다. 웨이드의 부하가 마이크가 재향군인 장애연금 번호를 검색했다고 말하자 웨이드가 클레이 배닝을 직감하고 웨스트버지니아로 향한다. 클레이가 마이크의 친구들이 왔다고 마이크를 깨운다. 마이크가 놀라 CC-TV를 확인한다. 마이크가 15명으로 너무 많으니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클레이가 마이크를 지하땅굴로 데려가 반대편으로 나온다. 마이크가 자신이 유인하겠다고 말하는데 클레이는 머리를 쓰라며 스위치를 누르자 폭탄이 터지면서 웨이드의 부하들이 죽는다. 클레이가 다시한번 스위치를 눌러 박살을 낸다. 폭탄은 다시 터지고 마이크에게 낙엽 밑에 있는 와이어를 당기라고 말하고 마이크가 당기자 폭탄이 터지면서 또 죽는다. 마이크가 죽은 놈들을 모두 오두막에 모아 놓는다. 클레이는 라디오에서 부통령 발표를 들으며 정부탓을 하자 마이크는 정부탓 좀 그만하라고 말한다.

마이크가 죽은 프로스트의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찾아 웨이드에게 전화를 한다. 트레비스가 프로스트 전화라고 말하자 웨이드가 아닐 것이라면서 받으라고 말한다. 마이크가 웨이드에게 왜 오지 않았는지 묻는다. 웨이드는 트림볼 때문에 전쟁의 불씨가 꺼져갔다고 말한다. 마이크가 그래서 수십억 계약을 했는지 묻고 웨이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응한다. 마이크가 여기로 다시 올 것 없이 내가 간다고 말한다. 클레이와 마이크가 자동차를 타고 떠나면서 산속 오두막 좌표를 CC-TV카메라에 남기고 떠난다. 톰슨요원과 라미레즈 요원은 헬기를 타고 마이크가 표시한 장소로 이동해 죽은 자들을 확인한다. 톰슨은 마이크가 우리

를 이곳으로 유인한 이유를 궁금해 한다. 오두막 벽에는 We work for Salient라는 문구가 있다. 라미레즈가 세일리언트에 대해 검색하고 톰슨 요원이 세일리언트는 웨이드 제닝스 회사로 이라크에서 사고쳐서 자신이 직접 조사했다고 말한다. 죽은 자들에게서 연방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톰슨은 모두 조사해서 웨이드를 흔들어 보자고 말한다. 병실에서 트럼볼 대통령 신체반응이 나타나고 간호사가 트럼볼을 흔들어 본다. 샘 윌콕스가 상태를 물어보고 의사는 반응을 보며 깨어날 것 같다고 말한다. 클레이와 마이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마이크는 라디오에서 트럼볼 대통령이 신체반응을 보인다는 뉴스를 듣고 대통령이 깨어나면 웨이드가 죽을때까지 노릴 것이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직접 대통령에게 가야겠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웨이드가 레아와 린을 겨냥할거라면서 걱정한다. 클레이는 며느리와 손녀도 알지 못한다. 마이크가 아버지에게 너무 깊이 들어왔다면서 차를 훔쳐 돌아가려 하자 클레이가 마이크를 부른다.

TV에서 기자가 트럼볼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커비 부통령이 보복군사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한다. 커비 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에게 미국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트럼볼 대통령이 지휘권을 되찾으면 커비의 명령은 취소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레니게이드607의 전화가 걸려온다. 웨이드는 우발사태 계획을 이야기 하는데 계획이 안좋으면 안된다고 경고한다. 레니게이드607은 팔콘904가 할 일을 안다면서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커비는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자신만만해 한다. 커비는 이제 장갑을 벗고 강한 미국의 힘을 보여 줄때라고 말하며 문제는 그곳에 당신과 함께 서 있을 것인가라고 경고한다. 웨이드는 천만달러를 달라고 말하는데 커비는 바로 보낼 준비가 되었다면서 일을 잘 마치면 수십억 달러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특혜를 말한다. 통화 후 트레비스가 웨이드에게 그를 믿는 이유를 묻는데 화를 낸다.

마이크의 집, 레아가 집에서 린을 돌보는데 남자들이 후문을 통해 은밀히 들어 온다. 레아가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남자들이 레아가 위험하다고 웨이드 제닝스가 보호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말하며 총으로 위협하고 따라 오라고 말한다. 레아가 린을 안고 밖으로 나오고 남자들이 나오는데 숨어 있던 클레이가 남자들을 공격하고 쓰러 뜨린다. 클레이는 이런 식으로 인사하기는 싫었지만 자신을 마이크의 아버지로 소개한다. 레아가 의문을 품자 클레이는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레아가 마이크의 개인적인 것에 대하여 말해 보라고 하자 클레이는 아는 것이 없다면서 마이크의 태명인 마이크 제임슨 배닝뿐이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텍사스 포트 후드기지에서 태어났고 엄마의 결혼전 이름은 메리 엘리스 드위트라고 말하며 지난날을 후회한다. 레아가 클레이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소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한편 마이크는 자동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한다. 대통령이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난다. 대통령은 드론의 공격이 있었고 물위에 떠 있었으며 경호원들

이 죽었다고 말한다. 젠트리 국장이 마이크 배닝은 어디 있었는지 묻는데 대통령은 마이크가 죽었는지 묻는다. 젠트리 국장은 대통령과 우리가 마이크를 신뢰한 사실을 상기하며 마이크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던 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묻자 젠트리 국장이 마이크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마이크가 러시아에서 천만달러를 지원받았다는 증거를 FBI가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샘 월코스가 커비 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려 한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바로 부통령에게 전화 연결하라고 지시한다. 트레비스는 병원을 공격할 방법을 찾는다. 웨이드는 충분한 돈을 지급했으니 행동을 지시하고 부하는 헬기가 접근중이라고 말한다. 헬기조종사는 FBI에서 국가안보문제로 착륙허가를 요청한다. 웨이드가 착륙을 허가한다. 라미레즈는 도청영장이 나왔고 CID에서 지금 세일리언트 서버 검사중이라고 말한다. 톰슨 요원은 웨이드가 무슨말을 할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톰슨은 우리가 온 이유를 알 것이라면서 최근 마이크 배닝을 만난적이 있는지 묻는다. 웨이드가 총을 꺼내 조종사까지 모두 사살한다. 트레비스는 마이크가 FBI를 끌어 들였다면 흔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웨이드는 세일리언트를 정리하고 해외로 출국하자고 말한다. 트레비스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말한다. 웨이드가 오늘 반드시 트럼볼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다. 백악관에서 방금 커비 부통령이 러시아에게 앨런 트럼볼에 대한 암살 시도 책임을 물어 보복공격을 결정했다고 브리핑한다. 병원입구에서 무장병력들이 출입자들의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마이크가 보안요원의 자동차에 타 총을 겨눈다. 마이크가 보안요원의 옷을 입고 대원들에게 응급실 밖에 무장한 자들이 있다고 무전을 친다. 젠트리 국장이 무전을 듣고 응급실 확보를 지시한다. 무장병력들이 응급실로 가자 마이크는 입구로 이동한후 총격발생 무전을 친다. 입구 병력까지 현장으로 가서 응급실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한다. 마이크가 모자를 눌러쓰고 병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빌리"(오시오커라포역)가 얼굴과 신분증을 요구한다. 마이크가 권총을 겨누며 빌리에게 움직이지 말 것을 지시한다. 마이크가 엘리베이터밖에 한명만 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손을 들고 돌아서라고 말한다. 마이크와 빌리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간다. 무장경찰이 마이크를 발견하고 총을 겨누는데 마이크가 젠트리 국장을 호출해 달라고 소리친다. 젠트리 국장이 복도로 나오자 마이크가 총을 빌리에게 건네고 긴급상황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구한다. 트럼볼이 젠트리 국장을 보며 무슨 상황인지 묻는다. 젠트리 국장은 방금 마이크 배닝을 체포했는데 긴급상황이라고 전했다고 말한다. 트럼볼이 마이크를 데려 오라고 지시하자 샘이 먼저 DOJ와 이야기 중이라고 말하자 트럼볼 대통령이 당장 데려 오라고 명령한다. 젠트리 국장이 마이크를 데리고 병실로 돌아온다. 마이크는 트럼볼 대통령에게 누가 벌린 짓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대통령을 노리고 있으니 이곳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젠트리 국장이 여기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항변한

다. 마이크는 젤트리에게 본인이 지금 폐쇄된 곳을 통과해 들어 왔음을 상기시키자 젤트리는 마이크가 우리 모든 프로토콜을 알기 때문이었고 지금 잡히지 않았는지 묻는다. 마이크는 트럼불에게 그 놈들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젤트리 국장은 그놈들이 누군지 존재 조차도 모르고 마이크의 망상 같은 말뿐이라고 말하자 마이크는 자신이 여기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젤트리 국장은 경호원이 18명이 죽었는데 마이크만 살아 남은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의심한다. 트럼불 대통령은 마이크의 수갑을 풀어라면서 마이크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마린원을 타고 여기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웨이드 일당은 20분후면 병원에 도착하는데 마린원은 30분후에 도착한다. 마이크는 저격수들의 상태를 재점검하고 경계병력과 외부, 중간, 내부 경계상태를 보고 받는다. 그순간 간호사가 시스템이 1 시간동안 벌써 6회나 다운되었다고 보고한다. 마이크가 요원에게 버지니아 세일리언트에서 이 병원으로 들어온 IP가 있는지, 해킹 흔적을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그때 병실에 연결된 산소라인에서 산소가 나오는데 기계실 직원이 확인해도 계속 새어나오고 액화 질소가 끓기 시작한다. 누군가 병원의 가스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놈들이 병원을 날려 버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젤트리 국장이 대통령을 옥상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마린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긴급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젤트리 국장이 병원의 모든 사람들을 긴급 대피하라고 지시하고 직원과 환자들이 병원을 탈출한다. 기자가 세인트 매튜스병원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긴급 대피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병원CC-TV로 감시하던 웨이드 부하가 웨이드에게 모두 대피하는 상황을 보고한다. 웨이드는 폭발까지 남은 시간을 묻고 부하가 4분전이라고 말한다. 웨이드는 트럼불이 화면에 나타났는지 묻고 부하들은 경호원들이 카메라를 비활성화 해 볼수 없다고 말한다. 마이크와 젤트리 국장이 대통령을 데리고 긴급차량으로 이동한다. 요원이 한번의 스파크만 일어나도 모두 폭발한다고 액체질소 상황을 보고한다. 젤트리가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지 묻는데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백악관 직원이 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이 대피중이라고 보고한다. 참모들은 트럼불 대통령이 깨어 났다면 작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커비 부통령은 아직 상태를 모른다고 거짓을 말한다. 참모들이 법무장관에게 상황을 말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커비 부통령은 작전강행을 주장한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마이크가 도로는 깨끗한지 묻는다. 긴급차에 있는 방탄조끼 2개는 대통령과 젤트리 국장이 착용한다. 대통령 자동차가 병원입구를 향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그 순간 병원에 도착한 웨이드가 자동차를 발견하고 입구를 막는다. 웨이드가 경호원들의 통신망을 차단하고 백업을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부하는 재밍을 시작한다. 웨이드가 대통령 차량을 향해 사격을 가한다. 운전자가 살해되고 마이크는 모두 차에서 내려라고 말한다. 요원들이 대통령을 자동차 후미로 대피시키고 놈들을 공격한다. 웨이드가 병

원 폭발때까지 건물에 붙잡아 두는게 목표라고 사격을 계속한다. 마이크가 옆 건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옆 사람이 쓰러져도 대통령은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조준을 하던 웨이드가 샘을 총으로 사살하고 젠트리 국장도 다리에 총상을 입는다. 웨이드 부하는 점화가 시작되었다면서 병원을 폭파하며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 마이크가 건물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고 대통령이 총을 맞았는지 확인한다. 웨이드는 대통령이 들어간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다. 요원들의 무전호출이 모두 막히고 통신이 죽어서 아무도 안들린다고 말한다. 마이크가 우리가 이 건물로 오는 것을 웨이드가 본 것이라고 말한다. 젠트리는 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건물배치도를 확인한다. 마이크는 요원들에게 코너 사무실앞에 바리케이트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요원들은 화분을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친다. 요원들이 대통령을 찾아 이동하는데 웨이드와 부하들이 모두 죽여 버린다. 사무실로 들어간 젠트리 국장이 전화를 확인하는데 모두 통신두절이다. 마이크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원이 올때까지 끝까지 버텨야만 한다고 말한다. 마이크가 방을 나가는데 트럼볼 대통령이 죽지 말라고 지시한다.

웨이드의 부하가 FBI, HRT, SWAT, 방위군이 출동했다고 말하고 웨이드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끝내야만 한다고 다그친다. 마이크가 소리를 듣고 놈들이 건물안으로 왔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요원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위로한다. 웨이드가 코너 사무실 앞에 요원들을 발견하고 부하들에게 바리케이트를 공격하고 3팀은 복도를 돌아 측면에서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웨이드의 부하가 사무실 옆으로 이동하는데 숨어 있던 마이크가 놈을 제거하고 방탄조끼와 무기를 챙긴다. 트레비스가 코너 사무실 요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동안 마이크는 사무실 옆으로 이동하는 놈들을 제거한다. 웨이드와 부하들이 요원을 공격하며 이동한다. 놈들이 유탄을 발사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폭파시켜 버린다. 폭파소리에 사무실안에서 숨죽이던 트럼볼과 젠트리 국장은 긴장을 한다. 웨이드의 부하가 경찰이 건물을 봉쇄했다고 말한다. 웨이드는 탈출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내부수색을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다. 웨이드는 마이크가 우리를 교란시키고 대통령을 다른 곳에 숨겼다고 말한다. 바로 옆 사무실에 은둔해 있던 트럼볼과 젠트리 국장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놈들이 사무실 밖에 연막탄을 던지고 탈출을 시도한다. 기다리던 마이크가 한 놈을 죽이고 경찰과 군인들이 건물로 진입하면서 웨이드 일당과 총격전을 벌인다. 경찰과 군인들이 한명씩 무기를 수거하고 체포에 서두른다. 웨이드는 재빨리 옥상으로 도망한다. 마이크가 놈들의 헬기를 보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헬기에서 마이크를 공격한다. 마이크는 헬기를 향해 총을 쏘며 몸을 숨기는데 여자를 발견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웨이드와 트레비스는 옥상으로 올라가고 한 명이 남아서 마이크를 기다린다. 마이크가 총으로 사살한 뒤 헬기의 공격을 피해 올라가는데 수류탄이 굴러 떨어진다. 마이크가 재빠르게 죽은 놈의 몸 뒤편으로 피신한다. 수류탄이 터지면서 몸이 부서지자 트레비스가 마이크가 죽었다고 보고한다. 트레비

스와 웨이드가 헬기로 향한다. 쓰러진 마이크가 신음하며 돌아 눕는다. 트레비스가 조종사에게 빨리 가자고 말하고 웨이드가 헬기를 향하는데 트레비스가 헬기에서 내려 총을 쏜다. 그 순간 헬기가 유탄공격을 받고 폭발한다. 웨이드가 마이크를 발견하고 권총사격을 서로 주고 받으며 이동한다. 총알이 떨어진 마이크가 총을 던지며 웨이드를 공격한다. 웨이드와 마이크가 칼로 대치하며 격투를 벌인다. 웨이드가 거드랑이를 다쳐 주저 앉으며 마이크에게 죽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기자들이 FBI는 마이크 배닝의 암살시도에 대한 혐의 기소를 철회하였다. 엘런 트럼볼 대통령은 함부르크 G20에서 연설을 하며 러시아의 긴장을 완화한다. 그러나 실제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가 예상된다는 뉴스를 전한다. 백악관에서 트럼볼 대통령이 커비 부통령 사무실을 찾는다. 커비 부통령이 기분을 묻고 트럼볼이 좋다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다. 트럼볼은 유능한 FBI요원이 사망하기전에 웨이드 제닝스와 부통령의 밀거래 문서를 확보하였다고 말한다. 트럼볼은 이것을 가지고 3년동안 지켜 볼까 했지만 퇴직하는 데이비드 젠트리가 마지막으로 문까지 안내할 것이라고 말한다. 커비 부통령이 농담하는 것인지 웃는데 트럼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커비 부통령은 FBI에 체포되어 쫓겨 나간다. 마이크의 집에서 레아, 마이크, 클레이는 린이 먹는 것을 지켜보며 레아가 클레이에게 계획을 묻는다. 클레이가 RV차를 새로 샀다면서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클레이는 왕래하며 자주 볼것이라고 말하는데 클레이가 RV를 주차하고 지낼거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집에 방이 많으니깐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한다. 클레이는 레아에게 맛있는 조반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레아는 아버지가 있어서 마이크도 좋아한다고 말한다. 레아는 클레이에게 다시는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클레이도 OK라고 흔쾌히 답한다. 마이크가 백악관 트럼볼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뇌진탕, 진통제를 진실되게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아쉬워 한다. 마이크는 일을 잃는 것이 싫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보다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한다. 트럼볼 대통령은 병원에서 말했듯이 마이크가 있어서 아직 살아 있는 것이라면서 국장 배지를 돌려주며 더 이상 비밀은 없다고 말한다.

쿠키영상, 마이크와 클레이가 정원에 앉아 약을 끊는 것은 좋은 일이고 심리치료를 돕고 싶다고 같이 하자고 말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1탄, 백악관 최후의 날 2013(Olympus Has Fallen)과 2탄, 런던 해즈 폴른2016(London Has Fallen)에 이어 엔젤 해즈 폴른2019는 우리 사회의 거짓과 진실의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권력과 탐욕의 늪에 빠진 워싱턴 정가의 마술같은 이야기는 그 결과가 보여 주듯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의 빼놓아진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선명해 진 사실을 기억한다. 잠간의 행복과 승리가 영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U턴하게 만드는 거짓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6. “시동”START-UP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9.12.18.
감독,각본:최정열, 원작:웹툰작가 조금산
제작:외유내강, 주연:마동석,박정민,정해인,염정아.
관객:3,037,917명(2020.01.05.기준)

“고택일”(박정민역)이 “우상필”(정해인역)에게 오토바이 신차를 선보이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상필이 엄마가 준 학원비로 산것인지 묻는데 택일은 상필을 태우고 출발과 동시에 오르막길에서 멈춰 버린다. 그때 내리막길로 오던 배달원이 택일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버리고 화가난 택일이 상필이를 태운채 배달원을 추적한다. 그러나 경찰차가 택일과 상필에게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을 하자 택일이 공사장 안내판을 보지 못하고 넘어진다. 택일의 엄마 “윤정혜”(염정아역)가 경찰서를 찾는다. 엄마가 택일의 뺨을 때리며 학원비로 오토바이를 사서 사고를 치냐고 다그친다. 택일은 학교가기 싫어 자퇴했는데 학원은 다녀서 무엇하냐고 대들고 엄마는 빈둥거리며 그렇게 살것이냐고 되묻는다. 택일이 엄마가 배구 후보선수만 하다가 아들에게 화풀이 한다고 말하자 엄마가 또 뺨을 때리며 나가라고 소리친다. 다음날 가출한 택일에게 상필이 엄마와 무인도에 가겠다던 계획은 끝인지 묻고 자기와 함께 면접보러 가자고 설득한다. 택일이 버스정류장에서 만원으로 갈수 있는 곳 한 장달라고 하는데 군인이 논산으로 가라고 말한다. 한편 엄마는 밥상을 차려 놓고 택일에게 쪽지를 남긴채 일을 나간다.

군산에 도착한 택일이 버스정류장에서 빨간머리의 “소경주”(최성은역)를 바라보는데 경주가 택일에게 뭘 보냐고 묻는다. 택일이 빨간머리가 신기해서 본다고 말하자 경주가 시비걸 듯 배를 때리고 가버린다. 해장국집에 출근한 엄마가 택일에게 전화를 계속하는데 불통이다. 해장국집 주인 아줌마는 속만 썩이는 아들 내 쫓아 버리라고 위로를 한다. 장풍반점에서 짜장면 3천원을 보고 택일이 주문을 한다. “공사장”(김종수역)이 택일에게 가출했는지 의심하는데 택일이 외출한 것이라고 답한다. 배달원 “배구만”(김경덕역)이 주방안에서 맞는 소리가 들리고 그릇을 가져 오지 않은 배구만이 다시 나간다. 경주가 찜질방에서 쉬고 있을 때 “박다미”(이수빈역)와 “김고은”(방은정역)이 가출한 것인지 묻고 찜질방보다 같이 방을 잡자고 말하며 함께 나간다. 같은 찜질방 다른 방에서 택일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후 누워 잠이 든다.

상필이 불꺼진 어둔 방에서 일하는 “할머니”(고두심역)를 발견하고 시력에 앓 좋다고 불을 켜다. 눈이 멀어지고 치매끼가 있는 할머니는 상필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지 묻는다. 상필이 손자 우상필이라고 말하는데 할머니는 호랑이라고 말한다. 상필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날과자를 건넨다. 다음날 택일이 장풍반점 구인광고를 보

고 숙식제공을 묻는데 공사장이 가출이 길어진다고 망설인다. 택일이 오토바이 면허도 있고 자퇴했다고 말한다. 공사장이 적어도 서너달은 근무해야 한다고 말하고 택일은 일을 시작한다. 상필이 "김동화"(윤경호역)를 만나 일자리를 소개받는데 사채업인지 모르고 있다. 장풍반점에서 짜장소스를 만들던 "거석이형"(마동석역)이 택일에게 두꺼비를 열라고 말한다. 거석이형이 택일에게 몇 살? 택일이 열여덟살!, 거석이형이 고빠리? 택일이 자퇴!, 거석이형이 존댓말배우기전 자퇴? 천재!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택일을 때려 기절시킨다. 장풍반점 숙소에서 택일이 무인도에서 엄마와 짜장면을 먹는 꿈을 꾸고 있다. 그순간 택일의 옆에서 거석이형이 짜장면을 먹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택일이 눈을뜨고 자는 거석을 바라보며 놀란다. 배구만은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첫날밤을 보내는 택일이 잠을 설친다. 아침에 택일이 화장실을 가려는데 거석이형이 도망가는줄 알고 핀잔을 주다가 오해라고 미안함을 표시한다. 택일은 장풍반점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배구만이 그릇포장법과 주소 찍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네비를 비데라고 잘못가르치자 거석이형이 똥사면 네비로 닦는지 비웃는다. 거석이형은 배달중에 반점 명함도 함께 돌리라고 말한다.

해장국집 아줌마가 택일이 아직 안왔는지 물으며 전에 얘기한 가게에서 가격 맞춰 준다고 돈이 있는지 윤정혜에게 묻는다. 상필은 동화형과 함께 시장에서 이자를 수금한다. 동화는 횃집 주인에게 밀린 이자를 받으며 고객을 믿어라 갚을때까지라고 신조를 가르쳐 준다. 동화는 횃집사장이 아홉 번 잘나가다 한번에 다친거라고 말한다. 장풍반점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먹고 있다. 거석이형이 택일에게 고향을 묻고 택일은 서울이라고 말한다. 거석이형은 택일에게 엄마가 버린 것인지 묻는데 택일은 신경꺼라고 답한다. 거석이형이 트와이스 노래를 부르며 옆집에서 신고 들어올지 모른다고 배구만에게 노래소리를 울려라고 말한다. 택일이 거석이형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거석이형이 택일을 때려 기절시켜 버린다. 소경주가 모텔방으로 돌아오는데 외출하려던 김고은과 박다미가 함께 나가자고 말하지만 거절한다. 김고은이 경주에게 나이를 묻고 경주가 18세라고 답하는데 김고은이 동생이라며 왜 반말하느냐고 되묻는다. 한편 기절에서 깨어난 택일이 거석을 보고 돼지새끼라고 죽이려듯이 눈을 찌르려 하는데 거석이형이 손으로 막으며 아직 안전하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동화는 상필에게 전단 던지는법을 가르쳐 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상필이 택일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줌마들과 대화하는 것을 바라본다. 택일이 배달주문을 받고 공원을 찾아가 계단이 많은 곳에서 주문했다고 짜증을 내는데 경주가 시킨 것이다. 경주는 배달원이었는지 묻고 택일은 자기를 때리고 도망한 것이 좋았는지 묻는다. 택일과 경주가 시비가 일어나 서로 싸우다 택일이 경주의 가슴을 만지는 실수가 발생하자 택일은 경주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경주가 택일을 때려 기절시킨 후 자리를 뜬다. 잠시후 공원에서 깨어난 택일옆에는 철가방과 3천원이 있다. 택일이 홀에서 먹을때만 3천원이라고 소리치며 돌아간다. 공사장이 택일에게 약을 건네며 근무시간에 이탈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공지한다. 택일이 천원을 더 빼라고 말하는데 공사장이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된다고 나중에 더 받아 오라고 말한다. 상필이 택일에게 전화를 하는데 거석이형이 전화를 받아 택일이 오늘 얻어맞아 죽었다고 말한다. 상필이 매우 놀라며 누군지 묻는데 택일이 들어와 전화를 빼앗아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한다. 상필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엄마의 상황을 이야기 한다. 경주가 모텔방에서 김고은과 다미가 남자들과 술을 먹는 것을 보고 남자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소리 지른다. 장풍반점 숙소에서 택일이 엄마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고민을 하는데 거석이형이 발로 옆구리를 찌르며 장난을 건다. 거석이형이 엄마 보고싶어 우는 것이냐고 말하자 택일이 엄마와 안보고 살기로 했다면서 장난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거석이형이 택일엄마가 성불이라고 말한다.

모텔에서 "강대천"(성혁역)이 경주를 때리는데 경주가 강대천을 역공격한다. 강대천이 넘어지고 "문성현"(이해운역)이 경주를 넘어 뜨린다. 경주가 모텔방을 빠져 나오자 강대천이 뒤쫓아 가고 문성현도 자동차로 경주의 앞을 가로 막는다. 경주는 다른 길로 피해 도망을 한다. 장풍반점 옥상에서 배구만이 뿔을 잡고 연습을 하는 장면을 택일이 바라본다. 거석이형이 올라와 담배를 피우려는 택일에게 담배를 꺼라고 말하는데 택일이 멀리서 달려오는 경주를 발견하고 뛰어 내려 간다. 택일이 경주를 따라 가는데 맞은편에서 문성현이 차로 다시 막는다. 강대천과 문성현이 경주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자 택일이 강대천의 목을 잡고 거석이형을 부른다. 옥상에서 바라보던 거석이형이 갑자기 몸을 숙여 숨어 버리고 배구만이 뿔을 들고 달려와 좁쌀을 얼굴에 던져 버린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바라보자 강대천과 문성현이 경주를 놓아 주고 자리를 뜬다. 장풍반점에서 공사장이 경주에게 약을 주며 병원에 가라고 말하는데 경주는 며칠이면 낫는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택일이 경주가 맨발인 것을 보고 골치 아픈 애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발을 던져 준다. 경주는 택일의 신발을 신고 뒤뚱거리며 걸어간다. 택일이 거석이형을 보며 비겁한 돼지라고 놀리자 거석이형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것이라고 피한다.

윤정혜는 가게를 인수한 후 토스트 장사를 한다. 택일은 배달일을 계속하고 상필은 동화와 함께 사채업을 하며 할머니를 공양한다. 택일이 짜장면을 갖고 공원에서 경주를 찾는다. 경주가 택일의 신발을 되돌려 주는데 택일은 집이 없는지 묻는다. 경주는 집도 부모도 없다고 말한다. 택일이 경주에게 짜장면 먹고 그릇을 잘 두라고 말하는데 경주가 짜장면값 5천원을 건넨다. 택일이 돈을 받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은후 슬리퍼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공사장이 직원월급을 정산한다. 택일은 공사장에게 짜장면값 4천원은 공제하라고 말한다. 공사장이 짜장면값을 공제하고 월급을 택일에게 건넨다. 배구만과 거석이형이 택일에게 처음 받는 월급 한턱 내라고 소리치고 택일이 한턱을 낸다. 장풍반점 회식을 하며 공사장이 택일에게 집에 다녀 오라고 말하는데 택일은 엄마와 만나면 다투기만 한다면서 통명스럽게 거절한다. 거석

이형이 엄마죽으면 조의금과 보험금이나 챙기라며 나무라자 택일은 거석이형에게 대든다. 거석이형이 택일에게 뺨을 때리는데 택일이 쓰러져 버린다. 택일이 깨어나 식당에 남아 있는 이유가 돼지잡는 것이라고 말하자 거석이형이 더 때리려 하는데 택일이 도망을 한다. 상필이 통화와 함께 이자 받는일을 계속한다. 도박을 하던 남자가 계단위에서 뛰어 내리려 하며 이게 전부라고 시간만 주면 갚겠다고 애원을 한다. 상필은 연락이 끊겨 찾아 온거라면서 도박 끊고 직장을 찾아라고 말을 한다.

택일이 집을 찾는데 엄마가 식탁위 밥상을 차려 놓고 일을 나갔다. 택일을 만난 상필이 금융업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택일은 사채업이라고 그 만두라고 말하는데 상필은 동화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떠난다. 택일이 엄마가 인수한 토스트 가게를 찾는다. 엄마가 택일을 때리려다 멈춘다. 택일은 군산 중국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엄마는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진짜 가출하냐면서 서울로 돌아와 학원 다니거 대학에 진학하라고 말하지만 택일은 하기 싫다고 거절한다. 택일은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면서 월급봉투를 올려 놓고 군산으로 돌아간다. 장풍반점으로 돌아온 택일에게 공사장이 안부를 묻는데 택일은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순간 경주가 장풍반점으로 들어 온다. "용역 직원"(박성일역)이 윤정혜의 토스트 가게를 찾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협박한다. 한편, 동화가 정육점 관리를 상필에게 맡긴다. 상필이 정육점으로 들어가 글로벌 파이낸셜에서 이자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데 정육점 사장이 원금보다 9배나 비싼 이자를 뜯어내는 놈이라고 고함치며 상필을 공격한다. 상필이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동화가 달려가 상필에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말한다. 병원에 입원한 상필에게 자신이 왜 맞은 것인지 이유를 묻는다.

택일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중 카니발운전자가 택일을 위협한다. 놀란 택일이 카니발을 쫓아가 차를 세우다가 멈춤 표지판을 들이받고 쓰러진다. 경주도 장풍반점 홀에서 일을 시작한다. 공사장이 경주에게 찜질방에서 살지 말고 제일 끝방을 사용하라고 말하는데 경주가 괜찮다고 말하자 택일이 자신이 그 방을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공사장은 딸의 방이라고 여자가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자 택일이 딸은 왜 앓보이는지 되묻는다. 거석이형이 눈치를 주며 신입이 왔으니 노래방에 가자고 대화의 방향을 바꾼다. 거석이형과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편의점에서 나오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그 순간, 카니발이 노래방앞에 서고 김고은과 박다미가 내린다. 택일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여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잠시후 카니발의 조수석문이 열리면서 문성현을 발견한 택일이 그때 카니발이 너냐고 소리치며 다투는데 문성현의 한방에 택일이 쓰러진다. 문성현이 거석이형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가는데 거석이형이 노래방서비스로 받은 새우깡으로 문성현을 문지르고 도망을 한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던 경주가 문성현을 발견하고 발로 차버리고 뒤이어 일어난 택일이 문성현의 엉덩이를 차고 도망을 한다.

상필이 택일에게 전화를 한다. 상필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죽이겠다고 흥분하는데 택일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으라고 꾸중을 한다. 상필이 아침상을 차려 할머니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다. 할머니에게 엄마(경숙)는 이제 오지 않는다면 죽은지 10년이 지났다고 말한다. 상필이 정육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주인과 다툼을 벌인다. 상필은 칼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정육점 사장은 차라리 죽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강대천과 문성현이 건달을 동원하여 장풍반점을 찾는다. 강대천과 문성현이 돼지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다. 경주와 택일이 남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건달이 택일과 경주를 밀어 버린다. 택일이 넘어지면서 공사장 딸의 유골함이 떨어진다. 공사장이 놀라 방으로 달려 간다. 주방에서 일하던 거석이형이 밖으로 나와 건달들을 한방에 제압한다. 거석이형은 강대천에게 가게로 찾아 온 선물을 주겠다면서 라이터를 강대천의 입안에 넣고 뺨을 갈긴다. 순간 칼로 공격하는 문성현을 장풍반점 밖으로 던져 버린다. 소란에 경찰이 출동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로 지명수배중인 강대천과 문성현은 체포하고 장풍반점 직원은 모두 돌아 온다. 오래전, 거석이형이 건달들과 싸운 뒤 장풍반점으로 몸을 피신한다. 그때 방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주인을 발견한다. 거석이형은 줄을 끊고 자살하려던 공사장을 구한다. 공사장은 딸을 부르며 울부짖는다. 거석이형은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공사장을 위로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

상필은 글로벌 파이낸셜 사장 "곽성무"(김민재역)에게 사표를 제출하는데 사장은 그냥 정육점에 가서 돈만 받아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배우라고 말한다. 동화가 상필을 데리고 나와 상필이 먼저 찾아 온 것을 상기시키며 계속 일을 할 것을 종용한다. 다음날 택일이 장풍반점으로 출근하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건달들이 줄을 서 있다. 택일이 반점 홀에서 거석이형과 "태성"(박해준역)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바라본다. 태성이 청량리와 동대문 애들이 구역을 넘본다고 말하는데 거석은 태성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거절한다. 태성이 거석의 행방을 알았으니 애들이 가만 안있을 것이라면서 자동차 한 대를 남겨두고 떠난다. 태성이 문앞에서 대화를 엿듣던 택일에게 어른들이 이야기할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택일이 거석이형과 친해 보여서 그랬다고 말하자 태성이 웃으며 나간다. 거석이형이 서둘러 짐을 챙겨 장풍반점을 떠난다. 택일이 주방은 어떻게 할 건지 묻는데 공사장은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말한다. 거석은 배구만에게 워질 열심히 하고 너를 버린 부모는 잊고 동전도 흘리고 다니지 말라고 걱정하며 떠난다. 떠나는 거석이형을 바라보며 택일도 경주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간다. 바닷가에서 택일은 경주에게 부모가 있는지 묻는다. 경주는 없다고 말하며 택일에게 부모가 있는지 묻는다. 택일은 엄마만 있다고 말하는데 경주는 택일을 부러워 한다. 순간 상필의 전화가 걸려온다. 택일토스트 가게에 불법 노점상철거 안내문이 붙은 것을 보고 택일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택일이 공사장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 하자 공사장도 이번 기회에 식당

정리를 하겠다고 한주간 휴가를 준다. 한편 상필이 정육점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오늘은 나가지 말아라고 강하게 말리는데 상필이 손을 뿌리치고 나가 버린다.

윤정혜가 일하는 가게에 택일과 경주가 찾아 온다. 엄마는 경주를 보고 여자친구인지 물으며 토스트를 먹고 가라고 말한다. 택일은 엄마에게 왜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고함을 친다. 경주는 경찰을 부르려 하고 택일은 불법이라 않된다고 말한다. 그 시간, 광성무가 정육점 사장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위협한다. 광성무가 동화에게 칼로 찌르라고 하는데 눈치를 보자 뺨을 때리며 강제로 시킨다. 동화가 정육점 사장에게 그냥 돈 내놓으라고 때리며 겨우 돈을 받는다. 광성무가 돈을 챙겨 나오면서 다음은 어디인지 묻는다. "석구"(권혁범역)가 오늘 불법건축물로 철거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동화는 뒷정리후 가겠다고 빠진다. 택일토스트에서 택일이 거석이형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전화를 한다. 거석이 청량리와 동대문파 술집을 찾아가면서 전화를 받는다. 거석은 택일이 이제 아이가 아니라면서 소중한 것은 직접 지키라고 말하는데 택일이 거석이형에게 진짜 지켜야 할 때 지켜보았는지 되묻는다. "청량리파"(정의욱역)와 "동대문파"(허준석역) 두목이 혼자 오는 거석을 보며 여유가 만만하다. 거석이 자기 구역이나 잘 관리하라고 말하자 동대문이 석구가 늘어나 담배값도 어렵다고 말한다. 거석이 안주나 하라고 새우깡을 건네고 일어나는데 동대문과 청량리 부하들이 입구를 막아선다. 거석이 순식간에 모두를 제압해 버린다.

광성무와 석구가 택일토스트로 들어가려 하는데 상필이 입구를 막아선다. 석구가 상필을 넘어뜨리고 가게안으로 들어간다. 광성무가 윤정혜에게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한다. 윤정혜가 집 보증금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데 석구가 고택일이라고 적힌 돈봉투를 발견하고 돈이 있는데 이자도 않내는 악질 채무자라고 돈을 챙긴다. 그때 택일이 광성무에게 달려 든다. 광성무가 택일을 때리며 무엇으로 빚을 갚겠는지 묻는다. 광성무가 석구에게 다음은 어딘지 묻는다. 상필이 택일을 보며 미안하다고 말하며 병을 들고 나가 광성무의 머리를 내리 친다. 윤정혜도 뒤따라 나가 강한 펀치로 광성무를 날려 버린다. 윤정혜는 택일이 준 돈을 빼앗으며 돈은 갚겠다고 말한다.

거석이 건물을 나오는데 태성이 혼자 온 것이냐면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다. 거석이 차를 세우고 중국집 주방으로 들어가 워 좀 빌리자고 말한다. 주방장은 거석의 워질을 보며 힘만 갖고 않되고 손목 스냅을 쥐야 한다고 말한다. 거석이 태성에게 직접 만든 짜장면 맛을 보라고 말하며 형은 이제 이런거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결국 택일토스트 가게는 철거되고 윤정혜와 택일은 집을 팔고 상필의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한다. 윤정혜는 티비를 보며 할머니를 도와 준다. 할머니는 경숙이와 정혜가 다투었다고 말한다. 상필의 집으로 치킨 배달이 오고 배달온 동화를 보며 반

가워 한다. 동화도 사채업을 그만두고 치킨 집을 창업했다고 이제 사장이라고 웃음을 준다. 상필이 돈을 건네자 동화는 프라이드가 조금 탄 것 같으면서 다음에는 돈을 받겠다고 말하며 돌아간다. 장풍반점에서 거석이형이 주방에서 배구만에게 워다루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학교를 다시 다니는 경주가 돌아오고 공사장이 웃으며 주방을 가르킨다. 거석과 배구만이 주방 창문밖으로 경주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한편, 택일과 엄마가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엄마는 택일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데 택일이 어디든 가다보면 목적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출발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2014년, 평점 9.8의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웹툰을 영화화 한 시동은 택일, 상필, 정혜, 거석이형의 독특한 캐릭터가 존재하는 일상의 사회를 그리고 있다. 어떤면에서는 탈락자들이고 실패자들인 이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던져준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꿈꾸며 복을 빌고 있는 교회속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그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동을 통해 시동하게 된다.

47. “백두산”ASHFALL, 2019

한국영화, 장르:드라마,액션 개봉:2019.12.19.

감독:이해준,김병서,

제작:텍스터픽처스,퍼펙트스톰필름,CJ엔터테인먼트,

주연:이병헌,하정우,마동석,전혜진,수지.

관객:7,479,729명(2020.01.05.기준)

백두산에서 1차 폭발이 발생한다. 언론에서는 북한이 ICBM개발중단, 핵무기실험중단을 한다고 발표한다. 폭발물처리반 EOD “조인창”(하정우역) 대위가 공사현장으로 마지막 출동을 한다. 조인창과 태식이 한국전쟁 당시 사용한 불발탄 해체작업을 하며 오늘 회식을 어디서 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시간, 조인창의 아내 “최지영”(수지역)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며 아들딸을 묻는데 의사가 답을 안한다. 조인창이 서울 강남 귀가길에 아내 지영에게 병원 다녀온 일을 전화로 물어본다.

라디오에서 북한 핵폐기 프로그램 보도가 나온다. 평양현장에서 ICBM 반출 보도를 하던 기자가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보며 기겁을 하는데 방송이 중단된다. 서울에서도 지진 진동이 감지되면서 조인창이 경보문자를 확인하는데 지진 7.8이다. 땅과 건물이 요동하며 맨홀뚜껑이 튀어 오른다. 조인창은 아내 지영을 걱정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다. 도로도 지진여파로 블랙홀과 건물 잔해가 넘친다. 장애물을 피해 달려가던 조인창이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며 멈추어 선다. 조인창이 차에서 하차하여 걷는 동안에도 건물 붕괴가 계속되고 도시는 아수라장이 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이 백두산 화산폭발하여 8등급으로 7.8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수일내에 추가 폭발이 예상된다는 재난상황보고를 받고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 공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안보수석은 중국이 국경지역에 3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미국은 주한미국인의 소개령을 내렸다고 보고한다. 청와대 민정수석 “전유경”(전혜진역)이 “강봉래”(마동석역) 교수를 찾아가 자문을 요청한다. 강봉래 교수는 사표를 제출해 이제 교수도 아니고 백두산 화산경고를 수차례에 걸쳐 말할때에는 관중취급하더니 막상 터지니깐 찾아 왔다고 냉대한다. 강봉래 교수는 자신의 미국명은 로버트로 소개령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 간다고 말한다. 전유경 수석은 강봉래 교수가 3년전에 발표한 논문을 검토한 사실을 전하는데 강봉래 교수는 목배개를 챙긴후 사무실을 나간다. 전유경 수석은 대학총장이 공금횡령으로 수사중이라 참고인 조사만으로도 출국금지될 것이라고 압박하며 3시간만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유경 수석은 백두산 화산 브리핑을 한다. 백두산 마그마 분포도를 설명하며 1,2,3차는 약하지만 4차 폭발은 8.0규모로 한반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전유경 수석이 회의중 참석한 강봉래

교수를 소개한다. 강봉래 교수는 화산 아래 마그마방의 압력이 문제라면서 마그마방 5km지점에서 TNT 600톤급 폭발을 일으키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강봉래 교수는 커피가 든 종이컵의 측면에 펜으로 구멍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땅굴을 파고 들어 가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청와대 직원이 백두산에 12개의 탄광이 있는데 9번 탄광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강봉래 교수가 탄광지도를 보면서 9번탄광이 3.5km깊이에 매장금속이 구리인지 묻는다. 위원들이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묻는데 강봉래 교수가 TNT600톤급으로 핵폭발밖에 없다고 말하자 대통령과 위원들이 당황해 한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유경 수석, 강봉래 교수가 심각한 대화를 나눈다. 대통령은 핫라인이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며 재난상황의 위기를 방관할 것인지 1%의 가능성이라도 시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강봉래 교수는 정확하게 모를 경우 더 큰 위기에 직면한다면서 성공확율은 3.48%로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3.48%라며 자신은 42.7%가 최종득표율이라고 성공확률을 높여 줄 것을 부탁한다. 대통령은 핵폭발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잔존한 핵무기를 회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령이 조인창이 키리졸브 연습과 한미연합훈련에서 ICBM해체 훈련 경험이 있다고 부대 복귀를 명한다. 조인창은 전역대기중으로 ICBM을 본적도 없다고 말한다. 대령은 조인창에게 미국인 소개작전에 조인창의 아내 최지영을 포함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건다. 귀가한 조인창이 짐을 챙기며 지영에게 목요일 오후 3시에 인천항에서 배를 꼭 타야 한다고 말한다. 조인창은 아들인지 딸인지 다시 물어보는데 지영이 답이 없다. 지영이 조인창에게 여보라고 부르자 조인창이 긴장을 한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작전수행할 대원들이 브리핑을 받는다. 국정원 요원이 북한에 남아 있는 ICBM 6기의 위치를 설명한다. 국정원에서 포섭한 북한 무력부 소속 일급 자원 "리준평"(이병헌역)을 설명하고 리준평에게 GPS가 이식되어 있는데 현재는 첩보행위가 발각되어 황해도에 수감중인데 리준평과 접선하여 핵을 회수하는 작전을 감행한다. "최장군"(이경영역)이 이번 임무는 불가침조약을 어기는 것으로 2개조 비무력작전이라고 설명한다. 폭발물처리반은 프로토타입 기폭장치로 한번 작동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기폭장치 설명을 듣는다. 조인창과 팀원들이 방호복 착용후 핵탄두를 기폭장치에 장착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합참지휘통제본부에서 강봉래 교수는 핵폭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계산을 하는데 성공확율 3.15%밖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시간 오산공군기지에서 특전사 본진과 EDO기술진이 수송기에 탑승하고 출발을 서두른다. 수송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자 화산재가 시야확보를 가린다. 최장군은 고도를 높이라고 지시하고 고도를 높여 시야를 확보한다. 조인창은 긴장하는 대원들을 다독거리며 300km 날아가 폭탄 몇 개만 해체하고 귀대하면 끝이라고 위로한다. 순간 "태식"(이상원역)이 특전사가 탑승한 수송기 엔진에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

한다. 1호기가 예정된 항공로를 이탈하자 대령이 모두 위험하다고 투하를 지시하자 대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송기에서 뛰어 내린다. 대령은 본진이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기술진은 투하에 성공했다고 보고한다. 조인창은 지상에서 최장군의 호출을 받는다. 최장군은 본진의 추락지점에서 블랙백 안에있는 탄광지도와 GPS를 확보하라고 지시한다. 조인창은 본진 추락지점으로 이동한후 블랙백과 GPS를 확보하고 알파팀의 생존자는 없다고 보고하는데 백업팀이 없으니 리준평과 접선하여 핵무기를 확보한 후 최종위치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조인창은 대원들과 GPS 신호를 따라 이동하며 폭탄을 폭발시키는 일이 추가되었다고 말하며 모두 헬멧을 착용하라고 지시한다. 리준평이 수감중인 수용소는 이미 폭동이 일어나 경비병들이 몰살당한채 있었다. 조인창은 리준평이 이중스파이로 위험인물이니 경계하라고 지시하고 수용소 내부로 진입한다. GPS좌표에 도착한 대원들이 리준평을 부른다. 조인창은 암호명 만리성의 첩보원들이 맞는지 확인한다. 잠긴 문을 폭탄으로 격발하고 조인창은 리준평에게 수갑을 채운다. 리준평은 위기상황속에서도 샤워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리준평은 작전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웃는다. 조인창은 리준평에게 핵무기 위치만 알려주면 풀어 주겠다고 말한다. 리준평은 샤워시간 10분동안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자신의 머리에 숨겨진 GPS를 꺼낸다. 조인창의 지갑을 훔친 리준평은 초음파사진과 탄광지도를 보고 지도를 외운뒤 삼켜 버린다. 대원들이 핵무기가 있는 함경도 함흥으로 이동한다. 조인창이 레몬맛 사탕을 꺼내 대원들에게 주는데 리준평도 달라고 말하며 먹는다. 그때 조인창이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리준평이 한눈 팔면 잃어버리기 쉽다고 지갑을 던져준다. 조인창이 지갑에 탄광지도가 없자 리준평이 자신도 보험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먹었다고 말한다. 박태식 중사가 리준평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수갑이 풀리지 않기를 바라라고 경고한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심을 지나다 쓰러진 김부자의 동상을 발견한 리준평이 그동안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편안하다고 말한다. 조인창이 최장군에게 전화해 리준평이 알려 준길로 가면 1시간 단축한다고 보고하자 최장군은 광고하려는 것인지 되묻고 우회로로 이동하라고 지시한다.

리준평이 화장실을 찾는다. 문어는 박태식에게 감시를 지시한다. 리준평이 담배를 물고 불을 달라고 말하자 박태식이 라이터를 던져 준다. 리준평이 담배에 불을 붙인후 라이터를 반대방향으로 던져 버린다. 박태식이 라이터를 잡으려는 순간 수갑으로 박태식 중사를 공격하고 쓰러 뜨린 후 사라진다. 뒤늦게 조인창이 GPS방향으로 가지만 리준평은 없고 리준평의 GPS만이 박태식과 함께 놓여져 있다. 지진으로 함흥시내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리준평이 집에서 옷을 갈아 입고 은닉해둔 권총과 폰을 찾아 중국요원에게 전화를 하여 재밌는 놈들이 찾아 왔다고 말한다. 조인창과 대원들이 함흥을 돌며 리준평을 추적중이다. 조인창은 리준평이 함흥을 경유

하러 한 것은 분명 개인적 용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민중사가 구역이 넓어 2개조로 나누어 수색할 것을 말하는데 조인창이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는 동상을 발견하고 리준평이 아파트에서 동상을 내려다 보고 사는데 힘들었다고 한말을 상기한다. 리준평이 소파에 앉아 쓰러진 "아내"(전도연역)를 깨운다. 리준평은 딸의 행방을 묻고 아내는 오빠가 사는 보천에 보내었다고 말한다. 리준평이 백두산 아래의 보천인지 되묻고 아내에게 총을 겨누며 자신을 밀고 한 이유를 물으며 총을 쏜다. 아파트로 향하던 조인창과 대원들이 총소리에 놀라 달려간다. 아파트에 도착한 조인창과 대원들이 리준평에게 총을 버리라고 지시한다. 리준평은 아내에게 지옥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총을 버린다. 리준평이 조인창에게 똥줄좀 탄거냐고 말하며 출발하자고 말한다. 분노한 조인창은 다음에는 말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영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집결지로 출발한다. 자강리에서 조인창은 대원들에게 작전을 설명한다. 조인창은 태식에게 높은 곳에서 전원을 엄호하라고 말하는데 리준평이 내부에는 최소인원만 남아 있다면서 적의 눈을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조인창이 리준평에게 계획을 묻는다. 리준평은 공장은 위장이고 지하에 핵무기 공장이 있다고 말하며 한명이 전원을 차단하면 야간 투시경으로 적을 제압하겠다고 말한다. 조인창이 태식에게 차단기를 내리라고 지시한다. 리준평이 다시 지금 상황에서는 밖에서 엄호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말하자 조인창이 태식에게 발전실 차단기를 내리라고 지시한다. 태식과 대원들이 발전실과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던 중 경비병이 침입자를 발견하고 총을 쏜다. 태식이 차단스위치를 못찾고 수류탄을 던져 파괴시켜 버린다. 민중사는 전원이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경비병을 공격한다. 그러나 조인창과 리준평이 위치한 곳에는 전원차단이 되지 않아 경비병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조인창이 리준평에게 권총을 건네자 리준평이 고무탄의 살상거리를 묻는다. 조인창이 모른다고 말하자 리준평이 조인창을 쏜다. 조인창이 쓰러지자 리준평이 일어나 자신의 소속을 말하고 적을 죽였다고 말한다. 경비병이 접근하자 조인창이 전기총을 쏘며 경비병을 기절시킨다. 리준평이 조인창을 세우며 합이 잘 맞는다고 웃는다. 리준평이 먼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들어 오라고 말한다. 리준평은 조인창에게 오늘이 며칠인지 물으며 집에서 챙겨온 필름을 꺼낸다. 리준평이 필름을 불빛에 비춰 본 후 비번을 누르자 컨테이너가 지하로 내려간다. 리준평이 핵미사일을 보여 주며 국보라고 말한다. 지하에는 ICBM 6기가 있다. 조인창은 민중사에게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대원들에게는 방호복으로 갈아 입고 분해작업을 지시한다. 대원들이 리준평을 구조물에 포박하자 약속과 다르다고 고함을 친다.

합참지휘통제본부에서 강봉래 교수가 계산을 하고 성공확율을 5.8%로 확인한다. 자강리에서 대원들이 미사일을 분리하고 핵탄두를 꺼낸후 기폭장치에 담는다. 백두산 2차 폭발이 시작되고 모두 속도를 낸다. 리준평이 구조물을 흔들며 빠져 나가려고

애쓴다. 한편, 집결지로 이동중인 지영의 자동차가 다리위에서 오가도 못하고 있다. 지진으로 다리가 흔들리고 차량 한 대가 지영의 자동차 측면을 추돌하고 지나간다. 팔당댐 붕괴경보가 발령되고 지영이 있는 방향으로 파도가 밀려 온다. 지영이 나가려 하지만 반대편 차량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 합참 지휘통제본부에서 강봉래 교수는 지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한다. 자강리 지진으로 지하건물이 폐쇄되고 있다. 리준평은 미사일 원통으로 입구를 막고 나간다. 민중사가 마지막 볼트가 망가져 탄두 5개면 안되는지 묻는다. 조인창이 공구로 볼트를 내리쳐 부수고 리준평은 승강기를 타고 나가 중국측 요원의 전화를 받는다. 중국요원은 기폭장치와 지휘관을 데려오면 국경통과를 보장하겠다고 말한다. 조인창과 대원들은 마지막 미사일 해체를 마치고 기폭장치를 챙긴후에야 리준평과 승강기가 올라간 사실을 발견한다. 그때 리준평이 승강기를 타고 내려와 조인창과 대원들을 태우고 올라가 무너지는 건물 밖으로 겨우 탈출한다.

한편, 한강에 빠진 지영이 수영을 하여 간신히 나온다. 자강리에서 조인창은 6기 모두 해체하고 기폭장치에 장착했다고 보고를 한다. 강봉래 교수가 전유경 수석에게 2차 폭발시기가 당겨진 것과 동시에 폭발시간도 단축되었다고 말하며 9번갱도가 아니라 7번갱도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강봉래 교수가 7번갱도에서 폭발했을때는 성공확률이 53%로 상승한다고 말한다. 조인창이 리준평에게 이제 각자 갈길 가자면서 지도를 뺏아 내라고 말하는데 리준평이 보험깡때가 멀었다고 말한다. 조인창이 고무탄을 쏘며 이 정도 거리가 살상거리라고 압력을 넣는다. 순간 레이저 조준기의 불빛이 보이면서 리준평이 조인창을 구명하며 몸을 피한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대원들을 쏘며 공격을 개시한다. 조인창이 최장군에게 교전이라면서 실탄사용허가를 요구한다. 최장군이 실탄사용을 허가하자 조인창이 태식과 민중사에게 시야 확보를 지시한다. 순간 미사일이 날아와 폭발하고 대원들이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다. 리준평이 열추적을 예상하자 조인창이 리준평에게 소총을 주며 자신이 트럭에 도착할 때 까지 엄호를 요청한다. 트럭에 도착한 조인창이 트럭 연료통에 기름을 뿌리고 민중사에게 연료통을 쏘라고 지시한다. 민중사가 트럭에 총을 쏘자 불이 붙고 조인창은 총상을 입은 미군을 발견하고 당황해 한다. 조인창은 전술차량에 올라타 출발한다. 조인창이 대원들을 확인하려는 순간 리준평이 조인창을 전기총으로 기절시켜 버린다.

합참지휘통제본부에서 미군사령관이 최장군에게 미군이 ICBM 회수작전중인 지역에 한국군이 있는 이유를 묻는다. 현장통제하던 미군들이 관련없는 자들을 내 보낸다. 강봉래 교수가 이 나라에는 미련이 없다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전유경 수석이 말린다. 자강리에서 현장을 장악한 미군이 한국군을 호송한다. 미군은 한국군 지휘관이 기폭장치를 가지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고한다. 건물위에 있던 민중사와 태식은 미군들을 지켜 본다. 리준평이 중국요원에게 8시에 보천에서 만날 약속을 제안

한다. 조인창이 깨어나 수갑이 채워진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풀라고 고함을 친다. 리준평은 국경에서 중국군이 기다리는데 불가침 조약을 위반한 증거로 기폭장치와 지휘관을 원해 보천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실에서 전유경 수석은 대통령에게 성공확율 53%로 7번탄광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 망설이고 있다. 전유경 수석은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고 말한다. 백두산 마지막 폭발은 이미 17시간 전으로 단축되었다.

보천으로 가는 길에 리준평이 드라마 다모의 결말을 궁금해 한다. 조인창은 모른다면서 자신은 미국 드라마(미드)를 본다라고 말한다. 조인창이 전술차량에서 탄피를 주워 수갑을 풀려 한다. 조인창은 리준평이 갖고 있던 GPS를 보여 주며 삼켜 버린다. 리준평이 배를 갈라서라도 꺼내겠다고 덤비는데 리준평을 밀며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를 출발시킨다. 산길을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나무를 들이받고 멈추어 버린다. 조인창이 전기총을 발견하고 달려드는 리준평을 쏘지만 물기에 젖은 바닥으로 두사람 모두 기절해 버린다.

백두산 폭발 16시간전, 미국인 집결지에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지영이 막아선다. 미군이 지영이 조인창 대위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차에 태운다. 버스에서 강봉래 교수가 조인창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라본다. 강봉래 교수가 울고 있는 지영에게 손수건을 건넨다. 지영이 강봉래 교수에게 한국인인지 묻는데 강봉래 교수는 로버트로 한국말을 잘 못알아 듣는다고 느스레를 하지만 지영도 영어에 능숙하다고 제압해 버린다. 보천으로 가는 길에서 기절했던 두사람이 의식을 회복한다. 리준평이 조인창의 수갑을 기폭장치에 채운다. 리준평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말하는 데 조인창이 제대일에 끌려왔다고 울먹거린다. 조인창은 리준평에게 백두산에 가야 한다고 애원을 한다. 두사람이 기폭장치를 들고 이동하다가 마을에서 리어카를 발견하고 기폭장치를 싣고 간다. 조인창은 곧 백두산이 대폭발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다그치며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지옥에 온 것이라고 말한다. 아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리준평은 초음파사진보고 처음부터 알았다고 말하며 다모 결말 말해주면 알려 주겠다고 말한다.

버스가 인천항에 도착하고 미군이 강봉래 여권을 확인한 후 출국장으로 안내한다. 최지영의 서류를 확인한 미군이 미국인 우선이라고 말하며 기다릴 것을 말한다. 최지영도 남편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서 기다리는데 강봉래 교수가 조인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다 하지 않는다. 보천으로 가는길, 상점에서 두사람이 기폭장치를 카트에 싣고 먹을 것을 찾는다. 조인창이 음료수를 마시며 콜라라고 말한다. 리준평은 자신이 딸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한다. 순간 가게안으로 미군이 들어오고 총을 겨누며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때 민중사와 박태식이 버스를 타고 가게안으로 돌진하여 조인창과 리준평과 기폭장치를 싣고 출발한다. 미군이 버스를

쫓으며 총을 쓰지만 역부족이다. 백두산 3차 폭발이 일어나고 버스가 현수교를 지나가다 다리를 지지하는 강선이 끊어져 버스 후면이 잘려 나간다. 충격으로 기폭장치도 버스밖으로 떨어지는데 조인창이 카트 손잡이를 붙들고 버티며 다리를 겨우 건너온다.

합참지휘통제본부에서 미군은 CIA에서 리준평과 중국 통화 감청결과를 보고 받는다. 사령관은 리준평이 보천에서 8시에 기폭장치를 넘겨 줄 것을 알게 된다. 인천항에서 지진이 계속되며 최지영을 지켜보던 강봉래 교수가 최지영에게 남편 조인창이 지금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강봉래 교수가 전유경 수석에게 전화해 조인창에게 바뀐 좌표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유경 수석이 방법을 모르자 강봉래 교수가 방법을 알려준다. 전유경 수석이 출입신청을 해 지휘통제본부로 진입한다. 복도에서 물을 마시며 경계하다가 미군병사가 사무실을 나가자 몰래 들어가 메모리에 다운받는다. 전유경 수석이 차로 이동하는데 CC-TV를 확인한 미군이 총을 겨누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대통령 경호원들이 나타나 전유경 수석을 데리고 나온다. 전유경 수석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견해를 이해하고 강봉래 교수의 학교로 간다. 강봉래 교수는 학교만큼 서버가 잘 된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영은 남편이 어떻게 북한까지 가게 된 것인지 묻는다.

리준평과 조인창이 서로 총을 겨눈다. 조인창은 리준평이 딸을 살리려면 이틀밖에 없는데 그전에 폭발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한다. 민중사는 용수리와 보천 교차로에서 멈춘다. 조인창은 지영이 지금은 배를 탔을 것이고 자신도 최선을 다했다면 리준평에게 기폭장치를 가져 가라고 말한다. 리준평은 조인창에게 모든 것을 걸어 보겠다고 말한다. 리준평이 초음파사진 후면에 지도 그림을 그려 준후 딸이 있는 집을 향한다. 용수리 방향으로 향하던 조인창이 지영의 전화를 받고 놀란다. 강봉래 교수가 인천항에서 배를 못탔다고 말한다. 조인창은 최장군을 바꿔 달라고 말한다. 강봉래 교수는 최장군은 이곳에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책임자라고 말한다. 강봉래 교수는 조인창이 북에 가게 된 경위가 자신의 연구논문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옆에 있던 최지영이 더 놀란다. 강봉래 교수는 변수가 발생했다면서 최종목적지는 7번탄광 라-29번 위치라고 말한다. 전유경 전 수석은 미군들이 보천으로 간 이유를 묻는데 조인창이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의 방향을 급하게 돌린다. 리준평이 폐허가 된 건물터에서 순옥을 발견하고 다가 가는데 순옥은 아빠의 손을 물고 피하려 한다. 순옥은 아빠가 건네는 사탕에 관심을 가지며 먹으려 하는데 노인이 아이가 충격으로 말을 잊었다고 귀뜸한다. 순간 중국요원들이 나타나 리준평에게 총을 겨누며 기폭장치와 지휘관의 행방을 묻는다. 리준평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하려는데 중국요원들이 총을 쏘아 버린다. 총에 맞은 리준평이 딸과 함께 국경을 넘겨주면 정보를 주겠다고 말하지만 불신하며 옥신각신하는 순간 미군들이 사격을 하며 양측이 대치한다. 그때, 조인창이 택시를 타고 나타난다. 미군들이 택시 트렁크에서 기폭

장치를 발견하고 사격을 중지한다. 조인창이 중국요원들에게 기폭장치를 가져왔다고 리준평에게 통역을 요구한다. 한편, 합참 지휘통제본부 상황실에서 보던 미군 사령관이 기폭장치가 작동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의 미군에게 점검을 지시한다. 조인창이 기폭장치는 중지버튼이 없다면서 계속 누른다. 조인창은 살고 싶으면 당장 떠나라고 소리 친다. 조인창은 노스탑이라고 소리치며 백두산 폭발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중국요원들이 물건을 얻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자리를 떠나 버린다. 미군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자리를 떠나 버린다. 조인창은 민중사에게 태식, 리준평, 순옥과 함께 무사히 귀환할 것을 지시한다. 리준평이 자기 때문에 버튼을 누른 것이라면서 순옥에게 머리핀을 주면서 조인창과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강봉래 교수가 최지영에게 조인창의 전화를 연결해 준다. 조인창은 지영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지영은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조인창과 리준평이 7번탄광 입구에 도착해 내부 전원 스위치를 올린다. 기폭장치를 가지고 탄광내부 승강기장으로 도착하자 지진으로 전기가 멈춘다. 조인창은 탄광안에 있는 폭약에 도화선을 연결하고 승강기 고정 고리에 연결한다. 조인창이 리준평에게 다모에서 채옥과 홍보윤이 모두 죽는다고 엔딩을 말한다. 리준평은 다모의 결말을 알았다면서 승강기의 문을 닫아 버린다. 리준평은 조인창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직접가서 확인하라고 말한후 이제 부터는 혼자 가겠다고 말한다. 리준평은 지금까지 한번도 아빠인적이 없었다면서 조인창은 아빠의 기회를 찾으라고 말한다. 리준평이 라이터를 도화선에 불을 붙이자 폭약이 터지면서 승강기가 지하 갱도에 떨어진다. 조인창이 탄광입구로 나와 자동차로 출발한다. 지하갱도로 내려간 리준평이 기폭장치를 밀어 라-29번 위치로 이동한다. 서울 병원 야외천막에 임시 병실이 준비되고 지영이 출산을 한다. 강봉래 교수는 지진 강도를 지켜본다. 7번 지하갱도에서 리준평이 좌표위치에 도착해 누워 있다. 리준평이 주머니에서 캔디를 꺼내 먹으며 달다고 혼자말을 한다. 기폭장치가 작동하고 핵폭발이 일어난다. 지반에 충격파가 발생하여 조인창은 흙먼지속에 빨려 들어 간다. 강봉래 교수가 지진강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하고 기뻐하는 순간 지영도 아이를 출산한다.

1년후, 서울에서 한반도 재건위원회가 출범한다는 뉴스를 전유경 전 수석이 보고 있다. 강봉래 교수가 귀국길에 전유경 전 수석을 만나 백두산의 지열을 이용한 고압 신재생에너지 연구의뢰를 받았다고 말한다. 조인창은 리준평의 딸 순옥을 데리고 와 아기를 보고 있다. 아기가 뱀 한마디에 엄마 아빠가 서로 엄마아빠를 불렀다고 고집을 피운다.

쿠키영상, 리준평이 전술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 전기총을 맞고 잠이든 조인창이 누워서 "꾸띠뿌띠"(큐티쁘띠)라고 중얼 거린다. 리준평은 돌아보며 뺨빠진 놈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로 한반도 전체를 강타할 것이라는 경고가 전해져 왔다. 영화 백두산은 이러한 논쟁을 소재로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등 현존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하여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핵폭탄으로 화산폭발을 감소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만화같은 공상이지만 핵무기의 위력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겪게되는 지진과 재해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시대, 세상은 혼란스럽고 공포는 자연스러운 광경이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자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더욱더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냉정한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8. “천문:하늘에 묻는다”Forbidden Dream

한국영화, 장르:시대극, 개봉:2019.12.26.

감독:허진호,

제작:하이브미디어코프,

주연:최민식,한석규,

관객:1,611,402명(2020.01.05.기준)

1. “장영실”(蔣英實)

장영실은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세종대왕 재임중, 천부적인 재능과 기술을 인정받아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자로 부상하였다. 본관은 아산(牙山), 아버지는 중국인 어머니는 기녀로 장영실은 동래현의 관노였으나 1423년(세종5년), 노비신분에서 해방되어 상의원 별좌(尙衣院別座)로 임명되었다. 1424년, 중국의 체재를 참고로 물시계를 만듦으로서 행사직(行司直)이 되었다. 1432년, 간의대 제작에 착수하고, 1433년, 호군(護軍)에 올랐다. 그 해 6월, 혼천의(渾天儀)를 완성하고 1434년, 자격루(自擊漏)를 제작하였다. 이로서 1434년 7월1일부터 자격루에 맞추어 표준시간이 정해졌다. 1437년, 천체관측용 기구인 대소간의(大小簡儀), 공중시계인 양부일구(仰釜日晷), 휴대용 해시계인 현주일구(懸珠日晷), 1441년,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測雨器)를 완성하고 상호군(上護軍)으로 특진하였으나 1442년, 왕의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로 파면당하였다.

2.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

역수같은 비가 내리는 날, 세종이 가마 안여를 타고 이천행궁을 가던중 안여가 부서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는다. 안여사고 4일전, 명나라 황제의 사신 “오양”(김성강역)이 조선 세종을 찾는다. 황제의 칙서에는 조선이 대국명의 천문을 폐하고 스스로 만든 기계로 독자적인 시간을 만든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책임자를 명으로 압송하라는 압박문구가 있다. 오양은 세종에게 3일간의 시간만을 허락한다. 분노한 “세종”(한석규역)이 쓰러지고 신하들은 세종을 부축한다. 대사헌 “정남손”(김태우역)은 명 사신 오양에게 천문관측기구인 간의가 있는 곳에 안내하여 확인시켜 준다. “영의정”(신규역)은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병조판서 “이천”(김홍파역)은 대호군 “장영실”(최민식역)을 명으로 보낼수 없다고 말하고, 정남손은 보내야 조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남손은 장영실을 먼저 잡아 넣고 세종에게 주청을 올리겠다고 말하는데 영의정이 기다리라고 말한다. 한편, 세종은 이천과 대화중 명과 내통하는 신하가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궁궐의 물품을 수리하는 선공감에서 장영실은 세종이 탈 가마를 제작하고 있다. 장영실은 가마 안쪽 천정에 천문도를 새기

고 금빛 물감으로 별자리를 그리고 있다. 선공감의 “조순생”(김원해역), “임효돈”(임원희역), “최효남”(윤제문역)이 장영실 때문에 짓게 된 가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 “사임”(전여빈역)이 장영실을 찾으며 서운관에 있는 천문의기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하는 소리에 장영실이 서운관으로 향한다. 장영실이 천문의기를 막으려 하자 관리가 어멍이라고 말하는 소리에 당황한다. 장영실은 곧바로 궁궐을 향한다. 세종과 이천이 대화중에 장영실이 달려와 막무가내로 알현을 요구한다. 대호군 장영실이 세종에게 서운관 천문의기들이 모두 해체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세종은 자신이 태우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으니 장영실도 그만 쉬어라고 위로한다. 장영실은 세종이 꿈 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 죄가 되는지 묻는데 세종은 죄라고 말한다.

20년전 세종4년, 함박눈이 내리는 날, 세종의 명을 받은 “이순지”(오광록역), “최천구”(김승태역), “윤사옹”(최재섭역)이 서운관에서 책을 구해 돌아오다 서책이 눈비에 젖어 윤사옹과 최천구가 말리려고 펼치려다 찢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순지가 세종께 책을 구했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복원하기 위해 장영실에게 맡긴다. 다음날 세종이 신하가 구해 온 책을 확인하는데 물시계 그림에 왜 코끼리가 있는 것인지 설명하는데 횡설수설이다. 세종이 알아 들을 수 없어서 그림을 그린자를 찾는데 재주가 좋아서 동래현에서 데려온 관노 장영실이라고 답한다. 세종은 장영실을 부른다. 장영실이 세종앞으로 나아 오자 장영실에게 설명을 명한다. 장영실은 코끼리가 없어서 만들 수 없다고 말하자 세종이 “정내관”(이서환역)에게 왜 나라에서 선물로 보낸 코끼리를 묻는다. 정내관은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전라도 장도로 귀향을 보냈다고 고한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코끼리를 데려오면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묻는다. 장영실은 코끼리가 없어도 조선에 맞는 것을 만들면 된다고 고한다. 세종이 장영실에게 만들어 보라고 명하고 장영실은 물시계를 제작한다. 장영실이 큰 독에서 물이 떨어지면 쇠구슬을 떨어뜨려 굴러가 소리가 나는 것을 만들어 보인다. 장영실이 서고에 들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최천구가 들어와 노비신분이 들어 왔다고 장영실의 뺨을 때린다.

이천이 보자기를 쓴 상자를 장영실에게 건네며 세종에게 가라고 말한다. 장영실이 상자를 들고 세종을 찾는다. 세종이 상자를 열어 보라고 말하며 교지를 내린다. 정내관이 교지를 읽는다. 서운관 관노 장영실을 면천하고 정5품 행사직을 하사한다. 장영실은 꿈인 듯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장영실이 관복을 입고 서운관으로 돌아오자 최천구가 당황해 한다. 영의정과 대신들이 대화중에 세종이 찾아와 장영실에 대한 교지를 보류한 이유를 묻는다. 대사헌 장남손은 조선의 근간인 신분체계를 붕괴시키는 일을 선례로 남겨서는 안된다고 고한다. 세종은 영의정에게 의견을 묻는데 선왕때도 용명한 자를 관직에 등용한 사례가 있으니 품계를 낮추는게 좋을 것 같다고 아뢴다. 세종이 품계는 대신들이 의논해 보고하라고 명하고 돌아간다. 늦은

밤 세종이 침전에서 책을 보다가 서운관을 찾는데 그곳에서 늦은밤까지 물시계를 만들려고 도면을 그리는 장영실을 발견하고 조용히 돌아간다. 다음날 아침 세종이 다시 서운관을 찾는데 장영실이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어있다. 장영실은 물시계 부품을 하나씩 만든 뒤 최천구에게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보루각에서 완성된 물시계 시연을 보기 위해 세종과 신하들이 모여 있다. 이천은 주부 장영실에게 시연을 명하고 장영실이 시연을 보이자 해시계를 지켜보던 윤사옹이 미초시(오후1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아뢴다. 세종은 백성들이 이제 밤에도 자격루의 종소리에 맞추어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뻐한다.

늦은밤 세종이 밤하늘을 보고 있다. 장영실을 옆에 앉게 하고 다시 같이 눕게 하여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세종의 별로 지칭한다. 세종은 장영실의 별을 묻지만 장영실은 천출은 별이 될 수 없다고 아쉬워 한다. 노비의 신분으로 하늘보다 땅만 보고 살아온 세월을 한탄한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조선의 간의를 만들라고 말한다. 세종은 대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몇 년째 흉작이라 백성들이 먹는 보리밥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세종은 조선이 명나라와 절기가 달라 씨를 뿌리는 시기가 다르다면서 간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남손이 천문은 명나라 황제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세종이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된다고 장영실에게 맡긴다. 장영실은 간의대와 간의를 만드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한다. 장영실이 혼천의를 만들 때 세종이 도와준다. 비오는 날 밤, 장영실이 소형 간의를 들고 세종을 찾는다. 세종은 빨리 별을 보고 싶는데 비가 온다고 아쉬워 하자 장영실이 방문 창호지에 점을 찍으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연출한다. 간의가 완성되고 장영실과 서운관 신하들이 별자리를 관측하고 기록한다. 신하들이 별자리를 관측하고 기록한 다음 명나라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윤사옹은 한양이 명나라 수도인 남경보다 반시진이 빠르다고 감탄한다. 세종 또한 우리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한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장영실은 세종의 곁에 있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영의정은 명나라에서 이 일을 알게 된다면 큰 일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정남손은 차라리 우리가 명에 먼저 알려 더 큰 화를 면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안여사고 3일전, 신하들은 간의대위에 있는 간의를 당긴다. 간의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서운관에 있는 각종 천문관측기구와 서적들은 불에 태워져 흔적없이 사라져 간다. 장영실은 서운관에서 부서진 소형 혼천의를 챙긴다. 사임이 장영실에게 사헌부 감찰이 찾으니 빨리 피하라고 알리지만 장영실은 울부짖으며 통곡한다. 정남손이 사헌부 군사를 데려와 장영실을 옥사에 가두어 버린다. 세종은 장영실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사헌 정남손에게 장영실을 투옥하라는 지시를 내린적이 있는지 재차 물으며 압박하는데 정남손은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자신의 지시없이 명나라 사신 오양을 간의대로 데려가고 장영실을 체포한 것이 관례인지 되묻는데 영의정은 조선의 안위를 위해 대호군을 명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

며 충심이라고 고한다. 세종과 세자 “이항”(박성훈역)이 선왕인 태종의 검은 곤룡포를 보며 옛날의 피바람을 기억한다. 세종은 세자에게 선위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영의정과 대신들이 선위를 고집하면 신하 또한 조정에서 퇴임하겠다고 말한다. 세종은 이천행궁 요양을 다녀온 후 결정하겠다고 재차 압박한다. 선공감에서 임효돈과 최효남이 세종이 탈 가마 마감작업을 끝내고 바퀴를 확인한다. 다음날 세종은 장영실이 만든 가마를 타고 이천행궁을 나선다. 한편, 옥사에 투옥된 장영실은 세종이 이천행궁을 떠난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사헌 정남손은 세종이 결정을 미룰 때 영의정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정부 6조는 영의정에 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밀어 붙인다. 정남손은 세종이 천문연구가 끝이 아닐수 있다고 말하며 장영실의 처소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를 보여준다. 늦은밤 영의정은 장영실을 찾아가 술잔을 건네며 상자속에 있는 “이도”라는 글자를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인지 묻는데 장영실이 매우 당황한다. 영의정은 장영실에게 명나라에 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래전, 장영실이 보자기에 쓴 작은 물건을 가지고 세종을 찾는다. 세종은 한글로 “이도”라고 쓴 뒤에 자신의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세종은 장영실의 손을 잡고 “영실”이라고 쓴 뒤 장영실의 이름이라고 말한다. 세종이 이것은 새로운 글자로 모든 사람이 쉽게 쓸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장영실은 이 글자 때문에 자신을 멀리한 것인지 물으며 세종의 안위를 염려한다. 세종은 명나라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며 때가 되면 다시 부를테니 돌아 가라고 말한다. 장영실이 가져온 보자기에는 작은 간이가 들어 있다.

안여사고 1일전, 명나라 사신 오양이 장영실을 압송하여 길을 떠난다. 세종의 마차가 이천행궁으로 가는길에 폭우가 쏟아 지면서 바퀴가 빠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순간 바퀴축이 빠져 나가 가마가 전복되면서 세종이 바닥에 굴러 떨어진다. 신하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이천이 바퀴가 부러진 조각을 확인하고 누군가 바퀴에 손을 대었다고 보고한다. 세종은 이천에게 한양으로 급파해 “조말생”(허준호역)대감을 은밀히 찾으라고 지시한다. 조정 대신들 또한 영의정에게 안여가 부서지고 이천이 한양으로 오는 이유를 수상하게 생각한다. 이천은 세종이 조말생 대감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추천했다고 말한다. 조말생은 세종이 하사한 상방검을 건네며 방패군을 이끌고 가 장영실을 잡아 오라고 지시한다. 한편, 강화도 관청에서 명의 사신 오양이 정남손과 연회를 한다. 오양이 장영실을 불러 술잔을 건네는데 장영실이 술판을 갈아 엮는다. 장영실은 명나라가 자신이 만든 것을 만들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조롱한다. 장영실이 귀짝을 들어 올리는데 금기가 쏟아진다. 장영실은 오양이 보고 싶어하는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화병에 오줌을 싸 그 오줌을 오양에게 던져 버린다. 분노한 정남손이 칼을 뽑아 들고 명사신 오양이 장영실을 죽이라고 요구한다. 순간 군사들이 강화도 관청에 도착해

포위하고 모두 한양으로 압송한다.

조말생은 영의정과 조우하며 압박수단을 높인다. 조말생은 영의정이 늦은 밤 은밀하게 장영실의 옥사를 찾아간 이유를 묻는다. 선왕 태종대왕이 검은 곤룡포를 입고 있을 때 피바람이 분 사실을 기억하는지 묻는다. 방패군이 안여사고와 관련된 모든 대신들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윤중부"(이동용역)의 금괴를 발견한다. 조말생은 대신들을 조사하며 명나라에 밀서를 가져간 자가 누구인지 취조한다. 조말생이 선공감 기술자들인 임효돈과 최효남, 조순생을 취조하지만 성과가 없다. 옥사에서 "백호사령"(현봉식역)이 선공감 기술자들에게 밥을 갖다 준다. 그때 한양으로 압송된 장영실이 옥사로 들어온다. 장영실이 선공감 기술자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묻는데 조순생이 안여바뀌가 부서져 죽을 지경이라고 말한다. 장영실이 세종의 안부를 묻자 조순생은 본인 걱정이나 하라고 안타까워 한다. 세종은 방패군과 함께 한양으로 입성한다. 궁궐에서 세종은 병조판서 이천에게 죄인들과 대신들을 모두 집합시켜라고 지시한다. 세종은 조말생에게 방패군으로 대궐을 포위하라고 지시한다. 대신들이 긴장한 상태로 대전안으로 들어가자 군사들이 문을 닫고 막는다. 세종은 선왕의 검은 곤룡포를 입고 나타나 역모를 거론한다. 잠시후 병조판서가 오양과 정남손을 데려와 정남손이 명과 내통한 서신과 윤중부의 집에서 발견한 금괴를 증거로 제시한다. 세종이 오양과 정남손에게 안여사고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추궁한다. 정남손은 사신이 떠나는 날 전례로 하는 연회를 설명한다. 세종은 모든 것이 전례로 왕에게 지시받을 것이 전혀 없는지 욕설을 한다. 세종은 오양에게 사리사욕으로 명황제의 칙서를 조작하고 이익을 취한 것을 알고 있다고 장영실을 두고 떠나라고 명한다. 오양이 떠나지 않으면 역모죄로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서둘러 궁을 나간다. 세종이 칼을 뽑아 정남손을 겨누며 극한 압박을 가한다. 세자가 검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고 영의정도 관용을 청한다. 그러나 영의정이 세종에게 문자를 갖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역공을 한다. 세종이 놀라 영의정이 건네는 상자를 열고 모두 내전밖으로 물린다. 세종은 영의정에게 지금 다 죽자는 것인지 묻는다. 세종은 영의정에게 독립적인 조선을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묻고 영의정은 글자는 사대부의 것이고 사대부없이 아무것도 이를 수 없다고 말하며 글자와 장영실 가운데 택일할 것을 요구한다.

장영실은 망치질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면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가진 재주가 살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재주로 투옥되었다고 한탄을 한다. 비가 내리는 날, 장영실이 옥사의 구멍뚫린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천이 찾아와 세종에게로 데려간다. 장영실은 세종이 자신을 잊었다고 섭섭함을 표시한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안여 바뀌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한다. 세종은 글씨 목판상자를 보이며 정음이라는 글자 이름을 말한다. 장영실은 세종에게 백성들 모두 글을 읽고 쓰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면서 약해지지 말라고 응원한다. 그러나 세종은 글자 때문에 장영실을 잃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천이 장영실과 함께 걸어가다 짐꾸러미를 건네며 이 길로 곧장 떠나라고 말하는데 장영실은 옥사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국문이 시작되고 세종은 장영실, 조순생, 임효돈, 최효남의 국문을 시작한다. 선공감 관리들의 형량은 직첩을 박탈하고 곤장 80도, 장영실의 형량은 직첩박탈과 함께 곤장 100도라고 보고한다. 영의정이 장영실은 나라를 위한 공헌도를 참작해 사면을 요청하는데 장영실이 역모의 주역이 자신이라면서 처벌을 요구한다. 장영실은 더욱 더 높은 소리로 한탄을 하는데 세종과 장영실은 서로의 눈빛으로 진심을 교환한다. 그후 장영실은 곤장 80도 형벌을 받았고 그후 생사기록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2년후 천문역서 칠정산이 발간되었고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영화는 끝이 났다.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서정시를 연상케 한다. 지금의 세상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면 과학은 수세기를 뛰어 넘는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많은 감동을 준다. 왕의 곁에만 있고 싶다는 장영실의 소원처럼 하나님곁에만 있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종의 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모든 생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